



고맙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은 조금 나누는 것이고
지혜를 나누는 것은 많이 나누는 것이며
사랑을 나누는 것은 전부를 나누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어 후배들의 앞길을 밝혀주신
모든 졸업생과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2021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후배들과
경북진학지원센터 일동

면접후기 참여학교 명단(78개교)

경구고등학교	안동고등학교
경북외국어고등학교	안동여자고등학교
경산여자고등학교	안동중앙고등학교
경안고등학교	영광여자고등학교
경주고등학교	영남삼육고등학교
경주여자고등학교	영덕고등학교
계림고등학교	영덕여자고등학교
구미고등학교	영양고등학교
구미여자고등학교	영주고등학교
군위고등학교	영주여자고등학교
근화여자고등학교	영주제일고등학교
금성고등학교	영천고등학교
금오고등학교	영천여자고등학교
금오여자고등학교	영해고등학교
길원여자고등학교	예천여자고등학교
김천여자고등학교	오천고등학교
김천중앙고등학교	우석여자고등학교
대가야고등학교	울릉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울진고등학교
대창고등학교	유성여자고등학교
도개고등학교	울곡고등학교
두호고등학교	의성고등학교
무산고등학교	의성여자고등학교
무학고등학교	인동고등학교
봉화고등학교	점촌고등학교
북삼고등학교	죽변고등학교
사곡고등학교	진량고등학교
사동고등학교	칠곡고등학교
상주여자고등학교	포항고등학교
석적고등학교	포항동성고등학교
선덕여자고등학교	포항여자고등학교
선산고등학교	포항이동고등학교
선주고등학교	포항장성고등학교
성의고등학교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
성주여자고등학교	하양여자고등학교
성창여자고등학교	한일여자고등학교
세명고등학교	현서고등학교
순심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순심여자고등학교	효령고등학교

* 후배들을 위해 면접후기를 기꺼이 제출해 주신 모든 졸업생과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

CONTENTS

KC대학교	1	경기대학교	48	경운대학교	104
	간호학과		디자인비즈(산업디자인)		간호학과
가야대학교	2		신소재공학과		경찰행정학과
	특수교육		호텔경영학과		군사학과
가천대학교	3	경남대학교	53		안전방재공학과
	간호학과		군사학과		의료서비스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경북대학교	55		항공기계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간호학과	경일대학교	110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		간호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	11		경제통상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국어국문학과		소방방재학과
가톨릭대학교	12		기계공학부		사이버보안
	바이오융합공학계열		바이오섬유소재학과		응급구조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영어영문학부		식품공학부	경희대학교	118
강릉원주대학교	18		신문방송학과		국제학과
	관광경영학과		생명공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치의예과		수학과		소프트웨어융합
강원대학교	22		아동학부		원예생명공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우주과학과
	기계이용·메카트로닉스·재료공학부		응용생명과학부		유전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인문사회자율전공		응용물리학과
건국대학교	27		자연과학자율전공		의예과
	건축학부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
	경제학과		지구시스템과학부		주거환경학과
	교육공학과		체육교육과		지리학과(자연)
	기계항공공학부		화학과		컴퓨터공학과
	사학과	경상대학교	90		한의예과
	사회환경공학부		기계융합공학과		화학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경제학과		Hospitality 경영학부
	식량자원과학과		나노신소재공학부	계명대학교	144
	의생명공학		법학과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공학부		사회학과		경찰행정학과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45		중어중문학과		공중보건학과
	문화콘텐츠학부		화학공학과		교통공학과
	바이오융합과학부	경성대학교	102		국제통상학과
건양대학교	47		간호학과		도시계획학전공
	간호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생명과학과

세무학과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제약공학과
소비자정보학과	자동차공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
식품가공학전공	정보보안암호수학과	대구대학교 278
의예과	극동대학교 220	간호학과
의용공학과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경찰행정학과
자동차시스템공학과	금오공과대학교 221	국어교육과
전기에너지공학과	건축학부	사회복지학과
고려대학교 164	경영학과	심리학과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기계공학과	영어교육과
경영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유아교육과
국어교육과	메디컬IT융합공학과	특수교육학과(초등)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산업공학부	대구한의대학교 294
사회학과	응용수학과	경찰행정학과
서어서문학과	응용화학과	물리치료학과
수학교육과	전자공학부	바이오산업융합학부
심리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뷰티케어 산업학과
전기전자공학부	토목공학	상담심리학과
환경생태공학부	화학소재공학부	소방방재안전학부
고려대학교 세종캠 180	김천대학교 243	중등특수교육학과
스포츠비즈니스전공	물리치료학과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고신대학교 181	작업치료학과	한방식품영양조리학부(조리과)
간호학과	나사렛대학교 245	호텔관광학과
공주대학교 183	특수교육과	화장품공학과
간호학과	남부대학교 246	대원대학교 310
건설환경공학부	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관광학부	남서울대학교 247	대전대학교 311
문헌정보교육과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단국대학교 248	물리치료학과
수학교육과	소프트웨어학과	법학과
광운대학교 192	단국대학교 천안캠 249	한의예과
동북아문화산업학부	문예창작과	대진대학교 32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251	공공인재법학부
법학부	간호학과	덕성여자대학교 321
전자재료공학과	건축학과	글로벌융합대학
화학과	교육학과	동국대학교 323
광주대학교 205	국어교육과	건설환경공학과
뷰티미용학과	소프트웨어융합과	경영정보학과
광주여자대학교 206	심리학과	국제통상학과
간호학과	언론광고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국민대학교 207	영어교육과	수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유아교육과	역사교육과
교육학과	응용화학전공	전기전자공학부
사회학과	자율전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지리교육과	상명대학교	383	성균관대학교	435
	통계학과		문헌정보학과		교육학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340		컴퓨터학과		수학교육학과
	영어영문학과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387	성신여자대학교	438
	한의예과		디자인학부		식품영양학과
	호텔외식경영학부	서경대학교	389		일본어문·문화학과
	행정·경찰공공학부		영화영상학과	세명대학교	441
동덕여자대학교	34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90		항공서비스학과
	미디어디자인과		건축공학과	세종대학교	442
	컴퓨터학과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생명시스템학부
동명대학교	351		식품공학과		정보보호학과
	국제물류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동서대학교	352	서울대학교	396	세한대학교	447
	간호학과		농경제사회학부		항공서비스학과
	체육학과		수의예과	숙명여자대학교	448
동아대학교	355		수학교육과		수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식물생산과학부		영어영문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순천향대학교	452
	영어영문학과		인류학과		특수교육과
	화학공학과		자유전공학부	승실대학교	454
동양대학교	362		지리교육과		국제법무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천체물리학부 물리학전공		글로벌미디어학부
동의대학교	363		화학부		기계공학부
	간호학과	서울시립대학교	417		물리학과
명지대학교	365		공간정보공학과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기계공학과		도시사회학과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아랍지역학과	서울신학대학교	422	신라대학교	466
	영상디자인학과		일본어과		유아교육과
	융합공학부	서울여자대학교	424	신한대학교	467
목원대학교	372		식품응용시스템학부		행정학과
	응용미디어 컴퓨터학부		아동학부	아주대학교	468
목포대학교	373	서원대학교	428		간호학과
	정보보호학과		영어교육과		건설시스템공학과
부산대학교	375	선문대학교	430		기계공학과
	국어국문학과		상당산업심리학과		미디어학과
	식물생명과학과		치위생학과		불어불문학과
부산외국어대학교	378	성결대학교	433		소프트웨어학과
	영상콘텐츠융합학과		연극영화학과	안동대학교	481
부천대학교	380	성공회대학교	434		국어교육과
	항공서비스학과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과		기계공학과
삼육대학교	381				법학과
	물리치료학과				사학과

	생활복지학과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장로회신학대학교	615
	수학교육과	뷰티디자인경영학과	신학과	
	영어교육과	소방안전학부	전남대학교	616
	원예생약융합학부	솔브릿지 경영학부	고분자융합부	
	윤리교육학과	외식조리전공	에너지자원공학과	
	응용화학과	유아교육과	전북대학교	619
	자동차공학과	철도경영학과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보안학과	신문방송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울산대학교	570	전주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사회과학부(경찰학)		624
연세대학교	509	생명공학과	제주대학교	625
	기계공학부	전자공학부	수의예학과	
	사회학과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산업공학과	간호학과	조선대학교	629
	시스템생물학과	치의예과	국어교육학과	
	HASS(융합인문사회과학부)	한의예과	중부대학교	630
	정치외교학과	위덕대학교	항공서비스학전공	
연세대학교 미래캠	522	간호학과	중원대학교	632
	간호학과	특수교육학과(중등)	경찰행정학과	
	동아시아국제학부	유원대학교	633	차의과학대
	방사선학과	경찰소방행정학부	간호학과	
	의예과	을지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영남대학교	531	방사선학과	창원대학교	637
	가족주거학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건설시스템공학	경영학과	기계공학과	
	건축학부	국어교육과	컴퓨터공학과	
	경제금융학부	정치외교학과	청주대학교	640
	교육학과	체육과학부	수학교육과	
	군사학과	초등교육학과	충남대학교	641
	물리학과	엘텍공과대학	건축학과	
	사회학과	화학신소재공학전공	경영학과	
	수학교육과	인제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무역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인천대학교	물리학과	
	화학생활화학부	도시건축학과	사회복지학과	
영남신학대학교	553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생물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생화학과	
영산대학교	554	정보통신공학과	심리학과	
	호텔관광학과	인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우석대학교	555	교육학과	전기공학과	
	한약학과	아태물류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우송대학교	556	의류디자인학과	화학과	
	간호학과	전기공학과		

충북대학교	660	한림대학교	716	사관학교	
	국어교육과		간호학과	국군간호사관학교	785
	국제경영학과		생명과학과	공군사관학교	787
	생명과학과	한밭대학교	720	육군사관학교	789
	심리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해군사관학교	793
	전자공학부	한서대학교	721		
	화학과		항공관광학과		
포항공과대학교	671		항공운항학과		
	단일계열	한신대학교	723		
한경대학교	674		국제관계학부		
	법경영학부		응용통계학과		
	ict로봇기계공학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	725		
한국교원대학교	676		소프트웨어학부		
	생물교육과	호남대학교	727		
	초등교육학과		항공서비스학과		
한국교통대학교	680	호서대학교	728		
	기계시스템항공공학부		법경찰행정학과		
	정보기술공학부		항공서비스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83	호원대학교	730		
	컴퓨터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전기전자통신부	홍익대학교	73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687		디자인학부		
	임베디드시스템전공		디자인컨버전스학부		
한국외국어대학교	689	홍익대 세종캠	736		
	국제금융학과		영상애니메이션		
	영미문학·문화학과	전국교육대학교			
	중국어언어문화학부	경인교육대학교	737		
	GBT	공주교육대학교	741		
한국외대 글로벌캠	695	광주교육대학교	743		
	스페인어통번역과	대구교육대학교	746		
	통계학과	서울교육대학교	75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698	전주교육대학교	761		
	융합고고학과	진주교육대학교	762		
한국항공대학교	700	청주교육대학교	768		
	항공우주기계				
한남대학교	701				
	법학부	과학기술원			
	컴퓨터공학과	DGIST	771		
한동대학교	703	GIST	775		
	자율전공	KAIST	776		
한라대학교	715	UNIST	779		
	토목공학과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KC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농어촌교과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1 면접 (교수님:지원자)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세요.

A : 삼행시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호의적이며
 사랑을 나누고 싶은 ○○○입니다.

Q : 다른 학교도 있는데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A : 케이씨대학은 다른 학교보다 학사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글로벌 클리닉 같은 제도들이 너무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간호학과 지원하게 된 계기는?

A : 예전부터 어머니가 루푸스를 앓으셔서 딸의 입장으로 간호를, 옆에서 지켜 드리고 싶어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이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한 활동이 무엇인가요?

A : 씨피알 하임리히 같은 응급치료를 배워서 전교생 앞에서 연극을 했고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표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 마지막으로 이 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어머니와 했던 약속처럼 꼭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특수교육	○		
전형명	인문계고졸업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시험관 3명, 수험생 3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가능, 오랜 시간대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과에 지원한 이유와 동기를 말해보세요.

A :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특수반이 있는 학교에 재학하며 특수반 친구들과 마주칠 일이 많았고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니 더욱더 솔직하고 친절한 특수반 친구들이 사회에 더욱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가야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의 장점과 좋은 습관은?

A :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노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항상 끝까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많은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인드와 노력을 저의 장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Q :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과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자신의 상사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상상도 못 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함.
- ◆ 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필수 준비
- ◆ 다른 예상 질문은 참고만 하기
- ◆ 순발력과 센스를 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응할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가천 바람개비1 전형(학생부 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학과를 포함하여 3개 학과가 한 강의실에서 대기, ◆ 3대 1 면접(간호학과 교수님 2분, 입학사정관 1분 계산 것 같았음) ◆ 각자 준비한 자료 보고 열심히 연습하는 분위기, 편안하고 조용함 		
	유의사항	◆ 엄격한 블라인드 면접(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지원동기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해주세요.

Q : 상장이 많은데, 그중에 최근에 받은 상점제 봉사부문 상장에 대해 말해주세요?

A : 큰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꺼리는 일, 예를 들어 쓰레기통 청소, 청소도구함 청소, 에어컨 필터 청소와 같이 친구들이 꺼리는 일에 앞장서서 했고,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이를 좋게 봐주시고 상장을 주신 것 같습니다.

Q : 학생회 활동하면서 개인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A : 학생회 활동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밤 12시가 지나면 무조건 잠을 잤고 학교에서 잠을 자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공부에 소홀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Q : 간호동아리에서 과민성장증후군을 조원들과 조사했다고 하는데, 과민성장증후군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말해주세요.

A : 네, 우선 과민성장증후군의 원인은 장의 운동기능 장애입니다. 또 우리 몸에는 약 1백조 개의 장내세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과민성장증후군에 걸리게 됩니다. 치료법은, 아직 1백 조개의 장내세균을 모두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또 섬유질은 장운동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수용성과 불용성 섬유질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Q : 2학년 때 생명과학 시간에 의료용 AI에 대해 조사했다고 하는데, 의료용 AI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해주세요.

A : 네, 저는 의료 분야와 4차 산업 융합의 대표적인 예인 의료용 AI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의료용 AI는 의료인을 대체하는 대체품이 아니라 더 나은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인을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용 AI의 성공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AI가 의료인의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의료용 AI의 성공 사례가 뭐가 있죠?

A : 환자 B씨가 폐렴균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료용 AI ‘이지스’가 이 환자는 전에 요로감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적이 있고, 이 폐렴균은 항생제의 내성으로 생겼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소변검사로 이지스의 판단이 맞았음을 알고 올바른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큰 사고 없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Q : 생명과학Ⅱ 수업시간에 발효과정의 모식도를 굉장히 잘 이해했다고 하는데, 발효과정의 모식도랑 무산소 호흡과 산소 호흡의 차이점을 말해줄래요?

A : (모식도 기억이 안 나서 대답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Q : 어,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만회해야 하니까 다른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 있나요?

A : 네, ‘감동을 남기고 떠난 열두사람’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12명의 환자가 죽기 전에 남긴 교훈이 담긴 책입니다.

Q : 그럼 그 이야기 중에서 하나만 소개해줄래요?

A : 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시간이 흘러 자신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후배 간호사가 채혈을 하는데 주사 놓는 위치를 잘 잡지 못하자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분명 자신은 간호사로서 채혈 위치를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끝까지 후배 간호사가 실수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며, 아는 것을 잘난 척하지 않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미래에 간호사가 된다면, 후배들에게 겸손함을 갖춘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Q : 네, 꼭 읽어보고 싶어졌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볼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준비하지 않은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 유지, 잘 모르는 게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고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리기.
- ◆ 처음 들어갈 때 인사는 무조건 크고 당당하게 하기.
- ◆ 가천대는 면접 비율이 50%이므로 면접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함. (가천대는 사실 확인 면접이므로 자신의 생기부, 자소서를 꼼꼼히 외워 답변 준비하기)
-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꼭 준비하기(당황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 조금 길게 준비해도 괜찮음)
- ◆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면접보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답변 준비하기(면접의 흐름을 자신이 이끌어나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모의 면접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회복지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가천바람개비1)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2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님들과 3: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대기 시간 중 휴대폰 열람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A : 저의 장점은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공부를 하면서 제가 호기심이 들었던 부분이나 제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1학년 때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한글 교실을 개설했던 경험, 3학년 때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복지정책을 제안한 경험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모든 일에는 추진력을 가지고 임해왔습니다. 이는 제가 사회단체활동가가 되었을 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회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단체활동가라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애국, 봉사, 박애라는 이념을 가진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3학년때 정책 제안한 경험있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A : 3학년 때 '너나들이'라는 동아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동행카드'라는 정책을 알게 되었고 이 정책은 서울시 성북구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이 벤치마킹하여 다른 지역에도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우리학교를 주축으로 창설된 청소년 연합동아리 '가온'에서 이 정책을 제안하자 건의했습니다. 이후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고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신 결과 정책이 관내에 도입될 수 있었습니다.

Q : 동행카드라는 정책이 자세히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A : 동행카드 정책은 서울시 성북구에서 시작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교통비와 진로 활동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 벤치마킹하여 분기별로 10만원씩 카드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해 교통비와 문화시설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Q : 굉장히 뿌듯했겠네요.

A : 네, 그래서 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책이 도입되고 난 후 이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SNS를 통해 동행카드정책을 홍보를 보고 이 정책을 알게 된 한 친구가 집과 학교가 멀어 교통비가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었는데 꿈드림센터는 학교보다 멀어 꿈드림센터조차 다니지 못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행카드를 받은 이후 그 지원금을 통해 꿈드림센터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꿈드림센터에서 '해밀'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내년에 고등학교로 진학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Q : 꿈이 사회단체활동가라고 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학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A : 먼저 제가 가천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대학교의 과제와 기초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사회복지정책론'과 '고령화와 사회복지'라는 수업을 들어 이 과목에 대한 심화연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과 내의 활동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사랑나눔 자살예방 생명존중 캠페인과 사복식당과 같은 학과 내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제가 배운 지식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Q : 그럼 관심있는 분야와 가고 싶은 단체가 있다면?

A : 최종적으로는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라는 단체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Q :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3년 동안 봉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정책제안활동빼고)

A : 저는 2학년 교육사랑 동아리를 통해 진행했던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활동인 '희망키움공부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곳에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고 서로 소통하며 이 아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장래희망이 교육자에서 사회복지계열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나중에 사회단체활동가가 되어 이런 아이들이 많은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애들이 산만하거나 해서 수업을 잘 들었나요?

A : 네. 아이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밝아 산만한 경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직접 활동할 수 있는 활동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니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잘하여 큰 문제 없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 '세계의 사회복지'라는 책을 읽었는데 가장 인상깊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저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복지정책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많은 모습이 비슷한 일본을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라 생각했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여 이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Q : 그 일본 정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A : 네 먼저 저는 '노노케어'라 해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해 준다는 아이디어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구매난민'이라 해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분들이 생필품 구매를 어려워하심을 보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인 구매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마트와 편의점 같은 곳에 독거노인 분들이 전화 주문을 하시면 택배회사가 직접 그 물건을 가져가 독거노인분들께 직접 전달해주어 구매난민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구매난민의 감소 효과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독거노인분들에게 찾아가 이러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서 그런지 이러한 방법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A : 저의 좌우명은 '당신 혼자 꿈을 꾸다면 그것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함께 꿈을 꾸다면 그 것은 현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같은 꿈을 가진 학과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한다면 대한민국이 더 나은 복지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꿈꾸다면 그들의 바람을 사회복지라는 수단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먼저 많이 떨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기부와 자소서 같은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고 다양한 면접후기들을 보며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 보며 연습한다면 면접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화공생명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 종합전형- 학석사통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3명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 면접 번호 주어짐 / 이름, 출신고교, 지역, 부모님성명, 부모님 직업 언급하면 안 됨. / 면접 비중 50%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기다리는 데 오래 걸렸죠? 지루했죠? (면접 번호 10번이어서 1시간 30분 정도 기다림)

A : 입학하고 싶은 학교의 면접이기에 지루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Q : 이제부터 면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A :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알려주세요.

A : 기존에 발달한 미용분야의 화장품 업계가 아닌 아직 발달하지 않은 의료용 화장품의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하여 소비자들이 더 많은 편리와 사용을 이끌어내 화장품계가 발전을 이루게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화학과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자 해당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의료용 화장품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

A : 기존에 의약품은 단순히 치료의 목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 미용의 목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화되어 따로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화상과 아토피, 두드러기 등의 피부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용과 치료를 동시에 겸비한 제품이 있다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의료용 화장품의 분야는 미용과 치료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 그렇다면 너무 경계가 모호하지 않은가? 둘 다 수행하는데 굳이 뭐하러?

A : (생각의 시간을 가진 뒤) 현재로서는 이러한 의료용 화장품의 분야가 개발되지 않아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용 화장품의 분야가 생긴다면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생성되면서 독립적 분야가 될 것입니다.

Q : 본인이 교내 활동에서 인상깊게 한 활동은?

A : 제가 이루고자 하는 의료용 화장품이란 꿈을 위해 직접 의료용 화장품을 설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화상, 아토피 등의 상처를 앓는 사람이라면 미용과 치료의 목적을 겸하는 제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피부 외부에 바른 뒤, 내부에서 생기는 습기인 H₂O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CO₂를 기질로 하여 C, H, O 와 같은 원소들을 마련한 뒤 이를 네오스포린, 트롤아민과 같은 피부재생에 좋은 항생제, 합성물로 변형시킨다면 필요할 때마다 치료제를 만드는 제품이 생길 것이라 설계를 했습니다.

Q : 알파고반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여기서 자치위원으로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A : 알파고반은 야자시간에, 주말에 추가로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학생들로 이루어진 심화 자습 운영반입니다. 저는 해당 알파고반에서 자치위원으로서 학생들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습 분위기를 조성 했으며, 후배들과 선배들이 좋은 화합과 소통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단합회를 추진하는 일을 했습니다.

Q : 오비탈에 대해서 배웠던데 오비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오비탈의 종류로는 s, p, d 등의 종류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Q : 3d 오비탈과 4s 오비탈 중 에너지 준위는 무엇이 더 낮죠?

A : 4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낮습니다.

Q : 왜 더 낮나요? (전혀 모르는 문제)

A : (생각의 시간을 가지다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의 개수가 차이가 나서 에너지 준위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틀린 답변입니다.)

Q : 네 질문이 모두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A :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준비한 거 말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소서, 생기부 준비를 많이 해야 함. 가천대의 경우에는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질문하기 때문에 순발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모르는 게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지 못했지만 입학 전까지 알아 오겠다.'와 같이 대답하는 게 모범적임. 면접관 3명이라면 한명은 무조건 압박하는 역할이 있을 것 임니다. 압박 질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할 듯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가천바람개비1)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신분확인, 면접 번호 배분, 대기, 면접장 입장, 면접, 퇴실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대기실에서 물, 화장실 가능, 자료 보는 것도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면접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 하고 계셨나요?

A : 저를 궁금해하시는 어른들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Q : 으음~ 그럼 긴장 별로 하지 않으셨겠어요

A : 아니요 굉장히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 지원동기와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을 함께 말해보세요

A : 우선 가천대학교가 2015학년도부터 SW중심대학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IT학과를 꿈꾸는 저에게는 꿈의 대학이었습니다. 실무능력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교육방식은 보안전문가를 꿈꾸는 저에게 꼭 맞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했고, 컴퓨터구조 프로그래밍에 대한 과목들은 컴퓨터 공학에 기본원리와 프로그래밍에 대한 체계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과목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점은 실습 위주의 활동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프로그래밍 공동수업에서 직접 코딩을 짜고 로봇을 구현시키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Q : 공동수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 우선 파이썬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 조는 미로를 탈출하는 로봇을 구현시키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코딩할 때 WHITE TRUE문을 이용해서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코딩을 작성하고 또한 한손의 법칙을 이용하여 한벽을 따라가는 코딩을 완성했습니다.

Q :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A : 사실 근접센서 부분에서 잘 맞지 않아 오류가 생겼었는데 다른 조와 크로스체크를 통해서 근접 수치에서 비교를 잘해보라는 지적을 받고 이것을 통해 여러 번 섬세하게 고치다 보니까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Q : C언어에 대해서 배웠다 했는데 (그뒤로 잘못들음)

A : 헤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Q : 예. 그 기능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A : 어떤 기능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기능입니다.

Q : 파이썬에 대해서도 말해보세요

A : 파이썬에는 수치형, 문자열, 리스트, 튜플, 사전 이 다섯 가지 자료형이 존재하는데 수치형 자료는 우선 소수 실수 복소수형이 있고 복소수형은 우리는 I라고 표현하지만 파이썬에서는 J로 표시한다는 점, 그리고 사칙연산을 할 때 좀 더 상위개념의 자료형을 따른다는 것들이 있고 문자열은 따옴표로 할당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 (여기서 끊으심)

Q : 독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주로 언제 하시는 편인가요?

A : 네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침 시간에 주로 읽는 편입니다.

Q : 현재도 읽고 있는 책이 있나요?

A : 네 정보보안에 관심이 있는 터라 보안과 해킹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Q : 내용에 대해 말해 보세요.

A : 우선 암호화와 복호화의 개념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기억에 남는 파트는 독일군의 에니그마 해독에 관한 파트였습니다.

Q : 프로그래밍에 미적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해 보세요.

A : 미적분이 수학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학적 논리 구조를 기본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미적분뿐만 아니라 다른 개념들도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Q :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 말해 보세요

A : 자세한 사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때 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Q : 선비함양대회에서 두 번 상을 탔는데 이거 무슨 대회예요?

A : 선비정신을 함양하고자 했던 대회였는데 저는 시를 써서 상을 받았습니다

Q : 1, 2학년 행동특성에 담임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유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함께 해보세요

A : 우선 면접에 오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총장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매일매일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에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는 제 좌우명을 떠올렸습니다. 처음부터 큰 꿈을 좇기보다 하루하루 정해진 양에 따라 발전한다면 큰 꿈에 다다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에 임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와 함께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대학생, 가천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톨릭관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찰행정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성직자추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이내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는 한 자리씩 앉을 수 있고 면접실에 들어가면 수녀님, 교수님, 신부님 3명 계심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자기 이름, 출신, 수험번호 말하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교생활과 성당생활을 모두 얘기해보세요

A : 저는 학교생활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법과 정치'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법과 경찰과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당생활은 8살 때부터 제가 가고 싶어서 갔고 성당을 다니면 제 마음이 평화로워지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Q : 봉사를 하기만 하셨는데 봉사를 받은 적은?

A :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작문을 하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영어 작문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Q : 봉사 받을 때 그 마음은?

A : 사실 저는 봉사를 하기만 해서 처음에 도움을 청할 때 저한테는 창피였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청해 보니 사실 창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Q : 자기 고등학교 성적에 만족합니까?

A : 아니요.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저는 제가 10대 때 하지 못했던 봉사활동이 있는데 그것을 20대 때 이 학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가능한 예상 질문을 넘어서는 질문을 생각해가기
(들어가자마자 예상 질문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음)
- ◆ 인사 잘하기
- ◆ 웃는 얼굴을 이야기하기
- ◆ 단정하게 입고가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바이오융합공학계열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큰 컨퍼런스 홀에서 대기, 차례가 되면 불러 나감, 강의실이 많은 복도로 나가 앉아서 대기, 문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면 됨. 면접관은 두 명, 면접관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서 긴장되었음.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블라인드)			

질문 및 답변 내용

앉자마자 지원동기 안 물어보시고, 질문부터 하심.

Q : DNA 분석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많은데 유전에 대해 관심이 많은가 봐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Q : 멘델의 유전법칙이 무엇이죠?

Q :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 어떠한 윤리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Q :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난치병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Q : 줄기세포 실험은 어떻게 어디서 진행한 거죠?

Q : 어떤 종류의 줄기세포였나요?

Q : 성체줄기세포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 뭐였나요?

Q : 트립신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Q : 줄기세포 배양에서의 트립신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Q : 베스트 에세이 자연과학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Q : 윤리에 관한 언급이 많은데 지원자는 윤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Q : 꽃동네 활동에서 간접적인 봉사활동을 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적혀있는데 왜 그러했는지, 지원자가 생각하는 간접적, 직접적 봉사활동이 무엇인가요?

Q : 바이오 유전 헬스 케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 : 선거백서 활동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선거백서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Q : 'Respect For Life' 프로젝트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Q : 그럼 그 그래프를 어디 통계자료에서 가져온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한 건가요?

Q : 영화 가타카는 어떤 내용이죠?

Q :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무엇을 느꼈나요?

Q : 마지막으로 가톨릭대학교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짧게 말씀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각보다 매우 어려웠음. 앉자마자 질문해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기준이 모호한 질문들이 많았음. 가톨릭대학교가 생명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 민감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심리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잠재능력우수자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은 김수환 관에서 진행되었고, 대기는 모든 학과가 대강당 같은 데서 대기함 ◆ 입실 시간은 10:30이라 해서 그 '까지' 인줄 알았는데, 10:30부터 입실 시작이었음. 김수환 관 면접대기실로 가는 통로는 야외 중앙 계단을 제외하고 모두 폐쇄. ◆ 면접은 세부적으로 시간이 나뉘어서 진행. 예를 들면 9:30 면접조 끝나면 바로 10:30 면접조 그다음 면접조~ 이런 식으로 ◆ 입실 시간이 되면 모든 면접자는 계단 올라가서 수험표 검사를 하고, 강당 입구에서 한 번 더함. 학과에 따라서는 의자에 앉아서 한 번 더 해서 총 2~3번 정도 검사함. ◆ 면접 시작까지 20분 정도 시간을 줌. ◆ 의자만 있음.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이라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긴장 안 했죠? 안 한 거 같은데. 생기부랑 자소서 기반해서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진로 활동에 청소년 연예인의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고민해봤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우선 직업에 대한 교육을 통해~ 또한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대충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생각이 잘 안남)

Q : 삼학년 진로 활동에 청소년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봤다고 하는데, 조사에서 쓰인 방법과 결과를 이야기해주세요.

A : 우선 교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로젠버그의 자존감 측정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원본과 한국 버전을 비교하며 좀 더 문맥에 맞고,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며 질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존감 척도를 측정하였고, ~를 통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우관계가 가장 높게 드러났고, 미세한 차이로 가정환경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 교우관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A : 청소년이 되면 점차 또래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교우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Q : 단순히 시간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거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해주세요.

A : 인간이 1차적으로 가족이라는 사회에서 사회화를 거치다가 성장할수록 그 사회범위가 넓어져 2차적으로 ~~ 이런 이유로 교우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네, 그리고 삼학년 동아리에서 ‘인간의 수치심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오나요?

A : 저는 생존본능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료를 보면 원시시대에는 부족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은 곧 생존이라는 과제를 실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현대사회에서는 대인관계가 중요하기에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일종의 생존과제 실패라 할 수 있다고 생각~~ 밀란 쿤데라라는 소설가는 수치심은 개인에게서 오기보단 사회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말한 바 ~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치심은 생존본능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 있어요?

A : 있습니다!

Q : 그럼 20초 줄게요.

A : 우선, 감사합니다! 저는 ‘가톨릭대’ 이 세글자로 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가! (웃으며 운 띄워주심) 저는 가고자 하는 길이 뚜렷합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했던 만큼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가고자 하는 열의가 강합니다.

톨~, 릭~, 대~ 정말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가톨릭대는 ‘너 이거 한 거 맞아?’ 식의 질문이었음. 그냥 뻔뻔하게 웃고 시간이 촉박한 거 같아도 침착한 태도 유지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어영문학부	○		
전형명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 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생기부, 자기소개서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서 4번 마지막에 “영어를 간학문적 관점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고 싶다”라고 작성했는데, 지원자는 간학문적 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A : 간학문적 태도란 한 분야를 사회, 과학, 경제,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의 태도로 학습하거나 엮어서 심화적으로 학습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Q : 까치타임즈 영자신문 동아리에서 지원자는 어떤 부분을 다뤘는가?

A : 교내 동아리 중 가톨릭학생동아리를 소개하고 교내활동에 대한 기사를 썼으며, 동아리 부원이 작성한 초고를 고쳐주는 부분을 맡았습니다.

Q : 교외봉사 시간이 상당히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A : 저는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활동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교내 봉사에 비중을 더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Q : 독서 기록이나 동아리 활동을 보면 3학년에 한 활동이 많은데, 활동을 할 시간이 있었는가?

A : 저희 학교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이후부터 동아리활동, 독서활동을 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시간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고등학교 3학년 때 A.A.T. 영어 스피치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무슨 활동을 하였는가?

A : A.A.T. 동아리는 American Accent Training 의 약자로 영어스피치나 회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발음과 여러 말하기 요소에 대해 배우고 부족한 발음을 보완하면서 자신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토대로 스피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Q : 가톨릭학생동아리 CELL은 어떤 동아리인가?

A : 천주교 신자이거나 가톨릭에 관심이 있어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매주 목요일 미사를 하고 후에 모여서 매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천주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 활동을 하는 전국가톨릭학생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Q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가?

A : 영자신문반 활동 중에서 제가 동아리 부원들의 초고를 교정하고 고쳐주는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모르는 어휘나 문법에 당황하고 고쳐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신문 발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것이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Q : 영어 원서를 많이 읽었는데, 처음에 읽은 느낌이 어땠나?

A : 처음에는 정말 거부감이 컸는데요, 원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문장에 담긴 맥락을 이해하고 모르는 어휘를 찾는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이를 통해 거부감이 해소되어 요즘에는 원서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Q : 다른 교과 과목들에 비해 영어 성적이 월등하게 높는데 비결이 있는가?

A : (갑자기 한 질문이라 당황했고 답변 기억 안 남)

Q : 학교 생활을 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가 있는가?

A : 교내 활동 중에서 기술가정 시간에 풍력추진자동차를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조는 활동에 의욕이 없던 친구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으려 하고 아예 교실을 나가버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장을 자청하여 의견을 먼저 제시하였고 역할을 서로 분담하여 고장 없이 잘 나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활기록부를 많이 중요하게 보고 있고, 특히 동아리 활동이나 인성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강릉원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관광경영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7~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입장-면접 7분(타이머로 엄수)-퇴장-설문작성 후 귀가		
유의사항	◆ 면접 시간 정확하게 7분 ◆ 자소서 없이 생기부만 보기 때문에 생기부 많이 읽어야 함. ◆ 대학 자체 면접 분위기 모두 좋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며 유창한 외국어 능력으로 한국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느꼈고, 여름휴가 중 묵었던 호텔 컨시어지분께 근처 맛집과 시장은 길, 자주 찾는 해수욕장을 여쭙보았다가 모른다는 짧고 통명스러운 답을 들었을 때 느낀 실망감이 저를 준비된 호텔리어가 되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컨시어지’란 고객의 요구를 처리해주는 서비스이며 섬세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양한 숙박시설 중 호텔을 찾았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내가 호텔리어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성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보다 발전된 호텔리어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Q : 꿈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저는 고등학교 입학 후 아나운서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라는 꿈을 품고 직업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관련 활동들을 하며 느낀 점 중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보는 면대면 의사소통의 기회가 적다는 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 특히나 저에겐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2학년으로 올라온 후 학교생활을 하며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가지며 중학교 무렵에 힘든 일이 있던 시절에 큰 힘이 되었던 여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직업이 있지만 직접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을 것,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어릴 적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여행의 행복한 기억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세 가지의 가치관과 부합한 일이 호텔리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수상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수상은 무엇인가요? (어메니티 뜻 등 많은 꼬리질문함.)

A : (자소서 2번 인용함.) 저는 현장직업체험활동이 가장 인상 깊은 활동입니다. 학기 초인 3월부터 이 활동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가고 싶은 호텔과 국내에서 알 만한 5성급 호텔에 직접 인사과에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남기며 호텔리어 출신 유튜버들에게도 여러 가지 여쭙어보며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호텔이 거절하며 좌절도 했습니다. 거듭된 노력으로 신라호텔에 가게 되며 사전에 독서한 책과 동아리 활동들을 하며 수집한 기사들로 약 20가지의 질문이 있는 사전질문지를 만들어가며 호텔리어 멘토분께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며 관련 일화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어부터

벨, 프론트에 거쳐 백오피스인 재경부서와 객실예약부서 및 연회장과 fnb(식음료)팀, 하우스키퍼팀까지 어떻게 연락을 하며 영향을 미치는 지 실제로 입실부터 퇴실까지 업무의 유기적인 흐름을 보았습니다. 저의 열정에 중간관리자분이 감동하셔서 가장 고층인 vip라운지도 특별히 개방해주셔서 일반 라운지와 다른 점으로 프라이빗 체크인아웃과 전담 부서들이 일반 라운지 따로 마련되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회장을 들러 유명 연예인들이 다녀간 식당과 국제회의가 열린 회의실들도 직접 보며 신라호텔만의 남산뷰 객실을 들어가보며 월별 예약율과 어메니티의 수집 등을 이유로 호텔을 재방문하는 마케팅 방법 또한 배웠습니다.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서 직접 기획부터 현장방문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준비했을 활동이라 애착이 가고 동경이 아닌 확신을 가져다 준 경험입니다. 저의 소중한 경험이 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중 호텔경영론, 호텔 서비스론 등을 학습할 때 진가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하세요.

A : 제가 고교생활을 하며 가장 성장한 경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실장활동을 하며 리더십을 재정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의사소통의 힘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사람을 선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작성해둔 자소서 3번 내용 인용)

Q : 호텔리어의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A : 저는 (마지막 할 말 언급 후)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의사소통만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A : 오로지 의사소통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날이 외국어 능력이 동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국어인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넘어 외국어 의사소통도 같이 준비 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영어 스피킹 활동과 팝송 부르기 활동에서 진행자를 맡아 영어로도 여러 청중들과 호흡을 맞추며 외국어 회화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3학년 때에는 저와 같은 서비스직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전해주고픈 말인 감정노동자의 이면과 극복방법을 교과서 본문을 활용해 발표하여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이란 어느 국경에도 구애받지 않고 가능해야하며 감정과 공감을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릉원주대학교에 입학해서 국제 도우미 프로그램을 하며 저의 경험을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강릉원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치의예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큰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3명씩 끊어서 면접장 바로 앞 의자에서 대기하고 면접장에는 1명씩 들어감.(교수1명, 면접관1명, 학생1명)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 대기 중 수험생 간 잡담 금지 ◆ 대기 중에 면접 준비 자료 볼 수 있음 ◆ 최저가 있는 전형이라 1차 합격생 10명 중 4명만 옴.(합격정원은 2명) ◆ (자기소개서가 없는 전형이라서 생기부 관련 내용만 질문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안녕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세요. 오늘 언제 학교에 오셨나요?

A : ~분에 왔습니다.

Q : 일찍 오셨네요. 긴장 푸시고, 생기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2년 동안 일관되게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희망했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A : 저는 노인 분들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자라왔습니다. 노인 분들이 신경을 덜 쓰시는 부분이 '치아'입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항상 '이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으면 된다.'고 하시다가 병을 더 키우시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치아는 식사, 언어와 같은 실용적 부분뿐만 아니라 외모와 같은 부수적인 부분까지,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치료를 제공해주고 싶어 치과 의사를 희망해왔고, 그 중에도 노인 분들을 위한 안전한 치과 재료를 연구하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Q : 생명과학 II 시간에 요구르트를 이용한 치아의 부식 실험을 했는데 결과를 설명해주세요

A : 액상형, 크림형, 그 중간 점도의 요구르트를 사용했습니다. 액상형이 가장 부식이 많이 되었는데요. 사실 육안으로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고, 더 정확한 자료를 찾기 위해 선행 연구 자료를 찾던 중에 모 대학병원에서 비슷한 실험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연구자료를 참고했을 때, 액상 요구르트가 가장 부식이 많이 되었고, pH농도를 비교했을 때 액상형의 pH농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액상 요구르트가 가장 치아를 많이 부식시킬 것이며, 액상 요구르트는 실제로 섭취했을 때 치아표면에 가장 잘 도포될 것 같아 가장 치아 부식을 잘 일으킬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Q : 관현악부 활동을 굉장히 꾸준히 했는데 자신은 어떤 악기를 연주했나요?

A : 플루트 파트장을 맡았습니다.

Q : 관현악부 활동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나요?

A : 관현악부 연습량이 지나치게 많아 부원들이 연습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연습을 나와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트장들과 의견을 모아 선생님께 연습을 줄이자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신기하게 연습량은 줄었지만, 실력은 더 나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Q : 2년 동안 꾸준히 도서관 봉사를 하다가, 가장 바쁜 3학년 때 요양원 봉사를 나갔네요? 왜 그랬죠?

A : 1, 2학년 때는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도서관 봉사를 다녔고,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어서는 제가 나중에 치료해드리고 싶은 노인분들과 교류해보고 싶어 집에서 조금 떨어진 요양원 봉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먼 거리라는 것은 친구들과의 카풀을 통해 극복했습니다.

Q : 요양원 봉사 중에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A : 처음에 할머니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속상했습니다. 제가 식사를 돕기 위해 반찬을 직접 떠 드려도 잘 드시지 않으려고 하셨고, 말도 잘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요양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할머니들은 최대한 스스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직접 식사를 떠 드리기보다는 '이 반찬도 먹어볼까요?'라고 말로 권유하는 식으로 봉사 방식을 바꿨더니, 할머니들이 그 전보다 식사를 잘하는 모습을 보고 수직적인 배려보다는 수평적인 도움의 형태로 할머니들에게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Q : 독서활동이 많은데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과 그 이유는?

A : 제가 치과의사의 역량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준, '치과의사가 말하는 치과의사'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그 중에도 기억에 남는 부분은 교정전문 치과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환자의 교정과정에서 교정철사 때문에 입안에 염증이 생겨 고생하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치과의사는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치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관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 다른 많은 치대 중에서도 '강릉원주대학교'에 오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대학에 비해 과목들이 세분화 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철에 대한 과목도 가철성 의치 1,2 혹은 보철계획 세우기와 같이 나누어져 있었고, 노인과 관련된 치의학도 노화의 생물학, 노인과 치의학처럼 해당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분화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렇듯 각 과목을 깊고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릉원주대학교에서 치의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이과의 경우 자신이 실험했던 내용은 그 내용과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실험의 '결과'를 말해달라고 하셨을 때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살짝 당황했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강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교육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미래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 가번호 순서대로 앉아있다가 면접 시작 2분 전에 두 번째 대기실로 이동해서 기다리다가 면접 입장 ◆ 남자 교수님 두 분과 2대 1 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전자기기 제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강원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지원동기 먼저 말씀해주세요

A : 준비해간 거 말씀드렸습니다.

Q : 백석 시인의 '고향'이 인상 깊었다고 했는데 암송할 수 있는지?

A : 가장 인상 깊었던 마지막 장면 암송했습니다.

Q : 백석 시인의 다른 작품을 알고 있는지?

A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여승, 여우난골죽, 수라 정도 알고 있습니다.

Q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A : 떠돌다가 남의 집에 칩거하면서 느끼는 슬픔, 과거에 부끄러운 삶을 회고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갈매나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과거의 짐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를 깨닫는 부분, 즉 화자가 정신적 각성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문학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문학 말고 노력한 국어 분야가 있다면?

A : 비문학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문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각 단락의 주제를 요약해서 여백에 적어보는 연습, 글로 되어 있는 공식을 기호를 통해 알기 쉽게 나타내보기 등의 노력을 통하여 더욱더 수월하게 문제 해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Q : 현대문학감상이 뭐예요?

A : 저희 지역 내 고등학교끼리 방학기간 동안 신청강좌를 만들어서 하는 공동교육과정 수업입니다.

Q : 그럼 강사는 해당 학교 교사가 맡는 거예요? 아님 다른 곳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A : 학교에서 각 교과를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맡아 수업하십니다.

Q : 봉사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학업에 영향을 안 끼쳤나요?

A : 저는 봉사활동 주기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요일과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습 플래너나 계획을 짤 때 이러한 봉사활동 시간을 생각하여 계획을 하였고 때문에 학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Q : 희망키움 공부방, 재능기부 센터 활동 등 이런 봉사활동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학교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진행한 거예요?

A : 우선 희망키움 공부방은 관내 고등학교 몇 곳과 초등학교 한 곳이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 내 동사무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활동한 봉사입니다. 또 재능기부 센터 활동은 지역 내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결성하면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경험을 해보기 위해 제가 찾아가서 실시한 봉사활동입니다.

Q : 교사라는 꿈을 위해 학교에서 노력한 활동이 있다면?

A : 저는 또래학습 도우미 활동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국어교과를 타 교과에 비해 어려워 하는 친구와 1대1로 멘토멘티 형식으로 진행한 활동입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이었기에 멘티가 모르는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고 저 또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친구와 함께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강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재료공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미래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 지원자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교복, 학교, 부모님의 성함, 이름 등을 언급하면 안됨.			

질문 및 답변 내용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가번호를 주고 입실. 입실하고 인사 후 자리에 착석. 면접시작.

Q :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A : 저의 꿈은 자율주행기술을 5단계까지 발전시키는 자동차공학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대학을 찾아보던 중 강원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자동차 공학과 자동차 구조 설계뿐만 아니라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이 개설되어 있던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진로분야를 자동차 쪽으로 갈 수 있던 점과 캡스톤 디자인이 개설되어 있던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강원대학교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재료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를 하였는데 기계공학과 연관 지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A : 제가 갔던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야외활동을 위해서는 휠체어를 타고 거기 계시는 도우미분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IOT 등과 같은 기술을 발전시켜 휠체어에 적합시킨다면 그 분도 좀 더 자유롭게 야외활동을 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휠체어에 탑승할 때도 도움이 필요하였지만 로봇과 인공지능을 이용해 휠체어에 보조팔을 만든다면 도움 없이도 휠체어에 탑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 생기부에 인슐린이 나와 있는데 인슐린 제작과정을 알고 있나요?

A : 인슐린은 사람의 몸에서 가져와야 하지만 사람과 비슷한 돼지를 이용해서 인슐린을 다량으로 채취하는 것으로 인슐린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Q : 영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뛰어난데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나요?

A : 다른 과목들은 개념을 이해하고 공부를 하였지만, 영어 같은 문학적인 과목은 이해를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 번 읽고 해석을 통해 저만의 것으로 만들고 문제를 푸니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Q :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있나요?

A : 라인트레이서 활동을 통해서 아두이노를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Q : 그렇다면 아두이노가 무슨 코드인지 알겠네요? 무슨 코드라고 생각하나요?

A : 아두이노는 C언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Q : 라인트레이서 활동이 무엇인가?

A : 라인트레이서는 센서와 아두이노의 명령 값을 통해 센서의 차이 값을 이용해 자동차가 지정된 길로만 움직이게 하는 활동입니다.

Q :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나 이 말 못 하면 집에 가서 후회하겠다는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A : 저는 저 자신을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강원대학교라는 흙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특히 자율주행에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인재라는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기계의용·메카트로닉스·재료공학부이기 때문에 기계공학이나 메카트로닉스를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은 생명까지 공부하면 도움이 됨. 물리를 알고 가면 도움이 됨. 교수님과 입학사정관님 모두 친절하시고 도우미분들도 친절해서 긴장을 많이 풀 수 있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강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기전자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미래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가번호 받고 대기 ◆ 면접관 2분과 2 : 1 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전기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 주세요.

A : 저는 항상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차 산업을 이끄는 것들은 모두 기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전자공학에 대해 꼭 배워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소서 1번에 영어를 강조했는데 강조한 이유를 말해주세요.

A : 매년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을 하며 공대에 가려면 영어는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공부를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여 평균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영어과목에서 꾸준히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Q : 드론동아리에서 한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이 무엇인가.

A : 저는 ‘드론택배’ 라는 주제로 주제탐구대회에 나갔던 것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친구들과 드론에 대해 공부하고 직접 드론을 만들어 보면서 재미있는 추억을 쌓았고 대회에서 수상도 했기 때문입니다.

Q : 드론동아리를 하면서 드론을 많이 날려봤을 것 같은데 드론을 날리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기상에 따라 드론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Q : 학교생활 중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저는 3년 동안 친구들의 신임을 받아 학생회 임원을 했습니다.

Q : 학생회를 하며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잘 따라오지 않고 의견이 다른 학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보세요.

A : 회의가 다 끝나고 그 친구와 1대1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의견을 듣고 저의 생각을 말한 뒤 둘의 의견을 조율하여 의견충돌을 해결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감 있게 말하면 무조건 플러스 점수임. 모르는 내용은 확실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음.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은 확실하게 공부해서 가야함.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책,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이렇게 두 권은 필수로 읽고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해야 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축학부	○		
전형명	K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서에서 게이츠헤드와 서울의 도시재생의 차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눈에 띄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질문 -내용확인)

A : 현대건축의 흐름이라는 책을 읽고 게이츠헤드시가 밀레니엄브릿지라는 다리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도시를 재생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예시를 찾아보던 중 서울이 도시재생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이츠헤드는 랜드마크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로 간접적 도시재생을, 서울은 주민이주를 통한 직접적 도시재생이라고 정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Q : 게이츠헤드 도시재생의 단점은?(꼬리질문 - 알고 있는가 확인)

A : 게이츠헤드 도시재생의 단점이라 하면 랜드마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랜드마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잘되면 한없이 잘되지만 실패하면 엄청난 경제적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의 가능성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Q : 2년 연속 학습플래너 대상이 눈에 띄는데 남들과의 차이점은? (생기부질문)

A : 자소서 1번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학습플래너를 쓰게 된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는 별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잘 쓰지 않았지만 2학년 물리시간에 강화유리 제작실험을 하고 목표설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이후로 학습플래너를 작성하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의 차이점이라면 교과목 뿐 아니라 비교과목까지 섬세하게 기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Q : 아동센터에 봉사를 꾸준히 했는데 아동센터의 건축적 단점은?(생기부질문 - 건축지식확인)

A : 건물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지리적 특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아동센터의 위치가 촌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근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생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 아동센터와 책기부 했던 곳은 같은 곳인가?(생기부 질문)

A : 아니요, 다른 곳입니다.

Q : 책 기부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나?(생기부 질문 - 진짜인지 확인)

A : 저희 학교에 한문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전에 계시던 학교에서 책기부를 했던 경험을 소개시켜주셨습니다. 처음엔 반친구들과 하려고 했으나 다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학생회를 소집하고 전교의 학생들에게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뜻을 모아 학교 근처 성화원에 약 700여권의 책을 기부했습니다.

Q : 독서를 많이 했는데 어떤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었나?(생기부질문)

A : ‘현대건축의 흐름’이라는 책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게이트헤드의 도시재생을 알게 되었고 “건축을 이용한 도시재생을 만드는 건축가”라는 목표를 만들게 해준 책이기 때문입니다.

Q : 영어 포스터대회에서 어떤 건축가를 소개했나요? (생기부 과제특 - 진실확인)

A : 자세히는 기억 안 나지만 르꼬르뷔지에, 루이스칸과 같은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가 4명의 건축적 특징을 소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Q : 한지 시간에 활동한 아파트에 대청마루만들기는 어떤것인가?(생기부 과제특 - 진실확인)

A : 김중업 건축가의 주한프랑스대사관을 보고 한국 전통의 멋을 건축적으로 녹여내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에 한국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을 합쳐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파트에 황토, 대청마루의 적용에 대해 한국지리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제학과			
전형명	사회통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정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대기실이동-대기-면접-설문조사-귀가		
	유의사항	◆ 질문이 설 틈 없이 들어와 정신을 바짝 차려야함. ◆ 자신의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완벽히 숙지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한 저의 장점은 우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한 저의 단점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표를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등학교시절 동아리발표나 학급수행평가 발표 등에 여러 번 도전하면서 단점을 고쳐나가려고 했습니다.

Q : “나는 세계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를 읽으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A : 우선 작가가 공정거래무역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내용으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책의 핵심내용이었습니다.

Q : 인상 깊었던 노동자 이야기는?

A :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바닷가재를 잡는 섬나라의 노동자가 인상 깊었습니다.

Q : “빅데이터언론 읽기” 동아리에서 주로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A : 한일경제무역마찰에 대한 조사와, 경제정책, 미중환율전쟁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Q : 환율조작국에 대해 간단한 설명부탁드립니다.

A :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낮춤으로써 수출을 유리하게 하면 이에 반해 상대국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봄으로써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이외에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기 위해 많은 과정이 있는데 설명하기는... 죄송합니다.

Q : 학교홍보단을 활동을 하셨는데 주로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A : 저는 학교 홍보단을 하면서 교정에서 사진을 찍고 팸플릿을 만들어 학생이 많이 다니는 서점에 배치하고 유튜브와 다양한 sns에 노래를 편곡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했습니다.

Q : 효과가 있었나요?

A :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거의 한 달 넘게 노력한 만큼 결과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Q : 경제 성적이 생각보다 낮네요. 경제학과에 관심 있는 게 맞나요?

A : 경제 시험과 경제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시험은 달달 외우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교육공학과	○		
전형명	학종/ K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봉사상을 많이 수상했는데 어떻게 받게 되었나요 ?

A : 봉사상은 학급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한 학생이 친구들과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는 상입니다. 친구들에게 모르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또 궂은일이라도 먼저 나서서 하는 모습을 친구들이 좋게 봐주고 인정해줘서 받게 되었습니다.

Q : 굳은 일? 어떤 거 했나요 ?

A : 한 예로 1학년 때 친구들이 꺼리는 화장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맡아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Q : 진로가 초등교사, 교육학 연구원 둘 다 적혀있는데,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

A : 현재는 교육학 연구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친구를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어 교사를 희망했지만, 3년 동안 교육 관련 활동을 하며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보다 교육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국대 교육공학과 학과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육공학과에 진학하여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수법 및 교재 개발에 힘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교육공학과에서 필요한 자질은 ?

A :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공학과 특성상, 간학문적인 연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랑 소통하며 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명이 모여 개발을 하는데, 그 중 교육공학이 중심이 되어 연구를 이끌어 나가고 의견을 조율해야하기 때문입니다.

Q :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A : 동아리 장, 반장 등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며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교내 토론대회에 3년 동안 빠짐없이 참여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길렀습니다.

Q : 거꾸로 교실과 관련해 논문을 작성하였는데, 거꾸로 교실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A : 저는 거꾸로 교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 전에 동영상 자료를 미리 시청하고 예습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런데 숙제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를 미리 시청하고 예습해오는 게 가능할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A : 저는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충분히 유발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주제, 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관심있어하고 재미있는 주제 또는 과목으로 거꾸로 교실을 시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주어 학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수업 참여를 위한 예습을 해올 것 같습니다.

Q : 미래 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것 같나요?

A : 첫 번째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교육에서는 선생님 혼자 말하고, 20명 가량의 학생이 듣기만 하는 의사소통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는 다양한 학생 참여, 주도형 수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매체를 이용한 교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동영상, VR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더 실감나고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Q :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우선 제가 면접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얻은 교육적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에 공감하고 직접 해결해 나가는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하지 말고 교수님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면접 준비 단계에서는 학생부와 자소서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논문, 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항공공학부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K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2 : 지원자1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자기소개 1분 내외로 해보세요

A : 저는~ 수소연료전지차의 부품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Q : 그렇다면 수소연료전지차가 왜 현재 상용화되고 있지 않을까요?

A : 수소연료전지차의 수소연료전지 스택에서 사용되는 백금촉매의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이로 인해서 수소연료전지차의 가격이 함께 상승하여 상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소 얘기도 하려 했는데 면접관이 끄덕이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Q : 내연기관 차량에서 디젤기관과 가솔린기관의 구조와 원리를 비교해봤다고 했는데 둘의 차이가 뭔가요?

A : 디젤기관과 가솔린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소방식에 있습니다. 가솔린기관은 압축된 공기와 가솔린을 점화플러그를 이용해 인공 점화시키는 반면 디젤기관은 압축된 공기에 경유를 분사하여 자연발화시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기관이 더 우수할까요?

A : 디젤기관의 열효율이 가솔린기관의 열효율보다 높은 30~ 38% 정도이기 때문에 디젤기관이 열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뛰어납니다.

Q : 그렇다면 왜 가솔린기관을 디젤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걸까요?

A : 아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될까요?

Q-1 : 면접관2: 배기가스....

A : 아, 디젤기관은 가솔린기관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가솔린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Q : 가솔린기관이 점화플러그를 사용해서 연소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A : 음~ 가솔린기관은 착화비는 높은 반면, 연소되는 지점에서의 온도는 낮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솔린기관의 경우 점화하는 시간을 제때 맞추지 못하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점화 시킴으로써 원하는 시간에 점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말 좀 더듬음, 발화점 용어가 생각 안나서 말로 풀어서 설명)

Q : 잠자리 날개의 트러스트 구조를 이용해 글라이더의 날개를 제작하였는데 이유가 있나요?

A : 잠자리 날개의 시맥은 W자 형태가 이어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아무리 얇더라도 날개가 끊어지지 않고 강하게 날갯짓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적용하여 글라이더의 날개를 제작하였습니다.

Q : 글라이더를 제작하면서 양력, 항력과 같은 유체의 힘을 이해하였다고 적혀있는데 글라이더에 사용되는 두 가지 힘을 얘기해 볼래요?

A : 베르누이의 원리와 받음각의 원리입니다.

Q : 받음각의 원리를 다른 말로 할 수 없을까요? 받음각은 항공쪽 용어인데 기계쪽 용어로 말해볼 수 없을까요?

A : 음.. 뉴턴의 힘의 법칙에서 작용반작용의 법칙, 힘과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Q : 오 맞아요. 작용반작용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Q : 동아리활동에 모형자동차를 제작한 것에 대해 말해볼래요?

A : 저는 주로 태양광모형자동차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모형차에 사용되는 고출력 부품들이 아닌 저출력 모형들을 사용해야 하였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맞는 전력의 부품을 찾을 수 없어서 서보모터를 개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Q : 태양전지는 구매한 건가요?

A : 아니요. 제가 모형태양광자동차경주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주최 측에서 각 팀별로 태양전지를 나눠주셨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자기 자랑 1분 해보세요

A : 제 이러한 목표의 첫 발걸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국대학교에 꼭 와서 이러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열심히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학과		2	
전형명	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인사-제시문-생각정리-답변-질문-답변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3년 동안 진로희망이 역사학 연구원이네요. (웃음) 진로희망 쪽을 보면 발해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발해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중국 측 주장과 한국 측 주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생기부 진로희망사유)

A : 우선 중국이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라 주장하는 대표적인 주장의 예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발해가 지금의 중국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토패권주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들의 영토 내에 있다는 이유로 그 역사까지 모두 자기네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발해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공과 책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정권의 역사라면 베트남, 일본, 신라 모두가 지방정권이 됩니다. 또한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했던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발해는 중국과는 별개로 명백한 독자 국가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측 주장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에 한국의 역사라는 주장입니다. 무덤양식, 석등, 온돌 등 여러 생활양식이 고구려와 같고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사람들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Q : 꼬리질문: 발해가 일본에 친서를 보냈던 것도 증거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요?

A : 발해 왕이 일본에게 사신을 보낼 때 자신을 고려왕이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것의 큰 증거가 됩니다.

Q : 김원봉에 대해서 토론을 했네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도 얽혀있는데 김원봉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해주세요. (자소서 1번)

A : 의열단을 이끌고, 조선의용대 창설, 그리고 한국광복군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무장투쟁운동을 하여 조선의 독립에 기여를 하였던 점은 저와 친구들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북한 정권에 참여하여 한국 전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꼬리질문 : 그래서 지원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A : 저는 김원봉 선생님을 어느 한쪽으로만 단정을 지어서 말을 하기는 아직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독립영웅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정권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원봉 선생님에 대한 업적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 방과후 역사토론반 역사철전.. (웃으시고) 이름 지원자가 지었나요? (자소서1번, 생기부)

A : 네, 제가 이 활동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지어봤습니다.

Q : 이 역사철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한 가지만 말해 줄 수 있어요?

A : 한국의 역사 중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모의재판을 해보았습니다. 그중 기억이 가장 남는 것은 '홍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왕권 강화정책은 옳은가?'를 주제로 선정하여 실제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 역할을 모두 맡아보며 충분히 좋은 평가도 나쁜 평가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역사 인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Q : 꼬리질문 : 홍선대원군의 왕권 강화정책 좋기만 했어요?

A : 조선 말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의 삶이 힘들었고, 세금도 잘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여 국고를 회수하였던 사창제와 호포제 등의 정책들이 왕권강화정책이면서 동시에 민생안정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여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변사 폐지, 서원 정리 등을 통한 왕권강화정책도 시행하였습니다.

Q : 꼬리질문 :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좋기만 하였는가?

A : 아. 하지만 무리한 경복궁 중건사업을 통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 점도 있기 때문에 홍선대원군의 왕권강화정책은 좋은 면도 있었고, 나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지원자가 생각하는 역사학자의 자질이 무엇인가요? (생기부)

A : 제가 생각해본 역사학자의 자질은 우선, 외압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진실된 역사를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국가가 신경을 쓰며 지나치게 간섭을 할 때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그런 점을 배제하고 후손들과 세계인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객관화를 통해 사료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최대한 왜곡이 덜 되게끔 역사 편찬을 하는 것이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배경과 국적 그리고 고정관념이 자기 객관화에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 여러 사료들을 다루어 역사 편찬을 하고 싶습니다.

Q : 꼬리질문 : 그럼 갖지 말아야 할 자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좁은 관점에서만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야 가치관의 확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식민사학 시절 지식인으로서 역사학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은 채 일제가 감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역사 서술을 거짓되게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6줄 정도 말했어요. (한컴 기준) 내가 마지막 번호라서 10분이 넘었는데도 들어주었음. 마지막 말을 길게 해서 한 12분 정도 한 것 같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전공적합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회환경공학부			
전형명	학종(사회통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프렉탈 구조를 언급하셨는데 프렉탈 구조가 무엇인가요?

A : 프렉탈 구조는 부분과 전체가 반복되는 구조로 창문에 낀 서리, 눈 결정, 우주 등에 나타납니다.

Q : 프렉탈 구조를 어디에서 처음 아시게 되었나요?

A : 저는 1학년 때 우주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되면서 우주는 은하가 모여 은하계를 이루고 행성과 별이 모여 은하를 이루는 프렉탈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Q : 그리고 트러스 구조도 언급하셨는데 트러스 구조가 무엇인가요?

A : 트러스 구조는 외부의 힘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빗변이 힘을 한 번 더 받쳐주기 때문에 튼튼하고 안정적입니다.

Q : 토목공학은 기계와 전기·전자 등 여러 공학이 융합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공학이 토목공학과 왜 연관되나요?

A : ‘자연과 문명의 조화 토목공학’이라는 책을 읽고 토목공학은 제가 관심을 가져온 기계나 전기전자 뿐만 아니라 환경공학 컴퓨터 공학 등 여러 공학이 융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공학이 미래에 사용할 혁신기술로 3D프린터가 있습니다. 3D프린터 중에서 로봇팔식 3D프린터는 기계공학 분야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처럼 토목공학은 여러 공학과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실험동아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해 말해주세요.

A : 친구들과 매번 모여 실험주제를 정할 때 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기주공명장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 이 의견을 냈었고, 휴대폰의 구성부품에 대해 몇 년 전부터 궁금했기에 이 의견도 냈었습니다.

Q : 기주공명장치가 원리가 무엇인가요?

A : 기주공명장치는 두개의 관을 연결해 한쪽 관은 막고 한쪽 관은 뚫은 채 주파수를 발생시켜 소리가 높게 나는 부분을 기록해 파장을 구하고 소리의 속력을 구합니다.

Q : 정상파가 뭐가요?

A : 정상파는 파동의 중첩 현상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파동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 중첩되어 발생합니다.

Q : 만약 기주공명 장치에서 정상파가 아니고 다른 파동이 발생하면?

A : 정상파가 아니라면 파동의 마루와 골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 한국사회복지협회에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나요?

A : 빅피쳐라는 자율동아리에서 어디로 봉사를 갈지 결정하다가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주변에 있는 엘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엘요양원에 가게 되었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잘 못 걸으셨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봉사를 하는 것이라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다 보니 양치도 도와드리고 음식도 먹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친해져서 말동무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Q :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오리가족 기억나시죠? 그 부분에서 왜 생태통로 만드는데 거두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나요?

A : 저는 기사를 읽고 오리가족이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리가족이 길을 건너는 것이 위험하여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생태통로가 도로 위에 지어지기 때문에 동물들이 올 때는 사용하고 없을 때는 거두는 방식의 회전식 생태통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해보세요.

A : 친구들이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20학번이라는 명찰을 만들어줄 만큼 건국대학교는 저의 꿈의 대학교입니다. 저는 사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고 토목공학자가 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의 우수한 커리큘럼인 융합 모듈 클러스터를 통해서 저는 글로벌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스마트운행체공학과		11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K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먼저 대강당 같은 곳에서 응시자 전원 대기후 면접 순번대로 이동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긴장 풀고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계기부터 시작할까요?

A : 어렸을 때 자동차의 동심이 관련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모터쇼 관람활동을 하였고 이를 통해 저는 자율주행시스템의 발전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 또한 이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Q : RC카 조립활동을 하셨는데 자율주행과 같은 시스템과 관련된 활동은 없었나요?

A :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활동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관련 부품이 비싸다는 점,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못해 아직 고교단계에서는 구현이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Q : 음 그러면 드론과 관련된 활동은 없나요?

A : 저희 학교에 드론동아리도 있는데 저는 과학 동아리 소속이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드론을 날려보기는 했습니다.

Q : RC카를 가지고 물리의 가속도와 같은 법칙들을 이해하였다 하는데 가속도를 일정하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나요?

A : 먼저 저희는 1/10스케일 RC카를 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송수신기로는 힘들었지만, 저희가 사용했던 송수신기에는 크루즈기능과 더불어 속도를 일정하게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Q : 가속도 실험을 하면서 공기저항이나 마찰저항은 고려하였나요?

A : 물론 RC카가 운행하면서 받는 공기저항과 마찰저항은 있습니다만 마찰저항은 도로가 울퉁불퉁하면서 받는 마찰지수가 다르며 공기저항까지도 고려하기에는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저항력들을 오차범위로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Q : RC카 엔진과 전동을 만들었는데 두 대 다 다른 차량인가요?

A : 교쇼 페이지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차체는 공유하면서 전동기관을 엔진기관으로 바꿀 수 있는 차량을 사용하였습니다.

Q : 우리 학과에서 뭘 배우는지와 같은 교육과정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듣고 싶은 수업 같은 게 있나요?

A : 저는 전공체험을 통해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스마트 운행체공학개론을 통해 기초지식을 쌓고 2학년이 되어서 자동차나 드론 쪽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저는 자동차쪽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Q : 음 그럼 학과에 대해서는 잘 아실테고... 저희 학과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먼저 스마트운행체공학과는 신설학과로서 국민대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수상 실적 같은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습위주의 수업으로 이론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Q : 본인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A : 저는 자동차와 관련된 활동은 많이 하였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활동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학과에 합격하게 된다면 프로그래밍이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제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갈 생각입니다.

Q : 마지막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 할까요?

A : 스마트운행체공학과만의 장점은 실습을 통해 배우나간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교활동을 사소한 것이라도 자동차와 연관 지어서 이해하였고 실험을 통해 직접 알아나갔습니다. 저의 이러한 성향은 건국대학교 스마트 운행체 공학과와도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식량자원과학과		7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K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 강당에서 대기 후 면접실 앞에서 잠시 대기하고 입실.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바이오스피어 생태자율동아리에서 키운 작물을 어떻게 급식실에 제공했나?

A: 저희가 가꾼 텃밭의 크기는 교내에 있는 텃밭이라기에는 컸지만, 전교생에게 제공할 작물을 키울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Q : 예비학자 양성 프로젝트에서 벼 속의 유연관계를 분석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A: 제가 한 분석은 아니고, 분석된 내용의 논문을 읽었습니다. 총 73종의 벼를 유연관계와 형태적인 유사성을 중심으로 여섯 종의 벼로 분류하였는데, 유전체 단위에서 같은 종으로 분류된 벼도 유전자와 분자생물학적인 수준에서 다른 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Q : 천연비료 어떻게 만들었는지?

A: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 방법을 정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했을 때에 확인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Q : 유전자 재조합에 대해 조사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A: 세균의 원형 DNA인 플라스미드를 클로닝 운반체, 즉 벡터로 뽑아내고, 이를 특정 제한효소로 절단합니다.

Q : 그렇다면 재조합된 유전자와 그냥 유전자는 뭐가 다른가?

A: 대답 잘하지 못했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집 가서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Q : 크리스퍼 카스 유전자가위에 대해 조사했는데 설명해주세요.

A: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1세대의 징크핑거 뉴클레이스와 2세대의 탈렌과 다르게 가이드 RNA가 주도하는 형식의 유전자 가위입니다.

Q : 그렇다면 크리스퍼가 뭐가?

A: (당황해서 잠깐 멈칫하다가 외워 둔 정의가 생각나서 대답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회문 구조 단위의 배열입니다.

Q : 아까 표적이탈효과와 모자이크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왜 나타나는 것 같은지?

A: 표적이탈효과는 가이드 RNA가 목표하는 DNA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일어나고, 모자이크 효과는 언젠가 기사에서 난할 중인 아기에게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Q : 더 잘하고 싶은 과목은? 왜 더 잘하고 싶나?

A : 수학과 화학입니다. 화학은 아무래도 제가 배우고자 하는 과목들과 직결된 교과이기 때문에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수학은 옛날부터 제가 잘하지 못해서, 넘을 수 없는, 넘어야 하는 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Q : 수학 성적 그렇게 안 낮은데?

A : 처음에는 낮았습니다.

Q :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A : 신기하게도 영어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언어 교과를 좋아해 옛날부터 배우고 익히다 보니 잘 하게 되었고,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 자신의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이후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나?

A : 아무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종자연구로 기아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 식물 호르몬 알고 있는 것 있나?

A : 옥신입니다. 1학년 텃밭가꾸기 활동에서 저의 조가 아닌 다른 조에서 해바라기를 키운 적이 있는데, /꿍으 시고 다음 질문

Q : 그럼 다른 건 몰라요?

A :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시간이 10분으로 제한적이라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아요. 지원동기나 자기소개 같은 것도 없이 바로 빠듯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의생명공학	○		
전형명	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강당 대기, 휴대폰도 내고 이름표도 붙임. ◆ 순서대로 다른 층으로 이동함. 면접실 앞에서도 책상에 앉아 기다림.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처음에는 좀 쉬운 질문으로 같게요. (자소서1번)라면에 스프를 먼저 넣으면 맛있는 이유를 어떻게화학적으로 설명했죠?

A : 그것은 증기압력내림에 의한 끓는점 현상 때문입니다. 라면스프는 비휘발성 용질이기 때문에~(증기압력내림 정의 말함)

Q : 왜 끓는점이 오르면 라면이 맛있어지죠?

A : 불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면이 맛있어집니다!

Q : 박테리아 프로그래밍 R&E를 했다는데 여기서 무엇을 했나요?

A :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R&E 실험 요약 설명)

Q : 유전자를 조작하면 DNA가 바뀌나요?

A : 아니요. 유전자를 조작했기보다 플라스미드를 넣어주어서 발현되는 단백질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이걸로 익 티베이터와 리프레서를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Q : 자소서 4번에 페닐케톤뇨증기트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험을 한 건가요? (생명Ⅱ 세특, 자소서)

A : 아니요. 도안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Q : 아..(실망한눈치) 이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준비해간 이야기함.

Q : 그런데 페닐케톤뇨증은 유전병이니까 병을 진단하기보다 병을 없애는데 중요하지 않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페닐케톤뇨증은 상염색체 유전으로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페닐알라닌의 농도에 개인차가 있다고합니다. 그래서~(마무리)

Q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3학년 동아리 시간에만 브로콜리추출 실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거의 다 꼬리 질문이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워서 준비하기보단 생기부, 자소서 내용 숙지에 더 초점 둘 필요가 있음. 실험 공부는 필수고 생기부에 생명과학 관련 동아리, 세특은 무조건 알아가야 함. 간단하다고 생각한 내용에 질문을 많이 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공학부		1	
전형명	KU-자기추천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2(면접위원) : 1(면접자)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대기시간에 자료 볼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오는데 어땠어요? 힘들지는 않았어요?

A : 네, 어제 와서 아침에 편안하게 준비했습니다.

Q : 아 지방에서 오셨나 보네요?

A : 네, 저 대구 옆에 경산에서 왔습니다.

Q : 오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요.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A : 네.

Q : 그럼 질문해볼게요. 동적계획법 적용해서 오르막 수라는 문제를 풀었다고 했는데, 언급한 '모든 경우에서 성립하는 점화식'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 n자리 오르막 수를 구하기 위해 n-1자리 오르막 수의 개수를 이용해 가장 앞자리 수의 경우를 나누어 점화식을 구했습니다.

Q : 알겠습니다. 그럼 경사하강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경사하강법 설명, 단점 언급

Q : 그럼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함수의 값은 0이지만 양쪽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서 양쪽의 부호를 검사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Q : '쉽게 배우는 유전 알고리즘' 책 언급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질문함.

A : 지수귀문도 설명함. 지수귀문도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 사용 설명

Q : 왜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죠?

A : 지수귀문도가 np-hard 문제고, 정확한 풀이가 없는 대신 근사 알고리즘인 유전 알고리즘 사용, 랜덤한 개체를 생성해서 적합도 값을 점점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유전 알고리즘 사용했다고 대답함. (잘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이해했다는 뜻이 고개 끄덕여 주심)

Q :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A : 어려웠던 점, 어떻게 해결했는지 대답함

Q : 알겠습니다. 그럼 객체 지향이란 말 들어봤을 건데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A : 절차적 프로그램과 비교하면서 설명함

Q : 단점은 없을까요?

A : 객체 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냥 꼬덕거리시면서 넘어감)

Q : 경사하강법 프로그램할 때 어떤 언어 사용했나요?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함수를 사용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사용했나요?

A : 파이썬을 이용했고, matplotlib를 이용해 사용자가 함수를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했다고 대답함.

Q : 수학 독후감 대회에서 수상한 건 어떤 건가요?

A : 구수락이라는 지수귀문도가 언급된 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유전 알고리즘 적용했고, c언어로 구현한 것을 발표했다고 대답함.

Q : 물어보고 싶은 것이 다 연관성이 있네요. 벌써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A : 지원동기, 꼭 뽑아달라는 식으로 마무리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기소개서 위주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았고, 특히 전공 관련 내용에서 장점, 단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음.
- ◆ 긴장해서 많이 잘 전달을 못 한 것 같았는데, 다 잘 들어주시고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심.
- ◆ 크게 압박 면접은 아니니 본인이 준비한 자료들을 다 잘 정리해서 가면 편안하게 보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문화콘텐츠 학부	○		
전형명	Cogito자기 추천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 랜덤으로 지정된 번호가 붙여진 자리에 앉아있다가 순서대로 면접 시작		
유의사항	◆ 마지막 번호라고 하더라도 절대 지치지 않아야 한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글짓기상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었나요?

A :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마다 열심히 참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점점 잘하게 되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Q :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요?

A : 제가 원래 유아를 좋아했는데 그 이후 유아와 미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다가 동화와 애니메이션에는 교훈과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동화적 요소를 저의 콘텐츠에 담아보고 싶어 동화 한국어 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이 학교 어때요?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A : 저는 학교 자체도 너무 좋지만 동화 한국어 전공에 많은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Q : 실장을 3년 동안 했는데 자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A : 저는 포용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품지 못하면 마지막까지 공동체가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 자신을 광고해보세요

A : 저는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봉사를 꾸준히 잘하는 학생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Q : SNS의 순기능, 역기능을 말해보세요.

A : 순기능: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 역기능: 익명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악플이라는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강화한다면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이다.

Q : 시를 감상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 : 저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를 잘 이해하고 시인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면 시를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낭송이기 때문에 이를 듣는 친구들에게도 공감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은 평소 생각했던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떨리더라도 절대 떨 필요 없다. 면접 중 자신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면접에 임해야 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바이오융합과학부		13	
전형명	Cogito자기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 - 2명씩 호출하여 면접실 앞 복도에서 대기 - 면접관 2명에서 질문 - 면접실 퇴장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이름과 학교, 사는 곳, 부모님 직업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도 언급 금지(면접 시작하기 전에 면접관님께서 면접 중 유의사항 말해주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이 학교에서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A : 평소에 인간 모델 생명체와 유전자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지식을 더 쌓으면 대학원에 진학해 계속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Q : 이 학과에 충족하기 위해 자신이 노력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요?

A : 아직은 아는 것이 많이 없지만,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답변은 더 했지만 횡설수설해서 기억이 안 남)

Q : (자소서 내용) 4차 산업혁명 강연이 자신의 머리를 강타했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건가요?

A : 이 강연에서 소개하는 10대 유망직종에 생명과학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 꿈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일자리가 일치해 인상 깊었습니다.

Q : 4차 산업혁명에서 생명과학 연구원으로써 자신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요?

A : 과학은 화학의 발전을 중심으로 물리학으로 발전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명과학이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생명과학을 융합하여 연구하는 분야를 찾는 분석력을 기르고 관찰력 또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해보세요. (생기부에는 찬성 입장을 주장)

A : 아무래도 윤리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사회는 도덕적 판단을 기본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과학 기술도 도덕을 벗어난 기술은 성과가 있을지 몰라도 사회의 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질문과 대답 사이의 틈이 있었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해 긴장한 티가 많이 났다. 자신감 있게만 대답하면 좋은 결과과 있을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건양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전형명	건양 사람인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개의 방을 들어가서 면접을 봐야 함			
유의사항	◆ 2:1 면접이며, 한 방에 교수님 2분이 있으심 ◆ 면접 시, 생기부를 보지 않고 질문하심				
질문 및 답변 내용					
<p><1번 방></p> <p>Q :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말해 보세요.</p> <p>A :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 보건실 도우미 활동을 예로 들어 설명함</p> <p>Q :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p> <p>A : 꼼꼼함, 학급 서기 활동을 근거로 설명함</p> <p>Q : 앞에서 말한 활동들은 각각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했던 것인가?</p> <p>A : 일주일, 3학년 1학기 내내</p> <p><2번 방></p> <p>Q : 우리 학교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 보세요.</p> <p>Q : 건양대 간호학과의 장점에 대해 말해 보세요.</p> <p>A : 건양대병원의 장점을 답변함. 나중에 그거 말고 건양대 '간호학과'의 장점을 다시 말해 보라고 하셨음</p> <p><3번 방></p> <p>Q : 간호와 관련된 본인이 직접 활동한 것 중 2가지만 말해 보세요.</p> <p>Q : (생기부에 적힌) 기초간호실습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p>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p>◆ 방이 3개나 되어 주어진 답변 시간이 생각보다 짧음. 특히 교수님이 꼬리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중간에 끊는 경우가 있음.</p> <p>◆ 건양대와 건양대 간호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고 가야 함.</p>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기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디자인비즈(산업디자인)	○		
전형명	KGU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3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제시어 받고 60분동안 아이디어 스케치 ◆ 대기실에서 아이디어 스케치 제출하고 본인 면접순서 기다림 ◆ 면접대기 중 본인 아이디어 스케치 복사본 받고 발표내용 구상 ◆ 면접실 들어가서 아이디어 스케치 3분간 발표, 질의응답 ◆ 생기부, 자소서 기반 면접 (교수님 두 분 앉아계심), 2:1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학교에서 제공한 도구 외의 도구 사용금지(아이디어 스케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아이디어 스케치 발표 (2019년 주제=50년 뒤 인구 가치관 기술, 기후 등이 바뀔에 따른 의복 디자인)

A : 저는 우선 50년 뒤의 기후를 상상하고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오존층 파괴 문제가 심화 되어 의복은 사람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차단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복의 겉 재질은 ~ 생각합니다.

Q : 기후와 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인구수는 어떻게 변할 것 같은가?

A : 지구온난화로 작물 재배량이 줄어들어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발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질문은 1개만 받았습니다.)

◆ 생기부 기반 질문

Q : 1학년 때부터 아트피아 미술동아리 활동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다까?

A : 저는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꿈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기에 동아리에 가입하여 자동차 디자인활동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멋있는 자동차를 그리는 것이 아닌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해보려 노력했습니다.

Q :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자동차 디자인은?

A : 작년 여름 밴드부 대회를 위해 갔던 포항에서 찍은 사진 중 해변의 모래알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던 자동차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래알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과 무수히 많은 양의 모래알들이 모여서 빛을 내는 모습을 보고 기존 자동차의 덩어리적인 헤드라이트와는 반대로 작은 LED가 여러 개 박혀있는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곳에서 경험하고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밴드부 활동을 하셨네요. 왜 밴드부 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A :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드럼을 취미로 연주하였고 고등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음악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미대입시 실기나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였지만 오히려 저는 학업 스트레스를 드럼연주를 통해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Q : 밴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A : 축제 공연 준비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동아리시간과 쉬는 시간에 연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이스기타를 담당하는 친구는 악기에 관심은 많지만 베이스기타를 처음 접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베이스기타를 함께 공부해서 어느정도 실력까지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공연을 만들어냈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 자동차 디자이너가 장래희망에 적혀있는데 우리 학교는 자동차 디자인학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A : 원서를 내기 전 학과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고 1학년 때는 66명이 공통으로 디자인학부로 수업을 듣지만 2학년 때는 성적순으로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주얼리비즈니스학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산업디자인학과를 선택하게 된다면 자동차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비즈니스학과에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Q :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A : '미술 세상을 바꾸다'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책의 내용 중 브라질의 파벨라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은 상당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슬럼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려 동네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한 범죄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 예술이 이렇게 사회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질문함-학과 조사를 미리 해서 알고 있어야 함
- ◆ 들어갈 때 나올 때 인사 크게 해야 함-기억에 남을 수 있음
- ◆ 아이디어 스케치 그림 실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음. 창의력이 중요하고 면접 대기할 때 본인이 그린 스케치 주면 발표할 내용 미리 머릿속에 구상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기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신소재공학과			
전형명	KGU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		
유의사항	◆ 교복착용금지 ◆ 면접대기실 제 입실 불가 ◆ 휴대폰 및 스마트기기 제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A : 준비한 거 말함

Q : 수상 기록 중에 탐구 활동 보고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 : 주제를 정한 동기와 과정 어려웠던 점 등을 말함.

Q : 자기소개서에 태양전지의 원리에 대해 적혀있는데 태양전지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A : 태양전지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구조로써 빛을 비추게 되면 전자는 n형 반도체로 양공은 p형 반도체로 이동함에 따라 n극과 p극 사이의 전위차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Q : 2학년 때 과학탐구반에서 소 눈 해부 실험을 하였는데 어떻게 했나요?

A : 칼을 이용해서 소 눈을 자른 후 망막, 수정체 등을 분리하였습니다.

Q :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A : 해부용 칼이 아니라 소 눈 안에 있는 것들을 자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Q : 아까 자기소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학과가 있는데 굳이 신소재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A :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고 싶다.(이런 식으로 말함)

Q : 그러면 혹시 알고 있는 신소재가 있나요?

A : 인터넷 기사에서 접한 신소재에 대해 말하면서 기사 내용도 함께 설명함.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준비한 거 대답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기본적으로 자소서와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상세히 알아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기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호텔경영학과		23	
전형명 / 성적	KGU 학생부종합전형 / 내신 성적 2.53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입실→출석 체크→수험생 유의사항 공지→휴대폰 수거→수험생 면접고사장 입실→종합서류평가 연계질의응답→귀가		
유의사항	◆ 면접관은 여자1, 남자1 총 두 분임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해 주세요.

A : 저는 제 장점으로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강한 책임감과 인내심입니다. 고교생활에 있어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친구들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또한, 뒤처지는 친구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도와주어 함께 성장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들을 활용해서 호텔경영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Q : 영자신문 동아리에서 '영어공용화론 쟁점 분석'으로 동아리 학술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A : 영어 공용화의 긍정 측, 부정 측 논점을 분석한 뒤 한국에서의 영어 공용화 논의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Q : 본인의 견해는 어떠했나요?

A : 영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전국적 영어 공용화에서 찾기보다는 영어 매체와 같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수상 실적이 많은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수상은 무엇인가요?

A :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수상은 학술보고서 발표회 수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호텔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했는데 호텔 서비스와 4차 산업혁명이 융합된 사례를 조사하고 호텔 서비스의 미래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저의 진로를 더 구체화할 수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자기소개 때 친구들을 책임감 있게 이끌었다고 했는데, 그 사례를 말해 보세요.

A : 제가 영자신문 동아리에서 기장을 맡았었는데, 교내 동아리 축제 준비를 위해 영자산문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영문기사에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원이 있어 활동 진행이 늦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교내 도서관에서 실제 영자신문을 빌려와 영문기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Q : 동화책 번역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 지구촌 이웃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던 중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아니, 지구촌 이웃을 위해 그런 것을 찾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말해 주세요.

A : 학교 국어 시간에 '이 사진 앞에서'라는 구체시를 배웠는데 그 시에 굶어서 죽어가는 소말리아 아이의 사진이 실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촌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던 중 ADRF 기관의 동화책 번역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카페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동화책 번역봉사'라는 것이 새로웠고 학생인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 사회문화 시간에 '청소년의 공부 시간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계획이나 가설설정 등에 대해 말해 보세요.

A : 일단 '청소년의 공부 시간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Q : 아 보고서까지 작성했나요?

A : 네. 계획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선생님께 제출하는 모둠 활동이었습니다.

Q : 동화책 번역 동아리 활동에서 번역기는 어느 정도 사용했나요?

A : 처음 번역할 때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저의 지식을 바탕으로 번역을 한 뒤에 모르는 단어나 '서방님'과 같은 한국 특유 어휘를 비슷한 의미의 영어로 바꿔야 할 때 사전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감수자님의 교정을 거쳐 번역을 마무리했습니다.

Q : 준비했던 질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A : 네.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나가세요

A : 먼저 1단계 합격하고 너무 기뻐고 면접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한 목표는 반드시 지키자.'라는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목표는 경기대학교에서 호텔경영에 대해 배워 호텔리어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대학교에 꼭 진학하여 글로벌 감각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가 되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소서보다 생기부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았고, 저는 세특 질문 빼고는 준비해 간 질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급하게 지어내서라도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생기부에 자신이 한 활동을 세세하게 한 번씩 꼭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본인이 봐도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심층적으로 준비하고, 보편적인 내용은 어떤 걸 했는지 기억할 정도로 준비하면 답변에 문제가 없을 듯함) 그리고 조교님이 문밖에서 7분 30초, 9분 30초 이렇게 총 두 번 노크로 시간을 알려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군사학과	○		
전형명	군사학과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면접장(5분), 2면접장(5분), 3면접장(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1면접장(외적자세, 품성평가) 2면접장(내적역량-국가관, 리더십 등) 3면접장(인성평가) 실기(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아님, 면접관 2 : 학생 1			

질문 및 답변 내용

◆ 조별마다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서가 다름. 저는(2-3-1) 순서로 들어갔습니다.

◆ 2면접장

Q : 자신이 군사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학창 시절부터 군인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찾아보았고, 그중 대학에 있는 군사학과에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학교 군사학과가 장교가 되는데 수업 커리큘럼 및 체계적인 관리를 잘해 준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장차 우리학교 군사학과 학생이 된다면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고 선, 후배님들과도 단결과 화합을 함으로써 올바른 장교의 품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Q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A : 저의 성격적인 장점은 인내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학창시절 수학적 원리를 이용한 도형 만들기에서, 동기들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저의 단점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 대해 낯을 조금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발표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3면접장 - 제시문 조별토론 및 개별 답변

방에 조별로 들어가서 제시문(1. 상황 제시, 2. 국가관 혹은 안보관 관련)을 읽고 준비된 시간 동안 자기 생각을 쓰고 (8분)대기합니다. 다음 면접장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조원들(8명)과 토론(의견이 통합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해 의견을 통합하고 최종 결론을 면접관님들께 제시합니다. (이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판단합니다.)

◆ 제시문(A4용지에 두 문제가 적혀있음.)

Q : (조별토론) A는 성실한 직원입니다. 어느 날 A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A의 상사 B는 남아서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A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갈 것인가 B와 함께 야근할 것인가?

Q : (개별 답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1면접장

Q : 1분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A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 손으로 직접 지키고 싶은 군사학과 지원자 ○○○ 입니다. 저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간호사이신 어머니 슬하에서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저의 성격적인 장점은 인내심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장점을 살려 학창 시절 수학적 원리를 이용한 도형 만들기에서, 동기들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좋은 장점을 살려 장차 우리학교 군사학과 학생이 된다면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고 선, 후배들과도 단결과 화합을 함으로써 올바른 장교의 품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은 무엇입니까?

A : 제가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학생이 된다면 동기들과 친하게 지내고 선, 후배들과도 단결함으로써 올바른 장교의 품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존경하는 위인은 누구입니까?

A : 제가 존경하는 위인은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가로 우리나라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뛰어난 애국심을 가지고 독립을 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안중근 의사처럼 뛰어난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하지 말고, 발음 정확하게 해서 말해야 합니다. 틀리더라도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최저 꼭 맞추세요. 못 맞춘 사람들 많습니다.

◆ 지원한 동기와 자기소개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좋게 보신 듯합니다.

◆ 실기는 성실히 준비한 대로 하면 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전형명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대기장 도착하면 신분증과 수험표로 본인 확인한 후, 임시번호대로 자리 배치됨. ◆ 교수님 들어오셔서 간단한 진행방식과 안내사항 전달 ◆ 휴대폰 및 모든 자료 제출 ◆ 앞번호 사람 끝나 갈 때쯤 모든 소지품 들고 고사장 앞으로 감 ◆ 가방 및 모든 소지품 고사장 앞에 두고 입장(면접관 2 : 지원자 1) ◆ 면접 끝나면 바로 귀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표와 신분증(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필참. (신분증 안 들고 가면 행정실에서 임시 신분증 발급받고 나중에 본인이 신분증 들고 학교 행정실 재방문 해야함) ◆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교복 착용 금지, 학교 이름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고혈압 환자는 싱겁게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실험 설계에 대한 내용과 느낀점?</p> <p>A : 생1에서 가설설정 과정 등을 배운 후, 직접 왜 '고혈압 환자는 싱겁게 먹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직접 실험 설계를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짜게 먹는다면, 그만큼 물을 많이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 다시 혈압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고혈압 환자는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p> <p>Q : (포리질문)그러면 실험 설계까지만 한 건가요?</p> <p>Q : pH 항상성 유지 내용에 대해 학습한 경험을 설명하고 느낀점을 말해주세요.</p> <p>A : pH 항상성 유지에 관한 내용은 사실 교과과정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교과과정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항상성 유지에 관해 설명해주시던 도중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pH가 일정하게 유지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직접 선생님께 찾아가서 여쭙보기도 하고, 화학평형의 개념의 학습을 위해 심화과목인 화학Ⅱ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였습니다. 이처럼 교과과정 이외의 내용이라도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해보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p> <p>Q : 동아리에서 기본 간호 실습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걸 했는지?</p> <p>A : 그건 학과 체험에서 근육 주사를 모형에 실습해보았습니다.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생각보다 피스톤을 한 손으로 빼내는 것도 힘들었고, 긴장하다 보니 순서도 헷갈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p> <p>Q : (포리질문) 그럼 여기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 있나요?</p> <p>A : 제가 꿈꾸던 실습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p>					

Q : 요양원 봉사를 했는데, 어떤 것을 했고 느낀 점은?

A : 저는 무료 급식 배식을 담당했습니다. ~말씀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 인상 깊은 독서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A : 제가 읽은 도서들 대부분은 간호사분들이 쓰신 책들인데요, 그런 것도 좋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동아리에서 연명의료 결정과 DNA에 관해 찬반 토론을 하였습니다.

Q : 응급 전문 간호사를 아직도 꿈꾸고 있는지. 계기는?

A :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평소 의료 다큐멘터리를 즐겨보았는데 주로 응급실을 다루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인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들을 생의 경계로 이끈다는 점에서 응급실 간호사가 굉장히 멋져 보여서 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Q : (포리질문) 어떤 자질이 필요한 것 같나요?

A : 아무래도 응급실이다 보니 꼼꼼함과 차분함에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기록해야 하고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찾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 (포리질문) 본인은 이 자질들을 갖추고 있나요?

A : 주로 실험 보고서들을 제가 담당했기에 꼼꼼함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요양원 봉사에서 스스로 제가 할 일을 찾아내는 능력 또한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Q : 논술 대회 중 배우고 느낀 점은?

A : 저는 생명과학논술이 제일 기억이 남는데요, 그때까지 배웠던 생명과학 I, II에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는 ~

Q : 반장, 부반장 경험 중 갈등 해결 경험이 있나요?

A : 아무래도 20여 명이 함께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야 하는 학급 회의 때 갈등이 주로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생략~ 절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 주사 부위에 따른 속도 차이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느낀 점을 말해 주세요.

A : 약물의 투여 방법이 주사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가 궁금하셔서 주체적으로 조사해보았습니다. 약물의 종류와 접근성에 따라 주사의 부위가 달라지고, 각 부위에 따라 약물의 전파 속도가 달라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의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기부에 적힌 모든 활동은 반드시 내용과 함께 느낀 점 혹은 배운 점은 반드시 껴고 있어야 합니다. 그중 인상 깊은 독서와 봉사활동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물어본다 해도 무방하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영학과		○		
전형명	학생부 농어촌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확인절차 -> 유의사항 -> 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으로 자신의 이름, 소개 인적사항 드러나는 것 금지 ◆ 다른 특별한 유의사항은 없는 듯, 안내를 잘해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진로개발특강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배웠나요?

A : 회계사를 추상적으로 재무감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재무감사가 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세무사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함.

Q : 그렇다면 왜 세무사가 아니고 회계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A :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사이의 관계에 힘을 쓰고 싶었다.

Q : 창의융합주제 발표대회를 했는데 어떤 걸 탐구했는가?

A : '마켓 4.0' 도서를 이야기하여 계기를 말했으며 최근 이슈와 엮어서 안정성의 위험을 언급하였음.

Q : 그럼 경제 관련 지식 도서를 무엇을 읽었는가?

A : 어떤 경영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경제 관련 세부 지식이 생각이 안나 경영인이 가져야 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깊게 알았다고 대답함.

Q :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수학기량 엮어서 회계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A :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위여부를 밝혀주는 좋은 직업이고 사회 청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과정 자체가 증명과정이기 때문이다.

Q : 그 말을 부정하려는 건 아닌데 숫자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될 수 있지 않은가?

A : 당연히 개입될 수 있다. 다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숫자를 검증한 것은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다.

Q : 회계사는 상당히 취득하기 어려운 직업인데, 자신이 이걸 할 끈기와 역량이 되는가?

A : 저는 꾸준히 실패를 통해 전략을 만들고 성장해나갔다. 제시 리버모어를 상당히 존경하는데 모든 걸 기록하고 발전해나가는 것이 나에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또 회계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 그 열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기본적 사고력, 임기응변이 중요한 듯하다. 꼭 준비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준비한 답변으로 엮어서 이야기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제통상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 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세테리스파리부스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세테리스파리부스의 정의를 알고 있나?

A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으로써 한 요소가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기 위해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 이 동아리에서 브렉시트에 관련된 활동을 했네. 왜 영국이 EU를 탈퇴하려고 하는지 아나?

A : 영국이 2번째로 분담금을 많이 내는 반면에 그만큼 돌아오는 혜택이 미비하고 또한 일자리를 찾으려 유럽에서 영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영국인의 취업 기회가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 만약 노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에 미칠 영향은?

A : 파운드화 폭락의 우려가 있고 물품 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대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많다는 의견이네?

A : 네 그렇습니다.

Q : 부호화 가능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나?

A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호화 가능성은 어떤 개념이 얼마만큼 쉽게 표현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Q : 그러면 우리나라와 영어를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부호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나?

A : 언어의 부호화 가능성을 비교할 때는 3개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타협하다’ 라는 단어는 영어로 ‘compromise’ 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아랍어로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다’ 와 같이 타협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에둘러 말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 ‘타협하다’ 라는 단어에 있어서는 영어가 아랍어보다 부호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 왜 경제를 배우고 싶나. 지원동기가 뭐가?

A : 저는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영어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외국어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다 영어만큼이나 만국 공통인 것이 사고파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가 간의 경제

관계를 파악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계적인 범위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은 무역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무역에 꼭 필요한 경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소서에 물품 팔았다고 되어있는데 뭐 팔았어요?

A : 메모지를 제작했습니다.

Q : 왜 메모지를 선택한 거예요?

A : 아무래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학생들에게 많이 필요한 학용품을 제작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자소서를 보니까 많이 팔리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잘 안 팔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A : 200개를 제작했는데 재고가 42개 남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봤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팔리지 않았던 이유는 판매대상과 시장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기 때문이고 차별화되지 않은 디자인이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기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Q : 영어에세이대회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A : 영어에세이대회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나 본 영화에 대해 50분 동안 그 자리에서 책의 내용과 느낀 점을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던 대회입니다.

Q : 영어에 자신이 있나 봐요?

A : 좋아하는 만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Q : 학생은 뭔가를 할 때 조심하는 성격이예요. 아니면 일이 안 풀려도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예요? 만약 학과 공부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A : 일이 안 풀려도 밀고 나가는 스타일에 가깝습니다. 학과 공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학과 공부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학부에서도 배울 수 있는 과목이 다양하니 그 중의 제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과목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학부에 진학하고 싶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면 복수전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이 했던 핵심활동에서 여러 개의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것도 면접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개념만을 설명하기보다는 예시를 들어 설명했을 때 입학사정관/교수님이 관심을 더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국문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8시 30분에 입실(무슨 일이 있어도 8시 30분까지 들어가야 함) ◆ 9시부터 면접 시작(9시가 되면 자신의 생기부, 자소서 등 관련 자료를 절대 로 볼 수 없음)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교복을 착용할 수 없고 최대한 단정한 복장으로 가야 함. ◆ 자신의 이름, 수험번호를 언급할 수 없음(예비번호가 있고, 예비번호 외엔 일 체 언급할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서에 보면 잘못된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신조어 같은 말은 잘못된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신조어 같은 말은 주로 젊은 세대가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우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잘못된 말과 올바른 말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말과 올바른 말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어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말인가 아닌가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나요?

A : 저는 많은 사람이 잘못된 우리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나 여러 단체에서 잘못된 우리말을 알려주는 포스터나 인쇄물을 제작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 ‘국화와 칼’을 읽었는데 국화와 칼에서 어떤 부분을 인상 깊게 읽었나요?

A : 일본의 기모노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Q : 국화와 칼이라는 제목에서 국화와 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요?

A : 일본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공자 책을 읽었는데 책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었나요?

A : 공자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해 해설을 해놓은 형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Q : 공자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공자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A : ‘만일 내가 의롭지 않다면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Q : 수상 기록을 보니 대회에 많이 참가했는데 참가한 대회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대회는 무엇이었나요?

A : 고등학교 3학년 때 참가한 문예창작공모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대회에서 소설 부문에 참가했었습니다.

Q : 그 대회에서 제출한 소설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A : 고등학생 3학년인 두 남학생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성장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Q : 도서관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는데 주로 무슨 활동을 했나요?

A : 도서관 봉사활동에서 기본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어린이 자료실에서 활동했는데, 청구 기호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책을 찾도록 도와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느낀 점과 어려웠던 점: 생기부를 정말 꼼꼼히 봐야 한다는 점을 느꼈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면접관의 질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어려웠다.
- ◆ 자신의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는 완전히 숙달하고 가야 한다. 그리고 꼬리 질문을 대비하여 생기부에 적힌 내 활동의 동기, 과정, 결과를 그려나가면서 답변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의면접 할 때 많이 떨리고 실수해서 걱정될 텐데, 실제로 면접할 때에는 그렇게 떨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면접관에게 그냥 나의 이야기를 얘기해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면접 보는 것이 제일 좋다. 면접 연습할 때 눈을 감고 답변을 외우는 아이들도 많이 봤는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가급적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좋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공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이름 및 출신고교 언급 금지 ◆ 대기실 내에서 잡담 금지, 자기소개는 주어진 임시번호를 말하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과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는데 경시대회는 어떤 문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나?

A : 과학경시대회는 주로 역학 문제와 전기문제로 구성되었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언급해주셨던 교과 외의 지식까지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Q : 기계공학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기억에 남는 문제와 해결방법은?

A : 교육 과정 내에서는 모든 역학문제에서 마찰력을 제외하고 물어보지만 경시대회에서는 마찰력을 고려하여 푸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알짜 힘을 구하는 방식에서 마찰력을 빼주어 개선해 주었는데 선생님께서 마찰력은 질량에 비례한다고 말씀해주신 것이 기억나 마찰력과 질량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Q : 생기부를 보면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양자역학이란?

A : 양자역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시세계가 아닌 미시세계의 원자나 전자 등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Q : 개념 잡는 비주얼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A : 양자역학의 정의와 특징, 이용되는 실제 사례들을 담아 놓은 책입니다.

Q : 양자역학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는?

A : 대표적인 예로는 양자컴퓨터를 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컴퓨터는 한 계산자 내에서 0 또는 1로 하나의 값을 가지지만 양자컴퓨터는 한 계산자내에 0과1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2의 거듭제곱으로 빨라진 컴퓨터를 말합니다.

Q : 트랜지스터에서 반도체에 불순물을 섞는다고 했는데 불순물이란?

A : 불순물은 13족, 또는 15족 원소를 말하며 원자가 전자가 4개인 14족 원소와는 다르게 원자가 전자가 3개, 5개로 구성되어 잉여전자가 남거나 양공을 생성시켜주어 전기전도성을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Q : 양자역학의 상보성원리에 대해 적어놨는데 상보성 원리란?

A : 양자역학의 상보성 원리는 닐슨 보어가 주장한 것으로 한 계에서의 한 특성을 고려할 때 그 계안에서 다른 특성은 제외한다는 이론입니다.

Q :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더 쉽게 말한다면?

A : 예를 들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계산할 때 위치를 파악할 때는 짧은 파장, 운동량을 파악할 때는 긴 파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때 이 위치와 운동량의 관계를 상보적 관계에 있다고 하고, 위치를 파악할 때는 운동량에 대한 지식을 제외하고 그의 역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Q : 봉사활동에서 상대방을 배려해준 경험이 많은데 반대로 배려를 받은 경험은?

A : 제가 친구들에게 배려를 많이 해준 만큼 저도 친구들에게 배려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시험 울렁증이 있어 시험을 망치고 우울해 있을 때 친구들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말하며 준 초콜릿이나 위로들로 많은 배려를 느꼈습니다.

Q : 그 배려에 대한 보답은?

A : 직접적으로 보답을 해주기보다는 그 격려 덕분에 다음 시험에서 혹은 다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친구들에게 보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관 2명 중에서 한 명은 많이 웃어주시지만 나머지 한 명은 약간 분위기 잡으시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게 도와주심. 고개도 끄덕여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반박도 하시면서 약간 면접 보다는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마음 편하게 하면 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바이오섬유소재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블라인드 면접) ◆ 수험표와 신분증 필수 ◆ 입실 시간 오전반이라 8:30분이었는데 8:30분부터는 자료 못 봄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뭐 아침은 먹고 왔나요?

A : 네! 먹고 왔습니다.

Q : 그럼 다행이네요. 면접이라고 너무 잘하려고 하면 더 말이 안 나오니깐 우리랑 대화한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면 돼요.

A : 네

Q : 본인이 고등학교 생활 중 학업 관련해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든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말해 주세요.

A : 국어성적 6등급에서 3등급 올린 것을 등급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과정을 풀어서 설명함.

Q : 구체적으로 몇 등급 올렸나요?

A :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렸습니다.

Q : 진로희망사항을 보면 1, 2학년 때랑 3학년 때 다르네요? 화장품이랑(1, 2학년 진로), 친환경 소재(3학년 진로) 둘 다 배우기는 하는데 바뀐 이유가 있나요?

A : 준비한 거 설명함

Q : 그럼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활동 같은 거 있어요?

A : 스크랩 활동한 거 설명함

Q : 스크랩 활동을 얼마 동안 한 건가요?

A : 3학년 때부터니깐 6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Q : 스크랩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A : 준비한 거 설명함.

Q : 자소서에 동아리 활동을 보면 선후배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활동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보통 선후배는 수직적인 관계가 되기 쉽잖아요? 그럼 선후배의 입장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A : 대화를 많이 하고 후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 같음.

Q : 그럼 반대로 후배의 입장에서는?

A : 먼저 다가가서 어색함을 푸는~~생략

Q : 자소서에서 보면 기체확산실험을 해서 반데르발스 방정식과 이상기체 방정식을 활용했다고 적혀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반데르발스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조건은?

A : 분자의 부피와 인력을 고려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교과정에서 반데르발스 방정식은 언급만 될 뿐 이상기체를 주로 배우는데 의외의 질문이 나와서 당황함.)

Q : 분자의 인력과 부피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A : 네.

Q : 그럼 공유결합같은 분자는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A : 공유결합의 인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자소서에서 소논문 작성 활동을 했는데 논문을 참고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해서 작성한 건지?

A : 제가 직접 실험을 하여 소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Q : 어떻게 실험을 했나요?

A : 과정 설명

Q : 누에고치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실험했을 때 효과가 있었나요?

A : 네! 있었습니다.

Q :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효과의 원인인 누에고치의 인자가 뭐가요?

A : 누에고치의 구조를 설명했으나 교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닌 것 같았음.

Q : 보통 마스크를 제작하면 먼지를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 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단 말이죠? 실험할 때 어떻게 그것들의 균형을 맞추면서 했죠?

A : 저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이렇게 나누어 채점한다고 되어있는데 질문도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것 같았음.
- ◆ 생기부보다 자소서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물어봄.
- ◆ 올해는 자기소개, 지원동기, 마지막 말 안 물어봄. (2분 스피치 폐지)
- ◆ 자소서나 본인이 한 활동의 지식적인 부분은 꼭 숙지하고 가면 도움이 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회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 입실 -> 입실 마감 10분 후 가져온 자료 모두 가방에 넣고 앞으로 제출 -> 면접장 앞에서 대기 -> 교수님과 2:1 면접 후 퇴실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이라 교복착용 금지 ◆ 대기하면서 자료 보기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수학 발표 때 선생님께 지적을 받고 수학 기초를 다시 쌓았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소서 1번)

A : 자소서 1번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짧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Q : 아 그럼 그렇게 기초를 닦았더니 확실히 수학이 쉬워지던가요?

A : 네!

Q : 혹시 사례라던가 들어서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A : 함수의 극한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전까지 함수의 극한을 정해진 형식에 맞춰 기계처럼 풀었는데 발표 당시에 선생님께서 극한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등 기본 개념을 물어셔서 대답하지 못했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경험을 통해 어떻게 발전했는지까지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Q : 진로가 심리치료사에서 사회학계열로 바뀐 동기나 이유 혹시 있어요? (생기부)

A : 저의 지원 동기는 진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친구들과 자주 상담하면서 개인의 심리나 정서에 흥미가 생겨 심리치료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끼던 저는 사회구조와 관련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임금노동 사회 속에서 개인이 보람보다 야근 수당을 중시하는 풍토를 담은 책과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으면서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구조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개인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에 접근할 필요를 느껴 사회학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Q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좀 조사해봤다고 쓰여있네요. 이걸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소서)

A : 네. 저는 예전에 시사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00초 정치사회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KTX 승무원 해고 사태를 통해서 열악한 계약 조건과 근무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근무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더 없을까 조사하던 중, '감정노동자'로 일컬어지는 서비스직 종사자

들이 인권 침해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무엇이 있을까 탐색하는 과정에서 산업 안전보건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산업 안전 보건법 내용에는 어떤 게 있었죠?

A :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던 차여서 예전에 얼핏 본거 진짜 더듬더듬 말했어요. 고객응대메뉴얼을 정해두고 서비직 종사자들의 정신적 치료를 제공하며 ~생략

Q : 말벗 도우미 활동을 했다는데... 이걸 자기가 직접 만든 활동인가요 아님 기존에 있는 거였나요?

A :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신청했고 어떤 식으로 조를 구성해 봉사를 진행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였다고도 말씀드렸어요.

Q : 독거노인들과 만나면서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했어요?

A : 제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낸 노인께서는 허리와 다리가 몹시 아프셔서 외출에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병세가 악화된 독거노인들을 위한 의료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외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식자재 배달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산책조차 하지 못해 쓸쓸하신 독거노인들을 위해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말벗 봉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 : 청소년들이랑 노인들 사이의 세대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청소년과 노인들은 각각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면서~생략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2분 스피치가 사라져서 바로 자소서/전공에 관련된 질문 들어옵니다. 자소서랑 생기부 위주로 꼼꼼히 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목 선택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 것 같고 자소서랑 생기부 초반 (진로, 창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꼬리 질문 많이 달리는 것도 유의하심이 좋을 거 같아요. 예상할법한 질문도 나왔지만 예상 못 한 것들도 많아서 융통성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식품공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8시 30분부터 면접 자료랑 휴대폰 가방에 넣어서 앞으로 제출 후 임시 수험 표만 받아서 자리에 대기. 대기번호 1번부터 2명씩 불러 나가서 한 명은 면 접실 앞에서 대기. 면접관은 학부 교수님 2명. 면접 보고 나면 바로 귀가.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개인정보, 출신 지역, 부모님 직업 등 언급 금지.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여기 소화 과정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세특)

A : 우선 우리 몸에서는 3가지 물질을 소화시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입에서 아밀레이스에 의해 일차적으로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에 의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쓸개즙에 의해 유화작용이 일어나 분해되고 그리고 나서 이자액, 소장외 소화효소에 의해 이 세 가지 물질 모두 분해가 됩니다.

Q : 음, 어느 정도 개념은 잡혀있는 것 같네요. 그럼 발효는 어떤 것인지?

A : 미생물이 무산소 상태에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중간산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중간산물이 우리 몸에 유익하면 발효, 유익하지 않으면 부패입니다.

Q : 학습이 그래도 잘 되어있는 것 같네요. 발효는 왜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A : 제가 알기로는 옛날 시대에서는 냉장고와 같이 식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발효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효로부터 얻은 중간산물이 우리 몸에 유익하여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효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Q : 여기 보면 항균실험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했는지?

A : 원래 R&E 활동을 하기 위해 동아리원들과 주제를 정하던 중에 교내에 도시 숲 사업으로 숲을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이를 알려주기 위해 교내 식물군의 분류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기에는 아쉬워서 제가 관심 있었던 항균분야 실험을 친구들에게 하자고 했고 '정말 우리 주변의 식물에는 항균성이 있을까?'를 알아보려는 취지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균을 배양하고 열수추출법을 통해 식물추출물을 가지고 항균성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Q : R&E가 뭐죠?

A : 제가 알기로는 research&education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Q : R&E가 학생 학교에서만 하는 활동이에요? 아니면 다른 학교도 다 하는 건가요?

A : 제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1학년 때부터 R&E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R&E라는 우리 학교만의 특색활동이 있다. 너네도 2학년이 되면 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Q :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A : 저는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롤모델인 알렉산더 플레밍은 수년간 과학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여 페니실린 개발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를 보며 저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는 끈기 있게 노력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끈기 있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성적이 떨어졌을 때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서 성적을 다시 올려 친구들이 "너 정말 끈기 있구나" 라고 말해주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Q : 우리 학부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A : 네 들어가 봤습니다. 본 학과에는 3가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목표와 관련 있는 전공인 식품소재공학전공에서는 식품으로부터 얻은 유용한 소재를 어떻게 의약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과 접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하는 전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소재공학전공을 선택하여 bk21+사업을 통해 4H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Q : 식품하고 의약품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A : 저는 생명과학이나 화학도 이름만 다를 뿐 다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똥썩으로부터 아르테미시닌이라는 물질을 얻어서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식품하고 의약품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분위기 : 압박 하나도 없이 편안한 분위기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생기부를 보면서 교과 관련된 부분은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념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관련 부분에서는 그 개념을 정말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더 많기 때문에 개념을 위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배운점도 생각해놓으면 좋음). 그리고 봉사활동, 실험활동(R&E) 등과 같이 배우거나 느낀 점이 중요한 부분은 배운점 느낀점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개념은 개념대로 정리하고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해서는 배우고 느낀점 준비할 것.
- ◆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해놓은 답변을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아놓고(그러면 자동적으로 외워짐) 이를 여러 질문에 활용해서 답변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이라는게 시간, 질문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자기 자신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 하는 거니까 무조건 그 질문에 관해서만 답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외웠던 거 다 녹여내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관련 지식 같은 것은 최대한 많이 쌓아놓아야지 돌발질문에 잘 대처 가능합니다. 사실 제 생기부, 자소서에는 '발효'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데 발효가 무엇인지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면접 준비할 때 수만회에서 작년 기출문제를 보다가 발효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길래 혹시나 해서 본것이 도움이 되었으니 기출문제나 관련 배경지식을 많이 쌓아놓으면 유용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신문방송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 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수행평가 조장이나 동아리를 만드는 등 리더 역할을 많이 하였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A : 리더의 역할은 팀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성취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이뤘을 때의 성취감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Q : 생활과 윤리 세특에 한스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대해 탐구했다고 적혀있는데, 책임윤리란 무엇인가?

A : 책임윤리란 미래세대의 인간 또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현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와 자연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Q : 대중조작에 관한 에세이를 썼는데, 대중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 대중조작은 대표적으로 세계 2차대전 때 히틀러가 자신의 말이 담긴 다수의 라디오 카세트테이프를 대중들에게 보급하여 그것을 듣게 하여 대중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믿도록 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 생략

Q :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대중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A : 현재 사회에서는 SNS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 기자가 왜 되고 싶은가?

A : 기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기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식으로 대답함.

Q : 왜 여러 대학 중에서도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했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소서와 세특 완벽히 숙지하기
- ◆ 모의면접에서 나왔던 질문이 나오기도 하지만 모의면접에 집착하지 않고 본인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생각해보고, 답변하기
- ◆ 생각했던 질문이 아니라 당황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생명공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8~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전자기기 반입 금지, 교복 절대 착용 금지. 면접 시간 준수			

질문강의 및 답변 내용

Q : 학업역량부터 물어볼게요. 3년 동안 자신의 과학 성적이 어떤 것 같아요?

A : 1학년 때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3년간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Q : 2학년 때 WIKS포럼을 했는데 유도만능줄기세포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A : 유도만능줄기세포는 분화가 완료된 체세포에 역분화 인자를 주입해 전분화능을 가진 줄기세포로 만든 것입니다. 배아줄기세포와 비교해보면 ~ 생략~ 거부반응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 역분화 인자 한 가지만 말해볼래요?

A : OCT...9 (OCT4 인데 잘못 말함.)

Q : 머리카락에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왜 머리카락을 사용했나요?

A : 머리카락이 여러 기름유출사고에서 사용된 사례를 보고 흡착성이 좋다고 유추했습니다.

Q : 생기부를 보면 호기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호기심이 생겨서 연구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저는 동물에 관심이 많아서 동물의 독이나 체내 미생물, 효소를 이용해서 질병 치료제 개발에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Q :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에 무엇이 있나요?

A : 멘토링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와 내가 발전하는 모습 등 이유 들어 설명한 것 같음.)

Q : 다른 거 뭐 한 건 없어요?

A : 마을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헌혈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기부나 자소서에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실험이나 문제 해결로 이어졌다고 적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물어보신 것 같다. 실험 관련 내용에서도 내용보다 그 동기를 물어봄.

◆ 역분화 인자처럼 세부적인 관련 지식을 준비해야 할 듯함.

◆ 준비한 답변을 잊어버려도 당황하지 말고 자신 있게 대답하면 좋을 듯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학과			
전형명	학종/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1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 시간 동안 휴대폰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면접 시간 준수			

질문강의 및 답변 내용

Q : 미분가능성과 연속의 관계에 대해 공부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A : 일단 미분가능하면 연속이고,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함수에서 그렇단 말이죠?

A : 네, 그렇습니다.

Q : 그럼 모든 구간이 아닌 어떤 한 구간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무엇이 있나요?

A : 뾰족점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Q : 바이어슈트라스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설명해주세요

A : (손을 사용하여)왼쪽부터 올라가다가 내려간 후 다시 올라가는 뾰족한 프랙탈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칭인 모양입니다.

Q : ‘경문수학산책-수학사’라는 책을 읽었다고 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말해 주세요.

A : 17세기 여러 수학자들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이 기억에 남습니다.

Q : 진로희망이 수학자인데 어떤 수학자가 되고 싶나요?

A : 수학적 진리를 탐구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Q : 구체적으로 실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싶나요?

A :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인공지능에 쓰이는 베이지 정리, 혹은 공학 수학 같은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Q : 장래 희망이 수학 교사에서 수학자로 바뀌었는데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A : 2학년 전에는 한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이 아닌 아이들에게 수학적 사고력을 길러주고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해주는 수업을 하고 싶었는데 2, 3학년 때 수학 수업을 듣거나 관련 책을 읽으면서 증명 없이 쓰이는 정리나 추상적인 개념을 더욱 공부하고 싶어져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Q : 3학년 때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농도와 폐 질환 환자 수의 관계’와 ‘청소년 흡연율과 청소년 암 유발의 관계’라는 두 주제에 대해 통계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상관분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상관분석은 두 변수 사이의 공분산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상관계수를 구하여... 이 값이 -1에서 1까지인데 1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1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Q :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 예를 들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폐 질환 환자 수가 늘어나면 양의 상관관계가, 반대로 농도가 높아지는데 폐 질환 환자 수가 감소하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나의 경우에는 진로 희망이나 자소서에서 있는 수학 관련 활동 위주로 물어봤고, 한 분이 먼저 여러 질문을 하고 다른 한 분이 질문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아동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 후 면접 / 면접관2:학생1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신분증(민증, 학생증가능) ◆ 대기실 안에서 면접자료 못 봄 ◆ 면접하러 들어갈 때는 임시 번호를 부여함.			

질문 및 답변 내용

◆ 면접 분위기는 아동학부라 그런지 교수님 두 분 다 조곤조곤하게 다정하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긴장도 풀리고 분위기는 좋았어요.

Q :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업에 임했는지?

A : 자소서 1번 요약해서 답변함.

Q : 진로 희망이 연출가, 방송작가라서 아동학부랑 관련이 없는 꿈인데 왜 아동학부에 지원했나요?

A : 원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하던 중 초등학생 친구들이 쉽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접하고 심지어는 저에게 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소 관심이 있던 문화 콘텐츠 제작의 목적과 소비 대상을 정하여 아동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아동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왜 많은 학교와 학과 중에서 경북대학교 아동학부에 지원했는지?

A : 우선 아동학부가 있는 학교는 전국에 세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경북대학교에 가장 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생 때 문학 시간에 문학작품을 배우면서 고전문학을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전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동학부 커리큘럼을 찾아보니까 '아동문학교육'이라는 수업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수업을 통해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아동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고등학교 시절에 벌써 꿈을 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에서 자율동아리나 여러 활동들을 다양하게 했는데 이 활동들이 형식적인 이름만 있는 활동들이 아닌가요?

A :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시간씩 자율동아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활동하였습니다. 담당선생님이 계셨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연간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매시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하였습니다.

Q : 그런데 입시가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A : 제가 자율동아리 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동아리의 경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한 후 리뷰를 작성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통해 아이들이 입시 과정 중에 지칠 때 좋아하는 분야의 콘텐츠를 보고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하여 동아리 활동이 큰 부담이 되게 하기보다는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아리 부원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 책을 많이 읽었네요.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A : (이 대답을 준비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 질문으로 책이랑 진로랑 관련지어서 말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면접관님께 하고 싶었던 말 하고 나왔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생기부랑 자소서를 많이 읽어서 활동에 대한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읽는 것이 지루해서 예상 질문을 만들면서 생기부랑 자소서를 읽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꼼꼼하게 읽고 답변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 예상 질문을 만드는 것이 좋긴 한데 막상 면접 가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 못 한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저는 답변까지 외워갔던 질문은 '지원동기, 왜 우리학교 우리학과 지원했는지, 그 꿈을 꾸게 된 계기, 입학 후 학업계획, 진로계획, 인상 깊게 읽은 책' 정도였던 것 같아요.
- ◆ 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모든 정보를 다 읽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학과 커리큘럼이나 동아리, 학회 등 정보를 조금 알아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역사교육과			
전형명	학생부종합 일반학생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직전 대기실 > 면접 > 귀가 ◆ 면접은 역사교육과 교수님과 본인, 2:1로 진행(with 교직 인·적성)		
유의사항	◆ 대기 시간 동안 휴대전화, 준비 자료 모두 볼 수 없음 ◆ 신분증 당연히 챙기고, 시간 엄수하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올해는 2분 스피치가 빠졌어요. (웃음) 네 가지 질문을 할 건데 편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학생의 교과 발달 상황을 보면 사회과 과목의 성취도가 돋보이는데, 3학년 1학기 때는 사회과 과목의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네요? 그 이유를 말해 주세요.

A : 학년 초 발목 부상을 심하게 당했다. 나는 원래 사회과 과목을 공부할 때에 마인드맵, 플로우차트로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공부하는 터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여기에 치료와 재활 기간이 길어져서 학년 초 사회과 과목을 이렇게 공부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그리하여 중간고사 성적이 심히 하락했으나, 완치 후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나만의 공부법인 특.공.대 분석법을 개발해 학습에 적용해보았고, 어느 정도 회복하고 학습에 대한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었다.

Q : 재활하느라 힘들었겠네. 지금은 발목 괜찮아요?

A : 네! 이젠 걷는 것, 뛰는 것 점프하는 것 모두 잘합니다.

Q : 자기소개서에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역사를 공부했고 이를 역사 소설로 작성해봤다고 했네요? 역사를 이야기와 소설로 만들어보는 방식이 역사 연구에 어떠한 이점을 줄 것으로 생각해요?

A :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학년 때 한국사 선생님께 추천받은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를 읽고 생각의 전환을 한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실증적인 역사 연구 방법을 비판하여 등장한 미시사적 연구 방법인 작은 것을 통해 읽기, 두껍게 읽기, 깨뜨리기 등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역사적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저는 사실 관계와 인과 관계만을 추구하는 역사 연구가 정직하고 바른 역사 연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래에서 바라보는 역사와 작은 것이 담고 있는 역사 또한 큰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저는 역사를 실증적으로만 연구하기보다 이야기, 즉 소설로 재구성함으로써 과거의 삶을 생생히 살려 [텍스트 속에서 살아있는 역사 연구]를 만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Q : 그럼, 그러한 생생한 역사 소설을 작성할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 저는 [인물을 당대 인물상으로 현지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증이 되지 않은 역사극을 볼 때 이질감을 느끼듯이, 역사를 다룬 것들은 당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읽어나갈 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 생기부를 읽어보니 학생은 역사가 암기과목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는데, 역사는 과목은 상당히 방대하기도 하고,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즐겁게 다가오지 않지만, 꼭 가르쳐야 할 역사의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A : 저는 한국사 파트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배울 때에 저 포함 학생들은 일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앞서 그리 즐겁게 배우기는 힘든 시대로 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 의식을 배움으로써 힘든 시기에도 침묵하고 있지 않을 시민의식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며, 지금의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역사 교사가 된다면 일제 강점기 시기를 꼭 가르쳐서, 현재의 학생들에게도 우리 민족의 힘을 알려주면서 지식은 물론 민중의 지혜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Q :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혐오 문화가 퍼지고 있어요. 이러한 혐오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또 교사로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주세요.

A : 네. 먼저, 청소년의 혐오 문화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입장에 선 저는,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순간적인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혐오라는 것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적이기보다 다소 감정적인 청소년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생겼을 때에 일단 싫어하고 보며,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줄곧 무리를 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미루어 볼 때 저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주어지기보다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꾸려져야 할 것입니다. 외부강사와 함께하는 감정 조절 캠프나, 학생주도형 건전한 상호작용 동아리 같은 것을 교사가 노력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감정 조절이 이루어져 청소년 혐오 문화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Q : 요즘 보이는 혐오 문화의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 학업에 열중하느라 요즘의 것들은 살필 수 없었지만, SNS에서 지하철 추행 관련 게시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뒤에 서있던 남성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 달린 사람들의 수많은 댓글에서, 사건 하나가 성별의 잘잘못을 따지는 남녀 혐오의 장으로 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Q : 차분하게 말을 잘했네요. 혹시 답변한 것 중에 보충할 부분은 있나요?

A : 음, 없습니다. 혹시 마지막 할 말은 할 수 있을까요?

Q : 올해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할 말은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 :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인사 후 퇴장)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사학과면 다르겠지만 역사교육과는 역사 지식과 교육적 부분 둘 다 물어봄. 틈틈이 공부해두기.
- ◆ 역사관 확립해놓을 것 & 표정은 싱글벙글, 교수님들은 경험에서 끌어온 예시 되게 좋아하시는 듯하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응용생명과학부		5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할 때는 옆 사람과 잡담 금지, 가만히 기다려야 함. ◆ 자기 차례가 되면 재학생분이 면접 장소까지 직접 가주심. ◆ 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재학생분이 긴장 풀어주심. ◆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지원번호를 안내받으면 면접관께 그 지원번호만 말할 수 있음 ◆ 대기 시간에 각자 준비한 자료 볼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진로가 경찰공무원에서 응용생명과학 연구원으로 바뀌었네요?

A : 준비한 대로 답변함.

Q : ‘침묵의 봄’에서 작가가 마지막으로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A :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으로 더 나은 효과를 위해 더 강력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결국엔 부메랑처럼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Q : 유전자 재조합에 관한 보고서 작성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은?

A :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통해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유전자 재조합기술뿐만 아니라 클로닝이라는 새로운 유전공학 기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과학수사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과학수사와 우리 응용생명과학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A : 저는 과학수사와 응용생명과학이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의 경우 과학수사와 생명과학연구 분야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더 자세히 요구하셨지만 대답을 우물쭈물해서 교수님이 예를 들어 유전자 분석~~ 등이 있을 거라고 직접 예를 들어주심.)

A : 네 맞습니다!

Q : 그러면 우리 학과에서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생명과학, 화학,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Q : 학생회 선거 운동을 했어요. 이 활동에서 지원자가 느낀 점은 무엇이 있나요?

A : 저는 그 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이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일이 결정되면 어느 누군가는 불만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만약 생명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에게 광합성을 설명한다면?

A : 식물이 햇빛을 통해 화학에너지를 합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Q : 요리도 잘하나 보네요?

A : 아, 요리를 잘하진 않지만, 팀을 이루어 요리하는 활동인 만큼 팀 친구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Q : 광합성 세균의 미생물막의 형성이라는 논문을 읽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 폐수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광합성 세균을 이용해 ~ 생략 ~ 내용입니다.

Q : 그럼 광합성 세균이 뭐죠?

A : 광합성 세균은 광합성을 이용해 ~ 생략 ~ 잘 모르겠습니다.

Q : 그러면 광합성을 도와주는 세균인가?

A : 네! (솔직히 모르겠는데 그냥 대답함)

Q : 만약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설득할 건가요?

A : 먼저 그 친구에게 그 친구의 생각도 이해하고 있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제 생각을 강요한다면 그 친구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너의 생각도 이해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설득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기소개, 지원동기,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 등을 충분히 외웠지만 짧은 시간(10분)이어서 그런지 서류를 바탕으로 콕콕 찍어서 물어보신다.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 1순위로 서류(생기부-특히 자율활동, 자소서)를 보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잘 풀어서 술술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성 관련된 것을 많이 물어봄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인문사회자율전공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01호에서 조용히 대기하다가 302호에 3명씩 끊어서 각각 1명씩 들어감, 면접관은 2분이었음.		
유의사항	◆ 자신의 이름, 출신학교, 부모님 직업 등을 밝혀서는 안 되고 단지 임시 번호 표로 수험표를 대체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생이 실장을 하셨는데 활동한 후 느낀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나요?

A : 저는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항상 반의 모든 학생의 만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저의 안전이나 의견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임원들 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비록 저의 영향력이 적었지만 다 같이 의견을 말하면서 하나의 행정조직체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 봉사활동이 미약하네요?

A : 저는 학교에서 실시한 봉사 외에도 2년 동안 장애우 학교에 봉사를 다니면서 1년은 봉사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 또 다른 1년은 제가 주도적으로 동아리 후배들과 같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Q : 롤스의 정의론에서 핵심사상이 뭐죠?

A : 저는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사상은 사회의 모든 가치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윤사 선생님과과의 질문을 통해 재산 소유 민주주의도 알게 되었고, 이것의 뜻은 롤스의 정의론과 비슷하지만, 재산권의 소유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 집단상담 활동을 하셨네요?

A : 네 저는 동아리 부원들과 집단상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활동에서 저의 이름이 아닌 만약 김○○라 하면 자신의 별명을 이용하여 호칭과 대화를 나누는 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 활동에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감정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Q :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감정표현이 뭐죠?

A :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감정표현은 비록 제가 그 표현을 사용하기 불편하지만 상대방의 기분이 좋거나 긍정적일 수 있다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Q : 공과사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게 더 인식되어있죠?

A :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 생략~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선배나 상사가 말하는 말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회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어떤 행위나 잘 못된 행위임을 말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공에 해당하는 행위가 좋지만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공에 해당하는 규범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공이 더 우선시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자신의 성격 장단점과 그것을 보완할 방법은?

A : 저의 성격은 소심함입니다. 하지만 그 소심함이 장점으로서는 완벽함입니다. 하나의 부족한 부분이라도 메꾸고 완벽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의 단점으로 늘 소심함의 예민함입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을 자신감으로 바꾸어 자신감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완벽함에 다다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합격한 이유는 질문에 대한 자신 있는 답변과 큰 목소리와 빠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배들에게 꼭 면접 볼 때 긴장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저도 처음에는 엄청 떨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면접실 들어가기 전에 무엇인가 자신을 믿으니 웬지 모를 편안함이 다가왔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연과학자율전공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학생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입실 시간이 지나면 전자기기와 자료들을 가방에 넣어 앞으로 제출, 수험표와 신분증만 소지, 가수험표를 받은 후 대기, 가번호 부르면 면접실 앞에서 대기, 면접관 2명이 진행.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블라인드 면접), 대기하면서 자료 못 봄.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교사와 신약개발연구원을 희망하는데 자율전공부에 오면 사범대학 진학이 어려울 텐데?

A : 현재 제가 더 희망하는 진로는 신약개발 연구원입니다. 자율전공부에서 다른 학과로 진학한 후 기회가 된다면 교직 이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Q : 화학이나 생명 분야에서 인상 깊었던 메커니즘이나 이론을 설명해보세요.

A : 저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의 예외적인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로 ~ 생략 ~ 안정한 반면 16족은 2p오비탈에 전자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16족 원소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습니다.

Q : 진로나 희망학과가 확고한거 같은데 굳이 자율전공부에 지원한 이유는?

A :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느낀 제 흥미가 대학교에서도 흥미로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입학한 후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한다는 자율전공부의 특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저는 자율전공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약전이나 약전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인지?

A :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습니다. 저는 학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학위를 받고 싶습니다.

Q : 부반장으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 느낀 점?

A : 일반적으로 부반장이라 하면 반장이 부재할 때, 반장을 도와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장과 함께 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반으로 나누어 함께 완성하곤 했습니다.

Q : 이성질체가 무엇인지, 예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구조가 다른 물질들로 예시는 포도당과 과당이 있습니다.

Q : 포도당과 과당이 섞여 있을 때 두 가지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 :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Q : 6월의 인성왕? 이 상은 어떤 상인지 어떻게 하면 받는 상인지

A : 저희 학교는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공수인사를 학교생활 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수인사를 성실하게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율전공부는 '왜 굳이 자율전공부에 지원했는지?'라는 느낌의 질문들이 많았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자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 16명 정도가 있고, 입실 가능 시간이 지나면 30분간 주의사항을 진행요원에게 들은 뒤, 면접 시작. ◆ 대기실은 2층이고, 내 면접 순서가 가까워지면 4층으로 올라가 면접 보는 방 앞 의자에 앉아서 대기. ◆ 면접관은 2명(입학사정관, 교수) ◆ 대기실에서는 빵과 우유 제공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자신의 수험번호, 이름 절대 말하면 안 됨. 앞 사람이 면접실에서 나오면 바로 들어가야 함. 대기실에서는 서류 보는 거 가능.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노트북은 대기실에서 내야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진로희망이 도로교통과 관련되어 있는데, 왜 전자공학과에 낸 것인가요?

A : 저는 어릴 때부터 도로에 관심이 많았고 ~ 생략(관심이 생긴 이유 말함.) 고등학교 때 이러한 도로교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 알게 되었는데, 이런 교통 시스템에는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해 깊게 탐구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교통과 전자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A : 전자공학과에서는 광센서와 광전자, 신호처리, 정보 통신 공학 등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호처리가 다양한 형태의 신호를 보내고 받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를 하는 전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배워두면 교통시스템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Q : 물리 과제 연구에서 교통 관련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활동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 실험 장치들을 설명하면서 자세히 한 활동을 30초 내외로 설명함.

Q : 물리 과제 연구에서 학생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나요?

A : 도로 교통과 관련된 연구활동이었는데, 큰 주제 틀은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해줄 때에는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친구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장치들을 코딩하고 만들 때에는 제가 옆에서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Q : 물리 과제 연구를 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A : 아까 말했던 물리 과제 연구 활동에서 생각보다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말로만 설명하면

제 생각을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친구들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Q :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였나요?

A : 저는 친구들이 제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A4용지에다가 자동차와 도로 등 모든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을 하여 친구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보다 친구들이 제 생각을 훨씬 더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Q : 물리 과제 연구에서 광센서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원리가 뭔지 생각을 해보았나요?

Q : 광센서가 빛을 쏘면 다시 돌아올 텐데 이때 광센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았나요?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교수가 판단하였는지, 광센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아냐고 다시 물어봄.)

A : 광센서는 빛을 쏘아 반사되어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돌아오는 빛의 세기가 물체 거리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빛의 세기가 세다면 가까운 거리에 물체가 있어 반사되어 빛이 돌아온 것으로 판단하고, 빛의 세기가 약하다면 가까운 거리에 물체가 없어 반사되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Q : 증명을 하며 문제를 푸는 것을 즐겼다고 했는데, 그 예를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자소서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한 것으로 추정됨.)

A : 미적분 I 시간에 평균값 정리를 배웠는데, 이때 이 원리가 뭔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교과서의 도움을 살짝 받아 제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이 좋았고, 이 원리가 실생활에서 구간단속카메라에도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Q : 실생활과 관련지어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전자공학과 관련되어 실생활과 관련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A : 잘 모르겠지만, 꼭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네. 알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아무리 안 떨어져도 말할 때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온다는 점을 숙지하길 바람. 대사를 완벽히 외워 가려 하지 말고 전체적인 틀만 잡아서 계속 다양하게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하면 좀 더 떨리는 상황 속에서 말을 보다 차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음.
- ◆ 생각보다 전공과 관련된 깊은 내용을 안 물어봄.(전공 관련 깊은 활동을 안 해서 일 수도 있음.)
- ◆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 나올 수 있음. 이렇게는 생각해보셨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한 번은 차분히 생각하여 바로 대답을 하였지만, 한 질문은 제대로 답하지 못함. 그러니 생기부 볼 때 좀 더 넓게 전공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지구시스템과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이 따로 있고 면접실로 이동하여 보는 구조, 면접관은 총 2명, 면접관과 나 사이에 큰 도넛형 탁자가 있어서 거리도 꽤 멀었음, 면접 보러 이동할 때 가방도 다 들고 가서 면접 후 바로 귀가가능			
유의사항	◆ 블라인드면접, 입실시간 후에는 서류를 볼 수 없음, 수험표와 신분증필수 지참 (거기서 발급할 수 있는데 가지고 가는 것이 안전함)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지구과학2는 학교에서 수강한건가요? A : 네 그렇습니다. 3학년에 올라오면서 과탐으로 반을 나누었기 때문에 저는 지구과학Ⅱ와 화학Ⅱ를 선택하여 수강하였습니다.</p> <p>Q : 지구과학Ⅱ는 본인학교에서 몇 명 정도가 수강하나요? A : 3학년 때 화지반 생지반 화생반으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화지반 생지반을 합쳐서 90명 정도가 수강하였습니다.</p> <p>Q : 음 본인은 Ⅱ 과목을 몇 개 수강하였습니까? A : 지구과학Ⅱ와 화학Ⅱ를 기본적으로 듣고 저희 학교는 물리반이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Ⅱ를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들었습니다.</p> <p>Q : 그렇다면 지구과학Ⅱ를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A : 지구과학Ⅱ가 I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구과학Ⅰ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였기 때문에 지구과학Ⅱ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p> <p>Q : 음~. 여기 장래희망이 3년 동안 일관되지는 않은데, 맞죠? 학생이 장래희망이 바뀌는 건 당연하지만 혹시 바뀌게 된 계기가 있다면 설명 가능할까요? A : 중학교 때부터 국방에 관심이 많아서 군무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심화적인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지구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천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천문대기연구원이나 항공우주연구원을 희망하였습니다.</p> <p>Q : 그런데 생기부에 드러나는 것으로 봐서는 항공우주연구원은 공대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죠? A :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에서도 인공위성에서 보내온 영상자료를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기 때문에 천문대기 전공에 진학하여 4학년 때 배우는 영상처리 및 실습을 학습하여 한국우주연구원이라는 꿈을 이뤄내고 싶습니다.</p>					

Q : 3학년 때 과학탐구대회 지구과학부문에 수상하였는데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 저는 2학년 때도 과학탐구대회에 나가서 지구과학부문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도전해보고자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제가 얼마나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Q :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어떤 내용을 다루었습니까?

A : 대회는 어려운 천문, 대기 등 지구과학의 대부분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아 지질학도 물론 다루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분이 지질학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지질학도 다루었다고 말함)

Q : 아~ 문제를 풀었구나.. 그렇다면 탐구대회를 어떤 식으로 준비하였어요?

A : 일단 탐구대회이다보니 개념을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구과학을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즐겁게 준비하였습니다.

Q : 동아리 활동 때 과학프로젝트반을 수강하였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였나요?

A : 저는 도전정신이 뛰어난 학생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심화된 지식을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학프로젝트반에 참여하여 다단연소사이클 로켓엔진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친구들에게 간단히 발표하였습니다.

Q :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하였는데 어떻게 활동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A : 저는 자원봉사센터 중에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있었습니다. 한 조에 대학생 멘토 2명이 청소년 6~7명 정도를 통솔하였고 그 조가 8조 정도 있었습니다. 한군데에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매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Q : 봉사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A : 저는 다양하게 많은 봉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곳에서 봉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소한 곳에서도 봉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봉사를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Q : 봉사활동 중에서 장애인인식개선활동이 있는데 어떤 활동인가요?

A : 조별로 장애인인식개선과 관련된 UCC를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저희 조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인식이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제로 UCC를 제작하였습니다.

Q : 독서활동을 보니 공통에 책 2권이 있는데 본인이 넣었겠죠? 근데 저자가 같네요?

A : 네! 두 권 다 장조원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Q : 이 책들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고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두 권 다 항공우주공학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비행기의 창문이 왜 네모나지 않고 둥근지에 대한 일상에서 궁금해 할만한 항공지식들과 발사체 추진제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폭넓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경북대는 정말 생기부 기반이고 생기부에서 거의 모든 것을 물어보시니까 본인이 한 활동의 계기, 과정, 느낀점을 세세하게 모두 알아 가셔야 해요. 심층면접이 아니어서 활동의 전문성을 판단하기 보다는 학생이 정말 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진위판단을 중점적으로 하는 뉘앙스기 때문에 자신이 참여한 활동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무슨 활동인지 정도는 알고 가는 것을 추천해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체육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 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인의 인적사항(수험번호, 성명, 출신고교 등)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 면접 내용 : 자소서보다 생기부의 과세특 및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 많았음

Q : (Top Proud Seongui대회) 상을 1,2,3학년 모두 수상했는데 이 상은 무슨 상인가요?

A : T.P.S상은 내신성적, 외부 봉사활동, 교내 및 외부 대회 실적 등 다양한 부분의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의 학생에게 주는 상입니다. 즉 내신등급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기 계발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는 학생에게 주는 상이죠.

Q : 토요일스포츠대회 훈련 도우미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죠?

A : 제가 졸업한 중학교에서 일일 축구코치로서 후배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공격수를 맡은 후배를 도운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구는 약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골 찬스에도 주발로만 슈팅을 하려다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래서 약발 보강 운동과 상황별 대처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대회에서 약발로 결승 골을 만들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고 저는 가르침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 경북도민체전과 스포츠클럽대회를 모두 출전했는데 이 두 대회의 수준 차이가 있나요?

A : 네,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츠클럽대회는 각 종목에 흥미나 관심 있는 각 학교 학생들이 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북도민체전은 각 시, 군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학생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수준이 스포츠클럽대회보다는 높습니다.

Q : 각종 스포츠 대회에 진행보조원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A : 저는 미래에 체육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축구, 농구 이외에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접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신분으로 많은 대회의 진행보조원으로 봉사활동을 하였고 경기규칙, 문화 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미래의 체육지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Q : 수학2에서 '스포츠 속 수학 지식 100가지'란 책을 읽고 수학과 체육의 연관성을 알게 되었다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요?

A : 책을 통해 수학시간에 배운 '무게중심'의 위치가 높이뛰기와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를 넘기 위해 무작정 뛰는 것이 아닌 우리 몸의 무게중심인 코어의 위치가 바의 높이 이상으로 근접해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습을 하였고 전국육상대회에서 개인 신기록을 낼 수 있었습니다.

Q : 영어시간에 포스터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무슨 내용을 주제로 만들었나요?

A :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운동선수의 일대기를 주제로 포스터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Q : 확률과 통계 시간에 경우의 수를 분석하여 16강 진출 확률을 계산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A :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경기 중 일본이 속한 조의 16강 진출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특히 수학시간에 배운 경우의 수 원리를 모든 팀의 승패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경기 영상을 보았고 무승부만 해도 16강 진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은 ‘공 돌리기’ 즉 비매너 경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스포츠윤리,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며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였습니다.

Q : 영어시간에 운동과 뇌의 연관성에 대해 탐구를 했다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A : 운동을 하게 되면 BDNF(두뇌신경촉진인자)가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혈관 속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학생들의 두뇌회전을 향상시킵니다. 즉 간단한 운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 할 수 있고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과도한 운동을 하면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몸의 피로도를 높여 공부에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Q : 동아리 시간에 ‘교사와 학생 사이’ 라는 책을 읽었는데 교사가 가져야 할 능력이나 자질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 : 저는 훈육을 잘하는 것이 교사가 가져야 할 자질이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을 훈육할 때 학생이 잘못된 행위 자체에 대해 화를 내야 합니다. 학생을 비난하거나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말은 훈육의 효과 보단 반항심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생의 잘못에 대해 화를 내고 학생이 스스로 반성 및 성찰하도록 지도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화학과		7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O		
	면접절차	◆ 2:1면접 /대기실에 있다가 면접 순서가 되면 한 명씩 이동 ◆ 대기실에서 책 못 봄. 가만히 있어야 함.		
유의사항	◆ 학교, 지역, 본인 이름 얘기하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서 1번에 ~~을 느꼈다고 적혀있는데 왜 이렇게 느꼈는지 말해볼래요?

Q : STEAM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해보세요.

A : '노인을 위한 교통수단 설계'를 주제로 ~생략~한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Q : 자기소개서 2번에 카페인 추출 실험을 했다고 하는 데 원리를 설명해보세요.

Q : 카페인이 물에 안 녹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A : 카페인도 물에 녹긴 하지만 카페인과 염화메틸렌은 무극성분자이고 물은 극성분자이기 때문에 카페인이 염화메틸렌에 더 잘 녹아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Q : 카페인은 눈에 안 보이지 싶은데요?

A : 아, 커피가루와 카페인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Q : 그럼 카페인이 얼마나 함유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지요?

A : 염화메틸렌이 기화가 잘 되는 성질이 있어서 염화메틸렌을 가열하여 카페인을 얻었습니다.

Q : 분광기를 통해서 분석한 방법에 대해 답변하는 거였어요. 그럼 분광기에 대해 알고 있나요?

A : 네. 표준용액을 제조하여서 각 용액에서 ~생략~ 대답함.

Q : 기체상수 R 결정실험에 대해 말해보세요.

Q : 연꽃추출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Q : 화학과에 와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A : 화학은 물질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물질에 대해 분석하고 다루는 분석화학 공부를 학부과정에서 해보고 싶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여 생화학 공부를 통해 천연물질과 인체 내의 상호작용에 관해 공부해보고 싶다. 등등 준비해간 것 말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전공 질문 많은 것 같고 생기부 기반 질문이 많았음. 생기부에서 많이 나오고 실험 과정 원리를 명확히 알아가야 할 듯.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융합공학과			
전형명	학종/ 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2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보게.

A : 준비해간거 말함.

Q : 뉴턴 1 2 3 법칙 알고있나? -작년 면접 학생이 고정이라함.

A : 관성의 법칙이랑 작용반작용법칙 밖에 말못함.

Q :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것 같은데 30년뒤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

A : '길을묻다' 프로그램에서 관련 내용을 들었는데 자율 주행 자동차가 완전 상용화 될것이고, 날아다니는 자동차까지 상용화되어 일부 사용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수학에서 관심있었던 분야는 무엇인가?

A : 수학을 기본적으로 관심있어 하지만 특히 기하와 벡터에서 관심이 있다. 기하와 벡터에의 ~~~ 말함.

Q : 아두이노 말고 다른 프로그램 어떤거 했나?

A : 인근 대학의 자율주행 실습교육 가서 한 프로그램 말함.

Q : 자율동아리 주제를 어떻게 정했나?

A : 교수님께 길을 묻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듣고 관심있는 친구들 끼리 모여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런방식으로 말함

Q :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다는데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었나?

A : 친화력이 좋고 쉽게 다가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급에서 표어와 구호를 정하는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선정되어서 그렇게 불린 것 같습니다.

Q : 논문 읽었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찾아서 읽었나?

A : 학교에서 디비피아 아이디어를 공용으로 지급해줘서 논문을 접할 기회가 생겨서 읽게 되었습니다.

Q : 기계관련 다양한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강의가 제일 인상깊었는지?

A : 각 강의마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교수님의 길을 묻다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현실적인 조언과 전공적인 조언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기계라는 확실한 진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기부를 매우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지원 과와 관련된 원리를 물을 수도 있다. 면접 분위기는 좋아서 편하게 면접 봤던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제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대기-면접(3대1)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란 지원동기 간단하게 말 해 볼까요?

A : 엘프리트 마셜에 따르면 경제학자에게 필요한 덕목으로는 차가운 이성과 더운 가슴이 있습니다. 저는 차가운 이성은 분석, 더운 가슴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그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만들고 싶은 가번호 17번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며 양극화 현상에 대해 분석해보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탄 배달 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그들에게 공감하며 경제학자로서의 덕목을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경상대학교에서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쌓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Q :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어디서 했어요? 너무 자세하게는 말고, 거기서 느낀게 뭔가요?

A : 제가 봉사활동을 한 곳은 저희 지역에서 가장 변화가라 불리는 곳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가시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고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 사회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언제부터 깨달았나요? 그리고 최근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A :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강의 기적은 정말 기적만을 낳았는가?’ 라는 영자신문 기사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 대외 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저임금, 저곡가를 유지하게 되어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답 잘 못해서 뭐라 알려주셨던 것 같음. 와서는 열심히 하라 그러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허헛헛 웃으심.)

Q : 2학년 2학기 성적이 좀 낮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A :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이 말 하니까 또 웃으심) 제가 그 때 비교과 활동과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Q : 그럼 지금은 몸 괜찮아요?

A : 2학년 겨울방학에 운동하고 그래서 지금은 건강합니다

Q : 다행입니다. 다른 성적에 비해 수학 성적이 낮는데 아시다시피 경제학과는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말해 보세요.

A : 수학은 저의 약점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여 2학년 2학기 겨울 방학 때를 이용하여 수학 공부를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는 성적을 3등급까지 올릴 수 있었고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 선생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Q : 칠판에 함수식 보이죠? 앞에 있는 종이에 그래프 그려보세요.

A : 식은 기억 안나는데 2차함수였음.

Q : 봉사 시간이 학생 학교 기준에서는 많은 편이 아닌데 이에 대해 할 말 없나요?

A : (좀 당황해서 생각할 시간 달라 했었음. 말만 블라인드 면접이지 학교도 보는 것 같았음.. 10초쯤 있다가) 저희 지역은 봉사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한정된 봉사 활동 자리를 놓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봉사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내 봉사는 그런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Q : 생기부에 지니계수도 활용했다고 했는데 지니계수는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A : 지니계수는 0이 완전 평등 1이 완전 불평등이므로 1에 너무 가까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개척'이라는 경상대학교의 교훈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고 싶다는 저의 꿈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경제학적 소양을 쌓아 경상대학교의 이름을 빛낼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예비 소집 장소에서 대학생들이 과별로 팻말 들고 서 있음. 팻말 앞에 줄 서서 대기실로 가면 됨. 혹시 수험표 안 챙겨왔어도 대기실에서 수험표 확인하고 다 챙겨줌.
- ◆ 면접관들 엄청 친절하고 고개도 잘 끄덕여주심. 경제 상식 안 물어봄. 내 경우에 지니계수는 생기부에 있어서 물어본 것 같음. 생기부에 별 말 없으면 경제상식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나노신소재공학부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순서대기 후 자신의 차례에 면접실 앞 복도 대기→ 앞 차례 사람이 면접을 끝낸 후 입실→ 면접(감독관 3인)→ 퇴실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신분증 반드시 지참 (수험표의 경우 없으면 인쇄해줌) ◆ 휴대폰 및 전자기기(에어팟,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사용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배터리분야에 관심이 많고 미래에 배터리 연구를 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저는 이 배터리 분야에서 현재 스마트폰이나 전기자동차에 이용되는 리튬이온전지만이 아닌 리튬폴리머전지, 금속공기전지 등 미래에 사용될 배터리를 연구하며 배터리 분야를 더욱 발전시킬 학생입니다.

Q : 자신이 읽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A :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분자사용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3학년이 되면서 읽었던 책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화학이 단순히 과학분야 만이 관련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이기에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히 이 책의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사회가 인간으로 이루어졌기에 사회학은 심리학의 일부이고 심리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에 생물학의 일부이고 생물학은 생물의 구조를 다루기에 분자를 다루는 화학의 일부이고 화학은 원자를 다루기에 물리학의 일부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화학이 과학분야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 사회학, 심리학 같이 넓은 분야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Q : 학과 성적 중 영어 성적이 낮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A : 제가 약한 영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저는 언어의 핵심이 되는 단어를 공부해볼 것입니다. 단어는 언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사물을 보고 이 사물의 단어를 연상하면서 단어를 암기하는 방법을 적용해보고 또한 영어를 공부하는데 있어 말로 할 수 있는 경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회화를 통해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어회화를 통해서도 영어를 공부해볼 것입니다.

Q : 학교생활 중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A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제가 동아리 활동의 조장이 되어 실험을 하던 중 부원 한 명이 동아리 활동에 참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저와 부원 한명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이때 남은 실험 역할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저와 부원간에 마찰이 일어났고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우선 부원과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하여 남은 실험 과정을 빠르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부원이 잘 할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대화하며 알아보고 그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갈등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소서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만 학생부를 중심으로 자신이 한 활동과 교과성적 등의 내용을 꼼꼼히 볼 것.
- ◆ 입실할 때 반드시 이름이 아닌 자신의 면접 순서 번호로 얘기 할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법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3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대기 후 면접번호 순으로 들어감(면접관 3명)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부모님직업, 학교 언급X			

질문 및 답변 내용

- Q : 기본적인 질문 (경상대학교 - 지원이유, 법학과 지원이유)
- Q : (자소서) 토론에서 실패는 무엇을 느낄수 있었는가?
- Q : 가장 감명깊었던 책, 그 이유?
- Q : 토론을 할 때 있어서 상대측이 예상지 못한 논거로 자기주장을 완고하게 펼칠때는 어떻게 하였는가? (조사한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최대한 반론하려고 하였음)
- Q : (생기부 성적상향) 성적이 1학년 때 비해 많이 오르게 되었는데, 그이유나 계기?
- Q : 법학전문 대학원에 가기위해 무엇을 준비 해야하는가?
- Q : 영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데 토익은 어떻게 준비할 것 인가?
- Q : 학생자치법정 활동을 통해 느낀점
- Q : 마지막으로 할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경상대학교는 생기부 기반의 면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회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일반학생)			
면접 형식	면접시간	13-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대기실 - 복도대기 - 면접고사장(교수님과 3:1 면접)-오후반 입장 후 퇴실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면접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착용 삼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경상대학교 사회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

A : 제가 경상대 사회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우선 저는 중학교 때부터 토론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사회이슈를 골고루 접하며 그에 대한 제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밝히는 활동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 여론을 분석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의 전반을 바라보고 정보들을 전달하는 직업을 희망하게 되어 경상대학교 사회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굳이 경상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A : 제가 경상대학교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우선 저는 오래전부터 대학 입학 후 교내 언론사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특히 경상대 신문방송사에서 다양한 기획 및 특집으로 자신이 쓰고싶은 기사를 쓰는 모습을 보고 그러한 모습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꼭 경상대에 입학하게 되어서 교내 언론사의 국원기자로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에 경상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타 학교에도 신문방송사가 있는데 경상대의 신문방송사가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

A : 타 학교 신문방송사는 한정된 콘텐츠와 정해진 글감으로만 기사나 영상을 만들지만, 이와 다르게 경상대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소재를 가지고 미디어 활동을 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Q : 경상대가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저는 고교 3년간 토론, PPT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제 의견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않고 자신감을 갖는 법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제가 꾸준히 키워온 이러한 능력치는 경상대 사회학과 진학을 하고 대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이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부족한 능력에 있어서는 경상대에서 더욱 보완을 하며 무궁무진한 발전의 모습을 보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Q : '1984' 도서가 어떠한 책인가?

A : 이 책은 국가의 지나친 감시와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책을 읽으며 오세아니아 국가에서 2분증오와 증오주건을 통해 타국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Q : '1984'의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A : 이 책은 1948년에 지어져 1984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쓴 미래형 소설이기 때문에 1984라는 제목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21세기 데모론'은 어떠한 책인가?

A :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공생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21세기 데모는 과거에 비해 개방적이며 축제같은 분위기와 함께 퍼포먼스와 풍자가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도서입니다.

Q : '사회적 감수성을 키우는 시민교과서'는 어떠한 책인가?

A : 이 책은 사회문화 시간에 최저임금에 대한 활동하던 중 문헌연구법을 활용하게 되어 읽게 된 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연쇄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유발함으로써 경제 전체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수상내역을 보면 글쓰는 능력이나 말하는 능력이 우수한 듯한데 그러한 이유가 있는가?

A :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온 토론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역할과 주제를 접하며 어느 한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되어 제 의견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Q :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출전 했을 때 어떠한 것을 발표했는가?

A : 저는 1학년 때 사회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PPT 대회를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를 '공영방송사 언론 탄압'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판형식의 역할극 형태를 통해 쉬운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Q : 역사탐구보고서 대회에서 어떠한 인물을 선정하였는가. 그리고 그는 어떠한 일을 했는가?

A : 저는 주로 언론인으로 활동하신 장준하님을 선정하여 탐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열악한 망명지 부대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상계 등 다양한 시사 잡지를 꾸준히 창간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Q : 장준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 부분을 알고 있는가?

A : 그 부분까지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Q : 언론정보학과를 지원하지 않고 사회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A : 물론 제 현재 꿈이 언론인이기도 하고 언론정보학과에 지원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심도있는 커리큘럼을 받아볼 수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회학과의 매력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보다도 제가 관심있는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싶어서 사회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어떠한 학문인가?

A : 사회학은 혼란스러운 변화 가운데 그 변화의 중심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갈 것인지를 탐구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나침반이 되기 위해 탄생한 학문입니다.

Q : 사회학과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A : 경상대학교 사회학과에 '대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제가 관심있는 분야와 관련되어 사회정보를 전달하는 수단과 과정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Q : 자신이 생각하는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A :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나 현재나 꾸준히 조명되고 있는 권력의 압박을 받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대회에서 언론탄압을 발표하기 위해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제가 접한 언론의 실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중립의 태도를 지닌 직업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A : 우선 제 장점은 경청의 자세를 지닌 부드러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단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친절한 태도로 배려하는 소통의 능력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것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단점은 우유부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편이라 남들보다 선택이 느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모두 들어준다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신중한 선택이다 보니 후회없는 선택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A : 우선 긴 시간동안 부족했을 제 답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래전부터 대학 입학 후 교내 언론사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꼭 GNU의 일원이 되어 국원기자의 혜택으로 주어지는 언론사 인턴십 활동을 경험해보며 제 희망 진로에 대해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시간이 굉장히 길고, 질문의 개수가 많아 당황했습니다.
- ◆ 그리고 학과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없었으며, 생기부에서 독서와 자율, 봉사, 진로 활동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중어중문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1명씩 복도에서 대기후 교수실에서 면접(3대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대기실에서 자료 못 봄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Q : 국어교사에서 글로벌마케터로 진로가 바뀌었는데 왜 국어교사를 계속 꿈꾸지 않았는지?

Q : 글로벌 마케터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Q :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 적이 있는지?

Q : 가장 기억에 남는 책

Q :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Q : 다른 사람보다 중어중문학과에 들어와서 잘할 수 있는 점

Q : 마지막 하고 싶은 말

※ 시간이 남아서 중국과 홍콩 사태에 대해 물어봄(면접 결과에는 반영 안된다고 함)

- 자신은 중국과 홍콩 둘 중 어디에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만약에 대학교에 들어와 중국인과 홍콩인이 싸운다면 누구의 편을 들것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질문중에 잘 모르는 것이 있어도 웃으면서 최대한 아무말이나 하기
- ◆ 생기부, 자소서 꼼꼼히 읽고 가기(너무 구석에서는 안 물어보니까 눈에 띄는 활동 중심으로 숙지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화학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학과별 대기실로 입장-수험생 주의사항을 안내, 본인확인- 대기-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교복 착용, 실명 언급, 친인척 직업 공개, 출신 고교 공개 금지) ◆ 첫 면접자 입장 이후로는 면접 관련 자료를 볼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화학공학과와 자신의 진로와의 연관성. (진로) A : 화장품 연구원은 화학공학과보다는 화학과와 더 관련이 깊다. 하지만 나는 화장품 연구원과 비누 및 화장품 공학기술자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한 적이 있다.化粧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꿈 때문에 화장품 연구원으로 진로를 굳혔지만, 다양한 진로가 열려있는 화학공학과를 진학하여 진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또 화장품 연구원이 된다 해도 화학공정설계의 지식이 있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p> <p>Q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동아리 활동 내용) A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논문을 보긴 했지만 그 내용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에서는 논문의 구조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p> <p>Q :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의 차이 A :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 하나의 원자가 전자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지면 이온결합이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작아 주도권이 불분명하면 공유결합.</p> <p>Q : NaCl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A : 잘 모르겠다.</p> <p>Q : 산과 염기를 전자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다른 수험생에게도 물어봤었음) A : 전자를 받으면 산성, 주면 염기성이다.</p>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합격의 이유 : 과탐 2과목의 이수에 따른 생기부 가산점. 생기부와 연관 없는 교과 내용을 물어보니 공부를 잘 하고 가야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성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0호관에서 대기- 면접실로 이동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보건의료분야에서 간호사로 결심한 이유?

A :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고 싶었고 고교생활동안 아픈친구들을 보건실에 데려다주고 다리 다친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제 모습을 보고 간호사의 직업이 떠올랐습니다. 간호사는 환자들 옆에서 바로 도움을 주는 직업인 만큼 저와 어울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간호사의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생명과학수업을 많이 수강했는데 어려움과 극복한 점을 얘기해주세요.

A : 저는 생명과학 수업을 들으며 혈액형 판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고자 혈액형 판정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혈액형 판정 실험을 진행하면서 혈액의 응집반응에 대해 심화탐구 할 수 있었으며 현미경을 통해 각 배율별 특징을 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 혈액형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하고 이론으로 학습할 때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Q : 소아과 간호사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말해주세요.

A : 저는 동아리 시간에 제가 평소 관심있었던 소아과 간호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소아과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장단점 등에 대해 질문했고 소아과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늘 집중해야 하며 환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인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 : 간호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질과 그 이유와 이를 기르기 위해 고교생활간 한 노력에 대해 말해주세요.

A : 저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알고 빨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의사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교생활 동안 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빌려읽음으로써 늘 환자의 심리에 공감하는 자세와 환자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성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소프트웨어학과		11	
전형명	학생우수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이내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2 : 1 형식		
유의사항	◆ 블라인드 형식이 아니어서 자기소개가 필요없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출신 학교와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A : 00여자고등학교 3학년 000입니다.

Q : 지원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A : 저는 머신러닝을 기반한 ~이 꿈입니다. 경성대 소프트웨어학과에서 머신러닝을 기반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 학과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제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율동아리에서 했던 역할과 활동은?

A : 저는 동아리에서 부장 역할을 맡아 조원들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 한 활동을 통해 코딩을 어려워했던 친구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과학 신문 대회를 통한 ~한 활동을 했습니다.

Q : 왜 수학성적이 떨어졌나요?

A : 수학은 이론적인 학문이지만 문제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른 것에 의해 어려움을 겪어 성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목마다 다른 내용을 깨우치기 위해 멘토 멘티 활동과 1일 1문제 풀기 활동으로 접근법을 깨우치려 노력했습니다.

Q : 리더십을 발휘해 본 경험은 ?

A : 저는 앞서 말했던 자율동아리 활동이 ~~~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인성 질문에서 많이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안 물으심.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유의사항	◆ 학교 이름, 이름, 가족 등 면접 때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주실래요?

A : 이모가 간호사인데 이모 병원에 경운대에서 졸업한 학생이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똑부러지게 일을 잘한다고 간호사가 꿈인 저에게 꼭 경운대학교에 가라고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경운대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해서 졸업하셨는데 학교에서 영어 강좌를 간호학과 학생들과 같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간호학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보고도 경운대 간호학과에 가라고 밀어주셨습니다.

Q : 꿈이 경찰에서 간호사로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 6살 때부터 태권도를 해와서 자연스럽게 경찰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때 직업적성검사를 통해 처음으로 간호학과를 접하게 되었고 주변 지인분들께서 저의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태권도에서 강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끈기를 가진 부분에서 간호사와 어울린다고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와 관련된 책과 동영상들을 많이 접하면서 점점 더 간호사라는 꿈에 한발짝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Q : 간호사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A : 저는 '나이팅게일은 죽었다'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이 책을 고를 때 제목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서 선정하게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서울 아산병원에 종양내과로 일하는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고나서 나의 '죽음'보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 그렇다면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저는 환자가 임종을 맞이할 때 간호사로서 할수 있는 일은 단지 옆에서 환자가 외롭지않게 슬프지 않게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활동을 보니까 '비주얼씽킹' 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활동이었나요?

A : 비주얼 씽킹은 자신의 현재부터 10년후, 20년후 등 미래에 자신이 어떻게 살고있을지 적는 활동입니다.

Q : 그러면 10년후의 지원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A : 저는 정형외과 간호사가 되어 환자들의 골절을 치료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점을 흘리지 않고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무엇보다 생기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생기부를 여러번 소설처럼 읽어서 머릿속에 떠오르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찰행정학과	○		
전형명	교과			
면접 형식	면접시간	7~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2(면접관) : 1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 동기는?

Q-1 : 지원동기에 언급한 검경수사권의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가?

Q : 삶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A : 공감능력이라고 대답함.

Q : 인상 깊게 읽은 책은?

A : '모든 범 죄는 흔적을 남긴다'

Q : 경찰행정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을 설명해줄 수 있는가?

Q : 이 학과에서의 구체적인 학업계획은?

Q : 동아리활동을 한 것이 있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검경수사권 등 관련학과의 전문용어는 정확하고 제대로 준비할 것.
- ◆ 모르는 것이나 잘못 대답한 부분을 지적받더라도 교수님의 조언을 경청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사를 밝힐 것.
- ◆ 인상 깊게 읽은 책이나 동아리활동은 자신의 진로(경찰행정학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도움이 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군사학과			
전형명	일반전형2(학생부70+면접30)			
면접 형식	면접시간	4인기준 약 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0	
	면접절차	◆ 약 6시간 진행(오전: 체력, 오후: 면접)(점심시간 포함)		
유의사항	◆ 면접장 입장 후 걷는 자세와 앞으로 돌기 뒤로 돌기를 함. ◆ 체력면접이 있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 ◆ 장교육성을 목표로 삼기에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이 매우중요.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경운대학교 군사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말해볼까요?

A : 저는 어릴 적부터 장교출신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군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의 전쟁사를 많이 접하며 군대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의 장점인 소통과 협력은 장교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며 저의 장점을 살린다면 경운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장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여 경운대학교 군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이 평소에 갖고 있는 좌우명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래요?

A : 저의 좌우명은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입니다.' 이것이 저의 좌우명인 이유는 세상에는 많은 왕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왕관을 쓸 때는 신중해야하며 만약 그 왕관을 썼을 때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한다는 것은 매사에 모든 일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질 수 있어야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이며 곧 저의 좌우명입니다.

Q : 입학 후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A : 저는 해군장교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Q-1 : 왜 해군장교에 지원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A : 네. 제가 해군장교에 지원하고 싶은 이유는 경운대 군사학과는 대부분 육군 해병대로 많이 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다시 말해 지원인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제가 충성심을 갖고 조국에 한 몸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해군장교가 되고 싶어 해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며 굳건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고 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면접을 볼 수 있는 것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한민국 군인이 있기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보호를 국가와 또 다른 국민에게 돌려주고 싶으며 그 시작은 경운대 군사학과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합니다. 반드시 저의 장점을 살려 부하들과 또는 상관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하여 경운대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장교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안전방재공학과		○		
전형명	일반전형 1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유의사항	◆ 신분증, 수험번호 챙기기 ◆ 단정한 복장 혹은 교복도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 저는 평소 공학에만 큰 관심을 가진 채 확고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목표의식 없이 생활하던 도중 일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을 통해 저에게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까? 라는 간단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안전방재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의 좌우명을 말하고 이유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저의 좌우명은 '독서백편의자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끈기있게 반복하다 보면 진리를 깨우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성실함을 갖추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무엇이든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Q : 고교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말해보세요.

A : 저는 '파죽지세'라는 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서 재미뿐만이 아닌 저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는 저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저의 한계를 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농구를 하였습니다. 이로서 저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차이가 곧 성장의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 교수님들과 선배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안전방재공학과에서 알아야 될 지식들을 꼭 배우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긴장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답변을 소신있게 할 것
- ◆ 면접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의바른 태도가 가장 중요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의료서비스경영학과	○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과 지원학생 1명으로 이루어짐		
유의사항	◆ 자신의 이름, 출신학교 발언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신의 성격 및 장·단점을 말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A : 저는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을 하며 말을 하고 행동합니다. 단점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낮을 많이 가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주위에 친구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두려움을 없애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Q : 본인이 살아오면서 남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나 받은 경험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A : 저는 고양이를 안 좋아하고 무서워해서 집 앞에 고양이가 돌아다니면 못 들어가고 힘들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가 옆에서 안심이 되는 말을 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서움을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 의료서비스경영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 저는 평소 병원에 갈 때 원무과에서 환자들의 입·퇴원 수속, 병원비 정산 등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료 경영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 과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현장 수요 중심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서 항상 밝은 얼굴로 병원에 오신 분들께 인사를 하며 더욱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대학 재학기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것과 대학생활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해보세요.

A : 전공을 선택하여 현장 실습을 가장 해보고 싶고, 대학생활을 통해 의료분야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병원행정사, 보험심사평가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관의 질문에 자세하고 성의 있게 대답하였기 때문입니다.
- ◆ 면접 전에 예상 질문을 미리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기계공학과			
전형명	학생부 교과전형 (일반전형1)			
면접 형식	면접시간	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한번에 4명의 학생이 면접을 보며 면접관은 2명		
	유의사항	◆ 학생이름, 학교명 언급금지, 미참석시 불합격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항공기계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A : 항공과 기계를 좋아하며 어릴 때부터 비행체에 관심을 가진 저는 독일 무인 드론 기업인 릴리움을 본받아 항공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싶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자 항공기계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본인이 살아오면서 남에게 도움을 준 경험이나 받은 경험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A : 전 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1학년 때 정보도우미를 하여 학교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고, 2학년때 우유도우미를 하여 반 친구들이 우유를 잘 챙겨먹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3학년때 실장을 통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친구들을 위하는 마음이 커진 것 같고 앞으로 하게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 여럿이서 하는 프로젝트나 과제에서 서로를 이해하여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보세요.

A : 저는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배울 때 남들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그 많은 시간동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조사와 탐구를 통해서 알아가려 노력함으로써 남들보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전 이 호기심과 탐구력으로 항공분야에서 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들을 함께 융합할 수 있는 미래의 훌륭한 항공기계공학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합격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사전에 제시된 질문에 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면접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착실하게 해내었기 때문이다.
- ◆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면접을 준비할 때 마지막으로 면접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하는 것과 면접관들이 긴장하지 않게 편하게 면접을 진행하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학생부 면접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3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가 가질 수 있는 보람과 어려움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A :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에 자부심을 가질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료인 중 간호사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3교대 근무로 인한 생활패턴의 불균형,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업무 상 실수가 발생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Q : 고교 시절 체험한 봉사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저는 기본적인 산수문제나, 한글을 할머니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평소 산수문제에 열의를 표시하던 할머니께서 전혀 다르게 산수문제에 집중하지 못하시고 여러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저는 결국 할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실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적인 표현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간호사가 되어서 응급 환자, 중환자 등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가 비언어적으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Q :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A :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구분할 수 있다. 핵은 핵막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내부에는 인과 DNA로 구성되어 있다.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소포체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이동 통로, 골지체는 만들어진 단백질 저장, 단백질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미토콘드리아 세포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 식물세포는 세포벽 세포 형태 유지, 엽록체는 광합성, 액포는 노폐물 저장/ 흡수하는 일을 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찰행정학과	○		
전형명	교과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은 총 3명, 질문은 총 3개 교수님 한 분씩 질문 하나를 함. (인성, 사회성, 전문성) ◆ 자기소개 및 추가 질문 없이 3개의 질문이 끝나면 면접 끝.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 지역, 가족 직업 및 이름, 본인 이름 및 학교 언급 시 감점 ◆ 신분증 반드시 챙기기			

질문 및 답변 내용

◆ 인성

Q : 고교 시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일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A : 저는 3년 동안 댄스부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 댄스부에 들어갔을 때 춤출 파트를 정하는 부분에서 같은 부원인 친구와 서로 더 많은 파트를 차지하려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정이 있어 파트를 정할 때 참석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와 상의도 없이 파트를 먼저 정하여 제가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대화를 요청하여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저의 속상함을 이해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한 번씩 선택의 우선권 양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그 이후 문제는 해결 되었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 사회성

Q : 최근의 사회적 이슈 중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졌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저는 올해 이슈가 된 '대림동 여경사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실시간 검색 순위에 '대림동 여경'이 올라와 여경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갔었습니다. 그 이후 기사를 통해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고 여론을 확인해 보니 여경에 대한 인식에 적신호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왜 적신호가 온 것인지 원인을 찾고자 하였고, 문제에 영상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기사를 찾아보면서 더 나아가 지역 경찰서에 방문하여 경찰관에게 이 이슈에 대하여 질문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 이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인이 여경의 체력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매년 이루어지는 여경들의 체력 시험의 횟수를 늘리고 시험 기준을 강화시킨다면 여경의 체력 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전문성

Q :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나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말해 보세요.

A : 저는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법률안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이란 병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중간에 중단할 경우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원치료가 효과적이지만 매년 입원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입원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환이 심각한 환자들은 사고 판단이 어려워 의사결정이 힘들고 실제로 거의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범죄 예방을 위해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법률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질문이 미리 공개되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같이 면접보는 학생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답을 준비했다라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할 것! (면접관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사건 말해도 상관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답하라고 말해주셨음)
- ◆ 최대한 또박또박 당당하게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면서 미소를 머금고 답할 것! (면접관들이 다 웃고 계심)
- ◆ 미리 공개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여 계속 연습하고 선생님께 검사 받을 것!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고 이유를 말하면서 마무리에 다시 한 번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면서 마무리 할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소방방재학과	○		
전형명	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 순서가 면접실에 입실하면 면접실 앞에서 대기(3명씩 한조) ◆ 세 분의 면접관께서 질문을 함(1인당 1질문) ◆ 면접이 끝나면 학교 시설 탐방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자기이름 언급 금지, 휴대폰 반입 금지(면접실)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인성)고교 시절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 보세요.</p> <p>A : 저는 고교시절에 3년 내내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등교해 급식소에서 우유를 가져오는 우유 급식 도우미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보다 일찍 등교해 우유를 나눠주고 다른 친구들이 놀 동안 우유를 가져다 놓아야 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제 시간도 빼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우유를 친구들이 먹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과 보람을 위해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소방 공무원이 되었을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Q : (사회성, 발전가능성)최근의 사회적 이슈 중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가졌거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A : 저는 최근에 2년 전에 있었던 포항 지진사태로 인해 아직까지도 약 2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체육관 대피소에 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자기 일이 아니고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소방관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p>				
<p>Q : (전문성, 전공적합성)소방방재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p> <p>A : 저에게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인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여 소방 방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학 후 군복무 대체제도인 의무소방원시험을 준비함과 동시에 소방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인 소방학개론을 중점으로 공부하여 소방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을 학습할 것입니다.</p>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이버보안	○		
전형명	교과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유의사항	◆ 3:3면접		
		◆ 대기시간에 자기가 챙겨온 자료 볼 수 있음,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A : 동네에 계시는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식사와 청소를 도와드리고 마을회관에 모여서 같이 음식도 만들고 윗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다 하고난 뒤에 뿌듯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컷습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이 커져가고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작아지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저 또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고 차갑지 않고 정이 많은 사람이 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 조별 프로젝트 과제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분쟁이 있을 때나 낙오가 되는 팀원이 생긴다면 분쟁을 조정하고 낙오된 팀원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Q : 사이버 보안 전공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A : 저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악용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을 배우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고, 누군가를 보호하는 일에 흥미가 있는 저는 사이버보안전공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졸업 후에는 국방부 사이버보안 쪽에서 일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본인이 잘한 점: 처음에는 긴장을 하면서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막상 이야기하니까 긴장이 다 풀려서 말도 잘 안 더듬고 떨지도 않고 잘 한 것 같습니다.
- ◆ 아쉬운 점: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만 더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 하고싶은 말: 긴장할 필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응급구조학과		41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학생 3:2 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응급구조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 생명을 살리는 뿌듯한 일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Q : 꿈이 해양경찰인데, 왜 해양경찰학과에 가지 않고 응급구조학과에 지원하였나요?

A : 똑같이 생명을 구하고 하는 직업이고 저와 적성이 맞을 것 같아서 지원하였습니다.

Q : 한국잠수협회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셨군요. 다른 분들과 다른 봉사이력인데 그곳에서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A : 저는 예전부터 이 과에 들어오기 위해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봉사 활동은 제가 활동하는 다이빙 단체에서 봉사한 것입니다. 직접 물속에 들어가 수중정화활동과 주변 쓰레기 수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또 응급구조학과와 관련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3명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단체로 인사하자고 먼저 제안하세요. 첫인상이 좋아 보이는 듯합니다. 진로가 바뀌었다면 꼭 그 진로가 바뀐 이유를 미리 준비하세요.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고개를 숙이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면접관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스마트푸드테크학과)	○		
전형명	조기취업전형 (샘초롱 농업회사법인)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회사 입사 질문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제출 후 온 순서대로 수험번호를 받은 후 대기실 대기 ◆ 대기하다 부르면 면접실로 감. ◆ 면접은 교수님과 회사의 사장님 또는 인사 담당자가 와서 진행함. ◆ 주로 회사 입사 질문. 교수님보다는 사장님이 질문을 훨씬 많이 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착용 금지 등 학교별 면접 시 유의사항 자세히 기록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장단점 위주로 자기소개 하시오.

A : 저는 일단 준비한 자기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샘초롱 농업회사법인에 지원한 이은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 레시피를 찾고 활용(적용)하여 다양하고 색다른 요리를 시도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지식 또한 쌓기 위해 음식에 관련된 동아리 활동과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짜여진 교육과정의 학업보다는 저의 관심과 흥미, 실제 경험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찾아보던 중 이 학과가 저의 요구에 충족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점은 성격이 낙천적이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친화력이 좋아 선생님들이나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의 단점은 성격이 꼼꼼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입니다.

Q : 지원자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성실하고 매사에 열심히 일합니다. 성격도 낙천적이라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회사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회사에 적응을 잘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딱 맞는 인재상이라고 확실할 수 있습니다.

Q : 우리 회사에 대한 아나요?

A : 네. 저는 홈페이지를 통해 샘초롱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샘초롱이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가지 정보도 홈페이지를 너무 많이 봐서 외울 것 같습니다.

Q : 입사 동기가 무엇인가요?

A :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생산품에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력을 느낀 이유는 제가 훗날 이 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훌륭한 제품을 이용한 그런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지난 사진이긴 했지만 블로그에서 대표님이 직접 고추를 고르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대표님 밑에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 샘초롱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입사 후 포부가 무엇입니까?

A : 다른 직원들과 협력하여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해 직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샘초롱에서 개발된 제품이 인정을 받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Q : 무슨 직무에 지원한지 알아요?

A : 식품 개발 쪽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취미가 뭐가요?

A : 저의 취미는 퍼즐 맞추기입니다. 왜냐하면 퍼즐이 하나씩 맞아가는 모습을 보는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퍼즐 맞추기를 즐겨합니다.

Q : 대학 언제 지원했어요?

A : 대구대학교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일대학교가 1순위입니다.

Q : 3년 내내 꿈이 영양사였는데 왜 본교에 지원하였습니까?

A : 저는 영양사 또는 식품 개발 쪽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던 중 이 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식품 개발 쪽으로 도전하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저는 이 회사의 경영방침처럼 처음이라서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성실 하나 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Q : 최근에 만들었던 요리가 무엇인가요? 또 소스는 시판용을 사용합니까?

A :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요리는 닭볶음탕이랑 닭갈비입니다. 소스는 사서 쓸 때도 있고 직접 만들어서 쓸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제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조별로 10분마다 한명씩 고사장으로 이동, 제시문 읽음(눈으로만 읽을 수 있음), 고사장 안에는 교수 2명 있음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전자기기 전원 꺼서 가방 안에 보관, 신분증 수험표 필참, 지원동기랑 마지막 할 말은 준비해가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제시문에 대한 입장을 말해보세요.

A :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1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함. 환경문제 대두되고 있고 반려가구 수가 늘면서 환경, 동물복지 등을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 바뀌고 있음. 우리의 소비문화가 윤리적 소비행태를 지향하고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아야 함에는 틀림없지만 윤리적 소비에는 한계점이 있음. 윤리적 소비는 공정무역, 환경, 동물복지 등의 인증 마크가 있는 상품의 구매를 통해 이루어짐. 하지만 이는 가격이 비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은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없음. 하지만 윤리적 소비라는 소비문화로의 변화는 옳기에 정부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 생산과정에 보조금 지급, 윤리적 소비위한 쿠폰 지급, 인식 개선 캠페인 등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Q : 국제공무원이라는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고 그와 관련해서 책한 권 이야기해주세요

A : 국제공무원은 포괄적임, 하지만 그중에서 동아시아의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전문가가 되고자 함.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를 읽고 북한사회와 비슷하다고 생각(책 한권 준비했던 내용 말함.) 분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폭넓은 관점, 다양한 시각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함. 경희대학교 국제학과에서 이러한 소양을 갖추어나가고 싶음.

Q :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공간인 만큼 지원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경험이나, 자신만의 공부방법이 있는가?

A : 2학년 수학시간에 했던 창의융합보고서 언급. (자소서 1번 내편 만들기 전략 내용-인문학특강)

Q :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 있으면 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기부, 자소서 내용보다는 지원자의 사고의 깊이, 논리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음. 제시문 기출은 꼭 풀어 보고 정리해야함! 지원자들 대부분 외고 출신임!!! 생기부랑 세특은 우리학교랑 큰 차이는 없는 듯...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6	
전형명	네오르네상스전형(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제시문 읽은 시간 (10분) - 제시문+서류기반 면접(10분)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 소비자1: 윤리적 소비, 소비자2: 합리적 소비

Q : 어느 소비자의 의견을 지지하고 그 이유는?

A : 소비자1의 선택을 지지한다. 첫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문제를 여러 사람의 힘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작은 이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Q : 윤리적 소비는 비합리적 소비라고 비판을 받는 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 윤리적 소비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이익이 있다.

◆ 서류기반

Q : 자소서에서 영어교재를 제작했다고 했는데, 동기와 내용은?

A : 영어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작, 단어, 문법, 독해 파트로 나누어~~~.

Q : '인공지능은 교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나?'에 대해 발표했다고 하는데 찬성인가, 반대인가?

A : 이에 반대한다.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해야한다.

Q : 화용론에 대해 탐구했다고 했는데, 화용론은 무엇인가?

A : 화용론이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 ~~~~(내가 한 활동)

Q : 마지막으로 할말 있다면 30초 정도

A : 3년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 3년동안 길러온 능력을 이 학부에서 발휘하고 싶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찬반의 의견을 물어볼 때 일관성 있게 대답하고 명확한 근거를 들어 얘기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소프트웨어융합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시간	◆ 면접 전 제시문 보는 시간10분+면접시간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안에서 대기, 가져온 자료 봐도 됨 -> 번호가 불리면 복도에서 10분 동안 주어진 제시문을 봄(가져온 자료 보면x) -> 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면접하는 곳에도 책상에 제시문이 놓여있으니 외울 필요 없음. 제시문 위에 표시하거나 글자를 적으면 안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한번 해 볼래요?

A : 저의 꿈은 사람과 기술을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있지만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와 같은 기술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기술이 전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기술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이들을 융합시켜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형태로 만들어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Q :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시문을 봤을 텐데 학생은 이 제시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시문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물었음)

A : 저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빠르고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예시로 의료업계의 왓슨?의 경우 실제 의사보다 암을 진단하는 정확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인공지능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

Q-1 : 그럼 안 좋은 점은 없나요?(아마 추가질문 인 것 같았음)

A : 물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공지능을 제작하거나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 자소서에서 사람들의 요구를 읽는 시스템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예요?

A : 저의 꿈이 사람과 기술을 연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기술을 무수히 많지만 이 기술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찾아서 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Q-1 : 꿈이 시스템엔지니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인공지능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스템엔지니어라고 적은 이유가 뭐예요?

A : 제가 인공지능에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싶은 것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을 사용하면 이를 더 수월히 할 수 있

겠지만 굳이 인공지능이 아닌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적은 것입니다.

Q-2 : 시스템 엔지니어가 어떤 직업인지 알고 있나요?

A : 시스템 엔지니어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상하고, 제작하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는 것 까지 프로그램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 모두를 담당하는 직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였어요?

A : 솔직하게 말하자면 생명과 수학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딥러닝이 인간에 사고방식과 많이 닮아서였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메커니즘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제가 배운 것을 제 나름대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좋아했습니다.

Q-1 : 그럼 싫어하는 과목은 뭐예요?

A : 영어랑 국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Q-2 : 책을 많이 읽었는데 국어는 왜 싫어했어요?

A : 제가 책 읽는 것은 많이 좋아했지만 더 파고들어서 화자의 생각까지 알아내고 공감하는 것이 어려워서 국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Q :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뭐예요?

A : 저는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책의 줄거리와 작가의 생각 설명) 이 책을 읽고 전에는 단순하게 기술의 발전이 좋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속도를 사람들과 맞추어 나가면서 발전해야 하고 기술이 사람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경험까지는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하면서 10년 쯤 뒤에는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있을 것 같아요?

A : 4차 산업혁명은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해 발생한 산업혁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은 통신기술들로 많이 변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더 모호해지고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에는 트랙이란 것이 존재해서 원하는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희대학교에 들어와서 데이터사이언스트랙을 따라 공부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기술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예상질문을 많이 준비해 가도 자신이 준비를 안했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받을 수 있음. 예상질문에 대한 답을 외우기보다는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답이 나왔는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음. 친구들이나 선생님과의 모의면접을 꼭 할 수 있는 만큼 해 두는 것을 추천함. 면접을 할 때도 평소 해왔던 것들이 나와서 많이 긴장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원예생명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생명과학 학생들 다 모여 있다가 차례대로 면접실로 불려가서 밖에 있는 책상에 앉아 있다가 제시문 10분 읽고 들어감, 면접관 2명		
유의사항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제시문(AI)말해주세요

A : 저는 AI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 근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이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뤄 내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I는 심해탐사나 사람구조 등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 해주어 인류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AI로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AI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 추산했고 이 분야에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전통 은행 업무의 90%가 기계로 대체되었지만 은행원은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할수록 직업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됩니다.

Q : 진로가 쪽 생명공학인데 그 계기?

A : 제가 생명공학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생명과학에 대한 애정입니다. 제가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계기는 세포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분리되고 이동하는 것을 책에서 본 후, 직접 그려보면서 이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중 특히 생식세포 분열에서 염색체 수와 DNA 양이 반감되면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와 DNA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물려지는 '유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심이 저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자소서에서 보니까 GMO에 대하여 적혀있는데 GMO와 유전자 가위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A : (어려운 건 아닌데 예상 질문에 없던 거여서 당황) 음...음....

Q-1 : 어어! 이게 교과서 범위에 넘어가는 거면 다른 질문 해줄게요!

A : 음.... (웃으면서) 그럼 다른 질문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Q-2 : 허허허^^ 그럼요. 괜찮아요! 그럼 GMO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말해볼래요?

A : GMO의 장점은 먼저 늘어나는 인류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GMO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품영양을 개선하고 치료제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타카로틴 생성 유전자를 넣은 황금쌀은 황색식물을 쉽게 공급받을 수 없는 나라의 사람들의 비타민A 결핍현상을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생태계파괴라고 생각하는데,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가 주요 식재료인 방글라데시에서는 병충해가 심해 1년 경작에 약180회의 농약을 쳐 농민들의 농약중독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했는데,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잘 견디는 가지를 개발해 재배하니 황폐화된 땅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Q : 보니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뭐예요?

A :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나눔 노인복지센터에서 한 봉사활동입니다. 저의 특유의 친화력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소통하며 손마사지 및 네일아트 해드리기, 청소하기, 노래불러드리기 등 여러 봉사를 잘 해냈습니다. 제가 단지 힘이 좀 세고, 노래 불러드리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도움이 될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행복했던 경험입니다.

Q-1 : 배운 게 뭐예요?

A : 저는 일단 어르신들과 친해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소통해보니 친해질 수 있었고, 음...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습니다!!(매우 이상....)

Q : 그럼 학교에 진학하여 가장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A : 저는 초파리 실험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분자생물학과 식물의 유용성을 함께 결합한 것인 식물분자유전학에 대하여 가장 배우고 싶습니다!

Q : 진로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책은 뭐예요?

A :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육식의 종말'입니다! 이 책은 '인간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사회, 환경,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기 섭취를 중단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전 세계인들의 보편적인 식단인 육류를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떠오른 것은 책 'clean meat'로 알게 된 인공 배양 고기가 최선의 해결책이라 생각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저자가 언급한 사육고기의 위생, 안전성, 환경오염, 생명윤리 등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 제레미 리프킨은 육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말로 이 책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살고 있는 저는 이 책의 마지막말로 인공 배양 고기를 더 많이 개발하여 사육고기를 줄여야 할 것이다. 라고 끝맺고 싶습니다.

Q :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있나요?

A : 그럼 저는 지원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끄덕끄덕)

3년 동안 자습실에 있는 식물들을 도맡아 관리하면서 식물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그러한 애정으로 진행한 식물정화기술에 대한 발표, 정화식물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 실험 등을 하면서 식물의 유용성에 대하여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수와 채소는 식량문제, 화훼는 환경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이렇듯 식물은 인류가 마주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파리실험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된 분자생물학과 식물의 유용성을 함께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식물분자유전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에 꼭 진학하여 식물분자유전학 실험실에 들어가 유전자 발현 양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품종 작물을 개발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교수님들이 매우매우 친절하고 반응도 잘 해주심!! 연습 매우 많이 하고 갔지만 긴장해서 자기가 하던 대로 인사하게 됨... 유의하시길... 경희대학교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면 매우 좋아하심! 많이 웃는 게 좋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우주과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신원 확인 및 가번호를 제공함. ◆ 다른 학과들이랑 섞여서 같이 진행함. 가번호가 1067번이었고, 가번호 순서대로 할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불러가서 바로 면접을 진행하였음. ◆ 면접관이 두 명, 부위기 풀어지는 대화 후 면접을 진행하심.		
유의사항	◆ 교복착용금지, 노트북,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공통질문(제시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 네, 저는 인공지능을 사회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기술도 아닐 뿐더러 그러한 기술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사회에 도입시킨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들이 가기 어려운 오지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로봇을 직접 투입시킴으로써 의미있는 관찰 및 결과들을 도출하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와 판사와 같이 이전에 판결을 내린 빅데이터들과 함께 판사들과 인공지능들이 함께 활동을 한다면, 큰 오류도 없을 것이고 항상 일관적이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Q : 네, 그러면 혹시 나중에 대학교와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A : 저는 천문학자가 되어 연구하는 것이 하고 싶습니다.

Q : 그러면 뭐 최근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처럼 인공지능들은 관측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사람들보다 뛰어난 결론들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나요?

A : 아니요, 저는 인공지능들은 관측된 자료에 대하여 항상 비슷한 결론들만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달리 창의력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들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계속 천문학을 인공지능으로 대체를 시킬 수 있다고 계속 캐물으셔서 대답하기 조금 힘들었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꼭 필요하고 내가 왜 해야 하는 지 생각하고 면접하면 좋을 것 같음.)

Q : 1학년 때부터 3학년때까지 쪽 천문학자가 꿈이라고 진로희망에 적혀있는데, 왜 천문학자를 꿈으로 가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 네, 저는 어릴 적에 뉴턴하이라이트랑 과학동아를 많이 봤었는데, 그 때 우연히 뉴턴하이라이트의 블랙홀과 화이트홀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론상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에 매료되어 천문학자를 꿈꾸게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Q : 봉사활동을 보니 교육봉사를 많이 하셨네요? 이 활동은 왜 하게 되었나요?

A : 저는 중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멘토가 없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제가 똑바른 길로 공부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교육봉사를 통해서 저의 후배들에게는 똑바른 길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렇기에 교육봉사에 자진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 : 멘티들에게 교육봉사를 어떻게 하였나요?

A : 저는 일단 멘티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개념들이 부족한 것인지 문제를 푸는 스킬들이 부족한 것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난이도별로 여러 문제들을 풀립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Q : 그러면 교육봉사를 받는 학생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A : 처음부터 문제를 풀라고 시키니 멘티가 막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에게 맞는 수업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 그것에 이어서 학업 성취도 또한 올라갔을 때 매우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저 또한 뿌듯했습니다.

Q : 희스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A : 희스에 대한 키워드를 구글링 하여 정리하고, 책을 통해서 확립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기본입자들이라면 당연히 질량들이 존재할 줄 알았는데, 그 기본입자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부여받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책과 논문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저는 하고자하는 것에는 끝까지 하고자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을 인정받아 여러 수상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열정과 경희대의 커리큘럼이 만난다면 경희대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경희대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과거 기출들을 보면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라던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한 문제로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게 걸린 가장 큰 문제임을 면접관에게 부각시키고, 환경오염만큼은 사람들의 자유를 조금 억압시키더라도 무조건 해결해야한다는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는 보통 사회에 적용됐을 때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경우의 제시문이 많은데, 긍정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부정적인 것은 고쳐나간다는 식의 대답을 하는게 평이하다고 생각함. 부정적으로 대답하는게 꼭 나쁜거는 아니지만 나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서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유전공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전 제시문 10분 동안 보고 자신의 의견 정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들어서 말해보세요.

A : 저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공지능은 현재 의료계나 교육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은 바로 앞에 주어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주므로 시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으로 시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인공지능의 활용을 막는다면 그로 인해 휴대폰 산업이나 게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산업에서는 시리나 빅스비 등의 인공지능이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이를 막아버린다면 경제적 손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세계적인 입지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Q :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A :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사람을 뛰어넘어 기계 스스로가 인격을 갖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 연구진들에게 기본적인 윤리적 교육을 실시하여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정적인 상황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Q : 주제탐구발표대회에서 ‘헛개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녹조 독소 개선 및 식물 영양분 만들기’ 연구에서 녹조의 독소를 해소하도록 도운 것이 헛개나무의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으로 추정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A : 먼저 녹조의 Mycrocystin이라는 독성성분은 사람의 간독성과 같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간독성을 헛개나무 추출물의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으로 제거했다는 논문을 통해 이것을 이 연구에서도 활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헛개나무 추출물의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녹조의 Mycrocystin 독성 성분을 제거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Q : 많은 봉사활동 경력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의미있었던 봉사활동은?

A : 저는 수어보급활동에서 농아인분들에게 수어로 노래를 전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어를 직접 하나하나 배워 노래가사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기도 했지만 농아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언어인 수어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수어를 배웠습니다. 농아인분들은 청각에 장애가 있어 노래를 듣기 힘들지만 수어로 노래를 구성하여 눈으로 간접적으로 들려줌으로써 이분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인상깊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줄기세포에 대해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탐구활동을 했는데 현재 줄기세포의 현재 실태는 어떻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A :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등 다양한 줄기세포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공장기나 세포치료제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체세포에 만능성을 갖는 특정유전자를 도입시켜 만든 줄기세포로 배아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만능성을 가지고 있어 인체적용성이 좋고 면역적 거부반응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통해 현재 치료하기 어려운 당뇨, 파킨슨 병 등의 난치병을 해소하는 세포치료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A : 저는 경희대에서 배운 생명공학 지식을 기반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줄기세포에 대해 더욱 탐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대학원의 유전공학을 전공으로하여 줄기세포학과 조직공학 및 재생공학이라는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원이 되어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을 하기 전 제시문 면접에 대비해 과학적 이슈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정보를 알아두는 것과 미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두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시문 면접과 생기부 기반 면접을 동시에 하다보니 생기부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기부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준비하고 제시문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응용물리학과			
전형명	학생부 종합(네오르네상스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 입실 -> 가번호 받기 -> 2:1면접 -> 집 가면 됨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실시, 교복 착용 금지 ◆ 제시문 면접과 생기부 확인 면접을 같이 진행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면접

AI에 대한 지문 ->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Q : 제시문에 대한 입장을 말해보세요.

A : AI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함. 근거와 예시 준비하고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해결책도 말함.

Q : 찬성과 반대 모두 다뤘네요. 그래도 ~~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반론하심.)

A : 과학 기술의 대중화 및 윤리 교육, 의식 고양, 법과 제도 마련 등등 잘 반론함.

◆ 생기부 면접

Q : 본인의 진로가 응용 물리학과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저는 태양전지의 효율을 개선하는 태양전지개발연구원이 꿈입니다. 태양전지에 대해 스스로 공부해 보니 양자역학,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응용물리학과에서는 타 학과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양자역학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과 실험과목을 기반으로 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A : 저는 태양전지의 효율을 개선해 그리드 패리티 수준까지 이끄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응용물리학과의 양자역학, 실험을 기반으로 한 교육, 다양한 트랙이 저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희대에 꼭 진학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기부의 내용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없던 자신감도 생깁니다. 친구들, 선생님과 모의면접을 최대한 많이 진행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 경희대의 제시문 면접은 찬성이든 반대이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어 선생님, 과학과 선생님과 충분히 준비하며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의예과	불	5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시간	3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방2개로 나누어 15분씩 면접		
유의사항	◆ 각 방에 면접 위원 2명, 블라인드, 13분간 제시문 보기 및 2분간 숙지 후 면접실 입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짧게, 30초 정도 해주세요.

A : 저는 장기려 박사님을 존경하며 ~~~~인류의 뇌 건강에 기여하며 세계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자 경희대학교 의예과에 지원하였습니다.

Q : 제시문 1번

A :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환자와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알려질 수밖에 없 사실인데 뒤늦게 알려진다면 환자는 더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웨장암이 조기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진단을 내리지 않으면 남은 생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존치료도 수행할 수 없다. 환자가 죽음을 앞두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Q : 제시문 2번

A : 심한 충혈과 약한 통증으로 보았을 때 비감염성 안구질환일 확률이 훨씬 높다. 아직까지 균배양검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빠른 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스테로이드 처방할 것이다. 비감염성 안구질환인 경우도 환자가 약한 통증 정도는 느낄 수 있다. 이것으로 감염성 질환이라 판단하여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항생제는 오남용하면 오히려 내성균 출현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방에 신중을 가하여야 한다. 2. 6개월간 비슷한 환자의 기록을 비교해보고 만약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천장공사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것이다. 또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렸고 환자가 호전되었기 때문에 천장공사 때문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것이다.

Q : (제시문 1에 대해) 본인이 그래도?

A : 의사라면 그 정도 책임감 가져야 된다. 의사라는 직업상의 도덕적 의무이고 환자와의 신뢰를 더 훼손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한 법적으로 어긋나게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다.

Q : (생기부)가장 기억에 남는 탐구활동?

A :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탐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내 몸속의 우주'라는 책을 읽으며 마이크로 바이옴의 영향력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자 비만과 장내미생물의 연관성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쥐의 장내미생물을 RT-PCR을 통해서 분석하고 실제로 A, F와 같은 특정 세균이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세균의 증가는 설사, 장염, 한센병과 같은 특정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고 비만이 미생물에, 미생물이 질병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총체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활동은 인체는 독단적인 개체가 아닌, 미생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존재라는 깨달음을 준 활동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이고 유연한 시각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은 뇌질환을 이해할 때에도 신경세포에만 치중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교세포와 신경세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A :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이다. 교육봉사 활동을 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소통은 상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는 것이다. (과정 이야기) 이러한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뇌질환 환자를 치료할 때에도 환자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의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Q : 의사로서 장점으로 작용하거나 단점으로 작용할 만한 자신의 성격?

A : 인간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때문에 학교 활동에서도 교육 교육봉사나 멘티멘토 활동들을 통해서 후배들과 소통을 하고 또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환자와 함께 소통을 하는 것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단점은 긴장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학교 생활을 할 때도 발표나, 시험에서 제 실력 발휘를 못해 많이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시뮬레이션을 실전과 같은 태도로 연습하며 준비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언제든지 자신감과 자기신뢰를 통해 제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Q : 미래에 자신이 의사가 된다면 어떤 면모, 포부를 가진 의사가 될 것인가?

A : 글로벌 시대 세계인으로서 세계시민적인 포부를 가지고 싶다. UN에서 반기문 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경희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도 이런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인류의 뇌 건강에 기여하는 신경과 의사가 될 것이다.

Q : 세계시민적 포부 실천하려면 어떤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 특히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 본인이 리더십 있다고 생각해요?

A : 그렇다. 생긱이라는 동아리의 동아리 장을 맡았다. 친구들의 관심사가 다양해 각자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실험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다 식물의 항생효과 실험을 떠올렸고 식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식물의 항생작용 성분, 미생물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세균이라는 미생물의 항생작용에 대해, 인체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항생효과에 대해 공부할 있도록 공통된 주제를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친구들의 관심사를 모두 고려하여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사이 좋게 실험을 할 수 있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자공학과	○		
전형명	네오르네상스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 10분전 제시문을 보여준 후 면접에 들어가 10분간 면접을 본다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 유전자 조작 식품 개발에 찬성 or 반대

Q : 제시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해주세요.

A: (실제로는 이것 보다 더 길게 말함) 저는 유전자 조작 식품 개발에 찬성합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농부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작물들이 피해를 입거나 흉년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으로 형질을 개선함으로써 환경적인 요인들에 더 강해질 수 있어 농부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어서 농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작 식품은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유전자 조작 식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유전자 조작 식품에 많은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정확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위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장 개발을 중지한다면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유전자 중에서 좋은 유전자가 있고 나쁜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으로 계속 나쁜 유전자를 없애면 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A: 나쁜 유전자는 있어서 좋을 게 없으므로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유전자의 종류도 엄청 많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끼리 조합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다양한 종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원래 자연은 종을 자연적으로 도태시켜버리는데 인간이 유전자 조작으로 인위적으로 멸종시켜버리면 자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A: 인간은 아직도 자연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쁜 유전자를 없애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류 기반 질문

Q : 과제 연구 시간에 Mosfet과 연산증폭기를 활용하여 회로를 만들었다고 되어있는데 Mosfet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Mosfet은 기본적으로 Source, Drain, Gate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Gate에 문턱 전압 이상의 전압을 가해 주게 되면 Source와 Drain사이에 전자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널이 형성되게 됩니다.

Q : Mosfet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나요?

A : 채널을 형성할 수 있기에 0과 1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고 전하의 극성을 파악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 본인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A : (실제로 말할 때 좀 어버버 됨) 저는 스마트팜을 설계하는 활동에서 저의 리더십이 발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원들에게 역할을 배분하고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팀원들을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또한 저희가 설계한 스마트팜을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하여 검토받았을 때 보완점이 굉장히 많아 팀원들이 상실감을 느꼈는데 저는 팀원들을 위로하고 다독여서 보완할 부분을 수정하여 더 나은 스마트팜을 설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리더십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Q : 아두이노로 다양한 것을 했는데 무엇을 만들었나요?

A : 먼저 간단한 것부터 만들었습니다. 피에조, 조도 센서, 7세그먼트와 같은 소자들을 다루는 것에서 시작해서 기초를 다진 후 동아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IoT를 접목시켜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스마트 화분, 에어컨 동작기 등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Q : 봉사활동으로 한 곳을 계속 갔는데 어떻게 알고 가셨나요?

A : 중학교 때 친구와 같이 봉사할 곳을 찾다가 알게 되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Q : 그러면 어른들이나 누구의 도움 없이 가신거라는 건가요?

A : 네 맞습니다.

Q : 3학년 2학기에는 봉사하러 가셨습니까?

A : 2번 정도 갔습니다.

Q : 본인이 반도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능력을 중점적으로 볼 것 입니까?

A : 저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어져 있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할 거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정말 수많은 공정들이 있고 전자공학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야들이 융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사람들끼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

Q : 시간이 다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 저는 고등학교 3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끊임없이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경희대학교에 입학하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나가는 전자공학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저는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면접을 잘봐서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도 면접 준비 잘 하세요. 면접 제시문 기출은 기본적으로 3번 정도는 보시고 실제 상황 같이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주거환경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8:30까지 입실 - 자기 순서 올 때까지 대기 - 3명씩 대기실에서 나가서 면접실 앞에서 대기 - 1명씩 제시문 8분동안 보기 - 면접		
유의사항	◆ 화장실 갈 때 30분에 한 번씩 가고싶은 사람 모아서 감 ◆ 휴대폰 전원 끄고 가방에 넣기 (울리면 부정행위) ◆ 블라인드 면접 (교복착용 금지, 성명, 수험번호, 학교명 얘기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경희대학교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준비해온 자기소개랑 지원동기 말씀해주세요.

A : 안녕하십니까. 저는 멧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응시번호 14번입니다. 멧돌은 딱딱한 곡식을 흠에 넣고 꾸준히 갈면 부드럽게 갈려져 나오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저도 멧돌처럼 여러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민하여 부드럽게 조화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저의 방을 처음으로 디자인 해 본 뒤에 인테리어 라는 분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인간과 자연환경 그리고 주거환경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에 대해 더 심화된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주거환경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간과 주거환경에 대한 심화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그럼 이제 제시문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A : 저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져 지금보다 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하는데, 북한과 통일이 된다면 지하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표에서 보면 6.25 전쟁이나, 분단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세대인 현 20, 30대에서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과반을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직 북한과 한민족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를 들어,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통일 비용이 너무 비싸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물론 당장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북한과 통일도 되지 않고 남남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발생하는 분단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럼 이제 생기부 관련 질문을 해볼게요.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는데, 봉사활동하면서 얻은 것은?

A : 저는 약 2년간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시간을 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활동이었

지만,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집에서라도 편하게 계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저는 노인요양시설의 건축환경디자인이라는 책을 읽어봄으로써 실버인테리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은 장판으로 바꾸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를 더 튼튼하게 바꾸는 것을 요양원에 말씀드렸습니다.

Q : 학교 활동 중 가장 의미있었던 활동은?

A : 저는 2학년 때 했던 녹색건축법과 관련된 논문활동이 가장 의미있었습니다. 녹색건축법은 거주자에게 쾌적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이지만 내용의 대부분이 에너지 측면에 국한되어 있고, 거주자가 언제 어떻게 쾌적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척도가 나와있지 않아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내에서 CO2 측정기와 열화상카메라와 같은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는 건물 내부에 있는 거주자가 건물 밖의 외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단순히 인테리어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지리학과(자연)		8	
전형명	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시간	제시문 읽는 시간 8분 +면접 10분정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에서 가져온 거 다 볼 수 있는데 전자기기는 전원 꺼서 가방에 넣어야 함. 나가면 면접실 바로 옆에 긴 책상에 제시문 붙어있고 그 옆에 의자 3개 랑 짐 담는 바구니 3개 있음. ◆ 수험표 종이로 뽑아가는 거에 얼굴이랑 수험번호 가리게 임시 번호 스티커 붙임. 제시문 읽고 앞 친구 나오면 들어감. 대기실이랑 똑같이 생긴 방에서 면접 봄.(교수님 두 분 계시는데 대체로 무표정이어서 긴장 하나도 안 풀리고 완전 졸았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착용 당연히 안 되고 신분증 안 들고 오면 3일 이내로 경희대에 직접 신분증 들고 가야해요. ◆ 제시문 10분 읽는다고 들었는데 8분 줘서 멘붕왔음. 연습할 때는 10분 되게 길어서 관촬을 줄 알았는데 시간 엄청 빨리 가고 아무 생각 안 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랑 우리학과에 지원하게 된 지원동기 말해볼까요

A : 지리학을 이용해서 지구촌 미래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단~

Q : 그럼 지리학을 이용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A : 바로 꼬리질문 을 줄 몰라서 당황해서 아무 말 지껄임. 기억 안 남. 미안

Q : 예 그럼 제시문 읽었죠? 자기 의견을 말해볼까요?

A : (인공지능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제시문이었음.)
저는 인공지능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럼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A : 너무 전형적인? 쉬운 질문이라서 오히려 더 당황함. 막 말해서 기억이 안 남. 미안

Q : 인공지능을 지리학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 (봤던 후기에서 제시문이랑 학과 연관시킨 질문 본 적도 없는데 물어봐서 완전 당황함.)지리학을 여러 정보를 고려하고 통합하는 학문인데 인공지능은 빅 데이터를 이용해 빠르고 많은 정보를 다룰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런 느낌이었음.

Q : 2년간 건축가를 희망했는데 지리학도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 (자기소개 할 때 말했는데 또 물어봐서 뭔가 싶었음.)사실 큰 계기라고 말할 일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

Q : 고등학교를 다니며 자신이 가장 빛났던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해요?

A : (예상한 적 없는 질문이라서 또 당황함. 모든 질문에 당황하는 듯.) 저는 2학년 때 학교 축제 사회자를 봤던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생기부에도 있고 자소서에도 썼는데 오디션 봤던 얘기하던 중에 “그래서 사회를 봤어요?” 라고 물어서 자소서 읽긴 한건가 싶고 허무해짐.)

Q : 사회를 맡으면 진행이랑 개그 뭐 이런 담당 나누던데 어떤 역할을 맡았죠?

A : 저희는 둘이서 대화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저는 일단 개그담당이었습니다.^^
(두 분이서 살짝 웃으면서)

Q :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소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 네 저는~~입니다.

Q :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A : 그럼 제가 짧은 개그를 하나 해드릴까요? 하니까 웃으면서 괜찮다고 나가보세요. 해서 너무 창피했음. 면접 끝나고 며칠 지나도 안 잊힘. 흑역사 생성함. 이상한 짓 하지마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공학과		26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1차 합격인원 전체가 모인 대기실에서 대기 및 가번호 부여받음, 이후 가번호와 고사실 호명되면 이동 후 제시문 확인 및 면접실 입장,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신분증 및 수험표 필수, 대기실에서 대기 중 화장실 갈 수 있음, 물 제공, 9시 되면 핸드폰 꺼서 가방에 넣어야 함, 제시문 읽을 때 필기구 사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제시문 보고 왔죠? 바로 답변해 봅시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저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술이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의 오진률은 인간 의사보다도 훨씬 낮은 것처럼, 기술이 더 정교해질 것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와 융합하여 발전하며 시장이 넓어져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들로 인공지능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근거 말할때부터 생각한대로 잘 안 나와서 망했다 싶었음 솔직히 제시문에서 질문의 문장 형태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게 계속 신경쓰인듯)

Q : 그렇군요. 그럼 인공지능이 가져올 불이익이나 사람들의 불안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A : 네, 물론 인공지능의 발전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사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3D업종처럼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남은 시간에 자신을 위한 일을 함으로써 자아실현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키워드 관련해서 친구랑 토론 했을 때 내가 주장한거 그대로 이야기한 것. 그 때 저 내용이 반박당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못 했는데 그 기억이 나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좀 망설였음)

Q : 수상 중에 가장 본인에게 의미있었던 활동은?

A : 저는 과학 공작물 대회가 가장 저에게는 의미있게 남아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대회를 하기 전 만들고자 하는 공작물에 대해 많은 영상을 찾아보고 준비하며 (중간에 뭐라 말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가장 저에게는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자기소개/지원동기 질문 안 나와서 1초 당황했음 그리고 질문받고 1초동안 대회 얘기 준비한거 세 개중에 뭘로 대답할지 계속 고민했음 그러다가 하나 집어서 대답했는데 다른 거 할걸 후회했음 근데 후회할 때 이미 내가 저 대회 이야기하고있길래 그냥 최대한 의미있었던 것처럼 얘기함)

Q : 앞으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게 있는지?

A : 저는 사람들을 돕는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아프리카 아이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사망률 원인 1위가 말라리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말라리아의 매개동물인 말라리아 모기들을 박멸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을 하고 싶습니다.

Q : 수학 튜터 활동을 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A : 저는 친구들에게 수학과 생명과학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특히 생명과학을 알려줄 때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들에도 논리적 오류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가르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념을 학습할 때 더 유기적인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힘들었는데, 학급의 여러 명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조금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Q : 학교 활동하면서 kmooc이나 여러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A : 학교에 다니면서 kmooc같은 강의도 듣고, 동아리로 파이썬이나 아두이노, 간단한 마이크로비트 활동들을 하며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타 지원자에 비해 제 실력이 조금은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Q : 가장 열심히 했던 봉사가 뭐고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지?

A :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봉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들께는 매니큐어를 발라드리거나 손마사지를 해드리고, 할아버지들께는 손마사지와 안마를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생기부에 있는 대로 대답).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Q : 경희대 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A : 먼저 경희대 동아리인 @@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했던 k최근접 조인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서 대학교에 가서 컴퓨터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연구도 제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못 한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 (경희대 꼭 가고싶다는 준비한 대답)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대기실에서 자료 확인 가능하니까 자료 들고 가기. 옆에 친구들 생기부 슬쩍 보고 어려워보인다고 쫓지말기 (개네도 너꺼 보면 놀람). 대기실에서 수험표랑 학생증 검사하는데 수험표 없으면 거기서 재발급해줌 하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웬만하면 꼭 여러 번 확인해서 챙기기.
- ◆ 건물 내로 입장은 7시 40분부터 가능-일찍 도착했다면 근처에 있는 스벅이나 탐앤탐스에서 뭐 하나 마시면서 면접자료 보면서 기다리면 됨.
- ◆ 시간 넉넉하게 출발해야함. 정문에서 고사장(멀티미디어 교육관)까지 도보로 15분 내외 소요됨.
- ◆ 생각보다 다들 복장 막 입고 옴 정장차림은 아무도 없었음 / 생기부나 자소서 공부할 때 확실히 어떤 질문에 어떤 소재로 대답을 할지 정해놓기 그리고 면접관 질문 의도에 맞게 대답하기. / 대답의 기승전결 최대의 이끌어내는게 좋은 것 같음 특히 결(그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 /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라고 한다 그냥 면접실에서의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한의학과		12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			
면접 형식	면접시간	준비시간 15분(제시문), 면접 3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제시문 준비 시간 13분(필기 불가), 2문제 ◆ 면접실 1-면접관 2명, 제시문 기반 면접 ◆ 면접실 2-면접관 2명, 서류 기반 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수험번호, 이름, 출신고교명 말할 시 불이익			

질문 및 답변 내용

◆ 서류 기반

Q: '나'는 환자 A의 주치의이다. 그 환자는 나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나에게 매우 고마워하며, 홍보도 많이 한다. 그런데 어느날 '나'는 환자 A가 몸에 이상이 있음을 파악하고 검진한 결과 췌장암 말기가 나왔다.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질병이긴 하나, 이전 검사에서 비정상 항목이 하나 있었기에 '나'의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이 '나'라면 본인의 실수를 사실대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실수를 숨김으로써 환자가 공포감에 질리지 않도록 할 것인가?(단, 췌장암 치료과정에서 환자-의사 간 유대감은 매우 중요하며, 환자가 췌장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될 경우 충격과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A: 저는 실수를 사실대로 말할 것입니다. 유대감이 중요하긴 하나 이 때문에 의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실수를 숨긴다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격과 공포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러한 충격과 공포감까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Q-1: 상황에 따라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무조건 사실만 말해야 하는가?

A: 선의의 거짓말은 일상생활에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직업에서 본인 마음대로 판단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직업의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Q: 눈병을 가진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약한 통증과 충혈의 증상이 있다. 당신이 의사라면 감염성과 비감염성 중 어느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치료방법을 진행할 것인가?

원인	감염성	비감염성
증상	통증	충혈
세균 배양 시	양성	음성
치료방법	항균제	스테로이드

A: 스테로이드 치료를 진행할 것입니다. 약한 통증은 충혈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혈은 비감염성 질병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염성 질병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환자에게 '감염성일수도 있으니 주변사람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Q-1: 5일 뒤 세균배양 검사를 했는데 양성반응이 나옴. 하지만 6개월전 세균 배양실의 천장을 공사했다는 사실을 떠올림. 이 상황에서는 그대로 양성이라고 판단하여 항균제 치료를 할 것인가?

A: 네. 항균제 치료를 할 것입니다. 물론 천장 공사 시 발생했던 이물질이 세균 배양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낮기 때문에 실험을 다시할 수 없다면 그대로 감염성 질병으로 판단하여 항균제를 처방할 것입니다.

Q-2 : 본인은 환자가 말하는 증상 등 주관적 의견과, 세균 배양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을 우선시하겠는가?

A : 저는 객관적 자료를 우선시합니다. 이전 사례의 천장 공사와 같은 특수한 요인이 없다면 주관적 개입이 있는 자료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더 신뢰할 것입니다.

Q-3 : 그렇다면 주관적 의견은 무시할 것인가?

A : 절대 무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선시 할 사항은 객관적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 서류 기반

Q :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보세요.

A :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한의학에 신비감을 느끼고 한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의사가 가져야할 기본 소양을 갈고 닦기 위해 고등학교 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노력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학업적 측면입니다. ~ 노력하였습니다. 자존감을 바탕으로 경희대 한의대와 더불어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Q : 한의학 관련 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A : 굉장히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요, 알로스테시스와 칠정상 관련 내용, 방송통신고 봉사 활동, 그리고 한의학 인식개선 프로젝트입니다. 그중에서도 한의학 인식 개선 프로젝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3학년 진로희망에 침구과 한의학 교수라 되어 있는데, 왜 침구과인지, 왜 교수를 하려 하는지 각각 설명해 보세요.

A : 우선 저는 침구류를 다루는 것이 한의학만의 독자적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Q : 한의사가 가져야할 소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Q :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보세요.

A : 제 장점은 집중력과 융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Q-1 : 한의사라는 직업에서 순간 판단은 매우 중요한데,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은가요?

A : 그대로 내버려두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Q :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A : '생물과 무생물 사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Q : 정밀의학과 한의학을 접목시킨 것 같은데, 이 둘은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네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기소개나 자신의 장단점, 기억나는 책, 영화, 존경하는 인물과 같은 생각들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준비성이 부족한 학생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화학공학과		8	
전형명	네오르네상스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유전자 조작 식품 도입 긍정적/부정적?

A: 저는 유전자 조작 식품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입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 식품은 빈민국에서 심각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그 부작용으로 인류를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입 전 철저한 안전성 검증 절차와 그 부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후에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박) (근데 뭔가 내가 먼저 이야기 한 느낌)

Q-1 : 아까 말한 것처럼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A: 유전자 조작 식품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안정성 검증 절차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활동 질문 할게요. 동아리 활동에 대해 말해볼래요?

A: 화학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꾸준히 화학실험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화학에 대한 흥미를 더 키울 수 있었습니다.

Q-1 :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뭐예요?

A: 설탕의 선광성을 관찰하는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화학시간에 구조이성질체에 대해 배우며 선생님께서 탈리도마이드 사건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광학이성질체의 선광성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동아리에서 실험을 계획하였고 설탕의 선광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Q-2 : 선광성을 학교 실험실에서 관찰할 수 있던가요?

A: 네, 비커에 설탕물을 넣고 밑에서 빛을 비췄습니다. 또 비커 밑에 편광판을 두고 비커 위에서 다른 편광판을 이용해 선광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Q-3 : 책에 나온 것처럼 특정 방향과 각도로 회전하던가요?

A: 각도까지는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설탕은 s형 이성질체였습니다.

Q-4 : S형 말고 다른 걸 뭐라고 하는지..?

A: R형 이성질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끄덕끄덕1)

Q-5 : R형과 S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A: 빛의 진행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R형, 왼쪽으로 회전하면 S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끄덕끄덕2)

Q-6 : 이거 말고 다른 화학공학 관련된 활동은 뭐가 있나요?

A: 전기습윤현상에 대해 탐구한 적이 있습니다. 표면장력을 배운 후 이를 이용한 기술에 대해 더 찾아보다가 전기습윤 현상을 알게 되어 탐구하였습니다.

Q :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 뭐예요?

A: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읽으며 일상생활이 화학이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화학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화학공학과가 많은데 왜 경희대학교에 지원했나요?

A: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진로탐색 활동을 하며 다양한 대학교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경희대학교하면 저는 바로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떠올랐습니다. 인간성이라는 뜻을 가진 후마니타스처럼 공학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인간과 세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더 훌륭한 화학공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Q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거 같아요?

A: 이 주제에 대해서 영어 에세이 쓰기 활동을 한 적도 있는데요. 종이 화폐가 사라지고 사물 인터넷이 더욱 상용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주변사람들을 봐도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카드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더욱 종이 화폐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시간 없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못 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A: 저는 화학공학 중에서도 표면공학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전문적인 화학공학자가 되어 전 세계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화학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Q : 네~ 수고했어요~

A: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Hospitality 경영학부		○		
전형명	네오 르네상스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환경과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조금 비싼 돈을 지불하더라도 윤리적 소비를 하는 사람(그리고 이를 주변에도 권유함)과 자신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Q : 제시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

A : 두 번째 사람을 지지한다. 자신의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소비를 위해 값비싼 물건을 산다면 환경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등 다른 방안이 충분히 있다. 계속되는 권유는 상대방의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Q : 호텔 경영에서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경영도 중요하다. 경영 관련 활동을 한 것이 있는가?

A : 호텔 경영학과나 경영학과 선배님, 실제 호텔리어분께서 학교에 방문하셔서 하신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Q :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A : 친구들의 다툼이 있을 때 중간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황이 힘들었다. 축제 때 익명으로 꽃을 배달하며 편지를 전달해주는 이벤트를 마련하자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어주었다. 이를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A :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탄 봉사. 축제 후 학급비를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의견을 제시함. 이를 통해 어르신들을 대우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연령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을 많이 해 원래 생각했거나 준비한 답변을 제대로 못함.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할 듯.

◆ 생각보다 생기부, 자소서 관련 질문이 없음. 생각 안나면 바로 이야기 하지 말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영정보학과		12	
전형명	학생부종합(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입실⇒휴대폰 수거⇒대기⇒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X, 수험표, 주민등록증 지참 ◆ 전자기기 제출 시 에어팟도 제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본인이 경영정보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3년 동안 무슨 활동을 하였나요?

A : 저는 경영동아리에 가입하여 경영분야에 관한 지식을 쌓았으며,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한 경영인의 자질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Q-1 : 본인이 말한 것은 경영인데, 경영정보와 관련된 활동은 없나요?

A : 경영정보는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라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기반을 쌓기 위해 경영 동아리에 가입해 경영정보의 배경 지식을 쌓았습니다.

Q : 우리 학과의 이수체계를 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교과 과목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A :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금융 데이터 윤리론(두 가지 개념 섞어서 잘못 답변)...과 경영이론, 경영정보 학이론, 비즈니스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Q-1 : 그렇다면 본인이 이수체계에 있는 교과를 보고 이런 것을 배워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A : IT벤처기업이나 컴퓨터 지식을 기반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IT가 무엇의 약자인지 알고있나요?

A : (너무 당황)internet technology인 것 같습니다...

Q : 생기부에 전자 은행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전자 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과 관련 정보 습득(이수체계, 교과과정, 졸업 후 진로, 비전 등)
-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안 물어 보셔도 자진해서 말하기!!
- ◆ 생기부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합불을 좌우한다고 생각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찰행정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지역)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자신의 순번이 되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면접장 앞 의자 착석. 앞 면접자가 나오면 면접장에 들어가 인사 후 면접 진행. 면접 후 오전 반은 면접 후 대기실 이동, 오후 반은 면접 후 개인 귀가. 교수 2명, 학생 1명 면접방식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교복 및 자신의 출신학교가 알려질 수 있는 복장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급 실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 제가 학급 실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다양한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모둠 장, 동아리 장 등 다양한 리더의 자리를 맡아왔고 다양한 친구를 접하면서 그 친구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리더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을 느꼈고, 이와 같이 더 다양한 친구들과 사귀고 싶어 학급 실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치순찰대에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A : 저는 자치순찰대에서 대장의 역할을 맡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활동 중에는 학생들이 직접 본 학교폭력이나 직접 겪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학생부에 각 학년 층마다 학교폭력 설문 조사 통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생각보다는 많은 학교폭력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Q : 어떤 경찰이 되고 싶습니까?

A : 저는 비행 청소년과 반사회성을 가진 청소년에 대해서 교화를 하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고교 생활 중 '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소년범죄에 관해 접해본 적이 있었고 영어 시간에 '전두엽'이라는 본문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청소년의 이성적인 판단을 맡는 뇌의 부분이 느리게 발달해서 소년범죄의 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에 입학한다면 '비행청소년론'을 이수하여 소년범죄의 특징,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 교화 및 시설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워 사회에 나간다면 반사회성을 가진 청소년들에 대해 교화를 하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Q : 받은 상 중에 가장 인상 깊고 받을 수 있었던 이유?

A : 저는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공모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선 위 프로젝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학교생활 중 발견한 학교문제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으로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활동입니다. 이 상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대부분의 수업과 활동은 선생님께서 지식을 일방적으로 습득하는 강의식 수업이었지만 이 활동은 처음부터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직접 해결점을 찾아 나간다는 점에서 스스로 흥

미도 느꼈고 새로운 방식의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앞 교통문제가 학생의 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때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라도 하자고 해서 실천했던 것이 더 나은 교통환경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지원동기는 무엇입니까?

A :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의한 상황을 보면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 오지랖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불의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제 모습이 경찰이라는 직업의 적성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경찰이라는 직업에 정말 적성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고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이 저의 적성에 잘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해서 경찰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찰 준비생, 교수님들과 공부를 하며 후에 더 잘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어려운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그 중 권력과 테러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A : 노암 촘스키의 권력과 테러라는 책은 테러에 대한 미국의 실상을 폭로하는 책입니다. 미국 사람인 정치가 노암 촘스키는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민주를 앞세워 테러국을 지원한다거나 테러국을 성장시키는 등 다양한 미국의 테러에 대한 이면적인 모습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Q :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한 자신의 장점?

A : 계명대의 ‘지역과 세계를 향해 빛을 여는 교육중심대학’이라는 비전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화’와 같은 교육목표를 언급하면서 국제화에 대한 관심과 영어에 대한 관심을 말하면서 장점을 밝혔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보세요

A : 저는 저에 대한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에 들어와서 다양한 경찰준비생 친구들과 교수님들과 공부하면서 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경찰’이라는 꿈이 확고하기 때문에 계명대학교에 입학한다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찰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경찰행정학과라서 최근 이슈나 생기부에 적혀있는 이슈에 대해서 많이 물어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이슈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면접을 하면서 생기부에 적혀있는 수상경력, 동아리, 학생회 경험 등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계명대 비전이나 교육목표 같은 것도 알아가면 대답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공중보건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입실 - 대기실 - 면접실 - 퇴실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 수험표 챙기기 (없으면 인쇄해줌)			

질문 및 답변 내용

- Q : 지하철? 버스? 뭐 이용했어요?
- Q : 이중욱 박사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 Q : 지구과학 시간에 미세먼지에 대해 학습했는데 이것에 대해 1분 이내로 설명해보세요.
- Q : 미세먼지 원인이 무엇인가요?
- Q : 우리 한국의 원인은 없습니까?
- Q :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어떤 피해를 미치나요?
- Q : 혈관성 질환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 Q :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 Q : 우리 학과는 과학을 다루는데 어떤 과목을 흥미로워하고 어려워했나요?
- Q : 보건직 공무원도 속하는 곳이 많은데 무슨 보건직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 Q : 공무원 하려면 영어도 필요한데 영어 어떻게 공부했어요?
- Q : 영어가 다른 과목들이랑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생기부에서 자신의 희망 학과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확실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답변 준비하기
- ◆ 남자교수 2명, 거리는 1m정도, 잘 웃어주셔서 분위기 좋음.
- ◆ 면접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님 얼굴 익히면 좋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교통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도시학부(교통공학과,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다 같이 대기실에 모임. 다들 면접 자료를 최종적으로 한번 보는 분위기였음. 면접은 2:1 방식 면접관 2 지원자 1		
유의사항	◆ 교복입고 가도 계명대에서 따로 복장을 지급해 줌. 계명대는 거의 모든 질문이 생기부 위주기 때문에 생기부를 정말 유심히 볼 것. 그렇다고 자소서 질문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계명대학교에 많이 와봤나요?

A : 부모님이랑 1~2번 와서 캠퍼스 구경 및 대학입학에 대한 포부를 다졌고 모의면접 때문에 1번 온 적이 있습니다.

Q : 캠퍼스에 와서 뭘 느꼈어요?

A :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여서 그런지 되게 웅장하고도 근엄하고도 또 아름다웠습니다.

Q :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생각은 없나요?

A : 기회만 주신다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Q : 지원동기

A : ‘하늘에는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이륙을 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시간에 조원들과 함께 항공분야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항공기의 부품 관리 및 정비를 완벽하게 해도, 관제사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항공기가 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항공교통관제분야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보면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돌아다니는 일은 육지만큼 자유롭지 못하며, 사고가 나는 경우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실부실장, 동아리 장을 하면서 쌓아온 저의 리더십, 정확하고 빠른 판단력, 책임감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관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통지휘를 넘어서 수학적, 과학적 사고방식을 계명대학교에서 공부하여 승객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항로를 관제하는 에어웨이 관제사가 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지역과 세계를 향해 빛을 여는 교육중심대학’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세계에서 대한민국 관제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발판을 계명대학교에서 이뤄내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에서 항공수업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던가요?

A :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제사와 교통공학 사이에 ‘효율성과 안전성’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과학적 사고방식을 공부하여 여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관제사가 되기 위해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인상 깊게 읽은 책 하나 소개해주세요.

A : 저는 장조원 교수님의 '하늘에 도전하다'라는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항공우주과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놓은 책입니다. 처음에 하늘에는 도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들은 잘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하늘에는 항공로가 있어 항공기가 관제센터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항공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니 저는 자연스럽게 항공교통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책을 기점으로 여러 활동을 하면서 항공교통관제사라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Q : 꿈이 확실하네. 그럼 항공교통관제사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우선 냉철함과 빠른 판단력, 책임감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와 전투기가 근접하여 착륙을 하는 상황이 생길 때 7초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단 1초라도 지연이 된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4가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간감각능력이 필요하고 항공용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급 영어 멘토, 영어 듣기 반장, 영어 경시대회 입상 등 영어의 기본적인 능력을 강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Q : '알팍한 교통인문학' 여기서 왜 알팍하다는 단어를 사용했나요?

A : 교통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고 처음 교통을 접하는 저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저자들을 위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놓아서 알팍하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Q : 인문과, 기술의 관점에서 각각의 해결방안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A : 인문 분야에서는 경찰단속강화가 많이 나왔고 기술 분야에서는 무인경찰제도 실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의 공통점을 고민하던 중 홀로그램 경찰이 떠올랐습니다. 홀로그램 경찰을 강화하면 불필요한 인력은 줄이고 더욱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교통조사의 시작은 통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후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에 입학하여 확률과 통계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 할 계획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A :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입학의 목표로 3학년 때부터 1년간 계명대학교 모의면접, 입시설명회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열린 대학박람회에서도 입시상담을 받는 등 누구보다도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입학에 대해선 간절합니다. 고교 시절 아쉬웠던 부분 계명대학교 강의실, 도서관, 실험실에서 엄청난 학구열을 불태우고 싶습니다. 계명대학교와 함께 하여 세계에서도 유망한 관제사가 되고 싶습니다. 최선을 넘어 최고가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제통상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대기-면접-퇴장 (교수님과 2:1면접)		
유의사항	◆ 1분 남았을 때 문을 두드린다 이때 당황하지 말자 ◆ 신분증 지참. 수험표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까요?

A :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대상국입니다. 그런 두 나라의 무역전쟁은 한국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대처를 잘하지 못한다면 경제성장이 중단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Q : WTO입사의 꿈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A : 어릴 적부터 무역에 관심이 많았고 높은 지위를 통해 세계 무역을 주도해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무역과 관련 있는 여러 직업 중, WTO는 세계 자유 무역을 이끌어 나가는 무역 선도기관이라고 생각하여 WTO입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Q : 계명대에 지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A : WTO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꿈인데 WTO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무역회사나 WTO의 산하기관 급의 무역기관에 입사하여 경험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계명대학교는 많은 해외유학과 해외취업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인되어 있다고 생각하여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계명대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A : 저는 계명대학교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 무역인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지만 영어 실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대의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은 저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 여러 국가가 있는데 반드시 러시아에서 무역회사를 창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저는 궁극적으로 WTO에 입사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WTO는 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인력을 원하는 데 러시아는 이후 한국과의 FTA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연결되어 앞으로도 많은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한국의 인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무역인으로 성장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면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면접 직전에는 생기부를 읽어보는 것이 좋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도시계획학전공		10	
전형명	학생부 종합(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7~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시간에 유의사항 설명해 줌 ◆ 이름 말하면 안 됨 ◆ 교복 입고 가면 학사복을 입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지원동기</p> <p>Q :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p> <p>Q : 건축학과와 도시계획학과의 차이점은?</p> <p>Q : 희망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했던 활동은?</p> <p>Q : (생기부 관련) 공간 디자인이란?</p> <p>Q :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단점은?</p> <p>Q : (꼬리 질문) 더 나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p> <p>Q : 도시계획학이란?</p> <p>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p>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생명과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지역 인재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큰 강의실 같은 곳에 모여 대기, 차례대로 들어감, 2:1 면접, 면접 후 대기실에서 다 끝날 때까지 대기(오전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희망하고 싶은 전공이 무엇인가요?

Q :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짧게 설명해주세요.

Q : 봉사 활동을 많이 했는데 학교공부와 병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Q : 교외봉사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은 무엇이었나요?

Q : (포리)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였나요?

Q : 학생회 임원경력이 있는데 어려운 점 같은 것은 없었나요?

Q :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고, 면접관분들이 긴장 풀어주려고 해주심.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세무학과			
전형명	일반 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5~6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 면접관 남1, 여1			

질문 및 답변 내용

Q: 자기 소개 한번 해봅시다. (지원동기 중심 답변)

Q: 생기부 확인 좀 해볼게요. 성적이 점점 내려가는데 성적을 위해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 노력했나요?

Q: 수상기록에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 노트 경연에서 입상한 기록이 있네요. 어떤 대회인지 설명해 주세요.

Q: 봉사활동을 계획적으로 실천한 사례를 꾸준히 기록해두어 입상했다고 했는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게 된 계기와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세요.

Q: 마케팅에 관심이 높아 보이는 기록들이 많은데, 세무학과로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소비자정보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a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한 대기실에서 소비자정보학과, 정치외교학과, 광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가 같이 대기. ◆ 앞에서 안내요원님이 부르면 본인확인하고 가번호 받음. 면접장 앞에서 기다리다가 면접 보러 들어감. 면접관은 2명임.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진로가 방송연출가나 광고제작제인데 왜 소비자정보학과에 지원했냐.

A : 처음엔 막연히 광고제작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친구들은 어떤 고들을 보면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제작자가 되면 대중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감할 수 있도록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광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광고를 소비하는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정보학과에 입학한다면 소비자에게 어떤 광고가 필요한지 파악하여 더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어 소비자 정보학과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 그럼 경제학과나 경영을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A : 경제나 경영에선 소비자의 심리나 행동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정보학과에 왔습니다.

Q : 독서도 많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무엇인지?

A : 광고는 각 시대에 맞게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를 통해 발전되어 온 내용을 다룬 인터랙티브 광고 제작법이라는 도서입니다.

Q : 방송연출가가 꿈일 때는 나영석PD를 톨모델로 꼽았는데 지금은 톨모델이 누구인지?

A : 이구익 광고제작자입니다.

Q : 그 분의 어떤 점이 존경스러우는지?

A : 이 광고제작자님은 광고회사의 직원들의 복지가 잘되어있어야 좋은 광고가 제작된다고 생각하고, 출퇴근이 자율적인 회사를 설립하셨는데 좋은 광고를 만들자는 신념이 뚜렷하신 것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Q : 봉사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데 주로 뭘했냐.

A : 장애인들 놀이봉사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며 사회성, 배려를 배운 것 같습니다.

Q : SBS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

A : 회사를 만들어 동아리부원들끼리 역할을 정하여 모의경영도 해보고, 창조물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Q : 주로 어떤 역할을 맡았나.

A : 홍보나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Q : 그럼 다른 동아리에선 뭘 했나.

A : 광고와 마케팅의 차이를 이해했고, 영상물을 만들어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Q : 어떤 영상을 만들었나.

A : 친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는 4.19혁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은?

A : 저는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와 함께해 이 분야의 최고가 되어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세계적인 광고제작자로 이름을 알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쌓아온 것을 빛이라고 칭하며, 훗날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와 후배들에게 이 빛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그림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저는 내년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와 함께 하고 싶고,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계명대는 많은 사람들이 면접 분위기가 좋다고 했는데, 진짜 좋았다. 위에 Q와 A로만 적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웃어주셨고, 농담도 해주셨다. 나는 진로와 과가 많이 맞는 편은 아니라서 왜 이 과에 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이 물으셨다.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풀리지 않아 좋은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식품가공학전공		5(추합)	
전형명	학생부 종합(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8시 30분까지 입실-전자기기 수거 안내사항 전달-면접-일괄퇴실		
유의사항	◆ 전자기기 사용금지 ◆ 교복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간략히 해보세요.

A : 저는 미래의 식량난을 대비해 gmo식품의 안정성을 검증하여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Q : 계명대를 선택하게된 이유

A : 식품공학과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찾아 보았는데 계명대학교식품가공학과의 교육목표인 사회를 위한 식품연구자 양성이 나의 미래 목표인 gmo식품을 대중화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식품연구원이 되고자 하는것과 같아서 지원하게 됨.

Q : 계명대 관련 자료를 어디서 찾았나

A : 주로 계명대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보았는데 학과와 관련된 자료는 학과 사이트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Q : 홈페이지에서 인상 깊었던 것

A : 식품가공학과 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축구 동아리를 연다든지 자주 mt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선, 후배 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Q :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

A : 수학, 화학 좋아한다하고 이유, 국어 싫어한다하고 이유

Q : 전공이 바뀌이유

A : 약사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이로 인해 제약 연구원을 희망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이러한 이유로 제약연구원 보단 식품연구원이 저와 잘 맞는 것 같아 이를 진로희망으로 선택하게됨

Q : 전공하여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A : 일단 현재 관심 분야인 gmo식품에 대하여 더 깊은 탐구를 하고싶음. 더 나아가 ~~~~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싶음

Q : GMO식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어야 하는 이유

A : 아무래도 현재 사람들은 gmo식품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gmo식품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Q : (말 끊고) 사람들이 왜 GMO식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A : 아직 gmo식품에 대한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실제 프랑스에서 실험용 쥐에게 gmo식품을 먹이로 주었을 때 악성종양이 발견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한군 미생물-생명 공학회에 따르면 ~~이고, 미래적으로 보았을 때 이 gmo식품의 안정성을 검증하여 대중화시킨다면 사람들은 더욱 값싸고 좋은 퀄리티의 가공식품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의예과		2	
전형명	교과(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30분(10분+10분+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 첫 번째 방의 상황은 면접관이 말로 얘기해줌. 개별자료X ◆ 면접관은 각 방에 두 명, 학생은 혼자 들어감.			

질문 및 답변 내용

◆ 첫 번째방(인성)

Q : 구급차를 운전하는 직업을 가진 사촌형이 있다. 나의 면접날 시간이 늦어 서두르던 중 사촌형이 나를 태워 주겠다고 하여 사이렌을 울리며 면접장으로 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긴급상황에 사용해야 할 구급차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옳지 않다~~~~. 만약 지나가는 길에 위급 환자가 있었다면 이를 사용함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Q : 면접장으로 가던 길에 환자를 뒤쪽에 태우고 갈 수도 있지 않은가?

A : 그럴 수도 있지만 공공의 재산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Q : 면접장으로 가던 중 지나가던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사촌형이 이로 인해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쓰라고 부탁했다. 만약 학생이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 저는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사촌형과 저의 관계에서는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일을 통해 반성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같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Q : 이로 인해 사촌형이 직업을 잃었고 가족들이 '나'를 원망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여기부터 잘 기억이 나지 않음, 방향성 있는 대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기억함

Q : 내가 '사촌형'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행동, 이야기할 것인가?

Q : 할머니가 '나'를 원망하는 상황에서 면접관을 '할머니'라 생각하고 '나'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시오.

◆ 두 번째 방(상황)

Q : 자료1, 자료2가 책상에 뒤집어져 있다. 자료 1을 뒤집어 30초 분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자료1, 무인 계산기(키오스크)그림)

A : 키오스크는 최근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키오스크의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기업이 인력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고 직원과 손님 모두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단점에는 노동력 대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노인분들이 이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Q : 자료2를 보고 30초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자료2,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의 모습.)

A : 아까 말했듯이~~~~~

Q : 이러한 정보 소외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방안은?

A : 가족(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지인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젊은 층들이 직접 알려줄 수 있고, sns를 통해 정보 소외현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

Q : 이러한 정보 소외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국가적) 방안은?

A : 자원봉사를 이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노인분을 방문해 정보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스마트폰의 어려운 기능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매뉴얼을 추가하거나 아예 어려운 기능을 제외하고 스마트폰의 장점만 살린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 세 번째 방(모의상황)

Q : 두번째 방처럼 자료 하나를 보고 30초 후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자료 : 비만이 아닌 약 60%의 현대인이 자신을 비만이라 생각한다는 내용의 뉴스기사와 BMI수치 등이 나와 있는 글)

A : 현대에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미용, 성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10~20대 층에서 비만인 아이들을 따돌리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 의료계에서도 외모지상주의로 인해 메인스트림이 성형외과이고,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을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신이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생각하자, 한 손님이 BMI수치가 정상인데도 비만약을 처방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자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A : 저는 먼저 환자의 상황에 대해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비만약 처방을 만류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환자가 끝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 약을 처방해줄 것입니다. 환자 개인의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의사는 환자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 의료계에서 성형외과가 주류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의사가 지켜야 할 자세는?

A : 의사가 이를 악용하여 과잉진료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는 자기 소신을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며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꼬리질문을 계속 받으면 나중에 할 말을 미리 생각할 시간이 부족함, 만약 준비를 한다면 준비한 대답에 대한 꼬리질문을 만들어보고, 이슈 같은거는 굳이 자세히 찾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음.

◆ 기출문제(한림대, 인제대)에는 선택하는 상황(딜레마)가 대부분이었지만 계명대 면접에서는 막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고 해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의용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실 - 1명씩 복도에서 대기 - 면접 - 대기실- 퇴실 ◆ 교복 착용 금지, 가번호 부여 ◆ 대기하는 동안 준비한 자료 볼 수 없음 ◆ 마지막 사람 끝날 때 까지 대기하다가 12시 50분에 다 같이 나감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의용공학과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A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바램을 실현하고자 계명대학교 의용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인터랙트 봉사동아리에 가입한 이유?

A : 저는 평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때 봉사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Q : QIC가 어떤 활동인가요?

Q : 상 받은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은?

Q : 수학이 다른 과목보다 성적이 높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Q : 졸업하면 뭘 하고 싶은가요?

Q : 참이슬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은건가요?

A : 저희 동아리 부원친구들과 함께 생각하여 만든 이름입니다. 참이슬은 진로 동아리인데 색다르고 재밌게 이름을 짓고 싶어서 “참 진에 이슬 로”로 뜻은 다르지만 같은 음을 가진 한자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Q : 성적을 올리기 위해 내가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있어요?

Q : 우리학교에 입학하여 학업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A : 저는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쭉 해오던 봉사동아리를 대학교에 가서도 가입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병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대학교에서는 색다른 봉사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소서보다는 생기부를 많이 봄. 우리 학과 면접이 끝나도 다른 학과에서 덜 끝나면 갈 수 없음.대기를 3시간 넘게 해야 해서 공부할거 챙겨가도 좋을 듯!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동차시스템공학과		6	
전형명	학생부종합 -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2인의 면접위원이 실시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수험번호, 성명, 고교에 대해 언급하면 안됨. ◆ 출신학교를 알 수 있는 교복, 생활복 등은 착용불가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수학공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A : 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인강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께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Q : 3학년 때 동아리 활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A : 취업 후 미래일기쓰기에서 제 직업인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매일 차를 정비하고 차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학급친구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답변함)

Q : 입학하게 된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배우고 싶은가?

A :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중심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시대가 점점 4차 산업혁명시대로, 기술이 더욱 더 발전해 엔진으로 된 자동차가 점점 없어질 추세이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센서를 통해 모든 게 작동하는 자동차가 앞으로 이루어지므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면접관 분들에게 어필을 잘해야함.
- ◆ 자소서, 생기부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므로 그에 맞는 준비를 열심히 해야함.
- ◆ 모든 질문에 꼬리 질문을 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계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기에너지공학	○		
전형명	학생부종합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8~9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휴대폰 9시에 일제히 거둠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오실 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힘들지진 않으셨나요?

A : 네 평소보다 30~40분 정도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힘들진 않았습니다.

Q : 저희 학교에 와보신 적이 있나요?

A : 네, 대학입학설명회에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Q : 지원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A : 저는 아인슈타인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과학자들의 대한 동경이 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업적을 조사하다가 테슬라 코일을 직접 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대한 업적을 추가로 조사하여보니 교류발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기를 대중적으로 공급해주었다는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고싶어서 지원하게되었습니다.

Q : 테슬라에 대해서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교류발전기 말고도 다른 발명품을 알고계신지?

A : 네, 저는 테슬라코일과 교류발전기 말고도 교류유도전동기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Q : (추가질문) 그럼 혹시 교류유도전동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실 수있나요?

A : 네, 교류유도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직류전동기보다 값이 싸입니다. 작동방식은 교류전류를 흘려주어서 유도된 전하를 이용해 계속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가면서 작동시키는 전동기를 말합니다.

Q : 수업시간에 MOSFET트랜지스터에 조사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건지 말씀 해주세요.

A : 네, 알겠습니다. MOSFET트랜지스터는 금속산화전계효과트랜지스터입니다. 게이트 트레인 소스 핀으로 구성되어있고 게이트에 일정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운데 플라스틱막이 씌여 있어서 일반적인 트랜지스터보다 값이 싸게 작동가능하며 증폭효과도 더 뛰어납니다.

Q : (잘기억안남) 동아리 지원계기 관련 질문

A : 저 혼자 배선공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건축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건축동아리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배선과 회로에 간단한 명칭과 위치등을 간단하게 학습하였습니다.

Q : 전공 관련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단점

A : 저는 끈기가 있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저의 전공에 관한 깊은 관심이 있어서 전공관련해서 열심히 탐구할 자신이 있습니다. 단점은 관심에 비해 물리와 수학쪽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학방과후 활동이나 수학독서활동, 자율학습 등에 신청하여서 부족한 지식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 (추가질문) 대학교에는 동아리 활동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A : 전기 에너지 공학부에 LOOKIE라는 전기자동차 동아리에 가입을 하여서 제가 배운 전공관련 지식을 응용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지식을 동아리원들과의 교류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사회감을 형성할 것입니다.

Q :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준비했는데 못했던 말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A :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입학설명회에 와서 교수님들께 열정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 계명대학교에 지원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6장의 원서중4장을 이 계명대학교에 쓰게되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계명대학교 인재상인 FACE에 걸맞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사)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축사회환경공학부	○		
전형명	농어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전자기기 제외한 자료 열람 가능, 대기실 나서면 불가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면접>

Q : 준비한 답변 시작해 주세요.

A : (1번 문제는 다양한 발전 방식에서 여러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라는 문제-화력발전은 화학 에너지, 수력과 풍력은 태양 에너지, 원자력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등의 중간 과정을 거쳐 전기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을 각각 설명함.)
 (2번 문제는 전기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라는 문제-전기자동차가 오염물질을 직접적으로 배출하지 않아도 그 동력이 되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함.)
 (3번 문제는 2번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문제-전기자동차를 운용하기 위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발전 방식을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의 발전 방식 자체를 개혁해야 함을 주장함.)

◆ <서류면접>

Q : 가장 기억에 남는 교내활동은?

A : 2학년 때 트러스 구조가 힘을 견디는 원리를 주제로 교내 학술제에 참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재료공학과 구조공학의 상보적인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각 부재에 가해지는 힘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압축력보다 인장력에 취약한 자석 교구를 모형의 재료로 택해 인장력이 가해지는 부재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반대로 이용하면 구조적인 취약함을 재료의 특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실험 과정에서 협동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조원들의 장점을 잘 알고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모든 조원이 공평히 일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차후 토론 대회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 실험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 조사를 통해 트러스 구조의 각 부재가 압축력과 인장력 중 한 가지 힘만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둘 중 어떤 힘이 가해지는지를 확인할 측정 장비가 없었습니다. 결국 재료의 변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고, 모형 전체를 압축력보다 인장력에 약한 재료로 만든다면 끊어진 부분이 인장력을 받는 부분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Q : 그 과정에서 인장력보다 압축력에 약한 재료를 사용할 생각은 못 해봤는지?

A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인장력보다 압축력에 약한 재료는 실이나 고무줄이 전부였기 때문에, 모형을 만드는 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해 인장력에 약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Q : 그러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의 바닥은 압축력과 인장력, 둘 중 어느 힘에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 : 바닥의 윗부분은 압축력에, 아랫부분은 인장력에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중이 가해지면 바닥의 윗부분은 수축하고, 아랫부분은 늘어나며 바닥의 전체적인 모양은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변형됩니다. 이 과정에서 바닥의 윗부분에는 압축력이, 아랫부분에는 인장력이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근 등으로 콘크리트의 인장력을 보강할 때도 콘크리트의 아랫부분에 보강재를 삽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농어촌 전형은 면접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까다로운 질문도 없었고, 제시문의 길이나 수준 모두 학교장추천전형1보다 훨씬 쉽습니다. 긴장하지 않고 제시문에 대해 차분히 답한 후, 생기부에 대해 답하면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저는 면접관들이 관심을 가진 부분이 우연히 제가 잘 아는 부분이라 점수를 딸 기회를 얻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면접으로 서류 점수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영학과	○		
전형명	학교장추천전형2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작위로 가번호가 주어짐. ◆ 면접 전 핸드폰 및 전자기기는 모두 제출함. ◆ 면접 대기실로 이동하고, 이후에 제시문 면접준비실로 이동함. 준비가 끝나고, 면접실 앞에서 유의사항 듣고 난 뒤, 면접실로 들어감. ◆ 면접관은 두 분이었음. ◆ 제시문 숙독 시간 21분, 제시문 면접 4분, 서류 기반 면접 3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인드 면접으로, 성명, 학교 이름 말하면 안 됨. ◆ 교복 착용 금지. ◆ 신분증, 수험표 필요함. 			

질문 및 답변 내용

- ◆ 제시문 (가) : 유교 사상의 공동체주의, 인본주의에 대한 설명
- ◆ 제시문 (나) : 칼뱅의 윤리 사상, 베버의 윤리 사상
- ◆ 제시문 (다) : 유교 문화가 동아시아 발전에 미친 영향
- ◆ 제시문 (라) : 자본주의의 문제점 3가지

Q: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나)의 사상에 대해 말해보시오.

A : (가)의 인본주의 사상에서 보았을 때, 칼뱅의 ‘인간의 운명과 직업은 신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신의 섭리에 따라야 한다’는 사상은 옳지 않다고 볼 것 같다.

Q: (나)와 (다)를 종합하여 윤리 사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A : 윤리 사상은 인간의 경제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제시문 (나)에서 보았을 때, 칼뱅과 베버의 윤리 사상은 노동을 중시하고, 저축과 절약을 중시하는 풍토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이들의 윤리 사상에 영향을 받아 저축하고 절약을 하는 소비 습관을 갖게 되었다. 또한 제시문 (다)에서 보았을 때, 유교 사상은 학연, 지연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쳐, 서양과는 다른 경제 발전의 방향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 윤리 사상은 인간의 경제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 (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가)(나)(다)를 종합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시오.

A : 빈부격차 - (가)의 유교 사상을 통해 해결. 가족주의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빈곤층을 가족으로 여겨, 그들을 도와야 함. 그 예로, 복지정책 활성화, 누진세 등.

인간소외, 물질적 가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음. - 유교의 인본주의 사상을 통해 해결. 그 예로 회사의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주당 근무시간 제한.

Q: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A: 저는 대학에서 배운 경영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익을 실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진흥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국가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 CEO가 되는 것도 사회에 공익을 실천하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Q: 경영과 관련된 책 중에 인상 깊게 읽어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A: 저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비전기업들의 성공비결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리더십이란, 카리스마를 지니고 혼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리더십이란, 카리스마를 지니는 것보다 조직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교육과		12	
전형명	학교장추천II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SK미래관(대기) ➡ 제시문 20분 준비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우당교양관에서만 자료 볼 수 있음, 전자기기 전부 제출.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내용**

- (가) 과학 기술 지상주의적 입장
- (나) 과학 기술 지상주의적 태도를 경계하는 입장
- (다) 신기술 도입과 그에 따른 반발
- (라)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국가들의 순위

Q :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제시문 (가) 평가하기

A : (나)에서는 과학 기술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되 부정적 영향들 또한 고려하여 과학 기술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한다. (가)에서는 과학 기술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기에 부정적 영향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할 것이다.

Q : 제시문 (다)와 유사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시 들기

A :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노동과 관련된 직업들을 기계들이 대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과 인공지능을 지지하는 입장인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Q : 제시문 전체를 종합해서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A : 먼저 법과 제도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나)에서 말하고 있듯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이나 익명성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 같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력 유연성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생활을 하면서 정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서류면접**

Q : 국어 교사가 가져야 할 자질 2가지?

A :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

Q : 추천하고 싶은 책 1권?

A :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다. 책을 읽으며 언어가 주는 울림을 느꼈다. 나도 국어 교사가 되어 그런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내신관리가 중요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		
전형명	학교추천 II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 - 면접준비실 - 면접실 - 면접 - 퇴실 ◆ 교수님 2인		
유의사항	◆ 신분증 및 수험표 반드시 지참 ◆ 교복 절대 착용 금지(가번호 부여)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 가. 인지질 2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 세포막 내에 존재하는 유동적인 단백질, 물질 출입 통로 등에 대한 설명
 나. 태양의 고에너지 미립자, 방사선 등을 막는 지구 자기장의 역할에 대한 설명
 다. 반도체의 정의와 불순물 도핑 과정에 대한 설명
 라. 다양한 전자기파의 파장 값과 주요 쓰임새에 대한 설명
 마.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질량수 14인 C, 질량수 12인 C의 붕괴 차이에 따라 고생물 연구가 가능하다는 내용

Q : (질문1) (가)~(라)를 선택적 투과의 개념으로 설명하시오.

- A : (가) -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으로 물질을 선택적으로 세포 내로 투과시킨다. 특히 물질 출입 통로를 이용하는 촉진 확산의 경우 물 분자를, 통로를 이용하지 않는 단순 확산의 경우 이온 물질 등을 통과시키는 것처럼 물질의 입자 크기, 극성/무극성과 같은 성질에 따라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나) -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태양이 보내주는 열에너지와 빛에너지는 사용하지만 방사선과 같은 고에너지 입자들은 지구 자기장에서 대부분 차단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처럼 일부 에너지는 투과시키고 일부 에너지는 차단하는 점에서 지구 자기장도 선택적 투과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 -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모든 성격을 가진 물체이다. 즉, 선택적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한다.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류의 흐름을 조절하기 때문에 선택적 투과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 - 제시문은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전자기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x선은 의학 분야에서 사용된다. 특정한 전자기파를 사용하고자 할 때 나머지 전자기파는 일부 차단하고 특정 전자기파만을 투과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전자기파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므로 선택적 투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Q : 질문1에서 답한 내용과 제시문 (마)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 A : 질문1에서 다른 '선택적'이라는 개념은 '비일관적, 불연속적'의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마) 제시문을 살펴보면 질량수 14C는 계속 붕괴하고 질량수 12C는 붕괴가 계속되지 않는다. 이처럼 질량수 14C는 연속적인 붕괴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질문1과 반대되는 개념인 일관적, 연속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Q : 질문1에서 답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A : 선택적이라는 개념에서 자유 무역 협정이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하지만 또다른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인 칠레와는 소고기보다는 주로 과일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특산물을 효율적으로 선택하여 수입하는 점으로 보아 자유 무역 협정이 선택적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예시인 것 같다.

〈생기부 기반〉

Q : 본인이 생각하기에 전공과 가장 연관되는 과목과 가장 재미있게 배운 단원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A : 생명과학이 가장 연관 있는 과목이라 생각한다. 그중 생명과학2의 세포호흡 단원을 가장 재미있게 배웠는데 이 내용을 배운 후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암세포의 대사과정에 대해 탐구했기 때문이다. 해당과정과 TCA회로, 산화적 인산화를 모두 거쳐 총 38ATP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정상 세포와는 다르게 암세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포도당의 흡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과정만을 거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Q : 세포호흡을 공부할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없었나?

A : 교과과정 내용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었다. 하지만 암세포에 관해 추가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고교수준의 지식만으로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점이 힘들었다.

Q : 생명과학을 배우며 선생님께 질문한 내용은 없나?

A : 효소를 배우며 그래프의 x축, y축의 변수에 따라 그래프의 해석 방향이 달라지는 문제를 접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께 질문했고 친구들과도 1시간가량 토의한 기억이 난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생각보다 생기부나 자소서에서 지엽적인 내용을 묻지는 않음. 재학 기간 중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나 진로 희망이 바뀐 이유 등등 포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음.
- ◆ 실제로 전자기기 소지로 면접을 못 본 학생이 있음. 본인은 USB까지 다 제출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물건이 있으면 모두 다 제출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 교수님이 두 분인데 한 분만 계속 질문을 하심. 그렇지만 두 분 모두와 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교수님의 표정이 답변에 따라 시시각각 바뀔 수 있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최대한 논리정연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회학과		2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하다가 면접 20분 정도 전에 면접준비실로 이동함. ◆ 제시문을 받고 14분간 질문에 대한 답변 정리. ◆ 제시문 2개에 질문 2개이고 면접 시간 중 3분 동안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은 클리어 파일 내에 들어있고 제시문 종이 위에 답변을 무언가 표시나 작성을 하면 안 됨. ◆ 답변 정리 및 작성은 주어진 메모지를 활용해서 해야 하고 면접 후에 제출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p>◆ 제시문 내용은 기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 1번 질문 답변: (a) 관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타주의는 구시대적인 생각이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양립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의 경우 이기심을 기반으로 생명체가 발달하는 것은 맞으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개체가 그렇지 못한 개체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내어주는 행위는 자기희생적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A : 2번 질문 답변: 각각의 관점에서 2번의 상황을 봤을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 관점의 경우에서 보면 이미 자신이 만족할 만큼의 충분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부를 하는 이유는 개인의 도덕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기부라는 희생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b)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기심을 바탕으로 게임을 통해서 선물 교환권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환권을 얻은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내어주는 행위로서 자기희생적이며 이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Q : 보고서 작성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네요. 이럴 때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해결하였나요?</p> <p>A : 아무래도 의견이 충돌하는 때에 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보다 종이에 써서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였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글로 표현하다 보면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p>Q : 진로가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p> <p>A :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범죄자를 대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나 유족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만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세대를 돕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에 저는 프로파일러에서 사회학 연구원으로 진로 희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p>				

Q : 사회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해보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A : 저의 목표가 전 세대를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서 노인사회학과 도시사회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Q : 학술정책보고서 발표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A : 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종 IT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직업 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 : 이유가 무엇입니까?

A :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까지 말하고 시간 종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일반 전형 제시문 기출만 보지 말고 학교장 추천 전형 기출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능하면 다른 대학의 기출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서어서문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 /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작은 강의실에서 제시문 작성 / 이동해 비슷한 공간에서 면접 진행 ◆ 교복 착용 금지,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 제시문 (가)는 정의에 대한 것이었고 (나)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그래프였습니다.

Q : 소득 재분배 정책을 A(소득 높을수록 세금 환급률 높이기)와 B(소득 낮을수록 세금 환급률 높이기) 중 선택하고 그 이유를 (가)에서 제시된 정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A : 이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이다)을 요약하고 (나) 그래프를 분석하여 A를 선택한 후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노동이 많고 따라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Q 현실에서 사회 불평등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오.

A : 불평등의 요인으로 빈부격차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개인적, 사회적으로 나눠 개인적으로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인식 개선, 사회적으로는 이러한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들었고 이 예로 소득 재분배 정책이 청렴하게 실현되는 과정을 취재하여 이를 보도하는 것으로 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생기부>

Q 보고서 쓴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

A : 자소서에서 있는 '남북 문화교류의 역사와 그 방향성에 대한 고찰'을 예로 들어 작성하기 전 남북관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 토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길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Q 대회 참여가 많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과 어려웠던 점

A : 언어는 말하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독서 토론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할 때 긴장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울 보고 말하기, 친구들과의 교차 질의 등의 활동을 통해 지금 면접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당부 : 긴장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긴장되더라도 심호흡하면서 천천히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고 나온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학교육과	○		
전형명	학교장추천2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 → 이동 → 대기 → 면접실		
유의사항	◆ 휴대폰 제출 ◆ 학우들과 대화 금지 ◆ 화장실도 말하고 가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수학을 배움에 있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내용이 있으면 이를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A : 수학을 배우는 것에 있어 대부분의 수학 문제들이 방정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 방정식의 함의를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를 조사했고, 탐구 보고서 수업을 통해 방정식의 의미가 자연 속 주어진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Q : 그렇다면 방정식을 배우는 것에 있어 어려웠던 점을 말해주세요.

A : 방정식을 배우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방정식에 대해 설명해줄 때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문제는 적으면 하나의 풀이, 많아도 2~3개의 고정적인 풀이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친구들이 여러 가지 풀이를 고민하지 않고 획일적인 방법으로 풀었고 이로 인해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정식을 푸는 법을 설명해주기 힘들었다.

Q : 수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해주세요.

A : 비판적인 문제 제기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비판적인 문제 제기 의식이란 일반적으로 바라보던 풀이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무리수를 떠올릴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유리수를 배우고 무리수를 배우지만, 과거 수학자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무리수라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생각하며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여 기존의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수학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고려대학교 입학처에서 자신의 학과 교수진을 다 확인해 볼 것. 얼굴이 익숙하면 말할 때 조금 더 쉽게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다.
- ◆ 면접관은 사람이다. 그저 당신이 생각해보던 가치관과 생각의 깊이를 알고 싶은 것이다. 평소에 자신의 진로와 가치관을 담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면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심리학과	○		
전형명	기회균형 II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시 40분에 입실하여 대기실에서 대기 ◆ 21분 이내에 제시문 4개를 기반으로 한 질문 3개에 대하여 답을 메모지에 작성 ◆ 답을 모두 작성하고 나서 본인에게 주어진 조에 맞는 면접실로 가서 제시문 기반 면접과 생기부 기반 면접을 보면 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대기실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어떤 전자기기도 보유 및 사용하면 안 된다. 대기실에 들어서는 즉시 전자기기를 거두어가기 이에 잘 따르면 문제없다. ◆ 교복 착용은 금지된다. 흑시라도 교복 입고 가면 교복이 안 보이게 가운을 입게 한다. ◆ 다른 면접생과 접촉 및 의사소통은 금지된다. ◆ 면접보다가 흑시라도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말해서는 안 되며, 수험번호도 말하면 안 된다. 대학 측에서 '가번호'를 제공한다.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질문에 대한 답을 4분 내로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Q :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주는 영향을 서술하라.

A : 기술 발전으로 인류에게 편의와 삶의 윤택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 인공지능에 의해 입지를 빼앗기는 직업인도 있을 것이고, 정보의 활용능력에 따라 계층이 분화되어 계급 간의 격차가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계급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달로 인해 특정 직업이 위기를 겪는 현대의 사례를 하나 서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서술하라.

A : 대표적인 예로는 법조계의 직업을 들겠습니다. 최근 재판에서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역할을 대행하였다는 기사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았을 때, 사법계에서 인공지능의 입지가 점점 넓어지게 된다면, 법조계에서의 직업군도 인공지능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직업군은 제시문 (다)에서처럼 이러한 변화에 반대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사법과정에서 적용되는 데에 규제를 가하고 본인들의 입지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군이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업무의 능률을 늘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기술 처리 능력을 통해 과거의 판례를 분석하여 사법 과정에서 처리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Q :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술하라.

(제시문 (라)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척도화하여 각 국가의 점수를 나타낸 표가 있었습니다. 교육, 시장의 유연성 등의 요건이 있었는데, 각 요건에서 우리나라가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것만.)

A : 교육 : 정보격차에 의해 도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단순 노동자들에게 실시하여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기른다.

시장 유연성 : 반도체 사업이라는 강점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기술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한다.

Q : 생기부에 심리학의 진로가 적혀있습니다.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 2가지를 말하세요.

A : 개방성과 편견 없는 자세입니다. 일단 개방성은 어떤 현상을 한 가지의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필요한데, 심리학을 탐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편견 없는 자세는 내담자를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대하고 내담자의 심리상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둘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방성이 더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비교과 활동에서 다양한 탐구 활동을 진행하면서 개방적 태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학년 때,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리학에 초점을 맞춰 원인과 해결 방안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청소년 범죄라는 사회현상을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같은 다른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도 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탐구할 때, 제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탐구할 때, 심층적인 탐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저는 개방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물고 늘어지는 질문은 없었지만, 제 의견을 소신 있게 발표하였고, 생기부 및 자소서에 적힌 내용과 일관되도록 질문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 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면접을 볼 때, 중요한 점을 하나 선정하자면,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이번 질문의 답이 저번 질문의 답과 상충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기부 및 자소서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의 경우, 메모지에 자기가 할 말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두고 면접관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기전자공학부		1	
전형명 / 성적	학교추천 / 내신 성적 1.38			
면접 형식	면접시간	서류 기반 면접 9분 → 제시문 풀이 약 7분 → 개인 발표 시간 6~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1차)	○(2차)	
	면접절차	◆ 서류 기반 면접을 진행 후 제시문 면접을 실시함.		
유의사항	◆ 이과의 경우 제시문 면접이므로 이전 출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 ◆ 자신이 지원한 학과에 대하여 고등학교 수준의 교과 지식을 갖춰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 <생기부 기반 면접>

Q : 3학년 때 꿈이 유저커스텀 IT 전문가라고 되어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것 같네요. 꿈을 구체적으로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 2학년 때에는 성공을 좇아서 다방면의 기술을 응용하는 IT 기술 전문가라는 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인 스마트폰 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기술로부터 소외된 분들을 두 눈으로 목격한 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유저커스텀 기술을 알게 되었고, 이를 IT 기술에 접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Q : 장래희망과 전기전자공학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A : 저의 장래희망은 유저커스텀 IT 전문가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IT라는 기술에 전자, 전기공학은 필수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저 커스텀이라는 목적을 달성……. (이 뒤는 기억이 잘 나지 않음.)

Q : 많은 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부가 있는데, 고려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 제가 고려대학교의 전기전자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교육목표에 영감을 받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목표인 올바른 윤리 인식을 배양한 사회 지도적인 인재 양성에서 제 꿈인 유저커스텀 IT의 목표인 전자 시스템의 올바른 일반화라는 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Q : 전교 회장을 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A : 체계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2학년 때의 축제 준비 경험입니다. 당시 저는 당선된 후 처음 맡았던 큰 행사였고, 여러모로 총괄할 것도 많았고 시험까지 겹치는 바람에 더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기가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Q : 문과에서 이과로 계열을 변경하면서 힘들었던 과목이 있나요?

A : 과학 과목에는 흥미를 가지고 있어 자신감을 갖고 금방 따라갔지만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하지 못해서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A : 저는 항상 배우는데 늦었던 거북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상 남보다 먼저 분 발하고, 했던 일을 되돌아보며 저만의 페이스로 고려대라는 바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느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낌을 극복함으로써 저에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이 자신감과 용기를 고려대에서 펼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질문에 답을 할 때 긴장을 하는 등의 이유로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느린 속도로 이야기하세요. 면접관 분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게 돼요. (저의 경우 그랬음) 특히 제시문 기반 면접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 빠르지 않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면접 순서에 따라서 3시간 30분 정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 마지막 전 순서) 인내심을 갖고 면접 연습을 천천히 하고 대기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환경생태공학부	○		
전형명	학교장추천II			
면접 형식	면접시간	제시문 면접 준비 시간 21분, 면접 시간 제시문 4분, 생기부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 후 면접 순대로 나와 시험장 건물로 이동 ◆ 제시문 풀이 후 각 면접실로 들어가 면접 (제시문 답변 후 서류 기반 면접)		
유의사항	◆ 가번호와 면접 순서는 다름 ◆ 아날로그 시계와 전자 제품 소지 금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평소 교과 공부를 할 때 스스로 조금 더 심화적인 공부를 한 경험이 있나요?

A : 생명과학2 교과 시간에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법인 '생어 염기 서열 분석법'에 대해 배우고, 이 분석법이 현재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알아보던 중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소나무 엽록체의 유전체를 완전 해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공부하면서 이 연구에서 긴 염기 서열을 가진 생물체의 염기 서열을 분석할 때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그럼 그런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A : 따로 산림과학원에 메일을 보내 궁금한 점을 여쭙보기도 하고, 네이버 지식인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Q : 그렇게 메일 보내면 진짜 답장을 해주시나요?

A : 네, 친절하게 답장해주셨습니다.

Q : 그런데 그런 연구 내용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괜찮았나요?

A : 제가 메일을 보낼 때 제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더니 굉장히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괜찮았습니다.

Q : 그럼 이렇게 새로 알게 된 내용을 혼자 알고 있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공유한 경험은?

A :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그 동아리에서 서로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 때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잘 대답했던 것이 좋은 모습으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나가봐도 좋다고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도 되냐고 여쭙보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그런 점이 간절함을 돋보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를 구체적으로 했을 때 면접장에 들어가서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스포츠비즈니스전공			
전형명	글로벌스포츠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 대기 - 면접 - 퇴실		
	유의사항	◆ 신분증 및 수험표 반드시 지참 ◆ 교복 착용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A :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누군가의 열정이 세계로 뻗어 나가게끔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스포츠마케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스포츠 관련 활동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누구보다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저의 장점을 살려 스포츠마케터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Q : 스포츠마케터가 된다면 어떻게 기업의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요?

A : 선수를 브랜드화시키는 것입니다. 잠재성 있는 선수에게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등의 노력을 통해 선수와 계약을 맺고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선수는 국제대회에 출전시켜 경험을 쌓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게 후원사를 모색해주어 선수를 브랜드화시키는 것입니다.

Q : 동아리 시간에 인종차별에 대해 조사하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했나요?

A : 모든 것이 공평해야 하는 스포츠 세계에 아직 차별이 남아있다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흑인차별과 여성차별에 대해 조사하였고 구체적인 사례로 미국 농구에서 흑인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흑인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흑인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예상 질문 만들어보기
- ◆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 ◆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대답하기. 긴장을 많이 하면 준비한 답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고신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자기 추천 특별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각 방당 5분씩)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대기실 ◆ 1번 방(인성 및 자아실현) ◆ 2번 방(적성 및 학업 실천력) ◆ 3번 방(전공적합성)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1번 방

Q :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단점?

A : 저는 저의 장점을 주변을 잘 살피고 매사 차분하고 침착하게 맡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일에 도전하기 전에 걱정이 많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1·2학년 때 동아리 기장과 부기장을 맡으며 바르게 상황 파악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대로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니 결단력도 생기고 망설이는 것도 줄게 되었습니다.

Q : 학교생활 중에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진행된 일이 있다면 그 일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A : 3학년 1학기 학급 부반장을 하며 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만 신경 써달라고 했더니 미안하다며 주의하겠다고 말해줬고 처음보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친구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서 말하는 편입니다.

Q :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가?

A : 봉사활동을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캠페인입니다. 저는 주로 동아리 부원들과 금연, 손씻기, 감염병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협동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 전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퀴즈도 진행하고 비누도 만들어서 팔며 얻은 수익금으로 다 같이 연탄을 사서 전달해 드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눔의 기쁨도 알 수 있었고 친구들 중에서 자신의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며 고마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Q : 가장 친한 친구가 몇 명이고 어떤 관계인지?

◆ 2번 방

Q : 6개의 주제 중에 자신 있는 주제 1개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과 근거를 제시하기.

-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의 휴업

Q : (추가 질문) 본인이 이 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 3번 방

Q : 지원 모집 단위의 전공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부합한다면 어떠한 측면이 그러한지?

A : 간호사는 소통과 공감 능력이 좋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실 도우미로 활동하며 다치거나 아픈 친구들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시간 때 부원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공감해주며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한 동아리 기장으로 캠페인이나 실습 등 모든 활동을 진행할 때 제 순서가 아닐 때에도 조원들에게 맡기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조원들과 같이 남아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소통하고 책임감 있는 능력이 간호사의 특성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자신이 생각하는 간호란 무엇인지?

A : 저는 간호를 환자와 제일 가까이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돌봐주며 신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도 간호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는 환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 지원 모집 단위의 관심은 언제부터이며,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A :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을 보며 환자와 소통하고 자신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학년 때 간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어 간호사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며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 지킴이를 하면서 친구들을 간호해주고 보람을 느끼며 다른 사람을 돕고 간호해주는 것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라는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미래 자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A : 저는 간호사라는 꿈을 정했을 때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해외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신대학교에 간호선교사님들이 계신 것을 보고 저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냥 간호만 해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예상 질문 위주로 나오긴 했지만 그 외 질문도 나와서 다른 질문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작성했지만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3명, 학생 1명 ◆ 대기실에서 번호 부여 후 면접실 입실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호의 기초'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을 바탕으로 대학교에서는 간호역량을 길러나가기 위해 어떤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Q : 영어 시간에 메르스에 관해 발표했는데, 발표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Q : 본인이 의료현장에서 전염병을 가진 환자를 간호해야 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Q : 동아리 시간 간호사에 대해 모의 수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나?

Q : 간호사가 가져야 할 자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Q : 간호사가 비판적 사고력을 지녀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발휘한 예시를 들어주세요.

Q : 간호사 대체 정책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는데, 간호사 대체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Q : 영어 시간에 남자 간호사에 대한 편견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주제를 선정한 이유와 본인의 생각을 말해 주세요.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머리끝까지 채우고 가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설환경공학부		1	
전형명	농어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1, 2, 3학년 구체적인 학업계획은?

A : 1, 2, 3학년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Q : 그럼 학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A : 과학이나 수학 기초학문을 공부하여 공학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또한 재료공학을 토대로 건설재료와 환경공학에 중점을 두고 실험을 통해 공학도로서의 자질을 기를 것입니다. 건축물 공사에서 편리함과 안정성을 고려해 효율적인 공간을 만드는 방법과 어떤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야 오염을 막는 방향으로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 심화된 환경공학 커리큘럼을 이수할 것입니다. 포스코사에서 지원하는 해피빌더와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을 기르며 직접 발로 뛰며 다양한 자질을 갖춘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Q : 우리 학부에 과가 두 개 있는데 무엇인지 아는가?

A : 네. 도시공학이랑 토목공학이 있습니다.

Q : 우리 학부에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A : 토목과 도시를 모두 공부하여 2학년 때 제 적성에 따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편리하면서 안전한 건설물을 짓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지원하였습니다.

Q : 안전에 대한 답변이 많은데 왜 안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A : 최근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지진에 대해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가 공사 중이었는데, 건물이 흔들려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나 안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왜 물리나 화학을 공부하지 않았었는가?

A : 교과목에 물리가 없었습니다. 2학년 때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선택했었지만 바꾸지 못해서 계속 공부하였습니다.

Q : 최근에 읽은 도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A : ‘건축 속 재미있는 과학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백화현상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산화, 기온변화, 물의 작용에 의해 주로 나타나며, 원인은 염분과 습기가 만나 반응을 일으켜 용해된 물질이 벽돌 외부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수분이 증발하면 백화가루가 남는데, 물청소로는 제거할 수 없고 약품을 사용해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하나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축은 자연과 사람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빛을 발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A : ‘건축학교론’이라는 동아리에서 건축물 만들기 활동 시간에 프랑스의 유명한 ‘장 누벨’이라는 건축가의 ‘루브르 아부다비’라는 미술관의 구멍이 뚫린 돔 형태의 천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조원들에게 모형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고, 조원들도 동의하여 제작을 했습니다. 재활용 재료를 사용해 토대를 만들고 벽을 세우고 제가 좋아하는 키포크 스타일을 적용해 건축물을 자연적으로 꾸몄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3월에 입학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저는 너무 긴장해서 외운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났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많이 풀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말을 더듬거나 자신감 없이 이야기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 ◆ 생기부와 자소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잘 준비하여 면접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 돌발질문을 하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관광학부			
전형명	일반학종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왜 관광학부에 지원했는가?

A : 제 꿈의 최종 목표인 컨시어지는 호텔 내부 안에서 뿐만이 아닌 호텔 외부에 관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는 호텔 안 만능꾼이라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정보력이 높아 고객의 만족을 끌어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호텔과 관련된 과보다 관광학부를 전공하는 것이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지원. 또한 공주대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외국어를 포함해 폭넓은 공부의 기회가 열려있다고 생각하여 공주대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음.

Q : 호텔리어가 왜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는가?

A : 어릴 때부터 꿈을 키워와 호텔 외식 쪽과 편의점 등 직접적인 경험을 함. 이를 통해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 상대하는 일이 내 적성에 맞음을 알게 되어 꿈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게 되었음.

Q : 외국인과 인터뷰한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A : 'What do you think about 침성대?'라고 해야 하는데 'How do you think about 침성대?'라고 잘못 질문함.

Q : 왜 호텔리어 중에서도 컨시어지를 꿈꾸는지?

A : 저는 제 지식을 나누고 남을 직접적으로 도와 기쁘게 하는 것이 제 성격에 제일 잘 맞다는 생각을 했음. 컨시어지는 호텔 안의 전반적인 지식이 넓고 많아야 하기에 물론 호텔에 입사하게 된다면 프론트부터 식음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것임.

Q : 중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이유가 있는가?

A : 할아버지가 중국분이셔서 어릴 때부터 중국에 오고 갈 일이 많았고, 중국어 공부는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4년간 열심히 공부해 제가 세계적인 호텔리어가 되었을 때 공주대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제 인생에 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영어 물어보시길래 크게 당황했다. 국립대라 심층 면접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꿈에 대한 꼬리 질문이 길어졌다. 답변은 길게 말고 임팩트 있게 준비해 가면 될 것 같다. 교수님이 웃기고 재밌으셔서 긴장은 크게 안 해도 되지만 아이컨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지 내 시선과 표정에 질문마다 반응과 표정이 다르셨다. 환하게 웃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꿈에 대한 구체적인 계기나 목표 의식에 대한 답변이 강했으면 좋겠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문헌정보교육과		4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대 1 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교복 착용 금지 ◆ 대기실 내 학생 간 대화 금지 ◆ 전자기기 사용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소서 2번에 적힌 봉사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Q : 정보 활용 능력이 무엇인지 아나요?

Q : 정보 활용이 왜 필요한지 말해 주세요.

Q : 학생들이 도서관을 오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Q : 생기부에 '라키비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라키비움에 대해 말해 주세요.

Q : 학생은 책을 많이 읽는 편인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공주대는 주로 자소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소서에 대한 숙지와 예상 답변을 잘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듯.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법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 대기 후 무작위로 정해진 면접번호 순으로 들어감(면접관 3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반장, 수상경력, 부모님 직업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공주대학교 지원 이유, 법학과 지원 이유

Q :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Q : 가장 감명 깊었던 책과 그 이유?

A :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Q : (포리 질문) 마이클 센델이 추구하는 정의와 다른 학자들이 추구하는 정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Q : 생기부 관련(토론) - 자기주장을 말할 때 있어서 어려웠던 점

Q : (생기부 성적 상황) 성적이 1학년 때에 비해 많이 오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나 계기?

Q : 가장 좋아했던 과목 / 가장 어려웠던 과목

Q : 생기부 관련 - 학생자치법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Q : 마지막 할 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공주대학교에서는 오히려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학교육과			
전형명	교과/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3 면접		
유의사항	◆ 전자기기, 아날로그 시계 착용 금지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첫 번째 면접 대상자 3명의 면접 종료 전까지 입실하는 규정)			

질문강의 및 답변 내용

Q : 학교 폭력 가해자의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A: 저는 기록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그러한 기록이 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는 그 가해자가 학교 폭력을 일으킨 후에 어떻게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태도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생활 기록부에 기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Q : 사교육이 흥하여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하게 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 저는 사교육이 흥하는 이유가 학생들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치는 시험이 대학입학으로 직결되고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학생들의 큰 목표다 보니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불안감이 사교육이 흥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교육자로서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본시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예습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예습과 선행학습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교육자가 된다면 예습을 통해 학생들을 학교 수업의 효율을 높이려 노력할 것입니다.

Q :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보세요.

A: 우선 저는 평소애 휴식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층간 소음의 피해자가 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윗집에 개선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냉정하게 법으로라도 해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가해자가 된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같습니다.

Q : 공주대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사범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은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대학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지원에 힘쓰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여 저 역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지원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교수님들이 인자하시다. 최대한 말하고 오자.
- ◆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와도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하자. 잠시 생각하고.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동북아문화산업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광운참빛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9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오후로 나뉘서 진행되는데 본인은 오후 A조 1번이어서 들어가자마자 면접 봄. ◆ 면접 시간 되면 안내해주는 선배님들이 줄 세워서 고사장 앞에 하나씩 떨어뜨려줌. ◆ 면접고사장 앞에서 대기할 때 제외하고는 면접자료 볼 수 있음. ◆ 면접고사장 들어가기 전 고사장 앞 바구니에다가 소지품 모두 놓고 들어감. 면접관 두명 한분은 교수님 한분은 입학사정관인 듯.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인드 면접(교복착용 금지). 신분증 챙기기. 수험표는 검사 안하셨지만 혹시 모르니 들고 가는 것 추천. ◆ 대기실에서 휴대폰 전원을 끄고 거두지는 않음. 인문계열 대기실은 4층임. 면접시간 꼭 지킬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간단한 인사 후 수험번호 재확인〉

Q : 학생이 문화교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용한 콘텐츠를 제작해 전파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전파하겠는가?

A : 저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하나씩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기반 관광상품을 전파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도 세계에 전파하고 지역사회의 발전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싶은가?

A :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연상품을 개발하여 전국 순회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야기의 해당 지역에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테마파크를 개발하여 사람들이 관광을 올 수 있게끔 하는 등을 하고 싶습니다.

Q : 그렇다면 본인이 상품으로서 개발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 저는 원이엄마의 이야기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전파하고 싶습니다. 원이엄마의 이야기는....

Q : 아니 이야기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개발하고 싶은 이야기 리스트만 말해보라

A : (원이 엄마밖에 준비 안 해가서 당황함) 어.. 우선 방금 전 말씀드렸던 원이엄마 이야기와, 또... 제주도 선문대 할망의 이야기, 또...(정말 생각 안나서) 역사 속 실제 인물이지만 정조의 수원화성 축조 이야기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이 이야기들이 반지의 제왕과 같은 이야기보다 대중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A : 아닙니다. 하지만 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학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생기부에 보니까 일본의 도서관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썼다고 되어있다. 조사과정에서 느낀 일본과 우리나라 도서관의 차이점이 있었는가?

A : 어.. 사실 그렇게 큰 차이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차이를 말하자면, 일본의 도서관에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분류하거나, 알아서 책을 정리해주는 기계가 도입된 도서관이 꽤 있었습니다.

Q : 첨단기술을 이용한 도서관들이 있었군요. 이런 기술들이 우리나라의 도서관에도 조만간 도입될 것 같지 않습니까?

A : 네. 그럴 것 같습니다.

Q : 일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일본에 가본 적이 있는가?

A : 네. 열 살 때 가족들과 패키지여행을 가본 적이 있고, 열일곱 살 겨울방학에 도쿄 자유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Q : 두 여행에서 차이점이 있었는가?

A : 아무래도 패키지여행은 가이드를 따라 이동해서 일본 곳곳을 볼 수 있었지만 많은 곳을 가는 만큼 여행지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도쿄 자유여행은 제가 직접 계획하고, 관광지를 찾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길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보니 패키지여행보다 훨씬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Q : 여행을 하면서 느낀 한국과 일본 문화의 차이점이 있었는가?

A : 가까운 나라이다 보니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종교의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종교를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아직 귀신이나 신과 같이 미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Q : 어디에서 그런 걸 느꼈나?

A : 신사나 절 같은 곳을 관광할 때 특히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 일본의 첨단기술 이야기도 하고 미신이야기도 했는데 현재 일본이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신을 믿는 이면성이 어디에서 온 것 같은가?

A : (정말 당황함 당황해서 네? 세 번이나 함. 교수님이 계속 질문 설명하셔서 망했다 싶었음) 저는 그 또한 일본 고유의 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딱히 이면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Q : 흠.. 이면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렇군요

Q : 공연을 좋아합니까? 네 고등학생 때도 많은 문화생활을 즐겼습니까?

A : 공연을 보긴 했지만 아무래도 중학생 때 보다는 많이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Q : 지금까지 본 공연 중 인상 깊었던 것을 말해보세요

A :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이엄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뮤지컬은...

Q : 아니 본 공연 리스트만 짝 말해봐라

A : 일단 원이엄마 뮤지컬과,, 미녀는 괴로워, 또 캣츠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캣츠는 언제 어떻게 봤는가?

A : 중학생 때 실제 해외 공연단이 우리 지역에 직접 왔을 때 관람했습니다.

Q : 본인이 본인 지역의 다른 학생들 보다 공연이나 전시회를 많이 본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A : 네, 그렇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

A : 우선 저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광운대학교가 저의 1지망이다 보니 많이 떨어져서 면접에 있어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부족했던 점을 광운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보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수험생의 신분으로 뵈었지만 내년에는 광운대학교 신입생으로서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준비한 만큼 면접에서 말이 나옴. 본인은 생기부 자소서 독서 시사 등 질문 200개 이상 준비해갔음. 이렇게 해도 예상질문 하나도 안나오니까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준비한 답을 이용해서 침착하게 대답하기.
- ◆ 평소에 말하는 연습 많이 하기. 이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 속으로 말하거나 쓰는 건 정말 아무 도움 안됨. 무조건 소리 내서 말하기! 그러면 면접장에서도 일단 입에서 말이 나오긴 한다.
- ◆ 무조건 웃기. 첫인상으로 면접이 반 이상 끝나버린다. 나는 면접이 당황의 연속이었는데 계속 웃으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었음. 당황해도 티내지 말고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하고 방긋 웃기. 꼭 웃기!
- ◆ 동문산이니까 아무래도 일본과 중국 많이 공부해가기. 특히 배운 과목 중 일본이나 중국 관련이 있다면 그 세특에서만 질문 몇 십개 만들기. 특히 문화 쪽으로 많이 파기.
- ◆ 말을 더듬더듬 하는 건 심하지만 았다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기. 말을 신중하게 골라서 한다는 느낌을 준다.
- ◆ 면접고사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엄청 떨리는데 막상 자리에 앉으면 별로 안 떨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나 잘하기.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면접보기! 파이팅 :)
- ◆ 저는 광운대식 3.29였음 광운대가 약간 상향 정도 지원이었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참빛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 시간 내에 대기실로 도착하면 지정석이 있음. ◆ 입실 시간이 끝나면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블라인드 면접에서의 유의사항과 교복을 입고 온 학생이 있는지 보시고 신분증 검사를 하심. ◆ 검사가 끝나면 가번호 스티커를 받아서 왼쪽 가슴에 붙임. ◆ 대기실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짐을 다 챙기고 밖에 나가서 줄을 선 다음 진행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자신의 면접실 앞에서 대기함. ◆ 면접실로 들어가면 두 분의 여성 면접관이 계셨음. 10분간의 면접 후 자신의 짐을 챙기고 바로 집 가면 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교복착용 금지이고 성명, 부모님의 직업, 수험번호 등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정보들을 말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휴대폰은 꺼서 가방에 넣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면접 준비한 것은 프린트해가서 대기시간에 볼 것. ◆ 화장실도 한 번씩 가고 싶은 사람들 모아서 한꺼번에 갔다가 옴. ◆ 대기실에서 호명되어 나가면 다시 못 돌아오기 때문에 꼭 짐을 다 챙기고 빠뜨린 것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길 바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소서에 빅데이터의 문제점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적어 놓으셨는데 먼저 빅데이터 문제점부터 설명해 주세요.

A : (자기소개나 지원동기 계속 연습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전공 관련 질문을 하셔서 당황했고 또 자소서에서 빅데이터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적도 없었는데 물어보셔서 더 당황함) 음...네..?!! 빅데이터의 문제점을 언급한적이 없는데...?

Q : 여기 지원자가 언급을 했는데요?

A : 아, 저는 자소서에서 빅데이터에 관한 문제점은 언급한 적이 없고 현재의 학교폭력실태조사가 피해자에게 이분법적인 답변을 강요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심경과 그에 따른 피해자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나의 경험과 연관지어 설명함) 그리고 빅데이터가 여기에 활용되면 실태조사는 물론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을 때 좋은 자료,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빅데이터를 언급한 것이지.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Q : 그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콘텐츠를 만드신다는 거죠?

A : 네, 저는 지금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새롭게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심리 상담에 쓰이고 있는 미술치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심리를 보다 개별적이고 정확하게 알아내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기 힘들어하며 혼자서 끔찍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태조사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Q : 앱이랑 콘텐츠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A : 저만의 학교폭력 예방콘텐츠 안에 실태조사 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어서 좀 당황했었음.)

Q : 음..네, 그럼 어.. 나중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발전해나간다는 거예요? 아예 직업을 이런 쪽으로 정한건가?

A :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1인 미디어 방송에도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편집과 기획을 보다 전문적으로 배워 저만의 소통하는 콘텐츠를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는 제가 미디어 콘텐츠제작자가 되어 꼭 한번 만들어 보고싶다는 것입니다.

Q : 음.. 소통하는 콘텐츠? 그럼 지금 어떤 콘텐츠 만들고 계세요?

A : 제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끼와 재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의 끼와 재능 그리고 광운대에서 배울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능력을 믹스하여 많은 구독자들과 관심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듯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세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는 개인들의 목소리, 꼭 알려졌으면 하는 목소리들을 저의 콘텐츠를 통해 세상에 알리는 그런 소통 콘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Q : 음..네, 그럼 오늘날의 트렌드는 어떻게? 그리고 앞으로는?

A : 오늘날의 트렌드는 ‘이미지로 소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전공 특강에서 들었던 것 좀 말함)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트렌드가 점점 더 심화되어 보다 더 개별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개할 것 같습니다.

Q : 그럼 지원자는 자소서에서 개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개별화된 콘텐츠를 만드신다는 거죠?

A : 각 개인들이 추구하는 방향의 그런 개별화된 콘텐츠를 말한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도 각 개인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영상들을 추천해주지 않습니까?(이때 약간 더 생각한다고 멈췄 했는데 바로 꼬리질문 들어옴)

Q : 음.. 그래서 앞으로 점점 콘텐츠가 개별화 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A : 네, 물론 자신들이 더 알고 싶고 호기심을 해결해나가는 데에 있어 전문적인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에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보게 되어 다른 콘텐츠를 접할 기회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면에서 그렇게 좋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Q : 자소서에서 연극부를 통해 ‘소통’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통이고 또 저의 학과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은지?

A : 네, 제가 생각하기에 커뮤니케이션학의 근본은 ‘소통’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근본을 제일 잘 쌓을 수 있었던 것이 연극부였습니다. 연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간 연극부였지만 저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제 배역이 아닌 모든 장면에서 참여하여 항상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이를 다른 연출 친구들과 소통하며 만들어나갔습니다.

Q : 그럼 이미지 커뮤니케이션도 언급하셨고, 소통과 참여가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소통에 있어 그 외에는 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미디어와 관련해서?

A : 음.. 네 그 외에는.. 듣고 그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하는 올바른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했던 연극부에서도 그리고 댄스부에서도 제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말해도 필요한 말을 경청하는 자세나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없는 친구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트렌드도 캐치하고 소통을 하는 기본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아 댄스부도 하셨어요?

A : 네 그렇습니다!^^(이때 면접관분들이 웃으셔서 내심 좋았지만 내 생기부를 안보셨다는 생각과 내가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지 모르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어필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묻지 않으셨음.)

Q : 이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네요!? 피테의 파우스트..오.. 안 읽은 책이 없네,, 어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10초 정도만 말해볼래요?(이때 진행요원이 문을 두드려서 빠르게 말해드렸음)

A : 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은 'MT 언론정보학'이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지원하게 해준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의 실제 언론정보학 교수님들과 재학생들의 힘든 점과 속마음들은 제가 진짜 이 학과에서 버틸 수 있을지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하고 마음가짐을 정리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아는 만큼 상상한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미디어학과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선 많이 알아야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느껴 평소 편식하는 공부를 했던 제가 마음을 고쳐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배워나가는 첫 발판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제일 인상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일단 자소서에 대해 묻는 심층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당황했고 또 전공 관련 지식들을 요하는 질문들도 많아서 당황했었음. 그러니까 특히, 배움의 폭이 넓고 다양한 미디어 학과 면접에서는 관련 기사나 지식들을 많이 알고 가면 좋을 듯 함.
- ◆ 나는 자기소개나 지원동기 장점, 단점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꼭 물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준비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서 굉장히 당황했었음.
- ◆ 자기소개나 지원동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소서나 한 번 더 보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함. 면접관이 내 생기부를 안 읽어봤다는 생각을 못해서 면접관들에게 내가 겪었던 고교 시절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어필하지 못한 것들이 제일 아쉬움이 남음.
- ◆ 꼬리 질문도 많았고 압박 면접이었던 것 같아 힘들었음. 면접 준비할 때 제대로 준비하길 바람.
- ◆ 면접관들의 별 감흥 없는 반응에도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좋을 듯. 나도 그랬음. 모두들 파이팅!!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법학부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 참빛 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9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초콜릿 등 간단한 군것질 정도는 조교님께 물어보고 먹을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보게.

A : 저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을 통해 직접 아이들과 만나 학업뿐만 아니라 고민을 들어주는 활동을 하며 소외계층 아동들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고 문제에 휘말렸을 때, 방법을 몰라 자포자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복지혜택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여전히 진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학대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의 기반은 법이기에 행정법, 아동복지법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되고 싶은 행정가가 무엇을 말하는가?

A : 법학을 전공한 교육행정가란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하고 법률적인 전문능력을 갖추어 교화와 예방의 환경조성에 힘쓰는 행정가입니다. 또한, 법률적 지식을 기반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법학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비행 청소년들의 일탈과 방황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Q : 행정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쳐야 하는가?

A : 행정가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고시에 응시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먼저 1차에 헌법, 영어, 한국사, p-sat이라는 것을 치고, 2차에 논술시험, 3차에 면접을 보고 모두 통과하면 교육행정가가 될 수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로스쿨 준비반뿐만 아니라 행정고시 준비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반에 들어가서 교수님과 선배분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가가 되고 싶습니다.

Q : 진로가 3년 동안 바뀌었네요.

A : 홀몸 어르신께 방문하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정부에서 주도하는 고령 친화 사업이 아직 초기개발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상업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실버산업전문가가 되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소외

계층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는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껴 교사의 꿈을 키웠지만, 그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문제에 휘말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법률적으로 지식을 갖추었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도적, 법률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행정가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Q : 영어성적이 마지막에 좀 내려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A :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내용이 심화 되는 만큼 공부를 더 심층적으로 해야 했지만, 그만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 2학기 시험은 내신에 들어가지 않고 최저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영어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학교 표지 모델을 했네요.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웃음)

A :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에 저의 모습이 부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학교를 위해 활동을 할 수 있어 상당히 보람이 있었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을 앞으로 모범적으로 해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할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Q : 연애 해봤어요?

A : 아니요, 안 해봤습니다. 어른분들께서 학창시절에는 연애보다 공부에 열중해야 한다고 하셔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결과 광운대까지도 올 수 있었습니다. (웃음)

Q : (웃음)해봤을 것 같은데~ 대학 와서는 하고 싶어요?

A : 네. 학업이 안정되면 연애 또한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학업을 우선순위로 둘 것입니다.

Q : 자치법정에 참가했네요?

A : 자치법정에 참여해 교내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방과 후 보충수업에 불참한 교우의 변호인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부분은 공동체 질서 유지에 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학교 측이 학생의 진로에 대해 배려하지 않고 일괄적 교육을 시켜서 공부보다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희생시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과 학습권을 근거로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물론 교사의 수업권이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치법정의 결론은 교내봉사가 내려졌고 학교 측에서도 다음 학기부터 8교시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키워드 위주로 외우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긴장하지 않도록 멘탈을 관리하고 면접을 보면서도 자신을 최대한 뽐내기 위해 준비한 말을 다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자재료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광운참빛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대기실에서 대기하며 면접자료를 봅니다. ◆ 화장실은 정해진 시간마다 안내관과 함께 단체로 갑니다. ◆ 자신의 면접 차례가 되면 학과마다 한 명씩 이름을 부르고 줄을 일렬로 선 후 각 면접실 앞에서 안내를 받은 후 입실합니다. ◆ 입실 후 면접관 두 분이 계시고 바로 블라인드면접에 대해 안내받았습니다.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교복착용금지, 2:1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와 학교 및 학과 지원동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부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양자역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의 원리에 대해 공부하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평소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해 관심이 많아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연구하는 반도체 개발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는 열쇠는 바로 신소재, 그래핀과 같은 전자재료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 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광운대는 ~~ 으로 에너지 활력소의 모습을 광운대에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Q : 그럼 미래에 대한 포부는 없는 건가요?

A : 앗, 저는 그래핀과 같은 신소재를 통해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는데 연구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대답을 원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Q : 어떤 반도체의 효율을 말하는 거죠?

A : 전기전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Q : 전기전도성이 뭐가요?

A : 전기전도성이란 ~입니다.

Q : 자기소개를 할 때 양자역학이라고 하셨는데 양자란 무엇이죠?

A : 양자는 불연속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은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물리량에 대한 것입니다. (양자 물어보셨는데 양자역학도 물어보실 것 같아 그냥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Q : (자기소개 내용) 양자역학으로 어떻게 반도체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죠?

A : 먼저 반도체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먼저 설명하자면,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올라가는 물질을 말합니다. 반도체의 원리는 (앞의 답변의 충분한 근거제시)~로 양자역학의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것으로 이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Q : (자기소개서 4번) 빛의 이중성에 대해 흥미를 가진 것 같은데 언제 이것이 제시됐죠?

A : (당황) 하이젠베르크 파동역학 때 가장 빛의 이중성에 대해 활발히 제기된 것 같습니다.

Q :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제시된 거죠?

A : 연도를 말씀하신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Q : 아 그냥 아는지 물어본거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A : 네.

Q : 여기(자소서4번) 불확정성의 원리를 슈뢰딩거의 고양이로 이해했다는데 설명해보세요.

A : 먼저,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불확정성의 원리는 입자에 높은 파장의 빛을 쏘았을 때 운동량이 정확히 측정되고 위치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습니다. 낮은 파장을 쏘았을 때는 그 반대입니다. 상자 속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경위를 관찰할 때까지 중첩상태로 존재하며 고양이의 생사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를 불확정성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님들 고개 끄덕끄덕)

Q : (자소서 4번) 여기 태양광발전에 대해 적혀 있는데 원리를 설명해 보세요.

A : 태양광발전은 광전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광전효과란 ~입니다. 반도체에서는 이를 광기전력효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광기전력효과란 ~($p-n$ 접합 반도체와 연결해 설명하며) 금속 등의 물질이 고유의 특정 파장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를, 즉 일함수 이상으로 흡수했을 때 전자를 내보내는 현상입니다.

Q : (왼쪽 면접관님 불쑥) 일함수가 뭐죠?

A : 일함수는 ~~입니다. (일함수의 오개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왼쪽 면접관께서 쓰음... 하고 소리내시면서 고개 기울고하셔서 정말 아차! 싶었어요)

Q : $p-n$ 접합에서 전류를 높이는 방법을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A : n 과 p 가 접촉할 때 확산에 의해 n 형의 농도가 더 짙을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Q : 자 그럼 자신이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뭔가요?

A : 음, 공유결합과 오비탈입니다. (이전에 오개념을 말했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았습니다.)

Q : 그럼 설명해보세요.

Q : (왼쪽 면접관님 불쑥) 오비탈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 네! 오비탈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률로 정의한 것입니다. (불쑥 질문하셔서 당황했지만 확실하게 아는 내용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Q : 오비탈이 확률로 어떻게 정의되는 지 말씀해보세요.

A :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Q : 네, 그럼요.

A : (시간이 지체될수록 교수님들의 기대는 커지며 기다림 또한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면접관님이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셔서 답을 빨리 말해야겠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저는 앞서 질문을 받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입자에 높은 파장의 빛을 쏘았을 때 운동량이 정확히 측정되고 위치는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다. 낮은 파장을 쏘았을 때는 그 반대이다. 이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한다.' 그래서 오비탈을 확률로 설명해보라고 할 때, 오비탈은 전자의 위치, 운동 등의 상세한 경로를 알려주지 않고 궤도함수에 있는 전자의 운동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확률, 파동함수로 정의된다.

Q :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할 말 10초정도 말하세요.

A : 냅! 저는 양자역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슈뢰딩거 고양이로 저의 견해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입니다. 저는 이를 ~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운대에 입학하기 위해 ~~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무조건 합격해야한다는 심정으로 각오를 단단하게 잡아서 옆길로 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면접이기도 했지만 면접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없어 작년, 재작년 면접 후기들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었어요.
- ◆ 면접후기들을 보면서 대학교의 면접스타일을 먼저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이 학교에서 어떤 인재상으로 보여야 하는지 척도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원한 이 학과의 면접 특성은 서류기반으로 '전공적합성'과 관련된 질문들이 주를 이루어 전공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어요. 물론 작년 후기들을 무조건 맹신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참고자료로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 왼쪽 면접관 분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를 찔러서 계속 당황했지만 당당히 말하세요. 답변에 개념, 원리, 이론들과 같은 추가적인 답변을 집요하게 요구하셨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화학과	○		
전형명	학생부 종합 - 광운참빛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9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2:학생1		
유의사항	◆ 여러 과가 함께 대기실에 있다가 10분 단위로 과별 한 명씩 대기실 앞으로 이동함 ◆ 대기실에서는 자료 보는 것 가능, 복도에서 대기할 때는 볼 수 없음 ◆ 대기실에서도 화장실 이동을 스태프 동행 하에 단체로 이동하는 등 타 대학보다 엄격하다고 느껴져 더 긴장되는 느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먼저 긴장하지 말고 자기소개 해볼까요?

A : 안녕하십니까? 저는 탄소같은 화학도가 되고 싶은 가번호 29번입니다. 탄소는 원자와 전자가 3개로 탄소간의 결합이 다양하여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저는 이곳 광운대학교에서 다양한 지식을 저의 지식으로 결합시키고 사람들에게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신약 개발연구원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Q : 수상경력이 매우 많네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A :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교내 TED 활동입니다. 교내 TED는 각자 관심있는 과학 기술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ppt로 제작하여 많은 친구들, 선후배, 선생님 앞에서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Q : 금모래 만들기 실험을 했다고 했네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생기부-동아리)

A : 금모래 만들기 실험은 우선 아이오딘화칼륨 용액과 질산납 용액을 섞으면 아이오딘화납 양금이 생깁니다. 이를 가열하였다가 차가운 물에 냉각시키면 금모래 결정이 생성됩니다.

Q : 아이오딘 용액을 사용했다 했는데 이걸 액체가 아니지 않나요? I2는 고체인데? (생기부-동아리)

A : 저는 과학실에 있는 시약장에서 아이오딘 용액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사용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Q : 화학식은 안 적혀있었나요?

A : 네, 화학식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Q : 그러면 그 금모래라는게 뭔가요?

A : 아이오딘화납 양금을 가열하였다가 다시 냉각하면 재결정과정에 의해 금색의 불규칙한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금모래라고 하였습니다.

Q : 그래핀의 약물전달에 대해 알아보았다고 했는데 설명할 수 있나요?(자소서 1번)

A : 제가 접한 기사는 ‘그래핀이 약 배달합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우선 생체활성 약품을 그래핀에 흡착시킵니다. 약물을 품은 그래핀에 근적외선을 쬐어주면 광열 효과에 의해 약물을 다시 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래핀 약물전달체계는 기존의 다른 나노물질을 이용한 약물전달 시스템보다 많은 약물을 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국소부위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 광열효과가 뭔지 말해줄 수 있나요?

A :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기장을 가하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념 대충 알아보고 가서 틀린 듯)

Q : 자기장은 빛이 아니잖아요?

A : 이에 대해서는 광운대학교에 와서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ㅎㅎ

Q : 바이오의약품이 부작용이 적어서 관심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생기부)

A : 우선 바이오의약품은 생물체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나 호르몬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화학 합성 의약품보다는 생체에 더 적합하고 국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바이오의약품이 부작용이 더 적습니다.

Q : 바이오의약품에 관심이 있는데 화학이랑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A : 바이오의약품도 결국은 화학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화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암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 특히 연구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생기부, 자소서)

A : 우선 암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이나 기타 현재 의약품이 개발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Q : 화학과의 정상 과정 중에는 암이나 생물 등에 대해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도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알아볼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볼 건가요?

A : 광운대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도서를 찾아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동영상 찾아 볼 것입니다. 또한 화학 과에서 배운 전문 용어를 바탕으로 논문 등을 찾아 읽고 싶습니다.

Q :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광운대학교에 대해 더 알아보면 볼수록 저에게 적합한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실험 연계 수업이나 연구실 프로젝트 참여 기회는 저에게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내년에 광운대학교에서 두 분을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생기부, 자소서에 언급한 실험은 숙지하고 가기
- ◆ 자소서에 학과 관련 지식을 언급한 게 있다면 그 원인/원리/원리 설명 시 사용된 단어에 대해 정확히 말할 수 있게 준비하기
- ◆ ‘광운대학교’라고 언급하면 살짝 웃으심 ㅎㅎ
- ◆ 준비한 질문과 달라도 유사한 내용이면 천천히 잘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뷰티미용학과		23	
전형명	정원내전형 일반학생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수험생, 2:5		
유의사항	◆ 수험표, 신분증 챙기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A : 안녕하세요? 저는 K뷰티를 대표하는 미용인이 되고 싶은 ~~~입니다.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를 통해 간단한 미용시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활동이라 많이 서툴고 어려웠지만 저의 작은 노력으로 상대방이 바뀐 머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함께 미용사란 직업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진학하여 미용에 대해 더 공부하기 위해 학원을 다녀 다양한 미용 기술을 배우며 K뷰티를 대표하는 미용인 이라는 목표가 생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학 진학을 결정하고 대학을 알아보던 중 광주대학교만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많은 대학 중 광주대를 택한 이유?(대학어필)

A : 광주대학교 사이트에 교육과정을 보면 거의 실무중심으로 교육을 하는걸 보았습니다. 일반고를 나와 경험이 부족한 저는 실무실력을 높이고 싶었기에 광주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가?

A : 유튜버 기우쌤입니다, 이유는 다른 유튜버들이 헤어스타일링이나 미용에 대한 지식을 전하면 거의 비슷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기우쌤은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도 잘 따라할 수 있게 머리를 예쁘게 만지고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지 잘 가르쳐주며 이해도를 높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만큼 자기가 미용에 대해 지식을 쌓았다는 것이 느껴져 유튜버 기우쌤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많고 많은 대학 중에 광주대를 택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말을 안 떨고 천천히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자기소개를 할 때 무슨 과 지원자를 말하는 건 너무 식상하니까 차라리 무엇이 되고 싶은 누구입니다. 하는 것이 더 좋고 반응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았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주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92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이동→면접실 앞에서 영어질문 뽑기→면접		
유의사항	◆ 영어질문은 자신이 준비한 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 ◆ 질문의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하는 게 더 좋음. ◆ 면접 들어가기 전 뽑은 영어 질문은 교수님께서 펼치라고 하시기 전까지 펼치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영어질문) “If you are admitted to the nursing department, can you explain your study plan specifically” 키워드- nursing department, specifically

A : 3, 4학년 때보다 비교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1학년때는 전공 공부도 하며 학과 동아리인 세움에 들어가 교수님과 함께 응급 부수를 설치해 응급 처치도 해보고 BLS봉사를 하는 등 좋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2학년 때는 전문 분야의 지식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학년때보다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힘 쏟을 것이며 3학년과 4학년 때는 1,2학년 때 다져놓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하여 최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에 실습을 나가 이론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들과 의료 분위기 파악 등 많은 것을 얻어 간호사로서 한층 성장할 것입니다.

Q : 최근 의료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그 이유?

A : 간호 총괄기와 국립 암센터 파업에 대해 말씀 드리고 이유로는 총괄기→간호사의 입장으로 국립 암센터 파업→ 환자 가족인 입장과 의료인의 입장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서라고 대답함

Q : 마지막으로 할 말을 짧게 하라고 말씀하심

A : 어떤 지원자는 ‘간호’로 이행을 하고 저는 정말 간절하다고 말씀드렸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시간이 없으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고 순서대로 영어 질문을 펼쳐서 읽고 직역한 후 그에 맞는 자신의 생각을 구술함.
- ◆ 광주여대 간호학과는 7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을 하다보니 136명 정원인데 면접은 900명이 넘게 보므로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면접관은 여성분 2명이었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국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설시스템공학과			23	
전형명	학생부종합/국민프런티어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칼같이 자름(인성, 전공적합성, 도전정신)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자기소개 - 질문 - 마지막 할말			
유의사항	◆ 대기장소에 가면 가번호 주는데 뒷번호 걸리면 오래 기다림. ◆ 대기실에서 전혀 볼 수 없음. 분위기가 매우 삭막함. ◆ 자료를 전혀 보지 못하니 전날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30초 정도 자기소개 A : 준비해간 내용이 30초가 안 걸려서 준비했던 말 그냥 했음.</p> <p>Q : 학교생활 중에 3년간 실장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 A : 2학년 때 합창팝송대회를 준비하면서 준비시간이 3일밖에 없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연습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아서 그런 점이 힘들었는데 여러 번 학급 회의를 하고, 파트를 나눠서 소외되는 친구가 없도록 연습했더니 사이도 더 돈독해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p> <p>Q : 생기부에 꿈이 건축가라고 되어있는데 건설시스템에 지원한 이유는? A : 원래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을 때도 친환경 주택이나 친환경 자재 등 자연 친화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연을 연구, 탐구하는 일이 나랑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기반시설 설계에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포항 운하의 사례를 보면서 토목공학자로 확신을 가져서 지원하게 되었다.</p> <p>Q : 그러면 원래 건물설계랑 인프라 중에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었나? A : 인프라(뭐라고 대답을 길게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남. 이 대답 끝에 교수님께서 잘 이해했어요라고 대답해 주심.)</p> <p>Q : 자율동아리(mri-과학 발표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주로 했는지? A : 자신의 관심 분야와 진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부원들과 발표하고 나누는 동아리다. 나는 교량의 트러스 구조와 건물 해치 공법, 친환경 주택에 대해 발표했다.</p> <p>Q : 거기서 무슨 역할을 주로 했는지? A : 여기서 딱히 무슨 역할을 맡은 게 아니라서 당황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남.</p>					

Q : 수학 성적이 3학년 때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A : 1, 2학년 때 정확한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음. 목표가 없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잘 안되었고 좋은 성적을 위한 의무감으로 하는 공부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3학년 때 열심히 했지만 1, 2학년 때의 부족한 부분을 다 메꾸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하는 중이고 대학가서도 열심히 할 것이다.

Q : 학교생활 중에 갈등 관리한 경험,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A : 2학년 때 방학 자습으로 반 전체가 선생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일이랑 해결 방법을 얘기함. 중간에서 중재한 역할을 강조함.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A : 국민대학교에 오고 싶어서 학교 홈페이지를 정말 많이 들어갔었다. 그런데 건설 시스템공학과는 3학년 때부터 수자원, 지반, 환경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었다. 나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나는 운하를 보면서 꿈을 갖게 되어서 수자원 공학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다. 또 연구소가 2개나 있던데 이렇게 열정 있는 교수님들에게 배울 수 있다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기소개나 지원동기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듯.
- ◆ 작년 후기를 찾아보니 독서 관련 질문도 하고 전공 관련 질문도 많다해서 전공 관련해서 많이 준비해갔는데 인성이나 학교생활 질문이 많았다.
- ◆ 10분이 체감상 2분이었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국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교육학과		4	
전형명	학생부종합/국민프런티어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대기시간 동안 준비한 자료 볼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국민대학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 감사합니다.

Q : 자신의 장래희망과 교육학과에 지원한 동기

A : 제 장래희망은 교육정책 연구원입니다. 교육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늘 교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사회문화 시간에 교육 불평등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인지하고 교육에 있어 평등을 추가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핀란드의 평등 교육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을 비교 탐구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교육제도에 흥미를 가져 교육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잘 잊어버리는 것이 저의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점은 학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하여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플래너의 여백에 암기해야 할 사항들을 적어두어 틈틈이 보려고 노력하고 침대 옆이나 책상 앞에도 붙여두어 시간이 날 때마다 보았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극복하여 학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 봉사 시간이 많은데 바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했고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A :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봉사란 힐링의 시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상 속 저 자신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채찍질했지만 봉사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 자신이 희생되어 봉사하는 것이 힐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동센터부터 노인 요양병원까지 다양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동센터에서 봉사할 땐 아이들의 긍정적인 사고에 큰 힘이 되었고 노인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면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봉사란 힐링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지닌 사건과 ..?

A :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시간에서 수학자 푸앵카레에 대해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둠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역할을 분배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모듬원들이 원활하게 모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덕분에 반에서 1등 조를 하게 되었고 수학사를 활용한 세상보기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회에서도 모듬장으로서 모듬원들을 잘 이끌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 이상으로 리더의 역할과 그 자리에 맞는 활동을 수행했을 때 큰 뿌듯함과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 교육정책 연구원이 되기 위해 고등학교 시절 노력한 적 있나요?

A : 저는 교육정책 연구원이 지녀야 할 역량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듬 활동에서 모듬장의 역할과 동아리에서 동아리 부장 역할을 맡으면서 의사소통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기르고자 관련 탐구 활동, 책등을 읽도록 노력했습니다.

Q : 도식화 방법을 국어 과목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A :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휴대폰 위치 측정이라는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지문이라 다소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도식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휴대폰 위치 측정은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져 있었고 실외에서 다시 2가지 실내에서 3가지로 또 구분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시각화했고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Q : 학습몰입과 학습자 변인과의 관계연구에서 학습자 변인의 예시가 뭐가 있죠?

A : 학습자 동기가 가장 큰 예시입니다.

Q : 그럼 학습자 동기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에는 뭐가 있죠?

A : 동기가 낮은 학생들을 담당 교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으면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교육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A :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와 같이 역대 정부들을 위주로 조사했습니다, 그 중 전두환 정부는 군사정부로 강압적인 통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강온전략을 펼쳤는데 그 중에 교육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시로 사교육 완화나 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사교육이 완화되었고 대학의 입학정원의 확대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학생 수가 증가해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단점 또한 있었습니다.

Q : 모든 교육정책을 다 조사하였나요?

A : 아니요, 역대 정부들 위주로만 조사했습니다.

Q : 분리수거가 학생의 역할이었나요?

A : 네,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해주세요.

A : 제가 국민대학교에 입학한다면 저의 무궁한 진로 목표에 도전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국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회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국민프런티어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입구에서 신분증이랑 수험표 확인하고 입장. 대기실 입장 후 10분 대기 휴대폰 등 전자기기 제출 후 유의사항 듣고 면접 시작. ◆ 한 사람당 10분씩 면접. 앞 사람 면접 시작 5분 후 소지품 다 들고 복도에 나가서 대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절대 금지. 면접관 3명. 생각보다 면접관이랑 자리가 가까움. ◆ 대기 중 준비한 자료는 못 보고 다른 수험생들이랑 대화 금지. ◆ 신분증 제발 무조건 꼭 챙겨가세요. 학생증 말고 신분증!!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해보세요.

A : 안녕하세요. 미래의 국민대학교 새대기가 되고 싶은 지원번호 000번입니다. “임사이구 호모이성”. 세종실록에 등장하는 구절이자 저의 좌우명입니다. 일을 하기 전 자만하지 않고 실수 없이 잘 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의 말처럼 모든 일에 신중하고 두려움을 갖지만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일을 해결하기 위한 대비책을 세우는 꼼꼼한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 신나서 마지막 한 문장 까먹고 말 못함)

Q : 사회학 연구원이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

Q : 고교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A : (잘 기억 안 남. 학생회 얘기했던 것 같음.)

Q : 향토 조사반이라는 동아리를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A :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뒤에 뭐라 했는지 잘 기억 안 남.)

Q : 봉사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 활동은?

A : 저는 3년 동안 꾸준히 특수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다양한 장애인들을 봉사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은 아이는 자폐증을 가진 12살 남자아이였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에 대해 폭력성을 갖고 있어 책을 함께 읽거나 놀이를 함께 하거나 밥을 먹을 때 저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했지만 제가 매일 찾아가 더욱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몇 달 후에는 그 아이가 저에게 먼저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등의 발전을 보였습니다.

Q : 봉사 활동 시간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 학교에서 걸어서 오분 거리에 제가 봉사하는 특수학교가 있어서 평일에도 매일매일 봉사를 하러 갈 수 있었습니다.

Q : 독서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A :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 형식으로 풀어내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감이 없었던 저에게 자존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책입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말함. 책 내용도 더 자세히 언급하고 인상 깊었던 구절도 언급하면서 나한테 의미 있는 이유를 설명했었는데 뭐라 답변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남.)

Q : 독서 활동에 ‘사회 심리학’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A : 도시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입니다. 예를 들면 혼밥, 혼영 등 혼자 하는 문화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늘고 연대감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세히 안 읽었던 책이라 당황해서 책에 없는 내용 창작해서 얘기함.)

Q : 그 책에서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없나요?

A : 네.. 긴장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Q : 자기소개할 때 도전하기 전 두려움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A : 세종대왕은 도전 자체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이 그릇됨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더욱 신중히 하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Q : 문학기행 기획안 작성 대회는 어떤 대회였는지?

A : 학생들이 직접 문학기행 기획안을 작성하고 그 기획안으로 직접 기행을 떠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공주와 옥천을 문학기행의 목적지로 설정했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옥천은 시인의 고향을 느껴보며 정지용의 시 ‘향수’를 몸소 느껴보는 체험을 계획했고 공주에서는 나태주 시인의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또 점심식사는 나태주 시인의 삶의 애달픔을 국밥으로 달랜다는 시인 ‘순대국밥 집’의 감성을 느껴보고자 순대국밥으로 선택했습니다. (순대국밥 얘기할 때 면접관님들 웃음)

Q : 사회학 연구원이 전문직이라 진로를 위한 로드맵 같은게 필요한데 본인은 생각해놓은 것이 있는지?

A : 사회학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석박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국민대학교에서 사회학에 대한 기초와 기본을 튼튼히 쌓고 대학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을 졸업 후에는 싱크탱크나 사회과학연구소에 취직 후 정부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내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A : (내 장점 살려서 별명 만들고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 국민대에서도 잘 생활할 것이며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듯)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관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오느냐에 따라 달린 듯. 면접 중 긴장을 크게 하지 않아 즐겁게 면접을 보고 옴.
- ◆ 중간중간 면접관들이 내 답변에 웃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는 표정을 지어서 더 자신있게 면접 보고 옴.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드는게 좋은 듯. (나는 봉사활동과 학교에서 토의 한 거 활동해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이미지를 계속 부각하기 위해 노력함.) 이렇게 면접관들 인상에 얼마나 남느냐가 가장 중요한 듯.
- ◆ 무엇보다 자신감! 나는 이 학교 무조건 붙을꺼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들어간다면 긴장은 덜 될 것. 본인의 장점, 그리고 그 학교만의 특징을 잘 정리해서 간다면 어떤 답변에서도 잘 활용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니 면접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본인의 장점과 특기를 정리하는 것이라 생각함.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감사인사 잊지 않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국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스포츠산업레저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국민프런티어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1:3 면접		
유의사항	◆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 부정행위로 간주 ◆ 8시 40분 이후 생기부와 자소서 일체 보지 못함. ◆ 화장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해주세요

A : 안녕하세요? 스포츠를 통해 사회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은 000입니다. 저는 저의 장점인 부드러운 리더십과 기획능력을 바탕으로 교내스포츠 리그와 교내 체육대회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해보며 스포츠 이벤트 주관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가 학생들의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보며 스포츠의 영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스포츠를 통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스포츠 마케터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Q : 수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스포츠 관련 수상은 보이지 않네요?

A : 우리 학교는 시골에 위치해 있으며 학생 수도 적어 다양한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저는 스포츠마케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 '기획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 UCC 대회'와 '우수동아리발표대회' 등 이를 필요로 하는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 2학년 때는 한의사. 3학년 때는 스포츠마케터.. 꿈이 바뀌었네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 1학년 겨울방학 때 목욕탕에서 한 분의 소중한 목숨을 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미래에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여 한의사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던 중 3학년 때 진행한 '교내스포츠 리그를 통한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생활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스포츠가 학생들에게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미래에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더욱 폭넓게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여 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Q : 만약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있나요?

A : 저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인기 종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비인기 종목도 인기 종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가 중요시되면서 평생 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Q :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방안이 있나요?

A : 저는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공교육을 통한 비인기 종목 전파’입니다. 공교육에서는 체육 시간과 교내 스포츠 리그 등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종목을 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비인기 종목을 전파한다면 학생들은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고 미래에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체육에서 공교육에서 배운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체육회를 통한 비인기 종목 전파’입니다. 최근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더욱 커졌고 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종목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적극적인 비인기 종목 홍보와 대회 유치를 한다면 비인기 종목과 인기 종목 간의 양극화 현상을 조금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학교에 다니면서 실기를 연습하거나 직접 해본 적이 있나요? (가장 열심히 한 종목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A : 저는 학교 대표로 경상북도 농구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농구를 가르쳐주시는 코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팀원들은 진술훈련을 농구 교재와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였고 체력 훈련은 선생님께서 부탁드려 기초체력을 길렀습니다.

Q : 가장 생각나는 전술은?

A : 저는 ‘스크린플레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팀의 키플레이어가 보다 편하게 슛을 던질 수 있게 하기 위해 4명의 선수가 상대방의 길목을 막아주는 모습이 정말 팀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였고 골을 넣었을 때 함께 만들어 낸 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상 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자신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저는 카리스마가 없어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당황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부드러운 리더십만 강조하는 저에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팀원과의 의견 마찰이 생겼을 때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못하여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의 의견을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최대한 다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국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동차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국민프론티어)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대1면접, 지정시간까지 입실 후 10분 대기 ◆ 면접 가번호 배부(랜덤)후 순번대기		
유의사항	◆ 대기실에서 대화나 소란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기다리는데 지겨우시진 않았나요?

A : 꼭 오고 싶은 대학교라 지겨움보단 설렘이 컸습니다.

Q : 그럼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A :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한 동심이 관련 활동으로 이어졌고, 자율동아리 인텍의 서울모터쇼 관람 활동을 하면서 본 KORA의 자작 자동차는 제가 국민대학교 자동차 공학과에 희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 혹시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 같은 게 있나요?

A : 저는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한 요양원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봉사 활동이란 귀찮은 것이라고 느꼈었지만, 저와 말벗 활동을 해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분들께서 저를 친손주처럼 생각해주시던 느낌이 저 자신으로부터 뿌듯함을 찾아 나가게 해주었습니다.

Q : 교내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나요?

A : 먼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소심함을 극복해보자 1학년 때 학급 반장을 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2학기 때 성적에 관심을 쏟는 동안 반 친구들 사이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두 친구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큰 불씨로 이어질 거 같았고, 한 명씩 개인의 의견을 들어보며 사건의 화근을 찾아 보고자 하였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졌고, 저는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학급 반 카톡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매일 이야기거리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Q : 수학 성적이 오르락내리락한 데 이유라도 있나요?

A : 중학교 때부터 수학은 저의 약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였지만, 마음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성적은 상승하였으나 겨울 방학 때 학원에 의존하고 있던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저 스스로 이를 극복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수학은 어려웠었지만,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스스로 성적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수학 성적 42432)

Q : 융합과학 경진대회에서 라멘교 형식을 사용하였는데 라멘교가 어떤 형식인가요?

A : 라멘교는 보통 T자의 구조물을 계속 이은 형태의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차로나 철도가 지나가는 다리의 형식으로 많이 쓰이는데 현수교나 다른 다리의 구조보다 바닥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많아서 다른 형식보다 무게 분산에 더 적극적인 구조입니다.

Q : 내부순환도로의 그 다리랑 구조가 비슷한가요?

A : 아...저 내부순환도로가 어디인지 몰라서....

Q : 아 내부순환도로를 모르는구나.. 물리 2과목을 수강했다고 나와 있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보았던 부분은 어디 인가요?

A : 저는 먼저 스텔링 기관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스텔링기관은 이론적으로 2도의 온도 차만 있어도 발전 가능한 기관인데 저는 이를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활용하여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으로 적용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기관에 문의해본 결과 스텔링엔진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자재물로 인해 늘어나는 무게 때문에 얻는 점보다 잃는 점이 많아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체역학 수업을 통해 이를 꼭 자동차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에서 모터쇼 관람 활동을 꾸준히 한 이유나 얻은 점이 있나요?

A : 저는 어렸을 때 부터 모터쇼를 관람하면서 특히 기술적인 발달에 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반떼 차량에 들어가는 감마엔진의 GDI 기술이 2018년에는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파워트레인으로 바뀌면서 옛 킨슨 사이클을 활용한 MPI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터쇼는 세계 내연기관의 발전을 보여 주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에서 1/10 스케일 RC카를 만들었죠? 거기서 본인이 맡으신 역할이 있나요? (생기부에 조립 활동이랑 RC카 무게중심 실험이 있었음)

A : RC카 제작 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련 실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Q : 제작 활동이요.

A : 먼저 저는 인택의 부장을 맡으면서 올해의 동아리 활동을 선정함에 있어서 자동차가 가장 과학적으로 융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RC카 제작 활동을 건의했고 부품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품 때문에 친구들의 협력을 이끌어 나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각각 친구들의 관심분야와 관련된 파트를 분담해줌으로써 협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력 덕에 예정 기간보다 더 빨리 RC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Q : 직렬 병렬과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A : 먼저 하이브리드 시스템엔 직렬방식과 직병렬방식이 있습니다. 직렬방식은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도중 발전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병렬방식은 병렬방식을 통해 발전과 동력원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효율이 높습니다. 특히 토요타에서 이 방식을 활용하는데 열효율이 좋지만 저속구간에선 저출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옛킨슨 사이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조화로 높은 효율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자신을 강조하고 싶다면?(이때 종료를 위한 푹푹소리 들림)

A : 앞선 활동들처럼 저는 사소한 것이라도 자동차와 연관지어 사고하였고 이는 관련 실험들을 하며 도전정신을 키워나갔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도전하는 TEAM플레이어로써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기술적인 지문을 물으셨을 때 말을 조금 장황하게 한듯하다. 말은 안 떨어졌는데 몸이 좀 떨렸다.
- ◆ 대부분 자소서 생기부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은 거 같다.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 ◆ 10분을 알려주는 똑똑 소리에 적응이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어필하는 지문이 주어졌는데 중간에 똑똑 소리에 살짝 당황해서 마무리가 살짝 아쉽다.
- ◆ 갑작스런 상황에도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한다.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질문을 못 들었는데 이때 살짝 당황했었다.
- ◆ 전공 관련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물어봐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수박 겉핥기 같은 느낌이었을까?
- ◆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한만큼 대부분 예상 질문에서 나왔다. 예상 질문만 50개 이상 만든 듯하다.
- ◆ 꾸준한 모의면접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 ◆ 하이브리드 시스템, 스텔링 엔진에 대해 말할 때 교수님들께서 끄덕끄덕해주셨다.
- ◆ 성적이 들쭉날쭉 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 수학성적(42432) 왜 이러냐 물어봤을 때 대처를 잘 한거 같다.
- ◆ 마인드컨트롤을 잘했다. 대기실에서 모두 긴장한 표정인거 같았는데 좋아하는 노래 생각하면서 긴장감을 해소시켰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국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정보보안암호수학과			
전형명	국민프런티어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대기-면접실-면접-퇴실 ◆ 면접관 3명 지원자 1명, 3:1면접		
유의사항	◆ 교복을 입고 갔을 경우를 대비해 여벌의 옷이 준비돼 있으니 복장은 상관x (가번호 부여) ◆ 신분증 및 수험표 반드시 지참 ◆ 대기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 봄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하게 지원동기?

A : 정보보안전문가를 꿈꾸며 관련 학과를 찾아보다가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를 발견. 국민대학교의 교육 과정, 교수님들에 대해 찾아보다가 보안분야중에서도 암호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로 목표도 포스트퀀텀시대에 대비해 암호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싶어서 저는 다른 학교보다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가 저의 진로에 가장 도움이되고 미래에 있어 함께 가고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고등학교 생활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활동이름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나?

A: 저는 2학년때 정보보호 영재교육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에서는 정보보안 전문가를 꿈꾸는 친구들이 보안관련 다양한 지식을 배우고 토론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 저는 보안전문가들이 가져야할 윤리공부, 보안전문가들이 직접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할때 사용하는 wireshark를 사용하면서 패킷을 붙잡는 활동을 하였고 제가 미래에 공부하고 싶은 분야인 암호분야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rsa 암호에 대해서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기도 하였고 SQL INJECTION이라는 해킹기법을 공부하여 실제 해킹대회에서 이것을 이용해 관리자 권한을 얻어보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실제 보안 전문가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 알게되었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면서 미래의 제가 할 것을 체험 하는 기회가 되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영재교육원을 얼마나 활동을 하였나요?

A: 2학년 때 2주에 1번 1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였습니다.

Q : SQL INJECTION이 무엇인가?

A: SQL INJECTION공격은 클라이언트의 입력값을 조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는 공격 기법으로 id에 admin이라는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 후 pw에 항상 참이되는 문구를 입력하는 공격방법입니다.

Q : 코딩을 실제로 한 경험이 있습니까?

A : 저는 2학년 때 스크래치를 사용해 지진감지센서, 미로찾기나침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후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어 3학년 때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python언어를 배운 후 햄스터로봇이라는 하드웨어를 이용해 미로찾기 로봇 코드를 짜서 코딩을 해보고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Q : 코드가 몇 줄 정도 되었습니까?, 코드를 직접 만들었습니까?

A : 30~40줄 정도였습니다. 네, 제가 전부 직접 만들었습니다.

Q : 수상내역을 보면 공동수상이 많은데 자신이 공동수상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같은 것이 있나요?

A : 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같이 노력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수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흥미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선생님들도 학생 같이 조금 투박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나 노력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시면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 RSA암호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해보세요

A : RSA암호의 원리는 소인수분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에 요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암호체계로 과정은 개인키와 공개키 2가지 키를 가지고 어떠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해주려고하면 B의 공개키를 이용해 A가 전달할 정보를 암호화한 후 B는 그 암호화된 정보를 가지고 개인키를 이용해 복호화하는 과정으로 만약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탈취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개인키를 가지고만 복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 RSA암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암호화하고 컴퓨터상에서 정보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A :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거 말하려면.. 페르마의 정리나 오일러의 정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이때까지 국민대학교 정보보안암호수학과에 오기위해서 여러 가지 한 활동과 노력을 언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대학교에서 제 능력을 발휘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국민대학교 면접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느 정도 되면 계속 말을 끊는데 당황하지 않고 계속 침착하게 하면 좋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극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운항서비스학과			○
전형명	일반전형 I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2(면접관): 7(학생)		
유의사항	◆ 복장: 흰색 티셔츠 극동대에서 제공, 자유 스커트-교복 or 면접복 치마 / 슬리퍼 학교에서 제공 ◆ 수험표와 신분증 필수 & 신분증 확인 후 얼굴 사진 촬영 ◆ 대기시간 동안 극동대 설문조사(면접과 관계 X)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름과 학교 언급X)

A : 제 좌우명은 '고민보다 고'입니다. 저는 고민하기보다 먼저 부딪혀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스피치 활동을 할 때, 너무 긴장한 탓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3학년 때에는 더욱 많은 발표활동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발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곳 극동대학교에 입학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발전시켜나가는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Q : 요즘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는데, 자신이 사이트 데이터 분석가라면 어떤 것을 분석하고 싶은가요. (교양 질문은 화면에 띄워주심-랜덤)

A : 제가 사이트 데이터 분석가라면 Youtube 사이트를 분석하고 싶습니다. 요즘 개인 크리에이터가 많아지면서 Youtube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Youtube 사이트를 분석하여 많이 시청하는 연령대, Youtube가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교양&시사 질문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사와 그 당시에 일어난 큰 사건들(ex.일본 불매운동 등..)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것이 좋았음. 1번부터 질문에 답변을 하기 때문에 뒷 번호는 생각할 시간이 있음. 정말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입학할 때는 꼭 알아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지원자도 있었음.
- ◆ 워킹 : ㄷ자 모양 워킹(처음에 ㄷ자 모양워킹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들어가면 바닥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됨.) 또한 들어가기 전에 옆에 계신 선배님들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도 좋으며 인사법 간단하게 배우고 연습해보고 면접장에 들어감.
- ◆ 전년도에 나왔던 시사&교양문제도 참고하고,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무조건 준비하기
- ◆ [항가모] 인항공전항공운항과, 항공과 가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이라는 카페가 되게 많은 도움을 주었음. 면접후기와 합격후기가 있고 대학 관련 많은 자료와 예비승무원 대회 안내도 있으니 카페 이용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축학과			7	
전형명	학생부 종합 - 지역 인재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2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함. ◆ 입실시간 확인. 신분증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 Q : 대학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주세요.
- Q : 지금까지 가장 보람되었던 일, 가장 후회했던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 Q : 우리 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 Q : 왜 자하하디드를 톨 모델로 생각했나요?
- Q : 건축학과에 지원 이유(동기)는 무엇인가요?
- Q : 어떤 건축가가 되고 싶나요?
- Q : 왜 건축을 할 때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Q : 가장 인상 깊었던 책과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 Q : 파빌리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Q : 왜 파빌리온을 만들어보고 싶습니까?
- Q :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 Q : 건축학과에 지원하게기 위해 노력한 활동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생생활기록부 기반으로 질문하고 봉사에 대해 많이 질문함. 꼬리질문 없음.
- ◆ 자신이 좋아하는 건축가나 건축물을 꼭 조사해서 임할 것.
- ◆ 면접관은 2개 팀으로 나누어 면접을 봄(예 수험생 24명일 경우, 면접관1 12명, 면접관2 12명.)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축학부	○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9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말해보자.

A : 이 학교에 입학하여 뛰어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환경 건축가의 꿈을 이루고자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영어 포스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영어 잘합니까?

A : 그다지 잘하지 않습니다.

Q : UCC가 무엇입니까?(늘으신 교수님의 질문)

A : 사용자가 직접 만든 제작물입니다. 보통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Q : 과학 UCC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무엇을 주제로 했습니까?

A : 노이즈 캔슬링을 주제로 제작하였습니다.

Q : 노이즈 캔슬링이 무엇입니까?

A : 소음과 같은 파장을 쏘아 상쇄시키는 기술입니다, 상쇄간섭을 이용합니다.

Q : 자신이 건축학과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A : 네,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그리고 좋아하고 공예 등 설계도를 그리는 일을 하면서 주변에서 칭찬도 받았고 재미를 느꼈기에 잘맞는다고 생각합니다.

Q : 존경하는 건축가가 있나요?

A : 네, 가우디를 제일 존경합니다.

Q : 환경 지킴이 활동에 대해(혼자?, 어떤 일을 했는지, 힘들었던 점)

A : 아니요, 3명에서 활동했습니다. 팀장을 맡았습니다. 반을 포함해서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 3명으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었습니다.

Q : 관심있게 읽었던 책?

A :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100'을 가장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Q : 건축물을 그리는 것이 취미라고 적혀 있는데 처음부터 잘 그려졌는지?

A : 처음에는 잘 그려지지 않아 두세 번 그렸습니다.

Q : 열심히 한 과목

A : 물리 2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Q : 물리2 부분에서 어떤 부분

A : 광전 효과를 가장 열심히 보았습니다.

Q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제작했다는데 어려웠던 점

A : 모형을 제작할 때 실험값이 계속 달라져서 이를 고치기가 어려웠습니다.

Q : 토목과 수학을 연계하여 탐구했다는데 건축과 수학에 관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A : 미적분이 정말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A : 면접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저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했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기 때문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 후배에게 당부할 점

1. 생기부 및 자소서에서 희망하는 과와 관련된 내용은 적은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신의 의견을 구구절절 말하면 면접관님들이 지루해하거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두괄식으로 나의 생각을 먼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영학과		4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Q : 지원동기
- Q : 금오공과대학교의 장점
- Q : 다문화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1 : 다문화가정과 대화 예시를 들어라. (상황극 설정)
- Q : 경영학과에 가고 싶은 이유
- Q :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 3가지
- Q : 가장 자신 있는 과목과 노력한 과목
- Q : 자신의 장·단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시간이 비교적 길었고 심층 질문이 많음.
- ◆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을 철저히 준비해야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3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준비한 자료 볼 수 있었음. ◆ 학교 및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옷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1학년 때 '경찰관'에서 2학년 때 '기계공학자' 3학년 때는 더 세부적인 '무인자동차 엔지니어'로 바뀌었는데 계기가 있었나요?

A : 고등학교를 입학한 후 저의 진로가 1학년 때는 단순히 경찰관분들이 하시는 일이 존경스럽고 멋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모형자동차와 3D프린터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활동하는 동아리에 들어 기계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었으며, 모형태양광자동차를 만들면서 느꼈던 감정이 흥미롭고 재미있으며 이 활동을 했을 때 제가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기계 및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동차 사고 중 음주, 졸음 사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무인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안전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진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Q : 자소서 2번을 보니까 물리실험을 했다고 나와있네요. 어떤 실험을 했는지 과정을 말해보세요.

A : 저는 방학기간 때 저희 지역 3개의 학교가 함께 주관하는 공동교육에서 기계공학과 관련이 깊은 물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물리 실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유실험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2학년 때 모형태양광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태양광 패널의 발전량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은 빛에 오랜 시간 충전을 하면 발전량이 더 클 것이다'란 가설을 세워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끊음)

Q-1 : 왜 가설을 그렇게 세웠나요?

A : 태양광 패널이 받을 수 있는 빛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많은 빛을 받아 짧은 시간 하는 것보다 빛은 약하지만 오랜 시간 발전하는게 더 클 것이라 생각하여 이러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백열구를 활용하여 2개를 비췄을 때 15분 동안 충전을 하여 발전을 하였고, 1개를 비췄을 때 30분동안 발전량을 확인했습니다. 태양빛이 아니라 백열구를 활용하여 오차가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1개를 가지고 30분동안 발전량을 측정했을 때 좀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Q : 기숙사 장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어떻게 중재했나요?

A : 중재를 하기 위해 일단 두 친구를 격리시켜놓고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싸움의 원인과 타협점을 찾아 두 친구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Q-1 : 친구가 화가 많이 나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A : 일단 친구의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친구가 대화를 할 정도가 되면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도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Q : 교내 활동 중 창의력을 보인 활동이 있었나요?

A : 창의성을 보인 활동이 여럿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저는 모형자동차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큰 창의성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모형자동차를 만들 때 저는 충격완화장치의 필요한 스프링을 기존의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다 쓴 학용품 속에 들어있는 스프링을 활용하여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모형태양광자동차는 저절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체가 일반모형자동차보다 가벼워야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기엔 무거운 부품들이 많아 저는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조향장치 같은 작은 부품 등을 뽑아서 사용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Q : 입학하게 된다면 학업계획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제가 금오공과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무인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기계공학 수업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컴퓨터,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Auto-Mania란 동아리에 들어 선배님들의 수상한 실적에 뒤처지지 않도록 저도 다양한 자작자동차를 제작하여 많은 수상실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Q : 그렇게 된다면 졸업할 때쯤이면 Auto-Mania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 수 있겠나? 하하하

A :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하하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A : 저는 저를 '탄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탄소동소체는 원자의 배열의 따라 다이아몬드, 흑연, 플러렌, 탄소나노튜브로 나뉩니다. 이들의 구성원자는 모두 탄소로 동일하지만 어떻게 가공하고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미래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가진 탄소이지만 금오공과대학교의 커리큘럼을 통해 열정에 지식과 전문성을 더한 탄소동소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금오공과대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저의 생각을 충분히 잘 전달했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자소서에서 적은 실험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학생부와 자소서는 정확하게 숙지하고 특히 자소서 내용에 대해서 자기만의 의견을 정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와 학생부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시스템공학과		17	
전형명	학생부종합 - 지역인재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3-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준비 - 면접 - 퇴실		
유의사항	◆ 면접관 3 : 면접자 1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금오공과대학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물리과목을 배웠는데, 어떤 흐름으로 배웠나요?

A : 우선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 계산해보는 것과, 운동 에너지 등을 이용한 역학, 그리고 열역학 등의 순서로 배웠습니다.

Q : 네, 그럼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A : 우선 $F=ma$ 라는 공식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공식으로, 모든 물리 과정의 근간이 됨을 배웠습니다.

Q : 혹시 유체역학 배웠죠? 유체역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A : 음.. 유체가 흘러 들어가는 입구의 면적이 작을 때 속도는 커지는 반면, 입구의 면적이 크면 속도는 줄어듭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는 같습니다. (벤츄리관 설명하려고 했다가 대답 이상하게 함.)

Q : 그럼, 수학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미분, 적분 배웠죠? 그거에 대해 설명 해봐요. 너무 어려우면 뭐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A : 네,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속도 개념으로, 속력·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분을 하면 가속도에서 속력·속도 개념으로, 속력·속도를 적분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 로그함수 배웠죠? 로그의 밑이 10일 때, 지수가 1000이면 그 값은 얼마가 되나요?

A : 그 답은 3입니다.

Q : 혹시 학교 활동 중에서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면 알려주세요.

A :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학년 때 앱 개발 대회에 참여한 적 있습니다. RFID 기술을 이용하여 교실에 칩을 붙인 책 등이 센서를 거치면 그 책의 위치가 교실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앱을 컴퓨터로 개발해보며 친구들과 코딩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Q : 당시 코딩을 실제로 해보았나요?

A : 실제 해보진 않았지만, 코딩의 알고리즘을 친구들과 토론하며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Q : 봉사활동을 보니 헌혈을 약 5번 참여했네요? 이에 대해 알려줄 수 있나요?

A : 우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헌혈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5번 참여하였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기증에 의존하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부터 모르는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어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Q :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지원한 동기, 혹은 기계공학에 적합한 본인의 장점 등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A : 저는 어릴 적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할 때 자동차 혹은 기계 장치가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대비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기계공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근간이 되는 기계를 배우고 연구하고 싶어 기계시스템 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동아리를 보니 1,2학년 때는 화학탐구CC, 3학년 때는 MPE 등 화학활동을 많이 했네요? 자동차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A : 자동차라는 것이 물리와 관련이 깊지만, 화학, 넓게는 생명 등 단순히 하나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MPE 동아리에서 이차전지와 관련해 논문도 읽고 활동 많이 했네요. 이차전지가 뭐예요?

A : (당황하며) 이차전지는 리튬과 양극소재, 음극소재, 그리고 전자가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방출하고.. 전자기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답변 제대로 못함.)

Q : 허허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더 많은 공학도를 필요로 했고, 금오공과대학교는 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ogether, Tomorrow'라는 금오공과대학교의 슬로건처럼, 저 또한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진학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고 싶고, 금오공과대학교를 빛내고 싶습니다. 금오공과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우선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만든 면접질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생활기록부 관련 질문을 물을 줄 알았는데, 아예 생뚱맞은걸 물어서 당황하게 만들(심지어 정의도 틀림). 기본 질문(동기·자기소개·장단점·인상 깊은 동아리·대회·교내활동·독서·하고 싶은 말) 준비하고, 생활기록부·자기소개서 5번 정독 후, 수학·물리 정의를 알 수 있는 책을 읽어보길 적극 권장함. 합불 결과 상관없이 면접 끝나고 준비하는데 도와주신 담임 선생님과 교과과목 선생님께 꼭 감사인사 드릴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메디컬IT융합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3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 - 면접실			
유의사항	◆ 복도 대기에서는 종이 못 봄 ◆ 교수님들이 잘 웃어주시니 자신만만하게!, 칭찬도 엄청 많이 해주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어디에서 오셨나요? (지역)					
Q : 자기소개에 첫 구절이 인상 깊네요. 혹시 수학 성적 비결이 있으신가요?					
Q : 자기소개서에 적은 실험이 잘못되었지 않나요? 설명해주세요.					
Q : 최근 논란이 많은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전자담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 : 프로그래밍 동아리에 관심이 가는데 설명해주세요.					
Q : HSEO 과학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실험은?					
Q : 이 실험들로 이 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자질은?					
Q : 이 학과에서 가장 필요한 자질,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Q : 졸업 후 계획					
Q : 의료기기 제작? 관리? 자세히 하고 싶은 것					
Q : 가장 인상 깊은 책					
Q : 자기소개서 상이 2개인데 글쓰기 실력 대단한 것 같은데, 이제 자신을 마음대로 표현해보세요.					
Q : 연탄 봉사 2번 왜 굳이 힘든 봉사를 선택하였는지?					
Q : 대학교 와서도 굳이 힘든 봉사를 할 것 인가? (농담)					
Q : 김병만 책을 읽고 느낀 점?					
Q : 꿈을 여전히 지속했는데 왜 굳이 생명 분야인지?					
Q : 미적분 1,2 성적이 (4등급)인데 왜 못 나왔는지?					
Q :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왔는지?					
Q : 대학교 와서는 잘할 수 있는지					
Q : 마지막 말 짧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이 학과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 흔하지 않아서 전공에 대해서는 많이 묻지 않음.					
◆ 자신의 생기부, 자소서만 열심히 준비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산업공학부			
전형명	학생부종합 kit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2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 생기부를 꼼꼼하게 물어보신다. ◆ 수험번호 순서로 면접을 보지만, 앞 번호와 뒷 번호 면접관이 따로 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A : 내 진로를 위한 노력과 포부를 말함

Q : 2학년 때 유독 결석이 많은데, 그 이유는?

Q : 진로와 학과와의 연관성

A : 산업공학부에 대한 설명과 지원 동기를 언급함

Q : 3학년 때 진로를 산업공학으로 결정한 계기가 무엇인가?

Q : 학급 회계를 맡으며 배웠던 점은?

A :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 배웠다고 말함
(하지만 전공과 관련지어 말했다면 더 좋았을 듯)

Q : 프로그래밍 활동을 많이 했는데, 파이썬 컴파일러는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Q : 독서 활동이 많은데,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점을 말해보세요.

A : 책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함
(하지만 2년 전에 읽었던 것이니 기억나지 않을 수 있다고 격려해주시심)

Q : 그렇다면 다른 책인 ~~~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매우 꼼꼼히 살펴보고 가야함
- ◆ 답변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자신 있게 답변할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응용수학과		2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 후 면접 (면접관 3명)		
유의사항	◆ 교복착용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저희 응용수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A : 빅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2가지라고 하면 하나는 수학적사고력 두번째는 프로그래밍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두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곳이 응용수학과 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응용수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중 빅데이터 전문가가 특별히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과목은 ?

A : 통계/프로그래밍 를 더 잘해야겠지만 다른 과목들도 두루 열심히 해서 수학적사고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1 : 그래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과목이 있다면?

A : 통계학/프로그래밍 입니다.

Q : 자소서 1번 항목에서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에 (웃으시며) 상상도 못했던 수학들이 있다고 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요?

A : 매미의 탄생일자 (서로소) 관련 대답

Q : 자소서 1번에 언급된 도형의 무게중심이 물체의 내부에 있나, 외부에 있나?

A : 내부 / 입체도형을 입체 좌표 평면에 대입을 하여 좌표화시켜보면 도형의 내부에 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Q : 다른 수학관련 동아리 같은 활동은 한 적 있나?

A : 방과후 프로그램 중 '수학심화반' 프로그램을 1학년부터 쭉 참가했다.

Q : 동아리 '시나브로' 활동을 하면서 배운점이 있다면?

A : 아이들은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 싫어하는 사람 에 대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 아이들이 아닌 친구들 어른들이 모두 좋아해주셨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었다.

Q : 자소서에 '내적의 최댓값'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지?

A : 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을 치뤄야 하는 입장이라 임시수학을 주로 다룬다. 수능수학에서 내적관련 식을 주고 그 식의 최대/최소를 구하여야 하는데 그걸 쉽게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Q-1 : 내적이 뭐가?

A : 내적의 의미가 저도 궁금해서 선생님께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었다. 수학에서 내적이 크게 갖는 의미는 없는 거 같아서 조사를 안 해봤다.

Q : 평균변화율과 순간변화율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A : 평균변화율은 ~~~ 평균변화율은 ~~~

Q : 미분이 일찍 나오나 적분이 일찍 나오나?

A : 저는 미분을 일찍 배웠습니다.

Q-1 : 아, 교과서 상 말고 수학사에서 말이야.

A : 미분?적분? (헛갈려 하며) 적분?

Q-2 : 원래 적분이 먼저 나왔다 ~~~ (수학사 얘기를 하시며) 이려다가 미분적분학 이라고 해서 합쳐진 거지.

A : 아하, 감사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 네, 저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내신성적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교과 활동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Q-1 : (말을 끊으시며) 잠깐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A : 네

Q-2 : 무슨 프로그래밍을 하셨어요?

A : 저는 파이썬이랑 C언어 했습니다.

Q-3 : 그걸로 무엇을 했죠?

A : 깊이 있는 작업보다 3x3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Q-4 : 예, 말 계속 하시죠.

A : 네,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했고 다른 현실에 적용된 수학을 많이 알아서 타 지원자들에 비해 좀 더 배운 이론을 잘 적용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Q : 네 안녕히 가십시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해가야 한다고 봄
- ◆ 지역인재전형이다 보니 kit 인재에 비해 평균 입학등급이 높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응용화학과			1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지역인재전형/ kit 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2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입실 후 순서 때까지 기다림 (자료 참고 가능) ◆ 전 차례가 되면 문 앞에서 대기 (자료 참고 불가) ◆ 면접 (면접관 3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학교명, 지역명 금지 ◆ 수험표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 지역인재 전형 : 간단한 면접 안내 후 12분 타이머 맞춰 놓고 바로 시작

Q :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럼 바로 면접 들어 갈게요. 우리 학과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A : 저는 2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배운 화학 과목에서 하버보슈의 암모니아 합성방법이 인류 식량 생산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듣고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금오공과대학교 응용화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1 : 그럼 응용화학 쪽에서 관심 있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에 정책에 의해 많은 손실을 얻은 전기소재 분야, 친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Q : 최근 친환경 농업에도 4차 산업혁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A : 한국 산업 전반뿐 아니라 우리나라 일상생활에 스며든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농업인의 식량 수확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농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Q : 생기부에 시낭송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A : 저희 조는 최인훈의 그날이 오면 이라는 시를 외워 친구들 앞에서 시를 낭송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억압을 하루빨리 벗어던지고 독립을 노래하는 시로써 본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Q : 우유급식 도우미 활동은 무엇이였는지?

A : 교무실에 직접 찾아가 선생님들 우유를 챙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Q : 자소서에서 보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원들과 다툼이 있었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A : 정말 일일이 풀어서 다 설명함

Q : 보통 화학2 과목을 이렇게 많이 이수한 학교가 없는 것 같은데 이 학교는 화2를 선택한 학생이 왜 이렇게 많은지?

A : (순간 병쳐서 답을 못하다가 순간적으로 지역명 언급.) 다시 정정하고 우리 학교에는 공학계열 그리고 의과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 자연스럽게 화학2 과목 선택자도 늘어난 것 같다.

Q : 본인은 무슨 과목을 가장 좋아하냐?

A : 물리/화학이다.

Q : 보통은 다른 과목을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화학2에서 인상깊게 배운 내용은?

A : 물분자의 수소결합에 따른 특성이 가장 인상깊게 배운 내용인 것 같다.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낮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화2를 배우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니 화학은 배울수록 심도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욱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kit 인재전형

Q : 오 또 왔던 친구니까 설명은 안 하고 어제처럼 똑같이 할게요! 여기 2학년 때 나쁜 과학자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줘봐요

A : 인류 역사상 비윤리적 인체실험을 감행한 과학자들의 내용을 다룬 책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암에 걸린 4세 소년을 암 치료목적으로 데려가 방사는 피폭 실험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이후로 화학공학 산업 전반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화학공학쪽으로 진로를 설정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간단히 설명해 보아라

A : 화이트리스트란 일본이 자국의 기준에 충족시킨 나라들의 한해서 수출규제전략을 간소화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범원 판결 이후로 갑작스럽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시키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Q-1 :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출 규제 상품은 무엇이 있냐?

A :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등등이 있다

Q-2 :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화수소는 그럼 어떤 용도로 산업전반에 이용되고 있고 화학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냐?

A : 불화수소는 즉 플루오린화 수소로써 대한민국 산업에서는 반도체를 세정시키는데 주로 쓰이고 있고 화학 영역에서는 벤젠이라는 물질을 만들기 위한 촉매재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4 :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있을까?

A : 당장으로써 우리나라는 반도체 규제 상품들을 자국물자로 충족시키고 있다. 물론 가장좋은 방법은 금오공과 대학교같은 대학에서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현실상 그러기에는 많은 시간과 당장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나라와 협약을 맺어 반도체를 수용하는 것이 당장 국가의 치명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Q : 과학성적이 좋은데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A : 과학과목을 특별하게 더 좋아해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고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노트를 보았다.

Q : 힙합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생기부에서는 복장, 두발 지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나와 있다. 보통 힙합 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에 민감한데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은 없었는지?

A : 나는 자기가 맡은 일에는 책임을 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내가 맡고 있는 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본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지역인재 전형에서는 학교명을 실수로 언급함.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했지만, 지역명 언급에서 페널티가 들어간 것 같음.
- ◆ kit 인재전형에서는 두번째라 면접관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좀 더 어려운 심화개념, 사회적 이슈, 화학관련 내용을 떨지 않고 웃으면서 면접관님들에게 또박또박 내 생각과 정보를 잘 전달하니까 면접관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심. 갑자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멘탈 나가지 않고 다시 한 번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말하면 좀 덜함. 생기부 생각보다 세세한 것까지 물어보니까 생기부, 자소서 준비 철저히 해가야 됨. 그리고 당대 사회이슈 같은 거 몇 개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자공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2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앞 번호가 면접시작하면 면접 준비실에서 준비 후 면접 시작 (3:1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금지, 면접관들이 웃으면서 농담도 해주시고 긴장 풀어주셔서 웃으면서 면접 볼 수 있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동차 관련이면 기계공학도 있는데 왜 전자공학부에 지원하셨나요?

A :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차선 이탈방지,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과 같은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연구를 하고 싶어졌고 이러한 연구는 엔진 성능, 연비 등을 연구하는 기계공학 분야보다 전자 공학부가 더욱 적합하다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C+로 코딩을 배웠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자율주행 로봇자동차를 조립한 후 C+를 이용하여 직접 장애물 회피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입력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Q-1 : 알고리즘 제작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오류인가요?

A : 로봇자동차의 라인트레이서 알고리즘을 제작할 때 검은 선을 벗어나면 양쪽 바퀴의 속도를 다르게 하여 다시 검은 선 위로 움직이도록 해야하는데 양쪽 바퀴의 최적의 속도를 찾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Q : 중간값, 근삿값을 배웠나요? 교육과정이 달라서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A : 아니요, 안 배웠습니다.

Q : 수학성적을 만족합니까? 없으면 이유가 있나요?

A :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학을 공부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끝까지 이해해야 다음 단원으로 넘어 갑니다. 어려운 단원을 배우게 되면 상대적으로 복습과 응용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줄어 수학 성적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Q-1 : 그러한 수학 공부 방법을 후회하나요?

A : 성적만 놓고 볼 때는 후회가 되지 않지만 어떠한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이룰 때 까지 노력하는 자세는 저의 꿈인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에 후회되지 않습니다.

Q : 미분이 무엇인가요?

A : (미분에 대해 설명)

Q : 정규분포의 특징에 대해 3가지 설명해주세요?

A : Y축 기준 좌우 대칭, 넓이가 확률, y의 값이 항상 양의 값이다

Q-1 : 정규분포가 이산확률인가요 연속확률인가요?

A : 연속확률입니다.

Q : 미적분 관련 책도 많이 읽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A : 수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일상생활 속의 수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Q : 미적분의 실생활 적용의 예시를 말해주세요?

A : 화가가 그린 그림을 미분으로 수식화하면 그림이 커지거나 동작이 달라져도 선이 어떻게 이어질지 예측할 수 있기에 하나의 그림으로 다양한 움직임과 크기를 표현 할 수 있습니다.

Q : 탐구적인 자세가 무엇인가요?

A : 자신이 가진 상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남의 도움을 받되 그 도움에 의지하지 않으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Q : 화분을 2년 동안 키우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A : 교실 공기정화와 같은 단순한 이유도 있지만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Q : 여전히 친구들과 축구를 자주 하나요?

A :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친구들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자주합니다.

Q-1 : 축구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요?

A : 중앙 수비수를 맡고 있습니다.

Q : 배구 1등 수상기록이 있고 축구도 했다고 했는데 운동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A : 남들도 흔히 말하는 '실수에 대해 비난하지 않기' 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서로 격려 해준다면 긴장도 풀리며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여 친구들과 즐겁게 운동을 즐기었던 저의 경험에서 느낀 점입니다.

Q : 준비한 것 중에 안 물어봐서 섭섭하게 있나요?

A : (좌우명이라고 대답함.) 저는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경로당의 화장실 청소를 하였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어르신들이 주시는 작은 사탕과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마음을 보고 '사소한 것도 나눌 줄 알며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기부의 자신의 진로와 지원학과의 연관성 확실히 알고 자신의 일관된 목표를 정하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 긴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심호흡하며 침착하기. 독서활동 기록된 책마다 한 줄씩의 느낀 점 생각해보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8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지역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3명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A : 네트워크 공부를 하다가 금오공과대학교에서 만든 ppt를 보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알아 보았다 괜찮은 것 같아서 지원함

Q : 컴퓨터 관련 무슨 활동을 했는지?

A : 멘토링 활동 드론코딩 프로그래밍언어를 공부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활동 정도함

Q : 프로그래밍언어 뭐 배웠는지?

A : c언어 파이썬 자바 정도 공부했다함

Q : c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 뭐였는지?

A : 랜덤함수를 이용한 주사위 굴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와 나중에 더 큰 수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

Q : 랜덤함수 사용했을 때 똑같은 수가 계속나오지 않았나?

A : 타임 헤더를 사용해서 그걸 막았다고 말함

Q : 네트워크를 공부해서 osi 7계층 구조는?

A : 물리계층 데이터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까지 밖에 말 못함

Q : 논어를 읽은 이유?

A : 프로그래머로서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기위해서

Q : 인상깊은 구절은?

A : '하나를 알고 전체를 꿰뚫는다'는 구절을 통해 좀 더 공식이나 풀이과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내신이 문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토목공학		○	
전형명	학생부종합(잠재능력우수자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대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A :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크고 작은 지진과 태풍 및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난다는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설계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인 토목공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본 학과에 지원을 하게되었습니다.

Q : 본 학과에 오기 위해 노력한 활동들은?

A : 교내에 토목관련 동아리가 없었는데 최근 건축물들의 이슈를 접하기 위하여 '토목 탐구' 라는 동아리를 개설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댐의 녹조현상에 대하여 녹조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여 자체적인 해결책을 이끌어 내면서 댐의 기능에 대하여 많이 알게되었을 뿐더러 토목이라는 학문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 본인의 가치관을 말해보시오

A :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협력입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해결했는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제 자신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을 말해보시오

A : 고등학교 3년동안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연탄 배달과 도시락 전달해드리기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활동을 하면서 독거노인 분들이 처하신 열악한 환경과 약간의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우울증 해소를 위하여 고민을 들어주는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이 완화가 되신거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Q : 할머니 분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면접관들이 할머니 라고 생각하고 말동무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A : 할머니 안녕하셨어요? 요즘 편찮으신데는 없지요? 요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필요하신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요 할머니 건강 좋아지게 안마 한번 해드릴게요~

Q :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A :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 토목에 대한 지식이 사회에 이바지할 정도는 되지 않지만 본 학과에서 토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은 후 훗날 건설세계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이 20%라 간단한 질문들이 많음 기본에 충실한다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금오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학과명	화학소재공학부		예비6	
전형명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2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입실 - 대기 - 면접 - 개별 퇴실		
유의사항	◆ 신분증, 수험표 지참 ◆ 블라인드 면접 : 교복 착용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학교 오니까 어떤 거 같아요?

A : 작년부터 금오공과대학교에 관심이 있었고 현재 너무 가고 싶은 대학교라 인터넷으로 자주 찾아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Q : 혹시 어제 다른 전형 면접에 오신 적 있나요?

A : 아니요. 금오공과대학교 면접은 처음입니다.

Q : 자소서에 미지시료의 분자량 구하기 실험을 했던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 (설명)

Q : 어느점 내림 원리가 뭔지 말해보세요. 왜 일어나요?

A : 거기까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Q : 자소서에 액체형 손난로에 대해 썼던데 아세트산나트륨이랑 관련하여 그 원리를 설명해주세요.

A : (설명)

Q-1 : 일회용인가요? 다시 액체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A : 다시 가열해주면 딱딱해진 고체가 다시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여 재활용 가능합니다.

Q-2 : 충격을 주는 역할이 쇳조각인가요. 그 충격을 주는 쇳조각이 뭐예요?

A : 네, 충격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쇳조각입니다. 안에서 똑딱 거리며 충격을 줄 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쇳조각입니다.

Q :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구하는 실험에서 분자량이 44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A : 저희가 실험을 해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했지만 이산화탄소의 실제 분자량인 44보다 조금 더 큰 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험이 끝난 후 왜 정확히 44가 나오지 않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험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측정할 때 이산화탄소를 얻기 위해 드라이아이스를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용기 곁에 생긴 물기를 닦지 않고 그대로 질량을 측정해서 질량이 원래 이산화탄소의 실제 질량보다 크게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부피를 측정하면서 용기 안의 물을 눈금 실린더로 옮길 때 전부

옮기지 못하고 용기 안에 물이 조금 남아있어서 부피가 더 작게 측정되어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 분자량이 더 크게 나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Q : 이상기체와 이상용액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 있는데 이상용액이 뭔지 아시나요?

A : 이상용액은 정온, 정압 하에 성분을 혼합할 때 열의 출입과 부피가 없는 용액입니다.

Q-1 : 그럼 이상용액이 어디에 사용 되요? 왜 필요한지 알아요?

A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Q : 'Reviewer' 동아리에서 장애이해활동도 하고 도움 받 친구들과도 어울렸다고 했는데 활동 중에 특별히 느낀 점이 있나요?

A : 저희가 관현맹인악단 분들을 초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 들은 모두 눈이 안보이시는 분들이셨음에도 저희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제약을 받아 못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현맹인악단 분들과 만나면서 이 기회로 제 생각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Q : 진로 활동에 우리지역 회사 견학해 본 적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 알게 된 점이나 배운 점 말해주세요.

A :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생각보다 다양한 특수가스를 수출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 주변에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놀랐습니다.

Q-1 : 혹시 거기가 영주예요?

A : 맞아요.

Q : 화학공학과는 다른 학교도 많은데 굳이 금오공과대학교에 지원한 이유와 장점과 단점을 말해주세요.

A : 작년엔 제 꿈과 목표가 확실해졌을 때 금오공과대학교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때부터 너무 오고 싶은 대학교였습니다. 특수가스 회사에서 견학할 때 삼불화 질소라는 특수가스에 대해 설명을 들을 때 그 가스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공정 중에 CVD 공정 후 챔버 내부 벽에 잔류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후 화학공정에 관심이 생겨서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오공과대학교 커리큘럼을 보니 공정제어 등 화학공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진학하여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또한 학과 소개를 보니 의약품 개발을 위한 바이오산업 분야까지 다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 꿈인 약학 연구원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금오공과대학교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Q-1 : 단점은요?

A : 저희 집과 멀다는 거..?(단점이 생각이 안 나서 정말 솔직하게 말했는데 반응은 좋았어요.)

Q-2 : 지역인재인데도 멀어요?

A : 네, 저희 집에서는 조금 멀어요.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한 게 있다면 30초 안에 말해주세요.

A : 제 롤모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분명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을 분들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꿈을 이룬 그 자체가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금오공과대학교 화학소재공학부에 진학하여 제 꿈과 목표를 이루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자신이 있는 학생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한 분은 전자공학과 교수님, 두 분은 화학공학 교수님이셨음.
- ◆ 자소서 실험 내용에 대해 엄청 깊게 질문 하고 꼬리질문도 많았음. 자소서 내용 파악은 당연하고, 더 깊게 공부해야 됨. 자신의 생기부 전체 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김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물리치료학과		○		
전형명	교과 일반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에 학생 4명, 대기실에서 대기 - 복도에서 대기 - 면접장			
유의사항	◆ 신분증, 수험표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A : 안녕하세요, 이번 김천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게 된 00입니다.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차별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가치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김천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하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인재학생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Q : 지원동기

A : 평소에 보건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물리치료사와 관련된 메디컬 드라마를 보고 관심이 생겨 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왜 우리 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A : 제 주위에 물리치료학과를 가진 대학 중에 제일 가깝고, 굳이 멀리 있는 대학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전공 관심도 (ex.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점)

A : 스칼라 : 질량, 길이와 같이 크기만 갖는 물리량으로 수학의 사칙연산으로 계산
벡터 : 속도, 힘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면접관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부족한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 성실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하더라도 자신이 이때까지 준비했던 것 그대로 질문에 충실하게 대답할 것. 자신 있게 대답할 것 (목소리를 작게 말하지 말고 평소에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것처럼)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김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작업치료학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전형(일반고)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 3:3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작업치료에 대한 정의

A : 일반사람들은 여자에게 작업을 건다하고 할 때 그 의미로 느끼겠지만 작업치료사가 말하는 작업치료는 일상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하거나 양치질을 하는 활동들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Q :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은?

A : 지금 면접과 대입으로 학생과 선생님 모두 힘든 시기인데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시는 고3 담임선생님이 가장 존경스럽다.

Q : 작업치료사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 건강댄스도우미가 무엇인가?(생기부)

A : 고등학교 때 다이어트를 한다고 설사약 복용, 굶기를 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활용하는 친구들을 보며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고민하였습니다. 댄스를 이용하여 다이어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학급 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댄스를 보여주어 친구들에게 활동량을 증가시켜주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차별화된 면접 답안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면접관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 ◆ 작업치료사 같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일수록 더욱 에너지 넘치고 활발한 모습을 면접때 보여주면 도움이 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나사렛대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특수교육과	○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다대다 면접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고등학교 재학중 가장 열심히 공부한 과목과 그 과목을 지원한 과랑 연관지어 말하기

A : 고등학교 재학중 가장 열심히 공부한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을 통해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고하는 능력은 훗날 특수교사가 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을 익히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창의력 교육이 중요해진 시대에 맞게 수학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Q : 우리학교에 지원한 동기

A : 고등학교 때 학습 멘토링 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하였는데 멘토를 하며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또한 멘티가 되어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현장 교사와 재학생간 멘토 제도를 실시하는 나사렛 대학교만의 장점은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 그래서 입학 후 멘토 제도에 참가해 올바른 특수교사로 성장하고자 나사렛 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예비 특수교사가 가져야할 자질을 자신의 장점과 연관 지어서 말해보시오

A : 예비 특수교사가 가져야할 자질이란 관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댄스동아리 활동을 통해 댄서분들의 퍼포먼스를 벤치 마킹 할 때 남다른 습득력으로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 각자의 특성을 파악해 맞춤형 교육을 실천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남부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응급구조학과	○		
전형명	일반전형(학생부교과)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수험표와 신분증을 검사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 대기번호 받음 ◆ 대기번호 부르면 대기실로 이동, 대기실에서 기초자료 작성함 ◆ 면접관 2명, 학생 5명 들어감		
	유의사항	◆ 교복착용 가능, 단정한 복장, 수험표와 신분증 꼭 가지고 올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 기초 자료 작성

1. 자기소개
2. 지원동기
3. 학과와 관련된 봉사 활동
4.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분야

◆ 면접내용

Q : 직업 상 잔인한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겪지 않아도 될 일, 남이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만큼 외상 후 스트레스 등 많이 힘든 직업이다. 자신이 외상후스트레스가 걸리고 직업에 회의감을 느끼게 될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서 상관없이 말해보세요.)

Q :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 쪽에서는 2차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Q :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Q : 취업 후 분야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저는 합격할 것 같습니다. 제시문에 있던 내용은 기초자료작성할 때 다 쓰고 들어가서는 학과 자체 질문만 했는데 답변을 잘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남서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스포츠비즈니스학과		31	
전형명	섬기논리더2(교과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 2명, 지원자 4명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본인이 해왔던 일 중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일은?

A : 중학생 때까지는 축구를 보는걸 좋아했고 직접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축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주말에 열심히 축구연습을 하며 풋살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대회에서 제가 첫 골을 넣었을 때 뿌듯함과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Q :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A : 소박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목표의식도 없을뿐더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Q : 본인이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은?

A :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나은 모습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 스포츠 브랜드의 마케팅에 대한 자신의 생각?

A : 스포츠 브랜드가 유명한 선수나 연예인과 함께 광고를 찍고 홍보를 함으로써 팬들의 관심은 물론 소비자의 욕구도 채우줄 수 있으며 평소 이 브랜드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한번쯤 눈여겨보고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좋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단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소프트웨어학과		8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SW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2:1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SW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ESD 캠프를 하며 아두이노를 접하게 되었으며 SW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동아리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 TED 발표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발표하여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활동입니다.

Q : ‘튜링의 생각하는 기계’라는 책 내용은 무엇인가요?

A : 튜링은 컴퓨터의 아버지로 이 책에서 쉽게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입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애용입니다.

Q : 인공지능 로봇과 나노기술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Q :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점은 무엇인가요?

A : 호기심이 많아 남들보다 변화하는 사회를 빨리 알고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 뛰어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 준비는 시간을 들여 열심히!!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문예창작과				
전형명	DKU 인재 전형(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안내문에서는 7분인데 실질적으로는 9분~10분 진행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 : 2명의 면접관 ◆ 대기실 : 오전, 오후 원서 접수 순으로 나뉘어서 반을 나눔. 대기실 입장과 동시에 도우미께서 빠르게 자리 안내를 하고 휴대폰을 바로 걸어서 제출을 하라고 함. (휴대폰으로 검색, 전화 입장과 동시에 절대 불가능) 대기 시간 동안은 자기가 가져온 자료 볼 수 있음. 생수 작은 거 하나 주심. 입실 마감과 동시에 큰 화면에 유의사항 띄워주시면서 다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심.			
유의사항	◆ 철저한 블라인드 면접. 교복과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지역명을 말한다면 점수 어마하게 깎인다고 자꾸 강조하시며 설명하셨음. 신분증과 수험표 확인 엄격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방과후 활동 중에 교과서 밖 문학작품 탐색이 있네요. 여기서 한 활동과 느낀점이 있나요?

A : 방과후 활동 중에 배웠던 이상의 날개로 예시를 들면서 당대의 문예사조인 모더니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함. (모더니즘의 특징인 비언어적이고 초월적인 부분을 들면서 모더니즘을 설명함.)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당시에 뜻을 펼 수 없었던 이상의 심리에 대해서 탐구했으며 나 또한 나의 내면을 표현한 작품인 시를 창작했다고 말함. 이 시를 창작하고 친구에게 보여주었는데 친구가 내 시를 보고 자신의 내면에 쌓였던 고민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고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문학이 타인에게 주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었다고 말함. (말이 끝난 후에 “자신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활동이겠다.” 라고 면접관이 말하셨음.)

Q : 우리 과는 다양한 것을 배우는데. 희곡, 시나리오, 소설, 시 중에서 무엇을 가장 쓰고 싶냐?

(앞 대답에서 시를 짓는 활동을 했다고 해서 나온 질문인 것 같음)

A : 소설을 쓰고 싶다고 답함. 내가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김애란 작가님의 ‘입동’이라는 단편집을 보면서이며,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후에 작가가 ‘입동’이라는 단편집을 내면서 사회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나 또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아서 소설을 쓰고 싶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작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답함.

Q : 김애란 작가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작품 읽은 게 있나요?

A : 김애란 작가의 등단집인 ‘달려라 아비’를 말함. ‘달려라 아비’에서 표현된 아버지의 상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쓴 작가와 비교하여 탐구했다고 함. 당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도 파격적인 아버지를 그렸지만 ‘달려라 아비에서’ 더욱 파격적인 아버지를 표현하여 가부장적이고 고전적인 아버지의 상을 완전하게 무너뜨린 작가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Q : 가장 인상적인 작품과 그 작품이 자신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 ‘당신에 대해서’라는 책을 쓴 이인성 작가를 말함. 처음에 이 책이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말함. 그러나 이 작품을 읽는 동안 소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작가는 꾸준히 책에서 ‘나의 목소리를 잃지 말고, 당신을 찾아라’라고 말한다며 책을 읽는 동안 독자 스스로 방향성을 찾고 사유하게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함. 더불어 무언가 창작하는 활동을 할 때 나의 고집이 아닌 독자가 충분히 사유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된 책이라고 답함.

(4번째 질문 마치고, 면접관 한 분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말을 끊으시고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다고 하셔서 당황함.)

Q :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소설과 에세이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A : 호흡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함.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깊은 문장으로 긴 호흡을 뱉는 활동이라면 그것을 같은 호흡법으로 등장인물에 투영한 작가의 가치관을 독자들이 따라서 읽는 것이고,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짧은 호흡을 따라서 독자들이 작가를 읽어가는 과정인 것 같다고 말함.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나에게 문학이란 자아에게 궁금증만 던지고 도망가는 발자국이었다. 이런 발자국을 따라가며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했을 땐 그저 발자국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쓰고 배우고 성장하며 언젠가는 발목을 잡고 싶고, 발목을 잡은 내가 만든 발자국을 따라오는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방과후 활동과 관련해서는 물어보실 줄 몰랐는데 질문하심. 생기부를 꼼꼼하게 보고 생기부 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음. 나한테는 활동이나 자소서 하나도 안 물어보셨는데 수만회에서 공유하니까 다른 친구들에게는 방과후 활동을 많이 물어보셨음. 면접관이랑 내가 거리가 좀 멀어서 (우리 학교 교실로 치자면 교탁에 서 있는 선생님과 3번째나 4번째 줄에 앉은 친구 간의 거리 같았음) 목소리 조금 크게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음. 수험표랑 신분증 확인이 다른 학교보다 조금 철저하고 많이 했음. 대기실에서도 자기 이름 옆에 사인하고, 면접 보기 전에도 사인하는데 위에 먼저 사인하고 들어갔다가 나온 친구들 시간 보니까 9분 극초반이었음. 아마도 수시 안내에 등록해 놓은 면접 시간 7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10분으로 지정해 놓은 것 같았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수 2명, 질문 후 바로 대답하는 형식		
유의사항	◆ 면접 대기할 때 휴대폰 사용 불가, 준비한 자료 열람 불가. ◆ 대기 시간이 매우 길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제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많습니다. 먼저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은 류마티스 센터가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류마티스 환자를 진료할 만큼 위상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 근무하고 싶은 저로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판인 해외연수가 잘 되어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선배님들의 체험기를 보면서 마냥 해외에 간 것이 아닌, 다른 나라의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병원과의 차이, 선진 의료환경, 분위기 등 다양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대학교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다른 나라의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기'를 실현하는데 날개를 달아줄 것 같았습니다.

Q : 수상경력이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은 무엇입니까?

A : 저는 동아리 활동대회 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 2학년 모두 sm이라는 생명동아리가 수상했는데요, 저는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각 조원의 진로에 맞는 과학실험, 해부실험을 준비했고, 각 활동이 끝난 후 매주 실험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심히 동아리를 이끌고, 부원들이 따라준 결과 저희 동아리는 '저희 학교 최고의 동아리'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었고, 제가 매주 작성한 실험보고서를 동아리 활동집으로 낼 수도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지만, 1년 동안 가장 열심히 활동했고, 뿌듯하기에 이 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많은 자율활동, 진로활동을 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A :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인근 지역 대학교 간호학과를 방문한 것입니다. 간호사라는 꿈을 꾸며, 대학교의 간호학과는 어떤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곤 했습니다. 강의실과 시뮬레이션 실을 직접 보니 너무 신기했고, 각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 인형을 보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평소 환자 인형으로 어떻게 임상 실습을 대비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 본 환자 인형은 동공반사부터 맥박, 기침 소리까지 실제 환자와 유사해 이런 환경이라면 실제 임상에서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주사 놓기, 혈당 체크 활동을 하며 교수님께 주의사항 등을 들었는데, 간호 대학생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이죠?

A :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새끼돼지 해부입니다. 돼지는 사람과 가장 유사한 동물 중 하나라 많은 실험에 쓰이고 있습니다. 새끼돼지 해부를 하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돼지 머리뼈가 얇아 약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새끼라 그랬다고 추론을 했고, 아기의 머리를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머리뼈가 발달이 덜 돼 약해서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Q : 봉사를 정말 주기적으로 했는데, 이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A : 처음 봉사를 하러 갔을 때는 다들 낯을 가렸지만, 제가 종이접기, 연예인 등 아이들의 관심사로 이야기를 하니 점차 다가왔습니다. 아이들과 친해진 후 놀이터에 연을 날리러 갔는데, 연을 날리기도 전깃줄에 실이 휘감겨 날리지 못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노력해볼게! 놀고 있어!’라고 이야기했고, 여러 시도 끝에 연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노는 데 집중도 못하고, 저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고, 더 다가오는 모습에 이제는 저를 ‘친한 언니, 누나’로 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는 하루하루가 봉사하는 재미를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Q : 저희에게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책을 이야기해 주세요.

A : 저는 3학년 때 읽은 골든아워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이국종 교수님의 저서로, 이 책을 읽고 이국종 교수님을 제 롤모델로 삼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아덴만 여명작전에서의 이국종 교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때 석해균 선장은 총상을 입어 위급한 상태라 빨리 한국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닥터헬기를 부르기 위해서는 4억 원이라는 큰돈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국종 교수님은 '내가 낼 게 빨리 이송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석해균 선장님은 한국에서 이국종 교수님의 치료로 완쾌하셨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A : 먼저 이렇게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간호사의 자세는 무엇인지, 얼마나 큰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중요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축학과			
전형명	DC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O	
	면접절차	◆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후 면접실로 이동하여 면접(2(면접관) : 1)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신이 들고온 책이나 참고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착용 가능하나 학사복을 입고 면접(사복 입고가기를 추천) ◆ 면접시간 준수 ◆ 블라인드 면접(출신 고교, 성명, 부모님 이름, 부모님 직위 발언 불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인성 문제) 지원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그럼,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해보세요.

A :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인간은 자기 자신이 불리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일을 그르쳤을 때 자기 합리화를 통해 확증편향에 빠지곤 합니다. 저 또한 시험 기간에 이러한 일을 겪곤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나만의 생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의 지름길로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맡은 일을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타인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지 못한 문제를 타인이 본 것이기에 이 또한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 자신과 타인이 다 같이 인정할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Q : 건축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 : '영원한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건축물은 새로운 건축자재와 시대에 걸맞는 최신의 건축 기법으로 만들어졌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반대로 낡고 허문 건축물은 시각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세월이라는 시간의 무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고 그들의 삶과 어우러져 추억을 간직하기에 낡고 허문 건축물이 가지는 내면적 가치와 특별함은 새로운 건축물을 초월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건축물의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낡고 허문 건축물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통해 건축은 영원한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말해주세요.

A : 저는 팀별 프로젝트를 진행할 당시 주로 팀의 리더를 자진해서 맡았습니다. 리더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 팀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제 자신을 낮추어 배우려는 마음가짐으로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또,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팀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회의 중 아쉬웠던 점이나 방안 등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가져 팀원들의 결단력을 높이면서도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힘썼습니다. 때론 간단한 의견 갈등이나 심한 경우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의견 갈등의 경우 양쪽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양쪽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는 최선책을 선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한 말다툼의 경우 리더로서 따끔한 말 한마디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다투는 팀원을 저지한 뒤 안정을 되찾았을 때 싸운 이유에 대해 물어보고 화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Q : 건축학과로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 저는 미리 설계된 집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의 공간이 뒤죽박죽이어서 효율적인 동선을 짜지 못하다든지 조리대의 공간이 협소해서 도마를 놔두면 빈 공간이 없다든지 베란다가 좁아서 건조대를 놔두면 계절별 난방기구나 선풍기를 보관할 공간이 없는 등 다양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또, 낭비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보며 이 공간 대신에 베란다, 거실, 부엌이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 또한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불편함과 아쉬움을 다른 사람들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건축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배워 저에게 주어진 공간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낭비된 공간 없이 설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건축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제 꿈으로 제 집을 직접 설계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건축학과의 진로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 4차 산업과 건축은 무슨 연관이 있다고 생각 하나요?

A : 4차 산업과 건축은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토지 정보 수집, 증강 현실을 이용한 3D모델링 작업 등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하면 이전보다 작업 소요 시간이 줄어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업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류에 대한 즉각적이고 완벽한 피드백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전공탐색을 통해 지원자의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사회 진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자 본인이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과 경험이 있다면?

A : 건축 관련 도서 탐독, 건축 자율동아리 활동, 진로탐색으로 '미래 지향적 건축'에 대한 조사 및 발표, 타 분야와 융합된 건축을 확인하기 위한 '자가 치유 콘크리트'라는 주제를 정하여 이에 대한 조사 및 발표, 친환경 건축을 주제로 한 TED강의 시청 후 토의토론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활동을 통해 전공 적합성 확인 및 자기계발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Q : 자가 치유 콘크리트가 무엇인가요?

A : 방해석 석출 작용을 하는 박테리아 및 곰팡이를 콘크리트와 함께 배합하여 박테리아가 균열이 일어난 콘크리트를 직접 메꾸면서 유지비용 절감을 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Q :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모인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에 대한 사례와 함께 말해주세요.

A : 저는 자율동아리로 '지뎃돌'이라는 건축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모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의 주된 활동으로 건축 관련 책을 읽은 뒤 하나의 주제를 정해 토의토론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건축 디자인 교과서'를 읽고 '인간 중심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토의토론을 진행하였는데, 건축이라는 하나의 분야를 가지고 설비, 시공, 조경 등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중점으로 두고 여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개개인이 지닌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동체 전체의 지식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 Q : 인상 깊었던 건축 관련 책은 무엇인지?

A : 대부분의 건축 관련 도서에서 깨달음이나 교훈을 얻을 수 있었지만 크게 4가지의 책에서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여는 건축'을 읽고 친환경 건축을 접했으며, 두 번째로 '세상

에서 가장 친절한 건축 디자인 교과서'를 읽고 인간 중심 건축의 중요성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공간 공감'이라는 책을 읽고 타 분야와 건축의 융합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집을 순례하다'를 읽고 유기적 건축을 실현한 건축의 3대 거장 중 한 명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저의 롤모델로 정해 저 또한 유기적인 건축을 하면서 친환경 건축을 선도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Q 점은?

- ◆ 모의 면접을 많이 하면 면접장에 가서 긴장 많이 안 함.
- ◆ 자세 바르게 하고 발음 정확히 할 것.
- ◆ 질문에 대한 기억이 안 나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기.
- ◆ 꼬리 질문 꽤 있으니 예상 질문 준비할 것.
- ◆ 들어갈 때, 나갈 때 인사 꼭 하기!
- ◆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 교육목표 꼭 확인.
- ◆ 인성문제를 면접 일주일 전에 공개하니 까먹지 말고 준비.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교육학과	○		
전형명	DCU자기추천(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9시까지 2층 지정대기실 입실, 면접 순서대로 3층에 3명씩 올라가 대기하고 한 명씩 면접합니다.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 자신의 이름, 학교명, 부모님 직업 등 자신의 개인 정보 언급 불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외식할 때나 집에서 밥 먹을 때 가족들과 얘기를 하지 않고 휴대폰만 만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저는 각 가정마다 교육 방식이 달라서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밥을 먹을 때는 휴대폰을 하지 않기로 부모님께 교육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휴대폰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예상 질문에서도 찾지 못하였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질문이어서 당황하였지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교육학과와 연관시켜서 말했습니다.)

Q : 자신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봉사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체육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 봉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때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소외 계층들에게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에서 '교육학'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만약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가장 큰 교육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교육 제도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A : 저는 문맹인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문맹인들이 국어를 배울 때 성취감에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국어를 몰라서 길을 못 찾아간다거나 편지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맹인들을 위한 교육환경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입시 위주의 교육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배울 때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시 위주의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활동 위주의 전형을 만들어 학생들의 성적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지를 보고 뽑는 전형을 만들고 싶습니다.

Q : 자신이 활동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A : 저는 농구부 주장을 맡아서 2학년 여름방학 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농구 교육을 하였습니다. 저는 감독님과 동아리 부원들의 잦은 만남으로 부원들이 잘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기술에 대해 더 연구해서 중학생들에게 가르치게 감독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학생들과 우리 농구부원들은 만족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뿌듯하였습니다.

Q : 10분이 다 되어서 끝났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A : 네. 저는 입시 위주의 공부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즐거워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제 내신점수가 4점대 초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재작년 입시 결과를 보았을 때 합격선이 3점대 중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면접을 자신 있게 보았기 때문에 최초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후배님들도 정말 끝까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만약에 정시로 대학을 가고 싶으셔도 내신공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교육과			
전형명	DCU자기추천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인 기준 30분(본 지원자는 상대적으로 길게 함.) 다른 지원자의 경우 20분 이내로 면접.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 깔끔한 복장이 면접관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음. ◆ 부모님의 직업 또는 자기 학교가 드러나는 발언은 면접에서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국어교사로서 갖춰야할 덕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본인의 전공이 있겠지만 그 전공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그 피해는 네 자신이 아닌 너에게 배우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제가 만약 국어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제가 국어교사가 되었을 때 그 피해는 저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저는 학문에 대한 애정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Q : 국어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 네. 제가 국어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릴 적 다문화가정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 법적으로 한국인임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매우 가슴 아팠으며 그런 친구들이 한국사회에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하여 국어교육과에 자신 있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학창시절에 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고전소설입니다. 제가 얼마 전 ‘조웅전’이라는 작품을 보고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향토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며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것도 매우 좋아합니다. 마치 소설에 나오는 영웅이 저인 것 같고 소설 속에서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에 소설 속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전소설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Q : 학창시절 국어교육과에 오기 위해 무슨 활동을 했는지 말해볼래요?

A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읽고 수업을 하면서 단순 책 읽기의 수업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오히려 더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책 읽기 방식이 아닌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싶었고 ‘울림’이라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울림’은 단순히 책을 읽고 토론하고 감상문을 쓰는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그 동아리에 들어가 책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했으며 제가 책을 읽고 이런 사고를 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국어교사가 되었을 때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Q : 생활기록부를 보니 했던 활동이 매우 많은데 그중에서 선도부 활동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A : 네. 저는 평소 학우들이 교칙을 위반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그런 학우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보니 교칙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심각성을 느껴 선도부에 지원하였습니다. 선도부 내에서 선도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학우들을 지도하였습니다.

Q :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나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힘든 일인데 갈등은 없었나요?

A :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도부가 해체될 위기에까지 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선도부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설득했습니다. 저의 마음과 진심을 알아준 선도부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니 학우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고 학교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저는 선도부 활동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학생을 만나 영광입니다.

Q : 혹시 운동해봤나요? 했다면 무슨 운동을 해봤나요?

A : 저는 태권도 축구 농구 유도 등 많은 운동을 했고 현재는 축구와 농구를 중점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Q : 국어교육과에 지원한 학생이 많은데 왜 우리가 지원자를 뽑아야 할까요?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 학문에 대한 애정과 열정 또한 소통과 협력이 제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뛰어나고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국어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만 이 애정이 국어교육과를 다니면서 더욱 확실해질 수 있게 할 것이며 그 후엔 이 애정을 뽐낼 수 있는 열정 역시 저는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은 소통과 협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력은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애정, 열정, 소통, 협력은 제가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질문이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중국 동파민족의 아이뵐 인을 보여주며) 이 글자를 아십니까?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동파민족의 동파 문자입니다.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만의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곧 국가이고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하는 한, 국어는 끊임없이 발전되고 전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 길었던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지키고자 했던 국어와 한글을 저는 국어교육과에서 애정을 갖고 열정을 쏟아 열심히 배우며 훗날 학생들과 소통과 협력을 하는 그런 국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시작은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소프트웨어융합과	○		
전형명	DC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모인 후 출석체크하고 면접관이 부른 3명씩 면접실 앞에 앉아 대기. 순번대로 입장한 후 면접 진행.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간식을 대기실에서 제공 ◆ 휴대폰 수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세요.

A : 저의 장점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문제에 행하여서 극복해나갈 수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저의 단점은 말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주변 친구들은 너무 과하다고 말을 줄이라고 할 정도로 말이 많아서 최근에는 말을 줄이는 연습 중입니다.

Q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봉사나 약자를 배려한 사례와 그 활동 속에서 느낀 점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A : 저는 요양센터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은 봉사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실 때가 가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요양센터에서 보내시기 때문에 외로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는데 VR 기술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친척이나 새로운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눈다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후에 꼭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Q : 지원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그럼,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해보세요.

A :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첫 번째로 본인의 행복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본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본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유는 물질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여유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행복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봉사할 줄 아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고교 시절 학습한 분야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분야는 무엇인지 말하고 본인의 장점을 우리 전공과 연계 시켜서 말해보세요.

A : 가장 흥미로웠던 분야는 정보 시간에 학습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을 활용하여 평소 즐겨 하던 게임이나 유용하게 사용했던 앱들의 기반이 되는 알고리즘에 관하여 배울 수 있다는 점과 나도 파이썬을 이용하여 복잡한 게임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게임은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제 장점이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점을 살려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만들 때 오류가 생기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오류에 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진학 후 학업계획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A : '포켓몬고'를 즐겨 하던 저는 소프트웨어 기술과 AR/VR 기술을 배워 제 손으로 직접 게임을 제작하면 어떨까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던 과정에서 대구가톨릭 대학교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되었다고 추천해 주신 것을 계기로 뉴스 기사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어 대구가톨릭 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진학 후 AR/VR에 관련된 전공 교과가 개설된 SW 융합 심화 트랙에 열심히 임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직접 '포켓몬고' 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제시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자신 있게 답변하면 좋을 것이다. 대기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긴장하지 말고 기다리면 면접에 들어가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심리학과		14	
전형명	학생부교과(DCU자기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개인정보(출신고교, 주소, 이름 등) 언급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A :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심리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우울증, 무기력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고, 저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 활동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심리학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심리학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을 써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나아가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저의 심리학 지식들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리학과에 입학해야 해서 심리학 지식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4차 산업혁명에서 심리학의 기여점이 무엇일까?

A :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이전인 2, 3차 산업 혁명 때는 자동차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연료 공급이라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유소라는 새로운 사업이 등장했고,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등장했을 때도 인터넷 쇼핑몰과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사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이 그에 따른 새로운 필요와 욕구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을 기반으로하는 행동경제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의 요구와 소비패턴에 대해서 파악하여 새로운 직업과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4차 산업 혁명에서의 심리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게임산업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무엇일까?

A : 게임산업에서 심리학의 기여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게임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창문과 시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쇼핑에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게임산업에서도 이러한 장치들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게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게임산업이 발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게임중독과 사회성 저하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게임중독은 중독심리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성 저하는 대인관계심리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A :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1,2학년 때 대구가톨릭대학교로 매년 견학체험을 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오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톨릭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심리학과와 관련된 자신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학과 관련된 지식인 것 같다. 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의 경험에 대한 질문은 많이 없다. 거의 다 심리학 지식에 관한 질문이다. 예상 문항도 모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내가 예비번호를 받은 이유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심리학 지식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경험과 지식의 밸런스를 잘 조절하길 바란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언론광고학과			
전형명	학생부교과(DCU 자기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10분 정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O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 9시까지 A9동 101호(면접 대기실)에 모였음. ◆ 9시부터 순서대로 5명씩 끊어서 위층으로 올라감. ◆ 위층에는 면접실, 또 다른 대기실(면접실 바로 옆에 면접 대기실)이 있고 복도에 의자 3개가 있음(만약에 1번이 면접 중이면 의자엔 2, 3, 4번이 대기하고 있음, 그리고 5번부터는 위층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 ◆ 면접 보고 나서 1층에 내려가면 학과별로 부스가 있음. 거기서 면접 설문조사를 하고 해당 학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음. (거기서 간식 나눠 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어쩔 수 없이 교복 착용했을 때, 면접 대기실에 교복 가려줄 가운(?) 같은 게 있긴 함) ◆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자신의 출신 고교 등 개인 정보 언급 금지. ◆ 아마도 원서접수 순서가 면접 순서인 듯. 필자는 면접 순서 17번으로 약 두 시간 정도 기다렸음. 되도록 빨리 원서접수하길. ◆ 아무래도 교과 면접이다 보니 생기부에 대한 질문이 없었음. 홈페이지에 기재된 '면접 공통문항'과 '학과별 예상문제'에서만 질문하심. ◆ 아침에 대학 정문 쪽에 차가 막히므로 일찍 도착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해당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p> <p>A : 저는 고교 재학 중 방송부를 했었으며, 여러 번 영상 제작 활동을 하던 중 영상을 제작하기 전 '기획'이라는 단계에서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둘을 효과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광고 기획이야말로 제 의도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진로를 광고직으로 정하게 되었고, 현재 대가대 언론광고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p> <p>Q : 지원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그럼,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해보세요. (인성공통문항)</p> <p>A : 저는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가치를 찾았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저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먼저 경제적 독립을 해야 타인에게 예속되지 않고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여기서 중간에 약간 답변이 엉켜서 양해 구하고 다시 생각 정리함)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돈을 좇기보다는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된다면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을 가지기 위한 절차 중 기본이 되었음을 판단하여 이후의 삶은 무엇을 하던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p> <p>(이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접관이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말했다고 말하셨고, 이후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음)</p>				

Q :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유용한 물품이다. 하지만 이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A : 저는 사용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유용하다보니 우리는 스마트폰에 저절로 의존하게 되어 중독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닌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 소통이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되었다.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A : 직접적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캠페인, 광고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많이 노출시키면 자연스럽게 직접적 소통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다른 질문을 하나 더 준비해와서 면접관에게 다른 시각으로 이 질문을 접근했다며 답변을 말해도 되냐고 여쭙고 허락받아서 대답함.) 저는 VR같은 가상현실 기술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현실같은 가상공간과 실제 사람과 같은 상대방을 구현하여 가상현실공간에서 현실과 같이 소통을 한다면 간접적 소통과 직접적 소통의 경계가 무너져 미래엔 면접관님이 제시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대학교육은 고등학교 때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A : 대학은 고등학교와 달리 과를 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는 자율성, 능동성, 그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대학은 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 광고는 고교생활 도중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입니다, 향후 광고와 관련된 제 꿈을 위해서 시 작을 대가대 언론광고학이 함께한다면 참 영광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어교육과		7	
전형명	DCU자기추천전형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인드 면접 ◆ 교수님(2명) : 학생(1명) ◆ 면접 도우미분들이 교수님 중 한분은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말씀해주셨으나 실제로 보니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라고 생각되어서 떨렸음 ◆ 면접 가이드북(예상질문) 꼼꼼하게 준비하면 좋음 			

면접 형식

Q : 지원자도 스마트폰 사용하죠?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족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A : 가족 간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가장 의지가 되고 저를 믿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은 가장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함을 느끼고 서로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자신의 어떤 특성이 교사가 되기에 적합한가요?

A : 저는 준비성이 철저하여 전달력이 좋습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 <공업입지론>이라는 비문학 지문을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발표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여 공부하였으며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해서 준비했던 자료들을 모두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발표를 마친 후엔 친구들이 저의 설명 덕분에 지문을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이 과제를 통해 저는 제가 어려운 내용도 쉽게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달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포리 질문) 국어 수업 시간 말고 영어 수업 시간에 발표한 건 없나요?

A : 없습니다. (있었는데 긴장해서 말이 이렇게 나왔어요)

Q : 영어공부를 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A : 영어지문을 내용에 맞게 간단한 그림으로 그린 후 그 그림을 보고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과학 지문과 같이 배경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지문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만화를 그리는 것처럼 내용을 그림으로 단순화시킨 후 그 그림을 보며 스토리텔링하니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Q : (포리 질문) 스토리텔링한다는 게 읽기를 말하기로 바꾼다는 것인지?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어 이야기한다는 건지?

A :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어 이야기했습니다.

Q :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A : 저는 봉사동아리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동복지센터에 가서 속담을 제시하고 그 속담을 몸으로 설명하는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속담을 알아보고 그걸 도화지에다가 쓰고 높은 득점을 한 팀에서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모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Q : 어릴때부터 쪽 교사가 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영어를 제일 좋아하게 되었나요?

A : 네. 저는 원래 영어를 못해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힘든 일이 있어서 복도에서 울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영어선생님이 저를 보시고 위로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 엄청 고마웠고 이 은혜를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은 영어성적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가 제일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하지 말고 자신의 소신대로 대답할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5	
전형명	자기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순서대로 한명씩 들어감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왕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Q : 유아교육으로 진로를 정할 때 도움을 받은 책이 있나요?

A : 간호학과와 유아교육을 고민하던 중 ‘그들도 아이였다’라는 책을 읽고 유아교육을 배우기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아이였다’ 책 내용은 유재석, 대도서관 등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과 조연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지금은 인정받는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꿈을 가졌을 때 모두들 포기하라고 말할 때 주변에 한 명만이라도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제가 미래에 가르칠 아이들이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안돼’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그럼 한번 해 볼까? 선생님이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Q : 입학 후 혹은 졸업 후, 친구들과 혹은 교사들과 어떻게 지내고 싶은가요?

A : 모르는 것들을 물어보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 및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입학 후에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과 궁금증들을 공유하고 많은 경험을 함께 키워가며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교사가 되어서는 학생 때 키워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고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더 나은 방법들 또는 놀이들을 공유하고 배우며 바르고 건강한 아이들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자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 있나요

A : 저는 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장점은 사교성과 리더십이 뛰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 속에서도 앞장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것을 되게 보람있게 느끼고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외동아리인 YMCA에 소속한 ‘열아성’이라는 동아리의 부회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리더십들을 인정받아 제가 다니는 학교 전교 부회장으로도 활동했습

니다. 그밖에도 부실장, 방송부 부장 등을 하면서 리더십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저의 단점은 키가 작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사회에서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물론 유치원 교사를 하더라도 불편한 점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점이 유아교육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친구같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장점과 단점은 유아교육과에서 더욱더 많은 빛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유아교육과에 입학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정말 교수님들이 질문하자마자 내가 준비해왔던 말들이 생각이 나지 않고 면접 분위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무조건 잘 웃는 게 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을 볼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머리도 만지고 제스처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운 것에 대해 후회가 되게 크고 최초합격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해서입니다. 무조건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답했으면 조금 최초합격의 확률이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응용화학전공	○		
전형명	DCU자기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입장 후 수험표와 신분증 확인 후 휴대폰 제출 ◆ 수험번호 순서로 면접 진행 ◆ 면접 전 3명 대기실 제일 앞자리에서 대기 ◆ 본인 차례 전 면접실 문 앞에서 대기 ◆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 면접 진행		
유의사항	◆ 교복착용, 학교명 발언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식당에서 가족들이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 아무 대화 없이 너무 조용합니다. 가족들 모두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는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A :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일에는 학교를 늦게 마쳐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도 바쁘셔서 늦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이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말이면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 식사 자리를 통해 얼굴을 보곤 하는데 이러한 시간까지 휴대폰으로 인해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집의 경우에는 식사 시간만큼은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처럼 가족 간의 규칙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대학 생활 동안 교과 외 활동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A : 저는 교과 외 활동으로 학교 홍보대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 또한 입학박람회에서 홍보대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저도 누군가가 저로 인해 이 학교에 지원하게 하고 싶으며, 지원한다면 뿌듯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Q : 공동체성 2번(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봉사나 약자를 위해 배려한 사례와 그 활동에서 인상깊었던 점을 말해보시오. 또, 앞으로 자신이 가능한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문제를 소리내어 읽고 답변해보세요.

A : 저는 고교 시절에 양로원이나 헌혈봉사를 주기적으로 갔습니다. 이로 인해 봉사의 참됨을 깨달을 수 있었으며 또,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노인 분들께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어서 한 것뿐인데 그분들이 감사의 인사를 하실 때면 뿌듯함을 느꼈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향후 저는 해외 봉사 등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면에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졸업 후의 진로계획과, 그리고 장래 진로와 관련한 학업계획을 말해보세요.

A : 저는 어떤 것을 분석해내는 저의 성향과 또, 저의 관심사인 화장품을 통하여 화장품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또, 학업계획으로는 분자들의 성질이나 성분들을 분석하며, 여러 실험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Q : 궁금한 점이나 준비한 것 중 질문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A : 저는 아직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학과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저를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또, 앤드류 카네기의 말 중 ‘기회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없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 뿐이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알게 된 후부터 저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이 면접을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제 진심이 면접관님께 전해져 면접관님께서도 제게 주어진 기회를 제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율전공학부		5	
전형명	DCU자기추천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정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이름, 교복X, 출신지역, 고등학교 언급 안됨. ◆ 대기시간 중 핸드폰 제출.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왕따를 당하는 친구나 학교 폭력을 겪는 친구를 주위에서 본 적이 있었을 텐데요, 불합리한 폭력에 맞서 약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주위에 있을 때 지원자는 어떻게 도와주고 싶습니까?

A : 저는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친구가 안정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친구가 저에게 힘든 점을 털어놓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센터를 추천해주거나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의 버팀목이 되어 친구가 저에게 의지하여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Q : (꼬리질문) 학생은 그렇게 하여 친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적이 있나요?

A : 저는 왕따를 당한 친구를 도와주지는 않았으나 이와 비슷하게 평소에 말이 없고 다른 친구와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친구를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가서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하고 같이 밥을 먹여주는 등 친구와 같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다른 반이 되었을 때도 그 친구는 그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 적응하고 놀 수 있었습니다.

Q :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푸는데 20일이 주어진다던 문제를 푸는데 하루, 문제를 정의하는데 19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는 왜 곤장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A :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곤장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19일 동안 문제의 정의를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게 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Q :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삶을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써보다면 각각 어떤 모습인가?

A : 첫 번째는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심리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헬스케어 로봇과 융합하여 사람들에게 상담심리의 일을 해 주는 것입니다. DCU스토리북에 나온 '스텔라 장학생 이혜민'선배님의 인터뷰를 읽고 저 또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과 활동은 물론이며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하여 나중에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상담심리센터를 지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기에 저의 능력을 활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기계가 하는 일이 다양해졌기에 헬스케어 로봇을 활용해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제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상담심리의 일을 해 볼 것입니다.

Q : (꼬리질문)학생은 상담심리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2학년 때 진학하고 싶은 과는 뭔가요?

A : 저는 2학년 때 심리학과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Q : 우리 학교에서 인기 있는 과인데 열심히 해봐요.

A : 네.

Q : 타인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가?

A : 타협을 통해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을 해결할 것입니다. 타협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양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학 기간 중 조별 과제를 할 때 서로 의견이 달랐던 상황에서 타협을 통해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을 통해 마고에 마을 아이들에게 영어 동화를 만들어 주는 것을 주제로 조별 과제를 했습니다. 영어 동화를 제작하는 과정 중 한 친구들은 마고에 마을 사람들의 문화에 근거하여 동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동화이기에 자유롭게 만들어도 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저희 조원들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 스토리 구상을 하고 이후에도 논의할 의견이 생기면 서로 양보하여 의견을 합치시켰습니다.

Q : (꼬리질문)조원 중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A :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가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왜 주장하는지와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해보고 친구 의견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원들에게도 친구의 의견에 대해서 소개해줄 것입니다.

Q : 그럼 학생은 그 친구에게 설득당한다는 것이네요?

A : 네.

Q :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학생에게 기회를 줄게요. 오늘 부족하거나 보충하고 싶은 답변 있으면 말해보세요.

A : 제가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너무 오고 싶은 나머지 긴장을 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저를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입학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교수님! 내년 3월에 꼭 뵙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이름 말하면 감점 요소 되니까 주의하기.
- ◆ 긴장하지 말기.
- ◆ 질문 4개 정도에 답변 시간은 2분 정도.
- ◆ 꼬리 질문 많이 함.
- ◆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 할 말 할 시간 주니까 마지막 말 준비해가기.
- ◆ 질문 요지에 맞는 대답 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제약공학과		7	
전형명	DCU자기추천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인성 2개, 창의력 2개, 미래지향성 2개, 공동체성 2개		
	유의사항	◆ 큰 목소리, 깔끔한 옷차림, 최대한 예의 있게 행동할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왕따를 당하는 친구나 학교폭력을 겪는 친구들을 주위에서 본적이 있었을텐데요, 불합리한 폭력에 맞서 약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참 의미있는 일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주위에 있을 때 지원자는 어떻게 도와주고 싶습니까?

A : 저는 현재 모든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이 가해자 중심의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급에서 중심이 되어 왕따를 당한 친구가 다시 학급에 소속감과 자신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께 왕따를 당한 친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니포와 같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이라는 얼룩이 지지 않도록 막을 것 같습니다.

Q : 지원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그럼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해보세요.

A :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미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의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신 부모님의 입가에 미소와 행복을 드리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지원동기

A : 저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난치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병은 약의 발전으로 인해 먹는 약도 줄어들고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막연하게 신약을 만들고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입학박람회 학과체험을 하던 중에 제약공학과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고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의 저는 약의 모양과 성분조사 그리고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어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약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최근 제약공학과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해 보세요.

A : 위염, 위궤양, 위식도역류 등 위장 질환의 치료제로 쓰이는 의약품을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약국에서 구매할 수도 없는데요. 이 약의 주원료에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라니티딘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약물입니다. 이 성분을 사용한 위장약은 모두 사용되지 않고 국내에 허가를 받아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의 모든 의약품은 모두 판매 및 제조 수입을 중단하고 처방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이는 위장약에서도 이렇게 안 좋은 발암물질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약의 양면성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 약과 독극물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하세요.

A : 약은 병이나 상처 따위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해 먹거나 바르거나 주사하는 물질이고, 독극물은 사람의 몸에 접촉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조직을 파괴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한가지 예를 더 말하자면 아스피린은 현재 우리가 진통, 소염, 해열의 효과로 많이 복용하고 있는 약입니다. 또 이 약은 암 예방과 심혈관질환에 효과가 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점막을 손상시키고 드문 경우 어린아이들이 먹었을 때 뇌와 간을 손상시킬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약은 우리에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아무리 약이라고 해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독극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대학 졸업 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A : 저는 3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20살 때 대학교에 입학할 하여 교수님들의 질 좋은 수업을 듣고 그것을 갈고닦으며 제 것으로 만들어 기초를 쌓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30살에 제약회사나 연구원이 되어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고 누군가를 짓밟아 가며 1등하는 것보다는 모두 다 함께 한번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 다 배려와 협동을 하여 같이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40~50살 때는 사회가 변하는 것처럼 제약 산업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변해가는 제약산업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 제약공학과에서 꼭 배우고 싶은 것이 1개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A : 고등학교 2학년 때 포괄적으로 신약을 만들고 연구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박람회 학과체험을 하던 중에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약공학과 학회장께 제약공학과에서 배우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던 중 저는 약의 성분조사와 약의 모양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이 가서 약의 성분과 모양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Q : 대학 입학 후 대학 생활을 통해 하고 싶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A : 대구가톨릭대학교 제약공학과 홈페이지를 보던 중에 제약공학과 네이버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선배님께서 적으신 글을 읽게 되었는데 제약공학과 약리학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논문과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보고 저도 이렇게 하면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 저는 고등학교 2년 동안 합창부에 있었습니다.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음입니다. 저는 이 화음을 맞추려고 친구들과, 선후배와 함께 서로 배려와 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배려와 협동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과 생활 그리고 연구 활동 모두 하나의 화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것 역시 서로 배려와 협동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합격 예상. 처음에 떨지 말고 밝게 웃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떨지 말고 준비했던 거 그대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가톨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조리외식경영학과			
전형명	학생부 교과 (DCU자기추천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0	
	면접절차	◆ 오전, 오후 시간대 2조입니다. 저는 오후 시간대에 걸려서 30분 전에 미리 학교에 가 있었습니다. 학생 대기실에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자기 번호를 부를 때까지 앉아서 대기하였습니다. 번호를 부르면 면접장으로 이동하는데 면접장 밖에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3개 있었지만 2명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 본 친구가 나오면 들어가는 식으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은 2:1이었고, 면접관분들과 학생의 의자 거리는 다른 학교보다 거리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교복 착용 금지이고 학교 어디 나왔는지, 부모님직업 일체 발언 금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복 입고 갈 경우 학교에서 주는 검은색 망토 있어서 그거 입으면 됩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리에 착석하자마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조리에 관심이 있었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보면 거기 계시는 셰프님들의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해보며 흥미를 길러갔고 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꿈을 길러 왔습니다. (나머진 기억 안나요)

Q : 1인 가구의 증가가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 아무래도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외식산업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1인 가구를 겨냥한 음식들이 많이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하여 혼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1인 가구가 줄지 않는 한 외식산업은 꾸준히 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본인이 1인 가구 증가가 외식산업에 발전을 미친다고 하었는데 편의점 도시락 급성장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편의점 도시락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부분에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단점은 건강이 안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만큼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안좋은데요, 이러한 점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편의점 도시락도 건강할 수 있는 웰빙 도시락을 만들어 개선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Q : 지원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그럼,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말해보세요.

A : 보통은 호텔 쪽에 들어가서 취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호텔에 취업하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 생각합니다. 취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성공하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저희가 질문하지 않은 것 중에 말하고 싶은 거나 마지막 할 말씀 있으십니까?

A : 저는 정말 이 학과에 오고 싶어서 이 전형 말고도 다른 전형으로 2개 더 지원하였습니다.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전문대에 입학하여 편입학으로 이 학과를 꼭 올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 학과에 오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저도 면접 떨어져 죽을 뻔했습니다. 청심환이나 긴장 풀어주는 민간요법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친구와 계속 면접 실전 연습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많이 하면은 막상 면접 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대답을 잘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순발력을 기르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99	
전형명	서류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1차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자기 순번 되면 조마다 4명씩 2차 대기실로 올라감. 2차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1명씩 면접 보러 들어감.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시 스티커로 학교 마크 가려야 함. (교복 입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음) ◆ 휴대폰, 전자기기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부정행위)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자가 간호학과를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 제가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신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계신 동안 어머니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탐색하였습니다.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간호사의 다양한 분야 중 종양 전문 간호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살펴주셨던 암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암과 맞서 싸우며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종양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종양 전문 간호사가 되면, '죽음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암에 걸린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그들을 지켜보며 함께 고통받는 보호자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강인한 간호사, 정확한 판단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하는 유능한 간호사,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인간미 넘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Q : 생기부에 종양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적었는데 종양 전문 간호사가 특별히 가져야 할 마음은?

A : 저는 종양 전문 간호사는 다른 병동 간호사들보다 더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암환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험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모두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 : 3학년 국어 세특에 응급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썼다고 적혀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A : 서울 같은 곳은 응급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로 치료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 더 심해지거나 심하면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증상이 심할수록 먼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글을 썼습니다.

Q : 학창 시절에 갈등 상황 겪은 것이 있는가?

A : 저는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편이기도 하고,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겪은 갈등 상황은 없었고, 다만 제 친구들이 사소한 오해로 싸웠을 때 친구들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며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Q : 과학독후감 상을 받았는데 어떤 책으로 독후감을 썼는가?

A : 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책을 읽고 물론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난치병과 불치병 치료제 개발의 열쇠여서 이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찬성하는 글을 썼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저는 이런 학생이 되겠다 하는 포부를 3S 단어를 이용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SPEEDY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시는 지식을 스피치처럼 빠르게 흡수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STRONG 아무리 공부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강하게 버티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SPECIAL 대구과학... 죄송합니다. 쓰지도 않은 대학을 왜 말했지(당황해서 황설수설함.) 대구대학교를 빛내는 스페셜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마크를 뽑아서 코팅까지 해서 면접 보기 전에 상의 안에 넣어놓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할 때 빼서 손에 들고 대구대학교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함. 면접관들 웃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대구대학교를 대구과학대학교라고 말한 것이 큰 마이너스가 되었을까요? 후배분들은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면접 보고 오세요. 면접관분들 두 분 다 친절하시고 잘 웃어주십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서류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5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 대기실 → 본인확인 → 면접장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학교명, 수험번호, 이름 언급 금지) ◆ 전자기기 제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또래상담동아리 기장을 한 경험이 있는데, 동아리 활동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A : 저는 스승의날 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부원들의 의견을 모아 교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조리사 선생님들, 학교 지킴이 선생님께도 손편지와 작은 화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분 한분께 직접 전달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더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부원들 또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해주어 동아리 기장으로 보람을 느꼈던 활동이었습니다.

Q :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영어로 발표 활동을 하였고, 1, 2학년 때까지 진로 희망이 간호사였다가 3학년 때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로 구체화 되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고등학교 시절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미스터 나이팅게일’,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등의 독서 활동을 하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의미한 생명 연장 시술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여생 동안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글쓰기, 발표 활동 등을 하면서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Q : 3학년 진로 활동에서 ‘암 환자의 통증 치료 및 진통제의 종류’라는 제목의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활동에서 통증 치료에 대해 대중들이 가지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이었던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 통증 간호에 있어서 환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통증 부위와 통증 강도를 잘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에 따라 적절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이 통증 간호의 첫걸음임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마약성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Q : 남성이 간호사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드물고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겪은 어려움이 있었나요?

A : 사실 이것도 ‘미스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책을 읽고 극복하였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막연히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선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편견을 주기도 하여 자신감을 잃고 많이 방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미스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문광기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타인의 잣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를 상상하니 가슴 벅참과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남들에게 당당하게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Q :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고 그것이 간호사가 되었을 때 어떤 도움이 될지 말씀해주세요.

A : 저는 차분하지만 끈기가 있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배려심이 있어 항상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또한 우수하여 제가 장차 간호사가 되었을 때 환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봉사활동 기록을 보니 구미시립요양병원에서 지속적인 봉사를 하셨는데, 봉사 과정에 있어서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 특별한 일이나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A : 봉사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반성했던 내용에 대해 말한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Q : 여기까지 먼 길 오셨는데,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저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가 되고자 열정을 가지고 고등학교 시절 또래상담동아리, 자율활동, 보건 수업 수강(공동교육과정), 탐구 활동 그리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발표 활동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 주고 환자에게 육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 또한 제공해 줄 수 있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곳 대구대학교에서 공부하며 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소서와 생기부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마디는 꼭 준비해 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찰행정학과		7	
전형명	서류면접전형(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관 2 : 학생 1 ◆ 사범대 1호관(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와 같은 고사장에서 대기) ◆ 9시 20분까지 입실, 9시 40분부터 면접 시작 ◆ OMR에 자신의 이름과 학과, 수험번호 작성, 작성 후에 개인 인적사항을 가리는 스티커를 부착 ◆ 대구대는 가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자유롭게 자리 착석, 자신의 앞번호가 나가면 문 앞 의자에서 대기 ◆ 면접에 들어갈 땐 OMR 두 장만 들고 입장 ◆ 한 사람당 평균 10분 동안 진행 면접이 끝나면 격리되어 퇴장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가능 (교복을 착용할 경우 스티커로 마크와 이름을 가림), ◆ 대기실에서 핸드폰을 수거함 ◆ 준비해온 자료 볼 수 있음 ◆ 대기실 분위기가 매우 엄숙함 ◆ 면접 도중 자신의 이름과 출신 학교를 암시할 수 있는 말을 하면 감점이나 불합격 처리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급 반장을 2년 동안 해왔는데 학급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나요?

A : 각 반에 30명 이상이 모이니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의견을 내는 친구들도 반에 목소리가 큰 친구들이나 자기주장이 강한 친구들이 의견을 내니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익명 채팅방을 만들어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반의 의견 차이는 줄어들었고 최상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Q : 경찰이 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부서에 들어가길 희망합니까?

A : 지금 대한민국의 범죄 추세가 흉악해지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아동과 여성의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범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경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학생들 눈에만 보이는 학교 속 문제와 범죄를 겪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청소년계에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Q : 학교 속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A : 학교 폭력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은근한 따돌림, 학생의 흡연, 음주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 학생들의 흡연과 음주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A :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의 음주와 흡연의 문제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경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Q : 2학년 때 동아리에서 인권을 조사했다고 했는데 경찰의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솔직히 저는 지금 경찰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면 과잉진압이라고 하며, 경찰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경찰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인권은 저는 ‘한 번 출동한 경찰은 다시 되돌아온다는 법은 없다’라는 글귀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인권을 좀 더 존중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지금 학생은 경찰의 직무수행과 인권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A : 아닙니다. 저는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는 도중 발생하는 인권 침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경찰의 인권 문제로 끝없는 꼬리 질문을 하심)

Q : 3년 동안 꾸준히 급식 봉사를 한 것 같은데 자신이 한 봉사활동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 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해 일하는 봉사활동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알아보던 중 독거노인 분들과 고아를 위해 봉사하는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찾게 되었고 저는 그 봉사를 3년 동안 매달 꾸준히 해오면서 저의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Q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노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경찰이 구체적으로 그분들께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 경제적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께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폐지 노인 문자마 폭행 사건’처럼 노인을 향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순찰을 강화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사회과학계열에 희망하는 학생이 다른 과목에 비해 사회 과목의 성적이 저조한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A : 대학에 들어와 기초적인 학문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배워나가겠습니다.

Q : 대학에 와서 기초적인 학문을 배우겠다 말씀이신가요?

A : 전문지식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면 당연히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보셔도 됩니다.

A :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올해 처음으로 생긴 전형이라 그런지 생기부를 아주 꼼꼼하게 보심. 면접관님 중 현직 경찰이신 한 분은 면접 10분 동안 교수님의 프라이드가 엄청나다는 걸 실감할 정도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자신이 생각하는 답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표정으로 티를 냄. 꼬리물기 질문으로 자신이 준비한 답변에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자신의 의견을 곳곳하게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눈치껏 자신의 의견을 굽히고 교수님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할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에 생기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교수님들이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웃지도 않으시고 냉정한 태도를 취해도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교육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서류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대1 면접, 앞번호가 면접 시작하면 혼자 자리 이동해서 대기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가능, 학교 로고 가림 ◆ 전자기기 제출,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국어 성적은 높고 일정한 데 비해 타 교과 성적의 등락 폭이 큰 이유?

A : 교과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잘 이해되고 흥미 있는 과목이 있는데 비해 친구들과 선생님께 물어보고 몇 번을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흥미 있는 과목은 공부 시간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과목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 희망 키움 공부방 활동을 하면서 가르치기 쉽지 않았을텐데 시도했던 공부 방식은?

A : 확실히 초등학생들은 중, 고등학생에 비해 집중 시간도 짧고 산만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방문했던 초등학교 선생님께 얻었던 조언을 떠올려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동영상 같은 시청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과 내용과 연결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Q : 앞으로 선생님이 되면서 미래에 다문화 가정과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날텐데 교사가 취해야 할 태도나 관점을 얘기해달라.

A : 희망키움 공부방의 대상자 역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아님 아이들 간의 거리가 있어서 힘들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처럼 차별하고 멀리하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다. 교육봉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 아이들 역시 다른 학생들과 다를 게 없는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열하일기를 읽었다고 했는데 인상 깊었던 부분?

A : 박지원이 열하에 도착하고 나서 다른 조선인들처럼 오랑캐라고 그들의 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 문물과 더 발전한 문화처럼 배울 점은 배우자는 자세, 또 편향된 시선이 아닌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서서 차별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자세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회복지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서류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p>◆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한 학생 수는 다른 학과보다 인원수가 2배 이상이었기에, 대기실이 2개로 나뉘어졌다. 대기실에 들어서자마자 본인확인을 하고 정해진 자리에 앉았다. 20분쯤 지나서 휴대전화를 거두었고, 조용히 면접 준비를 했다. 정말 조용했다. 또, 면접관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종이를 학생들이 직접 들고 면접 시작 때 직접 나눠드려야 했다. 차례가 돼서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 2명이 앉아계셨다. 두 분 다 노트북을 앞에 두고 계셨다. 질문에 대답을 해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당황하고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풀어주시는 정도의 분위기였다.</p>		
유의사항	<p>◆ 교복 착용 '금지'까지는 아니었는데, '최대한 입지 말 것.'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래서 본인은 사복을 입었는데, 의외로 교복을 착용한 지원자들이 많았다. (나도 입을걸... 하고 생각할 정도로 꽤 많이.)</p> <p>◆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학교, 성명, 수험번호 등 자신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발설해선 안 된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주셨음.</p>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2학년 문화제 때, 에스파냐어로 '오늘의 운세'를 번역했는데, 직접 이 언어를 배우신 건가요? (긴장 풀어주려고 한 질문. 자기소개나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같은 질문은 없이 바로 저 질문함.)</p> <p>A : 번역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p> <p>Q : 아, 번역기 썼구나~ 난 또 직접 배운 줄 알았네.</p> <p>Q :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p> <p>A : 저는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2학년 1학기 진로 시간 때, '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라는 영상을 보면서, 아직까지 좋지 않은 장애인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 이동하기 불편한 주변 건물, 시설들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당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장애인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학년 2학기 진로 시간 때,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발표와 관련 책을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뒤로 장애인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한 해결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까지 제 사회의 전부는 고등학교였고, 아직 부족한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놓치고 있었던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더 배워가고 싶습니다. (관련된 책은 제목을 말하는 것을 추천. 본인은 질문을 읽은 책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안 했는데, 질문 안 하심. 또한 최대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할 것을 추천함.)</p>				

Q : 2학년 때 'All about F&G'라는 어려운 이름의 동아리에 들었었네요, 어떤 동아리인가요?

A : F는 feminism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고, 페미니즘,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히 책 '걸 페미니즘'을 읽고 동아리원들과 많은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G는 gender의 앞글자를 따왔습니다. 젠더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발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questioner'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남자를 좋아하나? 아니면 또 다른 젠더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것인가?' 하며 자신이 어떤 성별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직까지 모르는, 정체성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성과 다양한 젠더,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 모두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왔고, 다수의 사람들이 알 때까지 알리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Q : 봉사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A : 요양병원 봉사에서 한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셔서, 저는 평소처럼 일으켜 드리려고 했는데 제 손을 뿌리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혼자 고민하고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는 자립심과 독립심이 있는데, 자신이 직접 해내고 싶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개입해서 오히려 그 할머니의 그런 욕구를 억압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저만의 봉사의 의미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재정의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얼굴은 웃는 얼굴. 싫어도 10분만 참기. 자연스러운 미소 짓기.
- ◆ 말끝 흐리지 않고 명확하게 하기.
- ◆ 사회복지학과 하면 봉사나 여러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노인, 장애인 쪽으로만 생각해서 생기부를 그쪽으로 비슷비슷하게 채우는 경우가 많다. 나는 면접 오후 조였는데, 면접관들은 오전 조에서 얼마나 많은 비슷한 내용을 봤을지 상상이 간다. 본인 면접 질문에서도 면접관들은 본인의 생기부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음. 너무 노인, 장애인 인권 문제에 한정지어 생기부를 채우지 말고, 더 넓은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 추천. 그렇다고 아예 안 채우라는 것 아님. 절대 아님. 중요함.
- ◆ 준비 최대한 열심히. 본인은 아침에 학교 와서 야자 2부 끝날 때까지 3일 동안 준비했음.
- ◆ 어떤 교수가 면접관 자리에 앉아있을지 모르니, 옛 면접 자료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생기부에 자신이 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 기억해낼 것. 본인도 읽은 책들에 대해서 준비 열심히 해 갔는데 하나도 안 물어보셨음.
- ◆ 면접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예상 못한 질문에다가 준비했던 질문의 답변을 끼워 넣어 답변할 수도 있다. 정말 열심히 임할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심리학과		28	
전형명	학생부 종합 서류면접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 대기(2분)-면접실-면접-퇴실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창 시절 동안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 깊었던 활동에 내용과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A : 저는 3학년 때 개설한 심리동아리에서의 강박증 설문조사 활동이 가장 의미 깊었습니다.

Q : 강박증 치료 방법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A : 강박증 치료 방법에는 허브 테라피와 같은 테라피 치료가 있고, 강박 증세를 보이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 시키거나 완전히 차단하는 등의 행동 치료와 운동을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Q : 그 치료 방법을 통해 강박 증세가 나은 사례가 있나요?

A : 네, 저는 필기 강박증이 있는 친구를 대상으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행동 치료와 운동을 2주간 사용하여 그 친구의 강박 증세를 다소 완화시키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Q : 혹시 학생에게 어떤 강박증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A : 네, 저는 '특이하게도'(강조) 11자로 걷는 것에 대한 집착적인 강박증이 있습니다.

Q : 그 강박증을 고치려고 시도해본 적이 있나요?

A : 아뇨, 저는 제 11자로 걷는 강박증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별 달리 고치려는 시도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Q : 독서량이 많은 편(실제로는 얼마 없음)인데 읽은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과 그 이유가 있나요?

A : 저는 '심리학과 직업세계 1'이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Q : 진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A : 제가 대구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한다면 주 관심 분야인 상담심리학과 청소년 심리를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훈훈했고 답변을 끝내자 면접관 두 분 중 좀 더 나이 드신 여자분께서 “답변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저도 면접실 문 앞에 서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진 긴장돼서 속이 울렁였지만 막상 들어가서 면접관들 얼굴을 보니 정말 뭐라도 해야겠구나 싶은 마음에 도리어 차분해졌습니다. 면접관들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답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만 그거 한다고 답변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그냥 질문하신 면접관의 얼굴만 보고 웃으면서 눈에 힘을 푸세요. 그럼 면접관 얼굴이 투명해질 겁니다. 물론 생각도 같이 투명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단어 발음 교정한다고 말 더듬을 바에야 그냥 어눌한 단어를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앞에 책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손은 겹쳐 배 위에 올려놓은 뒤에 손톱으로 손등을 찌르는 게 다리 떨거나 움찔거리는 것보단 긴장감 완화에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어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서류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위원 2명 면접대상자 1명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본인 성격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 : 저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너무 오래 고민하고 생각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영어교사로서 장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 오히려 장점 아닌가요?

A : 너무 오래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해서 일을 하고자 할 때 두려움이 먼저 생겨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봉사 시간이 300시간이 넘을 정도로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 저는 학생회 임원으로 약 2년간 활동하며 봉사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외 다양한 활동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이 학생회 임원 활동이었습니다.

Q : 의료봉사동아리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A :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배웠습니다. 기본 지식과 이론을 배운 뒤, 실습해보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Q : '영소설을 활용한 영어교육'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되어있는데 작성하였나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영어교사로의 꿈을 희망한 뒤, 효과적인 영어와 즐거운 영어교육의 방법을 알고자 다양한 논문을 찾아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보며 알게 된 점은 영소설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면 학습자가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또 호기심을 유발하여 효과적인 영어교육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수업을 할 때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지는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 저도 모든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파악한 뒤, 공통점을 찾아 최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즐거운 영어란 대체 무엇인가요?

A : 제가 영어공부를 할 때 영어가 좋아서, 좋아하는 매체와 연관시켜 공부함으로써 영어에 흥미가 생기고 호감도도 높아졌습니다.

Q : 교사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Q : 영어와 같은 주요 과목은 성적이 꽤 높는데 특히 영어는 1등급까지 받으셨네요. 하지만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Q : 영어2 독서 활동에 해리포터, 헝거게임 등 영어로 적혀있는데 영문서를 읽은 건가요?

Q : 해리포터 시리즈가 많은데 이후 모든 시리즈를 다 읽었나요?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서류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불가 ◆ 대기실 조용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독서 관련 상이 많은데 책 좋아하시나요?

A : 네 좋아합니다. 제가 받았던 상은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상들이었는데요. 저는 소설, 사회 관련 책, 역사 관련 책을 중점으로 읽었고 특히 사회 관련 책이 많아 선생님께 좋은 인상을 받아서 이러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럼 역사독후감상은?

A : 그 대회는 책을 읽고 책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 글쓰기를 하는 대회였습니다. 저는 ‘한국사를 지켜라’라는 책에 대해서 썼고 많은 독립운동가 중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모습이 선생님께 좋게 보여 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 : 진로가 유치원 교사로 일정한데 이렇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나요?

A : 저는 아이들의 순수함이 좋아 유치원 교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유치원 교사의 자질을 생각해보았고 유아교육 관련 책을 읽고 유아기가 아이들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시기임을 알게 되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대구대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 유아교육과의 전통이 깊고 특히 사범대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통 깊은 학교에서 저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Q : 동아리 활동 중 특히 음악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활동이 후에 교사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줄런지?

A :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유아 수업에 음악적 요소가 활용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교사가 음악적 자질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중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음악적 자질을 키웠을뿐더러 아이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관찰력을 길렀습니다.

Q : 보육실 봉사활동 하셨는데 무슨 활동 했나요?

A : 저는 보육원 봉사에서 보육선생님을 도와 아이들을 통솔하고 돌보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외부에서 온 저를 어색해하였고 하는 행동도 경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먼저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 아이들 곁에 가서 “나는 너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며 그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려 노력하였습니다. 점차 아이들은 경직된 모습은 줄어들고 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에선 서로의 신뢰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아이조아 동아리에서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저희 동아리에서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저는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핀란드를 예시로 하여 우리나라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먼저 핀란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아이들 물품이 들어간 베이비 박스를 지급하였고 핀란드에 있는 모든 건물의 계단 옆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는 턱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핀란드와 같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면 우리나라도 출산율을 해결할 수 있리라 생각합니다.

Q :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치원 교사로서 함양하고 있는 자질과 부족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A : 저는 교사에게 관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통솔하고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장점, 특성을 알아보고 그 아이의 장점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중 앞서 말씀드렸던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행동을 주시하며 관찰력을 기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내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특정 반응을 이끌기 위해 교사는 재촉하는 것이 아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감정적으로 어려서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기부 기반은 정말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도움이 되는 듯해요. 교수님이 물으셨던 질문은 다 준비했던 답변대로 대답해서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많이 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특수교육학과(초등)	○		
전형명	학생부종합(서류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10분 전에 대기실에서 나와서 기다림 ◆ 교수님 2명, 학생 1명		
유의사항	◆ 수험표, 신분증 필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특수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 초, 중, 고등학교를 통합학교에 다니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어울리도록 지도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서기 활동이 무엇이며 그 일을 하면서 느낀 점?

A : 학급에서 중요한 규칙이나 활동을 정리하거나 출석부를 관리하는 역할이자 학급을 대표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학급 구성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학이 실생활에서는 잘 이용되지 않는데 배워야 하는 이유?

(정확한 질문이 기억 안 나요)

A : 저도 평소에 수학의 실용성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개념이나 공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힘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생활 속에서 수학의 사용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기본 학문으로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논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봉사활동에서 한 활동과 느낀 점?

A :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자활 활동 과정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 한마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지원동기를 확실하게 준비해가는 것이 좋고, 지원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한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찰행정학과	○		
전형명	교과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대기실에 들어가면 이름을 말하고 임시 번호를 부여받음. ◆ 원하는 자리에 앉아 면접 연습을 하고 있으면 신분증 확인하러 옴. ◆ 3명씩 자리 순서대로 면접실로 들어감. ◆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 임시 수험번호표를 왼쪽 가슴에 달라고 안내함. ◆ 면접실에 들어가면 임시 번호 순서대로 앉으라고 함. ◆ 면접관은 총 3명, 질문은 총 3개 교수님 한 분씩 질문 하나를 함. (인성 1, 전공적성 2) ◆ 3명의 학생들에게 전부 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질문마다 임시 번호대로 1-2-3, 2-3-1, 3-1-2 순서로 답함. ◆ 자기소개는 없고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단정한 차림 ◆ 지역, 가족 직업 및 이름, 본인 이름 및 학교 언급 시 감점 ◆ 신분증 반드시 챙기기 			

질문 및 답변 내용

-인성-

Q : 고등학교 생활 중 학업 외에 특별히 열정을 쏟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A : 저는 학업 외에 댄스부 활동에 열정을 쏟아 3년 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 춤추는 것을 좋아하였고, 땀을 흘리며 춤을 추면 스트레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력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댄스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종목의 운동을 하면 그 종목에 쓰이는 근육만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댄스는 전신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좋아짐과 더불어 전신적인 운동이 되어 전신적으로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댄스부 활동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전공적성-

Q : 우리 학과(전공)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A : 저는 경찰이 되기 위해 먼저 필요한 점을 탐색하였습니다. 이 탐색 과정에서 저는 경찰과 관련된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면 특채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에게 반드시 필요한 체력 단련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댄스부를 통해 춤을 출 때 전신을 사용하여 유연성과 더불어 전신의 체력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에 대하여 알고자 '나는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다(경찰편)'과 같은 경찰 관련 도서 및 학술 자료 탐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찰에 대하여 알아가고 꿈을 키워 왔습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의 구절은 무엇인가요?

A : 저는 사소한 것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찰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그 이유는요?

A : 저는 이 책을 통해 범인을 잡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경찰의 이미지에 사소한 부탁도 들어주는 따뜻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는 따뜻한 경찰이 되고 싶어서 이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그런 경험이 있나요?

A : 아직 없지만 미래에 경찰이 되어 사소한 부탁도 들어주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힘쓰고 싶습니다.

Q : 우리 학과(전공)에 입학하게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 저는 경찰무술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평상시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지만 무술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무술은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고 제압하는 과정에 자신을 보호하고 주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입학하여 경찰무술 수업을 통해 무술을 익히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 여경의 체력 문제를 경찰무술 수업을 통해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무술 수업을 가장 듣고 싶습니다.

Q : 아까 체력증진을 위해 댄스부 활동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태권도와 같은 무술에 대하여 아예 배워본 적이 없는 건가요?

A : 네, 부모님의 반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Q : 왜 부모님이 반대하셨나요?

A : 여자에게 운동은 위험하고 좋지 못하다는 부모님의 인식 때문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Q : 그럼 경찰이란 직업 특성상 위험이 감수되고 경찰을 위해서 위험한 무술을 배워야 할 텐데 부모님이 면접자의 꿈을 지원해주시나요?

A : 당시 운동을 배우고 싶어 했을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부모님은 초등학생 때 여자가 운동을 배우면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고 난폭해진다고 생각하셔서 운동을 못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저의 꿈을 지원해주시고 저의 꿈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되기 위하여 운동을 배우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는 반대 없이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려 하십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 저는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저의 경찰의 길을 탄탄하게 준비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강의실에서 교수님들을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대구한의대 같은 경우 예상 질문 내에서 질문하지만, 예상 질문이 21개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인성 11, 전공적성 12 / 학과 별 질문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인문, 자연으로 나누어져 있음)
- ◆ 추가 질문이 있더라도 답변 내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평상시 답변을 준비하면서 미리 예상 추가 질문을 만들어 준비해두면 더욱더 좋음! (책에 대한 추가 질문은 미리 예상하여 준비해둔 상태였음)
- ◆ 면접관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포박포박 미소를 머금고 대답할 것 (면접관들이 웃고 계심)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한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물리치료학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 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오전반(9:00) 1조에 3번째 순서였고 면접관은 3명 학생도 3명이었다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교복 착용 금지, 이름/학교 언급 불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A : 타 대학교에 학과 체험을 갔었습니다. 학과 체험 중 스포츠 밴드를 이용한 운동법과 스트레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도구를 이용하는 운동법과 치료법에 대해 궁금하였고 물리치료사에 관심을 가지던 중 주위 친구 중 근족막염에 걸린 친구가 있어 근족막염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법에 대하여 궁금해했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에 검색하여 알아낸 방법을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적용하였더니 전보다 나아진 통증에 만족하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물리치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창의성을 발휘한 활동에 대하여 말해보세요.

A : 체육 시간에 항상 같은 준비운동에 지겨워하는 학생들이 준비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체육 차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준비운동에 열심히 참여할지에 대해 생각하다가 체육 시간마다 반복되는 준비운동보다 새로운 준비운동을 하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새로운 동작들을 찾아보며 새로운 준비운동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새롭게 만든 준비운동을 친구들에게 선보인 결과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는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Q : 앞으로 전공을 살려 인생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A : 저는 돈이 부족하여 정기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말마다 자원봉사활동을 다니며 환자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방법을 익히고 저의 전공을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제가 꿈꾸는 물리치료사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Q : 요즘 뉴스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세요.

A :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상 문제에 없는 문제가 출제되어 많이 당황하였고 문재인 케어에 대하여 당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선뜻 말을 할 수 없어 아무 의견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어려웠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예상 문제 이외에 보건, 의료 계열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많이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한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바이오산업융합학부		○		
전형명	학생부교과(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20분 정도 대기 후 면접실에 감. ◆ 학생 1명 면접관 3명이었음.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불참 시 불합격 처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본인이 지원한 학과의 전망을 말해보세요.

A : 바이오산업의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제품군이 식품, 의약품, 화장품인데 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은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파라벤, 프탈레이트 등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발암 혹은 내분비 교란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천연소재를 사용한 화장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4차 산업의 한 분야로써 바이오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Q :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본인 계획을 말해보세요.

A : 저는 저의 최종목표인 가격 대비 고품질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화장품 원료에 대한 지식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전문적인 심화 영어 회화를 배울 것입니다. 또 봉사동아리 '니강내강'에 들어가서 다양한 교우관계 및 선후배 관계를 형성할 것입니다.

Q : 친구들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지 말해보세요.

A : 친구들은 저를 사교성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저는 사교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 학기가 시작되고 반이 바뀔 때 구면인 친구들도 있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반 분위기가 많이 어색합니다. 그때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좋아하는 연예인은 있는지, 최근 관심사가 뭔지 물어보면서 말을 걸고, 친구들도 제 말에 대답을 해주면서 짧은 시간 안에 어색한 분위기가 많이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궁이라는 운동을 하였는데 새로운 후배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제가 먼저 말을 걸어서 후배들을 낯선 환경에 빨리 적응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사교성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돼서 안 웃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웃으니깐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님들 눈을 보면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눈을 마주치니깐 또박또박 말하게 되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한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뷰티케어 산업학과		71	
전형명	교과/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3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 의자에 휴대폰 제출 후 대기-면접-대기실-퇴실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A : 저는 노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색깔로 표현을 했냐고 하면 저는 튀는 것을 좋아해서 강조색으로 사용되는 노란색이 알맞다고 생각해서이기도 합니다. 또 저의 성격과 잘 맞는 색깔이라고 생각해 또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Q : 본인이 지원한 학과(전공)와 관련하여 뉴스나 신문, 혹은 책에서 본 이슈가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A : 제가 인터넷 뉴스 중에 본 것은 화장품의 부작용 사례였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분 중의 하나 때문에 그때 당시의 모든 화장품을 회수해야 했고 또 성분을 고쳐서 환불 및 교환을 해주던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 학교를 졸업한 뒤에 성분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관리 및 화장품 조사도 해보고 싶습니다,

Q : 우리 학과(전공)에 입학하게 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A : 저는 이 학교의 커리큘럼 중에 특수분장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수분장을 알려주는 학교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또 경상도 내에서도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꿈이 분장사인 만큼 특수분장에 대해 알려주는 수업이 가장 궁금하여 입학을 한다면 이 과목을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에 온다면 다짐을 말해주세요(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함)

A : 저는 특수분장사가 되고 싶어서 국가자격증인 메이크업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저의 꿈이 바뀔 수 있겠지만, 꿈이 바뀌어도 미래를 보장 할 수 있는 학교가 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온다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관님과 3:3 면접
- ◆ 블라인드 면접이라 명찰 번호가 보이게 해야 함.
- ◆ 면접장 분위기는 대기실은 정숙이고 면접실 자체도 약간 엄숙함. 면접관 중 한 분은 질문을 하시지 않음.
- ◆ 면접관님 분위기 자체가 모두 다르다. 한 분은 체크하신다고 질문을 하시지 않고 한 분은 다정하게 물어보시고 한 분은 카리스마가 넘쳐서 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다들 눈 마주치려고 노력해야 함.
- ◆ 준비를 열심히 하고 생각 외로 면접 예상 질문이 면접 일자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그사이에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한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상담심리학과			
전형명	교과/ 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A :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준비된 지원자입니다. 저는 심리상담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학급 내에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심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저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격려의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상담에 기본이 되는 경청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상담에 임하게 되었고 상담받는 친구 뿐만 아니라 저 또한 친구들의 고민에 깊게 공감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 공감 능력이 좋다는 칭찬을 듣고 저로 인해 위로를 얻은 모습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이 마음은 심리상담사에 대한 저의 꿈을 더 굳게 다져주었습니다. 저의 1지망 대구한의대학교에 입학하여 저의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Q : 우리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 저에게 상담심리라는 분야는 고교 시절 동안 변하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상담심리과에 입학하기 위해 저는 학교에서 거의 모든 자율 활동을 심리와 연관지어 활동했습니다. 국어 자율발표 수업에서 예술을 이용한 심리치료를 발표하거나 심리 자율동아리에 들어가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고민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Q :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A : 저에게 성공한 경험이 있다면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연습해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소소한 일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험공부나 여러 활동에서 노력한 열정에 비해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가 저는 실패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A : 저는 학생이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멀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붙어 지내던 친구들과 갑자기 멀어져 너무 힘들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함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풀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예상 질문이 한 개 나오고 나머지는 예상 밖의 질문이 많이 나왔지만 침착하게 과장하지 않고 답하니까 잘 대답할 수 있었다. 교수님들도 긴장 풀어주려고 노력해주시고 내 대답을 경청해 주셨다. 면접은 교수님들 분위기가 한뫼하는 것 같다. 긴장하다가도 막상 들어가서 분위기가 편하면 말도 잘 나오는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한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		
전형명	학생부교과(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기다렸음. 면접관과 2:2 면접임		
유의사항	◆ 수험생은 면접고사 예정 시간 전에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함.(20분 전이 적당함.) ◆ 교복 착용은 금지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하여야 함. ◆ 수험생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 대기실로 입실해야 함.(수험표는 없어도 됨)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해당.(관공서 발급 임시신분증 인정) 학생증(재학증명서)에 사진 및 주민번호(생년월일) 등이 표시된 경우에도 인정함. ◆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실 좌석에 대기하였다가 면접고사장으로 이동함. ◆ 고사실 입실 전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도록 함. ◆ 면접고사가 종료되면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면 됨. ◆ 면접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다른 학교와 달리, 꼬리 질문이 없는 형식적인 면접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느낌의 면접이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여러분은 일반 학생과 장애우 학생이 수업을 같이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저는 수업을 같이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장애우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몇 번 가보았는데 가서 같이 퍼즐 맞추기, 작은 서랍장 만들기 등 프로그램 활동을 하였습니다. 생각하였던 것보다 장애우 학생이 프로그램에 잘 따라와 주었고 많이 즐거워하셔서 좋았습니다. 딱히 같이 활동하면서 불편한 점도 없었고, 오히려 함께 더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장애우도 우리와 똑같이 자고, 밥 먹고, 공부하는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수업을 들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Q : (꼬리 질문) 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들은 적이 있나요?

A :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그 장애우의 도우미였습니다. 1년 내내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불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장애우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한 번도 자지도 않고, 책에다 필기를 하였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조용하였고 옆에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면 열심히 필기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묘했습니다. TV나 영화를 보면 보통 이런 학생들은 왕따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 학생들이 장애우 학생을 돕는 모습에 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같이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Q : (꼬리 질문) 반에서 정말 왕따를 당하지 않았나요?

A : 네! 오히려 반 아이들이 장애우 학생을 돕고 같이 밥을 먹는 등 소외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Q : 우리 학부에는 환경 분야와 안전 분야가 있는데 어느 분야가 마음에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A : 저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소방방재환경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사람을 살리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다가 2003년 2월 18일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고 현장에 있는 소방관들과 같이 구조, 구급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과 만약 내가 보탬이 되었다더라면 사상자가 반으로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어서 이 소방방재환경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을 쳐야 하는데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A : (이 질문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면접관에게 “죄송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말을 하였다.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처하라!) 소방공무원 시험에는 3개의 시험이 있습니다. 공개채용과 경력채용, 특별채용이 있습니다. 공개채용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라면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은 소방관련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등 졸업하면 칠 수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특임대와 같이 특전사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칠 수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A : 너무 긴장을 하여서 조사한 내용을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면접관: (웃으면서) 괜찮아~ 잘했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구한의대에 들어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대구한의대에 입학하여 학교 발전에 힘쓰고 싶습니다. 저는 대구한의대에 뼈를 묻을 각오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 자신이 꿈꾸는 장래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 ◆ 예상 문제는 다 말할 줄 알아야 한다.
- ◆ 무엇을 말할 때 사례를 들어 말해라! - 나일 경우 지원동기 얘기할 때 지하철 대참사를 사례를 들었다.
- ◆ 사례가 발생한 연도, 날짜를 말해라. 왜냐하면 구체적일수록 조사를 제대로 했다는 느낌과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면접을 하러 가라! 가면 덜 긴장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한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중등특수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 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3명 학생 3명, 순서대로 질문하고 순서대로 응답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사적인 정보 노출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는 지금 다양한 문화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A :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가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화가 공존할 때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여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 다음은 전공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과를 지원한 동기를 말해주세요.

A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특수학급의 학생 A와 같은 반을 했습니다. 같은 반이어서 A라는 학생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사도 하고 말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기사를 읽고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특수학생들을 도와주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게 되었고,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다음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특수교사의 자질은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A : 제가 생각하는 특수교사의 자질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다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수학생들을 가르치게 된다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학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조금 다른 것임을 이해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꼭 답변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다면 대답해주세요.

A : 저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떤 일을 선택할지에 대한 질문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좋겠지만 잘하는 일을 통해서 남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알고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음.
- ◆ 교수님들도 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음.
- ◆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자신이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함.
- ◆ 긴장을 많이 해서 말실수를 했지만 다시 정정하여 말을 다시 하였고 웃으면서 대답을 하였음.
- ◆ 순서대로 답을 하는 것이어서 대답이 겹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빠르게 생각하여 대답을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이 필요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한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25분(1명당 8분 정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 3명과 3:3 면접		
유의사항	◆ 면접장에서 학생의 개인정보(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명,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를 언급하지 않는다. ◆ 학생의 학교를 알 수 있는 교복 및 액세서리 등의 착용을 금지하며, 단정한 복장으로 면접에 참여한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고등학교 생활 중 학업 외에 특별히 열정을 쏟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A : 저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 심리학, 우울증, 무기력에 대한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리언 또래상담도우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상담사 활동도 해왔습니다.

Q : (추가 질문) 블로그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읽은 책의 제목과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A : 저는 '문제는 무기력이다.'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Q : 1분간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자신을 어필해 주세요.

A :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또래상담도우미 활동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담사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학생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그 학생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했고, 자신감도 많이 부족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친구들과 운동을 같이 해보는 것을 권했고, 저와 함께 스포츠 클럽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는 운동을 통해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고, 친구들과도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상담하는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청소년상담학과에 입학한다면 이러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A : 저는 최근 1년 동안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것을 극복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극복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잘 공감할 수 있는 상담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청소년교육상담학과에 입학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나가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교과 면접전형은 예상 문항을 21개 정도 알려준다. 내가 처음 면접을 준비할 때는 각 문항들을 모두 다른 문항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른 대답을 준비했고, 대답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한 대답들을 외우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준비한 대답들이 과연 면접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답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면접관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내가 내놓은 결론은 ‘경험의 질’이었다. 위에서 봤듯이 나는 블로그 글쓰기와 상담동아리 활동 경험을 주요 키워드로 사용해서 면접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면접관들이 나의 블로그 글쓰기 활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고, 추가 질문도 많이 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경험의 질이 높냐 낮냐를 결정하는 것은 ‘경험의 독특성’인 것 같다. 나와 같이 면접실에 들어간 두 여학생들이 나보다 대답을 더 잘했고, 내용도 풍부해서 나는 면접전형에서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만의 독특한 경험으로 경험의 질을 높였기 때문이다. 말을 너무 못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적어도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면접관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학생의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같다. 정리하자면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진정성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한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한방식품영양조리학부(조리과)			
전형명	교과(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0	
	면접절차	◆ 교수3 학생1로 면접 진행		
유의사항	◆ 면접장이 찾기 어려운 곳에 있기에 다른 학교보다 먼저 도착해서 길 찾기 필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해볼까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한의대 한방식품영양조리학부에 지원한 ○○○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몸에 좋은 음식을 남기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아쉽고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맛과 영양을 다 챙긴 요리를 만들어내면 아이들, 어른들 모두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요리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대구한의대의 한방식품영양조리학부라면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와 그 이유를 얘기해보세요

A : 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제 최고의 장점인 성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하였으며 단 하루도 지각, 결석을 한 적 없이 성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중 저는 제주도 수학여행 제작단이나 옥설을 줄이는 캠페인인 공감친구 만들기 등과 같은 수많은 교내, 교외 활동에 지원하였고 이 활동들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든 활동들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장점은 성실이라 생각합니다.

Q : 자신이 하루 일과 중 매일 빠지지 않고 한 것에 대해 말해주세요

A : 저는 매일 야자시간에 10분 명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여러 지역 사람이 모이는 기숙학교라 지역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는 명상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이해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자기계발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Q : 자신이 꿈을 이루기 위해 특별히 한 활동이 있나요?

A : 저는 주말마다 유튜브를 통해 음식의 레시피를 외운 뒤 실제로 그 음식을 만들어보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와 조리 실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었습니다.

Q : 자신이 제일 자신 있는 요리와 그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에 대해 말해주세요

A :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는 해시 브라운입니다. 해시 브라운은 제가 만든 요리 중 가족들의 평가가 가장

좋았고 처음으로 만든 요리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레시피는 감자의 껍질을 벗기고 사각형으로 잘게 자른 뒤 전분을 빼주고 반을 찌고 남은 수분을 빼줍니다. 찐 감자와 수분을 뺀 감자, 소금, 감자전분을 섞어 반죽을 만든 뒤 팬에 구우면 해시 브라운이 완성됩니다.

Q : 마지막으로 이거는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이나 이거는 꼭 말해야지 붙을 것 같다는 질문 있나요?

A : 저는 제 대학 졸업 후 꿈에 대해서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꿈은 '컨플릭트 키친'과 같은 가게를 여는 것입니다. 미국에 위치한 '컨플릭트 키친'은 종교 문제나 전쟁이 잦은 나라들의 오해와 편견을 음식을 통해 풀어주는 가게입니다. 저도 이 '컨플릭트 키친'처럼 한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 사람들의 인식을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통한 문화외교관이 되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일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한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호텔관광학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 3, 학생 3으로 면접 진행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A :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올 때만 해도 명확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새 학년으로 올라왔을 때 선생님께서 ‘너는 상담해보니 성격이 참 좋다, 서비스직이 어떠냐고 추천해주셨지만 진로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 방학이 되어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호텔에 묵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프론트오피스분께서 고객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진로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제 동생이 로비에서 음료를 쏟았는데 그분께서 침착하고 밝은 미소로 고객의 안전부터 확인하며 대처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 특유의 밝은 성격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태도와 따뜻한 공감 능력이 즐거워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로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우리 학교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

A : 해외 인턴십과 같은 비교과프로그램이 활발히 추진되어 해외에서의 경험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Q :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A : 해외 인턴십과 비교과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로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대구한의대에 입학하게 된다면 대구한의대에서 배운 내용으로 호텔리어라는 목표를 이루어 대구한의대의 이름을 알릴만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현장에서 안내해주는 선배님들이 알려주는 대로 웃는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수님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 ◆ 교수님들이 농담도 해주셔서 긴장을 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줍니다. 크게 긴장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한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화장품공학과		○		
전형명	교과 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면접실-면접 (교수님과 면접대상자가 3:3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절대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 들어갈 때 인사 필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 중학교 때 화농성 여드름이 나서 여드름에 좋다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성 피부였던 제가 악건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품 효과뿐만 아니라 성분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성분들을 알아보다가 흥미를 느꼈고 그래서 이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우리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활동이 있는가?

A : 대구한의대 화장품공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았고 선배들이 직접 만드신 화장을 눈으로 관찰하면서 나도 꼭 이 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실험실과 강의실을 방문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조되었습니다.

Q : 우리 학과 수업에서 듣고 싶은 과목이 있나요?

A : 저는 화장품공학 전공의 화장품 성분 분석공학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듣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고 인터넷과 책으로만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직접 연구해보고 실험해보고 싶어 성분 분석공학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을 볼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하여 말을 더듬는 실수를 하였지만 교수님들이 괜찮다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다독여줌.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면접이 30%이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함. 다 대 다 면접이어서 옆 친구들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럴 필요가 없음. 면접관계서 내가 말할 때 나를 쳐다보지 않고 다른 친구를 보고 다음 면접 질문을 생각하는 것 같았음. 또한 면접관계서 긴장하지 말라고 농담을 하셨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1	
전형명	농어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유의사항	◆ 단정한 옷차림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간호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 저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을 하며 자율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3년간 꾸준히 자율동아리에서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힘든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줄 수 있는 간호학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3년간 꾸준히 해왔던 CPR이라는 동아리에서 심폐소생술이나 기초 응급 처치 방법 등을 실습하며 기초 지식을 배워 그걸 토대로 친구에게 알맞게 소독과 치료를 해주는 등 그런 경험을 자주 하다 보니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식을 넓히며 저의 꿈을 펼치고 싶어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간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돕고, 24시간 환자 곁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그 전에 환자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으며 환자들과 올바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간호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자신이 간호사로서 하고 싶은 분야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저는 응급 분야가 하고 싶습니다. 저의 성격 자체가 신속하고 대처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응급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Q : 우리 학과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선착순으로 듣겠습니다.

A : 저는 'try your best rather than be the best'(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라)라는 말처럼 사람이라면 욕심 때문에 처음부터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최고가 되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호학과에 합격시켜주신다면 탄탄한 사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감 있게 말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말할 기회가 생기면 꼭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전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영학과		2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3		
유의사항	◆ 대기실에서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보기 가능하지만, 밖에 나가서 대기할 때는 못 봄.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와 학업계획을 말하십시오.

A : 대전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노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영전략으로 영국의 럭셔리 브랜드인 지미 추와 같이 구두 브랜드의 최고 경영자가 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인턴에서 주인공이 노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방식이 저에게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인을 채용하는 자체를 꺼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으로 고용하는 것은 도전 의식과 개방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창의적인 글로벌인재를 성장시키는 대전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인사관리를 비롯한 경영체계를 배워 창의적인 시각을 가진 구두 브랜드의 최고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입학 후 모의 토익과 공인 토플 시험에 통과하여 국제교류원으로서의 경험을 쌓아 구두 브랜드의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국제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교류원으로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장기현장실습]이라는 프로젝트가 창의적인 글로벌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저에게 최적화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 후 이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Q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완화 및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말하십시오.

A : 청소년 범죄 발생의 원인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무관심과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며 반응해주는 것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을 교화시켜 안정감을 심어주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학교에서 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범죄가 청소년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Q :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후회되거나 아쉽게 생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대학 생활에서 가장 변화하고 싶은 점 2가지를 설명하십시오.

A : 먼저 대전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글로벌인사이드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론적 탐구를 통해 알게 된 국제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용해보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글로벌인사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제화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우정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 친구들과 항상 학교에서 만나기만 하여 학교에서만 추억밖에 없어 여행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시오.

A : 저는 테트리스 블록 같은 사람입니다. 테트리스 블록이 어디든 잘 어울리고 빈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기숙사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단체생활에서의 조화와 개성 존중 능력을 갖추었으며 창의력을 키워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강점이 된 것 같다. 또한 지원동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전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물리치료학과		17	
전형명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이내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O	
	면접절차	◆ 응용과학관 5층 물리치료학과 대기실에서 3시간 대기한 뒤 면접을 보게 되었음. 3명의 면접관(교수님)과 함께 3명의 학생이 면접을 봄.		
유의사항	◆ 복장 : 자율복 ◆ 신분증 또는 학생증 및 수험표 지참 필수 ◆ 휴대폰 및 전자기기 반드시 끄 것(휴대전화 소리 날 시 퇴장 조치 및 불합격 처리) ◆ 반드시 시간 내 도착하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공통문항) 대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A : 제가 대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효과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치료사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환자의 치료사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과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수집능력을 길러주는 문제 중심학습을 통해 물리치료의 학업역량을 키우는 데 성장의 발판이 되어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물리치료 봉사 동아리에 가입하여 물리치료의 경험을 늘려가면서 근골격계 물리치료사가 되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일을 하는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Q : 왜 근골격계 물리치료사가 되어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A : 이문환 저자가 저술하신 『나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다』를 읽고 우리나라 물리치료사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선진국(미국)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이미 단독병원 개업 허가도 단독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사로 분류되어 임금도 더 많은데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는 단독병원 설립이 불가능하며 단독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낮고 의사의 부속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물리치료사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캠페인 활동 등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Q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일을 하겠다는 말은 처음이네요. 그럼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요?

A :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취득한 뒤 물리치료사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하고, 중년이나 노년에 물리치료사협회에서 물리치료사 환경개선을 위한 일을 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작년에 면접 본 선배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수님 즉 면접관님께서도 자신감 없는 학생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한 말끝을 흐리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거의 맨 마지막 순서로 면접을 보게 되어 교수님이 이미 지쳐 크게 돌발질문은 하지 않으시고 답변을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였고 교수님께서 1분 내로 말씀하라고 하셨다. 장시간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전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법학과	○		
전형명	혜화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에 핸드폰을 내야 했음. ◆ 교복 착용 가능하나 수험번호로 학교 마크를 가렸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선배들이 학교, 이름 거론하지 말라고 했음)

A :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번입니다.

Q : 많은 법학과 중 대전대 법학과를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

A :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대전대에 다니고 있는 선배님이 오셔서 학교 설명회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전대 법학과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법학과 사이트에서 본 대전대 법학과 소개 영상이 저에겐 크게 다가왔습니다. 판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사, 검찰 공무원, 변리사 등 직업 폭이 넓음을 알려주는 것과 법학과라고 마냥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이 멋있었습니다.

Q : 생활기록부에 3년 동안 꿈이 경찰이라고 적혀있는데 경찰행정학과를 내지 않고 법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A : 저는 현재 꿈이 경찰관뿐만 아니라 검찰 공무원, 손해사정사 등 법과 관련된 여러 직업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학과에 지원하여 법에 대해 깊게 배워본 후 저의 적성과 맞는 것을 찾고 싶습니다.

Q :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에 가장 집중하고 싶나요?

A : 저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수학에 관심이 생겨 열심히 공부했는데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수학을 더욱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급 임원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Q : 학생 말대로 수학 성적이 유난히 좋았는데 수학과 법에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A : 아무래도 둘 다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학은 숫자를, 법은 글자를 다룬다는 것이기에 수학을 하면서 배운 빠른 이해능력, 깊게 파고드는 방법을 배우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와 그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 저는 자율동아리 활동인 U&C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유니폼 앤 컬처'의 줄임말인데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 직업을 모아 공통점을 찾고 대화를 나누며 직업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 판검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소개하고 찾아보며 ‘법’이라는 것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네이밍 법안’을 주제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신해철법, 윤창호법, 태완이법 등 다양한 법을 조사하면서 법에 대해 가진 의문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은 부원들과 토의하며 해결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Q : 방송부 동아리를 3년 동안 했는데 어떤 점이 좋았나요?

A : 저희 학교 방송부는 1학년 때 가입하면 부원이 바뀌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부원들과 형성된 좋은 분위기와 협동심을 더욱 질기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생님들은 체육대회, 축제, 입학식 졸업식 등 큰 행사도 저희에게 총괄권을 주시고 저희가 관리하였습니다. 물론 체육대회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긴 했지만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보단 뿌듯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Q :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본인의 성격이 어떻게 도움을 줄 것 같은지 말해봐요.

A : 저는 요즘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서로의 과실을 인정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지’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단호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런 성격이 손해사정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A : 네! 대전대학교 교훈은 진리, 정의, 창조입니다. 이 교훈은 대전대학교와도 어울리는 단어이지만 법학과와도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법을 공부하면서 꼭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 창조는 국민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와 나라에 따라 법도 거기에 맞게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법학과 교수님들을 좀 찾아보고 왔는데 ○○○ 교수님, ○○○ 교수님, ○○○ 교수님, 다른 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얼굴은 잘 매치가 안 되지만 이름이라도 알고 면접에 임하니까 조금이나마 편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3명 중에 2명이 앉아 있었음)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파란 골무를 끼고 왔는데 (진짜 끼고 갔음) 법조인의 상징은 이 파란 골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할 서류가 많은 법조인의 특성상 이 골무는 빠질 수 없는 물건인데 저도 국민들에게 골무처럼 도움이 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3월달에 뵙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나는 자료를 핸드폰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해서 핸드폰만 달랑 들고 갔는데 핸드폰을 냈다. 다른 면접자들은 생기부, 자소서를 복사해서 들고 오던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면접 전까지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음. 생기부와 자소서 꼭 복사해서 가져가면 좋겠다.
- ◆ 교복보다는 깔끔한 정장이나 셔츠를 입고 가는 것 추천. 생각보다 교복 입은 학생은 많이 없었다. 깔끔한 하얀색 셔츠+검은 바지, 정장을 입었으면 한다. 오히려 이렇게 입는 사람이 더 많았다.
- ◆ 내가 접수 한 학교들은 원서를 넣은 순서대로 면접 순서를 결정하는 학교였다. 나는 원서 접수 열리자마자 넣었는데 그래서 오전반 그것도 1번으로 배정받았다. 대전대에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했던 것도 있었다. 면접 순서, 시간 바꿀 수 없다. 어차피 낼 학교면 원서는 조금 늦게 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면접도 초반에 보면 준비한 내용을 다 잊게 되고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
- ◆ 나는 법 관련이라 골무를 준비해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 각자 준비하는 과에 관련된 특이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 ◆ 학교 교훈을 아는 것에 엄청 좋아하셨다. 재학 중인 학생들도 모르는 걸 알고 있다고 많이 좋아하셨다. 꼭 찾아서 가길 바람. 교수님들 성함을 외운 것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았다.
- ◆ 면접 전에 긴장돼서 자소서 생기부 한 글자 더 본다 고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다. 예상 질문이라면 더더욱 그 질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교수님 성함이나 학교 교훈을 한 번 더 보는 것을 추천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전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한의예과	○		
전형명	혜화인재전형(학생부 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준비 시간 15분, 면접 3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제시문 준비 시간 15분 ◆ 면접실 1: 제시문 기반 면접 15분 - 면접관 2명 ◆ 면접실 2: 서류 기반 면접 15분 -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가능하나 블라인드 면접(이름, 출신학교 말하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 <기본소양 문제(15분)>

Q : (문항 1) 대학 생활은 하계, 동계방학이 각각 2달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A : 봉사활동. 고등학교가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연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여 최대한 많은 활동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 학급 임원, 튜터링, 또래 상담자 등의 활동을 통해 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들을 배우고, 한의학적 지식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많은 프로젝트도 진행함. 학업에도 소홀하지 않아 좋은 성적으로 이 면접실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함. 하지만 교내활동에 치중한 결과 외부 봉사활동을 많이 진행하지 못함. 대학에 진학한다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재능기부활동을 하거나, 사랑의 밥차 봉사, 요양원 봉사 등 고등학교 때 많이 하지 못했던 봉사의 한을 풀고 싶음. 특히 대전대 한의에 동아리인 '인칭'이 의료봉사동아리인데, 이곳에 들어가 봉사할 계획도 갖고 있음.

Q : (추가질문)봉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나?

A : 내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나는 타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음. 이 때문에 튜터링 활동도 3년 동안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봉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물론 타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본인이 봉사에 흥미가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함.

(문항 2와 문항 3은 당일 대기실에서 제공. 준비 시간 15분. 준비 시간에 필기한 것 면접실에 못 가지고 감)

Q : (문항 2) 밥을 먹은 후 와 밥을 굶었을 때 혈당량 변화 과정을 설명하세요. 단 우리 몸의 작용과도 연결시키세요.

A : 밥을 먹고 나서: 혈당량 상승한 상태, 인슐린 분비. 인슐린은 이자 b세포에서 분비. 간과 근육세포에 작용.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 근육세포에 포도당 전달.

밥을 굶었을 때: 혈당량 감소.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분비. 글루카곤은 인슐린과 길항작용,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 조절.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에서 분비. 부신 겉질과 다르게 교감 신경에 의해 조절.

Q : (추가 질문 1)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 다시 말해보세요.

A :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 근육세포에 포도당 전달

Q : (추가 질문 2)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환할까요?

A : 잘 모르겠습니다.

Q : (추가 질문 3) 대답을 잘해서 더 물어보는 거니까 부담 없이 대답해보세요. 일단 포도당이 흡수되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흡수될까요? 세포막을 통해 들어가야 할 텐데.

A : 단백질이 통로가 되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침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작은 물질이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 통로를 이용해 들어갈 것 같습니다.

Q : (추가 질문 4) 맞아요. 그렇다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나요?

A : 제 생각에는 단백질을 통과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 같습니다.

Q : (추가 질문 5) 사실은 단백질의 양을 늘려 통로가 더 많아지는 것이예요.

A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Q : (문항 3) 우리 몸에 고분자 화합물이 미치는 영향을 기능과 관련하여 설명해보세요.

A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심으로 설명함. 고분자 화합물은 분자량 10000 이상의 화합물인 것으로 기억함. 따라서 탄수화물에서 단당류, 이당류는 고분자 화합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다당류만 설명하겠음.

녹말 : 식물 저장 탄수화물, 글리코젠 : 동물 저장 탄수화물, 셀룰로스 : 식물 세포벽

단백질

효소 : 물질대사에 관여

호르몬 : 앞서 말한 혈당량 조절을 비롯하여 체온 유지 등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

항체 : 항원 침입 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 대식세포 항원 제시-보조 T림프구-B림프구-형질세포-항체 생성의 순서로 이루어짐.

헤모글로빈 : 적혈구 성분, 산소 운반에 관여

히스톤 : DNA가 엉키지 않게 DNA가 감싸고 있는 단백질

Q : (추가 질문 1)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A : 음... 핵산인 것 같습니다.

Q : (추가 질문 2) 네, 맞아요. 설명해보세요.

A : 먼저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단위이고 RNA는 단일가닥 구조이며.....

Q : (추가 질문 3) RNA와 DNA 중 하나만 설명하라면 무엇을 설명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시간 없어서 RNA 설명 생략하라는 의도로 파악됨)

A : DNA입니다.

Q : (추가 질문 4) 네. 그러면 DNA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 DNA는 염기 서열을 통해 우리 몸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므로 핵 속에 저장되어 있으며, 전달의 역할은 RNA가 대신하게 됩니다.

Q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서류 면접(15분)>

Q : 앞 면접실과는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앞에 문제 어땠나요? 긴장 많이 됐죠?

A :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 재미있었습니다.

Q : 그러면 면접 시작할게요. 먼저 서류 검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학년 때 진행한 활동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비마학술제 생명과학 분야에서 수상하셨네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신다면 어떤 주제로 하셨는지...?

A : 비마학술제는 자유롭게 주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 자율적으로 탐구하여 발표하는 대회입니다. 저는 1학년 때 통합의학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Q : (추가 질문 1) 통합의학이 뭐죠?

A : 현재 일본은 의료가 일원화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한의학적 지식도 갖고 있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 통합의학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Q : (추가 질문 2)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죠? 될 것 같나요?

A : 2030년까지 의료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분쟁 등 양방과 한방 간의 갈등으로 인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 생명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 같은데... 혹시 바이러스가 비생물적 특성과 생물적 특성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A : 네, 압니다.

Q : 한번 설명해보세요.

A : 생물적 특성A : 적응과 진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 가능

비생물적 특성A : 혼자서 증식 못 함. 단백질+핵산 구조여서 생물이라 하기 어려움

Q : 줄기세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역분화 줄기세포... 어려운 것인데... 혹시 배아 줄기세포부터 시작해서 줄기세포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추출하는 세포로, 모든 기관으로 분화가 가능합니다. 반면 성체줄기세포는 특정 기관으로만 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가 더 유망한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윤리성 문제 때문에 발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된 것이 역분화줄기세포, 즉 유도 만능 줄기세포인데, 이는 일반 체세포에서 다시 수정란과 비슷한 형태로 되돌려 배아줄기세포처럼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데요, 윤리성 문제도 없어 유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추가 질문 1) 분화가 뭐죠?

A : 분화란 세포가 특정한 기능을 하는 세포로, 더 이상 세포분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형질세포입니다. 이들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다가 사멸하게 됩니다.

Q : 성적이 갈수록 좋아졌네요. 1학년 때는 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죠?

A : 저는 집중력이 저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학년 때는 집중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 성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겨울 방학 때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등 집중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2학년부터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Q : 오 그렇군요. 저희 사정관들은 이런 것들을 상향곡선이라 해서 좋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요.

A : 오... 감사합니다.

Q : 한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 중학교 3학년 때 한의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병이 치료된 후 어떻게 치료되는 것인지 찾아 보려 했으나, 대증요법이 아닌 원인요법이라는 학문적 한계 때문에 저는 지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더욱 신비감을 느껴 한의사가 되어 알아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Q : 그렇다면 한의학 활동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것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A : 저는 한의학 인식 개선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장 등을 하면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지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왜 한의학을 부정적으로 생각할까'라는 의문

하나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고안하고 실행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비과학적 인식과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둘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백급의 지혈작용 실험으로 과학성을 입증하고, 제가 2학년 1학기 때 한의학 관련 UCC를 제작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소개하면서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Q : 생명과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좋아하나요?

A : 저는 항상성 분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이라는 분야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항상성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진로 희망 사항에 침구과 한의학 교수라고 썼는데, 왜 특별히 침구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A : 일단 일반인으로서 한의원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침, 뜸 등 침구류라 생각하고, 저 또한 침구류를 가장 많이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경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더 깊은 원리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에 가장 신비감을 느껴 직접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침구과라고 기재했습니다.

Q :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A : 개인적 측면으로는 단순히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정신까지 치유하는, 인솔로서 사람을 대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홀대받는다 할 수 있는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제출한 「알로스테시스와 칠정상」 논문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알로스테시스는 신체에 변화가 발생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소모하는 에너지인데, 이와 칠정상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의학이 많은 장점을 갖고 실효성도 갖고 있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이유가 세계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어에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로 한학을 진출시켜 한의학이 발전하고 한의학의 위상이 올라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을 자신감 있게 한 것 같다. 긴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생기부 활동을 실제로 충실히 했다면 서류 면접에서는 쉽게 대답할 것이다.
- ◆ 대학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것이 중요하다. 그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다.
- ◆ 독서 활동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 준비는 해야 한다.
- ◆ 추가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당황하면 안 된다. 모르면 자신 있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좋고, 추가 힌트를 주면 그때는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된다. 고등학교 과정 이외의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생기부나 자소서 관련 질문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대답해야 한다.)
- ◆ 자연스럽게 본인의 인성을 어필해야 한다. ex) 단순히 치료하는 것보다 마음과 정신까지 치료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진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공공인재법학부		26	
전형명	학생부우수자전형(교과)			
면접 형식	면접시간	5~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 대기-면접실-면접-퇴실		
유의사항	◆ 신분증과 수험표 지참하기. ◆ 블라인드 면접-교복 착용 불가, 출신, 출신학교, 부모님 직업 등 개인정보 말하는 것 금지 ◆ 면접관 2명과 수험생 1명으로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 제 꿈은 검찰 수사관입니다. 검찰 수사관에 대한 관심이 생긴 계기는 2학년 국어시간에 진로 관련 서평 쓰기 활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헌법 다시 읽기' 책을 읽으며 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 매체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주로 검사와 경찰이 주를 이루는데 그 뒤에는 검찰 수사관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검찰 수사관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관은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형법, 헌법, 행정학, 형사소송법을 필수로 알아야 하는데 대진대학교에서는 이 과목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은 수사를 하면서 법을 해석하여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배우고자 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지원자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A : 제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제 친언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언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리스타를 하고 있었지만, 비전도 있고 흥미가 있는 직업인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 학원에서 시험을 볼 땐 95점 이상을 맞고 실습도 성실하게 나가 내년에 간호학과로 입학합니다. 뒤늦게 생긴 꿈이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이가 어땠든 꿈을 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있던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을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언니를 보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고 꿈이 있는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 검찰 수사관의 꿈을 꼭 이룰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성적이 낮아서 예비번호를 받은 것 같다. 학교나 학과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서 가고 마지막 한마디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덕성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글로벌융합대학		54	
전형명	덕성인재전형(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블라인드 면접 유의사항) ◆ 면접 시간 준수(타이머로 10분 재고 9분쯤 면접감독관이 노크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소서를 보니 일본어 말고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A : 일본어 시간에는 그날 배운 내용을 발표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는데, 교실에서 에이스라고 불릴 만큼 수업에 열심히 임하여 학우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중국어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고 학우들이 제게 모르는 점을 물어보기도 하며 멘토 역할도 착실히 해냈습니다. 언어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하고 언어를 배울 때만은 누구보다 성실히 임했습니다.

Q : <신토불이>라는 동아리가 노작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를 했나요?

A : 제가 3년간 활동했던 신토불이라는 동아리는 부원들이 직접 학교 밖에서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여 지역사회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봉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2학년 때에는 직접 수확한 배추로 김장을 담가 지역에 불우이웃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Q : 그러면 신토불이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과 느낀 점,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바뀐 점을 얘기해 볼래요?

A : 신토불이 활동 중 독거노인 댁을 3곳 방문하여 직접 그들에게서 우리 고장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삶에 대해 소통한 경험을 얘기하고 느낀 점과 자신의 삶이 바뀐 점을 적절히 얘기함.

Q :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OOO>는 무슨 봉사활동이었으며 느낀 점을 얘기해 보세요.

A : 위 질문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것이라 그냥 봉사활동 답변 예시처럼 대답함. 느낀 점은 무조건 전공과 관련되게!

Q : 동아리 대표를 2년 동안 해왔네요, 리더를 하면서 갈등에 부딪힌 적이 있나요?

A : 이 질문은 언제나 들어올 수 있으니 무조건 준비해야 함. 자소서 3번에 갈등 사유를 적는 것이 있어서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얘기함.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다시 말해도 상관없음*

Q :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19년은 7월부터 진행된 한일 무역분쟁이 시사 문제였기 때문에, 준비했던 답변이라 얘기했음. 여기서 한쪽

으로 편향된 의견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중립에 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낫다. 괜히 한 쪽으로 편향된 의견을 밝히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집요하게 꼬리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나는 양국이 계속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에서 계속되는 이해와 교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함.

Q : 시간이 다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해 보세요.

A : 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말과 대학교의 장점을 어필하며 적절히 배분하여 답변 얘기하기. 여기서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도 좋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덕성여대가 이때 글로벌융합대학인 대학전형으로 뽑아, 인문대학에 1학년 때 자율전공체험을 하는 식의 커리큘럼이었기에 전공 관련질문, 기본적인 질문(지원동기, 자기소개)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이 대학은 인성과 봉사를 상당히 많이 보는 학교였기에 봉사활동을 많이 채워놓아 유리했습니다. 면접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내년에는 다시 학과별로 뽑는다는 얘기도 있으니 그때는 전공 관련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설환경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Do Dream)			
면접 형식	면접시간	5~6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명 한 반에서 대기 ◆ 면접관 : 교수 2명 ◆ 프린트물 허용 ◆ 사은품 증정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 인사하고 들어감. 안녕하십니까? 가번호 ○○-○○번입니다.

Q :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 보실래요?

A :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학생입니다. 많은 토목공학자들의 경험과 노력이 있기에 지금의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토목공학자가 되어 미래 인류의 우주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Q : 진로가 3학년 때 바뀌었는데 이유 한 번 설명해 주세요.

A : 2학년까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컴퓨터 공학 진학을 위해 코딩을 배우던 중 제가 좋아하는 것은 컴퓨터 공학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소 관심이 있었던 물리와 수학을 이용하여 도시를 만들어 가는 직업인 토목공학자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을 통해 저의 적성에 맞는 직업 및 학과 변경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이 했던 활동 중 건설환경공학과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 2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A : 학교 내 하수도 공사의 이유를 조사하고 하수도에 대한 공부를 진행한 후 아이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내 다리 공사를 하중과 관련지어 적재하중을 통해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Q : 현재 토목 관련 직종이 많이 침체되었는데 앞으로 토목공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앞서 말했듯이 현재 지구는 많은 인류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포화 상태가 될 것이고 우주에서의 삶을 이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준비 한다면 토목공학의 부흥이 다시 한번 올 것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A : 많은 토목공학자들의 경험과 능력이 존재하였기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토목공학자가 되어 미래 인류의 우주 생활을 준비 할 수 있는 선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Q :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A :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토목공학과는 수학, 물리 성적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이 토목공학과로 진로 변경을 3학년 때 하니 3학년 때 열심히 활동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영정보학과	○		
전형명	Do Dream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 대기 - 면접실 - 면접 - 퇴실		
유의사항	◆ 신분증 및 수험표 반드시 지참 ◆ 교복 절대 착용 금지(가번호 부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A : 먼저 저는 3년 동안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경영과는 거리가 먼 정책 관련 활동들이었지만 저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들어진 정책이 해당 도시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대부분의 활동들에서 마케팅 분야의 일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제 마케팅 지식과 경영지식의 부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반을 쌓고자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SOYP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래요?

A : Share Only Your Place의 약자로, 환경적 경제적 환경의 불평등을 이유로 같은 청소년인데도 같은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시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장들의 오픈 시간 전, 후, 브레이크 타임 등 짧은 시간들을 청소년들이 저렴한 가격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장님들을 설득했고 개인사업장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win-win하는 정책을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Q : 봉사 시간이 많네요? 어떤 봉사를 했는지 말해줄래요?

A : 대부분의 봉사를 청소년 참여기구로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 혹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회의 진행을 대부분 했고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대회 등을 서포트하는 TF팀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참여기구 위원장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봉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제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의 방향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Q : 동행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A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동행카드는 성남시에서 벤치마킹한 것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다른 청소년들과 하나의 문화를 같이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인 동행카드를 기획하였고 한

달에 5만 원씩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청소년 우대 조례를 개편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명의 친구는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불평등 문제는 줄어들었습니다.

Q : 마지막 할 말 해주세요.

A : 먼저 처음이자 마지막 면접인데 편한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하며 경험적 지식을 쌓았고 다양한 동아리의 장을 하며 이론적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한 지식을 쌓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아웃풋 또한 만들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배울 자세가 되어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에서 이를 더 갈고 닦아 진정한 이 시대의 화쟁형 인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대기실이 넓은데 대기하는 인원은 12명으로 소수입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고 분위기가 엄청 무겁습니다. 대기시간이 짧고 앞사람이 끝나면 말할 사이도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쪽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짧게 말해서 지루함을 덜고 많지는 않지만 적당히 튀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준비를 꾸준히 하고 경영학과와 경영정보학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제통상학과			
전형명	고른기회(농어촌)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 2대 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했던 활동들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경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국제경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경제동아리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무역 전문가 중에서도 중국 통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중국어 교과 시간에 열심히 임하고 중국어 공동교육과정도 이수하였습니다.

Q :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말했는데 그게 뭐죠?

A : 저희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해당 과목에 관심이 있는 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주말에 모여 수업을 듣는 활동이었습니다.

Q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말해볼래요?

A : 일대일로 정책은~

Q : 왜 무역 전문가 중에서 중국 무역 전문가가 되고 싶죠?

A : 저는 중국 자매결연학교와 교류한 경험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친근감을 느꼈고 중국에 방문했을 때 전자 기술의 발전, 공공시설들을 보며 굉장히 발전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동국대는 꼬리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사 문제보다는 생기부 위주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생기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물리·반도체과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불교추천 전형도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전형이라 사람이 10명 정도만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했고, 처음에 한 30분 동안은 면접에 대한 유의사항들 얘기한 후에 가번호 부여받고, 편안히 대기함. ◆ 면접은 2대1로 진행하였고, 바로 면접을 시작함.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노트북,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면접 대기 중에 사용할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2학년 때 물리1 과제연구발표로 장려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어떤 주제를 통해서 상을 받으셨나요?

A : (장려상이라서 솔직히 안 물을 줄 알았고 정확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한 1분 정도 생각한 뒤에 대답을 했음) 저는 망원경과 현미경에 대해 원리가 궁금하였고, 기하광학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 후 발표를 하여 수상을 받았습니다.

Q : 그러면 망원경과 현미경의 원리가 궁금하셔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의 각각의 원리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대물렌즈를 통해서 물체보다 작은 상을 만든 후 접안렌즈를 통해 확대를 하여 봅니다.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대물렌즈를 통해서 물체보다 큰 상을 만든 후에 접안렌즈를 통해 확대를 한 후에 물체를 관측합니다.

Q : 그러면 두 개의 관측원리가 같다고 보나요?

A : (조금 고민하다가 대답함) 네, 결국에는 대물렌즈를 물체의 상을 만든 후 접안렌즈를 통해 보기에 같다고 생각합니다.

Q : 한 개는 물체의 허상을 만들고 한 개는 물체의 실상을 만들어서 보는 것인데, 원리가 같다고 볼 수 있나요?

A : 아...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물체보다 큰 허상을 만들어서 보고,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물체보다 작은 실상을 만들어서 봅니다...

Q : 네, 저희가 한 개는 허상이고 한 개는 실상이라 다른 원리인데 같다고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Q : 저희가 천문학자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왜 천문학자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A : 네, 저는 어릴 적에 뉴턴하이라이트랑 과학동아를 많이 봤었는데, 그때 우연히 뉴턴하이라이트의 블랙홀과

화이트홀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론상에서만 존재할 것 같았던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이론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에 매료되어 천문학자를 꿈꾸게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Q : 그러면 그 천문학이라는 것이 물리학과와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A : 천문학과 물리학은 떼어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에는 거의 대부분이 물리학적으로 증명 또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수학과 물리학은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Q : 그 예시는 무엇이 있나요?

A : 예를 든다면 변광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광성 같은 경우에는 별의 밝기가 변하는 천체를 일컬어서 부르는데, 별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에 의해서 별의 밝기가 변하는 것인지, 별의 반지름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별의 밝기가 변하는 것인지 정확히 하려면 계산을 해야 하고 그 속에 물리학이 꼭 필요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와 자소서를 충실히 보고 활동들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모든 것에 성실히 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 / 농어촌학생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수험표, 신분증 지참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 가수험번호 인사 :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어촌학생 전형 수학과에 지원한 가번호 08-20입니다.
(원칙상 면접고사실 입실 후 꼭 말해야 함)

Q :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동국대학교 수학과에 왜 지원하셨나요?

A : (준비해서 외운 1분짜리 지원동기 말함)

Q : 자소서, 생기부에 통계 관련 활동과 진로 희망이 많은데 통계학과는 아닌 수학과를 지원한 이유?

A : 물론 수학의 한 분야인 통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수학 수업으로 미적분2 수업이 끝나고 더 배우고 싶었던 느낌만큼 순수수학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그러므로 수학에 대해 더 배우고 난 후 응용수학도 함께 배워 통계 분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Q : 자소서 1번을 보니까...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에 관한 연구의 내용이 뭐가요?

A : 피보나치 수열에서 특정 항과 다음 항의 비가 수열을 무한대로 보낼 때 황금비로 수렴한다는 사실과 그 증명 과정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이후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가 실생활에서 사용된 예들을 추가로 탐구하였습니다.

Q : (꼬리 질문) 피보나치 수열에서 말씀하신 비가 왜 황금비로 수렴하는 거죠?

A : (컴퓨터가 계산했다고 답할 수도 없고...) 음... 모르겠습니다.

Q : 조선 시대 속 정치 속에 수학... 자소서에 이렇게 쓰여있네요. 어떤 부분에서 조선 정치에 수학이 있죠?

A : 양란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저는 양란을 극복하고자 실질적 대안으로 수학을 도입했던 조선 시대 수학자 최석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최석정은 '구수략'이라는 수학 서적을 집필하기도 하였고 서양에서 수학 서적을 가져오고 오일러보다 앞서 8차 마방진을 개발한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Q : 전향력 공식 속 사인함수의 의미가 뭐죠? 자소서에 써있는데.

A : 정확히 아니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인함수의 세타가 작아질수록 전향력의 세기도 작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 수학 성적은 지원자들 중에 굉장히 높은 편인데, 국어, 영어 같은 문과 쪽 과목의 성적이 낮네요.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죠?

A : 음... 국어에 대해서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지 않다 보니 글과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수학 관련 책이나 에세이 책을 읽어볼 생각입니다. 영어 과목에서는 영어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 암기를 위주로 극복해보려고 합니다.

Q : 자소서에 쓰여있네요... 테셀레이션이 뭔가요? / 수학적 원리는?

A : 테셀레이션은 '평면이나 공간을 빈틈없이 일정한 도형들로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 원리는 평면테셀레이션의 경우, 한 점에 모이는 도형들의 내각의 합이 360도로 일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 (꼬리 질문) 평면테셀레이션을 분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정규테셀레이션, 준정규테셀레이션, 비정규테셀레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규테셀레이션은 한 점에 모이는 도형들이 한가지의 정다각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정규테셀레이션과 비정규테셀레이션은 한 점에 모이는 도형들의 배열이 여러 정다각형이지만 비정규테셀레이션의 경우 이에 덧붙여서 모든 점에 모이는 도형들의 배열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Q : 수학 체험전에서 한 것과 아쉬운 점 및 극복 방법?

A : 수학 교구인 텐세그리티와 거울큐브를 부스로 운영하였습니다. 텐세그리티의 경우 나무막대에 고무줄을 끼우는 방법으로 만들었기에, 나무막대를 일일이 칼로 파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흠이 파진 나무막대나 쉽게 팔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책과 그 이유?

A :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 '결국 모든 삶은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수학이 다른 분야에 응용되는 모습을 탐구했던 저의 노력을 대변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Q :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한다면, 학업계획과 각오?

A : 제가 만약 동국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한다면, 수학 관련 기본 이수 과목은 물론이고 복수전공으로 통계학이나 연계전공으로 서베이 리서치(조사대상과 직접 접촉하여 조사하는 일)를 들을 것입니다. 또한 동아리를 보니 DUSSA라는 통계조사활동 동아리가 있던데, 그곳에 가입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을 두 번 해 보니 대학마다, 그리고 학과가 다른 만큼 교수님들마다 질문을 하는 형식, 형태가 다르다. 나는 수학과인데도 수학 용어를 질문받지 못했다. 어느 곳 어떤 면접이든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엔 모두가 준비했던 지원동기나 마지막 할 말을 안 물어보는 곳도 많다. 그러니 작년 면접 후기나 친구들의 말에 감정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끝나면 별 거 아니란 생각이 드니 긴장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면접 보길 바란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역사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학생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수 2명, 대기실-복도 대기-면접실-면접-퇴실		
유의사항	◆ 면접실에 들어가지 전까지 자료를 볼 수 있으니 꼭 챙겨갈 것.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김영미 선생님의 '그들의 새마을 운동'을 읽으셨네요.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비판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A :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점을 위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직접 새마을운동을 이끌어낸 농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부가 주도했다고는 하나 농민들의 의지가 없었다면 새마을운동이 실패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 3학년 때 '교사도전'에서 '조선 후기의 문화와 새 경향'이라는 주제로 수업 시연을 하셨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Q : 자기소개서에 다양한 수업방식을 접했다고 했는데 어떤 수업을 경험했나요?

A : 한국사 수업 시간에 강의식 수업보다 거꾸로 수업, 토론식 수업, 하브루타 수업, 연극하기 등의 수업을 경험하였습니다.

Q : 수업방식과 관련된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셨어요. 그중 강의식 수업, 토론식 수업, 거꾸로 수업에 대해 장단점을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었나요?

Q : 본인이 학교생활 중에 읽었던 책 중 인상 깊었던 책.

A : 볼프 슈나이더의 '만들어진 승리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흔히 영웅이라고 일컫는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조명한 책으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역사를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 역사 교사가 왜 되고 싶어요?

A : 학창 시절 역사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용기를 받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교수님께서 간격이 넓게 앉아서서 시선 처리가 좀 힘들었음.
- ◆ 면접을 준비한다면 꼭 독서를 꼼꼼하게 준비할 것.
- ◆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숙지하고 꼭 스토리를 짜놓을 것.
- ◆ 자기소개를 준비했지만 안 시켰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기전자공학부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동국대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인류사회의 자비’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저의 비전과 일맥상통한다 생각하였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자전기공학 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진로가 변경되었는데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A : 저는 제가 지구과학을 좋아하여 아이들에게 지구과학을 가르쳐 주는 지구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R&E 활동을 진행하면서 천체의 스펙트럼을 진행하기 위해 분광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공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휴 허’라는 전자공학자가 사고로 다리를 잃은 후 인공다리를 만들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몸이 다친 사람들에게도 기술을 보급하는 내용을 담은 TED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행에 감명을 받은 저는 또한 과학기술을 특히 전자전기공학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전자전기공학자로서의 진로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 본인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는데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겠지만 미래에 만들고 싶은 기술은 무엇인가요?

A : 저는 홀로그램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뉴스에서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불편한 점 중에 작은 스크린으로 인한 시력감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다 홀로그램 기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하여 스크린의 크기를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이는 스크린을 만들고 싶습니다.

Q : 홀로그램 기술은 무엇인가요?

A : 홀로그램은 홀로그래피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말하는데요. 홀로그래피는 두 개의 레이저광이 만드는 간섭현상을 이용하여 입체정보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Q : 2학년 때 R&E 활동에서 친구들과 협력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을 것인데 본인이 맡은 역할은 무엇이며 활동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A : 저는 분광기를 제작할 때 친구들과 3명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 만들었습니다. 저는 분광기의 전개도를 만들고 자르는 역할을 맡아서 활동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친구들이 조립하고 회절격자필름을 붙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활동에서 겪었던 문제점은 분광기에서 회절격자필름 전체의 빛이 들어오면 스펙트럼을 관측할 때 스펙트럼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여러 대의 스펙트럼이 서로 겹쳐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빛이 입사하는 틈의 정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Q : 수학 성적이 갑자기 향상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 수학 공부 방법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수학 개념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지만 이는 개념이 활용된 문제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개념을 좀 더 유동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주로 수학 개념의 유도과정을 중심으로 공부하여 성적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Q :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 또는 공부 방법을 변화시킨 책이 있나요?

A : 저는 '수학의 유혹'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에서는 수학에 대해 말할 때 딱딱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고 실생활 예를 사용하여 단순히 글로 된 개념에서 더 나아가 유동적으로 수학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에 영향을 받아 수학 공부 방법을 변화시켰다고 생각하여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저의 장점은 약간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화학 보고서 만들기 활동에서 다른 친구들은 보통 학교에서 활동 시간이 주어지면 간단하게 학교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넘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는 것을 싫어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같이 작성한 친구와 함께 주말에 사적으로 만나 보고서의 결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단점은 1학년 때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래상담동아리에 가입하여 동아리 선생님과 의사소통의 기술들에 대해 배우고 직접 반 친구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저는 2학년 2학기 때 진로를 결정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진로에 대한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저의 열정과 동국대학교의 인프라를 통하여 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정보통신공학전공		모름	
전형명	국가보훈대상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어가서 자리에 착석하고 면접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대기. 자신의 앞번호 면접자가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실 앞에 있는 책상으로 가 대기. ◆ 면접관은 2명(남자 1명, 여자 1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학교명 및 본인 이름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희망 학과를 기계공학과에서 정보통신공학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제가 기계공학과에 흥미를 느꼈던 이유는 제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래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3학년이 되고 독서 활동을 통해 IT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에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IT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IT 기술들의 바탕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아 정보통신공학을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Q : 고급수학에서 역행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A : 제가 처음 변환행렬을 구하기 위해 좌표변환의 연변환 관계에 있는 좌표축 행렬을 구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처음 구한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 연산해야 했습니다.

Q : 2학년 국어 멘토 멘티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에는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A : 어려웠던 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 멘티들이 수업의 난이도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멘티들에게 종이를 나누어주어 배우고 싶은 부분과 진도 등을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멘티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활동을 재개했더니 멘티들도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Q :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도서는 무엇인가요?

A : 저는 '선형대수학 with sage'를 가장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사실 선형대수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다루고 있었기에 제가 책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읽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의 원리 등 흥미로운 내용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저는 제가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보다 뒤처져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쌓아온 것을 바탕으로 결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 성격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에 진학하여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동국대학교는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이 대부분 나왔기 때문에 면접은 어려움 없이 끝냈지만 아마 수학과 과학 성적이 낮았던 것이 최초합격을 하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지리교육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Do Dream)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자료 보는 것 허용 ◆ 전자기기 끈 후 가방에 넣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리교육과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 네, 저는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리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지리라는 과목을 처음 배우게 된 후 과학을 좋아하는 저에게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지리가 역사나 정치, 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배우고 싶어서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이 지리 교사가 되면 가지게 될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교사로서 가질 장점인지 지리교사로서 가질 장점인지 둘 다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교사로서 가지는 강점을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속마음을 털어놓기 편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학생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 자소서 4번에서 지리가 다른 학문과의 융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A : 요즘 대학을 들어갈 때도 융합인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로도 융합인재를 많이 뽑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는 역사나 정치, 경제 등 인간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아동복지센터 봉사를 했는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 처음 봉사를 갔을 때 아이들이 낯을 많이 가리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갔을 때 아이들과 친해진 후에 학습을 도와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점점 아이들과 관계가 발전되는 것을 느끼고 학생들과 먼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친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흥미나 취미, 학업성취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효과가 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가 된다면 모두 그럴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 경제의 세계화에 대해서 아는가?

A :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 적혀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당황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시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다국적 기업... 제가 쓰는 휴대폰이나 그런 회사들도 다국적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Q : 지리 관련해서 한 동아리 활동은 없나요?

A : 동아리는 아니지만 비슷한 활동으로 대구지역을 답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침식분지에 대해서 더 궁금해서 대구 와룡산을 방문해서 직접 관찰했습니다.

Q : 답사에서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 좋았던 점은 이론으로만 공부한 부분을 답사를 통해 실제로 보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과 이론으로 배웠을 때와 다른 점, 예를 들어서 저는 구하도의 경우 농경지로 이용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구하도에 서 빌딩이나 아파트와 같은 건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지하 철역 출구조사를 통해서 대구 도시구조를 파악하는 답사도 진행했었는데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좀 아팠다는 것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Q : 세부 특기사항에 보면 동아시아 평화 프로젝트가 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A : 동아시아 평화 프로젝트에서 저는 동북공정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국경 부근에서 발생한 역사를 모두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해결방안으로 동북공정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터넷으로 통한 캠페인 개최를 제시했습니다.

Q : 네, 수고하셨습니다.

A :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예상했던 질문은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예상외의 질문에서 당황하지 말고 빨리 머리로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통계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Do Dream)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면접관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절대 금지 ◆ 면접 대기 시 자료 참고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무엇이며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A : 수학적 확률은 이론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시행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도출되는 확률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통계적 확률을 사용하는 것으로 축적된 데이터들이 바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이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다루는 방식을 동국대학교 통계학과에서 배우고 싶다.

Q : 빅데이터가 무엇인가?

A :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에 의하여 생성되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의 집합 또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기술들을 지칭한다. 동국대학교 통계학과에 진학한 후 데이터 베이스나 빅데이터와 같은 내용들을 배우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Q : 자신의 포부에 대하여 설명해달라

A : 불교인으로서 동국대학교는 나에게 딱 맞는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자아와 명상'과 같은 과목들을 수강해나가면서 자신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와는 다른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길 희망한다. 동국대학교 통계학과의 다양한 커리큘럼 중 하나인 데이터 사이언스 커리큘럼을 이수함으로써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고 싶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배워 사회에 나가 크나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다.

Q : 수학 성적이 타 과목의 성적에 비하여 높다.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는가?

A : 수학을 공부하면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항상 아래에 문제에서 활용되는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항상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갔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리한 개념들을 가지고 멘티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것이 수학 성적의 주된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말을 더듬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합격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절대로 긴장하지 마라.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어영문학과	○		
전형명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 후 교수님과 2:2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자신의 이름이나 출신을 밝힐 시 탈락 ◆ 면접 시간 준수 ◆ 면접 끝난 후 대기실 출입 불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처음에 약간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전반적인 일상이나 학교생활 등을 물어보심. (약 2분)

Q : 공감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공감'과 관련된 단어를 2~3개 들어 공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에서 공감하거나 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그 경험에서 깨달은 것을 설명하시오.

A : 공감은 누군가의 감정, 느낌, 상황에 대해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 중에 공감을 한 사례로는 고등학교 때 e-pal 동아리를 통해 미국 친구와 이메일로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친구가 한국 교복 문화에 대해 저의 생각을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복이 자유롭지 못한 점과 획일화된 점 때문에 교복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더니 미국 친구 또한 교복 문화에 대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통해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Q : 향후 어떤 직업이나 직군, 혹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어떤 공부와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A : 저는 우리나라 방문을 위해 공항에 오시는 승객분들과 소통하며 친절을 베푸는 출입국 심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대학에서 영미 문화 수업을 통해 영미 문화권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CIE 동아리(Approach culture in English)를 만들어 외국인분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함으로써 이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 나라의 문화는 어떠한지 탐구하고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Q :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하루 치 영상을 보는 데에만 평균 65~8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와 같은 영상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A : 스스로가 판별자가 되어 정보의 진위 여부를 우선으로 파악한 후에 신뢰할 만한 매체를 이용하여 교차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자극적이거나 감정적인 제목의 영상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고 작성자의 정보 확인 후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내용은 의심하며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동국대 면접 전형은 3~4일 전에 예상 면접 문항을 알려주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갈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한의예과				
전형명	학생부 교과(교과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님 2, 학생 1로 면접 ◆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는 공통 질문 4개 중 2개(인성 및 사회성 2개 중 1, 성장 가능성 2개 중 1), 당일 뽑는 교과 관련 질문 1개 ◆ 학생 3명 각각 공통 질문, 교과 관련 질문 모두 겹치지 않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질문 문항은 면접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함 ◆ 교과 관련 질문은 당일 공개(교과목은 인문계열의 경우 생명과학1) ◆ 당일 공개하는 질문은 면접을 보러 들어가야 알 수 있음 ◆ 대기시간 동안 공부할 수 있음 ◆ 교복 착용 불가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공통 질문/인성 및 사회성)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의 뇌과학의 발달로 촉발되었다. 뇌과학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자유의지의 유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삶에 있어 책임에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p> <p>A : 연구 결과 밝혀진 것처럼 무의식의 영역이 있겠지만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부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p> <p>Q : (공통 질문/성장 가능성) 향후 어떤 직업이나 직군, 혹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어떤 공부와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p> <p>A : 미래에 한의사가 되어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시골에 살아서 병원에 다니기 힘든 분들을 위해 진료 봉사를 하고 싶고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에 능통해져서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p> <p>Q : (교과 관련 질문/생명과학1) 동물실험을 자제했을 때의 장단점을 말해보세요.</p> <p>A :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고 인간들이 동물실험을 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의료 기술의 발전이 더디게 되는 것입니다.</p> <p>Q : 동물실험에서 오는 단점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p> <p>A : 동물들마다 쾌고감수능력을 좀 더 연구해서 고통을 좀 덜 느끼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p>					

Q : 배설하는 단계에서 기능하는 기관계와 그 기관계에서의 기능은?

A : 배설계가 기능하고 콩팥에서 노폐물은 걸러내고 재흡수, 분비 등을 하며 몸에 필요한 물질은 남겨두고 노폐물은 제거하는 과정이다.

Q : 배설계 말고 기능하는 다른 기관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A : 소화계 순환계도 기능합니다.

Q : 순환계가 하는 역할은? 에너지와 관련해서 말해보세요.

A : 혈액을 전체적으로 순환시키면서 에너지를 몸 곳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저는 EBS에 있는 생명과학 인터넷 강의를 빠르게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당일에는 생명과학책을 들고 가서 대기시간에 조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답이 확실하지 않아도 일단 아는 대로 답을 던져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호텔외식경영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학생 2:2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에 준비한 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 이름, 학교명, 부모 직위, 교외 수상 언급 금지(언급 시 불합격처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과를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

A :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적성검사,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하여 제가 공학 분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항공정비사라는 진로에 매력을 느껴 저의 진로로 삼게 되었습니다. 항공 분야를 조사하다 항공에 연관된 서비스 직업에도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직에 관심을 가지던 도중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호텔리어는 사람을 직접 만나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친화력이 좋고 항상 밝은 에너지를 가진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제 꿈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에 이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만약 미래에 호텔리어가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A : 저는 F/O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도어맨이기 때문입니다. 도어맨은 호텔 입구에서 고객들을 마주하며 호텔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이 좋고 밝은 성격을 가진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이라 생각하여 F/O 분야에서 도어맨을 하고 싶습니다.

Q : 봉사활동이 월등히 많은데 이유가 있나?

A :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의 권유로 함께 무료급식 봉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여서 꾸준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서빙하고 뒤처리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 저는 뿌듯하고 보람찼기 때문에 호텔리어라는 직업이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꿈을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Q :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이 어떻게 되나?

A : 저는 미래에 호텔리어가 되어 경험을 쌓은 후 호텔 관리인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1순위로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왜냐하면 호텔리어를 하다 보면 외국인 손님들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어가 가장 기본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같은 과 친구들과 토익, 토플을 공부하는 친구들을 모아 스터디 그룹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같은 과 친구들과 함께 호텔견학을 많이 가보고 싶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A : 제가 2학년 때 학급 실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습 시간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선생님을 불러 친구를 업고 보건실로 데려가 친구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 몸에 큰 이상은 없었고 그 친구는 학교에서 저에게 고마움을 표할 때 정말 뿌듯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자기소개해 보아라.

A : 저는 동국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호텔리어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첫인상이 좋다, 항상 밝다, 긍정적인 기운이 있어서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곤 합니다. 밝은 첫인상과 성격, 긍정적인 기운은 호텔리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국대학교에 입학하여 더 발전시켜 미래의 자랑스러운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남들과는 다른 열정을 가진 학생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A : 제가 이번에 너무 긴장한 탓에 준비한 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만약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저의 열정과 교수님의 가르침이 조화를 이루어 미래의 자랑스러운 호텔리어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이 동국대학교에서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저는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부 위주의 면접이었습니다. 생기부를 보며 예상 질문을 21가지 정도 만들었지만 막상 교수님들께서 물어본 항목은 2가지뿐이었습니다. 우선 이 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배경지식, 호텔 운영체제 등을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 교수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자세하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지 못한 질문을 하시면 무조건 당황하지 말고 질문을 끝까지 들어보고 만약 대답을 두 번째 차례로 해야 한다면 앞 학생이 한 대답 중 일부를 가져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솔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질문까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부분을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긴장하여 말은 누구나 다 더듬습니다. 말 더듬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질문에 대한 답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행정·경찰공공학부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불교추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1:1 면접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소득, 지위 언급 금지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A : 제가 이곳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해양경찰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헌신하였던 수영선수라는 꿈을 포기하고 해양경찰이라는 새로운 꿈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각종 큰 대회에서 상을 받는 유능한 인재였던 저는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 직접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성취감과 뿌듯함 때문에 저의 재능과 융합되었다고 생각하는 해양경찰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선수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왔던 부모님과 저의 8년 노력을 모두 다 포기해야 했기에 진로변경을 할 때 부모님께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드릴테니 저를 믿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때 부모님께 메달로 안겨드렸던 저의 믿음처럼 이곳의 입학으로 믿음을 드리고 싶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입학 후 학업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A : 저는 2가지로 나누어 저의 학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 수업을 잘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듣는 것이 아닌 유학을 목표로 하여 정말 열심히 듣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국대학교는 유학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학점을 받아 유학자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고교 시절에는 학업으로 그동안 취득하고 싶었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진학하여 목표하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제가 되고 싶은 장래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느낌을 받아 스스로에게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A : 저는 저의 장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선수로서 훈련받아온 체력으로 인해 보통의 여자들보다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도덕적 성품이 바르신 부

모님의 아래에서 옳은 길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저는 바른 인성을 겸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정직함의 가치가 퇴색되는 현대사회에서 저는 제 자신의 발전뿐만 아닌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저는 제가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다 전달하였고 한 치의 실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수님께서 저의 답변에 호응해주시면서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정말 자신이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 열심히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덕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미디어디자인과		○	
전형명	학생부 종합(동덕창의리더)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타이머 있고, 칼같이 시간을 자르진 않음)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남자 1, 여자 1)		
유의사항	◆ 생기부를 미리 읽어오는 느낌은 아니었고, 앞의 수상경력만 질문하심. ◆ 생기부, 자소서보다는 활동보고서만 자세히 보시는 느낌이었음.(과 특성) ◆ 블라인드 아님(면접자 거의 다 교복을 입고 왔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를 말해주세요.

A : 영상 콘텐츠 제작자가 되고 싶어서 창의력과 지식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친구들과 함께 2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했는데요. 제 의도와 생각에 따라 영상의 느낌이 달라짐이 흥미로웠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그들을 아우르는 영상 콘텐츠 제작자가 되고 싶습니다.

Q : 동영상 플랫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나 생각들을 영상이나 시각물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영상 콘텐츠 제작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활동 보고서에 영상 관련 활동이 없네요?

A : 영상 활동을 출력물로 나타내기 곤란할 것 같아서 다른 활동들을 기재했습니다. 영상 관련 활동한 것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후 친구들과 단편영화 2편 만들었던 경험 설명)

Q : 활동 보고서에 드로잉 작업이 있는데 하면서 어땠는지?

A : 전시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들과 그 작품에 대한 느낌을 오래 남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 (남자 면접관이 약간 비꼬듯이) 오래 기억되는 것밖에 없었어요?

A : (웃으면서) 그런 것도 좋았고, 지우개 없이 단시간에 스케치하는 경험도 돼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Q : 수상경력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대회를 말해주세요.

A : 교내 녹색 마음밭 가꾸기 대회 포스터 부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후 이 포스터에 대한 설명) 금상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 학교생활 하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도 있다면 함께 설명해주세요.

A : (자소서 3번 내용 말함.)

Q : 자신을 어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40초 정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말해주세요.

A : (교복 입고 감.)오늘 아침에도 이 옷을 입으면서도 들었던 게, 첫 단추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 단추를 동덕여자대학교 미디어디자인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 미디어 디자인 관련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시사나 사회 이슈보다는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더 많이 함.
- ◆ 학생부, 활동보고서, 자소서를 꼼꼼히 읽고 답변을 준비할 것.
- ◆ 처음에는 긴장을 풀어주시기 위해 사소한 질문을 던지셨음. 많이 딱딱한 분위기는 아님.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덕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학과		○		
전형명	동덕창의리더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 - 면접장 - 면접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가능 ◆ 수험표, 신분증 지참 ◆ 면접 시작 30분 전부터 자료 못 봄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는 어떻게 되는가?

A : 초등학교 때 호기심으로 시작한 컴퓨터 방과 후 활동이 컴퓨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관심은 고등학교를 진학한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여러 가지 컴퓨터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립모션을 활용하여 친구들에게 소프트웨어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준 활동을 바탕으로 또 다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가치를 확산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립모션으로 무슨 활동을 하였는가?

A : 립모션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강당에 큰 스크린 두 대를 설치하고 5가지 정도의 게임을 준비하였습니다.

Q : 무슨 게임이 있었나요?

A : 과일 옮기기와 같이 손동작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Q : 자소서에서 RSA 알고리즘에 대해 조사하였다고 했는데 왜 하게 되었나요?

A : 수학교과서에 간단히 수록되어있는데 더 자세히 탐구해보고자 조사하였습니다.

Q : RSA 알고리즘의 암호화와 복호화 과정을 설명하세요.

A : 수업 시간에 실제로 P와 4를 5와 11로 두고 발표했다고 설명하며 암호키와 해독키를 직접 구해 알파벳 J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Q :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우드등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를 설명하세요.

A : 음성인식 모듈에 4가지의 음성을 녹음한 후 음성을 서로 다른 코드에 연결하여 음성 신호에 따라 다른 불빛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LED 위에 세울 아크릴판에 각자 원하는 도안을 골라 밑그림을 그린 후 완성된 아크릴판을 3D 프린트로 제작한 받침대 위에 세워 완성하였습니다.

Q : 음성인식 모듈에 녹음한 후 코드로 어떻게 연결하였나요?

A : 간단한 단어를 녹음하고 그 단어를 말했을 때 입력한 코드대로 결괏값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대답을 잘 못 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최대한 긴장을 안 하려 노력하였고 면접 볼 때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대답을 잘 못하여도 교수님께서 쉽게 답변하도록 잘 이끌어주셔서 최대한 아는 대로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 면접관님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 ◆ 꼬리 질문이 많은 편이라 활동들을 꼼꼼히 조사해야 할 듯하다,
- ◆ 자소서와 생기부 기반에 전공과 관련한 질문들을 주로 하였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제물류학과	○		
전형명	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한 사람당 10분 미만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이 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 저는 물류와 운송에 관심이 많아 그에 관련된 기사 등을 찾아보다가 동명대학교에 있는 국제물류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 실습 경험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이 학교에 다니면서 추천해준 과 중에서도 국제물류학과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학교 입학 후에 하고 싶은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A : 첫 번째는 국제물류학과는 언어가 중요하다고 들었기에 좀 더 여러 나라의 언어들과 문화들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과에 진학하여 국내, 국외 실습을 다녀 보고 싶습니다.

Q :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저는 방탄소년단이 무수한 노력과 실력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SNS를 이용해서 방탄소년단의 사진들과 진행하는 스케줄들을 팬들에게 공유하여 더 많은 팬을 얻게 되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강의를 진행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답변을 준비하면 좋고, 답변을 할 때 국제물류학과에 관련된 답변을 하는 것이 알맞다.
- ◆ 어느 정도의 센스를 가지고 국제물류학과와 홍보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전형명	일반계고교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운동장에 집합 후 학과별 면접실로 이동 ◆ 교수님 2, 학생 3		
유의사항	◆ 면접실에서 핸드폰 수거 ◆ 자료 볼 수 있음 ◆ 액세서리 착용 금지 ◆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및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지원동기

A : 저는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소아과 병동 간호사가 되고 싶은 ○○○입니다. 고등학교 삼 년 동안 같은 양호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면서 진심으로 봉사하는 마음과 간호헤드림으로써 얻는 보람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어린 환자들과 소통하며 희망을 심어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동서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과목을 열심히 하기 위해 했던 행동

A : 저는 생명 과목을 가장 좋아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 생명 과목을 배운 뒤 첫 시험에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고, 실생활과 밀접한 학문이라는 생각에 흥미도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워했던 유전 부분 위주로 많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하여 풀어보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께 바로 물어보거나 보충수업 수강을 통해 공부하였습니다.

Q : 간호와 관련된 책 이외의 가장 인상 깊었던 책

A : 저는 최근에 읽은 '연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공인 은빛연어가 등 굽은 연어를 보고 장애가 있음에도 헤엄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고통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도전하고 이겨내는 자세에 대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 책 내용 중 간호사 혹은 의사가 등장하는 책은 피하는 것이 좋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단정함 중시. 머리끈 없는 경우 머리끈을 잠시 빌려주기도 함.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 예상 못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
- ◆ 전년도 기출 문제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됨.
- ◆ 말이 막힌다면 잠시 생각하고 천천히 말해도 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체육학과		2	
전형명	학생부교과/교사추천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 반까지 운동장에 모인 후 대기실로 이동 ◆ 9시 면접 시작 전 면접실 앞에 2명씩 대기함 ◆ 교수님과 2:2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한 동기를 말해보세요.

A : 지난번에 본 면접 전형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의 가장 큰 꿈은 체육교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세분화된 목표 중 첫 번째의 목표를 생각해보니 어린이들을 좋아하며 돌보며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하는 제 성향을 고려하면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와서 이론을 배우면서 봉사도 하며, 유소년스포츠지도자가 되었을 시에 아이들이 체육을 더욱 좋아하게 되고 체육이란 것을 통해 좋은 것들을 얻으며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의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Q : 여행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뉴질랜드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유학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뉴질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니 물가도 아주 높지 않고 가족들과 뉴질랜드 풍경 이미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서로의 취향과 풍경을 느끼는 생각도 비슷하여서 여행을 가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나요? 인상 깊었던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A : '가치' 단어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젊음, 패기, 열정 이 단어들이 제가 생각하는 20대의 생활과 걸맞다고 생각하여서 이 학교에 와서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Q : 교사가 자신을 추천해 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항상 제가 체육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뭐든 열정적으로 부족하여도 노력하며 '어떻게 하면 수업을 즐겁게 할까'라고 연구하며 지내는 면을 보시고 추천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시에도 좋게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생각에 저를 추천해주신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 입학 후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주기적인 봉사를 하고 싶고 또 학교에 여행 동아리가 있던데 특기자 생활을 하느라 못 다닌 여행을 여기에 와서 선·후배 동기들과 다니며 여러 느낀 점을 바탕으로 경험을 쌓아 성장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학교에 와서 행동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면접관님이 미소를 지으며 웃으심)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교에 대한 정보를 꼭 파악하고 갈 것.
- ◆ 편하게 해주시니 편하게 마음먹고 차분히 대답할 것.
- ◆ 자신의 미래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 학생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아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잠재능력우수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들과 2 : 1 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A : 고등학교 생활과 입시제도라는 틀에 박힌 일상 속에서 여가생활과 여유를 즐기기보다는 항상 불안감과 경쟁심을 느끼며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말 저녁에 '효리네 민박', '비긴어게인'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청률 경쟁에만 치우치는 다른 방송들과는 다르게 사람들 간의 정, 음악과 풍경 사이의 조화를 이루어내며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방송들을 통해 힐링을 느꼈습니다. 영상 편집 및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제 특성을 살려 복잡한 사회 속 현대인들의 삶에 힐링이 되어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Q : 생활기록부를 보면 인성이 좋다는 말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 인성을 확인해 볼 예시가 있나?

A : 저는 시 UCC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시를 선정하는 과정과 스케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목표는 시를 통해 느낀 감정을 영상으로 잘 풀어내어 같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주며 함께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북돋아 주었습니다.

Q : 그러한 성격 때문에 본인이 피해 입었던 적은 없었는지?

A : 모듬 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항상 좋은 분위기를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접점을 찾으면 한 명만 피해 보기 보다는 다 같이 노력하여 맞추어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피해 입으며 무언가를 포기하기보다는 서로의 접점을 찾아 이끌어가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Q : 학교생활 중 가장 의미 있게 했던 활동은?

A : 제가 가장 의미 있게 했던 활동은 방송부 활동입니다. 광고 분석 및 제작, 라디오 대본 쓰기 및 진행, 학교 홍보 영상과 축제 영상 제작, 영상 캠프 등의 방송의 다양한 분야들을 체험하며 영상뿐만 아니라 방송의 전반에 흥미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도 맡아 행사 전체를 책임지고 진행해 나가는 것에 힘들었던 적도 많았지만, 그 이후의 뿌듯함이 잊지 못할 만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참여하여 만든 영상을 보며 학생(사람)들에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 꿈을 구체화 할 수 있었습니다.

Q : 1학년 때에 비해 2, 3학년 때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A : 1학년 초에는 방송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선배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인 선배와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배님께 고등학생 때의 학교생활, 대학교 생활 및 활동, 공부 방식 등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활동과 방송부 활동을 계기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목표를 굳게 다짐하고 학업에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Q :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였는가?

A : 저는 학습을 할 때에 있어 이론과 실습의 병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역사도 깊고, 실습만을 강조하는 부산의 다른 학교들과 달리 이론과 실습을 꾸준히 병행한다는 점이 제 사고방식과 잘 맞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A :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은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대학에 와서도 빛을 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면 힘들게 느껴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고 싶은 일이라면 쉽게 해낼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 분야에 흥미와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해낼 자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기부에 적혀 있는 책 내용 정확히 숙지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아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에너지자원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잠재능력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가지고 있는 상 중 발명품이 있는데 어떤 발명품을 만들었습니까?

A : 저는 발명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생활에서 불편한 것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티슈의 남아있는 양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투명한 비닐을 붙여 남아있는 양을 잘 보이게 하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Q : 과학2 전 과목을 배우셨는데 가장 관심 있던 과목과 거기에서 기억나는 내용?

A : 저는 과학2 과목 중 화학2 과목에 엔트로피, 열역학법칙, 헤스법칙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학 과목보다 제가 관심 있는 에너지의 관련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 중 모르는 부분은 항상 화학 선생님께 찾아가 물어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화학2 세부 특기사항에 제가 한 자유에너지 변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식을 유도, 증명한 것을 기록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Q : 봉사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일과 느낀 점

A : 저는 2년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학년 때 도서관의 남는 책으로 바자회를 열어 얻은 수익금으로 홀로 사시는 할머니께 연탄 봉사를 한 활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계기로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Q : 우리 학과에 지원한 이유

A : 저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 방문을 하였는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과 지열 발전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생활에 기본이 되는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에너지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고효율로 에너지를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앞의 단점을 보완해보고 싶어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의 장점, 단점

A : 저의 장점은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트러블이 없는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관심 있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집중해서 파헤쳐 나가는 추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때 스마트그리드 발표도 친구를 이끌어 가면서 무사히 발표를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단점은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일에 대해 조금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일은 꼭 메모를 하여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기부에서 자신이 한 활동을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생기부 중 인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특히 꼼꼼히 준비할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아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어영문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잠재능력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봉사를 정기적으로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 저는 교육봉사를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이들에게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아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Q : 위안부, 군함도 관련 통역 봉사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A : 외국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피켓을 보여주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Q : 교사 동아리를 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A : 저는 EBS라는 교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1학년 때는 부원으로서 교육 관련 토론, 모의 수업 등에 참여하였고 2학년 때는 기장으로서 모든 교육 활동을 계획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Q : 이상적인 교사란 무엇인가요?

A : 저는 EBS 주혜연 선생님이 이상적인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주혜연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연령층에게 쉽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Q : 지원자가 말하는 좋은 교사는 꼭 영어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하는가요?

A :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어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아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화학공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잠재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대기실 - 면접실(교수님과 2:1 면접) - 퇴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단정한 복장 ◆ 면접실 입실 시 모든 전자기기 소지 금지(사전에 내야 함) ◆ 수험생은 면접 대기실에서 질의, 응답 및 잡담을 나눌 수 없음 ◆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면 대기실을 나갈 수 없음 ◆ 면접을 마친 후 면접 대기자와 접촉 금지, 바로 귀가해야 함 ◆ 면접 답변 시 개인 신상 언급 금지 ◆ 자신이 가져온 생기부는 볼 수 있음 ◆ 신분증, 수험표 필수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1, 2, 3학년 모두 장래 희망이 화장품연구원으로 되어있는데 화학과를 지원해도 되었을 건데 화학공학과를 지원한 이유는?</p> <p>A : 화장품연구원이라는 직업이 순수학문을 공부하는 화학과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다루어지는 화학에 대해서 배우는 화학공학과가 제 꿈을 뒷받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p> <p>Q : 출결 사항에 지각이 하나 체크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요.</p> <p>A :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병원이 문을 여는 시간이 9시로 늦어졌고, 아침 시간에는 노인들이 많으셔서 진료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간은 9시 30분이었고 2분 늦어서 그랬습니다. (웃음)</p> <p>Q : 수상실적 언어 부분에서 잠재능력이 있는 것 같네요. 제주 UCC 콘테스트는 어떻게 해서 상을 받게 되었나요?</p> <p>A : 콘테스트에 참여한 친구들과 먼저 회의를 진행하여 저희는 브이로그 형식의 컨셉을 잡자고 논의했고 제주도의 관광지를 기반으로 영어 대본을 미리 기획하여 대사를 외우고 동영상을 찍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p> <p>Q : 수상실적에 모범표창장 수상 기록이 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받은 것인가요?</p> <p>A : 저희 학교에선 수능 전날 수능 고사장 청소를 하는데 학급 임원들을 도와줄 친구를 뽑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학기 중 저희는 모범 학생을 학급에서 투표해서 뽑는데 친구들이 이 일을 기억해주고 뽑아주어 봉사 부분에서 받게 되었습니다.</p>				

Q : 교내에서 봉사한 것 중에 힘쓰는 일 말고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A : 저는 동아리 활동으로 방송부에 소속돼 있었는데, 영어 듣기를 할 시간이면 방송부가 방송 기계를 다뤄서 방송을 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내에 행사가 있을 때면 방송부가 대강당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원활한 행사가 진행되도록 도왔다는 그런 점에서 제 능력을 이용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 개인으로 봉사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 :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제 재능을 기부한 것입니다. (무슨 재능이죠?) 춤이요.

Q : 화학과와 화학공학과 중 어느 학과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A : 화학공학과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화학공학은 어떤 제품에 화학이 사용되는 범위와 작용을 더불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대는 수학은 기본으로 물리도 같이 배우게 되는데, 물리는 어렵기 때문에 화학공학과가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마지막 화학공학과에 온다면?

A : 저는 저의 성실함이 강점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적응을 잘하는 제가 동아대 화학공학과에 와서 이 학문에 대해 배우고 화장품연구원이라는 저의 꿈을 뒷받침하여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고 면접 준비를 하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대는 인성을 중요시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교과 질문보다는 인성 관련하여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했던 활동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고 준비해가면 될 것 같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똑바로 당당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양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서비스학과	○		
전형명	학생부위주(교과) 학생부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50~6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자신의 시간대 고사장의 대기장에서 대기 ◆ 인원 확인 후 각 조마다 6명씩 들어감 ◆ 면접관 3명		
유의사항	◆ 기출문제는 따로 없으며 생기부 기반으로 문제가 나옴 ◆ 꼬리 질문이 많은 편이라 면접 시간도 김 ◆ 앉아서 하는 면접이라 자세 유지가 중요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해보세요.

A : 저는 노력하는 사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J-FT Lsland 동아리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한국동화를 영작하여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동아리입니다. 처음 이 동아리에 참여하였을 때 한국어를 영어로 영작한다는 것이 자신 없고 두려웠지만 매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들의 문화 용어와 영어 문법을 공부한 결과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을 만들어 선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꾸준한 노력을 현재는 한 학기에 2권의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영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표준영어를 구사함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손님께 원활하게 서비스하는 승무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 1학년 때 진로 희망 직업에 항공 승무원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A :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단지 사람들에게 화장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사람 한 명 한 명마다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주는 것이 진정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Q : 일본어 교과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가요?

A : 저는 어릴 적부터 언어적 감각이 뛰어나 다양한 외국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어에 관심이 생겨 중학교 시절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공부를 하며 직접 일본에 가 그들과 소통하며 문화와 언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동양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외국어 수업에 열심히 참가하여 일본인에게만큼은 자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 시간이 길어 끝까지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물 많이 마시고 미소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음. 또 꼬리 질문, 추가 질문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어서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동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학교생활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공통질문)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신분증 및 수험표 반드시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에 대해서 발표+부가질문 대답

A : 저는 여름에 학교에서 냉방병으로 힘들어하던 친구들을 보며 냉방병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진로 주제 탐구 프로젝트 시간에 냉방병의 증상 및 대처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고, 친구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미리 예방법을 알려준다면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질병을 예방해 주는 간호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런 저의 꿈에 있어 NCLEX-RN/CAT(엔클렉스) 교육과정 및 한방간호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간호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의대학교 간호학과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의적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3학년 때까지 토익 800점을 목표로 하고 방학 동안 동의대학교의 해외어학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해외로 나가 열심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의대학교의 사회봉사센터에 가입하여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아 봉사할 예정입니다.

Q : 고교 생활 중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을 발표+부가질문 대답

A : 저는 이과로서 과학을 좋아하지만 2학년 때 과학이 4과목으로 늘어나면서 공부량이 많아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개념이 대다수였고, 모든 과학적 원리를 교과서로 이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했고 과학 선생님을 통해 PhET이라는 물리교육방법연구팀의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생물, 화학, 지구과학, 물리 등 다양한 과목의 과학적 원리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통해 평소 실험할 수 없고 이해가 가지 않았던 과학적 개념들을 시뮬레이션해보면서 더 나은 이해와 암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학년 뎀 생명과학2 시간에 배운 전사와 번역 과정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3. 진로 희망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한 경험을 발표+부가질문 대답

A : 저는 우선 교과 시간에 전공 분야에 대해 발표를 하며 전문지식을 늘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교과 시간에 우울증과 관련한 지문을 읽고 우울증 상태 감지 피부 센서라는 기기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기기를 사용하여 우울증을 미리 판별한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조기에 징후 예측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와 관련한 정보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널싱' 동아리에 가입하여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를 예로 들자면 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필요한 수화를 찾아 배워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전문직업인과의 만남에서 어떤 질문을 하였나요?

A : 생기부에 적힌 질문과 답변 그대로 말씀드릴. 그 외에 '다른 질문은 무엇을 했나요?' 라고 질문하셔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밑에 질문과 같이 추가질문으로 넘어감. (기억 안 났는데 다행이었음)

Q : 간호사분을 어떻게 섭외하였는지? 쉽게 섭외해 주었나요?

A : 직접 병원에 가서 섭외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거절하실 것 같다가 계속 대화를 통해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나서 면접관님이 정말 열심히 활동한 것 같다고 칭찬해주심!)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저는 간호사의 꿈을 갖고 고등학교 재학 동안 간호사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 교과 시간에 전공 분야를 발표하는 활동, 진로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인 자세(주먹 쥐고)로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과 전문지식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역량과 더불어 과학적 실무능력을 갖춘 21세기 동의대학교 20학번 간호학과 인재로 꼭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1, 2, 3번 질문은 공통질문이어서 미리 준비해갔음. 학교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볼 것!
- ◆ 교수님 두 분 다 잘 웃어주시고 처음에 긴장 풀어주심. (들어갔을 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말씀해주시며 긴장 풀어주심.)
- ◆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 하나하나 외우지 말고 내용의 구조만 외워서 답변하려고 노력하기. 외워서 말했다가 더듬고, 약간씩 말이 끊겼음. 그래서 면접관님이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심.
- ◆ 자신의 생기부 내용을 숙지하고, 적어도 1주일 전에는 예상 질문 만들기 및 모의 면접 하기(도움이 많이 되었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명지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공학과		40	
전형명	교과 면접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면접 시 출신 고교, 출신지, 부모님 직업 등 언급할 수 없음. ◆ 대기시간 동안 준비한 자료 볼 수 있음. (종이 서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고속도로에 설치된 구간 단속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를 한 대 써서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고 두 대를 이용해서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설치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 일까요?

A : 카메라를 한 대 이용한 것은 촬영 지점의 순간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두 대를 이용한 것은 처음 지점과 끝 지점의 평균속력을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Q : 고등학교에서 미분을 배웠죠?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를 미분으로 설명해 보세요.

A : 어느 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이고, 어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라 생각합니다.

Q : 평균 속도는 Δx 분의 무엇입니까?

A : Δy 입니다.

Q : 그럼 순간 속도는 $\lim_{\Delta x \rightarrow 0}$ 가 한없이 어디로 가죠?

A : 무한으로 갑니다. (틀린 대답을 함.)

Q : 네. 0으로 가죠. 미적분의 정의입니다.

A : (틀려서 자신감을 잃은 표정을 지음.)

Q : 가정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이 무엇이 있을까요?

A : 스마트폰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청소기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Q : 더 생각나는 거 없나요?

A : (생각 중에 5분 타이머가 울려서 인사하고 퇴장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교과 면접이다 보니 학생의 배경지식이나 기본 교과 지식을 묻는 질문이 많음.
- ◆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논리적으로 대답할 것.
- ◆ 질문 요지를 파악하고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중요함. 두괄식 답변이 중요(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많이 피곤해 보임. 대답을 너무 길게 하면 귀 기울여 듣지 않음.)
- ◆ 다들 긴장을 많이 하는데 연습 때 긴장을 해보니 실전에서는 긴장이 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명지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아랍지역학과	○		
전형명	농어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이름, 학교, 지역 언급 시 불이익)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아랍지역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

A :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알게 된 뒤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민주화 운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튀니지를 제외하고 많은 국가들이 아직 독재 정부체제인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부와 반군에 의해 발생한 전쟁에 의해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중동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Q : 도움이 되었던 책은 무엇인가?

A :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책은 '다영이의 이슬람 여행'이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책은 '10대가 묻고 이슬람이 답하다'였습니다.

Q :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A : '이슬람 여성의 숨겨진 욕망'이라는 책을 읽고 그전까지는 이슬람 여성들이 이슬람교에 순종적으로 억압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슬람 여성들은 히잡과 같은 의상을 순결하다고 여기며 이슬람교를 믿는 것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Q : 아랍지역전문가는 종류가 아주 많은데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나

A : 개인적으로는 유엔난민기구 소속으로 중동 현지에서 난민들을 돕고 싶지만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고 공부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전공 분야에 관해 정보를 최대한 익힐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상디자인학과		14	
전형명	실기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9:30~12:30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문제지와 사진 자료 제시

사진 : 유럽을 배경으로 강에 빠진 차를 크레인 같은 장비로 건져내고 있음. 주변엔 구조대원, 경찰, 행인이 둘러쌌.

문제 : 이전에 일어났을 상황을 표현하시오. (자동차, 경찰, 행인 포함해서)

A : 명지대는 사진 자료를 제시해주는 유일한 학교로 자료에 분명히 명시된 대로 그리는 것이 맞다. → 은행을 털 도둑들이 차를 타고 빠르게 강가로 돌진하고 그 앞에서 경찰이 놀라 헐레벌떡 뛰어오고 행인들이 자리를 피하는 상황을 그림.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명지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융합공학부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명지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중에는 분위기가 꽤나 어수선했다. ◆ 면접을 하러 들어가니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 면접관 두 분 모두 연세가 조금 있어 보이셨고 주로 왼쪽에 계시는 분께서 질문하셨다.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말해보세요.

A : 저는 고등학교 생활 내내 기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왔고, 기계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실생활에 공학을 접목시키는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살피던 중, 우리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하여 생각하던 중 도시재생특강을 듣게 되었는데, 도시재생특강에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시티 중에서도 스마트 그리드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탐구하였고, 이보다 좀 더 자세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 우리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우리 명지대학교 융합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무엇인가요?

A : 골드버그 장치 만들기입니다. 그 이유는 동아리 부원 모두가 참여하여 각자 장치를 만들고, 원리를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원리를 배우고 다른 사람의 제작물을 통해, 자신이 만든 장치를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1학년 후배들이 어려워할 수학적 귀납법이나 퍼텐셜 에너지에 대하여 가르쳤고, 2학년 후배 중에서 한 명이 열기구의 원리에 들어간 부력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주고받으며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원끼리의 친목도 다질 수 있어서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Q :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며 장점을 살린 예시와 그 장점을 통해 설계나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생길 이점은?

A : 저는 문제 해결을 할 때 답을 찾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생각하는 통찰력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 한마당 행사를 할 때 1인 1역할에서 저는 종목별 선수 차출을 맡았습니다. 종목별로 잘하는 친구들을 뽑아 참가인원을 맞추어도 되지만, 반 친구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표를 만들어 가장 잘 할 수 있는 종목과 연결시켜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통찰력을 통해 문제에 대해 접근할 때, 접근 방식이나 방향이 다양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융합적인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Q : 실생활에 공학적 접목을 실제로 한 적이 있나요?

A : 네, 저는 교내 발명아이디어 만들기 대회에서 핸드폰 액정 닦기 케이스를 출품하여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공학을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할까 생각하던 중 교내에서 발명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회 삼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물건 중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핸드폰이 눈에 띄었습니다. 핸드폰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액정에 때가 잘 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직접 제품을 장착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의 개성도 줄 수 있는 핸드폰 케이스에 장착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핸드폰을 닦는데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도 신경을 쓴 제품 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탐구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탐구했나요?

A : 네, 저는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 자동차, 풍력발전 등에 대하여 탐구하였습니다.

Q : 자율주행 자동차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지-판단-제어 이렇게 3단계로 나뉩니다. 인지 단계는 GPS와 카메라, 레이더 등을 활용하여 주변 상황의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 전략을 결정합니다.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지 파악하고, 이미지를 분석한 후, 주변 환경과 목표지점에 적합한 주행 전략을 수집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제어 단계에서는 엔진 구동과 주행 방향 등을 결정하며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합니다. 제어에는 크게 조향과 가·감속 기술이 있습니다.

Q : 현재 사용하는 자율주행은 어느 단계까지 왔고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생길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A : 네, 현재는 2단계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부분 도입되어 있습니다. 차선이탈이나 과속, 접근 차량 등에 관하여 위기나 상황을 알려주는 정도의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와 기술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는 엔지니어의 윤리관이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시 책임 문제나 주행에서의 안전성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기술구현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법의 제정이 되지 않았기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A : 핸즈온 프로그램입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제품을 만들 때 사용자를 중심으로 설계와 기술구현을 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DIY키트는 마감 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고 모양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직접 디자인이나 크기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제작을 하였습니다. 노인 분들께서 사용하실 제품 책의 크기가 클 것을 생각하여 큰 사이즈로 제작을 하였고 아이들이 사용할 제품에는 좀 더 꼼꼼히 마감 처리를 하고 곡선형의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나서 사용자 중심의 제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깨달았고, 제품 제작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본인이 읽은 책 중 전공과 관계없는 것 중에 추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A : 네, 저는 ‘데미안’이라는 책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성장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데미안’은 새로운 가치관과 의미인 내면에 대하여 제시해줍니다. 내면 속의 세상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2가지 세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단순히 하나의 세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다양한 방면으로 보거나 또 분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제가 갈 길에 대하여

하나가 아닌 여러 길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개발과 제작이 아닌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거나 다양한 것들을 융합 할 수 있도록 안목을 일깨워준 책이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저는 공학이란 협력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탐구 활동과 독서 활동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지식을 배움으로써 융·복합적인 공학자의 자질을 길러왔습니다. 배운 것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학자가 되기 위해 우리 명지대학교에 입학하여 많은 공부를 한 뒤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따뜻한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전체적으로 준비를 한 질문이어서 비교적 쉽게 이야기했던 것 같다.
- ◆ 말을 좀 버벅거린 게 마음에 걸린다.
- ◆ 기독교 학교지만 종교적인 질문은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다.
- ◆ 기본적인 질문에만 충실하면 대답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 ◆ 면접 진행을 빨리빨리 해서 좋았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목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응용미디어 컴퓨터학부	O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목원사랑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O	
	면접절차	◆ 3:2 면접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A : 컴퓨터는 지금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보와 여러 기술들을 이용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여 생산, 가공, 전달 등 모든 것들의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을 응용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자격이 주어진다 고 생각하여 깊이 공부하고 싶어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대학교 입학 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졸업 후 진로계획을 말해보세요.

A : 먼저 프로그래밍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워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워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움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맞추어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를 것입니다.

Q : 고등학교 수학, 과학 중 가장 재미있게 공부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 부분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해보세요.

A : 저는 미분을 가장 재미있게 공부하였습니다. 미분은 움직이고 변화하는 대상의 순간적인 변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로 과속을 측정하는 것이 미분의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신 있게 말하기
- ◆ 눈을 골고루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답변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목포대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정보보호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불가 ◆ 휴대폰 제출 ◆ 대기 시간 자료 보기 가능 ◆ 수험번호순으로 진행, 일반·종합전형 후 고른기회 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멀리서 오셨는데 여기는 어떤가요?

A :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Q : 학교생활 중 가장 재미있었던 일?

A : 학교생활 중 컴퓨터 동아리인 CLC 활동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조장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유니티 엔진으로 2D 형식으로 게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소통하며 공통 관심사가 생기면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Q : 활동하는 데 역할 분담이 좋았나 봐?

A : 처음에는 역할이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같이 만드는 활동을 하다 보니 각 친구에게 맞는 활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 각 친구에게 맞는 역할을 알게 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완성했던 것 같습니다.

Q : 활동 결과는 좋았나 보지?

A : 네 좋았습니다.

Q : 정보보안에 관심이 많은데 언제부터?

A :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개인 게임 서버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제가 구축했던 것의 취약점을 보완하다 보니 이 활동이 정보보호와 관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일과 적성이 맞아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Q : 그러면 정보보호 관련된 활동?

A : 간단한 c언어 프로그래밍과 와 네트워크 관련 지식을 책과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영재교육을 수강하다 보니, 영재교육에서 배웠던 지식은 실제와 비교하면 미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질문이 기억나지 않음)

A : 영재교육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이걸 참여하기 전에는 하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재교육원에서 열심히 배운 덕에 팀전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상위권의 성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Q : 대구대에서 하는 활동인가요?

A : 네.

Q : C언어를 다루어 봤다고 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A : 저는 c언어를 자주 다루던 게 아니라, 자바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게임 서버가 자바를 이용하다 보니 자바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바가 (여기서는 아는 지식을 덧붙여서 말했어요.) 객체 지향 언어이다 보니 객체를 끌고 와서 배열 형태로 만든 후~(너무 말을 막 해서 기억이 안 나요.)

Q : 그걸 스크립트 형태라고 하죠.

Q : 정보보안과 관련된 학교가 많은데 굳이 이 학교에 온 이유?

A : 제가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학비 문제 때문에 여기를 1순위로 두었습니다. (면접관 한 분이 공감해주심)

Q : 대구대에 신청하셨구요?

A : 대구대에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커리큘럼이 맞지 않고, (대구대에 대한 설명) 도박을 거는 건 저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내지 않았습니다.

Q : 굳이 고급수학을 수강한 이유?

A : 컴퓨터가 선형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고, 영재교육에서 수학을 잘하면 영향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활동으로 행렬과 암호학을 융합시킨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Q : 말하지 못했던 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제가 이 면접에서 지금까지 한 활동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를 뽑아 주신다면 지금까지 노력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고, 이 학교에 지원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세 번째 질문 제외하고 모든 질문이 준비했던 내용이 아니었음.
- ◆ 마지막 말에 활동한 내용을 더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 ◆ 고른기회전형으로 신청했으면 대기 시간이 엄청 길기 때문에(약 3시간) 입을 책 정도는 가지고 오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산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국문학과			
전형명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블라인드 면접)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1학년 때 성적이 낮았는데 그 이유는?

A : 제가 1학년 때 몸이 좋지 않아서 3월, 5월, 10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Q : 그럼 성적이 1, 2, 3학년 간 점점 오른 것은 건강이 회복되면서 제 실력을 발휘한 것인가요?

A :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남들에 비해 뒤처졌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Q : 글쓰기 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본인이 썼던 글을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A :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었네요. 줄거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네. 도둑 3명이 잡화점에서 시간을 넘나드는 편지에 대해 상담을 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Q : 그 이야기의 도입부가 뭐죠?

A : 제 기억이 맞다면, 어느 집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 3명이 몸을 숨기기 위해 잡화점에 들어갔다가 편지를 받으며 시작했습니다.

Q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A :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무조건 당당하게 웃으며 말하기. 떨어지면 어차피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질문이 들어와도 우물쭈물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모르겠는 것은 '제가 지금 긴장을 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말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말을 정리해서 하면 좋습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웃으며 인사 잘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불합격의 원인은 최저 미충족입니다. 면접과는 별도로 반드시 수능을 잘 쳐야 합니다. 후배님!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산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식물생명과학과		4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II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 대기 - 면접실 - 면접 - 퇴실		
유의사항	◆ 신분증 및 수험표 반드시 지참 ◆ 교복 절대 착용 금지(가번호 부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함께 짧게 답변해주세요.

A : 저는 항상 노력하는 지원자입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에 친구들과 선생님께 저는 어떤 학생인지 물어보았고, 항상 성실하고 제가 맡은 일은 끝까지 하는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부산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교수님의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고 팀 과제나 실습에 있어서 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대학교 식물생명과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GMO에 대한 저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면서 GMO에 대한 많은 생각과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학교의 영어 선생님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학교에 작은 텃밭을 관리하셨는데 그곳에서 다양한 채소와 종자에 따라 모양과 색이 다른 꽃들을 보면서 GMO 중에서 특히 식물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부산대학교 식물생명과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기소개서에서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것 치고는 개인 봉사가 적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A : 봉사를 실천하는 부산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으로서 봉사 시간에 많이 투자를 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아쉽고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외에서 한 개인 봉사 시간은 적을지 모르지만, 교내에서 사소한 봉사를 많이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산통 도우미 등 여러 도우미 활동뿐만 아니라 제 청소구역이 아니어도 친구들을 도와주고, 선생님들을 돕는 등 사소한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부산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교외봉사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사소한 봉사도 실천하는 그러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Q : 1, 2학년 때에 비해 3학년에 성적이 조금 떨어졌는데 떨어진 과목과 떨어진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습니까?

A :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업에 더 열중해야 했다는 점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학 과목의 성적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임에도 성적이 낮게 나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학업 이외에도 과학과 관련된 동아리, 대회 등 각종 활동들에 열심히 참가했기에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산대학교에 진학해서도 학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대외 활동에도 참가하여 다양한 지식을 찾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Q : GMO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벼와 관련된 GMO 사례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A : 제가 벼에 관련된 GMO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제가 읽었던 'DNA 발견에서 유전자 변형까지'라는 책에서 보았던 백신 기능을 하는 벼가 생각이 납니다. 책의 저자가 말했듯이 이제 GMO 기술에 있어서 상상력의 문제가 있을 뿐 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이 농생명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입학하여서도 이러한 다양한 GMO 기술에 대해 탐구하고 직접 개발도 해보는 그러한 학생으로 성장하겠습니다.

Q : 자기소개서에 농촌진흥청에 들어가 스마트농업 파트 중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스마트농업과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A : 저는 스마트농업이란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녹색기술이 합쳐진 농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정보통신기술 중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토질에 맞는 작물을 직접 해보지 않아도 시스템상으로 빠르게 찾거나 육종기술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는 등 그러한 방법을 분석, 개발하여 이를 전공자가 아닌 일반사람과 농민들에게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빅데이터 분석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Q : 자기소개서에 DNA의 염기서열에 대해 동아리 시간에 발표했다고 나와 있는데 염기서열에서 수소결합 등의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는지요?

A :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으로는 아데닌은 티민과 결합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수소결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추가 질문) 그럼 그러한 수소결합이 어떤 분자가 결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요?

A :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부산대학교 식물생명과학과에 들어오게 된다면 유능하신 교수님들께 그러한 내용을 배우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생부는 물론 자소서도 매우 꼼꼼히 보길 추천. 자소서에서 공격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옴.
- ◆ 생각보다 학과 배경지식에 대해 많이 물어봄. 제대로 숙지해 가야 함.
- ◆ 면접은 눈치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교수님들이 원하는 답을 두괄식으로 명쾌하게 답하는 사람이라면 면접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괄식임. 나의 답변에서 보았듯이 너무 구구절절함. 간단 명료한 대답이 중요한 것 같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산외국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상콘텐츠융합학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전형(글로벌인재-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 - 본인확인 - 면접- 귀가		
유의사항	◆ 교복 착용 불가 ◆ 면접관에게 본인확인용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필히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고교 생활의 경험을 중심으로 1분 정도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고 싶은 ○○○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영상을 통해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고, 저도 영상으로 즐거움을 얻었듯이 제가 직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 크리에이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Q : (주민등록증 확인 후) 경북 ○○에서 왔네요? 어떻게 왔는지 이야기해주실 수 있나요?

A : 부산에 친척이 거주하고 계셔서 면접 전날 내려와 하룻밤 자고 왔습니다.

Q :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있는 이 학과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서 개최하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에 참가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고, 우연히 부산외국어대학교도 영화제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대학을 선택해야 할 때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마침 기억났고, 대학교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이 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니 제가 원했던 학과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고교 생활 중 힘들었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A : 저는 방송부 동아리 일원으로써 학교 축제에 참가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학생부와 함께 학교 축제 기념 영상을 제작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부 동아리의 한 후배가 학생부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팀을 나갔고, 저는 팀장으로서 사적인 감정으로 참가하지 않겠다는 후배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배에게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팀원들이 널 필요로 하고 있다. 1년에 한 번뿐인 축제를 재밌게 만들어 보지 않겠니'라고 다독였고, 그 후배도 저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흔쾌히 참가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참가했던 영상 중 가장 재미있었던 영상이지 싶습니다. 이 경험으로 제가 얻은 교훈은 [함께라면 멀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간다면 힘들겠지만, 같이 도와주고 협력한다면 성취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Q : 우리 학부(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세요.

A : 청소년기를 유튜브와 함께 지냈습니다. 저에게 재미있었거나 흥미로웠던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주로 찾아보게 되었고, 이런 영상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 후 방송부에 가입하여 활동했었고,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편집하면서 이 진로가 저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송학과, 영상학과처럼 특정 매체를 다루는 학과보단 '영상'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학과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상콘텐츠융합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우리 학부(과)에 합격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장래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세요.

A : 만약 이 학과에 합격한다면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처음은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나 IT 관련 주제로 시작하고 싶고, 만약 팀원들과 함께한다면 예능이나 웹드라마 관련 주제를 선정해 기획하고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해 작게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 편집자로서 활동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 3사에 취직해 활동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함.
- ◆ 면접 질문이 제시문 형태로 나오지만 면접관에 따라 꼬아서 말할 수 있기에 질문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부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서비스학과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면 수험표와 신분증 검사 후 의자에 앉는 순서대로 면접을 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 7명씩 들어가고 면접관님은 3분임. ◆ 질문은 다 공통질문.		
유의사항	◆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지역, 학교, 이름 말하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서비스란 뭐라고 생각하는지?

A: 저는 서비스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같은 곳에 서서 마주하는 누구든 고개를 숙이고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춰 높여드리기 때문입니다.

Q : 하고 싶은 말 딱 한 문장으로 말하기.

A: 저는 힘든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지원자입니다.

Q : 영어 지문 읽기

A: 8번 지문 읽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모르겠다. 교수님께서 너무 외운 티 나게 안 하는 걸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음. 대신 답변은 길게 안 하는 것을 선호.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삼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물리치료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낙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중 하나를 고르고 그 입장에 대해서 2분간 말해보세요.

A : 저는 낙태를 부분적으로 찬성합니다. 예외도 있겠지만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일 경우에 출산을 한다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정신건강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없고 그 아이 또한 불행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만 19세 이상인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성인이 낙태를 하는 것은 반대 입장입니다.

Q :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A : 저는 평소 밝은 성격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긍정적인 모습을 이끌어 주는 학생입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

A : 저는 1, 2, 3학년 내내 '하이스토리'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2학년 때는 반에서 투표로 동아리장을 하게 되면서 동아리 친구들과 동아리 작품집을 만들며 우수 동아리 상을 타게 되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내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역사를 발표하는 세미나 시간에서 물리치료의 역사를 발표하면서 외국의 물리치료 역사와 물리치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역사를 나누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져서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으로 아는 것보다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 들어와서 많은 지식을 배우며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 물리치료학과와 관련된 동아리를 한 적이 있나요?

A : 'M.V.P'라는 의료동아리에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의료동아리 친구들이 구급상자를 가지고 돌아다니며 치료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중 선배가 쥐가 나 그 선배를 치료하고 싶었는데 아는 것이 없어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 학과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A : 저는 삼육대학교 사이트에서 학과 동아리 ‘판타레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들과 다양한 정보도 공유하고 토익 공부도 하면서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삼육대학교는 4년제 대학 중에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된 서울의 유일한 학교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Q : 학과를 졸업한 후 계획이 무엇입니까?

A : 저는 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들어가 교수님들 밑에서 다양하고 많은 치료법을 익힌 후, 아직은 법적으로 물리치료가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제가 많은 치료법을 공부하고 익히는 동안 법이 개정된다면 물리치료 전문 병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물리치료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열정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학과에 들어와서 다양하게 배우게 될 것들이 기대가 되고 마음이 벌써 설레기 때문에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상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문헌정보학과		15	
전형명	학생부 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 전까지 대기실에서 대기 후 순서가 되면 1명씩 입장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면접 대기 후 대기실 재입장 금지 ◆ 수험번호, 이름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생들이 많이 읽지 않는 책인데 “도서관의 역사”라는 책을 읽은 이유?

A : 현재와 다르게 과거에 도서관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궁금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Q : “도서관의 역사”를 읽고 느낀 점?

A : 현재와는 다르게 과거 도서관은 귀족이 중심이 되었고 책을 읽는 기능보다는 기록을 저장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도서관을 자주 다닌다고 했는데 그 이유?

A : 도서관만의 분위기가 좋고,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주 다니는 것 같습니다.

Q : 3학년 때 여러 도서관을 다닌 이유?

A : 1, 2학년 때는 같은 도서관만 다녔지만, 3학년 때는 다양한 도서관의 문화나 운영방식을 체험해보고 싶어 다양한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Q : 직접 시행해보고 싶은 도서관 프로그램?

A : 독서의 달을 지정하여 포스터 만들기, 독서 신문 만들기로 흥미를 높여주거나, 최근 초등학교에서 책 읽기를 장려하는데 이와 연계하여 독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 일반 문화센터에서도 독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도서관만의 특별한 점?

A : 일반 문화센터보다 더 책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독서의 흥미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봉사했던 도서관의 아쉬웠던 점?

A : 도서관이 점점 독서실화되고, 본질적 기능인 공공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Q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A :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공간과 분리하여 따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도서관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도서관 봉사를 하며 어려웠던 점?

Q : 어린이 도서관에서 필요한 것?

A :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낮은 책꽂이, 조용히 하자는 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어린이 도서관 봉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A : (답변 못 함)

Q : “세상의 몰랐던 도서관들”을 읽고 기억에 남는 도서관은?

A : 독일에 책이 한 권밖에 없는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나치 시대 불타 버린 책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이고, 이때의 비극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저는 이점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였고, 인상 깊었습니다.

Q : 정보화 시대 도서관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A :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 체험이나 교육의 역할도 담당하는 융·복합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조사해보았다면 흥미 있는 점은?

A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는 답사, 학술제 등 학과 특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이 점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진리, 정의, 사랑이 교육 이념인 상명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하여 더욱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전공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 하며 웃음을 유지하고 면접관분들과 눈을 맞추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상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과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상명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면접 대기실에서 휴대폰 진동이나 소리가 나면 바로 퇴실 ◆ 면접 시간 준수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A :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학융합반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부원들과 에너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에너지 공정을 최적화하는 공학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에 입학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기반이 되는 지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Q :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A : 저는 물리 과목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EBS 다큐프라임 빛의 물리학'을 수강하여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에서 특수상대성이론을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접하며 보다 쉽게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Q :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A :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 중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 이유는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세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Q : 수학 중 확률과 통계 말고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있니?

A : 수학 중 미적분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정적분의 넓이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음)

Q :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A :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착한 에너지 기행"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읽으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많은 단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책 내용 설명함.)저는 이 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Q : 수상한 것 중에 하나 말해줄래?

A : 저는 1학년 때 지진 발생 시의 안전한 건물 구조를 주제로 교내 소논문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Q : 진로를 바꾼 이유는?

A : 저는 고1, 2학년 때는 막연하게 화학공학자라는 진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말문이 막힘. 그래서 다음 질문 받음.)

Q : 통계의 미학은 어떤 책이니?

A : “확률과 통계”는.... (앞에 질문 대답을 제대로 못 한 것 때문에 책 내용이 생각이 안 남)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니?

A : 제가 만약에 상명대 컴퓨터 과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공학, 빅데이터 응용 과목을 배우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기부, 자소서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접할 때 떨지 않고 차분히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상명대학교 제2캠퍼스(천안)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디자인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상명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님과 2:1 면접 ◆ 블라인드 면접으로 교복 착용 금지. ◆ 개인정보 언급 금지. ◆ 면접 대기 시간 동안 본인이 가져온 면접 자료들을 볼 수 있음. (대신 종이만 가능함. 전자기기 사용 금지였음.) ◆ 휴대폰은 모두 걸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다양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네요. 특히 1학년 때 외부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이 봉사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과 대화했던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의 대화는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집 근처 요양병원과 복지센터에서 ‘어르신 말벗 도우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자주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마치 손녀처럼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편한 분위기에서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니 예전보다 어른들과의 대화가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Q : 1학년 때는 학생 진로가 미술 교사였다가 2학년 때 공간디자이너로 바뀌었어요. 진로가 미술 교사였던 것을 보니까 예술에 관심이 많은 것 같네요. 혹시 진로가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가구매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공간들이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 방의 경우는 공부할 책상과 책장이 있고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사무실의 경우는 업무 책상과 정리함이 있어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각 컨셉에 맞게 공간들이 연출된 모습을 보고, 공간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력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법에 대해 배워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공간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Q : 본인이 생각하는 공간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상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첫 번째로 공간디자이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있는 것들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디자이너 혼자서 구성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공간디자이너의 작업도 필요하고, 그 공간을 연출해달라고 부탁한 클라이언트의 의견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된 공간을 경험할 소비자들의 취향까지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공간을 구성하려면 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우리 학과를 오기 위해서 본인이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이나 의미 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A : 저는 3학년 환경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분리 수거통 디자인'을 했던 것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생략)

Q : 진로 관련 책을 3학년 때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은 책이랑 그 책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것만큼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몰라도 당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 웃으면서 면접을 했더니 끝나고 나서 광대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답할 때 너무 빠르지 않게 눈 마주치면서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눈을 보면서 대답하는 것이 힘들어서 미간을 보면서 답변하라고 합니다.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간보다 직접 눈 마주치는 게 편해서 눈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눈을 보고 대답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선 시선 처리 때문에 외운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면접관 앞에서 한다면, 면접관은 '학생이 외운 것을 그대로 뱉으려고 하겠구나'하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눈 마주치면서 답 하는 게 당당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ex. ~했네요?/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절 보고 질문하지 않아도 저는 계속 쳐다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면접은 제 이야기를 면접관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가 먼저 경청을 해야지 면접관들도 제게 경청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질문에 핵심은 뭘지 생각할 시간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면접할 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이걸 내가 외운 걸 발표하는 대회가 아니라 교수님과 대화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할 때 구구절절 다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물론 저도 구구절절 대답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교수님께서 꼬리 질문으로 다시 물어보실 테니까 간결하게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떨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긴장할 만큼 굉장히 많이 떨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면접실에 들어가니 임기응변으로 열심히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굳이 많이 안 떠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후배님들은 그런 걱정을 덜 하면서 면접을 준비했으면 해서 이렇게 제 경험을 풀어봅니다. 이 글을 읽게 될 후배님들도 면접 준비 힘내세요 파이팅♡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경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화영상학과			
전형명	실기위주 일반학생2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p>◆ 대기할 때 4명씩 면접실 옆 방으로 들어가서 제시해주는 시나리오를 읽고 5분간 분석함. 분석 후 방을 나와 면접실에 들어갈 때까지 시나리오 용지를 보지 않고 대기. 면접실에 1명씩 들어가 교수님이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 질문을 하시고 2가지 질문 후 인성면접, 전공면접 실시.</p> <p>◆ 메인 교수님 3명이 계시고 사이드에 6명 정도 더 계셨음. 이분들은 질문은 안하심. 면접 과정 촬영 중이었음.</p>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이 시나리오에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A : 저는 이 시나리오가 조폭 무리의 이야기라고 분석을 했고, 다음 이야기는 이 시나리오에서 나온 인물 두 명이 서로를 도우면서 조폭 두목을 배신하고 돈을 들고 도망쳐서 둘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이 시나리오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A : '힘든 상황이지만 친구끼리 서로 도우며 win-win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Q : 서경대학교 어떻게 알았어요?

A : 친오빠가 다른 학교 연극영화과를 재학 중인데 오빠가 자기가 고3이라면 서경대학교를 지원했을 거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 뒤로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고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Q : 친오빠가 왜 추천한 것 같아요?

A : 1학기 1인 1작품을 무조건 해서 나중에 제가 작품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들보다 최신식 장비와 좋은 장비들이 많아 실습을 하고 작품을 찍는데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Q : 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졸업 후 어떤 걸 하고 싶어요?

A : 제가 지방에서 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찍고 싶은 작품들을 찍은 뒤 지방으로 내려가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시나리오 분석을 더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고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과를 준비한다면 시나리오 분석을 더욱 체계적으로 단단히 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축공학		10(추합)	
전형명	학교생활우수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짧게는 7분, 길게는 13분 정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대 1 면접		
유의사항	◆ 시간 준수 ◆ 신분이 드러나는 의상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A : 네. 원래는 기차를 통해서 혼자 올 계획이었지만 기차 파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모님께서 차로 태워주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신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큼니다.

Q : 아하... 그렇군요. 밥은 먹었나요?

A :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면접을 대비해서 아침, 점심 든든하게 챙겨 먹고 왔습니다.

Q :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한국의 목조건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국형 FTT를 확립시키고자 목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건축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건축의 유동적인 특성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건축과 환경의 교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건축의 추구로 이어졌으며 특히나 목조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조건축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외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목조건축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지만 목조건축의 구조기반 시스템이 확립된 후 목조건축이 확대된 사례였습니다. 이를 통해 목조건축의 구조기반 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구조의 커리큘럼이 잘 짜여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건축구조 커리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 커리큘럼을 아시나요?

A : 네. 일단 구조 커리큘럼에는 건축구조 개론, 역학, 해석, 계획, 실무 설계라는 커리큘럼이 확립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다른 커리큘럼에 관심 가지는 건 없나요?

A : 건축구조 수업을 제외한다면 건축설비, 환경 커리큘럼을 이수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친환경 건축에 대한 수업을 이수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친환경 건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재료 수업을 이수함으로써 목조건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성재료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식을 창출해나가고 싶습니다.

Q : 그렇다면 교육과정 말고도 우리 학교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제15회 건축구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건축구조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저에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의 건축구조 교육은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 과목 성적을 보니 1,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낮았고 3학년 과정에서 상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네. 저는 사교육과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수학 공부법에 대한 확립이 되어있지 않았음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의 개념만 탄탄히 잡으면 될 것이라는 사고 때문에 심화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과정에서 ‘수학적 창의적 남자’라는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여 심화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법을 발전시켜 수학의 성적이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자기소개 한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 네. 저는 어려운 과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누구 물리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2단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물리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끈기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지금은 물리 지식을 향상시켰으며 물리 과목을 좋아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공학도로서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의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Q : 목표가 FFTT라고 하셨는데 FFTT가 뭐죠?

A : FFTT란 Finding the Forest Through the Trees의 약자로 목조건축의 구조적 기반 시스템입니다. 이는 건축가 마이클 그린의 확립한 시스템으로 목조건축 발전의 출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Q : 어떤 구조 시스템인가요?

A : 건축의 중앙에 큰 판을 기준으로 최대 6층까지 층을 쌓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외벽에는 얇지만 서로 덧댄 나무판을 이용해서 적은 양의 목재로도 안정성 있는 건축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Q :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신데 이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 때문에 목표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표가 흔들렸던 경험이나 이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궁금하네요.

A : 네. 저는 이 전에 미술에 관심이 많아 산업 디자이너를 목표로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나 건축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목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목표가 구체적이 될수록 저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디자이너가 되겠다. 건축물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보다 현재와 같이 목표가 뚜렷하게 잡혀있을 때 공부의 의미를 알게 되어 노력하게 되었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것 있으신가요?

A : 네, 0이라는 숫자에는 어떠한 큰 수를 곱하더라도 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주 큰 숫자에는 작은 숫자를 곱하더라도 큰 값이 도출됩니다. 저는 큰 숫자와 같은 잠재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여 작은 과정에도 큰 결과를 내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빛내고 싶습니다.

Q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어떻게 빛낼 수 있나요?

A :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 그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다면 이는 곧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빛내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과기대는 무엇보다 지원동기, 또는 자기소개에서 출발해서 자신이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신의 지원동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를 깊게 조사하는 것이 면접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내 경우는 감독관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래 쉽사리 말을 걸기 힘들었다. 과기대는 2명이 동시에 이동하는데 이때 같이 이동하는 면접 학생에게 기운 내라고 초콜릿 하나 건네주면서 이야기하며 긴장 푸는 것도 꽤 괜찮다. 초콜릿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전형명	학교생활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료를 들고 가서 준비할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반드시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A :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도구와 기계의 원리’라는 책의 항공우주 파트를 접하고 제 적성과도 부합하는 항공우주공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다양한 항공우주 기술들을 찾아보며 더욱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이러한 기술들을 현실화하는 데 일조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진로 탐색을 하다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에서 우주항공 분야의 토대가 되는 학술이론, 응용기술, 실무를 다룬다고 하여 이 학과에 진학해 우리나라의 항공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계공학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Q : 다른 학교에 항공우주공학과가 따로 있는데 왜 이곳을 지원했는지 궁금하다.

A : 타 대학과 달리 실무 중심의 5년제 학/석사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학부생 연구원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학부생 연구원이 되어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 학과에 진학하여 얻고 싶습니다.

Q : 자소서에서 보면 ‘이온풍 비행기’에 대해 조사했다고 했다. 자세히 설명해 보라.

A : 공기에 강력한 전압을 걸어주면 질소 기체는 양극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됩니다. 이 양이온들이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공기를 밀어내는데 이때 생기는 바람을 이용하여 비행하는 비행기를 이온풍 비행기라고 하며 실제로 미국 MIT 공대 연구팀이 10초간 60미터 비행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Q : 강력한 전압을 일으켜 비행한다고 했는데 위험한 것 아닌지?

A : 그래서 드론과 같은 소형 비행체에만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Q : 적분에 대해 심화학습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적분이 무엇인가?

A : (당시 리만 적분에 대해 준비해갔는데 적분의 개념을 물어셔서 당황하였음)

Q : 그렇다면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차이가 무엇인가?

A : 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정해진 적분이고 부정적분은 적분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입니다.

Q :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차이를 칠판에 식으로 적어보라.

A : (칠판에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식을 적고) 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 벡터의 내적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활용될 수 있는가?

A : (벡터의 내적에 대해 준비한 것이 전혀 없어서 당황하였음)

Q : 벡터의 내적 공식이 무엇인가?

A : 절댓값 a 벡터*절댓값 b 벡터*cos세타입니다.

Q :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긴장한 것 같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A : 저는 다른 학교의 학과들과 달리 이 학교의 학과만의 특별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학과에 입학하여 항공 우주 기술 발전을 꾀하는 항공우주공학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준비했던 질문들이 나오면 긴장하지 않고 잘 답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예상 질문 이외의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해서 답이 잘 생각나지 않았다. 물리 개념을 많이 다룰 줄 알고 물리 개념만 챙겼었는데 수학 개념을 물어 많이 당황하였다. 생기부보다는 자소서를 더 많이 보는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식품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농어촌)			
면접 형식	면접시간	08:30~12:00 (면접 후 바로 퇴실)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08:30 (입실) / 09:00 (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는?

A : 제 꿈은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원입니다. 2학년 여름 장염에 걸렸을 때 프로바이오틱스의 도움을 받았고 이후 독서 활동과 여러 교육 영상을 통해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원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본교 식품공학과에 진학하여 식품과 식품개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생물의 작용기전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Q : ‘나는 부엌에서 과학의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책에서 인상 깊은 내용은?

A : 어머니가 요리하실 때 간마늘을 사용하지 않고 통마늘을 사용하는 이유가 간마늘을 사용하면 콧냄새가 난다는 이유였는데, 저는 이 이유를 과학적인 원리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마늘 속 효소인 아닐레이즈가 기질인 아닐린을 만나 콧냄새가 나는 알리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A : 유산균 개체수 확인 실험입니다. 식품공전의 생균계수법에 따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식품공학과에 진학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 카페인 실험의 원리가 무엇인가?

A : 카페인이 극성인 물보다 무극성인 다이클로로메테인에 더 잘 녹는다는 점을 이용한 실험입니다. 제가 한 실험은 카페인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실험이므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해 이온 세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실험했습니다.

Q : 보완하고 싶은 답변 혹은 마지막으로 할 말은?

A : 지난 3년간의 노력을 10분 안에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믿고 향후 21세기를 선도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원으로 성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공학과		○		
전형명	고른기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08:30~12:00 (면접 후 바로 퇴실)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를 자기소개와 함께 말해보시오.

A : 저는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고 또한 우주나 인공위성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으로 고등학교 IT 동아리에서 성층권 프로젝트, 인공지능경망을 이용한 유닛 미로 탈출 등의 활동을 하며 저의 꿈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 저의 꿈은 AI 인공위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많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채워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Q : 학생 자소서에서 보면 오일러 공식과 드르아브 법칙을 이용해 푸리에 변환을 만들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해 보세요. / 직접 만들었나요? / 자문은 어느 분께 구했나요?

Q : 동아리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나요? / 인공지능경망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 사용한 함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 그렇다면 그 함수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 그 함수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요? / 어떤 언어로 만들었나요? / 라이브러리와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 혼자 만들었나요?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프로그래밍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이라 생각합니다. 또 그 창의력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것은 도전 정신과 진취적인 성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성향을 키우기 위해 고등학교 때 생활과학 아이디어 대회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동아리에서 진행한 성층권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며 필요한 성향을 키우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농경제사회학부	○		
전형명	지역균형선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상록관에 들어가서 대기실에서 대기 ◆ 면접 번호 옷에 부착 후 면접 순서대로 옆 면접실로 이동해서 면접 보고 귀가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얼마나 기다렸어요?

A : 한 3시간 30분 기다렸습니다. (면접 마지막 번호였음)

Q : 학교 활동 중에 3학년 때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에 관해서 소논문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활동 내용과 느낀 점을 자세히 말해주세요.

A : 먼저 3학년 때 한 활동은 소논문을 새로 작성한 게 아니라 2학년 때 작성했던 소논문을 수정한 보고서를 만드는 활동이었습니다. 기존 소논문의 결론이 필립스곡선의 정의와 대립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문을 가져 재조사했습니다. 하나의 통계기관에서만 조사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라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해외의 통계기관 등 더 많은 기관에서 자료를 추출했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 필립스곡선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만의 통계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Q : 3학년 때 'SNS를 올바르게 사용자'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활동을 했는데, 정말로 한 명 한 명씩 조사한 게 맞는가?

A : 네 맞습니다. 저희 동아리 부원이 5명이어서, 1명당 한 반씩 맡아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Q : 그렇다면 이 SNS와 관련된 주제가 우리한테는 신선한데, 활동을 통해 무언가 느낀 점이 있는가?

A : 첫 번째로, 최근 변화하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의 양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10대나 20대는 최근 SNS의 제품 광고나 PPL에 영향을 받고 자신의 소비 활동을 변경하는데, 이에 따라 경제이론과 경제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올바르지 않은 거짓 광고의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소비자를 선동하는 거짓된 내용이 포함된 광고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올바른 경제 의식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 : 읽은 책 중에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을 읽었는데,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A : 저는 학교에서 경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과거의 경제학자들의 이론과 지식이 적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Q : 이 학과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A : 저는 원래 경제학과를 희망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의 해답이 농업에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학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Q : 연구원이라... 연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A :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거쳐 연구원이나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요. 하하.

A : 네,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진로에 대한 확고한 관점과 진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진로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동기, 학과에 대한 지식은 안 나왔지만 진로 계획은 물어보셨으니 진로와 학과에 대한 지식은 확실히 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의예과			
전형명	지역균형선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1:2 면접, 대기하는 중에 학생부나 준비한 것들을 모두 볼 수 있었다. 입실 후에 간단한 인사를 하고 바로 고정 질문 2가지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중간중간에 세부질문(간단한 꼬리 질문) 및 기본 질의응답(활동 내용)을 하는 방식이었다.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고정 질문 : 자소서 1번을 보면 폐임랩 활동으로 말라리아에 대해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고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설명해보아라.

A :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를 매개체로 인체에 감염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간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다 적혈구를 공격하여 나온 독소가 몸에 면역반응을 일으키고 증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함. 폐임랩 활동이란 대중들에게 과학적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함.

Q :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있는 산소를 얻기 위해 적혈구를 공격한다.

Q : 동아리 활동으로 개와 늑대의 두개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설명해보아라.

A : 개와 늑대의 두개골을 비교해보았을 때, 같은 크기로 가정할 때 늑대의 두개골이 20% 더 긴 것과 턱의 구조가 더 발달해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Q : 개의 종류에는 장두형 단두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였나.

A : 늑대와 유전적 유사도가 높은 종인 진돗개로 선정하였다.

Q : 수학 세특에 보면 꽃잎의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보아라.

A : 꽃잎의 배열을 보았을 때,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자연 상태에서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를 따르는 현상들이 많다. (이후 답변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음)

Q : 서울대 수의예과에 오게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

A : 서울대 동물봉사 동아리에 가입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봉사 등을 통하여 동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이 답변보다는 학습계획을 말하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인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작년에는 모든 전형에서 첫 질문으로 지원동기를 공통적으로 질문하였으나, 올해는 지원동기에 대한 질문 없이 전반적으로 세특 위주의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하루 뒤에 이루어진다. 수만취 등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일반 전형 지원자의 면접 후기를 읽고 가면 그 해의 면접 방식을 미리 알고 갈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학교육과			
전형명	지역균형선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 시간까지 대기실 입실. ◆ 대기하다가 가번호에 따라 면접 진행. ◆ 면접관 2인, 면접자 1인. ◆ 면접 종료 후 안내에 따라 건물에서 나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모든 전자기기는 지시에 따라 제출. ◆ 별도 지시 이후, 모든 자료(소지한 인쇄물 등) 사용 불가. ◆ 신분증, 수험표 필수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고급수학 II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A : 테일러 정리. 앞 단원에서 단위복소수가 복소지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이는 삼각, 지수 함수의 급수 형태에 의해 정의됨을 회상하였다. 그러므로 함수를 급수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테일러 정리에 큰 관심을 가졌다.

Q : 리만가설이 무엇이며, 자신에게 있어서 책 '리만가설'이 자신에게 특별한 이유?

A : 리만가설을 그대로 인용함. (리만 제타 함수의 \sim 이다.) 복소지수를 처음으로 접하여, 고등 수학의 세계에 대하여 인지하게 한 책. 이 책을 계기로 고등 수학에 대해 더욱 흥미를 느끼고 수학 관련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자기소개서 내용과 유사하게 답변함.)

Q : 푸앵카레의 추측이 무엇이며, 시청한 다큐멘터리에서 알게 된 그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A : 푸앵카레의 추측을 그대로 인용함. (임의의 3차원 다양체 \sim 위상동형이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위상수학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도를 접할 수 있었고,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 아쉬웠다. 이후 관련 도서를 통해 스스로 조사한 바가 있다.

Q : 속 빈 구체와 평범한 구체의 위상동형 여부에 관한 탐구에 관해 설명하라.

A : 평범한 구체의 경우 내부에 공간이 없어 0차원인 점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속이 빈 것은 내부에 공간이 있어 점으로는 줄일 수 없고, 2차원 다양체인 구면에 가깝게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로부터 두 도형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그러므로 두 도형이 위상동형이 아니라고 ‘당시’에 결론내렸다. (활동 이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있는지 질문하면 보충하여 설명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추가 질문이 없어 언급하지 못함.)

Q : 침수집합이 공집합인 첨자족의 원소들의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 설명하라.

A : 합집합의 원소는 합집합을 도출하는 집합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원소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첨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첨자집합이 원소를 갖지 않으므로 이는 모순이다. 따라서 합집합은 공집합이다. 교집합의 원소는 교집합을 도출하는 모든 집합의 원소가 되어야 하고, 어떤 원소를 갖지 않는다면 그 원소에 대해 어떤 첨자가 ‘존재’한다. 이는 역시 모순이므로 교집합은 전체집합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관의 어조와 표정이 딱딱하여 다소 당황스러웠으나 적당한 표정과 자세, 목소리를 유지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 교직 관련 학과이므로 관련 분야 및 도서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였으나, 관련 질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수성을 가지는 분야에 지원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 교직 적성 관련 질문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답변 태도 및 전달 능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평가하였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식물생산과학부	○		
전형명	기회균형특별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방에 들어가서 면접관 2명과 질의응답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여러 가지 동아리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 : 비염에 대한 동아리를 했다. 평소 비염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끼리 모여 비염의 원인과 비염이 심해지는 환경을 알아보고 각각의 요인에 따라 얼마나 비염이 심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험을 수행할 수 없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

Q : 학업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은 무엇인가?

A : ‘몸의 행복’이다. ‘몸의 행복’은 심리적인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 역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마주쳤다. 처음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는 풀 수 없을 거야.”라고 단정되었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다음부터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Q :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말해달라.

A : 식물 유전자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될 것이다.

Q : 학교생활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도전적이었던 일은 무엇인가?

A : 수학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것이다. 평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꺼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상호의사소통이 중요한 활동에 도전한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나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Q : 연구원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꾸준함이라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 연구를 완성하게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식품영양학과	○		
전형명	지역균형선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8시 30분까지 입실, 30분 대기 후 첫 면접자가 면접실로 이동. ◆ 식품영양학과는 대기실에서 어떤 자료도 볼 수 없음. (학과마다 다름)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이름, 학교 유형, 수험번호 등 언급 불가능. ◆ 이름 대신 면접 번호로 통일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켈토피아에서 ‘갯잎의 항균작용 탐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갯잎의 ‘페릴라 알데하이드’ 성분이 나타내는 항균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두부, 고기, 식빵이 부패하는 정도를 관찰했습니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갯잎을 대조군으로 설정했고, 갯잎을 자르거나 빵거나 가는 처리를 해서 음식에 갯잎을 올렸습니다. 부패과정에서 나타나는 냄새를 직접 맡고, 곰팡이의 정도를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Q :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해주세요.

A : 실험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갯잎을 음식에 그냥 올렸을 때보다, 빵아서 올렸을 때 곰팡이가 피어난 시점이 이틀이나 느렸습니다.

Q : 자기소개서를 보면, 실험 결과를 통해 ‘페릴라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갯잎에 들어있고, 그 성분 때문에 항균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도출해냈는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제가 R&E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선행 연구를 찾아보며 갯잎의 정유 성분에는 ‘페릴라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마쳤을 때, 갯잎을 그냥 올리거나 자르는 처리를 했을 때보다 빵았을 때 항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처리를 한 것과 빵는 처리를 했을 때의 차이점은 갯잎의 즙이 외부로 나왔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즙은 정유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갯잎의 내부에 있는 즙에 ‘페릴라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있고, 이 성분에서 항균효과가 기인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Q : ‘페릴라알데하이드’가 항균작용 말고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A : 저도 연구를 하던 중 궁금해서 ‘페릴라알데하이드’에 대한 연구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갯잎을 씹으면 씹싸름한 특유의 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정유 성분에 들어 있는 ‘페릴라알데하이드’에서 기인한다는 내용을 논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Q : 식품 연구가 더 발전하면 나중에는 ‘페릴라알데하이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천연 ‘페릴라 알데하이드’와 합성 ‘페릴라알데하이드’ 중에서 지원자는 무엇이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A : 저는 천연 ‘페릴라알데하이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합성 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이것이 나중에 상용화되었을 때, 물질 연구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작용이 일상생활 중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물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합성 물질을 상품화시켰을 때, 소비자는 합성 물질에 대한 거부감, 즉 ‘케모포비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감은 합성 ‘페릴라알데하이드’의 수요가 하락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저는 천연 ‘페릴라알데하이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Q : ‘페릴라알데하이드’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A : 논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생겨서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Q : 그렇다면 ‘알데하이드’의 구조는 알고 있나요?

A : 그것도 찾아본 적이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Q : 화학II 범위가 어떻게 되죠? (알데하이드 구조 설명 못 해서 화학II에서 배운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의도인 듯.)

A :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해서 배우고, 농도에 관해서도 배우고 용액의 총괄성, 생활 속의 화학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Q : 자소서를 보니까 ‘중쇄카르복실산’에 대해서 탐구를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중쇄카르복실산’은 친환경 플라스틱입니다. ‘중쇄카르복실산’은 해조류를 통해서 만들어 냅니다. 해조류에서 지방산을 분리하고, 그것을 미생물과 반응시키면 ‘중쇄카르복실산’이라는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에서 기인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합성 플라스틱보다 쉽게 부패할 수 있고, 설령 부패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해양 생물이나 사람이 섭취하게 되더라도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Q : 실제로 ‘중쇄카르복실산’이 적용된 상품이 현재 있나요?

A : 아직은 없습니다. ‘중쇄카르복실산’은 2017년에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개발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Q : 플라스틱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A : A : 합성…….

Q : 플라스틱은 고분자 물질인데, 구조가 복잡하지만 대충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아나요?

A : 플라스틱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Q : 아까 ‘중쇄카르복실산’이 식품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쉽게 부패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 인가요?

A : ‘중쇄카르복실산’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일반 합성 플라스틱은 완전히 부패하는 데까지 100년의 오랜 시간이 걸리며, ‘중쇄카르복실산’은 보다 빠르게 부패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일반 플라스틱과 ‘중쇄카르복실산’은 식품에서 기인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품에서 기인한 성분 때문에 부패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Q : 캠퍼스에서 해수욕장 쓰레기를 관찰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A : 저는 해수욕장을 걸어 다니며 눈에 보이는 쓰레기의 개수를 세고, 쓰레기의 종류에 따른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종류의 쓰레기보다 플라스틱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풍화되면 더 미세한 플라스틱으로 변질되며, 혹여나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면 생물이 섭취하고 생물 농축이 일어나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 플라스틱인 '중쇄카르복실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10분 종료 타이머가 울림)

Q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화학II 세트를 보니까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오류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수학적 모델을 통해 해결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수학적 모델을 사용했는지 말해주세요.

A :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알아내기 위해 피스톤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가 달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둠원들과 토론을 해보았는데, 처음에 피스톤을 끝까지 밀어내지 않았기에 초기 부피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PV=NRT$ 에서 어떤 것은 상수고, 다른 어떤 것은 변수이기 때문에 부피와 다른 요인들은 비례/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이러한 비례관계의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초기 부피가 잘못 설정되어 있을 때 분자량이 잘못 도출될 수 있음을 토론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인터넷에 떠도는 면접 예상 질문들을 보고 대비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어 보고 예상 질문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서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모의 면접을 해본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모의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 그대로 나오기도 해서 답변하기 수월했습니다.
- ◆ '면접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며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면접에서 3개의 질문이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지만 솔직하게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원자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서류 점수가 얼마나 높은지와 상관없이 불합격시킵니다. 저는 대답을 못 한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답변을 잘 대답해서 불합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면접 질문에 대답을 못하더라도 다음 질문에 대해 잘 답변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 생기부 기반 질문이 대부분이지만, 지원 학과에 대한 사고관/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교수님에 따라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으니 평소에 폭넓게 사고하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인류학과	○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30분(제시문숙지) +15분(면접)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과학대학 건물에서 인류학과 면접자들과 함께 대기 ◆ 전자기기 제출 뒤 면접 번호 스티커 받아 옷에 붙임. 번호 불리면 면접 숙지 장소로 이동. ◆ 면접실 바로 앞 복도에서 3명이 문제를 풀. 15분 간격으로 시작함. ◆ 답변지는 A4 4장 정도로 넉넉히 부여. 		
유의사항	◆ 문제지에 낙서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인문 제시문]

송경운과 최복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됨. 송경운은 비파 연주가로 매우 겸손하고 신분, 계급에 상관없이 자신의 연주로 청자가 만족할 때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함. 최복은 산수화가로 상당히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지배계층 앞에서도) 자신의 예술적 지체를 높이 평가하여 한낱은 그림 의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자신이 더 노발대발하면서 자신에게 실망했다면서 눈을 찢러 애꾸가 되었음.

Q : 송경운과 최복의 태도와 예술관을 비교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쪽을 고르시오.

A : 송경운은 예술에 있어서 겸손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예술을 통해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비파를 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최복은 관리조차도 업신여기며 자신의 예술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며 상당히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송경운이 청자의 만족을 위해, 청자가 만족할 때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향유자’ 중심의 예술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최복은 자신의 예술적 경지를 과대평가하며 상대방의 평가보다 자신의 평가를 더욱 중시하며 만족하지 못해 자신의 눈을 찢러 애꾸가 된다는 점에서 ‘예술가’ 중심의 예술관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송경운의 예술관을 지향한다. 예술은 향유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그 명성을 지키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유자를 고려하지 못하는 예술은 그 의미가 퇴색되고 사람들에게서 잊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Q : 송경운과 최복이 나타내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예술 이외에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인간상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말하시오.

A : 송경운은 자신의 재능을 통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청자 중심의 예술관을 가진 사람으로 서비스 정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최복은 자신의 재능에 상당히 오만한 태도를 지니고 자신의 평가에 매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다. 부하직원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사,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한국사회의 대기업 임원들과도 닮아있는 것 같다. 이 둘의 인간상을 현대 ‘기업문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송경운은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선호도를 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만을 출시한다면 제품의 다양성이 소실되고 기업의 뚜렷한 색깔을 잃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최복은 해당 기업의 뚜렷한 색깔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현 세태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업계에서 도태될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예시로 ‘노키아’라는 기업을 들 수 있다. 노키아는 폴더폰 세대 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며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다. 이러한 성공에 취한 채로 안일하게 굴다가 4G 기술, 스마트폰 출시, 등등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지 못하고 결국 애플과 삼성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밀려나서 예전의 명성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이런 예시만 봐도 그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

Q : 최복과 관련해서는 기업을 통해서 실제적인 예를 제시했는데 송경운과 관련해서도 이런 예시를 들 수 있나요?

A : (이때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잠시 생각해본다고 했다) 한국과 외국의 문화 차원에서 송경운의 인간상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외국과 한국의 시험을 비교하면, 외국에서는 채점 기준에 대해 항의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부당한 이유, 자신의 의견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이것을 적극 수용하여 모든 이들의 시험지를 다시 메기는 한이 있어도 수정해주시곤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채점 기준을 바꾸는 데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선생님들도 몇몇 있었다. 학생에 비해 자신이 가지는 지식의 우월성을 믿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능만을 믿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최복과 닮아있는 것 같다. 또한 외국의 기업에서는 상사와 부하직원 간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위계 질서, 연공서열이 너무 중시되는 면이 있어서 상사들이 부하직원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고 부하직원들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사회과학 제시문]

(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 예산을 지급하는 것과 (나) 재무건전성에 따라 자선단체에 투자하는 것에 문제, 갈등이 발생했다는 내용. 재정자립도와 재무건전성이 어떻게 산출되는 지가 적혀 있었음. 정확히 기억이 안남. 재무건전성에 따라 자선단체에 투자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자선단체가 투자를 많이 받고 재무건전성이 떨어지지만 실제 수혜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자선단체는 투자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

Q : (가) 와 (나) 의 의사결정의 공통된 문제점은?

A : 둘 다 목적전치가 일어났다. (가) 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 지역축제를 열거나 특산품을 개발해서 지역사회 자체에서 이익을 창출하려는 동기가 줄어들고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지역들도 더 많은 예산을 배당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를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라는 기준에 너무 의존하는 예산 지급방식이 지역사회의 재정자립도를 오히려 낮추고 경제성장 도모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 의 경우 재무건전성에 의존해 투자를 해주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펴는 자선단체가 투자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자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Q : (가) 와 (나) 중에서 비슷한 사례를 들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A : (나) 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인구 감소와 경제퇴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은 도시를 다시 재황하고 인구를 증가를 위해 정부로부터 상당 금액을 도시재생사업비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날 동안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수혜자, 즉 시민

들은 매우 소수였고 실제로도 그 사업의 효과가 매우 미미했다. 이러한 문제에 심각성을 느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진행했다. 시민들을 상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와 보유지식을 점검하고 실제로 시행되었을 때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여러 사업 리스트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를 수합해 시청에 전달했다. 이에 시청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전담팀을 꾸리고 현재는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실효성이 증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혜자와 공급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행되었을 때 효과가 클 사업들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재무건전성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단일한 기준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실효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도입해서 평가 기준의 다각화를 도모하여 투자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Q :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A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될까요? 저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흥미롭게 받아들였고 더 많은 사람을 더 깊이 잘 이해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학이 주는 인간의 문화, 역사, 언어, 감정을 포괄하는 맥락적인 관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채워진 국가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되어 '다르지만'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인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의 논지가 정확히 서지 않아도 일단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유전공학부			
전형명	지역균형선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시부터 입실하여 8시 50분부터 각 조에서 1명씩 면접을 봅니다. ◆ 면접관은 2명으로 2 : 1 면접이 진행되고, 생기부 기반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대기실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어떤 전자기기도 보유 및 사용하면 안 된다. 대기실에 들어서는 즉시 전자기기를 거두어가니 이에 잘 따르면 문제없다. ◆ 교복 착용은 금지된다. 흑시라도 교복 입고 가면 교복이 안 보이게 가운을 입게 한다. ◆ 다른 면접생과 접촉 및 의사소통은 금지된다. ◆ 면접보다가 흑시라도 이름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말해서는 안 되며, 수험번호도 말하면 안 된다. 대학 측에서 '가번호'를 제공한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이 과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A : 처음에는 심리학을 목표로 3년 동안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서 많은 탐구 활동을 진행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탐구를 진행하다 보니 특정 주제에 대해 심리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학문의 관점에서도 복합적인 탐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학문에서도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1달 동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진정 심리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제 진로에 적합한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하여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진정으로 나아가고 싶은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이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생기부에 아들러 심리학과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대해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각각의 심리학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A : 아들러의 심리학은 목적론적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며, 사람의 감정 및 심리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원인론에 초점을 두고, 정신병리적 현상의 원인이 리비도라는 성적 욕구가 건전하게 발현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Q : 현재 심리학과에서는 아들러 심리학과 프로이트 심리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리학과에 가게 되면 이 심리학들을 연구할 것인가요?

A : 물론, 고전 심리학이 현대에 와서 많은 비판과 반증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전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열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고, 고전 심리학의 탐구는 현대의 심리학을 탐구할 때, 보다 심화적인 탐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학 학과에서 이 심리학들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저는 저의 심리학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확장시키기 위해 고전 심리학을 탐구하고 공부할 용의가 있습니다.

Q :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나 소설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개인적으로 저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현대의 발라드나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는 미련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데에서 약간 집착이라는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진달래꽃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떠나가는 입을 잡고 싶은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그런 애절한 감정을 절묘하고 인상 깊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제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Q : 이 학과에서 면접생을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 저는 특정 주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 다차원적인 접근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 대학의 자유전 공학부에 진학하여 학문 탐구를 통해 사회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물고 늘어지는 질문은 없었지만, 제 의견을 소신 있게 발표하였고, 생기부 및 자소서에 적힌 내용과 일관 되도록 질문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 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면접을 볼 때, 중요한 점을 하나 선정하자면,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이번 질문의 답이 저번 질문의 답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기부 및 자소서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계서 난처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나온 것처럼 왜 이 학과에서 면접생을 뽑아야 하는지 묻는 것처럼 말이죠. 이 질문은 대학 면접에 대해 다른 책들에서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는 본인이 이 학교 및 학과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무난하지만, 창의적인 답으로 면접관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자신이 있다면, 본인이 자유롭게 어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지리교육과	○		
전형명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1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 대기-면접실-면접(교수님 2명)-퇴실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ebs동아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한반도의 편익과 기회비용에 대해 모의 수업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수업했는가?

A : 이 수업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편익과 기회비용과 연관 지어 설명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난류성 어종 포획량이 증가한 것이 편익이고 기회비용은 한류성 어종의 개체 수가 적어지는 것, 고산식물의 분포범위가 줄어드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 (추가 질문) 그래서 학생들이 심각성을 깨닫던가요?

A : 네. 단순히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의 편익과 기회비용을 연계해서 심각성을 설명해서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Q : 역사주제탐구(공동수업) 수업에서 조선 시대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점은?

A : 조선 시대의 교육제도와 학교들을 알아보았고 조선 시대의 교육기관에서는 유교 교육뿐만 아니라 공자와 같은 유교 성현들의 제사까지 담당한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교육에서 본받을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Q : (추가 질문)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A : 저는 유교 성현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렇게 학자들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면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그 내용

A :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탐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의 사례까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또한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같이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Q : (추가 질문) 일본의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나?

A :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일본이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객관식 시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대입 시험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서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Q : 학년장으로 활동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가?

A : 저는 학년장으로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학생들이 조금 더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가지 예시를 들자면 저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받았고 가장 많이 나온 사항은 불편한 교복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학생으로서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한다는 학교 측과 선생님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둘 다 받아들여 교내에서의 생활복 조건부 허용이라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떤 것을 배웠는가?

A : 저희 학교에서는 세계지리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통해 세계지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지리는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리로 인해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천체물리학부 물리학전공			
전형명	학생부종합/지역균형선발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전자기기, 아날로그 시계 착용 일절 금지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강의 및 답변 내용

Q : 오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A : 우선 여러 번 실험해보고, 이론값과 실험값이 다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Q : 오차에는 무슨 종류가 있나?

A :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오차와 관측의 실수로 생기는 오차가 있다.

Q : 중력가속도 실험을 한다고 하자. 어떻게 오차를 줄이나.

A : 우선 관측 횟수를 늘려 오차를 줄여나가고, 그래도 줄여지지 않는 오차는 지하 물질의 밀도, 해발 고도 등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해 계산하여 오차를 줄인다.

Q : 그러면 자연적인 오차를 줄여나간다는 것인가? 아니면 실수로 인한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인가?

A : 실수로 인한 오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오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 : 회절격자의 원리는 무엇인가?

A : 우선 회절격자의 원리를 알기 전에 데이비스 저머 실험과 회절의 원리 등을 배우며 '경로차'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이런 경로차에 의해 보강과 상쇄간섭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회절격자도 빛이 통과하면서 경로차에 의해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그 방향을 관측할 수 있다.

Q : 볼츠만 사하 방정식이 자소서에서 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보아라.

A : (볼츠만 사하 방정식 설명 - 결합을 통해 수소 흡수선의 세기를 나타낼 수 있음을 설명함.)

Q : 관측 대상은 어떻게 정했는지?

A : 각 분광형에 따라 관측할 별을 정하고 그를 관측했다.

Q : 온도는 어떻게 구별하나?

A : 온도를 구별했던 방법은 지금 잘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최저 미충족이 꽤 많아 생각보다 면접이 일찍 끝난다. 생기부 면접이라 끝나고 바로 귀가한다.
- ◆ 지역균형 면접을 본 친구들과 얘기해보니, 이번 면접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강하게 질문했던 것 같다. 한 예를 들면, 다른 친구에게 생기부에 있는 활동에 대해 '이건 그냥 생기부 채우려고 한 활동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면접 때 교수님께 기 놀리지 말고 끝까지 잘 대처합시다.
- ◆ 물리학과와 경우 34명 중 24명이 면접에 왔고, 이번에 등급컷이 높게 형성되어 실제로 최저를 맞춘 사람은 더 적을 것이다. 면접 준비보다 최저 공부를 우선시합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화학부		○		
전형명	지역균형선발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보기 15분쯤 전부터 면접실 밖에서 대기 ◆ 면접관 2명 				

질문 및 답변 내용

Q : 3학년 때 동아리 화학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여러 실험 중 불꽃반응 실험을 한 이유?

A :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금속이온과 실험실에서 얻을 수 있는 금속이온으로 실험을 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Q :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금속이온은?

A : 염화나트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라면 스프에 염화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라면 스프를 이용해 금속 반응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Q : 실험 결과는?

A : 라면 스프로 불꽃반응 실험한 것은 라면 스프의 색이 원래 빨간색이어서 실험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험실의 금속이온으로 실험한 것은 결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Q : 3학년 세특에 엔탈피를 이용해 동화반응과 이화반응을 설명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설명했는가?

A : 동화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여 합성이 이루어지는 흡열반응이고, 이화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반응입니다. 동화반응은 엔탈피가 커지는 반응이고, 이화반응은 엔탈피가 작아지는 반응입니다.

Q : 더 자세히 설명해 보라.

A : 대표적인 동화반응인 광합성을 예로 들자면 엔탈피가 작았던 물과 이산화탄소가 엔탈피가 큰 포도당으로 합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화반응이 일어나면 엔탈피가 커지게 됩니다.

Q : 과학부 차장, 부장 활동 내용과 힘들었던 점, 보람 있었던 점은?

A : 과학부 차장, 부장으로서 친구들의 과학 관련 의견을 듣고 건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학생부의 일원으로서 과학을 이용해 학교를 더 낫게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학생들에게 계단 이용을 장려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몸이 불편한 학생들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계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할 때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과 계단을 이용할 때의 좋은 점을 적은 포스터를 붙였고,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리더의 자질임을 깨달을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힘들었던 것은 포스터를 붙여도 여전히 승강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학생들에게 포스터를 읽어보도록 유도하며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Q : 학교에 와서 배우고 싶은 것은?

A : 생화학과 유기 화학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화학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약학 연구원이 되는 것이 꿈이고, 그중에서도 천연물의 유용한 화학물질이 합성되는 메커니즘을 밝혀 이를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생화학과 유기 화학에 대해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시립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공간정보공학과		4	
전형명	고른기회 I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2명씩 면접실로 불러감. ◆ 앞번호 면접자가 면접을 볼 동안 면접실 앞 의자에 앉아 대기. ◆ 면접관: 남자 2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학교명 및 본인 이름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저는 공간정보공학에 흥미를 가지고 이 학문에 대해 지식을 쌓고자 서울시립대학교의 공간정보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Q : 생활기록부를 보니 과학 성적이 좋지 않는데 그 이유와 1학년과 2학년에는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3학년이 돼서 왜 공간정보공학과에 관심을 가졌는지 알려주세요.

A : 1학년과 2학년 때는 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나 3학년이 되고 여러 독서 활동을 통해 IT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차 과학을 공부하는 것에도 흥미를 가졌습니다. 공간정보공학과에 흥미를 가진 것은 독서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공간정보공학과를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을 언급했을 때 면접관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답변하는데 주눅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을 할 때도 계속 수학과 과학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을 언급해서 자신감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Q : 사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직접 찾아보기 힘든데 자율주행자동차 이외에 공간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고 있나요?

A :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지도를 제작하는 것에도 사용되고 캡스톤 디자인 등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캡스톤 디자인이 무엇인가요?

A : 3D 도면 등 3차원 정보를 구현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생활기록부를 보니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는 비행기의 양력을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 아쉬웠다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비행기의 양력은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사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에 의해 인정받은 것인데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좀 궁금하네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을 텐데.

A :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행기는 양 날개와 동체가 양력으로 인해 뜨는데 이를 베르누이 방정식으로는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베르누이 방정식이 틀렸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의 양력은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와 당황한 상황에서 제 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Q : 2학년 때 정보를 배웠는데 여기서는 코딩을 배우는 건가요?

A : 네.

Q : 그러면 코딩을 할 수 있나요?

A : 사실 이 수업이 일주일에 1시간 있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이 수업만으로 코딩을 다 익힐 수는 없었습니다.

Q : 정보 세부능력특기사항에 보니 인공위성의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인공위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죠?

A : 그 활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 활동은 정말 아는 바가 없었고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라고 했을 때 방법이 없었습니다.)

Q :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A : 요양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다 자식 걱정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저 또한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저는 제가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보다 뒤처져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쌓아온 것을 바탕으로 결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 성격을 바탕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진학하여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저는 아무래도 대답하지 못한 질문이 많았고 수학과 과학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불합격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그 전 질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답할 때 설블리 대답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당황하더라도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시립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도시사회학과			1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2~3분 정도 초과함)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은 A, B조로 나뉘어 있고 각 조마다 큰 강의실에 다 같이 대기함. ◆ 과마다 2~4개 정도의 면접조가 나뉘어 있음. ◆ 가번호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하고 면접실 앞에서 20분 정도 대기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이 금지되어 있고 성명, 출신고교, 수험번호를 말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영어 성적이 국어 성적에 비해서 낮은 편인데 같은 언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A : 내신 시험 영어의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공부하는 요령을 잘 몰랐고 시험 칠 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3학년 들어서는 중요 단어를 가리고 공부를 한다거나 흐름을 파악하는 등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성적을 약간은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Q : 영어를 안 좋아한 것은 아니었는지?

A : 시험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영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Q : 공자와 플라톤의 이상사회를 비교하여 현대사회가 배울 수 있는 점을 논설문으로 작성했다고 적혀 있는데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A : 먼저 공자의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공자의 이상사회는 대동사회로 가족부터 시작해 국가로 점차 사랑이 확대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공자는 주장하였습니다. 플라톤의 이상사회는 철인통치사회로 세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계급마다 요구되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위의 계급인 통치 계급은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조화를 강조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공자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던 반면에 플라톤은 생산자 계급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 수호 계급은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양육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 : 두 사람 다 굉장히 오래된 사상가인데 현대사회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

A :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조화를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성별 간, 세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답변은 제대로 기억 안 남)

Q : 조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현대사회에 젠더 문제가 심각하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젠더 문제의 경우 가장 큰 원인은 자기중심주의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성별 모두 차이점을 인정하 기보단 어느 한쪽이 더 힘들다는 식의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답변은 제대로 기억 안 남)

Q : 도시사회학과가 우리 대학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고 지원하였나요?

A : 저는 평소에도 사회학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의 목표도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도시사회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스스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학과 커리큘럼이나 이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이것이 저의 목표에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A : 저는 도시가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았습니다. 도시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에 도시에서 소외되는 이웃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모두가 잘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의 도시사회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Q : 본인의 롤모델은 누구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과와 관련이 없더라도 생기부의 꼼꼼한 내용까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생기부를 완벽하게 외워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시립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세무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국제경제 수업에서 한국 기업의 세계화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었는지 말해볼래요?

A : 다국적 기업 중 한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규모가 큰 자동차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각각의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여 인건비는 줄이면서 노동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Q : 1학년 이후로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학업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다른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보다 조금 더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 제 위로 치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핑계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Q : 본인의 성격이 꼼꼼해서 회계사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성격이 꼼꼼하다고 생각했나요?

A : 저는 매일 그날의 할 일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계획한 일은 모두 해내도록 노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차 없이 꼼꼼하게 계산을 계획하고 분석해야 하는 회계사라는 직업에 제 성격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 : 1차 서류 심사에 합격해서 오셨는데, 면접관들이 본인의 서류의 어떤 부분을 보고 합격시켰다고 생각하나요?

A : 제 자소서와 생기부에는 제가 한 다양한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모두 지원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한 저의 적극성을 보시고 저를 합격시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접관 한 분이 꼼꼼한 것과 적극적인 것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Q : 행동경제학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A : 행동경제학이 심리학과 경제학이 접목한 학문인데, '사람들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행동하는 데에도 경제학이 필요하다'라는,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 방법과는 다른 행동경제학만의 경제학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학과에 대한 전공적인 질문보다 적합성을 물어보는 질문이 더 많았다. 본인이 지원학과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 시사 문제를 많이 물어본다고 했는데 오히려 시사 문제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신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일본어과	○		
전형명	어학특기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대3 면접, 일본어과 교수님 포함 입학사정관 3명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시오.

A : 일본에서 국립학교를 다녔던 경험은 저에게 일본어과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에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한일관계 개선에 이바지하는 번역가가 될 것입니다.

Q : 한국어와 일본어 중 어떤 것이 더 편한가? (일본에서 살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신 질문)

A :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능숙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일본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가?

A : 일본어로 된 소설을 읽고 일본에 대한 뉴스, 신문 기사 등을 접하면서 일본어 실력과 일본에 대한 이해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Q :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학대학교의 특성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예상)

A : 높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적당히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의 신뢰와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채플이 한 주에 2시간씩 있고, 한 학기에 한 번씩 2박 3일 신학 관련해서 성경캠프를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다 참가할 의향이 있고, 만약에 무교인 친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친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모태신앙이고, 성가대로 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Q : 신학대에 와서 일본어 외에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일본어로 답변하세요.

A : 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독교인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신학을 공부하면 일본인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부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와 일본 문화'라는 강의를 통해 일본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신학적 특성이 강한 학교인 것 같습니다. 교양수업도 기독교 관련 수업이 많습니다. 미리 수업에 대해 알아보고 질문에 답변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식품응용시스템학부	○		
전형명	바름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OMR 작성 후 대기하며 이름이 불리면 교수2 학생1로 면접 시작		
유의사항	◆ 휴대폰 반납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화학 수업 시간 중 건강보조제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일반 칼슘의 입자의 크기를 나노사이즈로 줄여 체내 칼슘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단순히 영양성분의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식품소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나노기술을 식품에 적용하여 기존에는 수십 가지의 건강보조제를 일일이 섭취하던 불편함을 한가지 올인원 건강보조제로 섭취에 편하게 바꾸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응용시스템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전교회장으로 활동하셨는데,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A :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교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인관계와 학업에 지친 친구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야시장을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메뉴를 선정하고, 학생부 친구들과 협력하여 야시장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갈등도 있었지만, 극복해나가면서 통솔력을 기를 수 있었고, 리더란 이끌어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줄도 아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야시장을 진행하면서 갈등 같은 건 없었나요?

A : 야시장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 선정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혼자 야시장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생부 친구들과 협력했지만, 각각의 다른 의견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대한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만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전교회장으로서의 목표를 가져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학생부 친구들과 토의형식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모두 말한 후에 가격의 적절성과 식재료의 질을 고려한 재료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덕분에 야시장 진행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Q : 학교생활 중에서 본인이 한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A : 많은 활동 중에서 저는 유산균 초콜릿에 대해 발표했던 과학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과학 잡지를 읽으면서 시중에 판매되는 요하이 초콜릿에 대해 조사하고 유산균과 초콜릿의 결합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초콜릿은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나, 크리미한 초콜릿의 형태적 특

성은 유산균의 체내 도달 비율을 높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식품은 단순히 그 식품이 가진 영양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섭취 형태나 성분의 크기에 따라 인체에 줄 수 있는 좋은 영향들이 생각보다 다양함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수상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이 있다면?

A : 저희 고등학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교육의 밑바탕으로 삼고 있어서 환경에 관한 활동이 가장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린 셰프 대회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물과 불 없이 음식을 조리하는 대회였습니다. 저와 같이 식품에 관심이 많은 친구와 한 조가 되어 아보카도 명란 새싹 비빔밥을 메인메뉴로 선보였습니다. 비빔밥의 밥은 대회에서 허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요리에 대해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회를 떠올렸지만, 기생충 감염 등 식품에 의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 전통 음식 기법인 발효는 환경파괴와 질병을 모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메인 메뉴의 식재료를 명란젓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서울여자대학교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탓에 제 역량과 잠재력을 모두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최근 새로운 홍보 주제가 'WE풍당당'인 만큼 저는 포기하지 않고 세계를 향해 도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여자대학교 재학생들만의 애칭인 '슈니'가 되어 서울여대인으로서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영위하며 서울여자대학교를 빛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여자대학교 식품응용시스템학부에 합격해야 합니다. 면접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기본적으로 면접 준비할 때 기억에 남는 활동을 최소한 2개 정도는 대본을 만들어서 충분히 익혀놔기에 면접관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 ◆ 같은 날 면접 경험이 있어서 떨지 않고 '면접관을 상담해주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면접 봤습니다.
- ◆ 수상경력에 대해서 물어볼 줄은 몰랐는데 다행히 기억에 남는 활동을 정리하면서 껍치는 내용이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입실하기 전에 생활기록부를 처음부터 정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아동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수 2명		
유의사항	◆ 면접실에 들어가지 전까지 자료를 볼 수 있으니 꼭 챙겨갈 것.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A : 저에겐 2명의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어린 동생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며 아동의 발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동의 심리를 깊이 탐구해보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아동학과에서 유아 아동 청소년의 전체적인 발달을 배울 수 있다는 점과, 아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보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꿈이 바뀌게 된 이유?

A : 어린 동생에게 한번 형성된 잘못된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유아기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아기 때의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바른길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유치원 교사로 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이 유치원 교사로 바뀌게 되었지만, 아동심리에 대한 저의 꾸준한 관심은, 유치원 교사가 되어 유아를 교육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진학 후 학업계획과 진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 먼저는, 심리행동 분석과 발달심리학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아동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다 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다루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유아연구학회에 들어가 영 유아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유아를 탐구할 것입니다. 교직이수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경험을 쌓은 뒤 유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유아교육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취업할 것입니다.

Q : 지원학과에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아... 사실 저는 1학년 때는 공부와 대학진학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점점 관심을 가졌고 뒤쳐진 학업을 따라잡으려 보니,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노력했는데... 아쉬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Q : 자료를 보니 참여하려 노력한 게 보이고 좋은 결과도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혹시 기억에 남는 비교과 활동 하나만 말해줄 수 있어요?

A : 사회과 정책 제안 대회에서 수상한 것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뿐더러 우리나라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야간 운전 시 도로선이 보이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Q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A : 원리는 도로 선을 그리는 페인트에 발광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광물질은 낮 동안 태양열을 흡수했다가 밤이 되면 흡수한 태양열을 방출해 도로선이 야광으로 비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도로라는 것을 사용해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발광물질이 들어간 페인트를 도로 선에 칠하면 밤에 따로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서 경제성과 에너지 절약에 효율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Q : 교외 봉사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 저는 평일에 학교에서 봉사와 학업을 병행하여 충실히 하고자 했습니다. 주말에는 저 스스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일요일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보내니, 일주일 동안 제가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뿐이었습니다. 교외 봉사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에게 심을 주는 대신, 학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Q : 마지막 할 말은?

A : 저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아이입니다. 4등급의 성적으로 시작했지만 3학년이 되어서 1등급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제가 학생회와, 학급 반장을 통한 여러 경험을 통해 적극적이고 당당한 학생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를 전부 보여줄 순 없었지만 서울여자대학교에 합격한다면 저의 능력을 바탕으로 서울여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감 있게 말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어교육과		44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자 1명당 약 2분 30초~3분 초·중반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 문제 제시)	
	면접절차	◆ 3:1 면접		
유의사항	◆ 입실 시간 준수 ◆ 수험표 부착 ◆ 교복 착용 금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만 가능), 수험표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먼저 우리 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지원한 동기는?

A : 저는 고등학교 생활 중 <글로벌 리더십 비전 트립>에 참여함으로써 단기 미국 홈스테이 활동을 통해 외국인과 생활하고 직접 소통해봤습니다. 그때 시험과 문제 해결을 위한 영어 능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어 사용 경험 또한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원대의 교육목표인 '실용인 육성'이 세계화 시대에 실용영어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저의 교육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영어교육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 할 수 있는 길로 지도해주는 영어교사가 되고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영어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영어교사상은?

A : 저는 학생들이 영어라는 과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영어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정해져 있는 교과수업방식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팝송을 통해 영어 표현들을 배운다든지 학생들이 요즘 자주 접하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일상 영어 표현들을 배우면서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가르쳐 준다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흥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수업방식을 이끌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러면 영어를 좋아하게 된 동기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A : 저는 평소 세계 여러 나라 언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영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나가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더 커지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Q : 자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A : 네, 저는 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하여 학과 커리큘럼에 따른 수업뿐만 아니라 그중에서도 영어회화를 중점으로 두고 공부해나가고 싶습니다. 이후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인재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교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면접 문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은 제게는 상당히 벅찼습니다. 그래도 나름 면접 준비를 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도중 말이 꼬이고 말을 더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정말 ‘면접 체질이 아니다’ 하시는 분은 완벽하게 하시려면 면접 질문에 답 달고 암기하는 면접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눈 마주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선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상담산업심리학과		2	
전형명	고른기회(농어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0
	면접절차	◆ 수험표 및 신분증 확인 후 대기실로 입장 ◆ 가번호 부여받고 휴대폰 걸고 사인 ◆ 면접장 입장 ◆ 면접 끝나면 귀가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이라 부모님 관련한 내용과 이름 언급 불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일상생활 속에서 지원자 스스로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한 경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기 바랍니다.

A : 저는 독서 활동을 계획해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독서 활동을 계획한 이유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더 쉽게 접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책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해서 책을 읽고, 책 1권을 다 읽으면 독서기록장에 기록하고 주변 사람에게 책 추천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Q : 자신의 장점 가운데 지원학과와 전공과 관련하여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며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기 바랍니다.

A : 저의 장점은 타인에게 감정이입하여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이 장점은 제 꿈은 심리상담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심리상담사가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뢰감은 내담자가 '심리상담사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를 느낄 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심리상담사가 되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단점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것은 심리상담사가 된 후에 내담자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점을 심리학을 배우면서 자기 치유를 통해 극복하고 싶습니다.

Q :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경험했던 활동 중에서 뿌듯함을 느꼈던 성취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기 바랍니다.

A : 저는 2학년 때 했던 국어 조별 활동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매우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서서 하는 일이 있다면 선뜻 나서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이 자신감을 극복하기 위해 2학년 때 독서 발표를 하였고 미숙하지만 발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자신감을 극복할 수 있었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Q : 책은 어떤 책을 주로 읽었나요?

A : 처음에는 심리학 책을 주로 읽다가 다양한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경제, 소설 등의 책을 읽었습니다.

Q : 전공 관련 활동 중에 꼭 심리상담사가 되어야겠다고 느낀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A : 저는 공식적인 활동은 아니지만, 친구와 상담을 하며 친구가 저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울고 웃으며 잘 털어 놓는 모습에 상담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면접관님이 다시 물어보셨는데 약간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 한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시간을 좀 드릴 테니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A : 저에게는 이 면접이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심리상담사라는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만큼 앞으로의 도전을 전문대학교 상담산업심리학과에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꼬리질문에 대답을 잘못된 것 같아 아쉬웠다.
- ◆ 마지막에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 ◆ 모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선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치위생학과		11	
전형명	선문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 후 면접실로 이동		
	유의사항	◆ 교복 착용 불가 ◆ 신분증 및 수험표 필수 ◆ 휴대폰 반납 ◆ 블라인드 면접 ◆ 학교명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인성)

Q : 일상생활 속에서 지원자 스스로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한 경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기 바랍니다.

A : 저는 2학년 후반부터 현재까지 경찰행정학과를 지원한 친구와 함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매번 10분 동안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저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해보라는 친구의 조언에 신체의 자신이 없는 부분을 생각하였고, 그에 따른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공적합성)

Q : 자신의 장점 가운데 지원학과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며,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말해보십시오.

A : 단점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르기 수행평가에서 어렵다고 느꼈던 구르기를 연습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의 주저하는 성격에서 무엇이든 도전하고 접하여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장점은 밝은 웃음으로 소통하며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치위생사로 근무하게 될 때 노인 혹은 아동 치아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보일 때 저의 밝은 웃음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가능성)

Q :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해보기 바랍니다.

A : 허소운 작가님의 '나는 치위생사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진로 목표를 치과위생사로 세웠을 때 가장 먼저 읽은 책이었고 도움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또한 현직 치과위생사가 쓰신 책이기에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과 치과위생사가 지녀야 할 덕목 등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치과위생사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치과위생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물어보실 때 꼭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성결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연극영화학과			
전형명	연극영화과 실기 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4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실기
	면접절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고사장(연습실)인 경우 바닥이 매우 미끄러움. ◆ 제시 대사가 9~10줄 정도 됨. (끝까지 보지 않으니 반 정도는 완벽하게 하기, 그렇다고 뒷부분을 연습 안 하는 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무용(특기) 얼마 동안 준비했어요?

A : 3개월 준비했습니다.

Q : 학원 얼마 동안 다녔어요?

A : 1년 다녔습니다.

Q : 왜 무용을 특기로 선택했어요?

A : 제 신체적 장점 중의 하나가 팔, 다리가 길고 얇은 것인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데 무용이라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 최근에 읽은 희곡이 뭐예요?

A : 셰익스피어 작품을 좋아해서 4대 비극을 읽었습니다.

Q : 그림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예요?

A : 햄릿 중에... (머뭇거리니까 면접관께서 웃으시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갔다.)

Q : 현역이에요?

A : 네! 고3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성공회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과		11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열린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시 40분 입실 시작 ◆ 1시 입실 완료 ◆ 대기시간 20분 ◆ 면접관 2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1분)

Q :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Q : 자기소개 꼬리 질문, 본인이 생각하는 신뢰받는 언론이나, 언론인

Q : 우리 학교에 오면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학업계획)

Q : 우리 학교에 다전공제도 있는 걸 아는가? 혹시 다전공으로 하고 싶은 게 있나요?

Q : 영상기자단 활동하면서 편집해봤는가?

Q : 편집할 줄 알면 틀 같은 것도 다룰 줄 알겠네?

Q : 독서량이 많은데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책은 무엇인가?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기소개서 보지 말고, 생활기록부랑 예상 질문만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면접 어렵지 않고, 교수님들이 분위기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성균관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교육학과			16	
전형명	학과모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님과 2:1 면접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면접대기실에서는 볼 수 있는데 3명씩 복도에 나가서 대기할 때는 자료를 볼 수 없었습니다) ◆ 교복, 이름, 학교 등 블라인드 면접 ◆ 면접 시간 준수 (12시까지 입실해야 했는데 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면접 감독관분들이 전화를 3번 정도 했는데 받지 않다가, 12시 15분쯤에 도착하니 지금 입실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친구가 면접을 보지 못했어요... 면접 입실 시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교육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주세요

A : 교육학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풀 김 교수님을 알게 된 이후 교육이 자기 계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통해, 교육자로서 저의 가치와 꿈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를 실현하여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Q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을 때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말해주시고 그 사회에서 교사가 가져야 할 자질 중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주세요. (생기부 기반)

A : 데이터 양이 방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추가 질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AI와 같은 기계를 다루는 능력도 필요할 텐데, 그 능력 보다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A : 디지털 문해력, 즉 기계를 다루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 인터넷처럼 접근성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사는 그 속에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비판적 사고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Q :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지속해서 한 활동이 있으면 말해주시고 그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어떤 면이 변화, 성장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세요.

A : 중학교 때부터 지속해 온 활동은 없지만 고등학교 때 교내의 영어재능기부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학생과 상호소통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 자소서에 자음군 단순화, *탈락에 대해서 적어두었던데 구개음화(역사적인 변천을 설명하심)와 연관 지어 설명해보세요. (자소서)

A : 구개음화와 자음군 단순화, * 탈락의 연관성에 대해 갑자기 생각을 하려고 하니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 당시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를 헷갈려하는 친구에게 ‘뽕은’이라는 예시로 개념을 말해주고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Q : (추가 질문) 옛 선조들은 그렇다면 발음을 할 때 불편함을 겪었겠네요?

(이거 외에도 국어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한 개 정도 더 받았고 그때 대답을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려고 하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Q : 우리 학교가 학생을 뽑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A : 저는 학생이 가져야 할 태도 중에는 배우고자 하는 열의와, 선생님을 존경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할 열의가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또한 성균관대학교의 글로벌기초융합프로젝트와 같이 한 분야에 국한된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배우고자 하는 것을 잘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추가 질문) 사범대학에서는 어떻게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A : 교육 심리학이나 교육 철학과 같이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배우는 과정도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 번호를 추첨하는 데 생각했던 것보다 앞번호가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앞번호를 뽑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남은 시간 차분하게 자신의 답변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면접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면접에서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나오더라도, 모르는 것은 인정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인사와 마지막 인사를 잘 정리하는 태도를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성균관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학교육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학과모집)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대기실 입실 후 면접순서 추첨, 면접 진행.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교복 착용 금지, 이름과 학교명 언급 금지 등)			

질문 및 답변 내용

Q : 4차 산업혁명 시대 수학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학 교사의 역할은 시대에 맞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자질이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여 개념을 튼튼하게 갖춰주고 활용의 경험까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수학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Q : 3년간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로를 위해 노력한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은?

A : 저는 3년간 진행했던 교육 자율동아리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1학년 때 했던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을 바탕으로 3학년에 이어 진행했던 활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방식에 관한 고민을 진행하며 의문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고 구체화했던 경험이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Q : 수학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가요?

A : 저는 ‘확률과 통계’ 과목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다른 수학 과목보다 유난히 실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배우는 과정에서 흥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Q : 수학과보다 수학교육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A :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육 동아리, 교육 봉사 활동들을 하면서 지식 나눔에 대한 고민과 즐거운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 수학교육과가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A : 수학 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소통능력, 공감 능력, 지식 전달 능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공 관련 독서, 수학사 동아리 등의 활동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습상황에 맞는 수업을 구상할 수 있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 성균관대 수학교육과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성신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식품영양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자기주도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과 수험생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소서, 생활기록부 볼 수 있음 ◆ 블라인드 면접 진행(교복 착용 금지),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교과 관련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A : 저는 실험 파이프 동아리에서 '오호' 만들기 활동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식품이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습니다.

Q : 오호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나요? 또한 상용화되지 않는 이유와 상용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A : 실제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터지기 쉽기 때문에 상용화는 어렵습니다. 물 대신에 케첩과 같은 소스류를 담는다면 상용화가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Q : 교외 봉사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이야기해보세요.

A : 저는 청소년 나눔 체험 투어에서 벽화 그리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부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활동을 통해 감정을 나누는 것 또한 기부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르신들께서 마을 소개와 벽화 그리기 활동 지도를 해주셨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Q : '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법' 책을 읽고 기억에 남는 부분을 이야기해보세요.

A :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공식품이라 하면 몸에 좋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가공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가공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소시지, 베이컨 등이 있습니다.

Q : 전공 관련 교과 활동은 어떤 것을 했나요?

A : 고등학교 3학년 때 생명과학 시간에 책을 읽고 포스터를 제작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에이크만이 들려주는 영양소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좋은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Q :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A : 콜레스테롤은 밀도에 따라서 HDL과 LDL로 나뉩니다. 우선 HDL은 몸속의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조직에서 제거하여 간으로 이동시킨 후 쓸개즙을 통해 배출하여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LDL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말단 세포로 이동시켜 몸속에 쌓이게 하여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Q :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식품학 연구원으로 진로가 변경된 이유 및 동기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저는 식품 저널을 읽던 중 여러 학교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식품 변질의 원인에 대해 조사하던 중 미생물의 활동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식품을 개발하는 식품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A : 제 좌우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수식어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붙으면 긍정적인 문장이 됩니다. 이처럼 제가 식품학 연구원이라는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질문은 생기부의 세특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학과와 관련한 자소서와 생기부 내용을 전체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련된 지식을 조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성신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일본 어문·문화학과	○		
전형명	어학우수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대기실 뒤에서 제시문 확인 → 면접실		
유의사항	◆ 대기실에서 면접실에 가기 전에 1분 정도 미리 3개의 제시문을 볼 수 있음. ◆ 면접실에서 들어가 추가 질문 없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됨. ◆ 답변을 빨리 끝내면 앞 답변 내용을 보충할 기회를 줌. ◆ 2(교수) : 1(지원자) 면접, 온화한 분위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신이 선택한 학과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나요?

A : 저는 한국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연극을 한국의 연극에 접목 시키면 한국 연극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타카라즈카’나 ‘2.5 뮤지컬’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원어 더빙, 원어 연극, 번역 수업 등을 한다면 저의 진로 역량을 계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어학 특기자로서 학교에 들어와 어떻게 공부할 건가요?

A : 많은 실천적인 활동을 할 것입니다. 저는 가르침 속에서 배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면서 저 스스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때부터 일본어 번역 활동을 시작해서 남들보다 경험치를 많이 쌓아둘 것입니다.

Q : 자신의 단점은 무엇이고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A : 저의 단점은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에 깊게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에 빠져있었지만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점점 고민하는 기간이 짧아졌고, 친구와 가족과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최초합격 이유는 공인 어학성적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JPT 975점 - 성신여대 평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97점) 또 일본의 연극 분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신여대는 일본어학과의 특색이 예술 분야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학과의 특성에 맞게 대답한 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또, 영어 성적이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세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서비스학과		○		
전형명	면접실기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신분 확인 후 대기(대기하는 동안 학과장님께서 직접 대기실에 오셔서 학생들에게 학과에 대한 소개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심) ◆ 이름 호명하면 차례대로 5명씩 면접고사장으로 이동 ◆ 면접고사장 앞에서 다 같이 인사 연습 후 대기 ◆ 입장(면접관 5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신분이 드러나는 언급 금지(사는 지역, 학교, 가족관계 등) ◆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 주어지는 면접 질문 이외에 먼저 손들고 한마디 더 하는 것도 금지됨 ◆ 면접 들어가기 10분 전 예상 질문 주어짐(10문항)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일주일 동안 휴대폰을 못 쓰면 어떤 점이 불편할 것 같은지</p> <p>A : 저는 자주 얼굴을 볼 수 없는 친구들과 연락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면접장에 들어오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더욱 긴장감 없이 면접장에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없다면 이렇게 자주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많이 의지하는 친구들과 연락할 수 없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Q : 지금 가장 받고 싶은 선물</p> <p>A : 저는 요즘 가지고 싶은 외투가 하나 생겼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늘 면접 자신감 있게 보고 오면 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오늘 면접을 후회 없이 잘 끝내고 외투를 선물 받아 남은 면접 기간동안 그 외투를 입고 따뜻하게 다니고 싶습니다.</p>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p>◆ 세명대학교는 다른 학교보다도 더 꾸며진 답변을 매우 싫어하고 솔직하고 꾸밈없는 답변을 좋아한다고 선배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면접 10분 전 공개 된 질문들을 보고 답변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키워드만 생각하고 면접장에 들어가 최대한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면접에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 분위기도 정말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교수님들이 정말 대화하듯 솔직한 답변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도 더욱 마음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자연스러운 눈 맞춤과 답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p>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세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생명시스템학부			
전형명	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개인 정보 드러나지 않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A : 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난치병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개발연구원을 꿈꾸고 있는 가수험번호 0번입니다. 저는 저의 장단점으로 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미래 학업계획, 인생 계획을 미리 세워보며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긋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을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하게 확인하며 완성도 높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장단점을 이용해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Q : 어떤 학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A : 세종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에 진학해서 식품 공학, 바이오융합공학, 바이오산업자원공학 중 바이오융합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해서 생명과학 지식, 의약품 관련 지식을 쌓은 후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제약회사에 입사하여 신약개발연구원이 될 계획입니다.

Q : 신약개발연구원으로써 가져야 할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최대한 기억나는 만큼 적습니다) 최근에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에서 관절염 치료제의 성분을 속였던 것처럼 환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의 성분과 제조 과정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제약품과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루게릭병의 현재 치료제 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A : 루게릭병은 아직 발병하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냥 '유전적인 요인일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만 있어서 치료제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A :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연예인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참여해서 알게 되었는데 서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저도 친구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 생명과학 관련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A : 브로콜리 DNA 추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Q : 실험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A : 어... 실험을 하기 전에 먼저 교과서를 보면서 실험 과정을 익히고 실험에 대해 이해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알려주는... 그런 실험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다른 조들에 비해 약하게... 나왔는데 그 오류를 찾아보고 실험을 다시 해보면서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탐구해나가는... 그런 탐구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입이 움직이는 대로 말했습니다)

Q : 수리논술 동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A : 매년 수학 축전에 참가하면서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수학을 재밌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피젯스피너, 오더리탱글 등 만들기 체험 부스 운영을 주로 했습니다.

Q : 학교 축제에서 동아리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A : 테셀레이션을 이용한 파우치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Q : 진로 관련 활동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A : 2학년 학급특색활동으로 자신의 진로에 문제가 되는 것과 그 해결방안을 발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신약개발연구원에 끼치는 문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신약개발연구원은 세포를 배양하거나 약품을 만들고 나서 그 경과를 꾸준히 확인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업무를 진행할 다음 사람에게 일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약개발연구원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Q :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A : 탄력 근무제를 도입해서 자신이 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정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 AI를 이용한 제약 산업은 어떤 것입니까?

A : 컴퓨터에 화학약품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효과를 미리 프로그래밍해두고 신약후보 물질을 그 컴퓨터... AI에... 넣으면 그 효과를 임상실험이나 동물실험을 하지 않고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Q : 수시 여섯 군데 다 넣었습니까?

A : 네. 6개 다 넣었습니다.

Q : 다 같은 과로 넣었습니까?

A : 네. 다 비슷한 과에 지원했습니다.

Q : 세종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저는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동, 유전 활동 등 생명과학 지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종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에 바이오융합공학이 그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세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정보보호학과			
전형명	창의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9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 ◆ 면접준비실에서 40분 동안 제시문을 본다. ◆ 그 후 면접실에 들어가 9분 동안 제시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5분은 제시문을 설명하고 남은 시간은 서류 기반 문제를 받는다.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그걸 활용한 사물이나 사례는 무엇인가?

A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초융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물이나 네트워크 등을 융합하여 기술을 더 유용하게 이용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 사례로 IOT나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Q : 그럼 3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A : 3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컴퓨터로 1, 2차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업무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공정과정까지 컴퓨터를 이용해 손쉽게 정리하여 일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Q : 정보보호란 무엇인가?

A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올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복잡해지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고 정보보호는 허락되지 않는 사용자는 열람할 수 없는 '기밀성', 허락되지 않는 사용자가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무결성', 허락된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 방해받지 않아야 하는 '가용성'.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블록체인 기술의 단점은 무엇인가?

A :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애초에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신뢰를 기반으로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나눠준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데이터를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니까 그만큼 용량을 차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세종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공학과	○		
전형명	창의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 1명, 입학사정관 1명 ◆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금지 ◆ 면접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 제시문 풀이 40분 동안은 어떤 자료도 볼 수 없으며, 풀이 이후 곧바로 면접 실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및 향후 진로 계획?

A :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컴퓨터를 많이 접했고, 중학교에 들어서 컴퓨터를 통한 생산적인 활동에 대해 알아보다 컴퓨터 동아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컴퓨터라는 학문의 다양한 분야를 알아보았고, 고등학교 진학 후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정보보호로 구체적 진로를 확정했다. 3학년이 되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네트워크 보안 관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컴퓨터 공학 및 정보보호로 유명하고, 학사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복수전공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골고루 배울 수 있고, 대학원 진학을 통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종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

Q :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극한의 정의의 발전을 역사 순으로 정리 및 발표한 활동이 있다. 이 활동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나?

A : 우선, 극한의 정의가 과거에는 동적인 의미로써 정의되었다. 예) 아르키메데스의 화살. 이 정의의 문제점은 동적인 개념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논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적분학의 발견과 동시에 보다 엄밀한,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와 논리가 필요해졌고, 이후 정적인 개념으로써, 두 개의 임의의 변수를 통해 연속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엡실론-델타 논법이 발명되었다. 이를 통해 견고한 논리적 배경을 가지고 미적분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

(엡실론-델타 논법의 구체적인 점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추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Q : C언어 및 Python을 다룰 수 있다고 생기부에 적혀있다. 이러한 언어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프로그래밍을 해보았는가?

A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영재원을 함께 다녔었다. 영재원을 다니면서 심화 과정을 배울 때에는 C언어를 사용해서 자료구조와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다. 고2가 돼서 사사과정을 하게 되었는데, 인지재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C#과 Python을 통해 프로그래밍했다.

Q : 제시문. 영화관의 수익 및 관람객의 만족도를 최대로 하는 영화 상영 스케줄 짜기. 만족도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절히 가정하여 문제 풀이.

A : 일단 만족도는 제시문에 주어진 예매율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았다. 각 장르별 영화가 한 번씩 상영되어야 하고, 한 상영관에서는 같은 상영 시간을 가진 영화만 상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르에 따라 영화를 분류하였다. 이후 시간당 이익률을 전체 좌석 수 * 예매율 * 영화 티켓 값 / 시간 을 통해 구해 영화별 시간당 수익을 구했다. 각 장르별 예매율과 시간당 수익을 고려해, 상영하지 않을 영화를 추려내고, 남은 영화들을 적절하게 분배하였다. 시간대에 따라 영화 관람객의 연령과 관심사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낮시간에는 코미디, 가족, 로맨스 같은 영화를 주로 상영하고, 저녁 시간에는 액션, 로맨스, 스릴러 영화를 주로 상영한다고 가정했다. 앞에서 한 가정들을 따라 영화들을 배정했다.

Q : 총이익을 계산해 보았는가?

A : 식 구성을 다 하고서 계산만 하면 됐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구하지 못하고 면접장에 들어왔다. (교수님이 웃으심.)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제시문 풀이가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조건이 6개~7개 정도 되었었고, 적절한 가정을 통해 문제 상황을 단순화한 뒤 문제를 풀어야 했다. 세종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런 제시문들을 올림피아드 기출문제나 면접 기출 문제를 통해 많이 풀어보고 면접을 봐야 할 것 같다.
- ◆ 생기부 질문의 경우, 교수의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하면 꼬리 질문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교수에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 ◆ 나의 경우에는 생기부 질문은 잘 대답한 것 같지만, 제시문 풀이의 마무리가 아쉬웠던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세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서비스학과	○		
전형명	세한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신분 확인 후 대기 ◆ 이름 호명하면 차례대로 5명씩 면접고사장으로 이동 ◆ 면접고사장 앞에서 다 같이 인사 연습 후 대기 ◆ 입장(면접관 2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가능 ◆ 1번이 첫인사, 5번이 마지막 인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세한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

A : 입시 박람회에서 선배님들의 설명을 통해 입시 박람회에서 세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재학하고 계신 선배님이 학교의 탄탄한 커리큘럼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해하며 저에게 직접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교생활에서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투어컨덕터, 응급 구조사 등의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교육 기회도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꼭 세한대학교에 입학하여 열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하고 싶습니다.

Q : 면접장 와서 선배들 첫인상

A : 처음 면접장에 왔을 때부터 건물 앞까지 나와서 저희를 배웅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배님들께서도 오랜 시간 동안 과목과 구두를 신고 학생들을 맞이하느라 힘드실 텐데 계속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시기 위해 도움을 많이 주셨고 덕분에 지금 더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세한대학교는 학생다움을 다른 학교에 비해 더욱 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제 교복을 입고 화장도 최대한 간단히 학생답게, 옷과 머리도 단정히 하고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자신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것 같고 답변에서도 학생다운 열정이 느껴지도록 밝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숙명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학과		3	
전형명	학생부종합(숙명인재 II (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큰 교실에서 단체로 대기, 10분 간격으로 1명씩 나가서 대기 ◆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책, 자료 다 볼 수 있음. ◆ 휴대폰 전원 꺼서 제출 ◆ 면접 중에 말 자주 끊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A : 저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학습법 연구자와 이를 공유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Q : 스토리텔링이 뭔지

A : 실제 생활 속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수학을 찾아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Q : 어떻게 해본 적 있는지

A : 저는 후배들을 가르쳐 주는 튜터링 활동을 하며 비타민 복용과 연속 불연속의 개념을 연관 지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Q : 좌극한이 뭔지

A : 함수에서 그 값의 왼쪽에서 한없이 접근하는 값입니다.

Q : 연속의 정의

A :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고 함수값과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같을 때 연속이라고 합니다.

Q : $-y = |x|$ 는 $x=0$ 에서 연속인가, 그 이유는

A : 함수값이 0이고 좌극한, 우극한이 0이기 때문

Q : 미분계수 정의 식?

A : (미분계수 2개 식 말함)

Q : 두 식은 어떤 관계가 있나?

A : 첫 번째 식에서 $x-a$ 를 치환하면 두 식이 똑같게 됩니다.

Q : 미분가능의 정의는 무엇인가?

A : 그 지점에서 연속이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을 때 미분가능합니다.

Q : $-y = |x|$ $x=0$ 에서 미분가능?

A : $x=0$ 에서 연속이지만 좌미분계수는 -1 이고 우미분계수는 1 이기 때문에 미분불가능입니다.

Q : 미분의 기하학적 정의

A :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Q : 역함수 정의의 특징, 기하학적 특징

A :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 함수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를 가진다면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또한 역함수와는 $y=x$ 에 대해 대칭입니다.

Q : 역함수미분 식

A : (두 함수 합성해서 x 된 것부터, 합성함수 미분한 식 설명했어요)

Q : 역함수는 모든 함수가 다 가지는가?

A : 역함수는 일대일 대응인 함수 즉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하는 함수만 역함수를 가집니다.

Q : 안 가지는 예시는?

$y = |x|$, $y = x^2$ 와 같이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이 함께 나타나는 함수가 있습니다.

Q : 클라인병이 무엇이며 수학축제에서 어떻게 설명했나?

A : 뫼비우스띠와 동일한 원리를 가진 겹과 속이 구분이 되지 않는 도형입니다.

Q : 어떻게 만드나?

A : 속이 빈 두루마리 휴지 모양의 도형에 7모양의 관을 연결시켜 만들었습니다.

Q : 비유클리드란?

A : 유클리드 기하학은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와 같은 공리 공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5번째 공준인 평행선 공준을 부정한 기하학입니다.

Q : 적용되는 사례?

A : 지구본에서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내각의 합이 180 도가 넘을 것이며 남극과 북극을 잇는 선을 두 개 그린다면 이각형이 만들어집니다.

Q : 직선이 뭐냐?

A : 두 점을 이은 선을 길게 늘인 것을 의미합니다.

Q : '미적분으로 바라본 하루'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A : 저는 감기의 미적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그 식을 풀이해봐라

A : 감기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이 전체 인원이라는 식 하나와 감기에 걸린 사람이 전염시키는 정도에 관한 식을 연립한다면 감기에 걸린 사람의 수를 시간에 따른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Q : 전염시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나?

A : 자세한 식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감기에 걸린 사람이 걸리지 않은 사람과 접촉한다는 점에서 그 두 수를 곱하는 원리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숙명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어영문학과	○		
전형명	숙명인재2(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만의 장점은?

A :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는 통번역학과와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영어라는 언어를 비롯해 영문학과 번역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배울 수 있다.

Q : 번역가를 위해 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 : '위대한 개츠비'를 번역하며 observe란 단어가 곧잘 화를 내는, 마음이 여린, 쉽게 상처를 받는 등으로 해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번역이란 작업은 단순히 언어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Q : 그렇다면 번역가로서 말고 문학으로서 위대한 개츠비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A : (예상 못 한 질문이라서 대답 잘 기억 안 남) 독자로서 위대한 개츠비를 읽었을 땐 끝에 아무도 장례식에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 허무함을 느꼈고...

Q : 왜 허무함을 느꼈나?

A : 아버지를 제외하고 개츠비가 사랑했던 여자도, 같이 일을 하던 동업자도,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Q : 대기업의 빵집 운영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이것의 윤리적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대기업은 동네 빵집과는 다르게 카드회사 등을 통해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동네 빵집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Q : 이것은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까?

A : 네.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동네 빵집을 주로 갔었지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카드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기를 자주 갑니다.

Q : 그렇다면 동네 빵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A : 지역에서 운영하는 상품권이나 지역별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토론도 했는데, 그렇다면 대기업에서 GMO 식품을 사용하는 구조를 설명해 보아라.

A :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서 아무 말이나 했음.)대기업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GMO 식품에 찬성합니다.

Q : 그렇다면 소비자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 : 유전자 조작 식품과 그렇지 않은 식품을 구별해서 둘 다 판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아주 간단하게 20초 동안 하세요

A : 저는 숙명여대에 입학해 사람들이 언어의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게 도움을 주는 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 영어문화콘텐츠가 활발하게 유입되며 영어라는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강의 강의를 통해 번역가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번역하는 번역가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관분들이 아주 친절하셔서 들어가자마자 긴장하지 말라고도 해주시고 잘 웃으셔서 긴장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했다. 아직 합격 불합격의 여부는 모르지만 면접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말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
- ◆ 꼬리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온다. 그냥 내가 대답한 내용에서 꼬치꼬치 캐물어 본다. 그리고 생기부 꼭 꼼꼼히 읽고 가야 한다. 내 전공과 관련 없는 활동도 물어볼 수 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순천향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특수교육과			
전형명	학생부 교과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8:30 입실 완료. ◆ 대기실에서 22번째 순서로 4시간 기다림. ◆ 12시에 면접실로 들어가서 면접 ◆ 면접관 2분, 학생 1명으로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 필요 ◆ 물밖에 안 주기 때문에 가기 전에 든든히 먹어둘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 동기,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A : 저는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감을 많은 학생들에게 나눠 주고자,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특수교육과를 알아보던 중 순천향대에서 이루어지는 커리큘럼을 알아보고 매력을 느끼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현행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세요?

A : 저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지식수준이 다른데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동아리에서 교권침해의 정도를 조사해봤는데 교권침해를 경험한 선생님이 70% 정도 계셨습니다. 이것의 문제 또한 목소리가 큰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관행이, 모두의 의견을 대표해 버리는 공동체적인 것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 연습도 해볼 수 있고, 친구들과 갈등도 경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은 것 같아 동전의 양면 같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수업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A : 장점에는 학습에 개인의 능력이나 배경지식이 다른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자극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되면 지식도 다양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시력 저하, 손목터널증후군 등 신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사람과 소통은 적어지고 매체로만 수업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결여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Q : 특수교사의 자질 3가지 정도 말해보세요.

A : 저는 특수교사의 자질이 이해력, 관찰력,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자질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했음.)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저는 고등학교 시절 교사가 되겠다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교육봉사와 특수학생 도우미 활동, 해외 봉사 활동으로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간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이러한 받은 많은 사랑을 제가 선생님이 되어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사라는 꿈의 첫 발걸음을 순천향대학교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관님들이 우리를 평가하러 오셨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면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면접이라 많이 떨렸지만 면접관님들께 웃는 얼굴을 많이 보여주고, 학교에서 연습 많이 하면 하나도 안 떨린다고 말해주고 싶다.
- ◆ 면접관분들이 계속 웃으면서 질문내용을 적어주셔서 긴장되지는 않았다.
- ◆ 답변하면서 꼬리 질문을 나올 줄 생각을 못 했는데 꼬리 질문 나올 부분을 더욱 준비해야 했었는데 아쉬웠다.
- ◆ 답변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던 부분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됐는데 2초 정도 시간을 끌었던 것이 아쉬웠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송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제법무학과	○		
전형명	SSU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교 첫인상?

A : 경상관 건물이 화려해서 첫인상은 좋았는데 진리관 오면서 언덕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진리관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법 공모전,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을 보니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Q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A : 법조 경력을 갖춘 뒤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법조인을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포리 질문) 구체적으로 길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네요?

A : 구체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저는 평소 인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인권 쪽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Q :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A : 가장 의미 있었던 봉사활동은 ‘일본군 위안부’ 알리기 캠페인과 소녀상 건립을 위해 한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교 내 작은 소녀상 설치, 교내 ‘일본군 위안부’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울림이 어른들에게는 큰 울림이 되어 지역 소녀상 설치라는 작은 사회변화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앞으로의 역사적 정의와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깨달았고 본교에 와서도 지속적으로 국제인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Q : (포리 질문) 구체적으로 지역소녀상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A : 동아리 친구들과 지역 광장에 나가 지속적으로 캠페인 활동과 모금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녀상 건립 추진 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제막식에서는 청소년 대표로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Q : (포리 질문) 그럼 지역에 실제로 설치가 된 건가?

A : 예.

Q : 영어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A : 저는 영어를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 영자신문을 구독해왔고 고등학교 때는 BBC나 CNN 10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영어라는 과목을 문제를 풀기 위한 공부가 아닌 제 것으로 만드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단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그려 보며 이미지화하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을 통해 영어 성적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꿈이 확고해질수록 영어에 대한 관심과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졌고 본교는 체계적인 영어 사용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영어 UCC 상을 두 번 받았네. 어떤 건가?

A : 특정한 주제를 정해 영어로 대본을 짜고 연극을 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대회였습니다. 저는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주제로 UCC를 만들었습니다.

Q : 독서상황에 영어원서는 없네?

A : 아, 예……. 저는 비록 영어원서는 따로 읽지는 않았지만 평소 영어 내신이나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모르는 문장이 있으면 원문을 찾아보면서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어원서는 대학에 진학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Q : 가장 의미 있었던 봉사활동은?

A : 저는 역사적 정의와 인권에 관련된 봉사도 많이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몽골의 나라흐 구의 '꺼림트 척첼버르'라는 학교에 나무를 심어주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몽골이라는 낯선 국가에 가서 나무를 심어주며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농구도 하며 꿈에 대한 얘기도 해보았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비슷한 인권변호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인권이란 어느 곳이나 보편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본교에 진학하여 1학년 때 몽골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제 꿈의 종착점이자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반드시 하셨을 저희 지역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도 꿈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더 나아가서는 지구 반대편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꼭 이 친구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최대한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고 그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 ◆ 관련 없는 활동이라고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면접에서 활용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활동을 해보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승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글로벌미디어학부			
전형명	고른기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A :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추억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주는 추억 제작소를 설립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승실대학교 미디어학부에 진학하여 창의적 사고와 토론, 디지털콘텐츠 기획 등의 이론 수업, 실습수업, 교내 영화 동아리인 영사위 등을 통해 영상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후 추억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는 '메모리 웨어링'이라는 특별하고 새로운 트렌드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인재라는 꿈을 승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를 통해 이루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영상 편집 수업이 하나 정도고 60%가 프로그래밍 수업인데 괜찮겠어요?

A : 메모리 웨어링이라는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을 제작해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쉬운 편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과 동반하여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승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Q : 기존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고쳐야 할 점은?

A : 저는 기존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전문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전문가에게는 불필요한 편집기술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더욱 복잡해졌고 용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저는 비전문가에서 필요한 편집기술만 넣고 용어도 쉽게 바꾸어 새로운 편집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Q : 수학 성적이 낮는데 수학을 싫어했나?

A :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많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는 내신 시험에서 너무 떨고 실수를 많이 해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은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풀 수 있는 모의고사 같은 시험에서는 차분히 문제를 풀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수학 멘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야겠다 생각했고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니 내신 성적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Q : 지원자가 만든 영상이 많은 것 같은데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영상은?

A : 저는 제 친구들이 총싸움을 하는 척하는 장면을 FPS 게임 '오버워치'의 그래픽을 활용하여 친구들이 게임 속의 캐릭터가 된 것처럼 편집한 영상이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뭘 쓰나?

A : 저는 '어도비' 사의 '애프터이펙트'와 '프리미어'를 씁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동화책 피터팬을 아십니까? 동화책 피터팬에서 피터팬은 늙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에서 웬디를 데리러 옵니다. 저도 그런 피터팬처럼 늙지 않는 네버랜드와 같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머무른 것 같은 추억이 담긴 영상의 세계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 꿈을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를 통해 이루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송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공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입실 후 가번호 순서대로 면접실 입장,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을 비롯한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언행 금지 ◆ 본인의 이름과 출신 지역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말하고 시작할게요

A : 안녕하세요? 송실대학교에서 기계 항공 분야의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기계공학자의 꿈을 키워나갈 지원자입니다. 저에게 기계의 운동을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기계를 직접 설계, 제작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한 뒤 저의 관심을 끈 것은 인근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의 작동원리는 무엇일까?' 같은 궁금증들을 가졌고 이를 물리 교과 시간과 물리동아리 시간에 '항공기 비행 원리에 대한 탐구, 내연기관에 대한 탐구'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심화 지식의 확장으로 이어나갔고 항공기가 공학 기술의 결정체라는 인상과 함께 항공공학에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진국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국의 힘으로 엔진을 생산하는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기여하고 더 나아가 더욱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엔진 개발을 연구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공특화 지식뿐만 아니라 기계공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내연기관 연구실과 항공기 연구회를 운영 중인 송실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압력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나요?

A :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입니다.

Q : 일과 힘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A : 물리 교과서에서는 힘은 단순히 F라고 정의하고 일은 $F \cdot S$ 라고 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 힘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일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 그럼 다음으로 자신의 장점 중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A : 저의 장점은 활동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동아리를 운영하며 진로별로 팀을 나눠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주제를 기반으로 과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동아리원들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꾸준히 보고서 작성 활동을 이어나갔고 그 결과 활동 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Q : CFRP와 CNT에 관한 탐구를 했는데 이 약자를 풀어서 말해주실 수 있나요?

A : 탄소섬유 플라스틱과 탄소나노튜브입니다.

Q : 나노별새로봇에 대해서 탐구하게 된 계기가 뭐죠?

A :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공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생체모방기술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체모방기술이 기계 공학에 접목된 생체모방 로봇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나노별 새로 로봇의 유동 특성을 분석한 논문을 접하였고 다른 새들과 차별화된 별새의 양력 발생 메커니즘과 신체골격구조에 대해 흥미를 느꼈고 열의를 가지고 탐구해보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일단 자신감 있게 말하면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분위기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송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물리학과			
전형명	고른기회(농어촌)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학과별로 기다린 후 면접 고사실 입장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송실대 물리학과에 지원해줘서 고맙다. 물리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A : 1학년 때 쌍둥이의 역설을 보고 상대성 이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리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물리학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깊고 심오하게 배우고 싶어졌다.

Q : 쌍둥이의 역설이 일어나는 이유는?

A : 지구에 남는 사람이 형이고 우주선을 타는 사람이 동생일 때 서로가 볼 때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라 특수 상대성 이론만을 적용하면 나중에 둘이 만났을 때, 둘 다 어려진다는 역설이 발생한다. 하지만 서로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려면 필연적으로 우주선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을 해야 하고 이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

Q :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차이점은?

A :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 좌표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비관성 좌표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Q : 많이 아는데 그런 건 다 어떻게 알았는가?

A : 1~2학년 때 물리를 혼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

Q : 물리 관련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은?

A : 2학년 여름 방학 때, 3학년 선배님들과 인근 여자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공동교육과정 물리 실험에 조교로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선배님들과 처음 보는 여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라 무섭고 떨렸지만, 다들 친근하게 대해줘서 잘 적응 할 수 있었다. 이 활동을 겪으면서 진정한 배움이란 혼자서 할 때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가르쳐 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Q : 물리 동아리장을 맡았는데 어떻게 활동했는가?

A : 아이들이 물리라는 학문을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수학 동아리와, 3학년 때는 통계 동아리와 함께 합동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하니 아이들의 참여율도 좋았고, 나도 재밌게 동아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Q : 물리 동아리에서 한 실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 : 이중 슬릿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책에서만 보던 현상을 직접 눈으로 보니 신기했다.

Q :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 설명해봐라

A : 두 개의 빛의 파동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Q : 파동의 간섭을 설명해봐라

A : 파동의 기준을 중심으로 위쪽이 +방향, 밑이 -방향일 때, 두 파동이 간섭하면 서로 더해져서 그 절대값 만큼의 크기를 갖는다. (잘 기억이 나지 않음)

Q : 물리2가 교과과정에 없는데?

A : 원래는 2학년 때 물리1을 배우고, 3학년 때 물리2를 배우야 하는데, 이과에 물리를 수강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나밖에 없어서 물리2는 개강하지 않았다.

Q :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2학년 때에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Q : 그래도 물리학과에서 수학이라는 도구는 정말 중요한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가?

A : 당연하다.

Q : 장래 희망은?

A : 국가 핵융합 발전소에서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위해 일하고 싶다. 이를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다.

Q :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A : 궁극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원하는가, 절실한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핵융합 발전을 연구하는 꿈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숭실대의 교육이념이 ~~인데 이는 나의 신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런 나를 뽑아준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전공 관련 개념 및 지식 숙지가 중요하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송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		8번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SSU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정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핸드폰 수거 ◆ 2:1 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소서 2번을 보면 UV/vis spectrum과 고성능 크로마토그래피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네. UV/vis spectrum과 고성능 크로마토그래피는 저희 실험에서 망고스틴 가루로부터 추출한 용액들에 알파 망고스틴의 함량을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을 하는 데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Q : 그 실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 네. 나노기술은 많은 장점을 가진 반면에 인체 유해성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천연물을 이용한 나노입자 합성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이의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과정으로는 우선 망고스틴 과육을 제거하고 껍질을 건조기에 건조시킨 후 분쇄기에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만들어진 가루와 메탄올을 가지고 초음파추출을 하여 메탄올 조추출물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메탄올 조추출물 일부를 물과 에틸아세테이트로 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용액을 얻어내었고 그 세 가지 용액에 강한 항산화력을 가진 알파-망고스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UV/vis spectrum과 고성능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해 알아보았습니다. 물 분획물에서는 그 성분이 없어서 메탄올 조추출물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만을 가지고 나노입자 합성을 진행했습니다. 합성하기 위해 티타늄 이소프로폭사이드를 가했고 그 결과 메탄올 조추출물에서는 동글고 균일하게 합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는 많이 엉켜서 합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끝냈고 실험 결과를 통해 천연물을 이용한 나노입자 합성의 가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Q : 혹시 화학 어디까지 배웠어요?

A : 학교 수업과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화학Ⅱ 끝까지 다 배웠습니다.

Q : 화학Ⅱ에서 배운 개념 하나를 설명해보세요.

A : 이름이 가장 독특해 아직도 기억에 남는 르샤틀리에 원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르샤틀리에 원리란 화학평형을 유지하던 조건이 변하면 동적 평형이 깨져 새로운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 그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여 새로운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Q : 그럼 혹시 물리는 어디까지 배웠나요?

A : 물리는 물리 I 까지 배웠습니다.

Q : 알고 있는 물리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 저는 소재에 관심이 많아 물리 공부할 때 흥미를 가지고 공부한 초전도체와 액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초전도체는 매우 낮은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도체입니다. 초전도체의 성질로는... (생각 안 나서 말 못 함)

Q : 우리 학과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 말해주세요?

A : 신소재의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소재의 대부분이 합성소재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발견은 '합성소재의 발달사'라는 과제 연구를 하게끔 이어졌고 그때 합성섬유가 환경오염에 큰 파급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원이 되는 것이 목표이자 친환경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본 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화 융합전공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이 뭔가요?

A : 2학년 때 실시한 아스피린 합성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실험은 살리실산의 OH와 알코올인 메탄올의 H가 물이 되는 탈수축합반응 원리가 사용됩니다. 우선 살리실산과 메탄올을 반응시킨 후 촉매 역할을 할 진한 황산을 넣어 섞어준 후 80도 정도의 물을 넣은 비커에서 중탕을 하고 증류수를 넣어 냉각시켜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저희는 그 결정이 아스피린임을 증명하기 위해 염화철 수용액의 정색반응을 이용했습니다. 염화철 수용액은 페놀과 반응하면 보라색을 띠기 때문에 살리실산에 염화철 수용액을 가했을 때는 짙은 보라색을 띠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피린은 OH가 아세틸기로 치환되었기 때문에 보라색을 띠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그 결정이 아스피린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이 흥미로워서 3학년 때 후속 활동으로 나일론 합성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염화아디프산과 헥사에틸렌디아민 용액의 축합중합반응으로 나일론실을 뽑아내는 실험이었습니다. 한 비커에 염화아디프산과 디클로메탄을 넣었고 또 다른 비커에는 헥사에틸렌디아민과 물을 넣었습니다. 그 두 비커는 유기용매와 물이기 때문에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비커에 염화아디프산이 있는 비커를 먼저 넣고 다음에 헥사에틸렌디아민이 있는 비커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 후 경계면에서 아민과 카르복실산이 축합반응을 일으켜 나일론 실을 뽑아내며 실험을 끝마쳤습니다.

Q : 우리 학교 졸업 후 계획이 뭔가요?

A : 저는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제가 관심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미래에 도움을 줄 친환경적인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네. 저는 유기신소재파이버공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 그래서 2년간 전공 관련 연구와 실험을 하면서 저의 의지는 더 커져만 갔고 그 의지로 화학 성적 상승세까지 이루어 냈었습니다. 저는 저의 의지와 열정을 숭실대학교에서도 뽑아내며 친환경적인 소재를 만드는 꿈을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소서에서 적힌 내용을 꼭 정확히 알고 가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송실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	○		
전형명	학종/SSU미래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전자기기 제외한 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서) SNS 펜팔 앱이 무엇인가?

A : SNS를 통해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Hellotalk' 앱을 말합니다. 이 앱을 통해 영어로 세계인들과 소통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법적 오류뿐만 아니라 상대의 답장으로부터 새로운 구어적 표현들도 알 수 있었습니다.

Q : UN동아리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았고 어떤 활동을 했는가?

A : 2년 동안 UN동아리 차장과 부장의 역할을 맡았고 체계성 있는 활동을 위해 활동을 3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세계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투입, 더 나아가 탐구하고 동아리원들과 토의·토론하는 과정, 알게 된 내용들을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산출의 3단계였습니다.

Q : 자신이 소수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수일 때, 자신의 의견이 100% 맞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A : 우선 저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설득해보지만, 만약 설득되지 못할 경우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다른 보완책을 대화를 통해 만들 것입니다.

Q : 자신의 수학, 과학 실력에 대해 말해보라

A :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멘토링의 멘토 역할을 맡아 수학은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은 부족하여 송실대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하여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Q : 꿈이 국제기구공무원인데 우리 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A : 제가 지향하는 진로 목표가 국제분쟁을 최소화시키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에 다양한 학문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연재해와 전쟁을 예측하여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1분 내로 말해보세요.

A : 'Present is the present' '나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현재이다.' 스펜서 존슨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저의 좌우명으로 저에게 최선, 노력, 열정이라는 특징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국제기구공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 노력했습니다. 국제이해동아리UN의 차장·부장으로, 봉사차장·부장으로, 그리고 국제분쟁과 관련한 주제탐구보고서를 쓰면서 말입니다. 저는 개도국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분쟁을 최소화하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국제기구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현재라는 가장 큰 선물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생명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실대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에서 기회를 준다면 좋겠습니다.

Q : 학교생활 이외에 자랑할 만한 일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에 와서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외 봉사를 갈 예정이었으나 학교 대표로 나가는 다른 행사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송실대에 입학하여 제가 고등학교 때 관심 있었던 몽골 울란바토르로 해외 봉사를 갈 예정이며 송실대만의 7+1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이 30%라 성적과 서류가 당락을 좌우하는 상태였기에 심층적이지 않은 쉬운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수님과 입학사정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조금의 긴장된 모습과 그 학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에 대한 애정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송실대학교와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과과정, 교수님의 전공, 참여하고 싶은 학교만의 프로그램(해외 봉사, 국제교류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답변에 활용하였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는 또 다른 방법에는 기본적인 것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미소'가 있습니다. 대답할 때 자연스러운 미소와 질문에 대한 적절한 리액션이 상대에게 더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신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일반고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로 정해진 순서대로 4명씩 면접 ◆ 면접 전에 1분 동안 문제 공개 ◆ 4명이 다 같이 확인하고 1분 후에 회수함 ◆ 제시된 문제 2개로 면접 진행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진행(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친구와 사이가 틀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와 해결 과정에 대해 말해보세요. 혹시 그런 경험이 없다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방법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고등학교에 친한 친구와 둘이서 지원해서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는 것에 집중한다고 친한 친구에게 소홀해져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소중한 만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귀 친구와 원래 친했던 친구 모두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서로 소개시켜주고 함께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Q :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가치의 측면에서 자신의 희망 직업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A : 저는 유치원 교사를 꿈꾸고 있으며 유치원 교사는 점차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직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직업을 선택했을 때 가장 많이 접한 질문은 “아이들이 없어지는데 왜 유치원 교사가 되려 하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출산 국가가 될수록 유치원 교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양육에 대한 부담입니다. 출산을 증가를 위해 유치원 교사 수가 늘어나고 보육 시설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가 되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세요.

A : 유치원 교사란 아이들을 이끄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리더란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닌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라대학교에 입학하여 주변 교수님이나 동기, 후배들에게 각각의 장점을 배워 훌륭한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모두 같은 시간 동안 문제를 확인하고 면접에 임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얼마나 잘 정리해서 말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신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행정학과			
전형명	학생부교과(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3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 2 : 학생 1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전자기기 사용 시 면접 불가 ◆ 블라인드 면접으로 교복 착용 시 스티커 부착 ◆ 면접 시간 준수,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5명씩 밖에서 대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슨 영향을 끼칠 것 같은지)

A : 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주에겐 그만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근데 최저임금 인상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상하려고 하죠?

A : 제가 생각하기엔 인상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Q : 자신의 방이 있잖아요, 방 구조는 어떻게 꾸미셨나요?

A : 제 방에는 큰 침대와 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엔 책을 구비해놓은 책장이 있고 옷장이 있습니다.

Q : 책은 무엇이 있나요?

A : 책은 입시에 필요한 책과 저의 진로 관련 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A : 저는 신한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하여 융합적으로 행정에 대해 배우고 저의 진로인 경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일단 신한대학교 일반전형 면접은 정말 순발력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면접 시간도 엄청 짧아서 많이 말할 수 없으니까 간결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예상 문제를 많이 준비해서 외워갔는데 그냥 별로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잘 생각해서 말하세요. 기본적인 지원동기나 마지막 할 말은 준비하는 게 좋아요. 저도 제 꿈을 어필했을 때 반응이 제일 좋았으니까 꿈이랑 연결해서 답변을 준비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아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ACE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대기-면접실-퇴장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 면접 중 전자기기 소지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A : 저는 어려서부터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의료계열에 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다녀오게 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환경과는 다른 열악한 환경에 당시 의료 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던 저는 '나중에 이런 곳에서 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관련 서적을 읽거나 동아리 활동, 특수학교 봉사를 하면서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국경없는 의사회가 들어가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는가?

A : 우선 관련 경험을 중요시하며 제 2외국어도 필수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면접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특수학교에서 봉사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 자주 할 수 있었는지?

A : 특수학교는 저희 학교와 가까이에 있어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고등학교를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Q :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A : 저는 주로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무시하는 등 집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친구는 이 활동에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자고 하면 먼저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변화하는 친구를 보면서 저도 즐겁게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Q : 특수학교 다니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A : 처음 특수학교를 들어갔을 때 뛰어다니거나 소리 지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당황하기도 했고 무서워서 피해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다 보니 모르는 사이임에도 저에게 선뜻 인사를 해주고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줬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모습에서 장애인도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친구인데 직접 마주해보지도 않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줄 수 있는지?

A : 저는 단호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굽히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만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으며 냉정하게 판단하려 노력하며 저의 장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의 주장을 펼칠 때 간혹 세게 말을 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을 펼칠 때 설득하는 투로 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동아리에서 도노체험을 했다고 하는 데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지?

A : 병원에서 직접 학교로 오셔서 체험을 했습니다. 도노는 방광에 찬 오줌을 관을 이용하여 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하면서 도구를 만지는 순서나 시술 순서 하나하나까지 위생과 관련되어 있어 조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Q : 위생에 대해 느낀 점이 많다고 하는 데 어떨 때 가장 그 중요성을 느꼈나?

A : 음부를 소독하는 방향까지도 신경 써야 함에 놀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너무 긴장한 탓에 단답식으로 대답한 경향이 있어 조금 아쉬웠다.
- ◆ 생기부 외의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서 당황했다.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듯.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아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설시스템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ACE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자신의 면접 시작 10분 전 면접실 앞으로 이동 후 귀마개 끼고 대기 ◆ 면접실 입장 후 10분간 면접 (면접관 2명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신분증과 수험표 지참, 대기시간 동안 정숙, ◆ 가번호 수령 후 왼쪽 가슴에 부착, 가번호 순서대로 착석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안녕하세요? 오늘 제일 처음으로 면접을 보는데 부담가지지 말고 준비한 대로 대답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면접은 약 1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접 시작할게요.
A : 네

Q : 학교 정화 활동이라는 활동을 했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A : 말 그대로 학교 주변을 정화하는 활동입니다. 학교 내외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고 통행하기 편하도록 등하곳길에 낙엽이나 눈 등을 치우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Q : 학교 정화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말해주실 수 있나요?
A :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어제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선생님들께서 칭찬해주실 때 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Q : 동아리를 보면 내가 바꾸는 공공건축물이라는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 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네모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 건축물들이 저는 너무 맛있하다고 생각하여 동아리에서 친구들을 모아 바꾸어보면 어떨겠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파트보다는 공공건축물이 바꾸기 더 쉽다고 생각하여 내가 바꾸는 공공건축물이라는 활동명을 정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이 한 조가 되어 각각 예술성, 안정성, 효율성을 따져 설계를 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Q : 예술성, 안정성, 효율성을 따져 설계를 해 보았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어느 것에 중점을 맞추어서 설계했나요?
A : 저는 예술성에 맞추어 설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인테리어를 생각하기도 했는데, 저와 다른 1명은 외부 인테리어를, 남은 1명은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하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Q : 생기부를 보면 건축사에서 토목공학자로 진로가 바뀌었는데, 건축학과 건축공학, 토목공학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건축학은 건축물 설계를 주로 하고, 건축공학은 건축물 시공을, 토목공학은 사회기반시설을 설계와 시공을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목은 흙 토, 나무 목자를 써서 토양이 단단해야지(기반이 튼튼해야지) 나무(기둥)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사회기반시설 외에도 건축물을 시공할 때 기반을 다지는데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그러면 지원하신 과가 건설시스템공학과인데 어느 학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A : 저는 토목공학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Q : 토목공학이 좋은 이유는?

A : 제가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진로를 정하면서 해외에 갈 때마다 건축양식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건축을 공부하며 시야가 넓어지게 되었는데 인천공항으로 향할 때 인천대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인천대교가 멋있다고 느껴져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았는데, 우리나라 토목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인천대교가 민간에서 지어졌다는 사실과 엄청 긴 길이와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천대교가 놀랍다고 생각하여 토목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인천대교에 쓰인 나비형 사장교, 엑스트라 도즈교 등 토목 기법을 찾아보면서 토목공학에 빠져들었습니다.

Q : 방금 나비형 사장교나 엑스트라 도즈교와 같은 토목 기법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법인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A : 제가 인천대교를 조사하면서 이런 토목 기법이 쓰였다는 사실만 알고 각각의 기법에 대해 조사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Q : 자소서에서 보면 '서머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 읽은 지 좀 돼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Q :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 : '집짓기 바이블'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건축을 의뢰할 때 주의사항과 건축사, 의뢰주, 시공사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고 간단한 시공 절차를 알려주는 등 건축에 관한 상식을 현직 건축사가 알려주는 책입니다. 물론 건축자재 관련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Q : 건축자재 관련 설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나요?

A : 간단하게 단열재와 벽재, 바닥재와 같은 말 그대로 재료선택에 관련해서 각 재료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건물을 지을 때 재료의 장단점과 같은 설명을 뜻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말려도 꼭 하고 싶었던 활동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 2학년 때 3학년 형들이 대학생 멘토와 화상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주제가 지진 피해 속 안전한 건물을 제작하기 위한 제진장치 제작이었습니다. 이 활동을 꼭 하고 싶어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활동은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 성적부터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꼭 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 어떤 활동이었나요?

A : 주제에 맞게 기존 제진장치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조질량감쇠기와 동조액체감쇠기를 알게 되었는데, 각각의 제진장치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동조질량감쇠기는 본진

동에 강하고, 동조액체감쇠기는 여진동에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진장치가 가진 장점만을 모아 새로운 제진장치를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동조액체감쇠기에 사용되는 액체를 물 대신 전기유변성유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었습니다.

Q : 더 듣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아쉬워요. 면접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A : 제 면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면접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대답을 다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대답을 못한 질문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여 뿌듯했습니다. 10분을 넘어 약 12분 동안 면접을 진행했지만,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서 놀랐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전공 질문을 하지 않으셔서 편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접관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생겼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여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 ◆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한 개씩 대답했으면 좋겠고,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생기부랑 자소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합시다. 긴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많이 긴장하면 혀가 꼬이니 면접 전에 심호흡을 하고 물을 마시면서 마음을 안정시켜 면접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아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ACE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2:1 면접 (면접관 2명) ◆ 면접실 앞에서 귀마개 착용하고 대기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 휴대폰은 강당에서부터 사용 불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A : ‘협업으로 탄생한 창의적 수학 문제 뽑내기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물리Ⅱ 과목을 선택한 후 포물선 운동을 배우게 되었는데, 수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었고 물리Ⅱ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직선 운동이 아닌 2차원 운동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서 참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차원 운동에 $\sin\theta$, $\cos\theta$ 등 삼각함수의 계산과 운동 방향을 나누는 과정에 벡터의 분해가 적용되듯, 수학과 물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Q : 그래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나요?

A : 네

Q : 수상 실적을 보니까 수상 이력이 많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A : English News Portfolio Contest가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과학 기술을 중심 주제로 하여 여러 기사들을 읽던 중, 요즘 한창 개발이 되는 ‘5G가 기존의 LTE보다 속도가 느리다.’ 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분명 5G라면 LTE 보다 빠를텐데.. 왜 그렇지?’ 하는 의문에 여러 자료들을 찾아 친구들에게 이유와 함께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여 기억에 남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며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Q : 그래서 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었나 보군요.

A : 네

Q :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봉사 시간이 많았음- 약 330시간)

A : 제가 봉사 동아리 기장을 맡아 봉사시간이 많습니다.

Q : 그렇네요.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A : 1학년 댄 부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놀아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학년 댄 기장으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거나 동아리 회의를 주로 하였는데, 다른 학교와 연합하여 하는 활동이라 활동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Q :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A : 보통 친구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회의를 주도하며 각 학교별 일정과 위치 등을 먼저 조사하고 모두에게 가장 공평하도록 위치와 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Q : 봉사활동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A : 위안부 캠페인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직접 뵙고, 이 할머니를 위해 동아리 친구들과 겨울 시내에 모여 소녀상 건립 모금을 하였습니다. 추운 날 고생하는 저희를 보시고 많은 단체에서 후원을 해 주셨고 결국 소녀상을 건립하여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Q : 공학도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기계공학을 고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처음 공학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기계공학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또한, 기계공학은 모든 공학의 기초가 된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그럼 수의사에서 공학자라는 꿈으로 바뀐 계기가 있나요?

A : 제가 수의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갖게 된 이유는 동물을 좋아하고, 중학교 때부터 키워왔던 강아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가 고등학교에 올라온 후 교통사고를 당해 죽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즉사한 동물은 수의사가 되어도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 동물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와 같은 기계의 개발로 사고를 줄이고자 하여 공학자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 네, 수많은 꿈을 꾸며 19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정착하여 저의 재능을 펼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짧다. 시계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체감상 면접은 5분 정도 걸린 듯하다.
- ◆ 수험표랑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나는 실수로 못 챙겼는데 당황하지 말고 입학처에 전화를 한 후 정중히 상황을 설명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 ◆ 생기부, 자소서 등 마지막까지 볼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한다. 나는 면접이 가장 마지막 순서라 2시간 정도를 기다렸다. 순서는 아무도 모르니 대비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다.
- ◆ 인사를 꼭 하기, 마지막으로 할 말 준비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아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미디어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ACE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보게.

A : 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추억이 담긴 영상을 제작해주는 추억 제작소를 설립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에 진학하여 미디어심리학, 미디어와 창업 등의 이론 수업, 실습수업, 교내 영화 동아리인 씨네 아리랑 등을 통해 영상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후 추억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는 메모리 쉐어링이라는 특별하고 새로운 트렌드로 전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인재라는 꿈을 아주대 미디어학과를 통해 이루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영상은 다른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데 왜 아주대학교에 지원했나?

A : 저는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의 커리큘럼이 저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히 미디어심리학, 창업과 미디어 수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꿈은 추억 제작소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과도 관련이 있고 이를 통해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 창업이 힘든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A : 저는 남들과 다르게 수익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이 저에게 의뢰할 때 주는 돈, 두 번째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조회 수 등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수학성적이 낮는데 수학을 싫어했나?

A :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많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하는 내신 시험에서 너무 떨고 실수를 많이 해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에도 그렇고 적은 문제를 오랜 시간동안 풀 수 있는 모의고사 같은 시험에서는 차분히 문제를 풀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수학 멘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야겠다 생각했고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하니 내신 성적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Q : 성적이 아주대에 지원하기 부족하다 생각하나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A :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 영자 신문동아리를 했네요.

A : 영자 신문 동아리가 아니라 신문동아리에서 기사를 쓰는 활동을 했는데 한글 신문과 영자 신문을 골라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영자 신문을 쓰면 더 보람을 느낄 것 같아서 영자 신문을 썼었습니다.

Q : 영자 신문을 쓰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

A : 한글 신문을 쓰는 다른 학생들보다 시간이 두배나 걸리긴 했지만 제가 먼저 한글 기사를 쓰고 조금씩 천천히 번역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기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Q :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뭘 쓰나?

A : 저는 어도비사의 애프터이펙트와 프리미어를 씁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동화책 피터팬을 아십니까? 동화책 피터팬에서 피터팬은 늙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에서 웬디를 데리러 옵니다. 저도 그런 피터팬처럼 늙지 않는 네버랜드와 같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머무른 것 같은 추억이 담긴 영상의 세계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 꿈을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를 통해 이루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아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불어불문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ACE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30명 정도의 학생이 10명이 한 조를 이루어 큰 강의실에서 대기함. ◆ 한 조의 구성원은 대부분 다른 과의 지원자로 이루어짐. (예를 들면 국어국문 1명, 영어영문 2명, 불어불문1명, 미디어1명...) ◆ 약 10분~12분의 시간을 두고 면접실 앞에 대기하러 감. ◆ 각 면접실 앞에는 스태프(대학생)1명과 책상 2개가 배치되어있음. ◆ 한 책상은 대기자가 한 책상은 면접보고 있는 학생의 짐을 놔두기 위해 사용됨. ◆ 면접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은 귀마개를 끼고 면접을 준비함. ◆ 약 10분간 기다린 후 면접장에 입실함. ◆ 면접관은 총 2명이었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시간 동안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함. ◆ 대신 종이로 뽑아온 면접자료는 볼 수 있음. ◆ 스태프가 10명 이상 배치되어있었으며 손을 들면 간식, 물을 받을 수 있었고, 화장실도 갈 수 있었음. ◆ 교복은 입고 올 수 없었음. ◆ 이름표를 나누어 주는데 가수번호가 적혀있었음. ◆ 면접을 하며 이름, 학교명, 부모님 직업은 언급할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프랑스의 기사 (현대 연극 관련)를 보고 우리나라의 현대극과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나?</p> <p>A : 우리나라의 현대극이 아니라 고전극과 비교를 해보았다. 문화가 다르기에 당연히 연극의 분위기가 다름에 흥미를 느꼈다.</p> <p>Q : 프랑스의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작품이 있는가?</p> <p>A : 작품은 기억이 안 나고 프랑스의 건축물이 기억난다. 현대 예술의 중심지인 만큼 디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눈길이 갔었다.</p> <p>Q : 프랑스의 가정교육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흥미가 있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점에서 흥미를 느꼈는가?</p> <p>A :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중심이 되고, 사교육 뿐만 아니라도 야자라던지 대학입시를 위해 모두가 한 가지 목표로 달려오며 경쟁하는 사회이다. 하지만 프랑스는 가정에서 인간이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에 대해 가르친다는 영상을 보며 저것이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흥미를 느꼈다.</p>					

Q :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있는가?

A :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선 나는 무언가 만드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 이 봉사가 면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기부하는 봉사였기에 재미있게 봉사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을 1년간 한 후 생리대를 받은 친구들로부터 고맙다는 영상편지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내가 재미있어서 시작한 것이지만 이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봉사하는 것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Q : 장래희망이 디자이너에서 외교관으로 바뀌었던데, 이 두 가지 직업은 거의 연결점이 없지 않은가? 왜 꿈이 바뀌게 되었나?

A :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으로 대학을 가면 물건의 모양을 만드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디자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디자인을 하기는 힘들다. 나는 디자인이란 물건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을 설계하는 것, 더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전략에도 디자인이 사용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디자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디자인과를 진학하기보다 문화를 배우고 싶었다. 여러 나라의 문화 중 예술계에서 중심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프랑스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게되었고,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를 다양한 시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직업이 외교관이라고 생각했기에 장래희망도 바뀌게 되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A : 우선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교환학생을 여러 나라로 여러 차례 나갈 수 있다는 점이였다. 다양한 문화를 다양한 관점으로 배우고 싶은 나에게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 학교의 교수님들의 생각과 관점도 배우고 싶다.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봉사활동, 장래희망 등에 대한 내용은 진심으로 활동을 했었기에 그 기억과 기분이 생생히 기억났고 최대한 내 생각을 표현하며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에 관련한 질문은 내가 그 자리에서 대답하면서도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했고, 질문을 받고 난 뒤 머릿속에 하얘졌었다. ‘또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2번이나 했다. 마지막에 ‘제가 대답 못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교수님들께 직접 배우고 싶다.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 ◆ 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잘 대답하지 못했기에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 ◆ 진짜 최대한 교과 생기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만들고 그에 맞는 대답을 부드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 ◆ 나는 면접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 대답 연습은 3~5번 정도만 연습하면 면접장에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 기억이 난다.
- ◆ 면접관 앞에서 웃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좋은 것 같다. 최대한 밝게 웃으며 대답하면 좋게 봐주시는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아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소프트웨어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ACE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전자기기 금지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질문강의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와 이 과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한 점 설명

A : 1학년 때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고 관련 교내대회와 동아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3학년 때 교내 대회에서 수상하였고, 동아리 활동으로는 1학년 때 프로그래밍 공부위주, 2학년 때에는 플레이어를 향해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게임을 제작하고, 3학년 때는 포물선 운동 시뮬레이터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더 발전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대부분 프로그래밍 관련 활동이 동아리 활동인데 프로그래밍 활동은 교과시간에도 하는가?

A : 과학중점반이라 정보 교과 과목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답함.

Q : 학업과 프로그래밍 활동을 어떻게 양립했는가 이 활동이 학업에 집중하는데 영향을 주었나?

A : 매주 목요일 야자시간에만 활동을 진행해서 학업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Q : 3학년 때 성적이 급격히 올랐는데 어떻게 준비했는가?

A : 3학년 때에는 2학년 때 보다 어려운 과탐2 과목을 배워서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과탐2 개념 공부를 하고 학기를 시작했다.

Q :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A :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은 것이 C언어여서 C라고 생각한다.

Q : C언어를 공부한 책에서 가장 뒷 부분에 나온 내용이 뭐였는가?

A : 파일 입출력에 관한 내용이다.

Q :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A : 지구과학이 가장 자신이 있다.

Q : 그 과목이 프로그래밍과 연관성은?

A : 프로그래밍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겠지만, 구상한 게임 중에 고대 생물을 소재로 한 게임이 있어서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

Q : 자소서 1번에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생각이 변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A : 1학년 때 프로그래밍 교내대회에 참가하고 프로그래밍은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문법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2학년 때 다시 도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3학년 때 다시 도전했을 때 수상할 수 있어서 노력이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Q : 2학년 동아리 활동에서의 역할과 동아리와 관련된 내용 질문

A : 총알을 좌표를 포함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총알을 생성하는 함수와 충돌판정을 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했다.

Q : 대학에서 어떤 것을 배워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A : 자료구조를 배워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싶고 인공지능에 대해 배워서 인공지능을 게임에 적용해 제작하고 싶다.

Q : 독서활동이 다른 학생에 비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끝까지 읽지 않은 책은 적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Q : 3학년 독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뭐가?

A : '프로그래머의 길, 멘토에게 묻다'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 책 내용은?

A : 프로그래머가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인데, 더 이상의 배움이 진전이 없을 때 팀 내에서 가장 뒤떨어진 사람이 되어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2학년 동아리 활동에서는 그래픽으로나 효과음으로나 부족한 점이 많아서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대학에서 관련 지식을 익힌 후 게임을 제작하고 출시해 보고 싶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생기부 내용은 거의 물어보지 않았다.
- ◆ 자소서 내용,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위주로 물어본다.
- ◆ 학년별로 책 1권씩은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교육과		3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ANU미래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람마다 달랐음)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관 2명(두 분 다 교수님) ◆ 개별 면접 ◆ 대기실에 있다가 재학생분들이 데리러 오면(?) 같이 가서 면접고사장 앞 의자에서 대기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 분위기 매우 자유로움. 자는 사람도 봄. ◆ 과자도 주고 국어교육과에서 발간한 책도 볼 수 있고 준비자료 볼 수 있음. 앞에 국어교육과 프레젠테이션 빔으로 씌움. 교육과정이나 활동이나 교수님 같은 정보 있음. 중간에 면접관분들 쉬는 시간 있어서 대기시간 길어질 수 있음. 교복 입으면 학교 마크만 가림. 			

질문 및 답변 내용

Q : 3년 간 국어교사가 꿈이었는데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독서를 하면서 시대 문화와 시대 언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Q : 수상 경력을 보면 옥련논문탐구대회 수상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하고 구체적인 활동내용 말해주세요.

A : 옥련논문탐구대회는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 교과과정보다 더 심도있게 탐구하고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Q : 봉사실적 보니까 학습지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50시간 여기는 3시간씩.. 정기적으로 한 것 같은데 학습지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학습지도라고만 나와 있어서.

A : 저는 그 봉사활동에서, 봉사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학교수업내용을 보강해주는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보다 보니까 '글꽃'이 눈에 띄네요! 소설 쓰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동아리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래요?

A :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활동한 동아리입니다.

Q :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 어려울 텐데 이해가 됐나요? 계기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A : 기억이 안 나서 매우 당황해서 답변을 잘하지 못했음.

Q : 자율동아리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의 교육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썼는데 계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네요.

A :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 강박증이나 (애정결핍이 생각 안 남) 불안 장애를 겪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서 보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Q : 자기소개서 보면 영시번역? 특이한 활동이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어요?

A : 베트남국제교류 봉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있었던 경험입니다.

Q : 대학교 와서 할 활동을 고등학교 때 다 해버렸네요.

A : 저는 아주 미숙합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Q : 여기 국어 성적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자신만의 공부방법이 있나요?

A : (왜 이렇게 낮냐고 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다고 해서 또 당황함)

Q : 아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지원자와의 공정성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A : (인사하려다가) 마지막으로 말해도 될까요?

Q : (흔쾌히) 네~

A : 저는 문학 같은 국어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 질문할 때 내가 질문 이해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얼굴을 마주치고) 질문하심.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소서랑 생기부보다 구체적으로 말했어야 했는데 뭔가 덜 말한 느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교육과		○	
전형명	일반교과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휴대전화를 거두어 가서 잘 모름. 대기시간까지 포함해서 1시간(면접번호 1번이었음) 걸림.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과 지원자 2명. ◆ 복도에서 제시문을 주고 5분 동안 생각해보게 한 후 면접 실시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요약 1)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고, 교사를 희망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또한, 내가 확실하게 교사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제시문 요약 2) 수업시간에 독서토론 활동을 했다. 하지만 나는 왜 책을 읽고 토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Q : 첫 번째 제시문이 교사의 역량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본인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학생을 이해하는 공감력처럼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래에 교단에 섰을 때, 처음 보는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야 하거나 교사로서 저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학생들에게 다가갈 소통할 용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인정하며 새로운 배움을 향해 정진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기가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요즘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한다거나 대들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은데, 만약 본인의 반에 이런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A : 네, 저도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선생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이유를 물어볼 때마다 항상 “선생님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학생을 따로 불러서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학생과 상담하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지 묻고 각 학생에게 맞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Q : 두 번째 제시문과 같이 학교에서 토론해 본 경험이 있나요?

A : 네, 있습니다. 여러 형식의 토론을 해보았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은 문학 수업시간에 했던 에르디아 형식의 토론입니다. 에르디아 형식의 토론이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 일반적인 토론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는 비경쟁식 토론입니다. 평소에 하는 일반적인 토론과 달리 이러한 형식의 토론도 있다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져서 에르디아 형식의 토론을 했던 경험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Q : 그렇다면 비경쟁식 토론과 일반적인 경쟁식 토론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우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정희 작가의 ‘중국인 거리’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비경쟁식 토론을 했습니다. 소설의 배경, 인물, 상황을 나누어서 배경이 주는 효과와 인물이 내용의 흐름에 주는 영향 등에 대해 반 친구들과 자유로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책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승패의 결과를 나누지 않고,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친구의 생각을 비교하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 비경쟁식 토론과 경쟁식 토론의 차이점이자 비경쟁식 토론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A : 저는 부실장과 같은 학급 임원 활동과 동아리 기장의 역할들을 맡으며 리더십, 소통능력, 공감력을 길러왔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활용하여 미래 교단에 섰을 때, 가장 빛나는 학생들의 청소년기를 책임지고 싶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역사가 깊은 국립 안동대학교의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배워 저의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 그런데, 요새 임용에 합격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공부할 예정인가요?

A : 네, 임용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국어교사가 되리라는 확실한 꿈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학교에 다니며 학업에 열중하고, 함께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동아리 또는 스터디를 이루어 함께 공부하여 졸업 후 최대한 빨리 임용에 합격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옆 학생이 받은 질문

1. 미래의 교사로서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2. 앞선 질문과 같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드는 학생을 어떻게 할지 말해주세요.
3. 학교에서 토론해본 경험이 있나요?
4. 토론 활동을 했던 경험이 없다고 하셨는데, 학생들에게 토론 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옆 학생의 답변 : 책을 많이 읽히겠다고 함.)
5. 책을 읽히면 왜 토론을 많이 하게 되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공학과		○	
전형명	ANU미래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가능(다만, 교복 마크 위에 대기번호를 붙임) ◆ 자료 열람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해보세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기어 같은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입니다. 기어 같은 기계공학자란 항상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해내고 장치를 구성하는데 빠질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데니스 홍 박사의 책, '로봇다빈치, 꿈을 설계하다'에서 무인자동차와 인명구조로봇 등에 대한 책을 읽고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 안동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로봇공학자가 희망인데, 왜 기계공학과에 지원했나?

A : 로봇도 기계들로 이루어진 물체 중 하나이기에, 로봇만을 배우기보다 더 폭넓고 모든 공학의 기초가 되는 기계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친구들과 '협동'하여 무언가를 달성한 적이 있는가? > 구체적으로 어떤 마찰이 있었는가?

A : 대체로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기반으로 대답 > 주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할 때, 서로 조사한 내용의 정확성 판단으로 인해 조원들과 다투었다고 이야기함.

Q : 기계공학과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A : 학교 사이트를 참고하여 1, 2, 3, 4학년의 이수 내용을 숙지해야함.(의외로 자세히 물어봄.)

Q : AppMaker로 앱을 만들었다는데, 배우기 쉬운가? > 몇시간 배웠는가? > 앱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는가?

A : 배우기 쉽다, 조원들과 인강을 통해 배웠다. > 30시간 정도 배운 것 같다. >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은 하였지만 수익창출은 하지 않는다. (추가설명 시간을 주시지 않음)

Q : PVC라는 동아리에서 뭐 했는가?

A : 프라모델을 만들며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디오라마나 프라모델을 개조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고 관절이나 장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Q : ‘모교 선배가 들려주는 인생이야기’에 This, too, shall pass away. 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나? 그리고 무슨 의미나?

A :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뜻, 고등학생의 힘든 시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되니까 최선을 다하여 학교 생활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대답함.

Q : 일본어를 할 줄 안다고 하고 수상경력도 있는데 일본인이랑 자연스럽게 회화가 가능한가?

A : 간단히 예, 가능합니다. (추가로 설명할 시간을 주시지 않음)

Q : 성적이 좀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 병? 질병과 조퇴기록이 입원 때문이나? > 재발하는가?

A : 2, 3학년 때 입원을 하게 되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늦게 진도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함.>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만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Q : ‘세상은 수학이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왜 읽었나? 기계공학에 도움이 되나?

A : 세상은 대개 수학적인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리나 기계도 이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수학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세상은 수학이다’라는 책을 선택하여 읽게 되었다.

★ 기본적 이론을 질문하겠다. 칠판에 문제를 보라.

칠판 : $ax^2 + bx + c = 0$ 의 수식, 피타고라스 삼각형 (대각선은 a, 밑변이 b, 높이가 c라고 가정하고 대각선과 마주보는 각이 직각이고 대각선과 밑면으로 생기는 각을 θ 라고 정한다.)을 그려두심.

Q : 수식에서 근의 공식을 말해라 >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가? > 삼각형에서 $\sin\theta, \cos\theta, \tan\theta$ 는? > $\sin\theta, \cos\theta$ 을 미분하면?

A :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함. 간단하게 대답함 (대답 이상의 시간은 안 주심)

Q :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아는가? 알면 3개 이야기하고 각각 뭔지 말해봐라 > 전자기 유도가 뭔지 아는가? > 전자기 유도와 관련하여 유명한 과학자를 1명 이야기 해봐라.

A :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함. 간단하게 대답 (대답 이상 시간 주시지 않음)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해도 되고 됩니까? 하고 질문함, 최대한 하는 것이 좋음)

A : 저는 프라모델을 활용하여 기계에 대해 배울 정도로 지적 호기심이 많으며 창의적인 학생입니다. 본 과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호기심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계에 대해 공부하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은 하지 마라.

◆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는 암기하는 정도로 읽고 가라. (뭐가 질문으로 나올지 알 수 없다.)

◆ 학교 모의 면접은 충실하게 임해라. (면접을 녹음하든지 해서, 선생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반드시 예상 질문에 적어두어라, 그 외에도 파생될 수 있는 질문은 미리 준비해라)

◆ 기본적인 공부는 해두어라. (면접을 하다보면 정시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 교수님께서 말을 끊는 경우도 생긴다, 그냥 끊는 경우도 있으니 준비한 것을 다 못해도 당황하지 마라. (대개 압박 면접이 되는 경우이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법학과		5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ANU미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핸드폰 수거 후 가번호 부여) ◆ 복도대기 후 면접실 입장 ◆ 2:1면접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착용 및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복장 및 언행금지 ◆ 수험표 및 신분증 필수소지 ◆ 가 번호를 부여하므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한다. ◆ 면접시작 전에 핸드폰을 수거하므로 끝난 후 찾아 가야함. ◆ 전공 관련 질문을 꽤 하므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가는 것을 추천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1학년 때에는 행정직 공무원 2학년 때에는 소방직 공무원 3학년 때에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장래희망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1학년 때에는 딱히 이렇다 할 장래희망이 없어서 공무원이라는 틀을 잡아놓고 그중에서 가장 대중적이었던 행정직 공무원을 택하였고 2학년 때에는 여러 공무원의 직종을 알아보던 도중 소방직 공무원을 택하게 되었고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시력의 문제 때문에 소방직 공무원을 포기하게 되었고 교정직 공무원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Q : 그럼 교정직공무원이 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저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죄를 저지를 이들을 교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에 격리해 놓고 그들을 감시, 통제하며 또한 그들이 사회에 나갈 때를 대비해 그들을 교화하고 재사회화 시키는 교정직 공무원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교정직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 : 봉사활동에 태화동 정화활동이 대부분인데 이게 뭔가요?

A : 네 그건 말 그대로 태화동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Q :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을 보면 생활과 윤리시간 때 ‘소방차 전용자리에 주차한 차량을 치우다 생기는 과실은 소방관의 과실은 없다.’ 라는 주제를 공리주의에 대해 입각하여 말했다고 하는데 공리주의 윤리설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공리주의 윤리설이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원리로 행해지는 윤리설이며 저는 이에 근거하여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시 불법주차 차량을 치움으로써 더 적은 피해로 화재를 진압할 가능성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Q : 그럼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 윤리설인가요?

A : 예 그렇습니다.

Q : 혹시 법원의 종류에 대해 아시나요?

A : 법원의 종류는 지방법원하고 대법원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Q : 지방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있는 법원을 정말로 모르시나요?

A : 예 잘 모르겠습니다.

Q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아시죠?

A : 예 알고 있습니다.

Q : 그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그 혹시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Q : 예 그렇습니다.

A :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은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왔고 그에 대한 판결인 대통령 탄핵은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Q : 혹시 법의 종류에 대해서 아시나요?

A : 대충 민사법 형법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Q : 그럼 민사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 죄송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Q : 혹시 학교에서 법과 정치 과목을 배우지 않았나요?

A : 예 배우지 않았습니다.

Q : 예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있나요?

A :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이 더 이상 없으시면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A : 역사책을 보면 고대의 국가부터 현대의 국가까지 모든 국가의 법이 존재하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법은 국가의 권력자부터 서민 자본가 등 여러 계층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이를 통해 서로의 계층에 맞는 책임감 행동 등을 지녀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고 범위를 저지를 때에는 모두 평등하게 처벌을 내리고 또한 나라의 뼈대 되는 시스템을 정확히 명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게 보호해주기 위한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은 국가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법에 대한 동경심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전공 지식에 대해 지식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없어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비번호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 ◆ 위의 유의사항에도 적어 놓았지만, 안동대학교 법학과 면접을 할 때는 전공 관련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학과		○		
전형명	ANU미래인재전형(심층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대기실 입실→ 면접고사장 입실			
유의사항	◆ 교복입어도 상관없었어요. ◆ 면접직전까지 핸드폰과 면접자료 수거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든든하게 면접자료 챙겨가세요!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으니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p> <p>A :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오늘 만나는 프랑스혁명’입니다. 이 책은 삼부회 소집부터 나폴레옹 정권의 붕괴까지를 다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 책으로 하여금 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접하기 전의 저는 역사인물이나 역사 속 사건을 다룬 모든 것을 ‘역사책’ 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속 작가의 독백을 읽은 뒤 기존의 생각이 올바르게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 역사 관련 책을 고를 때면 작가의 전공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경험을 이해하고 인지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배운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만나는 프랑스혁명’을 통해 책 선택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이를 통해 제가 변화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게 이 책이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p>					
<p>Q :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p> <p>A : 저는 역사 연구에 있어 인간에 대한 관심과 변화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문학의 꽃’이라고 불리며 과거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역사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다음으로 변화에 대한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줄곧 역사는 고정된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사 시간에 영국의 명예혁명에 대해 배우며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명예혁명을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운동과 더불어 현재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 시민혁명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국내에서는 명예혁명의 과정과 역할을 재조명하여 시민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경험이 계기가 되어 역사는 시대와 사회에 영향을 받아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역사학 연구에 있어 변화에 대한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p>					
<p>Q : 만약 안동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어떻게 공부, 생활할 것인가?</p> <p>A : 만약 안동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학업에 충실히 임하며 종합적 안목을 갖춘 사학도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데 있어 사료해석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1학년 때 외</p>					

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외국어 공부를 원하는 학우나 외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모집하여 스터디를 만들어 공부하거나 안동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토익, 토플강의나 공자학원 등을 활용하여 한문이나 영어 등의 외국어 능력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 사료 해석에 기초를 다져가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을 넘어 해외에 거주중인 동포나 외국인들에게 건가한 역사와 그 중요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대학교 사학과 학생회에 들어가 선배님들과 교류하며 사회성과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40회에 이르는 역사를 가진 안동대학교 사학과 학생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Q : 역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역사 속 존경하는 인물이 있나요?

A :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우당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이회영 선생님께선 일제의 탄압 속에서 전 재산을 팔아 마누에 땅을 사고 신흥무관학교의 기반이 되는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셔서 독립운동을 위한 인재양성에 힘쓰셨습니다. 이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이회영 선생님의 삶을 본받아 건강한 역사를 연구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Q : 혹시 지역의 역사에도 관심이 있나요?

A : (끄덕이며) 예, 관심이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본인 지역과 관련된 역사 속 인물을 소개하고 소개한 이유를 말해주세요.

A :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안용복입니다. 안용복 선생님께서는 울릉도에 불법으로 어로작업을 하고 있던 일본인을 목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일본에 알리고 이를 인정받아오신 분입니다. 제가 안용복 선생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조선시대의 평범한 어부가 위함을 무릅쓰고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가 영토권을 인정받고 지켜내신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아직은 평범한 학생이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안용복' 선생님처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 학생회 임원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요?

A : 제가 학생회 임원이 된다면 학과의 분위기를 담당하는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 내부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면접을 대기하며 저는 몹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에 사학과 학생회 선배님들이 들어오셔서 학과영상과 함께 좋은 말씀과 기운을 전해주신 덕분에 편안한 마음과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년 대입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면접을 진행합니다.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목적은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함이겠지만 대학에 찾아와 면접에 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짧았던 대기시간이 안동대학교에 대한 평가와 인상을 좌지우지 하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동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당차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제가 학우들과 협력하여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학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 역사수업 이외에 역사능력 향상을 위해 했던 활동이 있나요?

A : 역사봉사 동아리인 '유노이아' 활동을 하며 역사전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3.1운동 100주년기념 태극기 만들거나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기획하고 활동함으로써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역사가 재밌고 꼭 알아야 하는 것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에게는 맞춤 멘티·멘토 활동이나 '쇼미 더 역사' 라는 역사와 랩을 융합한 수업 등을 진행하며 역사와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여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안동대학교 가고 싶은데 자신 없으면 면접전형 2개 이상 넣으세요.
- ◆ 면접 전 모의면접은 필수로 최소 2번 이상은 해보시고 교수님 얼굴과 이름 익혀 가시면 확실히 면접 시 덜 긴장되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생활복지학과		10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ANU미래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2:1면접형식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진로희망사항에 2학년 때 노인심리상담사를 희망하셨는데 3학년 때 사회복지사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 저는 2학년 때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봉사정신을 다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까이에서 지켜봐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인심리상담사도 물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은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여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키워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Q : 1학년 수학기간 때 MBTI성격유형검사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 성격유형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보세요.

A : 일단 MBTI검사는 자신의 성격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성격유형검사로 총 16가지 유형으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격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이 객관적인지 감정적인지를 알아봅니다. 또 판단형과 인식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지 추상적인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성격의 유형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자신의 성격을 분석하여 학습법이라든지, 직업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Q : 수상목록에 영어 프로젝트 발표대회에서 수상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부분을 조사했으며 발표한 내용을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말해보세요

A : 영어 프로젝트의 주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복지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동시와 다른 지역을 비교하여 안동시 복지조례를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팀원들과 의논하여 중증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주거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에 대한 복지에 대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미흡한 복지 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생각해낸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Q :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의미가 깊었던 봉사활동과 그로인해 배우고 성장한 점은 무엇인가요?

A : 저는 성좌원이라는 휴유장애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 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어르신 분들이 하지 못하시는 일을 혼자서 하시거나 외로우실 때 제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계기로 봉사활동을 할 때 봉사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뿌듯함과 저에 대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1학년 때 작성한 유아관련 논문에서 참고한 논문이름을 말해볼래요?

A : 1학년 때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논문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유아복지에 관련한 부분만 읽고 작성한 것입니다.

Q : 생활복지학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지원했을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는 분야가 있나요?

A : 저는 앞서서도 말했듯이 노인복지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하는 말이 있나요?

A :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에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성적도 성적이지만 면접이 합격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면접의 퍼센트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도 면접으로 성적의 한계를 뛰어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고 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제시된 문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부와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예상해서 대답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소서보다는 생기부를 더 많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학과와 상관없이 뜬금없는 질문도 꽤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학교육과			
전형명	일반학생전형(교과)			
면접 형식	면접시간	5~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곡선의 오목과 볼록의 정의를 말하세요.

A : 답변 못 함.

Q : 오목과 볼록을 이계 도함수로 알 수 있는 방법을 말하세요.

A : 이계도함수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합니다.

(칠판에 함수를 그려보라고 하셔서 함수를 그려서 설명함. 변곡점의 위치도 칠판에서 함께 설명함.)

Q : 수학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는지)

A :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이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다른 친구들보다 수학을 빨리 풀고 정답률이 높다는 것을 담임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되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들을 가르쳐 줄 때 뿌듯함을 느껴 수학교사를 진로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사례

A : 학교 선생님께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학을 좀 더 빨리 풀고 정답률이 높다는 것을 인정해주셔서 그때 부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수학에 대한 개념을 물어봐서 수학의 개념을 잘 알고 가야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어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전형(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안에서 기다리다가 순서가 오면 대기실 밖에 나가 의자에 3명씩 앉는다. ◆ 면접실에 들어가 면접관 2명과 면접자 1명이 면접을 시작한다.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학교 이름, 지역명, 수험번호 등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어디서 왔습니까?

A : 인근 지역에서 왔다고 함. (블라인드 면접 유의사항을 잘 숙지했나 확인하기 위해 질문한 것으로 생각함.)

Q : 규칙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나한테 그 규칙이 불리하게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극복한 방법도 설명해주세요.

A : 생각을 더 해보겠다고 말한 후 불리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학교 청소시간에 내가 경험했던 유난히 더 힘이 들었던 청소에 대해 말하고, 하기 싫어도 일찍 끝내자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힘을 보태며 열심히 청소했다고 말함.

Q : 이 학교에 입학할 한다면, 입학한 후 학업계획과 졸업 후 진로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영어교육과에 입학해 수업을 성실히 듣고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고 싶다고 말함. 졸업 후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교사가 되겠다고 말함.

Q : 동아리 활동 중 나만의 창의성을 발휘했었던 활동을 말해주세요.

A : 3학년 때 교육 동아리에서 했던 수업 시연 활동을 얘기하며 나만의 수업을 구성했던 경험을 말하였음.

Q : (1) 앞에 있는 영어 지문을 영어로 읽고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해주세요.

A : 나에게서는 어려운 지문이라 완벽하게 읽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정독하였음. 해석은 단어들만 어려워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Q : (2)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A : 첫 문장과 중간에 문장을 보아 이리이러한 주제를 가진 글 같다고 말함.(옛날 경제관련 지문이었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안동대 영어교육과 지역인재 전형의 교과등급 평균이 내 성적보다 조금 낮았던 것이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영어관련 성적도 중요한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원예생약융합학부	○		
전형명	ANU 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정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면접장 - 집		
유의사항	◆ 기다리는데 2시간이니 읽을거리(질문지, 자료) 많이 보세요. (응시번호 12번 이었음) ◆ 더듬어도 멈추지 말고 답변하세요.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오는데 고생 많았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주세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대학교 원예생약융합학부에 지원한 12번입니다. 저는 제 몸이 아팠던 경험으로 생약 성분에 호기심이 생겨 생약 성분에 대해 연구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종자를 개발하고 강화하여 미래에 저와 같이 아토피나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Q : 지구과학 관련에서 3학년 때 농업으로 진로를 바꾼 것 같은데 계기가 있나요?

A : 제가 올해 봄방학 때 진로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업에 관심이 많으신 저희 부모님께서 농업의 가능성을 말씀해주셔서 관련된 것들을 해보고(육농기술, 기능성 채소) 부모님과 상의 끝에 진로를 농업쪽으로 바꿨습니다.

Q : 부모님이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나요?

A : 그건 아니지만, 아파트 뒷산에서 약료 캐러 다니시고 영경귀 따러다니십니다.

Q : 아토피가 아직 남아있나요?

A : 네. 아직 심한 곳이 있습니다.

Q : 영경귀가 어떤 작용을 하나요?

A : 영경귀는 항산화효과가 있고 아토피를 하나의 염증이라고 여기면 항염작용을 합니다.

Q : 영경귀의 한방 효과를 알고 있나요?

A : 대표적으로 어혈작용을 하는데 피의 순환을 도와주거나 피가 덩어리진걸 풀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면접관님 반응:오~)

Q : 3년 동안 천체 동아리를 했는데 혹시 느낀 점 있나요?

A : 네. 주로 천체관측을 해서 밤에 장비를 옮기고 관측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나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제가 노력하거나 부원(친구)들과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 그러면 만약에 대비해서 조별과제를 하면 조장이 준비를 안 하다 혼자 발표하고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되었는데 이때 어떻게 할 건가요?

A : 결과는 이미 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교수님께 말씀드리거나 팀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하고 물어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Q : 말을 참 잘하는데 성격인가요?

A : 성격은 내성적이지만 저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 생략 ~ 그래서 저의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Q : 대학교 와서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장학금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것도 돼요.

A : 종자가 유전과 관련되다 보니 고등학교 때의 기초적인 지식으로 대학교에 와서 유전학을 더욱더 깊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꼭 해야겠다 하는 말이 있을까요?

A : 올해 노벨상을 받은 일본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는 노벨상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했기 때문에 노벨상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안동대학교에 와서 그 과학자처럼 꾸준히 노력해서 종자개발연구원이라는 진로에 다가가 값진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신있게! 당당하게 대답해요!!
- ◆ 융통성 있게 대답하면 교수님들 반응 좋을거예요.
- ◆ 웃는 얼굴 잊지 말고 더듬거나 조사 잘못 나와도 괜찮아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윤리교육학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A : 안녕하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윤리입니다. 윤리학은 당위성을 의논하는 학문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답도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를 통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토론입니다. 저는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만약 윤리교육과에 들어가게 된다면 소크라테스와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Q : 칸트의 사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A : 임마누엘 칸트는 근대의 의무론자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자율적 선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은 자신만의 법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의 형태는 정언 명령, 즉 조건이 있는 가언 명령과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준칙은 두 가지의 원칙을 지켜야 타당해집니다. 첫째, 보편타당성입니다. 준칙은 모든 사람이 따랐을 때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입법에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둘째, 목적의 왕국입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존엄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칙에 따르면 낙태와 같은 문제는 태아를 살인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사형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도 목적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인간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재해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죽였을 때 살인자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면 살인자를 자연처럼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해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Q : 그렇다면 칸트가 생각하는 나쁜 행위는 무엇입니까?

A : 칸트의 법칙으로만 행동한다면 상황이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모가 죽음에 이를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도 칸트의 법칙은 낙태를 비도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칸트 철학과 더불어 근대의 이성주의 철학을 성찰한 것이 현대 철학입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동정심과 같은 감정도 중시하며 상황을 고려합니다.

Q : 아, 질문을 잘못 들으셨나 보네요. 칸트가 생각하는 비도덕적 행위는 무엇입니까?

A : 두 가지의 원칙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윤리교육과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저는 윤리라는 과목을 통해 저 자신의 위치와 생각을 알 수 있었고 자신에 대해 많은 성찰을 하였습니다. 저는 윤리교사가 되어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저는 선생이면서 학생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선생이 되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 그와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기출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응용화학과	○		
전형명	농어촌학생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대략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 모여서 간단한 본인 확인과 공지를 전달 후 ◆ 차례로 한 명씩 면접을 실시함.(면접관은 두 명임)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 부모님의 정보 발설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응용화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있나요?

A : 고등학교 입학 당시에 향수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이 향수를 뿌릴 때마다 준 사람이 생각나고 사람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다는 향수의 장점에 반해서 향수를 만드는 조향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향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니 화학적 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응용화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전자쌍 반발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기부에 쓰여 있었음.)

A : 전자쌍 반발 원리는 공유결합에 의해 쌍을 이룬 전자쌍들이 모두 음전하를 지녀, 정전기적인 반발에 의하여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원리입니다.

Q : 분자모형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고 적혀있는데 메테인의 분자구조는 무엇이죠?

A :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Q : 그럼 물의 분자구조는 무엇이죠?

A : 굽은형입니다.

Q : 왜 그런지 아십니까?

A : 비공유 전자쌍때문인 것 같은데 자세히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Q :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개수로 인해 결합각에 차이가 생겨서 굽은형입니다. 괜찮아요. 지식은 와서 배우면 되고 아주 대답 잘 하고 있어요.

Q : 3학년 때 화학 성적이 좀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A : 3학년 때 화학 II 를 배웠는데 내용이 화학 I 을 기반으로 한 심화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중간 중간 화학 I 에서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못하여 성적이 떨어진 것 같아 시험이 끝난 후에 화학 I 에서 부족한 개념을 다시 복습하였습니다.

Q :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합격한다면 생각해둔 진로계획이 있나요?

A : 네.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여 유기화학, 분석화학, 고분자화학 등 수업을 들어 화학적 지식을 쌓고 방학 때 조향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졸업 후에는 향수 브랜드 한국지사나 화장품회사에 연구직으로 취직하여 나중에는 저만의 향수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Q : 교육과정도 찾아봤나보군요. 수고하셨어요.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A :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Q : 네, 하세요.

A : 조향사가 되고자하는 열정으로 끈기와 리더십의 역량을 갖추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장과 학급 두레장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다른 부원들을 도우며 끝까지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며, 나만의 향수 회사를 가지는 조향사가 되기 위해 안동대학교에서 더욱 노력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합격한 이유는 최대한 답을 하려고 노력했고 자신 있게 대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생기부에 적힌 개념이나 활동들은 꼭 자세히 알고 준비하고, 웃는 얼굴로 면접관님들 보면서 항상 자신 있게 대답하고 몰라도 최대한 아는 만큼 답하려고 노력하세요.
-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준비해 가는 것도 좋아요. 면접관님들이 좋아하시더군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동차공학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ANU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시간에는 그 과에서 배우는 형들이 농담을 하며 긴장을 풀어주는 자유로운 분위기 ◆ 면접 순서표를 가슴에 붙이고 기다렸다가 자신의 순서가 됐을 때 면접을 보러감. 1대1면접 (면접관 2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신분과 출신을 알 수 있는 복장 착용 금지, 면접 중 자신에 관련한 인적사항이 나와서는 안 된다. ◆ 휴대폰은 다 수거하며 면접 중 휴대폰 벨이 울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과에 지원한 계기는?

A : 평소에 자동차를 좋아해 자동차 관련 기사를 찾아보던 중 엔진의 힘과 관련된 기사를 읽으며 어떻게 철과 플라스틱 덩어리가 생물체처럼 움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궁금해졌고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싶어서 이 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Q : 싫어하는 과목은?

A : 물리를 그나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에서는 물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입시 문제에서 물리는 마찰력이 없다는 조건과 같은 실제에서 일어나기 힘든 조건이 붙어서 상식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붙여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Q : 싫어하는 과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A : 같은 문제를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며 풀었습니다. 풀었지만 이해하기 힘들었던 문제를 풀고 또 풀고 하니 적응이 되며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Q : 더 자세하게 말해보는다면?

A : $F=ma$ 에서 물체가 같은 속도로 가는 것은 F 가 0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 이제는 이해하며 과거의 상식의 틀을 깬습니다.

Q : 좋아하는 과목은?

A : 그나마 국어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말이고 안에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Q : 학생이 국어를 좋아한다고 하고 입상 경력을 보니 시 창작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학생이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조국 사태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조국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조민의 논문에 힘을 실어 준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공정성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Q :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점?

A : 과학부스한마당 이라는 부스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그 때 당시만 해도 사교성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주문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사교성이 부족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스 자체가 아이들이 혼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의 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스에서 봉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님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Q : 학교생활은 즐거웠나?

A : 그다지 즐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원인 모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수행평가 걱정을 하고 시험기간에는 시험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차라리 맘 편히 있다가 준비해야 할 때만 딱 정신 차리고 보면 될 것을 항상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을 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당부할 점(어려웠던 점) : 면접 순서는 원서 넣은 순서라고 예상한다. 면접 경험이 처음이어서 솔직해야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너무 솔직히 답했다. 그리고 항상 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말부터 꺼내다 보니 머리 속에서 정리를 안 하고 답했다.
- ◆ 물리가 가장 중요시 되는 공학계열에서 물리를 싫어하고 국어를 좋아한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조금 늦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답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 ◆ 고등학교 생활이 즐거웠냐는 내용에서 너무 솔직하게 답하며 크게 감점받은 것을 느꼈다.
- ◆ 생기부 외의 내용에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솔직할 필요가 없다.
- ◆ 적어도 내가 간 학과에서는 생기부 관련내용, 자소서 관련내용이 없었다. 생기부 내용이라고 하면 입상 경력 외에는 질문에 생기부 관련 내용은 없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자공학과	○		
전형명	ANU 미래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휴대폰 제출하고 대기함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동아리활동에서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라디오의 원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

A : 라디오는 바 안테나를 통해 여러 가지의 주파수를 수신하여 검파 다이오드를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 주파를 분리해내어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로 바꾸어줍니다.

Q : 동아리활동에서 고체연료를 만들어봤는데 원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나? 그 고체연료를 이용한 스텔링 엔진은 잘 작동했는가?

A : 불을 태우기 위해 알코올을 사용하였는데 액체인 알코올을 고체로 만들기 위해서 비누를 가루로 간 다음 알코올과 섞어 다시 굳혀 고체형태의 연료를 만들게 되었고 불을 붙여 충분히 오래 탈 수 있게 만들어 스텔링 엔진을 달구어 작동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추가) 동아리에서 한 다른 활동인 콜라로켓은 고체연료 만들기와는 다른 활동이었습니다. 콜라와 부탄가스를 사용하였는데 콜라가 부탄가스보다 밀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콜라를 조금 비우고 부탄가스를 채운 뒤 콜라를 뒤집어 압축된 부탄가스가 팽창하여 콜라 페트병이 로켓처럼 날아가게 하였습니다.

Q : 동아리활동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만들어서 충전해 보았다고 하는데 맞나?

A : 태양광 키트를 구매하여 햇빛을 이용해 태양전지로 전기를 생산한 뒤 휴대폰에 단자를 연결하여 직접 저의 휴대폰을 충전해 보았습니다.

Q : 2학년 때 학급실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

A : 3학년 때 저의 반에는 학업을 매우 중요시 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정하는 학급회의를 할 때 항상 크게 두 가지의 의견이 부딪혀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학기 말 학교행사에 반의 공연 주제를 정하다가 어느 한쪽으로 주제를 정하기 어려웠고 저를 못마땅하게 본 한 친구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나빠졌지만 그 친구에게 피드백을 받아 다시 회의를 하여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장을 하면서 리더의 자리는 정말 힘들고 책임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수와 함께 무엇인가를 정할 때 어느 선택을 하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들을 잘 다루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실장역할을 경험해본 이후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존경심을 느끼고 그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Q : 학교 과학 골든벨에서 은상을 받았는데 어떤 골든벨이었나?

A : 학교에서 과학관련 행사들을 하는 '과썸데이'에서 기본적인 과학 상식들을 이용한 과학 골든벨에 참여하였고 은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Q : 책 '쉽게 읽는 반도체 이야기'를 읽고 느꼈던 점에 대하여 말할 수 있나?

A : 책을 읽고 저는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크게 전 공정과 후 공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반도체의 전 공정은 크게는 9가지이지만 세부적으로는 200가지 까지 나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만큼 복잡한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에 대해 매력을 느꼈습니다. 후 공정에서는 전 공정에서 만든 반도체 웨이퍼에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반도체의 성능과 역할이 나뉜다는 점에서 반도체 설계를 직접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Q : 하고 싶은 한마디는?

A :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 인터넷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VR, 드론 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사물에 통신칩과 센서칩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을 사용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반도체가 빠질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동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여 뛰어난 반도체공학기술자가 되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의 질문들이 거의 생기부에서 나왔는데 동아리에서 관련 활동을 여러 가지 하였고 나의 생기부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정보통신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인원 : 농어촌4명, 다른 전형 8명이 정해진 자리에 앉아 대기함.		
유의사항	◆ 자기에 관련된 언급 X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에 대하여 말해주십시오.

A : 저의 미래 목표는 4차 산업 혁명 속에 빠르게 발전되는 현대사회의 정보 속에서 유용한 정보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요즘 SNS 등에서 쏟아지는 많은 정보 더미 속 안에서 거짓 정보에 속은 적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제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많은 정보 속에 각각 기업이나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빅 데이터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빅데이터이란 무엇인가?

A : 빅데이터란 빠르게 생겨나고 그 규모가 큰 정보들을 말합니다.

Q :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

A : 빅 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많은 양의 빅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통계모델을 만들어 사람들의 행동패턴이나 시장 경제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Q : 옴의 법칙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A : 모르겠습니다.

Q : 힘의 법칙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A : 모르겠습니다.

Q : 자격증을 공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프로그래밍이나 다루어본 컴퓨터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A : 아직 직접 다루어본 프로그래밍이나 자바언어 C언어 등은 없지만 오게 된다면 꼭 배우고 싶습니다.

Q : 수리연구반에서 한 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A : 수리연구반에서 서로 4인이 모여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Q : 무슨 활동을 했는지?

A : 축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어떤 확률로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활동했습니다.

Q :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할 건지.

A : 저는 졸업 후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어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Q :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나요?

A : 삼성의 빅스비 루틴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나오는 갤럭시 최신 종류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폰이나 옛날 기종에서도 그 사용자에게 맞게 스마트폰의 이용 용도를 변하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안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교육학과	○		
전형명	일반 교과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시 수험번호 순으로 착석 ◆ 휴대폰 제출 (면접번호가 휴대폰에 붙음 면접번호 기억 할 것) ◆ 대기실에서 면접 보러 나가면 못 돌아옴 ◆ 누구인지 확인하고 주시는 서류에 싸인함 ◆ 면접번호 나누어 주심 왼쪽 가슴에 부착해야 함 ◆ 면접 전 5분정도 제시문을 보고 생각 할 시간을 주심 ◆ 필기 할 수 없고 정말 보고 생각만 해야 함 ◆ 제시문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 온 것과는 다름 ◆ 2분의 면접관이 계심 3명씩 들어감 ◆ 첫번째 질문은 1번부터 두번째 질문은 3번부터 이후 계속 1,3,1,3순서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 마지막에 대답 할 수 있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착용은 금지가 아님 하지만 학교 마크는 가리고 가야함 ◆ 대기실에서 머무르면서 무언가 읽거나 볼 수 없음 ◆ 화장실에 갈 때 도우미 분과 동행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피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 : (앞사람 둘) SNS로인한 사생활 침해나 욕설로 인한 인권침해 같은 피해가 있다.

앞의 두 사람이 말한 피해도 있지만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톱비 같은 신조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A :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으면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Q :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져야 할 기술이 무엇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A : 아마 가장 큰 기술로는 앞 차와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

Q : 그 기술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알려주실래요?

A : 그 기술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것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Q : 컴퓨터 교육과에 들어오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A : 초반에 자바나 c언어 같은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언어를 배우고 교육봉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법을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Q : 자바나 c언어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고 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명령어 같습니다.

Q : N개의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숫자 중 지정된 숫자 찾을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A : N개의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홀 수이면 $n+1/2$ 번째의 숫자를

Q :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예시를 들어 줄게요. 1년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 30이라는 숫자를 찾을 겁니다. 30이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 로봇이 어떻게 검색할 것인지 설명해보세요.

A : 네 예로 드신 30이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그 숫자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분석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된 숫자로 된 숫자를 골라낸 후 같은 순서로 배열된 숫자를 찾으라고 할 것입니다.

Q : 아까 설명했던 것 다시 설명해주실래요?

A : 네 먼저 n 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게 한 후 홀수이면 $n+1/2$ 번째의 숫자를 찾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와 지정해준 숫자를 비교한 후 같으면 그것으로 시행을 끝나고 크면 $n+1/2$ 과 끝자리 숫자의 $n+1/2$ 번째 숫자와 비교하면서 그 숫자를 찾을 때까지 반복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짝수는

Q : 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 것 같네요.

A : 네

Q : 그럼 혹시 오름차순이 아닌 마구잡이로 섞인 숫자 사이에서 지정된 숫자를 찾는 법을 설명해주실래요?

A : 먼저 정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정렬하지 말고 찾아보실래요?

A : 아 그러면 아무래도 첫번째 숫자부터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왜 컴퓨터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설명해주세요

A :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을 동경해서 꿈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소프트웨어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생겼고 가는 길조심이라는 앱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컴퓨터 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느낀점〉

거의 교복을 입은 편이다. 교복을 입지 않았더라도 와이셔츠, 스웨터에 슬랙스가 많았다. 최신기술관련 기사를 많이 읽었고 기술에 발전에 따른 양면성을 생각해보았다면 질문은 어렵지 않은 편이다.

아쉬웠던 것은 기술에 대해 더 알아갔으면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 번 알고리즘을 짜고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알고리즘화하는지 생각해보면 제시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나온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10월 초에 면접을 봐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 점심에는 덥고 두껍게 입기보다 아우터를 가져가는게 좋다.
- ◆ 시계를 가져가면 제시문을 볼 때 도움이 되지만 단, 디지털시계는 가져가면 안 된다.
- ◆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다 하면 된다. 정 모르겠다 싶으면 앞서사람의 생각과 같습니다이라는 작전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 물론 좋은 것은 앞서사람 생각도 좋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공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수 2명, 질문 후 바로 대답하는 형식		
유의사항	◆ 전형특성상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서류(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경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고른기회공통)

A : 경쟁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를 이기거나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사회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Q : 경쟁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고른기회공통)

A : 서로의 숨겨진 능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윈윈 효과'가 경쟁의 긍정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Q : 고등학교 생활 중 갈등 극복 사례가 있었나요? 그 갈등 극복 사례를 통해 본인이 배우고 성장한 점이 있나요? (고른기회공통)

A : 3D프린터 심화반 활동에서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호버크래프트 제작' 과정을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조원들과의 일화(갈등)를 말씀드리며 팀 활동에서 끊임없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함.

Q : 기계공학부에 지원했는데 기계공학 분야 중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이며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 BT분야 즉, 생체계의 지식을 공학분야에 활용하는 바이오닉스 분야에 가장 관심 있습니다. 2학년 생명동아리 활동과 '새 삶을 주는 인공지능'이라는 도서를 통해 단순한 기계공학자라는 진로에서 의공학,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바이오 기계공학자의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Q : 기계공학부의 10년 후 전망은 어떠한 것 같나요?

A : 매우 밝을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은 응용이라는 측면에서 활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BT, IT 등의 학문과의 융합 시 발생하는 시너지를 생각하면 기계공학은 10년 후에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학문일뿐더러 인기 있는 학과로 이어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A : 연세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공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질문으로 면접 준비 시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회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제시문 숙지 시간(5분) + 제시문 면접 시간(7분) + 서류기반(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면접 대기실(순서에 따라 이동 있음) ◆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실 -> 제시문 기반 면접 ◆ 서류 기반 면접 준비실 -> 서류 기반 면접 -> 퇴실 ◆ 면접관은 서류기반, 제시문 기반 각 2명 - 교수 1명, 사정관 1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내부 음식물이 반입금지이지만 간단한 건 섭취 가능 ◆ 1층 면접대기실을 벗어난 이후부터는 화장실 사용이 엄격히 금지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제시문 기반 면접

A : T바이러스(임의의 명칭인 거 같음)의 사회적인 영향과 구체적인 수치를 드러낸 도표를 나타내고 있었음. 한 제시문만 출제되었으며, 문제는 2문제. 문제 1번은 도표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분석 해석하라는 것. 문제 2번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생물학적인 함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라는 것.

서류 기반 면접

Q : 자율동아리에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탐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려움은?

A : 처음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을 때 기업의 구조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근로자들이 느꼈을 감정 등의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두 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것도 저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진행했던 것입니다.

Q : 정규동아리에서 경주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토론했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A : 우리나라가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제가 경제 시간에 배운 것을 보면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사회적 효용을 항상 감소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와 같은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그냥 방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대 임차 과정에서 불법적인 측면이나 임대인의 강압성이 드러날 때만,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특별한 이유?

A : 사회학과를 지원한 문과이지만 사회학과가 여러 수학적 통계나 확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고, 고교 재학 중에 수학 공부를 꾸준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Q : 관료제 유토피아라는 책을 읽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A :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림. 다시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는 질문이 왔지만 시간 오바로 퇴실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연세대학교 면접형은 말 그대로 면접이 중요하다. 특히 생기부 자소서 질문은 자신이 한 활동이기 때문에 독서 활동을 제외하고는 크게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 하지만 제시문 기반 면접은 내용이 쉽지 않고 추가 질문이 상세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특히 사회과학 계열 학생은 면접 준비 과정에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는 제시문을 연습하는 게 좋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산업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제시문 숙지 5분 + 제시문 기반 면접 7분 + 생기부 기반 면접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그룹으로 나뉘고 그룹 안에서도 조랑 번호가 나뉨. 첫 번째 그룹은 대강당에서 다같이 대기(200명?) ◆ 나머지 그룹은 조별로 나뉘어서 각자 대기실에 있다가 첫 그룹 다 빠지면 그룹 순서대로 대강당으로 들어옴. ◆ 대강당에서 유의사항 듣고, 소지품 수거해감. ◆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제시문 숙지 방에 1명씩 들어감. ◆ 조교가 스톱워치로 시간 재고, 1분 남았을 때 알려줌. ◆ 5분 지나면 조교 따라서 면접실로 감. ◆ 2m 정도 거리 두고 두 분 앉아계시고, 제시문 기반 면접 진행. ◆ 끝나면 조교 따라서 생기부 기반 면접실로 감. ◆ 생기부 기반도 약 2m 정도 거리 두고 두 분 앉아계시고, 생기부 기반 면접 진행.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 기반 면접 시에는 추가적으로 질문하시는데, 이게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답변해야 함. ◆ 생기부 기반은 정말 지엽적이었고, 진위 확인용인 느낌이 강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소서에 공장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인지?

A : 미생물이 공장폐수에 황화시안이라는 독성물질을 이용해서 성장함을 관찰한 활동이었습니다. (질문 하자마자 바로 답변했는데, 답변하자마자 이 내용 적힌 부분에 동그라미 치고 다음 장으로 넘기고 답변 들으심.) 미세조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을 질소화합물로 분해하고 이를 이용해서 지질을 합성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장폐수를 처리함과 동시에 바이오매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Q : 바이오매스..? 이 과정에서 어떻게..?

A : 미세조류가 바이오매스를 만든다기보단, 미세조류가 만들어 낸 지질을 인간이 합성해서 바이오매스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Q : 자소서에 아두이노로 온습도계를 만들어서 요양원에 부착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든 거예요?

A : 아두이노 키트를 통해서 제작했습니다. 브레드보드랑 아두이노 우노보드에 저항과 전선, 센서를 끼워서 회로도를 만들었고, 코딩 관련해선 오픈소스를 활용했습니다.

Q : 키트라고 하면 측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서 나오지 않나요? (키트에 센서가 들어있는 거 아니냐고 물은 건데, 나는 측정기가 만들어져서 오는 게 아니냐고 해석함.)

A : 2번에 한 말 비슷하게 한 번 더 말하니깐, 또다시 그 측정하는 거 자체가 만들어진 상태로 오는 거 아니냐 물으심. 이때 “아 센서 묻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서는 기본적으로 완성돼서 오고, 센서를 통해 온습도를 측정해서 LCD판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대답함.

Q :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A :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쪽으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신 것 같길래)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성관계를 20번 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성관계를 20번 이상 한다는 문항에 체크하지 않고, 더 적게 하는 것에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사회가 원하는, 비교적 이상적이라고 바라보는 쪽으로 행동하려는 마음입니다.

Q :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계의 에너지 순환에 대한 수업에서 재치 있는 말씀씨로 발표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A : 우선, 태양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을, 태양이 방귀를 똥다고 표현한다든지 등.. 재미있게 발표하는 것에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Q : 그럼 지구계의 에너지 순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아 네. 먼저 물의 순환 같은 경우는, 강수량과 증발량이 같다는 메커니즘으로 순환됩니다. 우선 산맥(육지라고 해야 하는데 산밖에 생각이 안남)과 해양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산맥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 하천과 계곡을 통해 일정량이 바다로 유출이 되고, 나머지는 증발합니다. 바다같은 경우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데, 이는 계곡과 하천으로부터 오는 물의 양 때문입니다. 물은 이러한 과정으로 순환합니다. 그리고 탄소의 순환은 우선 해양에 있는 탄산칼슘이 이온 형태로 존재하다가 토양에 침전되기도 하고, 또, 생물이 죽고 난 뒤 분해가 되면서 안에 있던 탄소가 토양으로 침전되는 방식으로 탄소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지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 설명하려했는데, 순간적으로 화산폭발이 생각이 안남.)

Q : 물리시간에.. 뭐 신호등 LED로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무엇이지요?

A : 네. 일단 신호등의 크기나 모양에 관련된 규제는 있지만, LED와 관련된 규제는 없음을 알았습니다. 신호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신호등의 빛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기사를 읽고 난 후였는데, 이 LED의 수를 최적화한다면 신호등 밝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보행자 신호등의 LED 개수를 관찰해보니 70개에서 100개 정도로 규칙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학시간에 일정면적 안에 들어가는 원의 격자점을 구하는 문제가 생각났고, 이를 신호등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빛이 밝게 보이는 면적을 휘도반경이라 하는데, 이를 원으로 해서 신호등의 일정면적 안에 들어가는 LED의 개수를 최적화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Q :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 준비한 거 그대로 말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시스템생물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활동우수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제시문 숙독 8분 면접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60명씩 조별로 대기 → 면접대기실? (큰 강당) 이동 후 대기 ◆ 제시문 풀러 면접준비실 이동 후 대기(가면 1명은 풀고 있고 내 앞 차례 친구랑 같이 벽보고 대기함) → 면접실		
	유의사항	◆ 블라인드(교복착용 금지) ◆ 면접관 젊은 남자 분 2명(방 좁음) ◆ 준비실에서 책상에 고정(붙여놓은) 파일에 있는 제시문 보고 백지에 답변 적고 제시문 덮고 면접실 드가면 책상에 또 제시문 파일 붙여놔서 보면서 답변 적은 거 보면서 생각하고 답할 수 있음. ◆ 원래 생기부 확인 질문을 한두 개 할 수 있다고 해서 준비는 해서 갔는데 따로 묻지는 않으셨음. 다른 후기는 제대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내 입장은 아예 제시문 답변만 들으려 하신 것 같았음.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4개(마지막은 막대그래프) - 제시문의 요점은 파악하겠는데 문제에서 가, 나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 설명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연결 지어야 하는 건지 감을 잘 못 잡아서 일단 가) 나)바탕이 꼭 아니더라도 내 주장을 말하려고 노력했음.

제시문 가) '동물 해방'에 대한 설명, 여성의 권리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조롱하는 데에 사용, 누구의 주장: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면 식물이나 그 외의 것들에도 권리 부여하게 된다는 내용

제시문 나) '잉여'에 대한 설명 -유용성과 필수불가결의 조건에 대한 내용

제시문 다) A와 B의 대화

A: 고양이가 키움

B: 야옹이가 너 밥 먹여주니? 옷을 입혀주니?

A: 내가 힘들 땐 야옹이뿐이었다고! 근데 병원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방값보다 비싸

B: 그 돈으로 차라리 '불우 아동'을 도와라. 그건 보람이라도 주지 않겠느냐?

제시문 라) A국가에서 순종 ~~를 기준 100만원 했을 때 개의 가격(그래프 가로, 세로 축 항목은 모두 영어-파악 못할 영어 아님)

```

small size -tipeA -mixed      -----
                -non-mixed   -----
        -tipeB -mixed      -----
                -non-mixed   -----
regular size -tipeA -mixed   -----
                -non-mixed   -----
        -tipeB -mixed      -----
                -non-mixed   -----
large size -tipeA -mixed     -----
                -non-mixed   -----
        -tipeB -mixed      -----
                -non-mixed   -----

```

이런 느낌(내가 파악한 건 전체적으로 순종이 잡종보다 가격이 높음. typeA와 B간의 유의미한 차이까진 발견하지 못해서 또 size 별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어있음. large>small>regular)

Q : 거기 책상 위에 있는 거 보고 해도 돼요

A : 아 봐도 돼요?

Q : 네 준비해온 거 답변해볼까요? 답변해보세요?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다)의 대화 내용을 비판해보세요.

A : 일단 A는 고양이를 데려다 잘 키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병원비 감당을 걱정하는 걸 보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동물 해방이라는 입장에서는 야옹이의 권리는 없이 인간의 마음대로 데려다 키우는 것이니까 A가 고양이를 키우는 행동 자체도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 그리고 B는 동물 대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구분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 B가 고양이 너한테 옷을 입혀주니? 밥을 먹여주니? 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고양이를 무용한 잉어로 보고, 그 돈으로 차라리 불우 아동을 돕는 것은 유용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같은 생명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

Q :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라) A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A : 우선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순종이 잡종보다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사이즈별로 라지, 스몰, 레귤러 순으로 가격이 높다. 이렇게 순종이 높게, 크기 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 A국가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일 테고 그럼 이 국가의 사람들이 특정하게 선호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 이를 비추어 보면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뭐 주변의 다문화 가정. 혼혈인 사람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본인 입장에서 종에 대한 우월감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차별하거나 본인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똑같은 개, 생명체인데도 종, 크기 별로 가격이 다르다는 게 (사회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던 것 같음.

A : 제가 문제 2에서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이때 제시문 나)보면서 그냥 눈에 띄었던 게 설명 중에 유용성이라는 단어뿐이었음) 유용성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순종과 큰 사이즈를 선호하는 건 인간의 유용성에 따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Q : 답변 추가할 것 마저 하세요.

A : 그럼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도 될까요? 라고 하고 준비해 갔던 연세에 대한 어필 한 마디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나옴.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제시문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풀이해서 정리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누가 더 제시문과 문제의 요점 파악을 잘했나 아니면 누가 더 참신한 대답을 했는가 아니면 논리정연하게 자기주장을 했는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
- ◆ 60번 중 56번으로 면접 봐서 그런지 교수님들 내 말에 아무 응답도, 추가질문도 안 하셔서 8분간 독백하며 정적 속에 또 혼자 추가답변을 고민하면서 조금씩 이어나갔다. 내가 답변을 잘 하고 있는 건지 무표정으로 보고 계셔서 파악이 안 된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그냥 말해야 한다.
- ◆ 당부할 점! 최저가 폐지돼서 면접이 어려워진 건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여태까지 기출과는 유형이 복잡해졌고 연대 논술 형식이랑 거의 똑같음(제시문 길이만 줄임) 연습했던 것만큼 그래프의 중요성이 큰 것 같진 않았지만, 제시문 기반 그래프 해석을 연습한다면 당황하진 않을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HASS(융합인문사회과학부)	○		
전형명	특기자전형(국제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학당 1층에 오디오룸에서 지정좌석에 앉아서 대기 ◆ 봉투 받아서 전자기기 제출한 뒤에 한 줄 씩 10분 간격으로 면접숙지실로 이동 ◆ 20분간 면접숙지 후 바로 앞의 면접장에 들어가서 10분간 대답하고 나오고 자체 퇴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착용은 금지, 신분증 미지참시 따로 사진 찍어줌. ◆ 제시문에는 낙서 금지, 답변 메모지에만 메모할 수 있음. ◆ 면접숙지실 당 2명이 사용. 대기자가 계속 왔다갔다하니 최대한 집중해야함. ◆ 스태프워치는 제공되지만 자기는 볼 수 없고 스태프가 10분, 5분, 1분 남았을 때 알려줌. 손목시계 굳이 필요 없을 듯.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1]

정신이 신체를 지배함. 따라서 인간은 동물을, 인간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것이 안정감을 정착시키는 방법이라는 내용이었음. *후에 살펴본 바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라고 함*

Q : 위 주장 요약, 논지 분석 후 반박해보시오

A : 위에 요약한 그대로 말함. 심신이 분리된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영어시간에 배운 '자유의지'를 떠올림. 인간이 정신을 통한 사고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신체적인 반응(ex. 호르몬 작용 등)을 통해 이미 결정을 내린다는 즉, 정신이 반대로 신체에 의해 지배된다는 학설이 있다는 내용을 들

Q : 위의 결론을 주장하는 데에 들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더 드시오

A : 결론은 결국 인간이 인간 우위의 어떤 권력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으로 내렸음. 과거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인간 개개인의 본성은 악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것을 제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인간 우위의 것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함.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규칙을 정하며 살아옴. 원시국가인 고조선도 8조법이라는 아주 엄격한 법률로 사람들을 다스림. 즉 역사적으로 이미 사회는 이러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통해 위 결론이 입증됨.

[제시문2]

대중 소수의 인간이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을 지니고 사회의 방향을 정해간다는 내용. 후에 찾아본 바로는 Edward barney라는 사람이 썼다고 함. 어쨌든 심리학 등에 능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파악함.

Q : 위의 제시문의 문학적, 역사적 사례를 1개 이상 드시오

A : 이 문제는 사례가 처음에 생각이 안 났음. 지금 생각해보니 문학적, 역사적 두 개를 들어야 했는지 기억이 안남, 당시에 한 개로 파악하고 역사적 사례로 히틀러를 들었음. 당시 독일이 경제공황을 겪고 있었고 독일 시민들의 패배감에 대한 심리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 원인을 유대인이라는 특정 사람들에게 돌려서 학살행위를 정당화하고 전쟁을 이끌었다. 즉 히틀러를 우두머리로 하는 소수의 나치정당이 독일사회의 방향을 정해간 예시라고 설명함.

Q : 1번과 비교분석하시오

A :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당황함. 솔직히 이 문제를 답변을 잘하지 못한 것 같음. 일단 두 제시문 다 인간이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첫 번째는 자연상태와 비슷한 상황에서 가정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특정 정치체제 (*여기선 민주주의) 아래서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라고 말한 것 같음. (제시문에 in democratic society 언급됨). 조금 더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쉬움.

Q : smoothly working society 가 떨어질 수 있다면 왜인가? (영어질문, 답변)

A : 위의 두 제시문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야함. 처음에 이 사회에 대한 정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완전히 제대로 준비를 못 하고 들어갔음. 어쨌든 이런 사회에서는 decision making process 나 어떠한 plan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했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의 권리가 묵살된다고 함, 그 예로 미국의 노예제를 들. 흑인이라는 노동력을 굴려서 막대한 농업적 부를 쌓고 농업을 부흥시켰지만 이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혔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이러한 제도는 철폐됐다. 플러스 여성의 지위를 예로 들. 과거 여성의 역할은 양육과 남편내조로 한정되었음. 가정에 헌신하는 삶이 한편으로 smoothly working society에 기여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꿈과 능력을 펼칠 기회는 한정되었음. 현재는 많은 여성이 사회 다방면으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심지어 세계여성리더들도 있음. 그래서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 즉 smoothly working society라고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지향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이 어찌면 more smoothly working society를 만드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마무리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평소 생활윤리나 사회문화 학자 이름이나 이론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듦.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연세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정치외교학과		○		
전형명	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제시문 7분, 생기부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제시문 읽기 - 5분, 제시문 면접 - 7분, 대기 1~2분, 생기부 면접 7분, 이후 오후 1시까지 면접 후 대기실에서 대기..			
유의사항	◆ 사람 정말 많고 121호에서 대기했는데 복잡해서 답답했습니다. ◆ 순서가 6번째인데도 계산한 거랑 다르게 너무 빨리 다가와서 당황했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1. 제시문 기반 면접

Q : 질문은 두 가지이고, 하나씩 질문할 거예요. 먼저, 표의 상황에 대해 해석해보세요.

A : 네, 답변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람이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으로 만드는 T호르몬을 주입했을 때와 위약을 주입했을 때의 상황을 각각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 어떤 약물이 주입되었는가에 주목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실제 T 호르몬이 주입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위약이 주입된 사람들보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나누고자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T 호르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이 뒤로 실제로 T 호르몬 주입받은 사람들 말하면서 뭐라 답변했는데 기억이 안남.. 말이 꼬여서 멈추기도 하고.... 교수님이 천천히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 행동을 T 호르몬으로 정당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Q : 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줄래요?

A : (당황..) 네, 위약이 주입되었다고 믿은 집단은, 오히려 실제 T 호르몬이 주입된 경우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나누려 했다는 점에서 T 호르몬의 실효성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T 호르몬이 주입되었다고 믿은 집단에서 위약을 실제로 주입받은 집단보다 T 호르몬을 주입받은 집단이 더 많은 금액을 나누려 한 것을 고려했을 때, 속설은 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나타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 행동을 T 호르몬이라는 물질의 속설을 통해 정당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럼 두 번째 질문 답변해주세요.(인간은 행동할 때 생물학적 요소에만 영향을 받는다? 라는 주장에 대해 이 표가 가진 함의를 말하시오.)

A : 네, 답변하겠습니다. 실제로 T 호르몬을 주입받은 집단이 실제로 위약을 주입받은 집단보다 더 많은 돈을 나누고자 했다는 것에서, T 호르몬의 실효성이 없음을 알 수 있고, T 호르몬이 주입되었다고 믿은 집단에서 실제로 나누고자 한 돈의 액수가 더 적다는 것에서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질병 치료에 인간의 심적 요

소가 크게 작용함을 알려주는 효과입니다. 이 사례 역시 이와 비슷하게 인간은 생물학적 요소보다 심적 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 네, 시간이 남았는데 지원동기 말해볼래요? 1분 내로.

A : 준비한 대로 말함

2. 생기부 기반 면접

Q : 생기부에 보니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짧게.

A : 네, 저는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세계문제라는 과목에서 지정학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부하던 중,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으로 동시에 뻗어나갈 수 있기에, 경제와 군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지정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적 열망의 실현과 더 강한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Q : 지정학과 관련해서 머헨의 이론을 적어 놓았는데, 이외에 다른 사람의 이론을 읽어 본 것이 있나?

A : 네 하우스호퍼의 이론을 읽어 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우스호퍼의 생활권 개념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토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인구와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이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그러니까 아돌프 히틀러의 침략 정책을 정당화했다는 점입니다.

Q : 기자단에서 정책제안대회에 참여했는데, 활동내용과 느낀 점?

A : 네, 기자단에서 참가했던 정책제안행사의 주제는 청소년 진로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청소년 진로정책의 당사자로서 저희가 실제로 겪는 진로 정책의 문제점을 함께 알아보고자 한 명씩 의견을 발표하며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의 의식 개혁과 같은 방안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으리라 생각했고, 그보다는 진로 교사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 기간의 연수만으로 임용되는 방식에서, 일정 간격의 연수를 받게 하거나 더 전문적인 임용을 진행하는 진로 교사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활동들은~~(사회에 별로 기여하는 활동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왜 그랬는지..) 그러나 이 행사를 통해 저희가 겪는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며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공적인 담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Q :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 많이 써놨는데, 사례를 하나만 들어서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A :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1학년 때 세계 민족의 날 행사 때, 저희가 담당했던 이집트가 이슬람교가 주 종교인 나라라는 것을 알고 이에 이슬람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반이슬람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 상대주의의 자세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히잡, 부르카 금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서구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슬람교의 관습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억압이자, 개인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종교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수적인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 상대주의의 자세를 취하지 못한 것이고, 이 때문에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설득의 심리학이란 책을 읽었네요, 이를 정치학자가 읽는다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A : 네, 저는 정치가 바로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책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도록 설득하는 과정인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책을 받아들여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책에 등장하는 설득의 6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 음, 시간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준비한 거 말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 후 대기실에서 만난 정외과 친구들이 정말 똑똑하고 자기 지역에서 확실히 가장 우수한 애들인 것 같았습니다.
- ◆ 무엇보다 면접 과정에서 너무 당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거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연습을 많이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들을 자주 해봤음에도 면접이라는 압박 때문에 계속 말을 버벅거렸고, 했던 말 다시 하기도 했습니다.
- ◆ 면접 말투, 자세, 목소리 등은 정말 체화시켜 놓지 않으면 절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접 자세의 연습은 생활화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연세대학교(원주)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교과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제시문 숙지 30분/ 면접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시 20분까지 대기실 입실 후 자기 순서 다가올 때까지 (최대 6시) 대기 후 복도에 준비된 책상에서 앉자마자 바로 30분 동안 주어지는 한 장의 종이와 함께 제시문을 숙지하게 됩니다. ◆ 시간은 앞에서 도와주시는 재학생분이 10분, 5분, 1분 단위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시고 시간이 끝나면 보던 제시문은 책상에 올려두고 답변을 적은 종이만 가지고 면접 장소에 들어갑니다. ◆ 면접 장소에는 제시문이 제공되어있고 그 제시문과 준비한 답안을 활용하여 답변을 하면됩니다. 면접관님들은 두 분이 계셨었고 면접이 전부 끝나면 연습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지역이나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교복은 착용이 금지 ◆ 대기 장소에서는 정숙을 유지 해야합니다. ◆ 수험표와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학생증 등등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주어지는 제시문이 양면으로 인쇄되어있을 수 있으므로 제시문을 숙지할 때 양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첫 번째 제시문 내용

제시문1 : 노르웨이 양성평등법과 남녀의무고용할당제관련 지문

제시문2 :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를 나타내는 지문

제시문3 :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를 나타내는 지문

Q : 두 번째 제시문 내용

제시문1 : 지구평균기온 변화와 이산화탄소농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

제시문2 : 인간의 활동에 의해 환경파괴가 지속되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갈 것 이라는 지문

제시문3 : 인간의 활동이 아닌 다른 요소들에 의해 지구 온난화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담고있는 지문

Q :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A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제 2의 나이팅게일을 꿈꾸고 있는 수험번호 33번입니다. 저는 비록 늦게 간호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 간호사에 대한 열정은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늦게

간호사를 꿈꾸게 된 만큼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간호학과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연세대학교의 좋은 교수님들과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을 배우고 전문적으로 전인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Q : 첫 번째 제시문 1-1번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A : 제시문 1에 나타난 양성평등법의 의의는 제시문 2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그동안 사회적으로 억압받아왔던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늘려 유리천장이론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시문 1에 나타난 양성평등법의 한계는 제시문 2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문장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양성평등법이 실현되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채용 비율을 정해놓고 채용하게 된다면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못하는 역차별이 생길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에 답변해보세요

A : 제시문3에 나타나는 정의의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입니다. 이런 분배적 정의가 잘 실현된 예는 장애인의무고용할당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사회적 진출 가능성을 늘려주고 장애인들이 직접 노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 그렇다면 지원자가 아까 답변에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의무고용할당제도 역차별의 문제점이 생기겠네요?

A : (잠시 생각 후) 네 장애인의무고용할당제에도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 네 그럼 다음 제시문 답해보세요

A : 제시문 1이 제시문 2의 주장을 완벽히 뒷받침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문 3를 기반으로 설명하자면 (문장이 기억 안납니다) 다음 문장과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활동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장이 기억 안납니다) 다음 문장과 같이 지구의 기온은 예전부터 계속 증가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온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문장이 기억 안납니다) 다음의 문장에 나와있듯이 제시문 1의 그래프와 같이 기하급수적인 기온의 변화는 제시문 2에 합당 (여기서 말을 많이 반복하는 실수를 함)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답해보겠습니다. 합당한 근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Q : 다음 질문 답해보세요

A : 이러한 전문가들같이 태평양 한가운데 GPGP라고 불리는 쓰레기섬처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눈으로도 보이는 상황에서 인간의 활동을 지구기온상승의 요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간의 지구 환경 파괴는 계속될 것이고 지구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지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Q : 아 네 그건 알겠는데 그 전문가들의 주장이 뭔지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말해보세요

A : 죄송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Q :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요

A : 아 네 (잠시 후) 대답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주장은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온상승의 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의 활동이 지구 기온상승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조금씩 줄여나간다면 지구파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대기시간에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 ◆ 사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교과서를 챙겨가서 제시문 숙지 전에 보게 되면 제시문을 숙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교과서 챙겨가세요. 면접을 볼 때 많이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감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실수한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더 좋은 면접이 될 것 같습니다.
- ◆ 면접관님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웃고 있는 면접관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면접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동아시아국제학부 (EIC)		17	
전형명	국제계열활동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0	-
	면접절차	◆ 대기 - 영문독해 (20분) - 면접 (10분)		
유의사항	◆ 총 2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3가지씩 총 6개의 문제가 출제되며, 첫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학생의 인성을 파악,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면접 대상이 학부에 맞는지 적성 파악 문제를 제시한다.			
질문 및 답변 내용				
<p>[1번 카테고리: 인성 파악문제] 본문 내용: 미국 총기소지를 소재로 한 영어본문 2개 - 관련기사로 한 시민의 일기 (홈페이지 참조) Q: 영어로 본문 요약을 요구했음=영어문을 읽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봄 Q: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그 이유를 영어로 대답하라고 함 Q: (면접자가 영어로 질문함) 학생은 미국에 총기소지에 대하여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A: (영어로 대답) 저는 위 총기소지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처음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소지를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총기소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사건 사고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는 다른 사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p> <p>느낀점 - 동아시아국제학부라 하여 동아시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위주로 조사를 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지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인성파악 문제는 다방면에서의 사건들을 알아두고, 본인이 찬반을 가릴 수 있는 사건을 찾아 영어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되어 글을 써보거나 회화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p>				
<p>[2번 카테고리: 학과 적합성 파악문제] 본문 내용: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관한 영어본문 3개 - 영어기사 2개&논문 1개 본문 A: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본문 B or C: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짐에도 불구하고 BTS (한국 남자 아이돌 그룹)의 일본 콘서트의 반응, 이에 대한 일본 성인들의 견해 -한국어로 대답하여도 상관없음 (감점 없음) Q: 본문 A, B, C 중, A와 B의 견해가 다른데, 각 본문이 주장하는 입장을 요약하라 함. Q: C로 알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 (자신의 생각)을 물어봄 ex) 본문을 읽고 BTS가 미치는 영향이 일본과의 사이를 넘어서 동아시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A: 한국의 문화적 요소들을 통하여 외국인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가운데, KPOP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흥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YOUTUBE를</p>				

통하여 쉽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달하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낀점- 영어로 대답하면 가산점이 있을 줄 알고 영어로 대답을 시도하였지만, 오히려 더 벼락거리게 되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할 시간이 부족하였다. 영어 독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사용하여 당당하게 말하자. 최근에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기사들을 구글(Google)에 영어로 검색하면 영어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기사도 읽어보자. (실제로 당일 일본불매 운동 영문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가 똑같이 출제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대답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적절한 제스처를 사용하였다.
- ◆ 질문에 관한 지식을 쥐어짜고 고민하기 보다는 자신감 있게 알고 있는 지식에 범위에서 밝은 모습으로 자신이 옳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당당하게 면접에 임하였다고 생각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방사선학과			10	
전형명	학생부종합(교과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제시문 숙지 15분, 면접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대기실 대기 ◆ 15분에 한명 씩 복도에서 제시문 숙지(연습장을 주고, A4용지도 나눠줌) ◆ 숙지 시간 15분이 끝나면 면접실 입실하여 면접관2명, 학생 1명이 면접 진행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사복 착용 ◆ 필기구 지참할 것 ◆ 수험표와 신분증이 필수.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1.>

- (1) 가치관으로 인해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느 한쪽만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 (2) OO군청이 노약자를 위해 케이블카, 등산로를 설치하겠다고 하며, 그곳 산양들이 놀라지 않게 소음 저감 계획을 발표하였다는 내용
- (3) 환경부는 OO군청의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였다는 내용

Q : 1-1. 제시문 1을 기반으로 제시문 2, 3의 각 기관이 강조하는 것을 말하라

A : (제시문 1, 2, 3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함) OO군청은 노약자들의 문화재 접근성 향상, 관광지로써 가치 향상을 위해 케이블카 및 등산로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곳에서 산양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네랄 블록 사업, 소음 저감 공사 계획을 발표·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미네랄 블록 사업은 산양들의 야생성을 해칠 수 있으며, 소음 저감공사 계획 역시 호나경적 가치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Q : 1-2. 본인은 OO군청과 환경부 중 어느 입장을 보이며 그 이유는?

A : 저는 환경부의 입장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OO군청이 어떠한 방안을 세운다 한들 그곳의 수목, 산양들에게는 피해가 갈 것입니다. 인간이 편리하자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한 그 산이 개발되어 알려지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공사 시 소음을 줄이겠다는 OO군청의 계획 역시 소용 없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 보다 산 부근에 들쭉길 같은 것을 만들어 사람들이 거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2.> 확통문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Q : 2-1. P(A): 주사위 눈의 합이 짝수일 확률 P(B):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일 확률 → P(A), P(B)를 구하시오.

A : (화이트 보드 사용) P(A)는 짝-짝일 경우, 홀-홀일 경우 두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짝수 일 확률 $\frac{3}{6} \times \frac{3}{6} = \frac{1}{4}$, 둘 다 홀수일 확률 $\frac{3}{6} \times \frac{3}{6} = \frac{1}{4}$ P(A)= $\frac{1}{2}$ ○비니다. P(B)는 짝-짝일 경우, 홀-짝일 경우, 짝-홀일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가 $\frac{1}{4}$ 이 나오므로 P(B)= $\frac{3}{4}$ 입니다.

Q : 2-2. 주사위 2개 동시에 던지는 것을 8번 시행했을 때 주사위 눈의 곱이 짝수가 나올 확률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십시오.

A : 눈의 곱이 짝수가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 X 로 두었을 때 각각의 확률은 $\frac{1}{2}$ 입니다. (표 작성 및 확률 계산을 할 수 없었음. 3분 가량 남음.) 제가 제시문 숙지 시간에 평균과 분산을 다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입학한다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평균은 X 와 각 확률을 곱하여 더하면 되고 분산은 X 에 평균을 뺀 것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다 돼서 칠판 지우고 나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했는데 생기부를 보시면서 면접을 하였음.
- ◆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제게는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음. 시간이 남으면 지원 동기 등 추가 질문을 한다고 함. 시간 관리를 잘하여 질문에 답변을 하되, 시간 안에 답변을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낙담을 답변을 다 못하고 나왔더라도 낙담을 하지는 말 것.
- ◆ 제시문 말하기는 앉아서 답변을 하고, 문제 풀기는 서서 화이트 보드에 풀이를 함.
- ◆ 면접 답변을 할 때 자신이 작성했던 용지를 들고 답변을 실시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다가 살짝 보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없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의예과		○		
전형명	학생부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제시문 숙지 20분 + 면접 10분			
유의사항	◆ 제시문 숙지 때 사용했던 연습 종이를 면접 시간에 활용 가능함.				

질문 및 답변 내용

<제시문 면접 시작 전>

Q : 지원동기 짧게 이야기 해주세요

A : 어릴 적부터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의사를 꿈꾸게 되었다. 그 중 관련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과의사에 매력을 느꼈다.

<제시문 면접 1번>

Q : 근무시간이 종료되어 동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오려는데 응급환자 2명이 들어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폐소생술은 여러 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30분 후에 대학원에서 중요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지원자가 의사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A : 환자를 살리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제시문을 보면 공적 영역과 사적의 영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의 본분과 직업의식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나는 의사란 아픈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심폐소생술을 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에서의 발표는 의사로서의 내가 보다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환자를 먼저 살리는 것이 맞는 판단인 것 같다.

<제시문 면접 1번 추가 질문>

Q : 만약 학생이 수능날 시험을 치기 위해 수능장으로 향하고 있는 길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를 맞닥뜨렸다고 생각해보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 그럼에도 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것이다. 수능 시험은 내 인생에서 앞으로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즉,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이 오직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는 만약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그 시간이 생명을 구할 유일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당연히 환자를 살리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제시문 면접 2번>

Q : 워라벨(일과 가정의 양립을 의미하는 신조어)과 작년 과로사로 사망한 두 의사의 사례를 제시하며 다음 제시문에서 발견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제시하시오.

A : 제시문을 보면 워라벨이라는 용어가 사회에 통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의사의 사례를 보면 일의 영역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영역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의료진 수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명절이나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 의사는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된다. 이 정도가 심해지면 당연히 질 높은 삶을 살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한국 사회의 의료진 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명절과 같은 휴일에도 한 명의 의사에게 너무 많은 근무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많은 수의 의료진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진 수의 증가는 환자 진료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둘째, 의사의 적정 근무 시간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라고 알고 있다. 타 직종보다 의사는 더 많은 근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의 적정 근무 시간이 설정된다면 공적 영역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적 영역이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다.

〈제시문 면접 3번〉

Q :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식 불명의 환자의 사례가 제시됨. 이 때 지원자의 선택과 중요시하는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A : 나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환자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진료에 있어 환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환자가 자신의 치료를 중단하고 싶다면 그 누구에게도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환자에게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듯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권리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제시문 면접 3번 추가질문〉

Q : 만약 지원자의 아버지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의식을 차린 아버지가 나는 좀 더 살고 싶다 말하고 다시 의식 불명의 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A : 아버지가 좀 더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명확히 들었다면 이 또한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진행할 것이다. 치료에 있어 환자의 선택의 자유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시문 면접 4번〉

Q : 연명치료 중단이 남용될 사례 2가지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A : 첫째는 환자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고통의 상황에 놓인 환자의 경우 당연히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기에 이를 충분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환자의 합리적 판단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결정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여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하여 성급한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명치료 중단이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갖춘 사람이 특정한 사람을 해하기 위해 의사와 공모한다면 아직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질병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중단이 시행될 수 있다. 이는 자칫 생명 경시의 풍조가 확산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 법조인, 정부가 모두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 과정에 참여하고, 연명의료 중단의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악용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제시문 면접 이후〉

면접 잘 봤고, 긴장을 풀라는 말씀과 아직 수능 최저가 남아있으니 잘 보라는 말씀,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는 말씀을 들은 후 면접관에게 혹시 면접시간이 조금 남았다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함.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면접관이 자신이 대신 한 가지 물어 보겠다 하심. 만약 학생이 지원한 모든 대학교에 합격한다면 어느 학교에 입학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입학할 것이라 답변 후 퇴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제시문 면접 준비하는 학생은 관련 과목 교과서 꼼꼼히 정독하세요.
- ◆ 1-2년 이내의 관련 시사 주제는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가족주거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6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질문

Q :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무엇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과에 들어온 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A : 저는 유아사 마코토의『덤벼라 빈곤』을 읽고 일본의 빈곤 문제에 대해 읽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빈곤문제를 겪고 있다고 느꼈고 이 책에서 저자는 빈곤 문제를 의자뺏기게임에 비유하고 있는데 의자뺏기게임이란 10명의 사람이 8개의 의자에 앉아야 할 때 2명은 의자에 못 앉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리에 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빈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왜 중요하고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A :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저와 소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 개별 질문

Q : 3년 동안 진로가 계속 바뀌었는데 바뀌게 된 동기가 있는지?

Q : 가장 좋아하는 과목과 그 이유는?

Q : 생기부에 OECD 자살률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했는데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해주세요.

□ 답변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자리에 앉자마자 제시문을 읽고 바로 답했어야 해서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교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답변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 웃어주시고 끄덕거리주셨다.
- ◆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답변한다.
- ◆ 가족학과 교수님 1명, 주거학과 교수님 1명과 2:1면접, 대기실에서 5명씩 이름 부르면 면접실 앞으로 가서 대기하고 1명씩 들어감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설시스템공학	○		
전형명	학생부종합/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대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본 학과에 들어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 (제시문)

A : 3학년 때 '토목 탐구' 라는 동아리를 개설하여 여러 토목건축물들에 대하여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댐과 교량 등의 기능 및 종류를 알게 되었으며 댐의 녹조현상의 문제점을 부원들과 토목공학자와 환경공학자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자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면서 토목 및 건설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토목이란 학문에 대하여 안목을 넓혔습니다.

Q :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해보아라. (제시문)

A :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관은 협력입니다. 힘든 것이나 어려운 것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는 것 보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협력 과정을 통해 제자신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Q : 졸업 후 진로 계획을 말해보아라

A : 최근에 크고 작은 지진과 태풍 및 자연재해로 댐과 교량 등이 붕괴가 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려한 건설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에 유의하는 건설을 하고 싶습니다.

Q : 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알고 있는 댐이 어떤게 있나 예를 들어 소양강댐이나 안동댐 같은거?

A : 저는 영주댐 과 문경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독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기부를 볼 때 동아리를 위주로 공부하고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만 준비해가면 당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제시문 2문제가 나오는데 질문이 쉬우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하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축학부			
전형명	기회균형전형(학생부종합, 정원외)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 후 면접실로 이동하여 면접 [2(면접관) : 1]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신이 들고 온 책이나 참고자료 볼 수 있음. ◆ 블라인드 면접(수험번호, 출신고교, 이름 발언 금지) ◆ 면접시간 준수 ◆ 면접장 들어가서 책상에 붙어있는 제시문 읽고 답변하라고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p> <p>A : 예의바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바름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지속적인 관계에서 타인과 함께 생활하며 사회생활을 배우고 자신을 한 층 성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며 타인에게 배움을 얻을 수도 배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최고의 배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한 배움을 알기 위해선 먼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의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예의를 지키면서 상호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예의바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p>				
<p>Q : 전공관련 활동으로 무엇을 하였는가?</p> <p>A : 건축관련 도서, 건축 자율 동아리 활동, '미래 지향적 건축'에 대한 조사 및 발표, '자가 치유 콘크리트'에 대한 조사 및 발표 등 다양한 건축 관련 활동을 하면서 꾸준한 자기 계발 및 전공 관련 활동 경험을 통해 타 분야와 융합을 꾀한 친환경 건축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p>				
<p>Q : 생활기록부를 보면 건축동아리 지맷돌을 만들어 활동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 리더를 맡았네요, 친구들과 몇 명과 동아리를 만들었나요?</p> <p>A : 저와 같이 건축에 관심 있는 친구 6명을 설득하여 만들었습니다.</p>				
<p>Q : 그럼 그 동아리 활동에서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p> <p>A : 동아리의 주된 활동으로 건축 관련 책을 읽은 후 하나의 주제를 정하여 토의토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건축디자인 교과서'를 읽고 '인간 중심의 건축'이라는 주제를 정하여 토의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평소 건축물은 시각적인 요소와 조형미가 중요하고 생각했던 것을 반성하고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서 건축에 있어서 모든 중심은 인간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발표하여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친구들의 선입관을 바로잡아 줄 수 있었습니다. 또, 건축이라는 하나의 분야에서 설비, 조경 등 각자 관심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여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개개인이 지닌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동체 전체의 지식을 생산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알 수 있었습니다.</p>				

Q : 건축 관련 활동을 하면서 자기계발을 꾸준히 한 건 알겠는데 성적이 낮네요.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A : 고등학교 학년 초에 학업에 대해 소홀히 한 건 사실입니다. 이후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높이려 해봤으나 이전에 안 해 온 것이 많아서 막상 하려니 성적을 올리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학업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서 대학에 진학해서 남들과 뒤처지지 않기 위해 건축 관련 활동을 통해 건축 관련 지식을 넓히려고 하였습니다.

Q : 본인이 좋아하는 건축가나 건축물이 무엇인가요?

A : ‘집을 순례하다’라는 책을 읽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저의 롤모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자신만의 독창성과 유기적 건축을 실현한 건축가입니다. 저 또한 타 분야의 융합을 꾀한 친환경 건축가를 꿈으로 가지고 있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처럼 유기적인 건축을 실현하면서 타 분야와 건축의 융합으로 저만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설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축물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을 가장 좋아합니다. 폭포가 흐르는 베퍼 런 계곡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은 수평선과 수직선이 조화되어 미묘한 균형감을 가지면서도 주변 풍경과 어색하지 않게 어울리고, 내부공간은 벽난로를 통한 분위기 형성과 층을 분리하여 각각의 특성을 부여한 것 또한 공간을 낭비하지 않은 건축물이라 생각합니다. 이 낙수장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독창성, 유기적 건축 등을 보여주는 건축물인 것 같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모의 면접을 많이 하면 면접장에서 긴장을 많이 하지 않게 됨
- ◆ 자세 바르게 하고 발음 정확히 할 것.
- ◆ 꼬리 질문이 있으니 준비 잘해 갈 것.
- ◆ 생활기록부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자신이 모르거나 헷갈리는 거 정확히 알아가기(특히 전공 관련 활동을 물어보심)
- ◆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 커리큘럼, 교육목표 꼭 확인.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제금융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잠재능력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고사실에 다 같이 앉아 있다가 5명씩 데려가심		
유의사항	◆ 단정한 복장, 간식 제공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와 이것을 바탕으로 이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A :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중미무역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뉴스나 기사에서 중미무역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일으켜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만 접하였었는데 그 보고서에는 미중무역전쟁이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은 무역전환 효과로 중국제품보다 더 값이 싼 제품으로 대체수입을 늘리게 될텐데, 그때우리나라가 가격과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무역전환효과의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역전쟁이라는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요인을 찾아내는 경제학연구원에 대한 존경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경제학연구원이란 꿈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금융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꼬리 질문) 미중무역전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A : 미국이 자국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고 중국제품의 수입제한이 가장 첫번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넛지를 우리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A : (처음에 책내용에 있는 화장실 소변기 얘기함 교수님이 그건 생활이잖아 우리 사회, 경제 분야에 대해 요구하심)사람들이 저축플랜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점진적 저축증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임금이 오를수록 저축의 기여도를 높여야 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사람들을 늘리게 하는 것입니다.

Q : 잘 이해가 안되는데.. 넛지가 어떤 것인가?

A : 네 넛지는 강압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개입으로 (하락)

Q :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한다는 것은 강압적인 것 아닌가?

A : 하지만, 저축을 늘림으로써 (중략) 그럼 가입자들로만 한해서 저축증대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Q :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유, 그것의 사회적 영향은?

A : 저는 일단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회기여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회 요인을 찾아내어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학 연구원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또 성취가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많은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저는 무언가를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이런 과정 후에는 완벽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취가 저에게 가장 동기를 부여해주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질문에 제한된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라서 횡설수설함)

Q : 남녀임금격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남녀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이며 제가 조사해본 결과 남녀평균임금격차는 37.1%로 1,500만원까지 차이 납니다. 여자의 사회진출폭이 좁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고등학교 생활은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도전들을 이어나가며 느꼈던 점은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려 노력하고 주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도전을 시작으로 학교의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친구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나비효과처럼 '지금의 나의 날갯짓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와 함께 세상을 바꾸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교육학과		1	
전형명	잠재능력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6~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2:1 면접 교수가 면접관 ◆ 대기실 입실 → 안내, 휴대폰 수거, OMR카드 작성 → 면접실 앞 대기 → 면접 후 귀가.		
유의사항	◆ 교복, 체육복 착용 금지 전자기기 사용금지, 수험번호 및 이름 같은 자신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발설 금지, 신분증, 수험표 필수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질문

Q : 이 학교에 관련된 자료 수집(경험)경로는?

A : 저는 마틴 드워킨의 존 듀이 교육론과 같은 책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 동아리와 같은 곳에서 교육 연극, 교육 동화 제작과 같은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Q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A : 저는 청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과 같은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인 인간관계 특히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서로의 믿음,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생기부 자소서, 기본 질문

Q : 지원동기, 진로 희망 사항, 역사교사인데 교육학과를 지원한 이유?

A : 저는 교육 봉사과 조금 전 말씀 드렸던 교육 연극, 교육 동화 제작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직접 여러 교수학습법들을 체험해 보면서 단순히 지식을 전무하는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어서 이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Q :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마리스타 봉사활동이 있는데 본인이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A : 저는 외국인 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와 한글을 배울 때 의성어와 의태어를 어려워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문서를 해결하기 위해 표를 만들고 깡충깡충과 같은 단어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며 더 쉽게 한글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Q : 한인 애국단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무엇을 한 동아리인가요?

A :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교과서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탐구하고 모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광해군의 증립외교, 일제강점기 문화 통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Q : 부가질문 - 이 동아리는 본인이 만든 동아리인가요?

A : 아니요.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상의하고 함께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Q : 3학년에 와서 성적이 떨어졌는데 왜 그런가요?

A : 3학년 때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셔서 수업방식이나 문제 출제 경향이 새로운 적응을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적게 하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 네 저는 존 듀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교수학습법을 연구, 만들기도 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활기록부외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할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군사학과	○		
전형명	일반학생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시간 3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제 1면접장(자세, 발성)에서 10명씩 면접장 앞에서 대기, ◆ 제 2면접장(토론 면접)은 토론 면접으로 10명씩 입장 후 개인 토의, 토론 ◆ 제 3면접장(인성 평가)은 10명씩 면접장 앞에서 대기		
유의사항	◆ 면접할 때는 최대한 단정한 복장(교복 추천)으로 면접에 임하고 자신감 있고 큰 목소리로 하는 것을 권장.			

질문 및 답변 내용

□ 개인 면접

Q : 자신의 학교에 대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우리 학교는 명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훌륭하고 실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자세가 바르고 인성과 품성이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Q : 저의 학과에 들어와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저의 장점을 살려서 학교를 다니며 제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Q : 자신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A : 처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Q : 많은 군사학과 중에 영남대 군사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제가 군인에 관심을 가져 학과에 대해 찾던 중 영남대학교 군사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영남대 군사학과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나 영남대 선배를 통해서도 군사학과에 대한 좋은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군대와 협약이 되어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 토론 면접

Q :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말해보시오(개인 토론).

A : 자유민주주의는 한 명이 독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다수의 힘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 의견을 내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의견도 많아질 것이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다수의 힘이 작용해 무엇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자신은 A회사의 과장이다. 지금 당신의 회사는 위협에 처해있다. 지금 이 회사에는 3명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랫동안 회사에 다녀 큰 기여를 한 김 실장이다. 정년퇴임까지 5년이 남아있다. 두 번째 사람은 박 대리이다. 박 대리는 B회사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 번째 사람은 회사 사장의 아들이다. 경영을 처음 배우는 단계이며, 1년 뒤에 실세를 발휘할 거 같다. 여기서 1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천해야 한다. 아니면 당신의 자리가 위협하다.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집단 토론, 토의)

A : 저는 김 실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김 실장은 오랫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는데 이걸 누구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 적응하게 되고 잘하게 됩니다. 잘하게 되면 김 실장 못지않게 회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 실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 당시에는 떨리는 게 당연한 거고 최대한 자신이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면접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하면 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물리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잠재자우수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대1 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전자기기 소지 금지, 대기시간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 면접 질문지

Q : 물리에 흥미가 생긴 계기와 고교생활 동안 이를 위해 한 활동과 노력을 말해 보라(정확한 내용이 잘 생각 나지 않음. 하지만 지원동기와 노력한 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A :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를 읽고 재료역학과 물리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최근 화제가 된 원자력 관련 이슈를 통해 핵물리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를 키우고자 하였다.

Q :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A :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자신의 정한 기준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를 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대에서 자신의 기준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꺾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협력을 통한 인간이 도구로 삼아온 집단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면접 질문

Q : 진로희망이 신소재 연구원에서 물리학과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A :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를 통해 재료역학과 물리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자력 관련 이슈를 접하며 원자력이 과연 원자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할까 알아보기 위해 관련 서적을 찾아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원자력에 관심을 가졌고 이를 배우기 위해 물리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Q : 희망진로가 원자력 쪽이라고 하였는데 원자력의 어느 분야로 나아가고 싶나?

A : 원자력 관련 분야로 진로를 잡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원자력 연구원을 하고 싶습니다.

Q : 우리 학과에서는 원자력에 대해 배우지 않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A : 원자력 분야로 가기 위해선 그 기초가 되는 물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고교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게 꿈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대학에서 공부를 통해 다양한 분야를 접하면서 꿈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통해 충분히 핵물리 또는 원자력 관련 학문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 뉴턴 제2 법칙에 대해 말해보아라.

A : ' $F = ma$ '라는 공식으로 가속도와 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이는 핵물리학에서 입자들이 다른 입자들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충돌해야 반응이 일어나는지 계산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나?

A : 동아리 활동 '물리지 않는 물리'에서 실험을 하며 실험을 통해 나오는 수치를 계산하고 후배들을 보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Q : 그 동아리에서 한 실험은?

A : 비탈면 실험을 하였습니다.

Q : 그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때 시간이 다 됐다는 알람이 울려 당황함. 계속하라고 함)

A : 힘이 무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질량은 충격량과 관련이 있고 비탈면 실험에서는 기울기가 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질문에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게 아쉬웠고 말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 ◆ 자료를 준비할 때 다 복사를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착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큰 관계가 있는 교과목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회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잠재능력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면접대기실 - 복도대기 - 면접고사장 (교수님과 2:) - 퇴실		
유의사항	◆ 면접대기실에서 면접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가번호 부여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면접

Q : 지원학과와 관련된 비교과와 교과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 저는 학문적 탐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몸소 느낄 수 있는 활동적인 탐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비교과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1학년 때 공영방송사 언론탄압을 주제로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 언론의 실태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관련 책들과 영화, 시사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진로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고,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사회학과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A : 제가 삶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소통입니다. 어떠한 인간관계에서도 소통을 한다면 라포르 형성을 통해 친밀한 관계로 발전이 가능하고, 사회에서 구성원들과 공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요소가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회장을 하면서 월례회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그의 방안으로 익명채팅방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 개별 면접

Q : 영남대학교를 지원하게 된 이유

A : 저는 오래전부터 대학 입학 후 교내 언론사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특히 영대 커뮤니티 UBS의 구성원들이 와이유키키에서 반반팁많이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우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고 UBS의 일원이 되는 것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꼭 입학하게 된다면 UBS의 일원으로 합류하고 싶습니다.

Q : 언론정보학도가 아닌 사회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

A : 물론 제 현재 꿈이 언론인이기도 하고 언론정보학도에 지원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심도있는 커리큘럼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회학과의 매력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보다도 제가 관심 있는 여러 분야를 경험하고 싶어서 사회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이 생각하는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A : 제가 생각하는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나 현재나 꾸준히 조명되고 있는 권력의 압박을 받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PPT 대회에서 언론탄압을 발표하기 위해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제가 접한 언론의 실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중립의 태도를 지닌 직업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Q : 존경하는 언론인은 누구인가?

A : 제가 존경하는 언론인은 이용마 기자님입니다. MBC에서 공영방송사 언론탄압에 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분이어서 존경하는 언론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가?

A : 이용마 기자님은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공영방송사 파업을 이끌었습니다. 해직 기간 중에서도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받는 언론인이 되고 싶습니다.

Q : 학생은 리더십이 뛰어난 것 같은데, 자신의 리더십의 장점은 무엇인가?

A : 독단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경청의 자세를 지닌 부드러운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기숙사 학년 장을 했을 당시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온 친구들의 고민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저 또한 똑같은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언은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영남대는 학부별로, 개인별로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시문을 시작으로 파고드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 ◆ 자소서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생기부에 대한 내용을 매우 꼼꼼하게 보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학교육과		3	
전형명	잠재능력우수자전형(학종)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창의인재전형과 동일 면접관), 자유로운 분위기		
유의사항	◆ 교복착용금지, 수험표 챙기기, 이름, 학교 등 발설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질문

Q : 진로 선택 과정, 진로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A : 저는 항상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수업시간에 배운 수학 원리를 연계학습하는 과정에서 수학에 실용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저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수학의 흥미와 실용성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수업을 고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STEAM교육에 적절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을 구상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수학 교사라는 저의 꿈이 명확해졌습니다.

Q : 본인의 가치관은?

A : 저는 배움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학상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사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며 스스로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생각보다 활동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질문하시진 않음. 자소서에 대한 질문은 한 가지도 없었음. 종이로 프린트된 생기부를 넘기면서 읽으시는데 질문을 준비해오신다기 보다는 바로 읽으면서 질문하시는 것 같았음. 질문은 대체로 성적에 관한 것이 많았고, 교수님보다는 입학사정관이 질문을 주로 함.)

Q : 미적분 II 를 2학년때도 배우고 3학년 때도 배웠나요?

A : 네, 2학년 2학기 때와 3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Q : 선택해서 배운 건가요?

A : 아니요, 학교 교육과정이 그렇게 편성되어 배웠습니다.

Q : 점수가 70점대인데 2등급이네요? 그 학교가 수학이 많이 어렵나 봐요?

A : (나보고 점수가 낮다고 하는 줄 알고 살짝 당황함.) 미적분Ⅱ를 2학년 때 성적을 만회하고자 열심히 해서 3학년 때는 성적을 올렸습니다.

Q : 아 오해하지 마시고, 점수가 낮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균은 40점대길래 어려운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웃음)

A : 중학교 때 저희 학교 수학시험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Q : 수학적성은 참 좋은데, 영어 성적이 좀 낮네요. 대학교 와서는 어떻게 공부할 생각이예요?

A : 저도 영어 부분에 있어 부족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범위도 많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중심 단어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마인드맵 형식으로 내용을 유추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제 나름대로의 공부방법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적이 올랐고, 저는 성취감을 느꼈고 영어에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는 회화나 토익위주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Q : 일주일 전 면접 때도 봤고 이번 전형도 지원한 것을 보면 꼭 오고 싶다고 느껴지는데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나요?

A : 일단 가장 먼저 영남대가 수학, 공학 계열에 유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영남대를 진학하신 선배님들의 말씀과 조언을 구해보았는데, 교수님들이 좋으시고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영남대를 오고 싶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영남대에 견학을 온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선진화된 건물들이 많았고, 캠퍼스가 너무 아름다웠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말하는 도중에 면접관들이 완전 웃으심. 그래서 나도 웃었음.)

Q : (웃으면서) 면접보러 오며 봤을 때 여전히 캠퍼스가 아름답던가요?

A : 네!(웃음)

Q : 우리도 좋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서 뽑았더니 다 우리 학교에 안오더라.

A : 아니요! 저는 꼭 영남대에 오고 싶습니다!

Q : 자소서에서 ‘거짓을 간파하는 통계학’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A : (자소서에는 그 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좀 당황함.) 자소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Q : (면접관) 아 여기 자료에 적혀 있는데요?

A : (그 책은 생기부에 적혀있음.) 아 그책의 내용은 통계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내용의 책인데, 한가지 예로 한 매체에서 국내 이혼률이 40%를 넘었다는 발표가 있어 사람들이 혼란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올해로 한정하지만 이혼한 사람은 과거에 결혼을 했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입니다. 이처럼 뉴스, 기사 등에서 접하는 통계자료를 볼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 10초 줄테니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하세요.

A : (10초라 해서 좀 당황함.)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수학교육론을 열심히 학습할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방면에서 연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영남대학교 학생회 활동 중 전산부에 가입하여 수학교육에 이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Q : 아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나가시면 돼요.(웃음)

A : 네. (문앞에 걸어가서 허리굽혀 인사하며)감사합니다!

Q : (면접관)(문 열려고 할 때 말씀하심.) 또 봅시다~(웃음)

A : 네!!(웃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생각보다 분위기 아주 편하고 좋았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합격할 것 같음. 저번 주 면접때 왔던 걸 기억해 주시고 있으셔서 감사했음. 또한, 내가 말할 때마다 나를 봐주면서 고개끄덕여 주시고 웃어주셔서 더 긴장 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음.
- ◆ 생각보다 생기부를 자세히 보시진 않는 것 같음. 그리고 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인상 깊게 읽은 책한권 준비 해갔는데 책을 하나 꼭 짚어 질문하셔서 많이 당황함. 책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음.
- ◆ 생각보다 영남대 면접은 그렇게 어렵고 난감한 질문이 없는 듯함. 면접전형때의 질문보다 이번 전형 제시문이 더 수월하고 쉬운 것 같음. 그리고 두 번째 면접이라 확실히 덜 떨렸음. 너무 떨지 말고 무엇보다 면접은 자신감과 약간의 미소를 띄며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음.
- ◆ 생기부와 자소서는 꼼꼼히 준비해 갈 것. 준비한 만큼 자신감이 생기고 긴장이 안 되는 것 같음. 솔직히 책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완전당황했지만 통계에 대해 교과활동을 하며 조사한 자료를 말함. 면접관님들도 책 내용에 대해 모르시고, 이 학생이 책을 읽었는가를 확인하는 질문이므로 그냥 말하니깐 넘어가셨음.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거라도 말하려고 노력하기. 나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음. 앞으로 책 내용을 준비하고 가야겠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전형명	잠재능력우수자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공동문항	자소서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 대기 - 면접실 - 면접 - 퇴실		
유의사항	◆ 신분증 및 수험표 반드시 지참 ◆ 교복 착용 금지(가번호 부여)/교복 입었을 시, 가려줍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질문

Q : 우리학과에 지원하면서 수집한 자료들을 말해보세요.

A : 저는 원래 사회교사를 꿈꾸던 학생이었던 만큼 사회화와 관련한 이론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회 시간에 사회화과정에서의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사회교사로서 사회문제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원교사로 유아를 가르치며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지연만족 이론도 찾아보고,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이후 다른 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 체험을 통해서 유아의 특성과 유아교육이 주는 의미에 더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Q : 짓곳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왜 하필 영남대학교여만 하나요?

A : 저는 영남대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있는지 몰랐고, 생긴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학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에 영남대학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영남대학교를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본인이 살아가면서 본인과 사회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A : 저는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한 마음과 지식을 전달할 수 없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직한 배려를 하기 힘듭니다. 저는 정직하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개인과 더불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렇다면 정직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 음...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줄 수 있는 정도까지...?(웃음)

Q :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정직이 필요치 않나요?

A : 거짓말에도 선의의 거짓말이 있듯이 정직도 지켜야한다는 1원칙 아래에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

Q : 네, 서류기반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본인은 유치원교사가 된다면 어떤 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은가요?

A :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같이 따뜻한 유치원교사가 되어 가정에서의 환경을 최대한 교육의 현장에 녹여낼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Q : 누리교육과정과 다른 정책들로 교육의 참여에 평등이 주어지고 있다. 지원자가 적어놓은 ‘열린교실’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네, 외부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차이도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교육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가정적인 형편이 어려워 여러 상황에서 불편을 겪었던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를 넘어서 아이들 스스로 편견과 차별의식이 없는 상태로 교실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Q : (추가질문) 그렇다면 아이들의 차별의식과 편견을 없앨 방법은 생각한 것이 있나요?

A : 아이들은 높은 수준의 생각을 바로 해내기 어렵습니다. 일차원적인 방법으로 당장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시청각자료를 활용하고 아이들과의 교감활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추가질문) 시청각자료가 풍부해짐에 따라서 미디어 중독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A : 아직 시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정보윤리의식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세대를 거쳐 지나갈수록 그에 맞춰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판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Q : 환경윤리의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던데, 환경윤리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A : 환경이 없고 자연이 없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만 살아갈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도 다양한 체험의 현장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있는 이 장소와 행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지켜야한다는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 (추가질문) 그렇다면 지원자가 현재 이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요즘에는 섬유유연제의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학교의 생명과학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식초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저는 기숙사에서 살고 있지만, 제 빨랫감은 식초를 넣어서 행구고 있습니다.

Q : 11초 남았는데, 간단히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A : 저는 영남대학교가 인성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성, 진취성, 융합적 인재를 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늦게 알게 된 대학교이지만, 영남대학교의 유아교육과 졸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유치원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생부 준비를 잘하길 바래요. 학생부에서 나오진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왔습니다.
- ◆ 생각보다 학교의 정보 같은 것들은 질문을 덜 하는 편이었어요.
- ◆ 생각보다 짧았지만, 타이머로 8분을 재기 때문에 시간 말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간단 명료히.
- ◆ 교수님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두 분 다 잘 들어주시는 편이었지만, 가끔 교수님이 본인의 예상과 다른 대답을 들었을 때, 가우뚱하시기도 합니다. 이때 당황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차분히 잘 말해주세요.
- ◆ 유아교육과라 그런지,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긴장만 하지 말아주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동차기계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잠재능력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준비한 자료 볼 수 있었음. ◆ 학교 및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옷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이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는 무엇인가요(공통질문).

A : 저는 영남대학교에 오기 전 자동차기계공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과'라는 커리큘럼을 보고 저의 진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영남대학교는 MSC라는 수학, 과학, 컴퓨터의 기본 지식을 배우는 수업과 미래자동차에 대한 실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 때 진로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A : 고등학교를 입학한 후 저의 진로가 1학년 때는 단순히 경찰관분들이 하시는 일이 존경스럽고 멋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면서 모형자동차와 3D프린터를 중점적으로 배우고 활동하는 동아리에 들어 기계에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었으며, 모형태양광자동차를 만들면서 느꼈던 감정이 흥미롭고 재미있으며 이 활동을 했을 때 제가 즐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기계 및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자동차 사고 중 음주, 졸음 사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무인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안전하고, 상용화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에 진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Q : 시나브로 동아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A : 시나브로 동아리는 모형자동차와 3D프린터를 배우는 동아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직접 모형태양광자동차를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태양광자동차는 저전력으로 움직여 일반 RC카 보다 차체가 가벼워야 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조향장치나 작은 부품들은 시중에 판매하는 것이 아닌 더 가벼운 재료를 활용하기 위해 3D프린터기를 활용하여 직접 모델링하고 프린팅까지 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제작한 재료로 모형태양광자동차를 만들어보니 이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미래자동차를 만들기위해 필요한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Q : 지원자를 우리학교가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저는 저를 '탄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탄소동소체는 원자의 배열의 따라 다이아몬드, 흑연, 풀러렌, 탄소 나노튜브로 나뉩니다. 이들의 구성원자는 모두 탄소로 동일하지만 어떻게 가공하고 배열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저 미래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가진 탄소이지만 영남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통해 열정에 지식과 전문성을 더한 탄소동소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가 영남대학교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가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말해보세요.

A : 자동차기계공학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지향하는 자동차부품교육 전문화와 자동차 산업의 중심 교육 기관으로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영남대학교가 저를 뽑아 주신다면, 영남대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통해 지식을 쌓아나가 저의 진로인 '무인자동차 엔지니어'가 되어 영남대학교에서 필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저의 생각을 충분히 잘 전달했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의 가치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갔는데, 미래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학생부와 자소서 내용도 잘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화학생화학부		2	
전형명	학생부 교과 - 창의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0
	면접절차	◆ 9시까지 대기실 도착 → 9시 30분에 면접시작(5명씩 교사장으로 이동)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교복X, 단정한 차림의 사복으로! ◆ 캠퍼스가 넓어서 길 찾기 어려울 수 있음. 여유 있게 도착하기!			

질문 및 답변 내용

□ 1번, 2번 질문지가 각각 3개씩 놓여 있는데 그중 한 개씩 선택

Q : 일상생활 중 볼 수 있는 화학/생화학 현상 중 하나의 예를 교과과정과 연관 지어 설명해보시오.

A : 일상생활 중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커피링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링효과는 물의 특성 중 하나인 '표면장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커피 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면 표면장력에 의해 동그란 구 형태를 맺게 됩니다. 이때 액체가 증발하게 되면 표면장력과 모세관 현상에 액체분자와 기체가 맞닿는 표면적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증발률이 커지고, 따라서 표면장력도 증가합니다. 이때 가장자리로 커피가루가 이동하고, 액체가 다 증발하면 가장자리만 동그랗게 자국이 남는 현상입니다.

Q : 우리나라 입시제도(교육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말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말하십시오.

A : (약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저는 학생들의 창의력을 더욱 키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추가질문) 음, 그러면 창의력을 키워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생각해 볼 시간 달라고 하니 교수님께서 생각할 방향을 제시해주심. 하지만 대답 못 함.)

Q : 창의력, 어렵지? 그럼 이제 학생이 준비해온 거 말해보요.

A : 지원동기, 마지막 할 말. (마지막 할 말을 할 때 교수님께서 말 끊으시고 화학과, 생화학과 중 어디 가고 싶냐고 하셔서 화학과 가고 싶다고 답변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신감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음. 교수님들께서 되게 편하게 해주시는데 그렇다고 풀어지면 안 됨.
- ◆ 질문에 답 못하겠더라도 아무거나 말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음. 나는 대답 못 해서 후회가 많이 됨. 그리고 들어가고 나올 때 인사 자신감 있게 하기.
- ◆ 생각보다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대화하는 분위기여서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음. 교수님들께서 중간중간 호응 많이 해주심. 5분 면접이라서 답변 길게 하면 끊을 수도 있으니 1분 내외가 좋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남신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독교교육학과		○		
전형명	일반교과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예배를 드리고 학과끼리 모여서 강의실로 이동한 후 점심을 먹고 과 선배들이 면접실로 인솔함. 면접관은 2명이며 면접도 2명 동시에 들어가서 봄.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가요?

A : 저는 청소년사역자와 성령사역자를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사역자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원래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 시절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목사라는 꿈이 생기고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려주고 싶고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흔하지 않지만 성령사역자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성령사역자 분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저도 성령사역자가 되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르심도 있고요. 성령사역자는 엄청난 기도를 하고 성경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학 4년을 하고 신학원으로 와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반대학 4년을 이 학교에 와서 더욱 깊이, 정확히 배우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목회를 할 때 사명감이 없다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영산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호텔관광학과	○		
전형명	일반고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3, 학생 4 면접 실시		
유의사항	◆ 면접 시간 지각 시 탈락 ◆ 교복 착용인지 사복 착용인지 안내가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는 무엇인가?

A :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올 때만 해도 명확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새 학년으로 올라왔을 때 선생님께서 ‘너는 상담해보니 성격이 참 좋다, 서비스직이 어떠냐’고 추천해주셨지만 진로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 방학이 되어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 호텔에 묵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프론트오피스분께서 고객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진로로 고민해보던 중 그 뒤로 제 동생이 로비에서 음료를 쏟았는데 그분께서 침착하고 밝은 미소로 고객의 안전부터 확인하며 대처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 특유의 밝은 성격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태도와 따뜻한 공감능력이 즐거워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로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학업계획은?

A : 기회가 된다면 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해외 인턴십과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고 싶습니다.

Q : 호텔에 입사하게 된다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라올 텐데 이를 극복할 방법은?

A : 호텔에서 종사하다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분명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신적 고통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제가 일하며 즐기지 못했던 여가생활을 일을 휴무인 날을 통해 즐기므로써 풀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영산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영산대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호텔리어라는 목표를 이루어 영산대학교의 이름을 알릴만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대기실을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기실 잘 찾아가세요.
- ◆ 옷 단정히 입으세요. 체육복 입고 온 학생이 있었는데 안내해주시는 교수님께서 인상을 찌푸리시는 걸 봤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석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한약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1차 대기실 - 2차 대기실 - 면접실(3:1 면접)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 동기는?

A : 어릴 때부터 한방에 둘러싸인 생활을 했고 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한약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또 다른 지원 동기는 2학기 생명과학 시간에 인간의 몸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에 대해 배웠는데 동양인들은 주로 채식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식물로부터 온다는 가정하에 식물의 화학반응에 대해 궁금하여 이를 연구하여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Q : 졸업 후 계획은 무엇인가?

A : 저는 한약재와 탕약의 효과를 증대시키면서 제형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양약처럼 알약의 형태라든지 혹은 짜먹는 요구르트처럼 만들 수 있거나 발포비타민처럼 좀 더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하고 싶습니다.

Q : 한약이 몸의 어떤 부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으냐?

A : 저는 주로 정신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정신이라고 하기에는 추상적인데 예를 들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잘 이용한다면 사람들의 일의 능률이나 정신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Q : 교감/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

A :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사람의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배려와 신뢰를 주는 옥시토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더 있나?

A : 제가 아는 호르몬은 옥시토신밖에 없습니다. 한약학과에 진학하여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Q : 알고 있는 한약재가 있나?

A : 제가 요양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 분들께서 주로 넘어지셔서 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절된 뼈를 좀 더 잘 붙게 할 수 있는 한약재가 있는지 찾아본 결과 보골지, 자연동, 홍화씨가 있었습니다.

Q : 고등학교 생활 중 공동체 생활 중 갈등을 해결한 사례?

A : 저는 1학년 때 실장, 2학년 때 체육부 차장, 3학년 때 체육부장을 맡았습니다. 1학년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서먹한 반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들었으며 2, 3학년 때 체육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는 축구심판을 보면서 경기과열로 인해 선수들끼리 갈등이 있었지만 의견 조율을 통해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글로벌인재전형(학생부종합) - 자기추천자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 3:3 면접, 약 2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학교, 학과에 대한 열정
	면접절차	◆ ‘SOL HOSPITAL’이라는 모의 병동에서 본인확인 후 대기,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서 자기 수험번호랑 이름 크게 적힌 거 붙이고 면접장 직전에서 대기함. ◆ 면접장 직전에 대기할 때 재학생 선배님들께서 다 같이 인사하는 거 맞춰 주시고 끝나고 해야 하는 거 등등 얘기해주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도 걸어 주시면서 긴장 푸는 거 도와주시는데 그게 많이 도움 된다.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라 교복 착용 가능. 전공 체험 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길 교복이 학생들이 입는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평소 학교 행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셨고, 자신의 교복 치마가 짧거나 변형한 경우 친구의 교복을 빌려서라도 단정하게 오는 것이 좋다고 함. ◆ 우송대학교 면접은 무조건 자기소개를 필수적으로 함 . 첫 질문의 시작은 자기 소개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함. 그러므로 자기소개에 대한 예상 질문을 만들고 가는 것이 좋음 ◆ 우송대학교는 외국인이 설립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보다 우송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임. 그래서 이 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학과가 타 대학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반드시 숙지하고 가길 바람 . ◆ 우송간호를 얘기할 때 ‘글로벌 간호사’와 ‘국제간호특성화과정’에 대한 말이 많다고 ‘나는 다른 말을 해서 특별하게 보여야지’라는 생각은 하지 말기. 우송대학교 교수님들은 저 두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무조건 언급하는 것이 좋음 . ◆ 어떤 표정을 짓든 상관하지 마시고 꼭꼭 세 분 다 눈 마주쳐 가면서 기죽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랑 왜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A : 나는 자기소개랑 왜 우송간호를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작함. 자기소개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을 못 잡겠으면 이정도 틀에서 자기소개 준비하면 됨. ~~한 간호사가 되고 싶은 000입니다. ~~~한 경험으로 ~~한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우송대학교의 국제간호특성화과정으로 ~~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송간호에서의 4년간의 학습으로 졸업 후에는 ~~을 이루는 간호사를 희망합니다. 등과 같이 **내가 생각하는 되고 싶은 간호사의 모습, 그걸 되고 싶다고 생각한 구체적 계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왜 꼭 우송대 간호학과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송간호에서의 공부로 그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됨(그게 가장 무난함).**

Q : (자기소개에 응급상황에서 처치한 경험이 있다고 했음) 어떤 응급상황이었어요? - 자기소개 기반 질문

A : (실제 있었던 일이라 상황이랑 설명하고 그 대신 깨달은 점 얘기함) 수업 중 과호흡 증상을 호소함. 주변에 비닐봉지를 빌려 처치해 줌. 후에 찾아보니 요즘엔 위험해서 잘 안 쓰이며 손으로 입을 막고 숨 쉬는 방법을 쓴다고 함. **이 일을 계기로 정확한 지식으로 제대로 된 처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 (후에 꼬리 질문으로 '거기에 보긴 선생님은 안 계셨던 건가요?'를 질문함.)

Q : 그러면 학생은 정확히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A : 외국 활동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처치할 수 있는 글로벌 간호사가 되고 싶다.

Q : 왜 꼭 외국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A : 외국에 가면 다양한 문화와 인종, 한국에 비해서 다양한 응급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배우고 싶다.

Q : 교외봉사를 요양병원으로 꾸준히 갔는데 가서 한 것들을 영어로 설명해주세요

A : (이때 너무 당황해서……. 원래 '나는 가서 청소도 하고 밥 드시는 것도 도와드렸지만, 가장 열심히 한 것은 간호사분들의 업무를 옆에서 지켜본 것이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결국 못 했어요.)
 영어로 "병원을 청소하고 환자분들 밥 드시는 것을 도왔다." 이정도밖에 대답을 못 했어요.

Q : 생명과학 세특에서 묻고 싶은데 갑상선 저하증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하였나요?

A : 이걸 그냥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글로벌인재전형'이라서

내가 합격한 이유는 '글로벌인재전형'이기 때문에 합격한 것 같다. 이 전형은 외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사람과 한 학기 이상 영어 2등급인가? 1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연도부터 자기추천자 전형이 생겼다. 물론 자기추천서라고 자소서 4번 같은 걸 써야 하는데… 아무튼 내가 이 전형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글로벌인재전형도 학종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꼼꼼히 관리한 친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생기부

나는 1학년 때부터 학종을 준비해와서 한 활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 활동들을 대학교 인재상 이랑 여러 가지 엮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소서나 여러 가지 적을 때 느낀 점들을 위주로 대학교 인재상이랑 연계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 우송대학교에 대한 관심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우송대학교는 어떤 학과든 상관없이 우송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중요하다 (오죽하면 '우리 사이트 들어가 봤냐,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함) 정말 꼼꼼히 준비하고 생기부 질문보다는 자기소개와 학과에 대한 질문 위주로 준비하고 우송대에 대해 난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 / 일반전형2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과 원서접수증을 들고 가서 접수한 후 대기실에서 대기 ◆ 호명되면 4명씩 차례로 나와서 면접실 앞에서 전자기기와 소지품을 제출하고 대기 ◆ 교수님 2명과 2:4 면접을 본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과 원서접수증 지참 ◆ 학생 신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복장 착용 ◆ 면접실 들어가기 전 소지품 제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해 주세요. (영어)

A :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소통역량과 전문지식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년 전 일본에 있는 외할머니댁을 방문하면서 일본문화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대접을 하며 한국어와 일본어를 능숙하게 하는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 우송대학교에서 더욱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어)

Q : 자원봉사가 호텔리어에게 왜 필요한가? (영어)

A : 호텔리어라는 직업은 고객에게 있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지원동기가 무엇인가요? (영어)

A : 네. 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이중국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알아본 결과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 하고 알아보니 우송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우송대학교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는 수업을 영어로 한다는 것을 알았고 나의 부족한 영어 실력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겠다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우리 학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까?

A : 네. 있습니다. 글로벌호텔매니지먼트학과에 대해 알아보던 중 학과 프로그램 중에 2+2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뷰티디자인경영학과		35	
전형명	교과/일반2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4 면접		
유의사항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우송대학교에 왜 지원했나요?

A : 지원한 계기는 뷰티와 경영이라는 과목이 병합된 곳이 대한민국에서 단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우송대이기 때문입니다. 뷰티와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다목적인 인재로서 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뷰티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할지 눈에 보이고 주체적으로 더욱 많은 것을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우송대 뷰티디자인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뷰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A : 처음에는 미디어 매체인 유튜브에서 뷰티를 접했습니다. 뷰티 유튜버들이 예쁘게 꾸미고 또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고, 또 그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보고 저를 꾸며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손목 스냅이나 어떤 식으로 터치를 하는지 세세하게 관찰하고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계속 접해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분장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Q : 자신의 장점 서술

A : 저의 장점은 세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심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을 맡을 때도 허투루 하지 않고 세세하게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지 않고, 사회에서 그런 점은 유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또 나의 세세한 관찰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롤모델을 관찰해 나의 실력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던데' 생각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해 저의 실력향상에도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Q : K뷰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A : K뷰티란 음악에서도 k-pop이 흥행하듯 뷰티에서도 한국 뷰티가 흥행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현상은 우리의 한류 붐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가 진행되면서 그들이 입은 옷, 그들이 한 액세서리, 또 그들이 한 화장과 머리 등 모든 것들이 히트를 했고 그래서 뷰티 쪽에서도 붐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에서 예를 들면 그들이 한 화장법만이 아니라 그들이 쓴 제품들을 찾다가

우리 한국화장품의 장점인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점점 알려졌고 화장품 쪽에서도 외국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면서 k뷰티가 꺼지지 않듯이 이런 연쇄효과가 계속되면 제품의 품질도 올라가 k뷰티 사업도 점점 규모가 커져서 전세계적으로 k뷰티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Q : 향후 뷰티산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해야 하는 일은?

A : 저는 일단 진로는 메이크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분장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장사가 된다면 미국 할리우드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일단 먼저 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회화 준비 등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나라에서 일하게 될지 모르니 세계의 화장품 트렌드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화 실력을 쌓고 트렌드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내신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고 세세하게 자료 조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 ◆ 면접 예상 질문에 A~D까지의 유형이 주어질 것인데 한 가지 유형을 꼭 집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섞여서 나오는 것 같다. 유형별로 다 준비해 가면 된다.
- ◆ 면접장 분위기는 면접관님마다 다른데 남자 면접관분들이 더욱 분위기가 엄하지 않은 것 같다. 호실마다 면접관이 다르다.
- ◆ 우리 과 건물은 본캠을 나가야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문 말고 후문에서 내리는 것을 추천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소방안전학부		37	
전형명	학생부교과[일반2]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5분 정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작년 기출문제 파일 홈페이지에 있음)
	면접절차	◆ 교수님 2분에 학생 5명씩 면접		
유의사항	◆ 우송대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운 복장=교복 ◆ 거의 다 교복 착용함, 홈페이지에 면접 일자 공지해 줄 때도 '복장은 교복을 추천합니다.'라고 직접 공지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오래 기억에 간직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진행한 것이었는지 기억에 남는 이유와 함께 말해주세요.

A : 저는 고등학교 생활 중에 직업 인터뷰를 한 것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직업에 대해 조사하다가 생긴 궁금한 것들을 모아 소방서에 양해를 구하고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소방관을 꿈꿔왔는데 꿈에 그리던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난다는 게 설렘이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경험하신 소중한 일화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오래 간직하고 싶습니다.

Q : (포리 질문) 오랫동안 소방관을 꿈꿔왔는데 소방관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A : 저희 아빠가 갑자기 아프셔서 소방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저와 저희 엄마를 소방관님께서 괜찮다며 달래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런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포리 질문) 그러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생기부에 진로 희망은 뭐라고 적혀있나요?

Q : 자신의 장점과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A : (앞사람이랑 겹쳤지만 앞사람이 말을 더듬길래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준비한 것 말했음)

저의 장점은 친화력입니다. 저는 평소 다양한 친구와 자유롭게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특정 친구와 어울리는 것보다는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많은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고 고등학교 3년 동안 3회에 걸쳐 학급 부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Q : 재난에는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 그 종류를 말해볼까요? 겹쳐도 괜찮으니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A : 저는 자연적 재난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요즘 많이 일어났던 지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재난에는 방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요즘에는 이런 재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들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각자 생각하는 예방법들을 말해주세요.

A : 제가 생각하는 예방법은 소방시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사설신문’이라고 신문 스크랩 활동을 하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기사가 소방시설 부실 관리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였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는 소방시설 관리가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기출문제 많이 안 나온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됨. 기출문제 준비하면서 얻었던 지식들로 준비 못 했던 질문들 답할 수 있었음.
- ◆ 면접 후기 잘 챙겨 보고 면접일은 최대한 뒤로 해서 전날 면접한 사람들이 후기 남기면 그거 보고 준비해야 함(실제로 5번 질문은 전날 면접 본 사람이 후기 올려준 거에 있었던 질문이라서 대비할 수 있었음)(수만휘 블로그 참고)
- ◆ 과가 소방이다 보니 남자들이 많고, 남자들은 목소리가 여자보다 톤이 높지 않아 여자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음.
- ◆ 소방은 체력이 중요하다 보니 운동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임(유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도한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보였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솔브릿지 경영학부		69	
전형명	일반II전형(교과)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 교수님 두 분과 학생 두 명과 같이 면접을 봤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해보세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OO고등학교 3학년 OOO라고 합니다. 저는 외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호기심이 많고 다재다능하고 싶어하는 학생입니다!

Q : 우리 학교는 모든 수업과 시험이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그에 대해 학생은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나요?

A : 부연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예전부터 팝송, 락, 영국드라마 등을 보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원어민만큼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은 합니다.

Q : (그 순간에 교수님께서) 그러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A : (위에 했던 자기소개를 영어로 함) '취미시간에는 노래를 녹음하고 노래를 듣고, 나는 음악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내 취미를 공유합니다'를 영어로 했습니다.

Q.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A :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외국 문화에 대하여 관심이 크게 많아졌습니다. 더 배움을 원하였고 부모님께서 대학 진학 후, 아니면 대학을 그런 쪽으로 가라고 하셔서 대학에 대해 찾아보던 도중 솔브릿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솔브릿지에 빠지게 된 계기는 먼저 다른 학교와는 달리 캠퍼스에 대해 인상이 깊었고, 다음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인상 깊어서 이 학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Q : 4차산업에 대해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Q : 외국인과의 문화적인 점에 있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다면?

A : 저는 최대한 외국인 친구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같은 취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외식조리전공			
전형명	잠재능력우수자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35분~4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 기출 문항지
	면접절차	◆ 면접 대기실에서 호명을 기다림 ◆ 교수님과 학생 3명씩 3:3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유의사항	◆ 원서접수증, 신분증 지참 ◆ 30분 전까지 면접 대기실 입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말해주세요. (학과장님 질문)

A : 안녕하세요, 우송대에서 아주 큰 인재가 되어 나가서 유명한 셰프가 될 ~~~입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레스토랑 오너가 되는 것입니다. 주방일과 레스토랑 운영을 제가 모두 하기 위해선 요리도 중요하겠지만 외식창업이나 경영에 관한 공부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던 중 3학년 전공필수과목으로 외식창업실습을 하는 우송대학교 외 식조리전공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제게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본인이 우리 학교의 외식창업실습 교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는데 외식창업실습의 정확한 명칭을 압니까? (학과장님 질문)

A : 외식창업실습이 교과목의 명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Q : 모르는군요, 솔바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솔바인이 몇 주 동안 진행되는지는 아시나요? (학과장님 질문)

A : 아니요 (사실 3주인 거 직전에 보고 들어가서 알고 있었는데 순간 명칭에서 너무 당황을 해서 질문 바로 못 알아듣고 생각 없이 '아니요'라고 해버렸어요. 부디 다들 면접 볼 때 무슨 질문이 나오더라도 당황은 하지 말길.)

Q : 지원동기를 얘기하면서 외식창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창업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해볼래요? (남자 교수님 질문)

A : 제가 생각하기에 외식창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시대의 외식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마케팅을 통한 홍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모두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외식 트렌드를 말했는데 본인 생각에 외식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자 교수님 질문)

A : 현재 2019년의 외식 트렌드는 뉴트로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sns가 매우 확산되고 있고 중요해진 만큼 사람들은 남들과 차별화된 무언가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뉴트로란 과거 유행인 복고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뉴트로 감성인데 뉴트로가 유행함에 따라 남들과 차별화된 소비를 추구하고 독특한 외양이나 플레이팅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온 것을 보고 올해의 외식 트렌드가 뉴트로 감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그럼 뉴트로를 나타낼 음식은 뭐가 있습니까? (남자 교수님 질문)

A : 예전 시대의 어른들이 어렸을 적 먹었던 냉차를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대접을 한다면 뉴트로를 나타낸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 마케팅도 말을 했는데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남자 교수님 질문)

A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sns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 홍보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Q : sns로 마케팅을 하다가 악플이 달리면 어쩔 건가요? (남자 교수님 질문)

A : 악성 댓글도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하나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게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말이라면 가게 운영에 대한 피드백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Q : 미술 세특을 보면 펜 일러스트나 스크래치화를 했다고 적혀있는데 미술에 굉장히 흥미가 많아 보이네요? 흥미가 많은가 봐요? (입학사정관님 질문)

A : 네, 어머님께서 미술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어렸을 적부터 남들에 비해 미술을 더 일찍 접하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학교 수업시간에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Q : sw교육 선도학교 방과후 학교 스마트 메이커 반에서 생활 속 앱 만들기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진짜로 만들었나요? (입학사정관님 질문)

A : 네, 만들었습니다. 지도 앱 같은 앱을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Q : 지도 앱이요? (입학사정관님 질문)

A : 구글 맵처럼 위치를 입력하면 지도가 나오는 그런 앱을 만들었습니다.

Q : 그럼 지금 혼자서 만들 수 있나요? (입학사정관님 질문)

A : 아니요, 당시에 담당 선생님과 함께 앱을 만들었는데 현재 혼자서 앱을 만들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Q : 일반고를 다녔는데 성적을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낮네요? 본인의 적성이 수학과 맞지 않았나 봐요? (입학사정관님 질문)

A :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을 치고 나서 수학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와 성적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고자 과외도 다니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며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노력 대비 성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 원래도 수학에 대한 흥미가 적었는데 더욱 흥미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 아시다시피 지원 전형이 잠재능력우수자 전형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남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실성이나 이런 뻔한 것들은 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학과장님 질문)

A : 저의 잠재능력은 대처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제가 좀 더 발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를 잘했습니다.

(말하는 도중에 면접관님이 말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셨는지 다음 말하려고 하던 도중에 15번 질문을 바로 하셨습니다)

Q : 대처능력도 좋은데요, 아까 미술 세특에서 얘기한 펜 일러스트 같은 걸로 받은 상은 없나요? (학과장님 질문)

A : 펜 일러스트나 스크래치화가 수상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과수업시간에 진행되었던 활동이기 때문에 따로 수상을 하거나 그려진 않았지만 결과물을 다 내고 나서 점수를 매길 때 미술선생님께서 제 작품을 보시고 '다른 친구들보다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이건 질문은 아니고 뭔가 학과장님이 원하신 잠재능력에 대한 예시를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학생이 말했던 앱 만들기를 좀 더 활용한다면 조리를 접목한 웹도 만들 수 있고 미술 같은 경우엔 학생이 조리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다면 웹툰과 같이 많은 작품으로도 조리를 표현할 수 있죠.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작년 선배님들이 우승대를 다니며 했던 활동이나 수상경력 같은 예시를 들어주심)

Q : 마지막으로 할 말 있다면 하세요. (학과장님 질문)

A : 우승대에 입학하여 큰 인재로 성장한 뒤 졸업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근무하더라도 당당하게 저 같은 인재가 우승대를 통해 나올 수 있었음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입학사정관님이 엄청 젊으셔서 이것저것 생각지도 못한 데서 꼼꼼하게 많이 물으신다고 면접 대기할 때 대학생분들이 말해줬었는데 진짜 사소한 거도 다 물으니까 생기부 완전 정독하고 가길 바래요.
- ◆ 일단 면접에선 무조건 집중하는 자세, 미소 그러니까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질문이고 당황을 했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하는 모습이나 무슨 말을 해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해요.
- ◆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저 같은 경우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꼬리 질문도 엄청 받았어요.
- ◆ 다른 친구가 대답할 때도 시선 처리나 앉은 자세 신경 써야 하고요. 교수님들과 눈 마주치면서 내가 어떤 걸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눈빛으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 할 말에서 본인을 제일 많이 어필할 수 있으니까 엄청 임팩트 있는 대답으로 준비해 가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		
전형명	일반전형 II			
면접 형식	면접시간	대기시간 포함 약 15~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 입장 - 9명씩 상황실 입장 - 3명씩 한 조로 해서 면접관 2분이랑 면접 시작 ◆ 상황실=그림을 보여주는 곳. 즉 교수(면접관)가 그림을 보고 “이걸 보고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보세요”라고 한다. 미리 생각해두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폰은 만질 수 없다. 본인확인 후에 핸드폰 끄고 가방에 넣어야 한다. ◆ 수험표가 없는 학교여서 수험표 대신 입학원서증을 들고 가야 한다. ◆ 면접 최소 30분 전 도착할 것 ◆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헛갈리지 말 것! ◆ 교복 입고 가는 것이 제일 좋다! (블라인드 X) ◆ 제시문 기반인데 올해 거는 안 올라와 있어서 작년 거 보고 준비했다. (내년 후배들은 아마 20년도 거 보고 참고할 듯) 제시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변형하는 경우도 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수험번호랑 이름 말하고)				
Q : 아까 상황실에서 보여준 그림인데 이것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자신의 상황을 말해보세요.				
Q : 유아교육과에서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나요?				
A : 저는 교육과정으로 연결해서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린 교육과정 얘기하는 거 아닌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지원자들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을 배운다는 방향을 답변함				
Q : 유치원 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시문 뽑은 것)				
A :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려주고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포리 질문) 유치원 교사에게 있어서 소통이라는 것이 뭔가요?				
A : 공감하고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봐 주고 눈을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A : (저는 인재상과 연결해서 답변을 했지만 잘하지는 못했어요. 앞 질문으로 당황한 탓에 외웠던 인재상을 조금 잊어버렸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제시문 면접 치고 예상 질문이 정말 많다. 자기소개 포함 35~37개 정도				
◆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에 겁을 먹거나 떨지 말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철도경영학과			
전형명	일반교과II(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0~15분 정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하기 30분 전 대기실에 도착해야 함. ◆ 교수님 2분, 학생 4명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실에 들어가서는 전자기기 사용 금지. ◆ 블라인드 면접(X) - 교복 허용, 학교 및 이름 공개 허용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A : 안녕하세요? 미래의 철도운송사무원이 되어 철도 산업에 이바지하고 싶은 ○○○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경영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북회담이 열리고 교류에 대한 내용 중 철도 이용이 기대 산업 중 1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후 저는 철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철도경영학과를 알게 되었고, 이 학과가 있는 학교 중 우송대가 지리적으로 KORAIL과 접해있어 실습할 기회도 있다고 하여 저의 꿈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 학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학교가 경산인데, 가장 가까운 안심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철도만 이용해서 가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A : 먼저 안심역에서 동대구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합니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타고 간 다음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이동합니다.

Q : 자기소개에서 남북교류에 관한 기사를 봤다고 했는데, 현시점에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A : 저는 현 남북 분위기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조되는 분위기가 풀리면, 이후에 교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 현 대구 지하철 3호선은 어떠한 특징이 있죠?

A : 지금 대구 지하철은 경전철로 운행되고 있으며, 무인 수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Q : 우리나라 경전철들 중 광역시에 있는 경전철 개수는 몇 개입니까?

A : 대구 3호선, 부산도시철도 4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우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정보 보안학과				
전형명	교과전형(일반전형 II)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오는 사람부터 선착순, 면접관:학생=2:4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X ◆ 교복 착용 가능 ◆ 별다른 유의사항 없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A :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보안전문가가 되고 싶은 ○○○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유명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지섭이라는 배우께서 해킹을 좋은 의도로 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가져 찾아보던 중 이 정보보안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이때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A : 저는 연애 같습니다. 저는 기회가 올 때마다 잡지 않고 항상 놓쳐버려 연애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노력중입니다.

Q : 그러면 대학에 와서 연애만 할 건가요?

A : 아니요. 이런 기회 잡는 방법을 여러 분야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Q : 30초 동안 어느 분야도 좋으니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라.

A : 저는 운동을 취미로 자주 합니다. 운동 종목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서 풋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풋살 규칙, 인원 등을 설명함).

Q : 가장 존경하는 사람 아니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A : 저는 안철수 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당시 미래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 당시 압도 가지 않은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의 길을 선택하여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급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불합격. 경쟁률이 12:1인데 내가 딱히 임팩트 있게 말한 게 없는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울산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회과학부(경찰학)	1차 합격		
전형명	학생부종합면접 특별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번호 순서대로 앉게 한 후 휴대전화 등 전원을 끄고 보관 봉투에 보관 ◆ 간단한 주의사항 설명 후 빵, 음료를 주셨음. ◆ 그 후 10분 간격으로 면접관으로 이동함. ◆ 2:1 면접으로 알고 갔지만 면접실에 들어가 보니 3:1 면접이었음.		
유의사항	◆ 복장 관련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음. (교복 착용 금지 등) ◆ 교복 입고 왔을 시를 대비해서 검은색 망토 같은 것을 준비해줌. ◆ 면접 중 자신의 이름이나 수험번호 등을 말하는 것을 금지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인가요?

A :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의 사례와 대응한 모습들을 보여 주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적절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여성은 남성보다 다소 쉽게 범죄에 노출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Q : 무슨 동아리에서 활동하였나요?

A : RCY 동아리와 경찰동아리에서 활동하였습니다. RCY 동아리는 응급처치를 배우며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동아리에서는 독서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이슈를 주제로 정하여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에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성범죄자 신상 공개의 단점이 무엇 일까요?

A :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한다면 성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RCY 동아리와 경찰동아리 중 자신은 무슨 동아리가 더 좋은가?

A : RCY 동아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서 저에게 흥미로운 동아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동아리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비슷한 직업이 꿈인 친구들과 대화하며 지식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찰동아리가 더 좋았습니다!

Q :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흥미 있었던 과목과 힘들었던 과목이 있었나요?

A : 가장 흥미 있었던 과목은 사회문화 과목이었습니다. 사회문화 과목을 3학년 때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사회문화 과목이 가장 흥미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과목은 영어입니다. 영어 과목에 흥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어 과목도 다른 과목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였으며 저만의 공부법을 찾으며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성적이 잘 오르지 않아 힘들었던 과목이었습니다.

Q : 그럼 경찰이 가져야 할 도덕적 덕목은 뭐가 있나?

A : 경찰이 가져야 할 도덕적 덕목은 책임감과 성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제해결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더욱 두 발로 뛰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Q : 배심원으로 상 많이 받았네요. 이걸 재판 같은 활동을 해서 받은 건가요?

A : 제가 받은 배심원 상은 재판 같은 활동에서 배심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남북의 통일 과정 중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등의 주제에서 토론자들이 적절한 근거와 주장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지 배심원으로서 판단하는 역할을 한 후 받은 상입니다.

Q : 그럼 토론 과정에서 재판과 같이 따로 질문을 할 수도 있나요?

A : 네! 토론자들의 주장 중 의문이 드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가능합니다.

Q : 자신의 장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찰로서 자신이 가진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저의 장점은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학급의 부반장 활동, 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책임감의 무게를 알고 굵은일에도 솔선수범하며 학급에 모범이 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의 책임감이 강하다는 장점은 향후 경찰로서의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그럼 자신의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저의 단점이 있다면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은 공감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욱 적절한 해결방안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단점은 장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이 경찰에게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A : 경찰에게도 공감 능력이 충분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시민들의 말에 귀기울이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은 경찰에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다른 학생들 보면 질문에는 잘 대답을 못 하지만 마지막 할 말은 다 준비해오던데 마지막 할 말 있나요? (웃음)

A : 앗...! 그럼 저도 마지막 할 말 하겠습니다. (웃음) 울산대학교를 만드신 정주영 회장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울산대 학생이 되어 울산대에서 경찰이라는 저의 꿈을 키우고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수능이 끝난 후 9일 동안 담임선생님, 친구들과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면접을 준비했다. 또한 반복적인 모의 면접을 통해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었다. 얼마나 집중해서 생기부를 보고 내용을 알고 연습하였는지가 면접 당일 자신감을 키워준다는 것을 느꼈다.
- ◆ 면접 당시 당연히 긴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긴장이 차츰 풀려서 연습한 대로 차분하게 내 생기부에 대한 설명을 했다.
- ◆ 분위기도 좋았고 질문이나 꼬리 질문에 대해 당황하지 않고 조리 있게 답변한 것 같다. 또한 질문 의도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울산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생명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 학생부종합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 대기 - 3:1 면접 - 퇴실		
유의사항	◆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할 것. ◆ 교복 착용이 불가능함. 이와 별개로 면접 전 검은색 가운을 착용함. ◆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출신, 학교 등에 관한 내용 언급은 하지 말 것. ◆ 가지고 온 자료를 대기실에서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본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A : '칼리코'라는 기업에서 진행하는 인간수명 500년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별거숭이두더지쥐의 유전자를 해독하거나 효모를 배양하여서 오래된 세포와 신규 세포를 분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의 수명을 500년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명과학 기술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생명과학이 인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생명과학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내 생명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생명공학 기술에 관한 발표나 토의 활동 등을 하면서 생명과학 관련 지식들을 차차 쌓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명과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기 때문에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 중 인상 깊었던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 : 식물추출물로 인한 항균작용을 주제로 한 실험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강이나 상추, 로즈마리 등의 추출물을 대장균을 활용해 항균력을 관찰하였습니다. 항균력이 나타난 식물들을 사용하여 손소독제를 만들어 보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진행하면서 식물들을 활용한 다양한 생명과학 기술들을 창의적이면서 실용적인 방면으로 여러 기술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Q :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A : 제 장점은 리더십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2년간 학급 실장을 맡기도 했고, 여러 모듬 활동에서 모듬장을 자주 맡으면서 점점 제 장점을 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단점은 지나치게 꼼꼼해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단점을 조금만 다듬는다면, 본 학과에 진학하여 각종 실험이나 실습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 :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A : 3년간 지역 아동센터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자신있어하는 생명과학을 중점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거나, 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토론 활동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평소엔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인 생각을 아이들로부터 배우며 제 고정관념들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Q : 학교생활 중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A : 아무래도 제가 학급 실장을 맡다 보니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공감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마음을 세세히 알기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급날적이’라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급날적이 활동은 매일 학급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힘든 점이나 평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는 활동이었는데, 이를 통해 좀 더 학급 친구들의 마음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Q : 학급 친구들과 다툼은 없었는가요?

A : 조금이라도 제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툼이라고 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과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에 대해 물어보기 때문에 면접 준비 기간에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학교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대한 소개를 잘 읽어볼 것.
- ◆ 생활기록부만 참고해서 질문하기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하게 봐야 하며, 특히 비교과 활동 내용과 그에 대한 소감에 대해 중점적으로 숙지할 것.
- ◆ 애매한 답변보다는 살짝 틀려도 확실하고 명료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문제점에 대한 질문은 해결책과 함께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 말할 것.
- ◆ 꼬리 질문과 돌발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큼. 특히 본인의 대학 진학 이후 진로에 관해 물어볼 수 있으므로, 지원학과(학부) 진학 이후 인생 전반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면접에 대비할 것.
- ◆ 면접 담당 교수님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본인이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면접을 보는 것이 중요함. 무뚝뚝하거나 공격적인 분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임할 것.
- ◆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면접 연습이 엄청 중요함. 연습 때 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미흡한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함.
- ◆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이 학과에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면접의 핵심임. 자신의 평소 생각과 가치관을 꾸밈없이 드러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울산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자공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2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 ◆ 면접 준비실에서 준비 후 면접 시작 (3:1 면접)		
유의사항	◆ 빵과 음료수 제공. ◆ 본인은 대기시간이 4시간이어서 들고 간 자료 반복해서 봄.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의 단점을 보완하고 안전하며 편안한 주행을 도와주는 기술들을 연구하는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동아리에서의 여러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대학교에서 학업에 열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탐으로써 안전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동차 엔지니어라는 직업은 교통의 편리와 안전 그리고 편안함을 주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직업입니다. 저는 울산대학교에 입학하여 저의 꿈에 더욱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Q : 꿈이 자동차 엔지니어인데 전기공학부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차선 이탈방지,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과 같은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연구를 하고 싶어졌고 이러한 연구는 엔진 성능, 연비 등을 연구하는 기계공학 분야보다 전자공학부가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A : 남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기 싫었고 남을 돕는 등의 활동이 매우 가치 있고 보람찬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Q : 제일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요?

A : 환경정화 활동입니다. 경로당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경로당 안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저의 좌우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Q : 좌우명이 무엇인가요?

A : 비록 보상을 바라고 한 활동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주시는 사탕과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마음을 보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작은 것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좌우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교내활동은 무엇인가요?

A : 동아리에서 수행한 소형자동차 주행 안정성 연구입니다. 소형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해서 직접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설계, 출력하여 제작하였고 편의 장치를 만들기 위해 C++를 이용하여 코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활동이었지만 연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기에 가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Q : 3D프린터를 직접 이용하신건가요?

A : 네, 기본적인 도구들을 익힌 뒤 설계, 출력하였습니다.

Q : C언어를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익숙한가요?

A : 심화 내용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지만 울산대학교에서 조금만 더 공부한다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예쁜꼬마선충에 대해 연구했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이며 예쁜꼬마선충은 신경세포가 매우 적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신경세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들이 제작한 코드를 직접 언어 선충 로봇에 입력하여 실제 선충과 비슷한 움직임을 재현하였습니다.

Q : RnE 활동이 두 번 다 금상인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 첫 번째 활동은 리얼센스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변 장애물을 지도로 만들어 별도의 코딩 없이 능동적으로 장애물을 피해가는 활동이었고 두 번째 활동은 소형자동차 주행 안정성 연구입니다.

Q : 과학성적이 1등급도 있었고 5등급도 있었는데 들쭉날쭉한 이유가 있나요?

A : 저는 과학을 공부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끝까지 이해해야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단원을 배우게 되면 상대적으로 복습과 응용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줄어 과학성적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Q : 공학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과목인데 학생이 말한 공부 방법은 실용성이 높다고 생각하나요?

A : 저의 현재 공부 방법은 시간 관리가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쉽지 않겠지만 시간 관리만 잘 한다면 목표를 세워 달성할 때까지 노력하는 자세는 저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1학년 때 과학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A : 융합과학을 배웠습니다.

Q : 축구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비결이 있나요?

A : 남들도 흔히 말하는 '실수에 대해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서로 격려해준다면 긴장도 풀리며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여 친구들과 즐겁게 운동을 즐겼던 저의 경험에서 느낀 점입니다.

Q : 과학 관련 수상이 많은데 인상 깊은 게 있나요?

A : 축구대회에서 2등을 한 것입니다. 저희 반은 축구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참가한 반 중에서도 최약체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힘을 합쳐 경기가 끝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노력하니 한 경기 한 경기 이겨나갔고 결국엔 결승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었고 친구들과 더욱 친해졌기에 인상 깊었습니다.

Q : 마지막 하고 싶은 한마디 있으면 해주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신의 진로와 지원학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함. 생기부에 어려운 내용이나 용어가 있다면 확실히 알고 가기.
- ◆ 중간중간에 긴장을 풀어주시는 질문도 있으니 최대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할 말 하고 나오기. 면접 대기 시간이 최대 4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지참하여 유용하게 보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원광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6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각 면접 준비실에서 35명 정도 대기하다가 가번호를 받음. ◆ 면접 준비실 앞 의자에 들어가기 전 한 명씩 대기하다가 들어감. ◆ 6분 동안 면접(5분 30초에 종이 울리고 6분이 되면 나와야 함) ◆ 면접관은 2명 학생 1명		
유의사항	◆ 접수증과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지참 ◆ 대기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오래 기다리셨죠?

A : 네! (저희 대기실에선 가장 마지막 번호여서 그런 것 같아요)

Q :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신 동기가 무엇이죠?

A : 저는 소아병동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특수학교에 봉사를 하러 갔다가 만난 한 아이는 병에 걸려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큰 아픔이 아이를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아이의 눈빛을 보면서 고통을 덜어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소아병동 간호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아동 간호학 및 간호술을 배우고 익히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소아병동 간호사와 관련된 간호학과에 진학해야겠다고 다짐하였고, 원광대학교에선 글로벌 간호인의 양성에 힘쓰는 만큼 글로벌 간호학 및 간호술의 역량을 국내외 임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의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 원광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이 한 봉사활동 중 뜻깊은 봉사활동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A : 제가 한 봉사활동 중 뜻깊은 봉사활동은 특수학교 봉사활동입니다. 특수학교에선 신변훈련, 학습 및 식사도우미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특수학교에서 몸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한 아이들을 보며 제가 아무 이상 없이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몸이나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 자신의 장단점과 단점을 고치기 위해 한 노력은?

A : 일단 제 장점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듣고 그에 따른 반응을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으면 제가 가고 싶은 파트인 병동 일을 할 때 환자의 말에 귀담아듣고 환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빠르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의 앞에서 말을 할 때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고치기 위해 저는 담임선생님께 부탁드려 친구들과 앞에 나와 사소한 이야기라도 친구들과 앞에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에 공감하시고 동의해주신 담임선생님의 허락으로 사소한 이야기라도 친구들과 앞에 나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통해 말하기에 자신감을 얻게 되면서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Q : 원광대학교가 멀리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 원광대학교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선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복지와 시설, 정말 많고 다양한 동아리 등의 정보들을 접하고 꼭 가고 싶은 대학교로 생각하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질병 결석이 있는데 어디가 안 좋은 것인가요?

A : 어디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질병 결석은 항상 시험 기간에 시험이 걱정되어 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하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져 몸이 안 좋아져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건강관리도 학업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수능이 끝난 지금은 운동하며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이며 중요한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겠습니다.

Q : 원광대학교가 먼 데 잘 다닐 수 있겠어요?

A : 네. 원광대학교에 오고 싶은 열정만큼 잘 다닐 수 있습니다.

Q : 원광대학교에 와보니까 어때요?

A : 인터넷으로 볼 때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것 같습니다. 또한 길을 물어보면서 원광대학교 학생 분들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다들 좋으신 것 같습니다.

Q : 물어보고 싶은 것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하셔도 됩니다.

A : (영어로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영어로 했습니다.)

Nurses don't think it's just about treating patients with trauma. The meaning of the words "treat" and "take care" is different, but only when we perform nursing with each other's complementary nature and qualities can we say that we have fulfilled our responsibilities as nurses. I am confident that I will learn these qualities at Wonkwang University and become a great nurse and expand into the talent that will shine on the university. My introduction is over and thank you for listening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정말 일단 경력이 일어날 정도로 웃는 연습을 하시고 웃으면서 면접에 들어가실 때 웃으면서 들어가세요.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 ◆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면접 분위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꾀꾀이 할 말 하고 편하게 면접 보세요.
- ◆ 자신의 자소서나 생활기록부는 꼼꼼하게 읽어보고 미리 예상 질문도 만들거나 한 번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모의 면접을 같이 해보며 생활기록부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원광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치의예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			
면접 형식	면접시간	12분(1고사장 6분, 2고사장 6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에서 치의예과 지원자 모두 전형에 상관없이 대기 ◆ 제1고사장에서 6분 동안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 면접 ◆ (30초 전에 종이 치고, 10초 전에 노크해드립니다.) ◆ 제2고사장에서 6분 동안 면접관 2명과 학생 1명 면접 ◆ (30초 전에 종이 치고, 10초 전에 노크해드립니다.) ◆ 자신의 가번호(수험번호) 말하고 면접 시작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대기 중 전자기기 일절 금지 ◆ 수험생 간 잡담 금지 ◆ 대기 중 면접 준비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 1면접장

Q : 안녕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답변해주세요. 밥은 먹었어요?

A : 아침 먹었습니다.

Q : 배고프겠네요. 긴장 푸시고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은 다른 학생에 비해 실험을 많이 한 편 인가요?

A : 네.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실험이 적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Q : 그러면, 본인만 실험을 많이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많이 한 건가요?

A : 기본적으로 이과의 특성상 실험에 흥미 있는 학생들이 많아 다른 학생들도 실험을 적게 하지는 않았으나, 저는 그중에 자율적으로 수행한 실험이 많은 편입니다.

Q : 생명과학2를 들으셨네요. 이건 학교에서 시킨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것인가요?

A : 제가 생명과학2, 지구과학2, 화학2, 물리2 중에서 화학2와 생명과학2를 선택했습니다.

Q : 화학2와 생명과학2는 왜 선택했나요?

A : 제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 그제 왜 도움이 되죠?

A : 생명과학은 의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명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화학은 제가 관심 있는 보철 분야를 이해하려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수했습니다.

Q : 왜 화학이 보철에 필요하죠?

A : 보철재료의 화학적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보철이 적용되는 치아의 성분에 대한 이해, 보철 성분이 구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실험이 많은 화학 과목의 특성상 화학2를 이수하면 기본적인 실험능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생명과학2 시간에 요구르트와 치아의 부식에 대한 실험을 했네요. 이건 어떤 실험이죠?

A : 액상형, 크림형, 그 중간형 요구르트에 치아를 담그고 치아의 부식 정도를 관찰한 실험입니다. 생명과학 시간에 요구르트가 인체에 이롭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과서에 요구르트의 pH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이러한 요구르트의 산도가 치아의 부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요구르트와 치아 부식에 대해 탐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 육안으로 봤을 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액상형 요구르트에 치아가 가장 부식이 많이 되었고, 각 제형의 요구르트의 pH 농도를 측정해 보았을 때 액상형의 pH 농도가 미미하지만 가장 낮았습니다.

Q : 치아를 어떻게 관찰했다는 것이죠? 그게 눈으로 보이나요?

A : 사실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를 찾아보다가 모 대학병원에서 저와 비슷한 실험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현미경을 사용해 관찰한 치아는 해당 연구자료를 참고했습니다.

Q : 현미경으로 치아를 그걸 어떻게 보죠? 볼 수가 있나요?

A : (여기서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 잘못된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럼 본인은 원래 현미경으로 어떻게 치아를 보려고 했죠?'라고 알아들었습니다) 치아를 잘라서 프레파라트에 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Q : 아, 인공치아로 봤다고요? 알겠습니다.

A : (이 말씀을 듣고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Q : 여기 진로사항을 보면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고 되어있는데, 뭐 방학을 이용해서 간 건가요?

A : 네. 중학생 때 방학을 이용해 다녀왔습니다.

Q : 아. 중학생 때? 근데 어학연수도 가면서 봉사도 간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자기가 찾아서 해야 할 텐데?

A : 국내 봉사 단체에서 어학연수 및 봉사활동 지원자를 모집한 것이라, 봉사는 단체로 나갔습니다.

Q : 아. 그럼 이 어학연수 이후로 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는데, 뭐 그전까지는 의학에 관심이 없었죠?

A : 네. 그전까지는 의학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봉사를 하면서 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빵을 만들어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어머니가 쉽게 음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빵을 뜯어주는 모습을 보며 의학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 그리고 봉사를 도서관에서 다니다가 갑자기 요양원으로 다녔네요. 왜 그랬어요?

A : 원래는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 봉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노인 분들의 보철치료에 관심이 있어서, 노인 분들과 교류해보고 싶어 3학년 때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요양원으로 봉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Q : 뭐, 요양원에 가면 거기서 어른들 보철치료를 해줄 수가 있나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들과 교류해보고 대화해보고 싶어 요양원 봉사를 다녔습니다.

Q : 그럼, 보철에 관심 있다고도 하고 교정에도 관심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노력한 게 있나요?

A : (중 쳐주심) 제가 교정치료를 받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2학년 물리 시간에 교정 철사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간단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 2면접장

Q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후에 노트북 화면만 봐도 오해하지 말고 답변해주세요. 생명과학2 시간에 요구르트와 치아 부식에 대해 탐구했네요. 어떤 탐구인가요?

A : (앞에서와 똑같이 답변 드렸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이 있나요?

A : 자랑하고 싶은 활동, 즉 배운 점이 많았던 활동이 있습니다.

Q : 뭐죠?

A : 의료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교내 행사가 있을 때 응급처치 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중에도 체육대회 때 친구들을 치료해 줬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예선전을 뚫 후에 무릎을 다친 친구가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대일밴드를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주 본선을 뛰어야 하는 친구였기에 떨어지기 쉬운 대일밴드보다는 더 큰 붕대와 거즈를 이용해 무릎을 잘 쓸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건 선생님께 여쭙본 뒤 붕대와 거즈로 처치를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계주 때 불편하지 않았다고 해준 친구 덕분에, 환자를 치료할 때는 환자의 이후 활동이나 처한 상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 치과 의사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네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 볼까요?

A : 저는 노인 분들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자라왔습니다. 노인 분들이 가장 신경을 덜 쓰시는 부분이 '치아'입니다. 동네 할머니들은 항상 '이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으면 된다.'라고 하시다가 병을 더 키우시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치아는 식사, 언어와 같은 실용적 부분뿐만 아니라 외모와 같은 부수적인 부분까지,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치료를 제공해주고 싶어 치과 의사를 희망해왔고, 그 중에도 노인 분들을 위한 안전한 치과 재료를 연구하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Q : 책을 많이 읽은 편이네요. 자신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거나,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해준 그런 책이 있나요?

A : 제가 앞으로 어떤 치과 의사가 되어야 할지 생각하게 해준 책인 '치과 의사가 말하는 치과 의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도 기억에 남는 부분은 교정 전문 치과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환자의 교정과정에서

교정 철사 때문에 입안에 염증이 생겨 고생하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치과 의사는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치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관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통찰력을 가진 치과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 중간에 종을 쳐주셨습니다.)

Q : 아, 이거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시간 때문에 대답을 못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치약과 구강상피세포로 막 세포파괴 관찰하고 이걸 어떻게 한 거죠?

A : 해당 실험은 정상구강상피세포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노크해주셨고, 교수님들이 그냥 나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 ◆ 잘못 본 면접인데 후배님들은 자료 보시고 저처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저는 꼬리 질문이 많아서 당황하느라 질문 핵심을 잘못 잡기도 했고 동문서답하거나 미괄식으로 말씀드린게 너무 많아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길게 말한 것도 아쉽습니다.
- ◆ 후배님들은 꼭 두괄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동문서답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원광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한의예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2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실 1: 면접관 2명, 6분 ◆ 면접실 2: 면접관 2명, 6분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수험번호나 이름, 출신 고교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 1면접실

Q : 자기 PR 20초간 해보세요.

A : 제 가장 큰 장점은 융통성과 집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력과 집중 시간을 모두 기르는 것을 통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융통성을 통해 부실장 같은 역할도 잘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생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생명체는 생명체만의 유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유’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이 책의 내용은요?

A : 이 책 역시 생명체는 유기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책입니다(다른 책이랑 혼동했음).

Q : 비마학술제가 어떤 활동인가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A : 비마학술제는 저희가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계획을 짰 후에 선생님의 허락을 받으면 약 두 달간 그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주제적인 활동입니다.

Q : 동아리 활동 중에 옷나무와 췌장암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A : 옷나무는 한의학적 용어로 건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건칠이 췌장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Q : 왜 침구과 교수가 되려 하나요? 다른 분야도 많은데.

A : 일단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의료행위가 침구류를 활용한 의료행위라 생각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치료를 받으면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학문적 깊이 때문에 원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신비감을 느껴 침구과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A :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할 모든 일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2면접실

Q : 2년간 부반장을 하다가 3학년 때 친구들에게 인정받아서 실장이 되었는데, 기분이 어땠나요?

A :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중학교 때 타지에서 전학을 와서 고등학교 초반에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점점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 정말 뿌듯했습니다.

Q : 갈수록 성적이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A : 일단 집중력과 집중 시간을 늘리는 데 가장 초점을 맞췄고, 또한 1학년 때는 시간별로 계획을 짰었는데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2학년부서는 양으로 계획을 짰 것도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 신경성 위염을 한약으로 극복했다고 하셨는데, 신경성 위염이 뭐죠?

A :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위가 약해져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나 먹을 때 역한 느낌을 받는 질병입니다. 제가 이 병을 병원에서 치료하려고도 해봤는데 약의 부작용 때문에 속 쓰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통해 치료할 수 있었고, 한의학에 대해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Q : 건강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본인이 왜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약의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운동도 자주 하면서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Q : 주로 어떤 운동을 하나요?

A : 축구, 야구 등 구기 종목도 좋아하고 산책이나 걷기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Q : 한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은 후로 비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A :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굳이 한의사를 하려고 하나'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내가 굳이 한의사를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한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의학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주변의 비판들을 통해 저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학년 때 진행한 한의학 인식 개선 프로젝트가 그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비판과 비난이 오히려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비판과 비난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 후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나요?

A : '생물과 무생물 사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한의학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적 평형이라는 개념은 '생명체 내부에 어떤 것이 변화하더라도 다시 그것을 채움으로써 평형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 개념이 한의학의 기본 이론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고, 후배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Q : 후배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나'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요?

A : 물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얻을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본인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공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원론적인 질문이 당황스럽다. 평소에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두었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 ◆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
- ◆ 생기부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3학년 진로 때 '침구과'를 적었기 때문에 면접 간 모든 학교에서 왜 침구과를 선택했는지 질문했다.)
- ◆ 희망직업이 가져야 할 기본소양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위덕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농어촌 입학사정관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선착순으로 면접		
유의사항	◆ 단정하게 교복 입고 가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A :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으로 간호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던 중 전문 직업인 초청 강연에서 간호사분께서 병동에서 일하실 때 경험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간호사분을 통해 응급했던 환자들이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퇴원을 하며 환자와 가족들이 간호사분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서 남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게 되어 간호학과를 희망하게 되었고 윤리적 자세와 다재다능한 창의력 그리고 사람들을 공감하는 자세를 갖춘 제가 위덕대학교 간호학과에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위덕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비순환적 광인산화와 순환적 광인산화의 차이점

A : 제가 멘티에게 순환적 광인산화와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어서 두 가지의 광인산화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광합성 과정에서 빛을 받은 고에너지가 광계I과 II 모두에서 관여하여 O₂와 NADPH와 ATP가 생성되고 순환적 광인산화는 광합성 과정에서 빛을 받은 고에너지가 광계I에서만 관여하여 ATP만 생성된다. 이러한 각각의 광인산화의 광합성과정에서 차이점인 생성물과 관여하는 광계를 전개도를 그려서 쉽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멘티가 어려워했던 각각의 광인산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멘티의 감사 인사를 통해 멘토링 활동이 남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Q : 자신의 롤모델

Q :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A : 오케스트라단원으로 활동하며 새로 들어온 1학년 후배들에게 학교생활과 시험 준비에 대한 도움을 주었고 쉬는 시간에 시간을 내어 후배들이 어려워한 동성 판타지아 곡을 따로 지도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많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 보았지만 후배들과 함께 노력한 공연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댄 오케스트라 활동하며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연습하는 것이 힘들어 후회를 하기도 하고 2학년이 되고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후배들과 서로 힘이 되어주며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받은 박수와 환호를 통해 예전에 후회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 후배 부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연습과 공연하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함께"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Q :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A : 저는 책 “나이팅게일의 간호학개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이팅게일이 간호사 신분으로 크림전쟁에 참전하여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감염에 의한 또 다른 2차 피해로 사망률이 40%까지 올랐는데 나이팅게일이 이러한 감염상황을 파악하여서 통계로 정리하여서 2차 감염을 줄이고 환자들을 2%까지 줄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저 또한 UN 평화유지군으로서 파병에 참여하여서 세계평화와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4차 산업혁명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이란?

A : 4차 산업혁명 상황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환자의 상태를 그대로 판단하지만 간호사는 환자들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작은 변화에도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환자의 투약이나 케어 방법을 변화하기 때문에 간호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책 “아주 특별한 해부학 수업” 내용과 느낀 점

A : 책에 나오는 타이완 츠지대학교의 의과대학 해부학 수업은 특별하기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 시신을 시신 스승이라고 부르며 해부한 시신들을 다시 봉합과 화장을 하여 시신 앞에서 교수와 학생들은 예의와 정성을 다해 수업에 참가하는 것에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오는 관상면 coronary plane(코러네어리 플레인: 신체 앞뒤로 나눔), 시상면 sagittal plane(삐지털 플레인: 신체 좌우로 나눔) 등 해부학 용어를 통해 영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위덕대학교는 세인트 조지 국제의학대학교와 국제교류를 맺어 위덕대학교 간호학과에 교육이념인 지성과 인성을 겸비하며 인류에 봉사하는 글로컬 간호전문인양성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입학 후 위덕대학교에서 간호지식을 4년 동안 배워 졸업해서 국제교류활동에 참가하여 세계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저의 꿈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박람회에서 위덕대학교 교수님이 주신 명함을 항상 저의 교복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며 저의 유일한 1지망이자 모교가 될 위덕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날을 희망하며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위덕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교수님들을 통해 배워 나가면서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며 간호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나는 어차피 여기에 무조건 붙는다, 내가 이 학교 떨어지면 이 학교가 이상한 거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떨지 않고 말하면 될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위덕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합격
학과명	특수교육학과(중등)		1	
전형명	교과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 면접 질문을 뽑고 5분간 기다리면서 답을 생각함. ◆ 면접관 2명 : 지원자 2명		
	유의사항	◆ 신분증 소지(학생증이라면 사진이 있는 것으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신이 생각하는 특수교육의 목표/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일반교육과 달리 특수교육에서는 교사로서 남다른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지만 부모님 다음으로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며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내는 것이 특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대학교 4년간 어떤 활동을 하며 지내고 싶습니까?

A : 우선, 학기 중에는 특수교육학과를 지원한 저의 열정을 따라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해당 전공과목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시간이 된다면 특수교육 선진국을 방문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Q : 주어진 영어 지문을 해석해 볼까요?

A : (입장 전 선택한 영어 지문)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특수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Special needs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Q : (입장 전 뽑았던 앞선 3가지 질문을 마친 후 추가로) 특수교육학과를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 가장 친한 친구 동생이 지체장애 1급입니다. 저는 제 친구가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애를 겪는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적으로 겪는 어려움보다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문제 등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관련 봉사활동 등에도 직접 참여해보았습니다. 이런 저의 관심사와 긍정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주변에서도 많은 추천을 해주었기에 특수교육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어떤 과를 지원하더라도 지원동기는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 학과와 연관된 기본적인 영어 어휘는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영어 해석 면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유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찰소방행정학부	○		
전형명	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면접관) : 5(학생)		
유의사항	◆ 자기 자신을 어필하면 교수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 저는 소방공무원이 꿈입니다. 저희 지역에 화재 사건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님들께서 저희에게 친절하게 해주셨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직업에 대해 궁금해졌고 평소 충청도에 살고 있어서 대학교를 찾아보니 유원대학교가 나와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유원대학교에 지원하면서 매력을 느낀 점, 다른 학교와 다른 장점이 있다면?

A : 저는 유원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찾아보다가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이라는 과목을 보고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자율 학습시스템을 진행한다는 것을 보고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학교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기 자신을 꼭 뽑아야 하는 자기 어필을 보여달라고 함. (대처 능력이 빨라야 가능함)
- ◆ 타 대학에 지원한 원서 물어보고 어느 곳을 제일 가고 싶냐고 질문받음. (당연히 유원대학교라고 말해야 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을지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방사선학과		28	
전형명	EU 자기추천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 3분과 학생 1명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자기소개 X)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및 성격의 장단점

Q : 자기소개서 3번 봉사에 대한 질문

Q : X선이 필요 없는 병원 기구 중 아는 것

A :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인 MRI

Q : 을지대학교에 꼭 와야 하는 이유

A : 실습이 중요한 학과라고 생각하여 실습이 잘 갖추어져 있는 학교인 을지대학교에 꼭 오고 싶다.

Q : 방사선학과를 알아보았을텐데 어떤 자료를 참고할 수 있었는지?

Q : 팀 과제시 자신은 이끌어갈 사람인지 이끌려갈 사람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영학과			2	
전형명	고교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6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면접실 바로 옆에 대기실이 있고, 수험표와 신분증, 면접 준비자료와 간단한 음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가방에 넣어 제출. ◆ 가수험번호 순서는 접수순서와 일치했고, 2번이어서 입실 시간이 끝난 후 바로 밖에 나가서 의자에서 대기. 내 차례가 되자, 조교가 “가수험번호 00입니다.”를 외친 후 면접실에 입실. ◆ 면접관은 세 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라인드 면접으로, 성명, 학교 이름 언급 금지. ◆ 교복 착용 금지. ◆ 신분증, 수험표 필요. 				

질문 및 답변 내용

Q : 3년 내내 경영학과를 지망했는데, 피구 동아리나 과학 동아리, 수학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흥미 때문인지 아니면 경영학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

A : 우선 과학 동아리부터 말씀드리자면, 2년 동안 과학 동아리를 하였는데, 그 계기는 과학실험을 설계하고, 예상되는 결과를 추측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하게 되었습니다. 2학년으로 진학하며 과학 동아리를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였지만, 과학 동아리 활동이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데 적합한 역량을 기르는 데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Q : 어떤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었나요?

A : 첫 번째로, 분석적 사고를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케팅을 배울 때는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실험을 진행하며, 그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무엇일지를 분석해보며 분석적 사고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협동 정신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과에는 특히 조별과제가 많기 때문에 협동 정신이 중요합니다.

Q : 과학 동아리에서도 협동 정신을 기를 수 있나요?

A : 과학실험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 동아리에서 부스 운영을 하며 협동 정신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 협동 정신은 피구동아리나 수학동아리 모두에서 기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 네. 그렇습니다.

Q : 그냥 흥미 때문에 한 것인지 경영학과에 도움 되려고 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뭐, 답변이 된 것 같네요. 2학년 때 수상 경력이 매우 많은 데 한 학교에 200여 명 정도면 큰 학교 같아요. 대상은 몇 명에게 수여되나요?

A : 1명입니다.

Q : 1명이요? 다양한 동아리를 많이 한 것이 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나 보네요. 독서 경시대회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A : 저희 학교에서는 3권의 필독 도서가 주어지는데,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후, 책 내용을 요약하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Q : 그럼 어떤 책이었나요?

A : 음..., '순이 삼촌'이랑...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Q : 영어 기사를 보고 모르는 단어를 정리했다고 하였는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고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몰랐던 단어 한 단어만 말해주세요.

A : 소비자 가격이 오르면 그 소비가 줄어든다는 기사였던 것 같은데, 경제 기사라 모르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그 중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Q : 영어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작문해보았는데,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 정도로 말해주세요.

A : 첫 번째로, 제 장점은 꼼꼼한 분석적 사고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타이머 올림)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교육과		○		
전형명	고교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6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즉석에서 가번호 부여, 가번호와 실제 면접 순서 또한 다름. 모두 랜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생기부에 에르디아 형식의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설명해보세요.

A : 에르디아 형식의 토론이란 비경쟁식 토론으로, 찬, 반을 나누어 서로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토론 과정입니다.

Q : 그렇다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 지금 나와 함께 에르디아 형식 토론을 해봅시다. 학생 의견을 말해보세요.

A : 저는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해주기 위해 화장을 하는 것을 허락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화장을 해서 학교별 교칙을 어겨 학교의 분위기를 흐린다면, 교사로서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생기부에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좋은 분위기를 만들'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점도 있을 거 같은데 다양한 관점에서 말해보세요.

A :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을 개진한다면, 교수님의 말씀대로 분위기가 오히려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제 의견과 절충해서 의견을 냈으로써 친구들의 동의하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기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 할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컨셉...? 이신 교수님이 여기에 계속 반박하시고 꼬리 질문하셨어요)

Q : 초등이랑 중등교육의 차이점과 자신이 교사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A : 저는 초등교육에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을 근거로 급격한 인지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인지발달에 초점을 맞춘 교육, 중등교육에서는 지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 사고력을 확장시켜주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이화여대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GSP 프로그램 등...) 섞어서 답변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대학에서 하고 싶은지 꼼꼼이 생각해보고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감 있는 태도와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교수님들께서 무서우신 표정으로 끊임없이 제 답변을 반박하셨는데, 이때 곧바로 교수님의 의견을 재반박하기보다는, 우선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의 의사를 표현한 다음, 비판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당황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했던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정치외교학과			
전형명	학생부 교과 - 고교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6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학과 지원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접수번호 순서대로 대기함. ◆ 앞에 앉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함. ◆ 대기 인원 절반 정도 면접이 진행되면 15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함. ◆ 순서대로 1명씩 면접실 앞에 앉아서 대기함. ◆ 교수님과 3:1로 면접함. ◆ 타이머를 맞추어 면접을 진행함. ◆ 마지막 답변 중 타이머가 울리면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시간을 더 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번호가 끝 번호이면 대기시간이 지원 학생 수 대비 3~4시간 정도이기에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을 조금 챙기는 것이 좋음. ◆ 금지 물품 수거 시간 전까지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기에 가족에게 면접 순서에 따른 대기시간에 대해 연락을 할 수 있음. ◆ 대기시간, 면접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준비한 자료를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 동기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세계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에게 연민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국제기구 종사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난민'이라는 주제로 협약과 국제기구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세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탐구하면서 각국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세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함을 느끼며 정치외교학과에서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하고자 다짐했고 더 나아가 외교와 국제 정치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국제기구 종사자가 되고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했습니다.

Q : 정치외교학과가 진로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 : 비교 정치를 통해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파악하며 주변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문제 해결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이론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어 난민에게 단기적인 봉사를 통한 인권 보호를 넘어서 장기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난민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난민 문제는 전 지구적인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나가야 하는 세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난민은 합당한 원인으로부터 생기는 공포로부터 그들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정치, 경제, 외부세력 등

다양한 원인이 결부되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멘 난민 사건이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기 보다는 그동안 부족했던 난민 보호 체계에 대한 개선과 보편적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칸트의 환대권과 같이 난민 보호의 의무가 난민의 인격을 그 자체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전 세계의 보편적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난민이 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면 난민 보호 거부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생활과 윤리 시간을 인상 깊게 보낸 것 같은데, 칸트 이외에 진로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은 학습 내용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A : 노자의 상선약수를 통해 겸손과 부쟁의 덕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고 관계성을 통해 국제 합의에 적용받는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대기실에서 조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 ◆ 차분히 순서에 따라 준비된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중간에 교수님의 반응에 휘둘러 평정심을 잃고, 준비한 대답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기도 했지만, 평소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하고 학생부를 충분히 파악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자신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체육과학부	○		
전형명	예체능 서류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수험번호 순서대로 대기 -> 차례가 되면 입실. 면접관 3명		
유의사항	◆ 대기실에서 개인 자료 볼 수 없음. ◆ 블라인드 면접이 아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A : 스포츠 마케터를 꿈꾸었는데 이화여대 체육과학부는 다른 학교의 체육 관련 학과와 달리 스포츠 경영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지원하였습니다.

Q : 전교 회장 이력이 있는데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 대인관계가 좋은 점이 리더십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 자신의 대인관계가 좋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대인관계가 좋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Q : 자랑스러운 00인의 상을 왜 어떻게 받았나요?

A : 자랑스러운 00인의 상은 00 교육 이념인 지덕체를 갖춘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상점과 체육 점수 그리고 교과 성적 기준에 맞추어 그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 가장 자신 있는 운동 종목이 무엇인가요?

A : 저는 만능입니다. 특히 구기 종목을 잘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이 5분밖에 되지 않아서 서류가 중요한 것 같음. 그리고 최저 맞춰야 하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길.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전형명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6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과 수험생 3:1 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진행(교복 착용 금지) ◆ 대기실 내에서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초등교육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하란사 선생님과 유관순 열사의 일화를 듣고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초등교육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하란사 선생님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 유관순 열사에 대해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란사 선생님과 일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 중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나요?

A : 저는 숲사랑 동아리에서 1학년이지만 동아리 부장을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동아리 활동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선후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결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Q :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올바르게 않은 행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단호하게 말한다면 학생을 교화시킬 수 있겠지만,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화에서 명령형보다는 권유형이나, 청유형으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여 교사의 화법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저의 단점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Q : 정보화 사회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최근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사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비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미리 숙지하여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도입될 여러 제도들로 혼란이 많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교과 성적이 조금 낮아서 불합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화여자대학교는 면접관분들이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아서 면접할 때 세 분 모두와 아이컨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이화여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엘텍공과대학 화학신소재공학전공			
전형명	고교추천 전형(교과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유롭게 준비해온 자료를 볼 수 있음. ◆ 화장실도 조교분들에게 말하고 금속탐지기로 확인 후 갈 수 있음. ◆ 입실 시간 지나면 입실 불가 ◆ 소리 나지 않는 음식물 섭취 가능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꿈이 화장품 연구원인데 왜 화학신소재공학과에 지원했나요?

A : 화장품의 성분은 거의 다 화학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제품을 생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제품 공정 과정에 대해 배우는 공학 과목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 물리1 시간에 태양전지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용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A : p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가 3개인 원자를 도핑하여 양공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반도체입니다. n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원자를 도핑하여 남는 1개의 전자가 이동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태양전지에 이 반도체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냐면... 이 부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이라고 괜찮다고 해주셨음.)

Q : 제2외국어로 무슨 과목을 선택했나요?

A : 중국어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Q : 중국어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데 왜 그런가요?

A : 아무래도 전공과 관련된 수학, 과학에 좀 더 집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과목 수업 시간에는 그 어느 수업보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Q : 자유에너지를 엔탈피나 엔트로피로 나타냈다고 하는 이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A : $\Delta G = \Delta H - T\Delta S$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Q :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A : ΔH 는 엔탈피를 나타내고 ΔS 는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엔트로피를 나타냅니다. ΔG 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 자발적 변화이고 ΔG 의 값이 양수가 나오면 비자발적인 변화입니다.

Q : 비스페놀 a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이 성분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이 성분은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또한 영수증에도 사용되지만 유해성분이라 요즘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분이 위험한 이유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세포들이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NA가 손상되거나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 이 전형은 학교에서 몇 명만 추천받을 수 있는데 추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3년 동안 학급 반장과 학생회부장을 맡아오면서 인정받은 제 리더십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때 길러온 리더십을 통해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한다면 세계를 이끄는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 양성평등 글짓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썼나요?

A :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우유 당번이 여학생이었는데 원래 같으면 힘쓰는 일은 남학생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가 잘 해내는 것을 보면서 여자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자와 남자는 정말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나요?

A : 2학년 때 이화여자대학교의 캠퍼스 투어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벽보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는 이화의 자부심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이화여자대학교의 화학신소재공학전공의 홍보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설학과이지만 그만큼 시대에 맞는 트렌디한 커리큘럼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꼭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학과는 잘 모르겠지만 전공 질문보다는 인성 질문이 많았습니다.
- ◆ 생활기록부를 그 자리에서 읽고 바로 질문을 하는 것 보니 딱히 질문을 미리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 ◆ 모르는 질문이 나와도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련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하면 좋게 봐주시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면 더 집중해주는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		
전형명	간호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제시문 1분, 면접 14분) - 면접관 2 : 지원자 1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확인한 후, 임시번호대로 자리 배치. 휴대폰은 전원만 끄고 거두지 않으며, 준비한 자료 열람 가능. ◆ 면접 도우미 선배님들이 분위기 풀기 위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하면 모두 답해주시며, 면접 끝나면 바로 귀가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형 교과 전형 (특정 과목 당 상위등급 3개만 반영. 1등급이 많은 친구가 유리한 전형) ◆ 교복 입어도 되지만 마크나 식별 가능한 것들은 노출 금지. ◆ 대기실에서 면접 서류 작성하고 라벨지에 수험번호와 이름 작성해 들고 들어가서 면접관님들께 하나씩 제출. ◆ 고사장 앞에서 앞사람 1분 남았을 때부터 제시문 열람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A : 중학교 생명 수업 시간 중 소화, 호흡, 순환 과정에 대해 배우며 흥미를 느껴 의료계를 꿈꾸게 되었고, 많은 의료인 중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유까지 제공하는 간호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백병원에서 다양한 케이스와 중증도의 환자를 접하여 간호사로서의 커리어를 쌓고 싶어 인제대학교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간호학과를 위한 노력?

A : 간호학과를 오기 위해 한 노력은 교과적, 비교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교과적인 노력은 아무래도 인체에 관련된 부분이기에 생명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과과정에 포함된 내용뿐만 아니라 항상성 유지 수업 중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pH 항상성 유지 기작에 대해 왜 배우지 않는지 호기심을 느껴 주체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기도 했으며,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일반적인 혈액형 이외의 희귀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생명과학2를 선택하여 이수함으로써 심화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등급 질문)

비교과적인 부분에서는, 우선 보건선생님께서 운영하는 보건의료반에 들어가 근육주사 실습, 의료윤리 토론 등 간호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습니다.

Q :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영어도 중요한데, 영어에 관련된 노력은?

A : 사실 저의 영어 내신 등급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암기형 영어에 굉장히 약했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어 토론 대회에 나가서 핵원자력에 대해 영어로

토론하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영어로 직접 말해보며 조금이라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성적 상승까지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꼬리 질문 있었음. 등급 상승에 관한 질문. 긍정적인 반응)

- ◆ 제시문 질문의 내용은 밝힐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성 관련 내용이라 볼 수 있고 자기소개서 3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들어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답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 정말 사실 확인용 질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사실상 앞의 질문들은 간단한 기초 작업이고, 제시문에서 많이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주셨고, 실제로 마지막에는 면접 준비를 굉장히 잘한 것 같으며 칭찬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당당하게 최종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시문 면접에서 강점을 잘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답을 반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 ◆ 면접 준비 과정 (생기부 기반 면접 기준)

1. 수만휘 같은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해당 대학교와 학과 면접 후기들을 찾아 메모장이나 한글파일에 기출되었던 모든 질문을 정리하세요.
2. 그 모든 질문에 자신이 답을 어떻게 할지 큰 틀만 짜서 간단하게 단어 위주로 답을 작성합니다. (이때, 절대 줄글 형식으로 답을 다 적어두고 달달 암기하는 형식은 피하길 바랍니다. 실제 면접 시 당황해서 암기한 대로 말하기 힘들뿐더러 핵심 단어와 흐름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3. 자신의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기부에 적힌 모든 활동은 반드시 내용과 느낀 점 혹은 배운 점은 반드시 껴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진실로 한 활동이라면 간단히라도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1, 2, 3학년 때 수행평가든 발표든 대회든, 자신이 한 활동들에 관련된 파일과 느낀 점들을 정리해뒀다면 더 편하겠죠.)
4. 그중 인상 깊은 독서와 봉사활동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물어봐도 된다고 해도 무방하니 꼼꼼히 준비하도록 합니다.
5. 필자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를 두고 한 활동과 주체적으로 설계부터 실험까지 직접 해보았던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 및 느낀 점들을 떠올렸습니다.

- ◆ 면접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해 조금 더 자세하게 적겠습니다

1. 복장: 필자는 상의는 흰색 맨투맨에 회색 카디건, 하의는 슬랙스, 신발은 컨버스를 신고 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기장 도착하니 블레이저부터 재킷, 롱패딩에 맨투맨까지 다양하게 입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지 않되, 공손하게 보일 수 있는 복장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화장: 필자는 눈썹만 단정하게 다듬고 그리고 갔습니다. (깔끔한 인상을 위해) 입술도 웬만하면 립밤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게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3. 면접 태도: 인사는 위에서 적었듯이 의자 옆에 서서 말로 인사 후,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을 원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또한 면접관님이 2명인 관계로 시선 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은 두 분이 번갈아 하시지만, 시선은 두 분을 골고루 나누어 마주쳐야 합니다. 손동작은 간결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표정은 가벼운 미소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진중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미소를 없애고 눈빛으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매력적일 것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도시건축학과	○		
전형명	INU교과전형			
접 형 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 3명으로 3:1 면접		
유의사항	◆ 유인물 참고 가능 ◆ 교복 착용 시에는 학교 마크를 가려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인천대학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5분 동안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2개 준비했으니 고민하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정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A : (고민 후 답변) 저는 건물에서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의 전자 점원과 같이 건물 내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점차 줄어들 것이며 AI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줄어들고 기계와 AI가 업무를 담당하는 건물이 많아질 것입니다.

Q : 2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은 50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이 공존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구도심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저는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시는 한 지역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의 한 미술관은 버려진 목욕탕을 재건축하여 이용하였고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산업유산들을 재건축하여 만든 다양한 건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충분히 도시의 매력과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건물을 못 쓰게 될 것 같아도 보존해야 할까요?

A : 못 쓰게 될 정도의 건물이라면 개발하는 것이 맞지만 충분한 매력과 잠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Q : 30초 남았네요. 보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말씀하여 주실 수 있을까요?

A : 저는 건물이 가진 매력을 살리며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경우에는 화력

발전소일 때의 모습을 80% 정도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물의 모습을 보존하면서도 충분히 매력을 만들 수 있고 미국에서도 고가철도를 이용한 공원이 있는 등 개발보다는 장점을 유지하는 보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글은 답변한 대로 썼지만 말을 많이 더듬었고 당황도 했다.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다.
- ◆ 자기소개, 포부와 같은 본인과 관련된 질문은 이제 하지 않는 듯하다. 건축과 관련된 질문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 교수님 모두 친절하시고 처음 접한 질문이어도 고민할 시간 30초 정도 주신다. 당황하지 않고 자기 생각 말하면 될 것이다.
- ◆ 5분 면접이라 본인 차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니 긴장하지 말고 면접에 임하였으면 좋겠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동북아국제통상학부	○		
전형명	학생부교과전형 (INU교과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전공적합성 질문)
	면접절차	◆ 면접관 수 3명, 질문 후 바로 대답하는 형식		
유의사항	◆ 신분증 및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한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와 이 학교에 진학 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A : 제 꿈은 국제통상전문가입니다. 특히 러시아 통상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저의 목표에 있어서 인천대학교의 현지 유학제도는 언어는 물론 현지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학, 외국어, 지역연구학 모두를 다루는 커리큘럼과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SONAS에서는 기숙사 생활과 활성화된 소모임을 통해 학부 내에 잘 녹아들 수 있고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학하게 된다면 영어, 제2외국어, 경제학 등 전공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소모임에 들어가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ISF'와 경제학 지식과 가치투자 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아르고나우츠'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언어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Q : 아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우리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A : 네, 한국통상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Q : 혹시 영어 자기소개가 가능한가요?

A : Hello, professor. I am honored to be here. I want to be an international trade expert. And I know my strengths in this goal. First of all, I've always been an arbitrator in group activities because I've been very good at communicating. Also, through an experience such as dormitory life and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I developed an attitude to communicate with people of different ages, personalities, and nationality. However, I still have shortcomings like a lack of foreign language skills and economic knowledge. But there is a SONAS to fill this gap, and I think I can grow even more based on my strengths from here. Thank you for listening.

Q :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 가계, 기업, 국가에 발생하는 장단점을 각각 말해주세요.

A : 먼저 단점으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무역에 중점을 두는 기업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취약한 산업 부분을 점검하고 보강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 지금까지 기업과 국가에 해당하는 장, 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계에서의 장, 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 가계에 있어서 단점으로는 교역량 감소로 수입품이 줄어들어 상품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수입품 대신 자국의 생산품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내수시장을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Q : 이 학교 말고 어디 어디 지원했어요?

A :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와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세종대 국제학부에 지원했습니다.

Q : 만약 여기 말고도 다른 학교에 붙는다면 거기 갈 거예요?

A : 아니요. 저는 인천대학교가 1지망이기 때문에 꼭 이곳에 올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과에 어떤 제도와 커리큘럼 있는지와 같이 지원한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함.
- ◆ 시사 질문 이외에는 기본적인 질문은 크게 변하지 않으니 작년, 재작년 면접 후기 등을 참고해 준비하면 도움이 됨,
- ◆ 영어 자기소개는 필수적으로 준비해 가야 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유아교육과	○		
전형명	INU교과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교직 적성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면접 ◆ 면접실 옆에 있는 면접대기실에서 대기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시간 동안 준비해온 자료 볼 수 있음 ◆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가수험번호를 지정해줌. ◆ 교복 착용은 가능하나, 학교 마크는 반드시 가려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인천대 유아교육과에 지원한 동기

A : 저는 아이들과 슬래잡기를 하며 뛰어놀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를 피아노로 쳐주는 등 뭐든지 함께하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 유아교육과에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국공립 사범대학교 중 유일하게 있는 학과여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학년 때 더 알아보니 인천대학교의 '자연친화유아교육'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것이 제 교육관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인천대학교에서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A : 저는 '듀이'라는 교육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듀이에 대한 책을 읽은 적 있는데 듀이는 학교나 교육기관을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훈련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절이 제게는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교사는 아이들을 믿고 뒤따라가 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듀이의 말에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인지 듀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

A : 초등교육은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 교탁이 존재하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에게는 선생님과 거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아교육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동등한 눈높이 상에서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특징을 발견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을 희망한 것이기도 합니다.

Q : 교권침해의 원인과 해결방안

A : 교권침해의 원인은 교사에 대한 존중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침해는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 나타나는데 예를 들자면 학부모와 교사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생활지도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올린다가나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우선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동아리 활동을 확대해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월, 처음 학부모와 교사가 만나는 시간에 교사의 생활지도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가 서로를 이해하며 공존하는 학교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대기실에서 다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 면접대기실에서는 긴장이 돼서 자료 내용이 눈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냥 긴장 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면접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할 때도 언니들이 긴장 풀어주고, 교수님들도 다들 답변에 호응해주시면서 많이 웃어주셨습니다.
- ◆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나올 때 의자에 안 걸려 넘어지게 조심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정보통신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자기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진로가 3년 동안 같은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언제부터 그랬는가?

A : 제 성격이 무엇인가 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정하는 편입니다. 진로를 정할 때도 앞으로 이 분야가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로 확정했던 것 같습니다.

Q : 그러면 정보보안전문가가 되려고 했던 계기가 있는가?

A : 현재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모든 것이 통신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커의 공격을 받게 되면 여러 악용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제 주변 사람이 랜섬웨어에 노출된 적도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상의 문제들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는 직업군이 정보보안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진로로 삼게 되었습니다.

Q : 그렇군. 그러면 진로랑 관련해서 한 활동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저는 보안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보안과 관련된 지식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래밍과 같은 소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수업인 프로그래밍 수업에 참여해서 파이썬에 대해서 배우고 파이썬을 햄스터 로봇에 적용시키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근 교육대학교에서 정보보안캠프를 실시해서 신청하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캠프에서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패킷을 붙잡는 활동을 하고, 공개키 암호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RSA 암호에 대해 공부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미래에 할 것을 미리 체험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Q :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컴퓨터공학과가 아닌 정보통신공학과에 온 계기는 무엇인가??

A : 제가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코딩을 하면서 오류를 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햄스터 로봇이라는 하드웨어에 근접 센서가 당연히 양쪽에 있는 줄 알고 코딩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면의 왼쪽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감지가 빨리 돼서 오류가 났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빗대어 봤을 때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코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다루는 정보통신공학과가 저에게 꼭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Q :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 UCC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기억나는 영상 있어요?

A : 네. 제가 학생회 홍보부장으로 활동했었는데 학교 홍보를 하기에는 기회가 적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학교의 자랑거리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입생 유치할 때도 사용되었다고 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입니다.

Q : 이제 우리 학과에 오면 수학 물리 과목이 중요한데 수학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떨어졌어요. 기억나는 단원 있어요?

A : 저는 미적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했지만, 프로그래밍 응용 부분 중에서 게임개발을 할 때 어떤 투사체의 움직임을 미적분으로 구현할 수 있듯이 제 진로에도 꼭 필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다른 부분도 말해보세요. 진로랑 관련된 부분.

A : 지금 기억나는 건 수학적 귀납법 단원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프로그래밍의 알고리즘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있는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조건과 n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n+1번째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두 건이 만족했을 때 첫 번째 있는 도미노가 쓰러지면 모든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처럼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 네 좋아요. 생기부를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A : 네, 제가 아침 시간에 주로 독서를 해왔는데 제 진로에 도움이 되는 책들은 많이 읽었습니다.

Q : 아주 좋은 자세예요 대학교 와서도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추천해보고 싶은 책이 있어요?

A : 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만들다'라는 책이 기억에 남는데, 이 책은 작가가 미국의 IT업계인 실리콘 벨리에서 몇십 년간 일하다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을 얘기한 책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TOP DOWN 방식과 BOTTOM UP 방식을 비교한 부분인데 탑 다운 방식은 설계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바텀업 방식은 무작정 일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건축과 같은 분야는 당연히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겠지만 IT분야에서는 무작정 코딩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서도 시작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이 책에서 또 실습 위주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 역시도 이론적으로 정보를 얻을 때보다 실습 위주의 활동을 했을 때가 좀 더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Q :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소서 못 담은 내용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A : 이 학과에 들어오면 4학년 때 정보보호시스템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과목 소개에 보면 소인수분해 기반의 암호를 배운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RSA 암호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암호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고 현재 인천대학교는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섯별과도 같은 대학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인천대학교에 저도 기여를 하고 싶고, 입학하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학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저의 생각을 포박포박 말했고 모르는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교육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인하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 시간 동안 간식 먹을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3학년 소셜포럼 동아리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담은 표 해석의 내용을 말해주세요.

A : ‘초등학교의 증가’라는 표를 담았습니다. 실제 저소득국가에서 초등학교라는 교육 시설은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실질적인 배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내용들을 표로 작성해 분석해보았습니다.

Q : 가장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말해보세요.

A : ‘자전거 도둑’이라는 문학 작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감정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복합적인 감정이 공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극적인 순간이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탐구 활동을 말해보세요.

A : 학습몰입과 수업 변인과의 관계연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탐구 활동들과 달리 어떠한 논문이나 서적을 참고하지 않고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설정했던 가설과 결론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제가 설정했던 가설은 ‘학습몰입에 교사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였지만 실제 결론은 ‘학습몰입에 학습자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였습니다.

Q :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관련 탐구 활동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A : 사회문화 시간에 교육제도를 갈등론적 시각으로 해석한 것을 보고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평등을 추가적으로 탐구하던 중 핀란드의 평등 교육에 대해 알게 되었고 비교탐구 활동을 하면서 나라마다 복지제도 사회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Q : ‘프로이트 악몽을 꾸다’ 책을 읽고 줄거리

A : 이 책은 주인공이 프로이트를 실제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프로이트의 꿈에 대한 해석 혹은 분석심리학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은?

A : 인하대학교 교육학과에 진학한다면 정보화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교육정책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 시간이 짧을수록 더 꼼꼼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아태물류학과	○		
전형명	인하미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수학 성적이 1학년 때에 비하면 많이 올랐네요. 비결이 뭐예요?

A : 오답 노트뿐만 아니라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공부함.

Q : 전교 회장도 했네요. 대인관계 어떻게 노력했어요?

A : 대의원회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 갈등을 중재함. 평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중재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자주 함.

Q :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화제인데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A :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지금의 무역전쟁에서 중간재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위험이 큼. 반면에 소비재 수출은 10%에 불과하므로 신흥국 등으로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함.

Q : 자소서 1번 타이틀이 매우 인상 깊네요.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인데 경쟁과 협동이 동반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 : (1번 내용이 협동으로 성적을 올렸다는 내용이었음) 경쟁과 협동이 동반될 수 있다고 답변함.

Q : 협동과 공정무역의 공통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의류디자인학과			
전형명	인하미래인재(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입실⇒면접 실시⇒종료⇒퇴실		
유의사항	◆ 고사장 내 시계(아날로그, 디지털), 전자기기 사용 불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대기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A : 많이 싸늘한 것 같습니다. (웃음)

Q : 다문화 멘토링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나요?

A : 처음에 활동할 때에는 멘티를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멘티에게 부담이 되고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부족한 점과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Q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 : 멘티가 처한 주변 상황과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틀리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해 제 단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Q : 패션 MD와 패션 Creative Director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 패션 MD는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의 패션 마케팅을 다루는 직업이라면, 패션 Creative Director는 브랜드 전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의류에 적용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A : 모두 종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네스크 양식은 종교의 권위가 강해지는 시기로 장엄하고 엄숙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복에서도 노출을 최소화하되 신체를 드러낼 수 있는 밀착된 실루엣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딕 양식의 경우 신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더욱 높고 뾰족한 형태의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의복의 작은 디테일과 전체적인 형태에서도 뾰족하고 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Q : 영화 의상을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직접 옷을 제작한 거예요? 아니면 스케치? 그리고 어떤 의상을 디자인했는지 설명해주세요.

A : 미술 시간에 젠탱글 기법을 이용하여 영화 의상을 스케치하였습니다.

Q :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래요?

A : 젠탕글을 이용하여 영화 속 인물의 개성을 담은 패턴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춤을 추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옷의 패턴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더욱 경쾌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Q : 의류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무엇을 하였나요?

A : 국어 시간 설명문과 사회 탐구 대회를 통해 패션 산업의 비윤리성에 대해 탐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류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패션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였습니다.

Q : 패션 스터디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해주세요.

A : 주로 패션 스크랩 활동을 하며 스타일과 의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는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공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의류 전문 서적을 참고하여 의복의 제조 과정, 소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Q : 직접 의류를 제작해 본 경험은 없나요?

A : 직접 옷을 제작해 본 경험은 없지만 기존의 옷을 새롭게 리폼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 답변이 아니더라도 다른 활동으로 어필하는 자세가 좋다.)

Q : 가장 인상 깊은 책에 대해 소개해 보세요. (7분 조금 지남)

A : 저는 '나는 나를 입는다'라는 책을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예쁘다'를 작가만의 방식으로 정의한 것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외향적으로 화려하고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스타일이 진정으로 예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관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답변할 것(신뢰도 상승)
- ◆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면접에 대비하는 것보다 꾸준히 틈틈이 시간 날 때 조금씩 해두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음.
- ◆ 거창하게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자신이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전달하는 것이 좋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인하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기공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인하미래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이내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 대기실 > 복도에서 대기 > 교수님들과 2:1 면접 > 퇴실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전자기기 다 꺼서 가방에 넣기 ◆ 아날로그 및 디지털 등 모든 시계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생을 보면 물리1, 물리2에서 성적이 좋네요. 물리 과목에서 가장 흥미가 있던 부분과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요.

A : 저는 물리1에서는 전자기유도, 다이오드 부분에 흥미가 있었고, 물리2에서는 포물선으로 던진 물체에서 일어난 운동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운동에서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보면 등속도운동, 등가속도운동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Q : 패러데이 법칙이 무엇인가요?

A : 패러데이 법칙이란 기전력의 세기가 회로의 자기력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하고 코일을 감은 횟수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Q : 패러데이 법칙이 이용된 실생활 예시와 원리를 말해줄 수 있나요?

A : 버스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리는 버스 카드 모서리에 전선이 여러 번 감겨있어서 코일의 역할을 하게 되고 버스 카드 단말기에서는 주기적으로 세기가 변화하는 자기장을 내보냅니다. 이때 버스 카드를 단말기에 가까이 가져가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자기력선속이 변화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가 IC칩을 작동시켜 정보를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Q :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BC'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들을 구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반도체는 그 자체로 첨단기술제품이고 반도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4차 산업혁명을 단편적으로 ABCI 라는 기술로 표현하는 것은 좀 아쉽네요...

Q : 반도체가 사용되는 예시를 말해주세요요

A : 반도체는 일상생활 많은 곳에 사용되지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됩니다.

Q :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A : 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지, 판단, 제어 3가지 기술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인지, 판단, 제어 3가지 기술 모두에 반도체가 사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전기공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대학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우고, 한편으로는 지식을 넓혀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반도체에 관한 교과목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그리드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해주세요.

A : 저는 독거노인 분들께서 저희에게 관심과 뭐 하나라도 챙겨주려는 마음에 보답해드리고자 폐유로 재생 비누를 만들고 나눔장터에 팔아 수익금으로 다양한 물품들을 선물로 드린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재생 비누를 처음 만들어봐서 주걱으로 오랜 시간 씻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노인 분들에게 물품들을 전달해줬을 때 노인 분들의 표정에서 큰 뿌듯함을 느꼈고, 인류를 위해 힘쓰는 연구원이란 목표에 한 발자국 나아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의 첫 봉사활동은 중학교 때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개집들을 청소하고, 밥도 주고 담요들도 교체해주었는데 봉사활동이 끝나고 제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계속 따라오고 저에게 보낸 눈빛이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자면 고맙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동물이든 사람이든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3년 동안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Q : 개인적으로 한 건가요?

A : 아닙니다. 교내 동아리와 지역단체와 협약을 맺어 4명씩 조를 이루어 3년간 한 가정에 봉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Q : 지역단체라면 어떤 단체인가요?

A : 지역 주민센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Q : 시간이 다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A : 마지막으로 할 말 해도 될까요?

Q : 네, 하세요.

A : 반도체 산업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반도체의 수요는 반드시 증가할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잡아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장로회신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신학과				
전형명	학생부우수자(학생부교과)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 대기 - 면접실 - 교수님과 2대1 면접 - 퇴실			
유의사항	◆ 왼쪽 가슴에 수험표 부착 ◆ 신분증 필수 ◆ 대기실 내 휴대폰 사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해보세요.

A : 저는 소외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고 싶은 ○○○입니다.

Q : 우리 학교를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 교회 고등부 전도사님께서 이 학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종종 '신학 하려면 장신(장로신학대학교) 와야지'라는 농담을 하셨고 이를 계기로 장로회신학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Q :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오는 데 몇 시간 걸렸나요?

A : 아버지께서 차로 데려다주셨습니다. 차가 밀려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Q : 가게 이름이 ○○컴퓨터인데 본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가요?

A : 네 제 이름을 따서 지은 가게입니다.

Q : 부모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나 봅니다. 동생이 있나요? 이름이 무엇인가요?

A : 아래로 남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은 저랑 이어지는 ○○입니다.

Q : 앞으로 장신대에 진학하면 여성 목회자가 되는데 앞으로의 비전이나 목표가 있나요?

A : 아직은 뚜렷한 목표나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신대에 진학한다면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서 말을 한 비율이 내가 50% 교수님 50%입니다. 그래서 딱히 부담 없이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고분자 융합부	○		
전형명	농어촌 교과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블라인드 면접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Q : 영어 성적이 좋은 비결은?

Q : 의미 있게 수행한 봉사 활동은?

Q : 봉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Q : 친구들과 갈등 해결 방법을 설명하시오.

Q : 성적이 하락한 이유는?

Q :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교 면접 특강에 열심히 참여할 것.
- ◆ 면접 준비는 매일매일 해야 까먹지 않습니다. 생기부 내용을 계속 읽으면 교수님들이 면접에서 무엇을 물을 것인지 어느 정도 보이게 됩니다.
- ◆ 생기부에서 모든 내용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설명해보는 연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 ◆ 지원동기는 가급적 외워야 하고 수상기록, 성적변화 같은 질문도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떨지 말고 차분하게 말하기 위해 연습 철저히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에너지자원공학과			
전형명	고교생활우수인재전형(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면접실		
유의사항	◆ 시간 맞춰서 가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우리 학과와 관련하여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A : 사전에 준비한 내용으로 답함

Q : 수상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상은?

A : 과학 자율 탐구대회

Q : 과학 자율 탐구대회에서 무엇에 대해 탐구했나?

A : 생활화학 제품의 세균 제거 효과를 주제로 실험과 탐구를 하고 발표를 했다고 함.

Q : 이 활동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나?

A : 자료수집, 실험 그리고 발표를 했다고 함.

Q : 신문부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나?

A : 학교 내의 문제나 지역사회의 문제나 이슈에 대해 기사를 쓰고 신문을 발간하는 활동을 했다고 함.

Q :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 활동은?

A : 멘토-멘티 활동

Q : 에너지연구원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A : 사전에 준비한 내용으로 답함

Q : 갈등 관리를 한 경험이 있다면?

A : 학급 반장을 하면서 반 티를 정할 때 생겼던 갈등을 해결했다고 함.

Q : 결국엔 반 티를 어떤 것으로 결정했나?

A : 바르셀로나 유니폼으로 결정했다고 함.

Q : 기억에 남는 강연이나 행사 활동이 있다면?

A : 경주박람회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 사전에 준비한 내용으로 답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전남대학교의 경우 면접관이 세 분이 계신다. 면접관분들이 되게 친절하시고 호응을 잘해주신다. 이 점에서 나는 긴장이 풀렸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볼 수 있었다.
- ◆ 서류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서 생기부 위주로 질문을 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큰사람)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생각할 시간 5분을 먼저 줌)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 : 학생 → 3:1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 면접 자료 허용				
질문 및 답변 내용					
<p>□ 인성 제시문</p> <p>Q1 :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하면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하세요</p> <p>Q2 : 인터넷에서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권 침해가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중요시할 것인지 설명하세요</p> <p>Q2 선택</p> <p>A : 인터넷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란 인터넷상에서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 할 수 있는 수단 즉 문자, 사진, 동영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릴 때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는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유는 박탈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p> <p>□ 잠재능력 제시문</p> <p>Q1 : 주기율표에 관해 설명해보세요.</p> <p>Q2 : 수소에너지의 장단점에 관해 설명해보세요.</p> <p>Q2 선택</p> <p>A : 수소에너지란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형태로 수소에너지의 대표적인 활용으로는 수소연료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먼저 무공해라는 점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연소시켜 최종산물로 물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소라는 연료의 특성상 고갈될 위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화석연료를 보았을 때 '가채연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소는 물을 분해해도 얻을 수 있고 그만큼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고갈될 위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p>					

으로는 연비가 좋다는 점인데 수소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연비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정성이 확보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학자들끼리 논의를 했을 뿐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소전기차의 배터리인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촉매로 백금을 사용하는 데 이때 백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소차의 가격 또한 상승하여 특권층 또는 소수층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시문 발표 끝나니까 제시문에 대한 질문을 안 하고 바로 생기부로 넘어가심

Q : 이거는 준비해왔을 것 같은데 3년간 꿈이 수의사인데 생물교육과를 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수의사라는 직업을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동물과 생명과학을 좋아한다는 점과 신문에서 봤던 산업동물의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과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기술의 윤리적 고찰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소비할 미래의 소비자들을 가르치고 문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Q : 실험 중에 대학과 연계한 실험이 있나요?

A : 네 있습니다.

Q :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A : 지역대학과 연계한 R&E 연구의 주제는 환경 스트레스가 허브의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작 변인을 환경 스트레스로 정하고 각각 가뭄의 건조구, 홍수의 수해구, 과다영양집적구, 대조구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육의 정도나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방어물질 즉 멘톨과 같은 방어물질의 성분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가설이 맞음을 알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방향성이 그저 줄어들기만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 실험 결과는 맞게 나온 것 같은데 본인이 가설과 다르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우리 집에서 농사를 지어서 저는 환경 스트레스가 생육 정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분 또한 그러리라 생각했지만, 그때에는 방어물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이후 방어물질에 대해서 더 공부하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 전북대학교는 제가 알기로 대학 중에서도 높은 레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자체도 사대의 특성상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전북대학교에 면접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앞으로 선생님이 될 저의 인생에 전북대학교를 입학하는 것은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학교에 꼭 입학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제시문 기반이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감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어떤 주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려고 평소에 노력해주세요. 면접 준비 기간에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기에는 벅차고 힘듭니다. 평상시에 어떤 주제든지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면접이라고 생기부를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제시문 끝나고 생기부도 보기 때문에 생기부 속지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신문방송학과		1	
전형명	농어촌 학생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소집실에서 간단한 설명 듣고 학과별로 대기실로 이동. 휴대폰 등 전자기기 제출하고 대기 모든 면접 전형이 같이 대기함. ◆ 순서가 되면 면접실 옆 방에서 제시문 5분간 종이에 구상. ◆ 인성 제시문 2개와 잠재능력 제시문 2개 중 각각 택 1. 종이 면접실에 들고 들어갈 수 있음. 면접관은 총 3명. 남2, 여1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대기실 대화 금지 ◆ 화장실 갈 때 진행요원 동행해야 함 ◆ 전자기기 제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제시문 질문부터 할게요. 먼저 인성 제시문으로 몇 번 선택했어요?

A : 1번 선택했습니다.

Q : 온라인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가 충돌할 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게 제시문임)

A : 저는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 한 번 올라간 정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잊혀질 권리의 보장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때는 모두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이 사실을 몰랐을 경우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아 제시문 부족한 거 질문은 나중에 (제시문 질문 2개 다 끝나고) 한 번에 할게요

A : 네

Q : 그럼 잠재능력 제시문은 몇 번 선택했어요?

A : 1번 선택했습니다.

Q : 인구감소의 원인과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A : 저는 우선 인구감소의 원인이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자립과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혼족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혼자 자립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가장에게 의지하던 가족 구조가 변화되기도 했고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이 제도적

으로 잘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의 영향으로는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세금이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노인은 많아지다 보니 그에 따른 부담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제시문 면접 끝나자마자 따로 꼬리 질문 안 하고 바로 생기부 질문 시작)

Q : 드라마 작가가 꿈인데 재미있게 본 드라마 있나요?

A : 저는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라는 드라마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Q : 왜 그 드라마를 좋아하죠?

A : 우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픽션과 적절히 섞여서 실감 나게 만들었고 극 중에 캐릭터들이 입체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악역이 하는 행동도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서 그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Q : 드라마를 굉장히 꼼꼼히 보는 편이네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누구예요?

A : 저는 백아 역의 남주혁 배우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보수적이었던 조선과 다르게 아이유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Q : 만들어 보고 싶은 드라마 장르 있어요?

A : 저는 현대 시대 문제를 잘 담고 있는 법정물이나 역사적 사실에 창의력을 더해 전하는 사극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Q : 근데 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했어요? 작가는 문예창작학과 이런 데가 더 맞지 않나?

A : 제 꿈인 드라마 작가가 매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직업이다 보니 미디어와 대중의 소통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그와 관련된 학문을 익히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Q : 드라마 작가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A : 초등학교 4학년때 통일 백일장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를 눈여겨보신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원고지 쓰는 법과 글쓰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작가라는 꿈을 키워오다가 영상으로 표현되는 방송작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소설과 드라마 영화를 많이 보며 스토리가 있는 창의적 글쓰기를 좋아하던 중 '나의 직업 방송작가'에서 드라마 작가의 역할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껴 최종적으로 드라마 작가로 진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Q : 소설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생기부에는 소설이 많이 없네요? (많은데 아마 국어 과목에서만 보신 것 같음. 소설은 공통에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본 소설이 뭐예요?

A : (당황함) 히카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밤'이라는 도서입니다. (원래는 살인의 문임)

Q : 밤?

A : 네

Q : 무슨 내용이에요?

A : 평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주인공이 잘못된 친구를 만나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자아를 찾아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Q : 영어가 많이 어려웠나 봐요?

A : 네... 비록 제가 영어 성적은 좋지 않지만 여러 수행평가나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영어에 흥미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이 열정을 이어나가며 더욱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A : 저는 전북대학교를 네이버에 '미디어 인강'이라는 것을 검색해보고 최용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라는 강의였는데 이해가 잘 되고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교수님의 강의를 직접 듣고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느낀 점 : 분위기 풀어주려고 하시고 편안하게 면접 볼 수 있었음. 말할 때 웃어주시고 끄덕여 주시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듦. 어려웠던 건 딱히 없었고 대답 침착하다는 칭찬을 들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제시문 위주라서 생기부 안 볼 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생기부도 꼼꼼히 보고 제시문은 그때 시사 문제 누구나 아는 이슈로 나오니까 시사 한번 쪽 훑어보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교육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한 조당 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수 3명, 질문 후 바로 대답하는 형식		
유의사항	◆ 무작위로 면접 순서가 정해짐. ◆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숙지가 필수임.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A : 어릴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며 특히 국어교육과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교육캠프를 통해 교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음을 느꼈고 학과 정보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전주대학교의 방학 특강과 프로그램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알맞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Q : 대학교에 개설된 캠프에서 모의수업과 역할극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엇을 느꼈는가?

A : 마이크로티칭 방식이었으며 모의수업과 역할극을 통해 교사는 학생을 별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길로 이끌어 가는 목적으로 선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Q : 독서토론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 주제는 무엇인가?

A : 초반에는 영상으로 '세다 토론'에 대해 익히고 토론자의 태도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 주제는 '교과교실제의 폐지'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면서 개선점에 대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토론 하니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 : 교지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뿌듯했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A : 교지를 디자인하고 기사를 써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입시 설명회에 학교 홍보용으로 사용된 점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교지를 통해 입시 정보를 제공받고 도움이 되었다는 친구들의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교지부원이 적어서 한 명당 2~3개의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Q : 전주에 국어교육과에 진학한 후 계획은 무엇인가?

A :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Q : 마지막으로 자기의 매력을 어필해 보세요.

A : 전주대 국어교육과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교재도 만들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질문이 매우 많았음.
- ◆ 끝까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제주대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의예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접수 - 대기 - 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교복 불가 ◆ 면접관 : 지원자 = 2 : 1 ◆ 가번호 추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동기부터 시작할까요?

A :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생동물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제주대학교 수의예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야생동물에게 처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방안을 살펴 보던 중 환경부 산하의 야생동물보호계획에 관해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서 야생동물 수의사가 그들을 위해 서식지를 보존하고, 종을 보존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교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대학교에서 동물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곳은 많지만 야생동물 보호 관리소를 운영하는 곳은 제주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대학교 수의예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그럼 야생동물에게 처한 위기에 대해서 말해볼래요?

A : 현재 다양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의 집 마당 앞에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새가 둥지를 틀 수 없을 만큼의 나무였는데, 그곳에 둥지를 튼 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아스팔트 위에 아기 새 두 마리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살 장소가 없는지에 대해 느꼈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공존을 해야 하는데, 아래에 있는 새들의 사체를 보니, 그들의 서식지가 얼마나 부족한지 느꼈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Q :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 학생회 임원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싶어요?

A : 저는 고1 때 외부 미술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회는 4시간 동안 야외에서 풍경화를 그리는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진들의 축사로 인해서 대회가 지연되고, 또 지연되다 보니, 시간이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만약 그 운영진이 현장에서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학생회를 운영한다면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문제점을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사람으로서 학생회를 운영해 나가고 싶습니다.

Q :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은 학생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A :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면서 한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다문화 학생이었고 중국에서 5년 정도 살아서 우리말도 안 통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음악을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기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 친구는 기타를 잘 친다고 소개하면서 점차 아이들을 유화시켜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활동에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각자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특기요. 만약 활동적이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 장점을 살리고 섞이게 도와준다면 그런 친구들도 분명 활동적으로 활동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친구들의 장점을 소개하고 그들을 유화시켜주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Q : 여기 성심요양원에서 오래 봉사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 있어요?

A : 성심요양원에서는 보통 청소와 천기저귀를 개는 일을 하고, 남은 30분 동안 위층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들의 식사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급식소까지 휠체어를 끌어드리는 일을 했는데, 청소보다는 할머니들의 휠체어를 끌어드리는 일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먹했는데 휠체어를 끌어드리면서 “할머니 손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다가가는데, 할머니들이랑 친해지자 한 할머니께서 “야, 이 뽕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봉사를 마치고 집을 돌아가는데, 많은 생각들이었습니다. 저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저는 봉사라는 것은 제가 노동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단지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봉사를 통해서 봉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각자의 스토리가 있구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구나, 봉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Q : 계속 궁금했는데 이 자소서 위에 있는 이 국민청원 속 보호소 신고 원인이 뭐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A : 보호소는 폐쇄 위기는 면했지만 아직 운영에 있어 어려움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보호소 주변 인근의 주민이 배설물로 인한 악취로 인해 불법 배설물 배출 건으로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보호소는 민간단체였고, 열악한 환경이었기에 대처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국민청원을 통해 보호소 폐쇄를 일단 막았습니다. 국민청원 결과 보호소는 다른 가축 시설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동물보호라는 목적이기에 불법 배설물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고 정부가 결과적으로 말해서 폐쇄는 막았습니다. 폐쇄는 막기는 했지만 아직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Q : 여기 봉사는 꾸준히 다닌 거예요?

A : 저는 1학년 때부터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제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1학년 때 기숙사 선생님께서 체험학습으로 가고 싶은 장소가 있냐고 물어 보셨고 제가 찾았던 다른 지역의 유기견 보호센터로 체험학습을 하러 가는 것을 제가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곳에 봉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봉사를 한 이후에 자소서에 있던 사건 때문에 다른 봉사에 비해 그렇게 꾸준히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Q : 하고 싶은데 못한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 저는 인생은 점묘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하는 모든 일은 저의 경험으로 점으로 되어 찍히고 그 것이 모여서 결국 인생이라는 한가지의 그림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주대학교에 면접을 보고 오게 된 이 경험도 정말 멋진 경험이지만 저에게 남은 저의 꽃다운 20대의 생활을 이곳 제주대학교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꼭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 한번하고 당당하게 어떤 말이든 꼭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오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제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식품영양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거의 모든 학생이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모든 학과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인 후 면접 장소로 걸어서 이동 ◆ 대기실에서 가번호 뽑고 대기(서류 볼 수 있으나 잡담 금지) ◆ 가번호 부르면 면접실로 이동 ◆ 식품영양학과와 화학 코스메틱학과가 같이 면접을 시행하였다. ◆ 교수님은 과마다 한 분씩 들어오시고 한 분씩 3질문 정도 하신다. 		
유의사항	◆ 교복 착용 안 되고 어떠한 짐도 면접실에 못 들고 감.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일단 저희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학과에 들어오고 싶은 동기를 말해 주세요.

A : 네, 저는 건강 식단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영양교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3학년 때 급식 안내 도우미를 하며 직접 불편을 해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잔반이 가장 적게 나온 반을 선정하는데 저희 반은 선정이 된 적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스스로 급식 설문지를 만들고 학급 친구들에게 급식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을 영양교사님께 전달해 개선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식단표 작성뿐만 아니라, 배식 방식과 조리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그러한 소통을 이끌기 위해서는 음식이 매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건강 식단에 이야기를 담는 영양교사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3년 동안 영양교사를 꾸준히 꿈꿔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 1학년에는 식품에 대한 단순한 흥미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의 공통 영역의 진로를 찾다가 영양교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2학년 때, 여러 가지 영양소 관련 실험과 교육봉사 동아리를 주체적으로 하며 '영양교사가 나에게 맞는 진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학년 때는 영양교사로서 자질을 쌓을 수 있도록 상처 회복식단을 직접 구성해보는 경험과 여러 가지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영양교사가 가져야 할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Q :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주변에 남자 영양교사가 정말 찾기 힘들잖아요. 혹시 남자 영양교사가 되려는 이유가 혹시 주변에서 가족 중에 영양교사가 있거나 학교 주변에 영양교사가 있었나요?

A : 아니요. 우리 가족 중에는 남자 영양교사는 물론 영양교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남자 영양교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올리지 못하는 영양교사님을 보며 저는 학생들과 소통을 통해 더 좋은 영양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직업의 성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영양교사를 꿈꾸었습니다.

Q : 봉사활동을 3년 동안 적은 시간을 하지 않은 거 같은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변하거나 느낀 점이 있으면 말 해 주세요.

A : 가장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봉사는 3년 동안 꾸준히 해온 한부모 시설 봉사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한부모 가정으로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절 성장하게 도와준 시설에 도움을 돌려주고자 꾸준히 봉사해왔습니다. 저는 이곳에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과 학업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학습 보조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느꼈던 불편함이 아직 많이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은 지원과 봉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이 시설 말고도 지역센터 등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봉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 (화학 코스메틱과 교수님, 면접을 2개의 과가 같이 봄): 수상기록을 보면 대상, 금상이 눈에 띄네요. 인성 감성 편지 쓰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A : 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절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제가 어머니께 느낀 감정을 편지에 녹여 썼습니다.

Q :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금상은 어떻게 받은 거죠?

A : (사실 과학 관련 상 중 무슨 상이 금상인지 몰라서 대답을 생각하는 척하다가 그냥 제가 제일 잘 말할 것 같은 걸로 골라서 얘기함) 저는 창의 융합과학대회에 참가하여 금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융합과학 대회는 같은 공간에 모여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가장 과학적이고 유용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제는 스파게티 면과 마시멜로를 이용하여 가장 안정적인 구조물 만들기였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시간에 배운 단단한 DNA의 이중나선 구조와 가장 안정적인 도형, 삼각형을 이용해 삼중 나선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의 이런 창의성과 순발력을 높게 보고 금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Q :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해 주세요.

A : (3초 정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옛말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나면 제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잘난 말이 되어 제주대학교를 이끌어가는 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동기는 진짜 필수니깐 거의 암기하듯 외워가자!
- ◆ 서류를 못 보게 하는 일도 있으니 주의할 것!
- ◆ 수험표와 신분증은 진짜 필수!
- ◆ 긴장 안 하려면 그냥 면접관은 동네 아줌마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 ◆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무조건 붙을 거야. 힘내!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조선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교육학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전형(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수 2명, 질문 후 바로 대답하는 형식			
유의사항	◆ 대기실 앞쪽에 수험번호와 면접번호가 적힌 종이를 확인 후 자기 면접번호가 붙은 자리에 앉아 대기 ◆ 면접번호는 컴퓨터로 돌려서 무작위로 정해짐.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를 말하고 대학 입학 후 그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계획을 말하십시오.

A :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잘 가르치는 능력과 학생들과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 후 다양한 교육 활동과 교육 봉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을 만나 소통해보며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수님들께 학문을 배우고 익혀서 저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Q : 최근 특목고를 없애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밝히고 이유를 말하십시오.

A : 특목고 폐지를 찬성합니다. 핀란드에서 사립학교와 특목고를 없애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없애고 학생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줄여 학업 만족도를 높였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학업 만족도뿐만 아니라 길으로 드러난 학업 성취도에서도 오히려 높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목고나 우월반을 편성하기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시사 관련 질문이 매년 출제된다고 하여 준비함. 교육 관련 기사를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음.
- ◆ 긴장하지 않고 웃으면서 답변하며 면접관님께서도 웃으며 호응해주심.
- ◆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이 좋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중부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서비스학전공			
전형명	진로개척자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엘리베이터 타고 면접하는 곳까지 올라가서 전형별로 수험표랑 신분증 확인하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는데 40분 넘게 기다렸음. ◆ 불리는 대로 면접하러 들어감. 면접관은 2명임.		
유의사항	◆ 서클 렌즈, 진한 화장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

A : 항공정비사인 삼촌 덕분에 대한항공에 견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비행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하늘로 띄우는 모습을 보니 책임감의 중요성을 느꼈고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에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 저도 같은 항공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승무원을 양성하는 중부대학교에서 항공기구조론 및 안전실습수업을 통해 항공안전지식을 쌓아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Q : 중부대학교 항공서비스학전공 말고 다른 항공서비스학과 지원했나?

A :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영문학과를 지원하여서, 외국어 실력을 키워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 선택하였습니다.

Q : 그렇다면 영어로 자신을 어필해볼 수 있는가?

A : Thanks to my uncle, who is an aviation mechanic, I have been to Korean Air. I was impressed by my uncle as he checked the safety of the plane and worked with pride in his work. This made me want to work in the same airline industry. At Joongbu university, I want to gain knowledge about aviation safety. So that, I would like to become a responsible flight attendant who prioritize passenger's safety.

Q : 리더란 무엇인가?

A : 샤프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샤프심은 샤프가 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교 영어 노래 발표 대회 때, 조원들이 노래 주제를 정하는데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조장이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조장은 아니었지만, 이걸을 좁혀나가 주제를 정해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때 샤프심인 제가, 샤프인 조장을 도와주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어떻게 지내? 저는 강한 친화력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중국어로 말함.

◆ 느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 지원동기 말할 때, 학교 커리큘럼을 들어서 얘기하니 싫어하시면서 중간에 끊으셨음. 그리고 다른 거 없냐며 얘기하셔서 또 다른 커리큘럼을 얘기하니 진부하다며 옆 지원자로 넘어가서 당황스러웠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외국어와 제2외국어 자기소개로 어필할 수 있었던 것, 답변이 막혀도 끝까지 웃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
- ◆ 학교 면접 답변 중에 기본은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라 생각하는데, 지원동기에서 진부한 내용인 커리큘럼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중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찰행정학과	○		
전형명	일반전형2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기다린 후 교수님 : 학생 3:3 면접		
	유의사항	◆ 복장 제한이 없지만 재학 중인 선배의 말씀으론 교복 추천 ◆ 교복은 하복을 착용해야 함. ◆ 면접 일자 변경은 개인적인 사유로는 불가함 + 답변은 1분 이내.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A :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한 000입니다. 저의 의지와 집중력이 조화를 이루는 시험 기간에는 그 아무도 저를 막지 못합니다. 또, 저의 고등학교 시절 별명은 통키였습니다. 3년간 교내 스포츠 리그 때마다 피구로 여학생들을 주름잡았기 때문입니다. 피구 외에도 다양한 운동 종목을 배우기만 한다면 잘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이상 미래 경찰 000였습니다!

Q : 대학 생활 중 이루고 싶은 것 2가지 + 구체적 이유 (교양)

A : 10년 이상을 지방에서 자란 저는 아직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 넓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 생활 중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 그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싶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OT나 MT 등 다양한 학교행사에서 저의 친화력을 적극 활용하여 많은 이들과 소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생활 중 최선을 다하는 학생으로 보답하며 지식의 폭을 넓히고, 3학년 후반에 접어들면 특채시험에 응시할 것입니다.

Q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

A : 검경 수사권 조정의 요지는 검찰이 가진 수사 권한 중 일부를 경찰에게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우선 저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사 개시권을 양측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 수사 종결권이나 영장 발부권은 현재 검사만이 가지고 있어 경찰은 검찰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권을 조정함으로써 검찰이 보지 못하는 면을 경찰이 보아 수사의 공정성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수사의 효율성까지 증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나의 자신감, 당당함, 씩씩함 / 학과 특성상 유창한 말솜씨보다도 학생의 당참, 씩씩함을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 ◆ 교수님들의 꼬리 질문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 ◆ 대기실에서 재학생분들께서 긴장 너무 잘 풀어주셔서 같이 말하다 보면 정작 면접실 들어갔을 땐 크게 안 떨립니다.
- ◆ 면접 끝난 후 학과 홍보실 가는데 재학생 선배님들과의 토크 시간에 최대한 많이, 궁금한 것들 다 여쭙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차의과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8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 농어촌 특별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1분 정도 남았을 때 밖에서 노크해줌.)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2명씩 이동해서 면접실 앞에서 대기 ◆ 면접관 2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휴대폰, 전자기기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부정행위) ◆ 면접실 안에는 아무것도 들고 들어가면 안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자가 간호학과를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A : 제가 간호사라는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신장암이라 진단을 받으셨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계신 동안 어머니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탐색하였습니다.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간호사의 다양한 분야 중 종양 전문간호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살펴주셨던 암 병동의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암과 맞서 싸우며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종양 전문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종양 전문간호사가 되면, '죽음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암에 걸린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그들을 지켜보며 함께 고통받는 보호자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강인한 간호사, 정확한 판단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하는 유능한 간호사, 따스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는 인간미 넘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Q : 생기부에 종양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적었는데 종양 전문 간호사가 특별히 가져야 할 마음은?

A : 저는 종양 전문 간호사는 다른 병동 간호사들보다 더 책임감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암환자들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험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모두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Q : 3학년 때 자율동아리 SSM동아리에서 기장을 했다고 하는데 힘들었던 점 있었나요?

A : 네, 저는 기장을 처음 맡는 것이기도 했고, 아무래도 3학년 자율동아리는 정말 중요한 활동이다 보니 많이 부담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 이끌어가고 노력했지만 많이 힘들기도 했고, 제가 대신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협조를 점점 안 해주는 느낌이 들어 나중에는 친구가 배정받은 일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가 잘 안되는지 파악하고 그 친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A : 자소서에도 적혀 있듯이 저는 제가 보건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 동아리를 만들고, 기장으로 활동했던

‘쌈’ 동아리에서 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는 6가지 주제를 정해 수험생을 위한 보건소식지를 만들어 3학년 학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저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실천해보고,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각 주제별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캠페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캠페인은 아침밥의 중요성 알리기 캠페인입니다. 저희는 일주일간 교문에서 아침밥을 먹지 않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만든 주먹밥을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캠페인이 끝난 후 학생들이 아침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며 아침밥을 먹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바른 스트레칭법을 알려주는 캠페인, 평소 우리가 마시는 카페인 음료를 예로 들어 카페인 음료의 위험성 알리기 캠페인, 수험생 영양제 추천, 나만의 수면법 공유하기 캠페인 등을 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건강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훗날 간호사가 되면 환자들의 병을 단순히 낮게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환자들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간호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Q : 종양 전문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암이 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나(학생) : 암은 돌연변이로 정상 세포가 이만큼 (손짓)만 분열하고 멈춘다면 암세포는 분열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면접관 : 암세포는 돌연변이다?

나(학생) :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접관 : 정답은 없다, 학생이 말하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돌연변이는 뭡니까?

나(학생) : 네? 돌연변이는 정상인 것과 다른 정상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 네. 잘 알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A : 저는 이런 학생이 되겠다 하는 포부를 차의과학대학교 교육전략인 3S 전략을 이용해 설명해보겠습니다.

SPEEDY 교수님들이 가르쳐주시는 지식을 스피치처럼 빠르게 흡수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STRONG 아무리 공부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강하게 버티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SPECIAL 차의과학대학교를 빛내는 스페셜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마크를 뽑아서 코팅까지 해서 면접 보기 전에 상의 안에 넣어놓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할 때 빼서 손에 들고 차의과학대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려고 준비함. 그런데 면접 볼 때 마크를 빼서 들자마자 남자 면접관분이 들지 말라고, 들면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꺼내지 말라고 해서 완전 당황함. 그런 거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심.)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암세포 질문 나오기 전까지는 차분하게 잘 말한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에서 너무 당황해서 더듬거린 것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떨지 말고 차분히 면접 보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차의과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스포츠의학과		○		
전형명	고른기회 - 농어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대 1 면접 ◆ 대기실에서 대기 후 면접실로 이동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불가, 학교명 언급 금지 ◆ 신분증 및 수험표 필수, 휴대폰 반납,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A : 블라인드라 장.단점 얘기만 함.

Q : 자소서에서 적어 놓은 마라톤 경험에 대해 질문

A : 심폐지구력에 대한 개념을 물으셨는데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함. 체력이라 하고 차의대 들어와 기본기를 더 확실히 하겠다고 함.

Q : 우리 학교나 학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A : 전국 스포츠의학과 중 유일한 이학적인 계열로 알고 있으며, 학과 트레이너 실습 동아리와 교수님들, 학과 교육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원함. (두 분이 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셨는데 잘 말한 것 같음)

Q : 자소서에서 적은 스포츠테이핑의 원리를 알고 있는가?

A : 피부 조직을 스포츠 테이핑의 신축성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근육 사이 혈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며 근막을 잡아 관절을 보호해 준다고 대답함
(대답을 듣고 교수님들 모두 만족해하심)

Q : 3년간 체육교사라는 진로 희망을 작성했는데 왜 이 학과에 진학하였는가?

A : 꿈은 변하지 않았지만 꿈을 실현할 직업군이 바뀌었다 설명함
(꿈이 바뀐 것을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궁금했다고 말씀하심)

Q : 학과 들어와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A : 고교 시절 운동을 경험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한지 알게 됨. 또한 부상 예방과 재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학과에 진학해 많은 선수들의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존경받는 선수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싶음.

Q : **끝으로 할 말**

A : 차대인으로 자랑스럽게 성장하겠다고 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농어촌전형이 따로 있지만 고른기회 안에서 농어촌 전형이 포함되어 있음.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 지원자가 적은 편이었고, 1단계 합격 인원도 적어 면접 경쟁자가 적어서 면접 잘 보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
- ◆ 교수님들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눈 맞춤으로 얘기하셔서 이야기할수록 긴장을 풀 수 있어서 너무 부담감 갖지 않고 있는 걸 추천. 교수님 한 분당 2개의 컴퓨터로 점수를 매기시고 반응에 따른 점수가 어떻게 될지 대충 예상이 가능함. 생기부보다 자소서를 더 많이 보셨음. 2, 4, 5번 모두 자소서 내용.
- ◆ 후배들에게: 생기부도 중요하지만 자소서를 본인이 쓰는 것이 진짜 중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들어올 수 있음. 제대로 답변 못 할 시 꼬리 질문이 달렸다는 후기도 많으니 몰라도 자신 있게 대답하길. 컴퓨터를 하시면서도 모니터가 아닌 학생 눈과 학생을 계속 보심. 모의 면접을 통해 면접 제스처와 시선 처리, 자세 연습도 면접관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을 것 같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창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영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글로벌창의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이내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관 2, 학생 1 ◆ 확인-면접실-면접-퇴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및 수험표 반드시 지참 ◆ 교복 착용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생기부를 보니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가?

A : 1학년 때 경찰관이라는 진로 희망을 가지면서 시사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범죄 발생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범죄 노출 위험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면 외에도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사회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사실 기업은 관료제 조직이 아닌데 왜 관료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가?

A : 대부분 기업 내에는 계급이 있고 임원들의 지위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의하달식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료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경영학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경영 컨설턴트는 될 수 없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A :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업은 일시적으로 이윤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세계 시장에서 기업이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지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만큼 제품 홍보에 치중된 마케팅이 아닌 사회지향적 마케팅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Q : 임원 활동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

A : 교칙 완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학교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조정하여 전달했고, 변경된 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의사전달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창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공학과		6	
전형명	글로벌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와 학과 지원동기를 말해주세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학과에 입학하여 다양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계공학부는 미래 산업이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로웠고 자동차 엔지니어라는 꿈을 가지게 되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기계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여있고 발전 가능성이 커서 창원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리더로써 활동한 활동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A : 제가 1학년 때 수학동아리 math to math 동아리에서 1학년 회장으로써 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수학체험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장으로써 행사내용을 제안하고 행사 일정을 기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열정적이지 않은 친구들 덕에 부족한 부스들이 생겨났고 그 구멍을 제가 다른 친구들을 설득해 저와 다른 친구들이 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Q :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입니다.

A : 수학입니다.

Q : 그중에서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A : 기백입니다.

Q : 기백과 스칼라에 차이가 무엇입니까?

A : 기백은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내고 스칼라는 방향이 없고 크기만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 3학년 1학년 때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A :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공부에 집중을 못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했고 성적도 중간이라서 합격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이라고 대충하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창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공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글로벌창의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3명, 대기실에서 기다려서 한 명씩 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를 지원동기와 함께 말하십시오.

A : 가상현실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 가장 연관 있는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의 줄거리와 느낀 점을 말하십시오.

A : '생각의 탄생'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에 저항하는 책입니다. 이를 보며 처음에는 직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좋은 사회라 생각했지만 개인의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는 점에서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Q : 물리와 컴퓨터공학과와의 연관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꿈인 가상현실 내에서 각종 법칙들을 적용시킴으로써 현실성을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음

Q : TOP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했나요?

A : 아두이노를 활용한 아두이노 소방차를 만들

Q : 본인이 무슨 역할을 담당했나요?

A : 아두이노 소방차의 하체부의 코딩과 조립을 담당함

Q : 체육부장으로써 한 역할이 무엇인가요?

A : 친구들을 통제하며 선생님의 지도하에 행동

Q :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 통제에 따라주지 않음

Q : 그럴 땐 어떻게 했나요?

A : 말로 구슬림

Q : 위기를 극복한 경험엔 무엇이 있나요?

A : 다리를 다쳤을 때 친구들의 도움으로 극복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청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수학교육	○		
전형명	창의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심층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기다린 후 수험번호 되면 안내에 따라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사복)자유복장, 수험표 필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교실에 사회적 약자가 있을 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A : 책임감을 가지고 반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 또한 학급반의 임원으로써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겠습니다.

Q :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학생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반대의견도 말해주세요.

A :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희나라 입시제도는 무한 이기주의를 팽배시킬 뿐만 아니라 각종 입시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가장 한국적이고 수학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은 모르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A : 저는 청주대학교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청주대학교 수학교육학과는 폭넓은 세계관을 가진 중등학교 수학교사를 양성하고 임용고시에서 높은 합격률을 가지고 있다고 추천해주셨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기부 기반이 아닌 면접이라 질문을 80개? 정도 대학 홈페이지랑 수만휘 등에서 찾아서 답변 달고 외움. 친구들이랑 모의면접을 해서 대학 면접 때는 긴장 안함. 예상 질문 같은 것들 해두는 게 좋음. 나는 예상 질문에서 다 나옴.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건축학과			
전형명	Prism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빅 데이터 전문가에서 건축가로 진로가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빅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건축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볼래?

A :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앞에 나가 진로를 발표하는 활동을 시키셨는데 그 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컴퓨터라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활용한 직업을 진로 선택했었습니다. 진로가 바뀌게 된 계기는 2학년 여름방학 멘토링 수업이었습니다. 그 때 수업 하러 오신 선배가 건축학과 선배였어요. 그때 선배가 CAD를 활용하여 컴퓨터로 설계를 하고 그것을 3D로 가시화 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렸었습니다. 그 후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독서활동을 하면서 공간을 설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 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공간에 활동하는 사람들, 사소한 것 까지 생각해서 공간을 설계한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를 읽고 자신이 희망하는 건축 설계를 구체화 했다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구체화 했는지 말해 볼래?

A : 그 책을 읽었던 당시에는 구체화하지는 못했고 수능이 끝나고 시간이 남잖아요? 그 때 제가 원하는 공간 설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많이 있는 아파트 말고... 주택을... 짓고 싶어요. 그 주택에는 중정도 설계하구요... 제가 자연을 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편하게 활동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Q : 자율동아리 활동으로 한옥을 현대 건축을 이용하여 지어보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현대 건축을 이용하여 한옥을 설계했는지 말해 볼래?

A : 처음에는 일자로 짓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아 저희가 카페를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음료를 마실수 있는 공간이나 파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위해서 T자 모양으로 짓자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한옥에서 기둥과 보가 있잖아요? 그걸 콘크리트로 만들자고 의견이 나왔었는데 저희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드락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Q : 컴퓨터를 이용한 건축을 중요시 여기는데 건축에 있어서 자신의 창의성은 어떻게 키워나갔는지 말해 보자.

A : 제가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에서 읽은건데 그림-바탕 이론이 흥미가 깊었어요. 그게 그림을 임의로 배열하고 공간이 형태로 나타나면 그게 보이는 공간이고 나타나지 않으면 숨은 공간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보통 드러난 공간에서 생활해요. 그래서 저는 종이를 네모 형태로 잘라놓고 그것을 배열해보면서 드러난 공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쉽게 이동할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창의성을 키...웠습니다.

Q : 여기에 건축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진로를 바꾸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건축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말해 줄래?

A : CAD, 라이노, 스케치업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 틀?) 네! 맞아요 틀! 그걸 이용해서 3D 형태로 가시화하는 걸 말합니다.

Q : 현대 건축에서 가장 유의깊게 본 건축물을 말해 볼래?

A : 꼭 현대 건축물이어야 하나요? (아니 아니 다른 것도 괜찮아) 그럼 혹시 르 코르뷔지에 라고 아세요? (어 알지) 그분이 만든 어머니의 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웃으면서> 아 근대 건축?) 네 르 코르뷔지에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집을 건설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안방, 부엌, 거실로 밖에 이동을 잘 안하시거든요. 그래서 딱히 집이 클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르 코르뷔지에님의 사상이 저와 비슷해서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사람을 고려하는 르 코르뷔지에의 사상을 본받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경영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대기실-면접 (교수님과 2:1면접)		
유의사항	◆ 단정한 복장 (교복 금지), 블라인드 면접 ◆ 신분증, 수험표 지참 ◆ 진행위원의 허가 없이는 대기실 이탈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와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A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열정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커트 코베인의 명언을 저의 좌우명으로 삼아 사회적 기업경영인이 되고자 고등학교 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 동아리, 요양원 봉사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며 소통과 전문지식의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회적 기업 경영인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다양한 학문을 융합적으로 공부하는 충남대학교 경영학부에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Q : 자기 소개서에 기술한 CSV와 CSR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 : CSV는 공유가치 창출, 기업의 경영활동이 사회적 기여와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의미합니다.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되는 CSR과 다르게 CSV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가장 영리한 전략입니다.

Q : 공유가치 창출의 사례를 설명해주세요.

A : 유기농 소재인 EVA수지를 활용하여 신발을 생산하여 한 개의 신발을 구매하면 한 개의 신발을 기부하여 경제적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를 도모하는 TOMS라는 기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Q : 지원자가 운영하고 싶은 사회적 기업을 설명해주세요.

A : 제품과 서비스의 역량을 기존의 영리기업에 못지않게 경쟁력을 키우고 사회적 기여와 동시에 이윤창출을 하는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취약 계층들을 고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이윤을 창출하고 싶습니다.

Q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을 설명해주세요.

A :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창출에만 중점을 두어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의 영리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 :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해주세요.

A : 저는 2학년 독서 PT대회를 참가하면서 읽게 된 사랑받는 기업들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기존의 경영체계와는 다른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해답을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가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제가 훗날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데 지침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저는 충남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벤처 창업론, 마케팅 관리, 조직행위론, 글로벌 경영 등 다양한 학문을 포괄적으로 공부하는데 힘을 쓰고자 합니다. 또한 전공학습에 못지않게 기업연구회라는 동아리에서 저의 고교시절 창업계획을 발전시켜 보는 등 동아리 활동과 외국어 학습 그리고 학생회에서 저의 역량을 펼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긴장하지 마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번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PRISM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 대기실에서 대기 → 면접관의 안내 후 전자기기 제출 → 가번호 안내 → 가번호대로 면접관 2명과 면접 → 전자기기 챙겨서 퇴실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신분증과 수험표 지참, 자신의 순서가 올 때까지 준비해온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 Q :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 Q : 이수한 과목을 보니까 물리1 수업은 있었고 물리2는 없네요?
- Q : 운동량이 무엇인가요?
- Q : 충격량이 무엇인가요?
- Q : 그럼 뉴턴운동 법칙에 대해 설명해 볼래요?
- Q :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sin x$ 미분하면 무엇인가요?
- Q : $\sin^3 x$ 미분하면 무엇인가요?
- Q : $1/x$ 적분하면 무엇인가요?
- Q : e부터 e^2 까지 $1/x$ 의 적분 값은 얼마 인가요?
- Q : 수상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회와 그 이유는?
- Q : 봉사활동 중에 교외 봉사활동이 적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 Q : 과학부 부장을 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 Q : 특이사항이 있는데 낮가림이 심하다고... 그런 편인가요?
- Q :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가요?
- Q : 성공하는 프로그래밍 공부법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읽게 된 계기는?
- Q :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했던 활동이 있나요?
- Q : 로봇팔을 만들 때 어떤 코딩 프로그램을 사용했나요?
-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공과 계열 학과로 진학하게 되면 면접 가기 전에 물리 공부를 조금 하고 가야 될 거 같음. 뉴턴 운동 법칙이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필수로 알고 가야함.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이면 자소서 생기부 꼼꼼히 읽어보고 가야함. 면접관님이랑 얘기하고 온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먹고 가면 좋음. 긴장하지 말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무역학과	○		
전형명	PRISM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와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Q : 국제무역사무원이 뭐하는 직업인가요?

A : 무역에 필요한 계약, 결제 및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지식, 수출수입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해외 바이어들과 상담하며 외국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Q : 왜 하필 국제무역사무원 하고 싶어요?

A : 세계무역과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리더십과 대인관계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해서 국제무역사무원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 : 통상과 무역의 차이점이 뭐예요?

Q : 현재 FTA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과 FTA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요? 그러면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말해보세요.

A : 우리나라와 중국, 아세안국가(이 답 틀린 듯)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이 웃는 것이 느껴짐)

Q : 충남대학교 prism 인재 전형인데 특별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 prism 앞에 철자 영어 단어 의미 말함.

Q : 그러면 내가 너를 뽑을 건데 들어오기 3개월 전까지 뭐할 거야?

A : 아무래도 직업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뉴스 기사나 세계무역에 대한 관련 도서를 찾아볼 것입니다.

Q : 들어와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너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거야?

A : 대학 커리큘럼 언급하면서 학업 열심히 하겠다고 답함.

Q-1 : 이 커리큘럼 제외하고 인상 깊었던 커리큘럼은?

A : 학교 단, 장기 해외프로그램 언급

Q : 여기 실제 면접이랑 너가 준비한 거랑 비교해봤을 때 어떤 거 같아?

A : 50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Q : 온갖 종류 다 이용해서 너 자신을 뽑내봐라.

A : 전교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함.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잘 수렴하여 영양사 선생님과의 대담시간을 통해 급식 메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말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물리학과	○		
전형명		PRISM 인재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다른 전형과 같이 대기/ 면접 후 대기해야 함(대화금지)			
유의사항	◆ 오전은 면접 후 대기, 오후는 면접 후 대기 아님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물리학과에 지원해주셔서 고마워요.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할게요. 첫항은 1이고 세 번째 항은 9인 수열이 있어요. 두 번째 항은 무엇일까요?</p> <p>Q-1 : 왜요?</p> <p>Q-2 : 또 다른 건?</p> <p>Q-3 : (대답 후) 또 다른 건?</p> <p>Q-4 : 혹시 자신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p> <p>Q : 소금 덩어리를 녹일 때와 소금 가루를 녹일 때, 녹는 속도가 가루가 더 빠른 이유는?</p> <p>Q : 학교에 물리2가 개설되지 않아서 물리2를 독학으로 공부했다고 적혀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p> <p>Q : 파동이 무엇인가요?</p> <p>Q : 요즘 책 같은 것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물리나 수학 관련 책은?</p> <p>Q-1 : 어떤 내용인가요?</p> <p>Q : 우리가 남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는데, 자신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죠?</p> <p>Q :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나요?</p> <p>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p>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사회복지학과	○		
전형명	사회배려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본인확인 후 대기		
유의사항	◆ 과한 화장/ 장신구 하지 않기, 단정한 옷 착용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

A : 저는 사회 취약 계층입니다. 그에 맞는 지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 따가운 시선을 받은 적도 있는 실경험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동정이 아닌 실질적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9번입니다.

Q : 학업, 진로 계획?

A : 전공 과목과 함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고 싶습니다. 전공에서 배우는 것들이 곧 자격증 시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화 학습과 동시에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봉사분과 동아리인 상상네이버스에 가입하여 주기적인 봉사를 통해 이론과 실무가 균형 잡힌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진로의 경우는 졸업을 할 때 즈음 1급 자격증 시험을 보고, 제 출신지로 돌아가 모자란 인력을 충당하거나 대학에서 배우며 저에게 맞는 세부 전공이 생긴다면 그쪽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Q : 개인 활동에 꽃동네 봉사 활동이 있다. 충북이면 거리가 꽤 될 텐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곳까지 가게 되었는지?

A : 꽃동네 봉사 활동은 학교 주도로 학년 전체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복지계열의 장래를 택했지만 확신이 잘 서지 않았는데, 해당 활동을 통해 꿈을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 외 뭘 더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남)

Q-1 : 꽃동네의 경우 작은 요양원이나 ~와 달리 대형화된 시설인데, 이런 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나요?

A : 확실히 제가 봉사를 다니던 시설들과는 다르고,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 또한 타 시설에 비해 구체적이고 지킬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어려웠으나 막상 현장에서 활동해 보니 나름 빨리 적응한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나선 무슨 시설이든 모두 같은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 제가 선입견을 가졌었구나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엔 거부감은 없는 거네요? 이리시고 대충 그렇다 하고 넘어감)

Q : 자기소개서를 보면 파시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적은 이유는?

A : 자기소개서에도 기록해 냈지만 국어 지문에서 나온 파시즘이란 단어를 정확히 알고자 찾아보던 중 파시즘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렇게 단어 하나도 국어, 역사 등 여러 학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제게 인상 깊게 남아 그런 내용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생물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 학생 → 2: 1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 면접 자료 허용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말해주세요

A : 저는 5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고 싶은 면접번호 13번입니다.

Q : 5차 산업혁명이란는 것이 있나요?

A : 아직까지 정의된 바는 없지만 제가 3년간 공부하고 신문도 읽고 책도 읽은 결과 현재의 4차산업혁명시대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5차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를 이끌어갈 기술이 바로 생명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아주 흥미로운 얘긴데 그럼 4차와 5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일단 4차산업혁명은 ICT기술과 다른 기술들이 융합된 초연결, 초융합시대라고도 하는데 이제 과학의 다른 분야들은 ICT와 결합되어 고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제가 조사하고 공부했던 바로는 생명과학이 유독 그 발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차산업시대의 기술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면 분명히 인간은 건강, 질병, 또는 생명의 최종 목표인 불멸까지도 욕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기존의 산업혁명은 이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으며 따라서 4차를 넘어 5차 산업혁명은 반드시 일어나며 그 핵심기술은 생명과학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서 저는 생명과학연구원이 되어서 5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싶습니다.

Q : 아주 공부를 많이 해오신거 같네요. 좋습니다. 책을 보니까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지원자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맞나요?

A : 네 맞습니다.

Q : 그럼 같은 저자의 사피엔스도 읽어보았나요?

A : 아직 그책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호모데우스를 읽게 된 것도 제가 고3 막바지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심하게 하게 되면서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어보다가 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읽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그러시더니 진로가 바뀌게 된 계기를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 이래서 바뀌게 된거구나 하고 말하심)

Q : 지원자가 toll-유사수용체 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A : 일단 제가 알기로는 toll-유사수용체는 당단백질과 같이 우리몸에 항원을 인식해주는 역할을 하며 모든 포유류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급생물학을 배울 때 배웠던 새로운 용어라서 선생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선생님께서 세특에 적어주신거 같습니다. (이때 면접관 1이 면접관 2한테 그런건 대학와서 방어과정 배우면 배우는 거라고 뭐라고 하심 ㅋㅋ)

Q : 자소서에서 보니까 밈이라는 용어를 소개했네요 아마도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인 이기적 유전자를 보고 적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유전자와 밈의 공통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볼래요?

A : 유전자는 일단 유전인자라도 불리며 세대가 지나도 유전자풀에서 특정형질을 보존시켜주어 유전자가 살아남도록 합니다.. 밈은 문화의 모방단위, 전달단위로써 뇌에서 뇌로 옮겨다닙니다. 밈 또한 유전자풀에서 유전자가 살아남는 것처럼 문화가 모방되고 전달되며 세대를 거쳐도 문화가 계승되는 것이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Q :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할말 해주시겠습니까?

A : 충남대학교는 제가 3년 전부터 생각해오던 학교여서 지금 제가 여기 면접을 보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너무 꿈만 같습니다. 게다가 지거국 중에 아주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옆에 연구단지가 붙어있고 국립대의 특성상 연구수주비율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과학연구원이 되기에는 충남대학교 만한 학교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꼭 충남대학교에 오고싶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만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있다면 좋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면접에서 제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초반에 5차산업혁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미리 준비하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던 것이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과 관련 전공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나 신뢰성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면접관 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생화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PRISM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 대기 - 면접실 - 면접(면접관 2명) - 퇴실		
유의사항	◆ 신분증 및 수험표 반드시 지참 ◆ 교복 절대 착용 금지(면접번호 부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를 얘기해 주세요.

A : 저는 생명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이들을 응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생화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생명과학과 화학모두 생물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들 모두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생화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Q :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아나요?

A : 잘못된 식습관이나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어떻게 생기는데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함)

Q : 세포호흡과 ATP에 대한 설명

A : 세포호흡을 통해 생명체 내로 들어온 영양소가 분해되며 이때 ATP가 생성 됩니다. ATP는 세개의 인이 서로 결합을 이루며 포함되어 있으며 인들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 ADP가 됩니다. 이때 에너지가 발생하며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 합니다.

Q : DNA구조

A : DNA는 인산, 당, 염기가 1:1:1로 결합하여 이루어져있습니다 이때 당은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인산과 당은 바깥 골격을 이루며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아데닌은 티민과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염기들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당과 염기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나요?

A : 동아리에서 한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봉사활동에서 서로 다른 참여도에 대한 갈등상황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함)

Q : 마지막 한마디

A :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즐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생화학과에서 즐기며 학습하고 발전해나가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심리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 농어촌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60	40	
	면접절차	◆ 2:1 대면 면접(15분)		
유의사항	◆ 내 사항이 특이한 것일 수 있으나 면접은 압박으로, 꼬리질문이 계속 이어졌음. 그러나 침착하게 질문에 답변하면 되겠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준비한 자기소개 말함.

Q : 진로가 어떻게 됩니까?

A: 현재 나의 목표는 범죄심리분석관이라고 말함.

Q : 왜 범죄심리에 관심이 있나요?

A: 기존에 준비한 진로에 대한 동기와 함께 범죄심리를 배워야한다고 함.

Q : 범죄심리에만 관심이 있는 건가요?

A: 범죄심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심리에 관심이 많은 것이고 그 이외에 상담심리 등에도 관심이 많으며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함.

Q-1 : 우리 대학에서는 범죄심리를 잘 가르치지 않는데...

A: 교육과정에서 범죄과목이 몇 개 없는 것을 알지만, 범죄심리를 전공하고 싶고 만약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더라도 상담이나 다른 전공도 할 것이라고 함.

Q-2 : 뭔가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충남대 대학원에서는 범죄심리 전공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 대학원 교과목 중 범죄심리 과목을 봤는데, 물론 전공은 아니더라도 그걸 배울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었다. 그렇다고 면접관님 꼬투리를 잡지는 못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Q : 어느 대학에 냈어요?

A: 세 개 정도만 말함.

Q : 학업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에 준비한 학업계획을 말함.

Q : 범죄심리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접하기 어려울 것인데,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했나요?

A: 나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전문 직업 인터뷰나 영상 등을 찾아보았고 범죄심리학 교수님께 이 진로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들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얻고자 메일을 보내기도 함.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미리 준비한 말을 하고 감사 인사 뒤 퇴장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기부와 자소서 내용은 거의 물어보지 않았고 나의 진로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시간을 잡아먹으신 분인데 심리학과 면접관분 중 한 분이 굉장히 불편했다.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했고, 압박은 긴장되고 당황하기도 해서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오히려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나도 그러기는 했지만, 그래도 짹짹하기 마련이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어영문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PRISM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과 수험생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블라인드 면접 진행(교복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충남대학교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세요.

A : ‘대전 · 충청 · 세종’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넓은 캠퍼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는 회화수업, 충남대학교에만 있는 것 같았던 미래설계상담이라는 수업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바탕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교수님과 공부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프로그램 제작자가 왜 되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그게 무엇인지도 설명해보세요.

A : 원래 영어교사가 꿈이었지만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하였고 또 저의 목적인 학생들이 영어를 쉽게 배우기 위해 이미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앱을 만든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생각해본 앱은 ‘마인티쳐’로 ‘마이 잉글리시 티쳐’의 줄임말로 수업을 잘 따라가고 싶은 학생들이 집에서 예습과 복습을 해볼 수 있는 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Q : 앱을 만들고 싶은 거군요, 그런데 요즘 그런 앱들 많은데 학생의 앱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A : 제가 사용해본 HELLOTALK이라는 어플은 외국인 친구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학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앱이었지만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만들 앱은 보안도 완벽한 앱을 만들 계획입니다.

Q : 리더란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예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A : 리더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조율하여 결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야자시간에 학생들이 “너네 질문하는 거 시끄러워 같이 수행평가 공부하고 싶은데 할 공간이 없네” 등의 의견을 듣고 학생회 임원들과 토의한 뒤 자습할 수 있는 공간, 서로 질문하여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하여 학생들의 공부법에 따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 어문계열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교육 봉사를 많이 하던데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자가 안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A : 중학교 때 교육봉사를 했는데 버스를 타고 30~40분 정도 가야하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대신 전 학교 앞에 있는 요양원에서 동아리 부원들과 한 달에 한 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휠체어를 끌어드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함께 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Q : 진로활동 중에 우리학과에 오기 위한 활동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활동을 해봤나요?

A :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동아리에서는 신문 스크랩을 활용하며 제 진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수업시간에도 진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여 진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Q : 또래학습도우미를 했는데 반대로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봐서 한 건가요?

A : 저는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을 넘어가지 않고 친구, 선생님께 물어보며 끝까지 알아내려는 공부습관이 있습니다. 이때 알게 된 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면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공부법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해보세요.

A : 저는 영어교사가 되어 영어콘텐츠 제작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회장으로서 내세운 공약을 다 지켰던 것처럼 제가 앞으로 미래에도 세울 목표들을 다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꿈을 충남 대학교에서 이뤄가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긴장을 풀고 좀 더 편안하게 면접을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듯 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기공학과	○		
전형명	농어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휴대폰 수거/ 잠담금지/ 화장실 금지		
유의사항	◆ 대기실에서 대기 후 면접관실 입실. 면접관 2인 대 개인. 15분 면접 실시. 면접 끝나고 대기실에 모인 후 12시에 퇴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Q : 전자공학을 희망하다가 전기공학으로 바꾼 계기

Q : 나노공학기술자가 무엇을 하는 건지?

Q : 전기공학과 나노공학기술자가 어떤 관계인지?

Q : 자기소개서에서 홀 효과 활동을 하였는데 전자공학, 전기공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왜 다 홀 효과실험을 하는지 아나요?

Q : 동아리 활동 외에 혼자서나 어떤 대회나 자신이 진로를 위해 노력한 점은?

Q :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이유?

Q : 수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

Q : 마인드맵, 리플렛 만들기 활동을 한 후 수학개념을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공부했다는데 얻게 된 점

Q : 수학 개념 중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

Q : 미적분 개념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게 된 이유

Q : 충남대학교 학업up상상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우주공학과	○		
전형명	농어촌 학생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대기, 휴대폰 수거, 면접 전 대기실 대기, 면접		
유의사항	◆ 이론과 서류기반/ 면접관 2명/ 10~15분 내외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자기소개

Q : 베르누이 법칙을 설명

Q :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 설명

Q : 벡터가 적용되는 물리량의 예시

Q : 적분과 미분의 차이를 설명

Q : 다른 학교 말고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지원한 이유

Q : 리더로서 이끌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한 과정 및 느낀 점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추가로 할 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화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내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과 2:1 면접		
유의사항	◆ 핸드폰 수거 ◆ 좌석 지정(수험번호에 맞는 자리가 정해짐) ◆ 조금만 지각해도 입실 불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

A : 준비한 거 다 해감. 특히 충남대가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우수한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해서 면접관 한 분 웃으심

Q : 진로가 교사에서 연구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A : 처음에는 화학이 좋아 아이들에게 가르쳐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양한 교내활동 등을 통해 연구원이 나의 적성과 맞아 진로를 변경했다. 특히 학급활동 이후 불치병 치료에 관심이 생겨 신약개발연구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Q : 충남대학교에 입학한 후 자신의 학업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 1학년 때 일반화학을 필요한 기초적인 학업역량을 기를 것이다. 그리고 내 진로와 관련된 생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등 전반적인 화학을 공부할 것이다. 졸업한 이후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 학원에 진학하여 신약개발연구원에 한 걸음씩 다가갈 것이다.

Q : 콜로이드 상태가 무엇인지 서술하고, 사용되는 예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생기부)

A : 보통의 분자나 이온보다 크고, 1~1000나노미터 크기의 미립자들이 액체나 기체 속에 분포된 상태로, 우리 실생활에서 아가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 탱탱볼을 예시로 들었다.

Q : 실험동아리 활동 중 크로마토그래피의 정의와 관련된 실험을 말씀해주세요. (생기부)

A :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의 용해도에 따라 색점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 실험동아리에서는 색분리 실험을 통해 이파리 두 개가 가지는 염록소를 알아보았다. 잎의 색에 따라 염록소의 종류와 함량이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며,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Q : 반응 경로와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설명해주세요. (생기부)

A : 실험 잘 말하고, 이를 통해 헤스 법칙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Q-1 : 그러면 그 실험과 관련해 질문 드리는데요, 엔탈피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 순간 까먹었다.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엔트로피와 자유에너지가 떠올라, 이 둘이 기억나지만 긴장해서 갑자기 엔탈피에 대한 정의가 생각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니 면접관께서 엔탈피를 흡열반응과 발열반응과 관련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엔탈피에 대한 내용을 화학반응과 관련해서 잘 말했다.

Q :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간의 압력에 따른 부피 그래프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것과 이상기체 방정식, 그리고 압축인자?도 설명해주세요. (자소서 내용.)

A : 이상기체 방정식은 $PV=nRT$ 로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몰수와 기체상수(0.082)와 절대온도의 곱과 일치한다고 서술함. 실제 기체는 우리 주변의 공기를 말하며, 이상기체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무조건 성립되도록 설정한 가상의 기체이다. 실제 기체의 몰부피를 이상기체의 몰부피로 나눈 것이 압축인자이며, 이 값에 따라 분자 간의 인력과 반발력을 설명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Q : 가장 기억나는, 혹은 인상깊은 봉사활동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자소서 내용.)

A : 국내에 피가 부족하여 수술이 어렵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음. 그래서 매년 헌혈에 참여했음.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혼자 하기보단 여럿이서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함. 그래서 친구들의 헌혈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함. 하지만 친구들은 무섭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처음에 거부함.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희귀한 봉사인 점을 들어 다시 한 번 설득함. 그래서 친구들은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해주었다. 나 하나로 시작한 나비효과를 느낄 수 있어서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서술함.

Q : 15분 내외인데 대답을 잘 해주셔서 금방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 충남대학교 정문에 들어올 때, 천마동상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향후 충남대에 입학하여 천마의 뜻인 지성과 인성, 그리고 열정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왜 충남대 화학과에 지원했는가?를 물어보기 때문에 충남대의 장점과 화학과에 지원한 이유를 적절히 섞어서 답하기.
- ◆ 긴장 제대로 했는데 막상 면접실에 들어가니까 한 분이 웃으시면서 상대해주셨음. 한 분이 어두운 표정으로 보시지만 재밌게 답하면 웃음을 감추지 못함. 그래서 편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봤음. 긴장이 많이 되면 웃으시는 분 위주로 시선을 모아 분위기를 주도할 것. 필자는 웃으면서 면접봤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어교육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수 3명, 질문 후 바로 대답하는 형식		
유의사항	◆ 완벽한 서류 기반 질문, 생기부와 자소서 분석의 세밀한 부분에서도 모두 출제될 수 있으니 생기부와 자소서 분석 중요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왜 국어교육과에 지원했는지, 지원동기 한 번 말해볼까요?

A : 네. 저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 국어교육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담임선생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학생들을 좋은 사람으로 지도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교사라는 꿈만 갖고 있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여러 문학 작품을 배우면서, 문학 작품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 매력을 느꼈고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한 문학 작품을 보면서 우리말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글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리며 동시에 좋은 영향을 주는 '국어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네. 그런데 국어교육과도 여러 대학에 있는 학과인데, 굳이 왜 충북대학교에 지원했나요?

A : 제가 충북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육목표가 제 신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충북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육목표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에게 사표가 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만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저와 딱 맞는 교육목표를 보고 이 학교가 저의 꿈을 준비하기에 적합한 학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가장 열심히 했던 동아리 하나와 그 동아리에서 한 활동을 소개해보세요.

A : 네, 저는 교사를 꿈꾸는 친구들과 함께했던 '사대부' 동아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대부' 동아리는 '교육'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동아리였는데, 저는 이 동아리에서 한 활동 중 '수업 시연'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자신의 수업을 구성하고 실제로 시연하는 활동이었는데, 저는 '사동 표현'을 주제로 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을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힘들었지만 직접 수업을 해보면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했을 때의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동 표현을 활용한 상황극을 만들어보는 '사동 상황극' 활동을 수업 중에 진행했는데, 이 활동 후에 사동 표현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하는 동아리 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업 주제에 잘 맞는 활동을 구상하는 것도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영어성적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낮고, 수학 성적은 다른 문과 친구들에 비해서 높는데 문이과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요? 영어 성적이 다른 교과에 비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 우선 저도 문과와 이과를 선택할 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과와 이과를 선택할 때 중심이 되었던 과목은 영어랑 수학이 아니라 국어였습니다. 저는 ‘국어’라는 과목을 좋아했고, ‘국어’를 더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서는 문과에 가야하기 때문에 문과를 선택했습니다. 영어 과목에 성적이 낮았던 이유는 중학생 때의 잘못된 영어 공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생 때는 영어 교과서의 본문만 전부 암기하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 이해보다는 암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점점 학습량이 늘어서 다 암기할 수 없었고 기존의 공부 방식으로는 변형된 문제에 대응하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하기 위해 본문을 스스로 해석하고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암기하는 방식보다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렸지만 지문을 이해하게 된 덕분인지 성적을 점차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Q : 아까 지원동기에서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국어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A : 저는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을 사랑해주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모두 자신이 사랑받는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을 모두 평등하게 사랑할 줄 알고 나쁜 길로 가려는 학생들까지 품고 함께 나아가는 교사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교과적인 내용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 좋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했을 때 학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독서목록을 보니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었네요. 최근에 영화화가 되면서 논란이 많기도 한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난 후 본인의 느낀 점을 말해주세요.

A :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어머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저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두시고 집안일을 하셨는데, 이 책과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예전의 가부장적 체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여성우월주의’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남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도 아닌, 여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도 아닌,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양성이 모두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양성이 모두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네, 우선 양성평등을 위해 교사가 먼저 성별에 차별을 두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강해야지.’나 ‘여자는 조신해야 돼.’라는 말처럼 성별에 어떤 역할이나 편견을 부여한 말들을 교사가 먼저 사용하지 않고 아이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아이들이나 성별에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조언과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지도했을 때 성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정말 학생부 기반 질문이어서 다른 것보다 학생부를 꼼꼼히 분석하고 관련 질문들을 만들어보는 것이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 ◆ 지원동기 같은 기본 면접 질문도 꼭 준비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제경영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수 3명, 질문 후 바로 대답하는 형식		
유의사항	◆ 완벽한 서류 기반 질문, 생기부와 자소서 세밀한 부분에서도 모두 출제될 수 있으니 생기부와 자소서 분석 중요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학교생활을 통해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고 교내행사를 기획, 홍보해 보며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3학년때 절충교역에 대해 탐구하면서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경우, 무역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변하는 글로벌경영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국제통상전문가가 되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도모하고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영어가 3년 동안 다른 교과에 비해 높은 성적을 유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인 영어를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영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다보니 다른 교과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부어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 자신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영어를 좋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소심함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학급 반장, 모둠 조장 등 앞에서 이끄는 역할을 자처하며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Q : 입학해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A : 저는 충북대학교만의 GTEP사업단과 국제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쌓아 전문 무역인이 되고 싶습니다.

Q : 무역에 영향 끼칠 국제이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 처음에 4차혁명에 대해 얘기했는데 교수님께서 미중무역전쟁이나 일본불매운동 같은 이슈에 대한 생각 물어보심.

Q : 교내봉사에 비해 외부봉사가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외부봉사를 신청하는 법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교내활동에 치중하다보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Q : 독서활동에 채식주의자가 있는데 읽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 읽고 후회했습니다. 친구가 작가의 문체가 독특하다고 추천받아 읽게 되었는데 작가의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고 장면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읽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Q : 영어 말고 다른 배우고 싶은 언어는 무엇인가요?

A :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보고 매력을 느껴 여행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읽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 면접에 들어갈 때 인사를 무조건 크게 하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생명과학과	○		
전형명	학생부 종합 1 전형(면접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인당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면접실, 3:1(면접관 :면접자)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생명과학교과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아하는 분야는 어느 것인가?

A : 저는 생명과학1교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공생관계입니다. 특히 기생 관계는 한 개체군에는 이익을 다른 개체군에는 손해를 주는 관계라고 교과에서 배웠는데 서민의 기생충 콘서트라는 책은 제 배경지식을 뒤집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시모토아 엑시구아'라는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일반적인 기생관계를 벗어나 궁극적으로 숙주에게 도움을 주는 기생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인상 게 기억에 남아 수업을 할 때도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1 : 그러면 학생은 생명과학 분야 중 진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학생 이야기 해준 사례 말고도 다른 진화의 사례를 말해줄 수 있는가?

A : 네 저는 수능완성 영어 지문을 통해 알게 된 진화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말발굽이 둥글게 될 수 있었던 진화의 사례입니다 ~~(뒤에 더 있는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Q-2 : 그러면 학생은 진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가?

Q :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 것중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을 설명해달라.

A : 저는 루미놀 혈흔 반응 실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CSI에서 범죄현장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루미놀 혈흔 반응을 실험실에서 조원들과 함께 해보았는데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Q-1 : 그것은 생명공학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체의 본질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실험을 한 것은 없는가?

Q : 학생이 임원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공부랑 같이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없었는가?

Q-1 : 그럼 성적이 떨어진 이유가 학생회 임원활동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A : 저는 학생회 임원활동을 하면서 초기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사회적인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관님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분들도 우리 또래의 자녀들을 가진 분이시니까 들어가실 때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좋지 않은 미래를 그리지 마시고 내가 면접실 내에서 잘해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가시면 생각보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들어가기 한 두 시간 전에 청심환 액기스를 구하셔서 먹고 들어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021대입의 문이 이제 열립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신만큼 하시면 분명 노력에 따른 값지 결과가 보답하실 겁니다. 파이팅 !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심리학과		5	
전형명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I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대기 → 면접실 입장 → 면접(면접관과 수험생 3:1)		
유의사항	◆ 신분증 및 수험표 반드시 지참(수험표가 없을시 출력해 줌) ◆ 대기실에 들어서면 휴대폰 및 전자기기 반납 ◆ 블라인드 면접 진행(교복 착용 금지, 가번호 부여, 교복 착용 시에는 가릴 것 줌) ◆ 대기시간에는 자신이 가져간 프린트물과 같은 자료는 볼 수 있음 ◆ 면접 후에는 대기실로 다시 들어갈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간단한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

A : 저는 심리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공감과 소통의 역량을 기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고등학교시절 포래상담사로 활동하며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추고 내담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하여 이 충북대학교에서 더욱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시절 고민이 많아 학교 내의 Wee클래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고민을 진중하게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상담선생님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 저 또한 상담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여 심리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Q : 생기부에 보면 심리자율동아리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A : 심리자율동아리에선 심리학과 관련된 서적을 읽거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감정변화에 대한 설문지를 몇몇 대상자에게 배부한 후 결과를 통계 내어 보는 등의 활동을 하며 심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Q : 위 동아리에서 실시한 특정한 상황의 예시와 통계를 어떻게 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A : 시험이나 방학을 앞두고 느꼈던 감정과 시험이나 개학 후에 느꼈던 감정의 차이 등을 알기 위해 심리통계 기법에 의거하여 통계를 낸 결과 시험 전에는 '긴장된다.', '짜증난다.' 등의 감정을 느꼈으나 시험 후에는 '슬프다.', '후련하다.' 등의 감정으로 변화하였고, 방학 전에는 '신난다.', '설렌다.' 등의 감정을 느꼈으나 개학 후에는 '짜증난다.', '슬프다.' 등의 감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Q : 이 학교에 입학한 후의 학업과 진로계획을 말해보세요.

A : 이 충북대학교는 심리학과에서 교직이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배우며 교직이수를 한 후에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배치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자아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상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Q : 독서기록에 ‘아동청소년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인지적 접근 미술치료’라는 책을 읽었다 되어 있는데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 ‘아동청소년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인지적 접근 미술치료’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트라우마 치료 과정에 아동 참여시키기’부분의 ‘Head Picture’부분이었습니다. Head Picture은 머리그림에 아동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기법인데, 채워진 부분은 아동이 현재 겪고 있는 부정적 감정을 뜻하고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일상생활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상담치료가 계속됨에 따라 점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지셨는지 더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지라 당황한 감이 있어 아쉬웠습니다. 후배분들은 자신이 한 활동의 의도, 내용, 결과에 대해 잘 정리해 가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 ◆ 교수님 세 분 모두 경청하는 자세가 다르셨습니다. 한 분은 웃지 않으시고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질문하셨던 터라 압박감이 느껴졌었고, 다른 한 분은 그 정도는 아니었으나 압박감이 느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면접 내내 미소 지어주시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보니 교수님들을 향한 시선을 고르게 분배하며 긴장하지 않은 티를 내려 하였으나 자꾸 반응을 잘 해주시는 교수님 쪽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후배분들은 사전에 면접 연습을 할 때, 교수님들은 절대 나에게 개인감정이 없고 어떤 반응을 보이든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 두셨으면 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자공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Q : 본교에 지원한 동기와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향후 진로?
- Q : 성적 급락의 이유, 본교 입학 후 어떻게 극복할 건지?
- Q : 조퇴, 질병이 조금 있는데 이유는?
- Q : 미분과 적분이 전자공학과 관련해서 실생활에 쓰이는 예시
- Q : 학교에서 물2를 배운 것 같다. 물2 과정 중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생활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
- Q : 정보 송수신 방법 중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 설명하기
- Q : 봉사시간이 많다. 기억에 남는 봉사는?
- Q : 학급 서기는 무작위인지, 선거로 당선된 거인지? 학급 회장, 부회장에 나갔다 떨어져서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서기를 원한 것인지? 처음부터 서기를 원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 Q : 수상실적이 많다. 자랑하고 싶은 수상실적?
- Q : 독서기록 중 자신이 가장? 인상깊은 책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최초합한 이유는 성적 급락에 대한 해명이 충분했던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적 급락의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말했고, 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1, 2학년 동안의 수학 과학 경시대회 실적을 Q9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 그외에도 봉사활동과 교내외 수상실적 등 다양한 활동이 2학년때까지 이루어진 것이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 ◆ 물리질문 3개중 한개도 제대로 못말해서 최초합 못할줄 알았는데 했네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충북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화학과		○		
전형명	학생부 종합1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 입실하면 자리에 붙어있는 수험번호를 보고 자기 자리에 착석, 입실 시간이 지나면 전자기기를 제출, 가번호 부르면 면접실 앞으로 이동, 대기 후 앞 사람 나오면 면접실로 들어감, 면접관은 3명(한분은 지원동기 및 활동, 한분은 수상활동, 한분은 인성/이런 식으로 나눠서 질문)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블라인드 면접), 면접은 수험번호 순(가번호도 수험번호 순), 대기 중에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 답변은 정확히 적지 못함. 질문은 순서대로 아님.

Q : 화학과 지원동기

A : 화학공학과 같은 활용분야도 중요하지만 순수학문으로서의 화학도 중요하단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화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화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A : 사람의 몸은 물론 주변의 모든 것들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입니다.

Q : 진로를 바꾼 이유

A : 화학에 관심을 가지던 중 약이 개발되지 않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신약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제가 그 신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1학년때 부반장으로 활동했는데 느낀점

A : 일반적으로 부반장이라 하면 반장이 부재할 때, 반장을 도와서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장과 함께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반으로 나누어 함께 완성하곤 했습니다.

Q :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중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A : 저는 방송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거창한 봉사보단 주변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Q : 화학주제탐구대회, 창체동아리상을 수상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A : 화학주제탐구대회는 어떠한 주제를 탐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풀어내는 대회였습니다. 중화반응과 같은 화학1 내용이었습니다. 창체동아리상은 아두이노 사격장 등을 만들어 발표하고 받은 상입니다.

Q : 그 동아리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A : 동아리장을 도와 부원들을 뒤에서 도와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두 처음 도전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저도 처음이었지만 강의를 보고 공부하면서 동아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Q :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봤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활동을 설명해주세요

A : 조원들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들의 성분을 조사해본 후 참고하여 재료를 선정하고 조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배합비율을 정하고 실제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Q : 티타늄디옥사이드의 역할

A : 자외선의 종류로는 UVA와 UVB가 있는데 티타늄디옥사이드는 UVA일부와 UVB를 차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UVB를 더 잘 차단합니다.

Q : 성적은 상승세네요 만족하시나요?

A : 네. 나름 만족합니다.

Q : 기억에 남는 책

A : 저는 '재밌어서 밤새읽는 화학이야기'라는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문적인 화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책들도 좋지만 이 책처럼 실생활에서의 화학을 알려주는 것이 더욱 쉽게 와닿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예시로는 콜라보다 청량음료가 산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 뼈나 치아에 안 좋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탄산음료가 뼈나 치아에 더 안 좋다고 알고 있었는데 청량음료가 더 안 좋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 분위기가 생각보다 편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포항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단일계열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준비시간 17분, 면접 1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강당 → 각각 대기실로 이동 → 문제열람실 → 면접장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신분증, 수험표 지참 ◆ 제시문 받기전 대기시간 자유(자는 사람도 있었음) ◆ 제시문 풀이 후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필기구 만지면 탈락				
질문 및 답변 내용					
<p>◆ 제시문 1. 1km의 선분이 주어졌고, 양 끝점에 자동차가 위치해있다. 두 자동차는 시속 50km로 달리고, 두 자동차는 최소 50m의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두 자동차는 서로의 위치를 도착점으로 하여 움직인다. 이 때, 두 자동차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최소시간은?</p> <p>◆ 제시문 2. 반지름이 20km인 원형 섬이 있고, 그 둘레를 628대의 드론이 일정간격으로 둘러싸고 있다. 또한 산의 고도는 다양하고, 최고 고도는 4.9km이다. 각각의 드론들이 각각 위치한 지점에서 지름끝으로 가려고 할 때, 최단 시간을 구하여라. (드론들은 수직으로, 수평으로만 이동 가능하고, 수평이동할 때는 0.1km이내에 아무 지형지물, 드론이 없어야 한다. 또한 드론들은 동시에 출발한다.)(값은 근사치로 계산)</p> <p>◆ 자기소개</p> <p>Q : 제시문부터 해볼까요?</p> <p>A: 1번 설명하겠습니다. 상황은 최단시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가 동시에 출발해 대칭적인 경로를 움직여 동시에 도착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를 생각해보았는데, 먼저 곡선을 사용한 경우와 곡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곡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곡선을 많이 사용할수록 경로가 길어지므로 곡선을 최소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500m지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이 경로가 최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면서 설명함). 다음으로 곡선을 사용하지 않는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경로는 1km의 직선을 대각선으로 하는 직사각형경로인데, 이때 직사각형의 높이는 50m가 되어야 합니다. 경로를 계산해보았을 때 직사각형경로가 더 짧기 때문에 저는 이 경로가 최단 경로라고 생각합니다.</p> <p>Q : 일단 2번째 문제로 넘어가죠.</p> <p>A: 네. 앞서 설명한 직사각형경로를 이용해 생각해보았을 때, 수평 이동거리는 약 40km, 수직이동거리는 10km로 약 5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칠판에 식을 적었음)</p> <p>Q-1 : 그런데, 방금전 곡선경로를 변형해 최단경로를 구할 수는 없을까?</p> <p>A: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한 30초 정도 생각한 것 같다). 아, 선분의 끝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을 연결할 때 최소가 될 것 같습니다.</p>					

Q-3 : 왜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죠?

A: 음.....아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Q-4 : 그러면 시간 계산 다시해볼래요?

A: 수직길이는 똑같이 10km로 생각할 수 있고, 호의 각을 근사시키면 0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게 됩니다. (답이 확실히 기억이 안남)

Q-5 : 그런데, 그것으로 628대의 드론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까?

A: 4.9km의 산을 경로에 두고 는 경우가 제일 오래걸리는 경로이고, 문제에서 모든 드론이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Q-6 : 그렇게 되면 2개의 드론의 경로만 생각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남은 626대의 드론이 있는데, 이들의 경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A: 그럴 경우에는 굳이 5km를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Q-7 : 그러면? 다른 드론들은 산을 돌아가야하나?

A: 그런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인지, 수직에서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질문하고 대답 듣는중 문 두드림)

Q : 제시문은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앞서 자기소개를 들어보니까, 포스텍 주변에 사는 것 같은데, 여기 사나요?

A: 네. 그렇습니다.

Q : 그러면 포스텍에 대해서는 잘 알겠구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나 기뻐던 적 있어요?

A: 힘들었던 때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뻐던 적은 있습니다. 교내 학술대회에서 물리 부문에 대상을 받은 것이 그것입니다.

Q : 친구들에게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딱 떠오르는 세 단어 있나요?

A: 음..... 단어로 단정짓기 보다는 제가 친구들에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을 많이 해주기도 하고요. (문 계속 두드리시다가 열으심)

Q : 이정도면 충분히 물어본 것 같네요. 수고했어요.

A: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기소개 준비해가기. 나만 물어봤다고 하는데 혹시 모른다.
- ◆ 모르는 게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친절하게 답해주시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신다.
- ◆ 교수님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나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자.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포항공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단일계열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A~E까지 6명씩 묶어서 제시문 확인하러 이동 후 2명의 면접관에게 풀이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교복 착용 금지, 지역 언급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 **문제1.** 1km떨어져 있는 두 자동차의 간격을 최소 50m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최소시간으로 이동하시오.
처음에 단순 직선 운동을 생각하여 가운데 점에서 점과 직선사이의 거리가 각각 25m인 두 직선을 만들어 풀이 함. 이후 타원궤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정 간격까지는 직선 운동하다가 이후 가운데 부근에서 원운동하는 풀이를 함.

◆ **문제2.** 시속 60km 의 드론을 움직여 반대편으로 최소시간으로 이동시키시오. 40km의 원궤도의 섬에 600 개 이상의 드론이 있음.
한 드론이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다른 드론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되어 최소시간으로 이동시키려면 모든 드론의 도착시간이 일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반원을 돌면서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함. 산술기하에서도 최솟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값이 같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함.

◆ 생기부 면접

Q :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주로 읽나요?

A : 영미 소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같은 작품을 주로 읽고 유튜브나 강의에서 소개한 과학 책 이나 과학 동야를 주로 읽습니다.

Q : 만화책 같은 건 안 읽나 봐요?

A : 원피스 같은 만화는 자주 봅니다.

Q : 포스텍 이공계 대탐험에 참여했는데 이거 외에 포스텍에 와본 적이 있나요?

A : 포스텍과 학교가 가까워 4번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다. 포스텍에서 제공하는 기초 물리학 실험도 4번정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Q : 면접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굳이 포항에 있는 학교에 가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공계학과 체험을 하고 난 뒤에 포스텍이 추구하는 연구와 창업이 제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여 포스텍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포스텍에 꼭 합격하여 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힌트 많이 주시니까 쫓지 말고 최대한 자신을 어필할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경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법경영학부		17	
전형명	잠재력우수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대기실-면접실 앞에서 대기-면접-설문조사		
유의사항	◆ 교복불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소개해보세요

A : 저는 '나는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다'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의 저자 또한 여성 경찰관으로서...

Q : 경찰관을 희망하는 계기는 무엇인가요?

A : 저는 '더블에스'라는 동아리를 통해 경찰관이 직접 하는 일을 체험해보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을 희망하게 되었고, 모의재판 체험을 통해 법의 지식이 풍부한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Q : 선도부에서 한 활동과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 저는 선도부에서 영양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급식소에서 학생들의 자리배치를 도왔고, 학교의 건전한 문화 형성을 위해 생활지도를 하며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불만과 갈등을 해결하며 인내심과 이해력을 기를 수 있었고...

Q : 자기소개서에도 쓰인 인문사회글쓰기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어떤 주제로 썼나요?

A : 저는 소방관의 인권이 하락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고...
바사크의 인권 3세대론 중 2세대인 사회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글을 써나갔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경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ict로봇기계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2~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수험표 제출 → 번호표 부여 → 대기 → 면접. 끝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학교 성적이 꽤나 좋았는데, 갑자기 성적이 저조한데요. 그이유가 있습니까?

A : 동아리 활동에 더욱 집중하여 로봇에 관하여 더 공부하게 되었기에 성적이 좀 저조해지게 되었습니다.

Q : 학교에 입학하면 학업계획이 무엇입니까?

A : 1학년때 동아리에 들어가 열심히 할 것이고, 2학년 때는 학업에 집중하여 성적 관리를 할 것이고, 3학년때는 영어공부를 할 것이고, 4학년때는 토익에 집중하여 취업에 노력할 것입니다. 그 후엔 개발도상국에 가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Q : 혹시 아이들을 위해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A : 이미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공에 코일과 전자기를 이용하여 낮에는 축구를 하며 전기를 생성하고, 밤에는 전기를 사용하게 하는 작품을 생각했습니다.

Q : 수고하셨습니다.

A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기소개서를 확실히 인지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교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생물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제시문 3분 생물관련 개념 설명 3분 서류 3분) (생각할 시간 8분 중)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 학생 → 3: 1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면접 자료 허용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 그 당시의 국가관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은 달라져왔다. 그렇다면 교육의 본질이 존재하는가?

Q : 교육의 본질이란 과연 존재하는지 설명하고 교육이란 변화해야하는지 아니면 교육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변화하면 안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십시오

A : 당시의 국가관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 변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 어떤 시대에서도 인성이라는 것이 등한시 되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의 화랑도부터 현재까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교육의 본질이란 존재하며 저는 그것이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인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변화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존 협력 협업이 중요하고 학교는 이러한 공동체 사회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Q : 현대사회에서 교육이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A : 현대사회는 4차산업혁명시대로 ICT기술과 다른 거의 모든 기술이 융합된 초융합, 초연결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술들 즉 코딩이나 인공지능같은 것들을 일단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빠른 발전에 뒤처지는 사회적 합의나 윤리적 논의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인성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Q : 교육의 본질은 인성이고 변화하면 안된다는 말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코딩 배우셨나요?

A : 아니요 그러나 저희학교에서는 로봇동아리가 있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배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코딩과 같은 기술을 꼭 배워야 할까요?

A : 그런 기술들을 배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이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술적, 윤리적 문제를 마주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과학자들 끼리 논의하고 협의하기에는 너무나 폭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소비하는 미래의 소비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그 기술을 알고 이용할 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술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럼 생명과학은요?

A : 현재 4차산업혁명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생명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시대의 기술들을 통해 조금더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면 저는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생명과학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명과학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 생명과학의 어떤 것이 중요하게 될까요?

A : 생명과학이 현재에는 그다지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의 모든부분이 중요하게 될 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유전공학이 중요해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나서ㅠㅠ)

Q : 자식이 부모와 닮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을 텐데요. 유전에 관련되는 단어를 하나 말해보시겠어요?

A : (한참 생각하다가) 지금은 DNA가 생각납니다.

Q : 그럼 DNA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A : 일단 DNA란 디옥시뉴클레오타이드 에시드의 약자로 유전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물질로 알고있습니다. 즉 DNA가 전사되어 RNA가되고 그게 번역되어 단백질이 만들어 지는 유전원리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 - 인산의 골격과 이중나선구조로 되어있어 정보를 저장하는데 RNA와 단백질 보다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유전의 기본단위로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제가 읽었던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는 생물의 모든 것을 DNA로 설명하며 육체는 단순히 DNA를 운반하고 보존하기 위한 생존기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있습니다.

Q : 학교에서 실험을 많이 했나요?

A : 제가 들어간 생명과학 동아리에서는 소눈해부와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역대학과 연계한 R&E연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Q : 학교에서 실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A : 제가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책속에 나와 있는 실험을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고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험을 하지 않는 공부는 암기를 불러오고 이렇듯 우리나라에 암기식 공부가 유행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현재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과서나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수업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선생님이라면 이런 학생들을 대리고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인가요?

A :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대학을 잘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미래에 제가 교사가 되었을 때에는 이 정도까지 입시가 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허성적 때문에 암기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생명과학선생님께서 공부는 암기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시험문제를 암기해서는 풀 수없도록 문제를 내신적이 있습니다. 암기한 내용은 거의다 제시되어 있었고 저는 제 공부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기식 공부에서 이해식으로 바꾸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실험을 꼭 시킨다기 보다는 저도 그때 선생님처럼 시험문제를 그런식으로 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 준비기간에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기에는 벽차고 힘듭니다. 평상시에 어떤 주제던지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제시문 끝나고 생기부도 보기 때문에 생기부 속지는 필수. 그리고 교원대같은 경우는 학과 관련해서 개념에대한 공부를 해갈 필요가 있어보여요. 대충 때우기에는 3분스피치가 매우 힘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교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98(합격)	
전형명	학생부 종합전형 우수자 일반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별면접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개별면접 7분		
유의사항	◆ 제시문 읽고 숙려하는 시간 7분, 발표 3분 개방형 질문 4분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랑 왜 초등교사가 되고 싶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A :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등교사가 될 가번호 1202014번입니다. 물론 교사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인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교사로서 사명감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침마다 아이들 한명, 한명 손을 잡아 인사해주셨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이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Q : 다른 교대도 많은데 왜 하필 교원대에 오고 싶나요?

A : 한국 교원대학교는 제가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최적의 대학교라는 생각을 하였고 때문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국내의 유일의 교원양성대학교이며 다른 사범대도 많아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제가 꿈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 교원대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Q : 네 이제 제시문에 대한 답변 해주세요.

[제시문 : 여러 블록이 있다. 1반에서는 이 중 다섯 가지 블록을 고르고 재미있는 모형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였고 2반에서는 먼저 다섯 가지 블록을 고르게 한 뒤 모형을 만들게 하였다. 3반에서는 모형을 생각하게 한 후 블록을 고르게 하였다.]

문제1) 이 세 반 중 창의적인 모형을 가장 많이 만든 반은 어느 반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문제2) 창의적 수업을 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은?

A : 1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는 1반 학생들이 가장 창의적인 작품을 많이 만들어 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반은 마음에 드는 것 5개를 고르고 작품을 만들어보라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였고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2반은 먼저 5개를 고르게 한 뒤 작품을 만들어보라고 하였고 3반은 반대로 작품을 생각한 뒤 5개를 골라보라고 하였습니다. 2반,3반에 비해 1반은 질문이 포괄적이므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창의력에 더욱 도움이 될 것 입니다.

A : 2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질문 말고도 다양하게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저는 첫번째로 교사의 인내심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사가

질문을 하고 학생들이 대답을 하기 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약 3초정도라 합니다. 하지만 핀란드의 경우 7초를 기다립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약 2배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교사의 인내심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 교사가 창의력 수업을 연구하고 이를 수업에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 수업에는 스토리텔링, 하브루타, 플립수업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중 스토리텔링을 중점으로 동아리 활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화 개별화됨에 따라서 학생들은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요, 저는 이를 통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고장이야기를 발굴하는 사람들 줄여서 우리고장이발사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이야기를 발굴하였고 이를 직접 교육봉사를 통해 교육해보았습니다. 또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을 협업하여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등장인물의 마음에 더욱 공감하며 이야기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알게 되었고 교사가 되어서도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하여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Q : 왜 초등교사가 다른 직업보다 가치 있을까요?

A : 네 초등교사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 그들과 관계를 맺고 전인교육을 하는데요, 아이들을 올바른 인성과 품성을 가진 사회인으로 길러낸다는 점에서 초등교사 만큼 가치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타고난 교직 인적성은 초등교사와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Q :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소개해주세요

A : 네 저는 교사의 인성이 아이들의 미래다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99마리의 양과 나머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데요, 보통사람들은 99마리양을 지키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나머지 1마리 양을 지켜야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99마리의 양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교실의 상황에 적용해 볼 때 교사는 방황하는 아이를 끝까지 옳은 길로 인도해야합니다. 이런 교사의 행동을보고 아이들은 아 선생님이 내 친구를 도와주는구나, 나도 방황할 때가 있겠고 그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을 기다려야겠다. 는 생각을 하여 교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유를 바탕으로 저도 교사가 되어 나머지 한 마리 양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교통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계시스템항공공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NAVI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13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대기실-복도에서대기-3:1면접-설문지작성-퇴실		
유의사항	◆ 교복착용금지, 블라인드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저희 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A : 4차 산업혁명은 무엇보다도 제가 살아갈 사회이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기계는 핵심소재였고 저는 그런 기계들은 교내 동아리를 통하여 조금씩 접했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와는 다르게 기계자동차항공을 융합 기술대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의 인재상인 융합적 능력을 가지게 될 저 이면서 특히 저는 교육 시설 중 시스템 저에 분야에서 지능제어 및 로봇 LAB으로 자율이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다루는 기계공학자가 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생물과학II 물리II 화학II를 배웠는데 배우기된 특별한 계기?

A : 학교 교과과정이기에 배웠습니다.

Q :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A : 3학년 때 지역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었는데 한달에 한번 업체에서 도와주는 바깥활동이 전부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 부원들이 이야기해보고 장들이 모이는 월례회 시간에 독거노인분들과 함께 바깥활동과 함께 떡국을 만들어 함께 먹는 시간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집앞 공원에서 떡국을 만들고 독거노인분들과 산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독거노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들었고 저역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A :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활동은 자율동아리 공학융합반에서 학교에 배치된 알파1프로휴머노이드를 직접 조종하여 블록코딩으로 직접 동작을 만들어 동아리 홍보활동으로 사용한 활동입니다. 동작을 만드는 조의 조장을 맡으면서 가장흥미를 이룰 수 있는 동작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탐구하면서 먼저 흥미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고등학생들이 모두 알만한 춤동작으로 순서를 정하여 동아리 홍보에 활용한 활동이었습니다.

Q : 기계와 관련있는 과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A : 물리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기억에남는 물리공식이 있나?

A : 물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포물선 운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말

A : 제가 하고싶은 일에 확신하며 그에 따라 노력할 준비도 되었습니다. 재학중에도 그리고 졸업후에도 국립한 국교통대학교를 빛낼 인재가 되겠습니다. 오늘 면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전공 관련 세특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다. 지원동기와 마지막할말은 필수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교통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정보기술공학부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1 : 3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 대기 시간에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서 2번에 인공지능을 고안 했다고 했는데 직접 만들었나요?

A : 아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 고안하였습니다.

Q : 바람을 감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A : 바람감지센서를 이용해 공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이를 딥러닝 알고리즘에 넣는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 집니다.

Q : 대학 졸업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 : 인공지능 회사에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먼저 웹개발 등을 하며 실무능력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Q-1 : 웹개발은 인공지능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Q : 튜링테스트가 무엇인가요?

A : 튜링테스트란 앨런 튜링이 만들어낸 것으로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판별하는 시험입니다. 2개의 방에 각각 사람과 기계를 넣고 시험자 1명과 문자로만 소통을 합니다. 이 때 시험자와 기계와 인간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기계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학부안에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 의용 it 공학과가 있다. 면접관들께서 각 학과 당 한분씩 나온건지는 몰라도 한분이 질문을 별로 안하셨다. 그래도 번갈아가며 면접관들 보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 ◆ 졸업 후 어떠한 회사에 들어가고 어떤 진로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학과	○		
전형명	논술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5~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면접장-면접 (교수님과 2:1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 불가능 ◆ 수험표, 신분증 지참 ◆ 대기실에서 출석체크 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해보세요

A :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게임을 통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은 미래의 게임 프로그래머입니다.

Q-1 : 부모님이 그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A :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Q-2 : 그 직업을 진로로 희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A :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자주 했었는데 크면서 생각해보니 게임을 했던 것이 큰 추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힘들거나 지칠 때 휴식처가 되어 주기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느낀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진로로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Q-3 : 게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운동이나 다른 것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한다.

A : 그래서 3년 내내 농구부로 활동했습니다.

Q : 진실과 사실의 차이가 무엇인가

A : 진실은 있는 그대로의 것이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Q-1 :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A : 잘 모르겠습니다. (장발장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시 말해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겠다고 했음)

Q : 어떤 일을 할 때 명분과 실리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A :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 할 때는 그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1 :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 계속 도전하면서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수정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 이 학교를 왜 지원하였나

A : 사실 이 학교랑 집이랑 멀어서 이 학교를 잘 몰랐는데 친오빠가 자기 친구가 이 학교 다니는데 좋다면서 소개시켜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 조사해보니 높은 취업률과 전공을 트랙별로 나누어 한다는 점, 또한 집이 멀어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높은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Q-1 : 이 학교가 학생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 저는 성격이 긍정적이어서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학교의 인재상이 도전지향형이라 저와 가치관이 일치하기 때문에 학교가 저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 그건 학생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아닌가

A : 저를 뽑으시면 분명 학교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Q : 프로그래밍 언어 할 줄 아는 게 있나

A : 프로그래밍 언어는 해본 적 없지만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Q-1 :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A : 학교에서 진로체험 시간에 게임코딩 분야가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Q : 학창시절에 어떤 과목이 공부하기 힘들었는가

A : 저는 국어와 영어가 힘들었습니다.

Q-1 :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A : 두 과목 다 언어계열인 만큼 꾸준히 보고 틈틈이 단어를 외우며 이겨내려 했습니다.

Q :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A : 저는 진로탐색을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끼리 동아리도 만들어 한 분야를 깊게 탐구해보고 싶고 여러 예체능 활동들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안내문에는 생기부를 참고 자료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물어본 것은 없다. 전공지식도 잘 안 물어본다. 이 학교가 인성 질문이 특이해서 면접 가기 전에 본인의 가치관 정도는 다시 생각해보고 가면 될 것 같다.
- ◆ 면접 반영 비율도 10% 밖에 안되니까 긴장하지 말고 몰라도 당당하게 대답하면 교수님들이 웃어주신다.
- ◆ 구체적으로 답변 안하면 꼬리 질문을 많이 물으신다.
- ◆ 학교에서 예상 면접 질문 올려주는데 그거 잘 준비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기전자통신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전공적합성)+10분(인성)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강의실에서 대기, 이후 2명씩 나감 ◆ 전공적합성 면접관(1명)한테 가서 면접 보고 인성 영역 면접관(1명)한테 가서 면접 봄(한 명 넘어가면 한 명 들어오는 식)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p>◆ 전공적합성</p> <p>Q : 지원동기 A : 학급스터디그룹으로 전과목들을 공부한 후, 과학의 성적이 부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고 함...</p> <p>Q : 반도체에 관심있다 하던데 반도체의 8대 공정이 뭐냐? A : 불화수소가 왜 피해를 주냐? A : 반도체 공정 중에서 식각공정에서는 고순도의 불화수소만 쓰일 수 있는데, 저순도를 사용하면 크나큰 오류가 발생한다.</p> <p>Q : 아두이노와 파이썬의 차이점? A : 아두이노는 하드웨어고 파이썬은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니 소프트웨어 쪽에 가깝다 함. (사실 모름)</p> <p>Q-1 : 아두이노와 라즈베리파이의 차이점? A : 둘 다 하드웨어지만 기능 면에서 차이남...(이 때, 면접관님 얼굴이 아니라는 얼굴이었음), 사실 라즈베리파이를 2학년 공학동아리 때 하려고 했었는데 막바지에 접어들어 제대로 하지 못했다. (면접관님이 '아, 다음번에 다시 하면 되죠.' 했음)</p> <p>Q : 활동은 많이 했는데 상장이 비교적 없다. 왜? A : 많이 나갔는데 역량이 부족해서인지 많이 못 받았다.</p> <p>Q : 마지막으로 할 말 A : 반도체 8대 공정 중 산화공정은 웨이퍼 표면에 산화막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있기에 웨이퍼는 다음 과정들을 해낼 수있다. 나는 이 학교가 나의 산화막이 되었음 한다. 그럼 내가 웨이퍼가 되어 실사구시 철학을 실천하는 인재가 되겠다.</p>					

◆ 인성

Q : 영어 교육봉사를 했던데 되게 특별하다. (면접관님이 영어 선생님이라 하셨음. 그래서, 이득본 기분...) 혹시 기억나는 경험 있나?

A : 처음에는 저랑 안 친해서인지 단어를 외우고 테스트를 치는데 바로 쳐도 대답을 못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통을 계속하다 보니 단어를 외우고 다음 주에 테스트를 해도 대답을 잘 하더라. 그래서, 성취감을 느꼈다.

Q : 단점 없을 것같은데(이 때, 기분 좋았음 히히)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은?

A : 내가 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굽히지 못 한다.

Q-1 :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

A : 중재를 잘 한다.

Q-2 : 그런 경험?

(사실 지어낸건데 경험 말하라니까 살짝 당황,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대충 학교에서 친구 둘의 싸움을 중재했다...라고 지어냄)

Q : 읽은 책 중에서 좋아하는 책? (전공 관련은 말하지 말랬음...)

A : 기억전달자. (그냥 갑자기 생각나길래 말함. 책 내용도 대충 말함.)

Q : 영어 봉사 활동은 했으면서 영어 책을 많이 안 읽었네?

A : 영어 책을 1학년 때 읽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그 이후부터 조금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런 것 같다. (약간 농담식으로 질문하시길래 나도 조금 웃으면서 대답했음)

Q : 면접 준비 기간?

A : 3주.

Q : 많이 했네. 혹시 준비했는데 아쉬운 거 있으면 말해봐라.

A : 그냥 외운 것 중에 하나 말하려고 했는데 자소서 관련 내용 말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 같길래 4번 지원 동기 대충 요약해서 말함. (마지막에 면접관님이 그렇지하면서 끄덕거리주셔서 기분 좋았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예시 질문 거의 안 나옴... 강 말로 상대해야할 듯.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임베디드시스템전공	○		
전형명	학생부종합(KPU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수험번호 순		
유의사항	◆ 블라인드 × 1 대 3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어디서 왔어요?

A : 포항에서 왔습니다.

Q : 언제 출발했어요?

A : 새벽4시에 출발했습니다.

Q : 간단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해주세요.

A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공학부 임베디드시스템전공에 지원하게 된 배일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동아리활동을 통해 처음 자율제어시스템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 공학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ICT융합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보게 되었고 그 연구를 진행하며 전자 신호 응용 전문가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엔지니어링하우스제도와 같이 직접적으로 산업과 연계되어 산학협력을 도모할 수 있고, 현장체험, 인턴과 같은 제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1 : 자율제어시스템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A : 제가 해본 자율제어시스템은 초음파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탐지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와 장애물이 없을 때 로봇에 가해지는 전압에 차이를 주어 일정한 전압이 주어질 때는 앞으로 전진하고 다른 전압이 주어질 때는 정지하는 그런 로봇 코드를 짜보았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로봇이 어떤 코드를 수행할 때 전압이라는 전기적인 수치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더 정확한 전기적인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공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Q : 그러면 대학 진학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A : 대학 진학 후에는 좀 더 정확한 자율제어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전자 신호 응용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은 하고 있지만 상용화 되지 못한 드론택배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동아리 활동 중에 직접적으로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동아리 활동 중에 애완견에게 먹이를 주며 놀아주는 로봇을 구상해보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로봇에 충격이 가해질 때 로봇의 먹이통에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 먹이를 발사하는 형태의 로봇을 구상해 보았는데 이 충격이 강아지가 가한 충격인지, 사람이 가한 충격인지, 바람에 의해 가해진 충격인지 잘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을 하며 앞으로 더욱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ICT융합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하였고 훌륭한 전자 신호 응용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을 하며 남들보다 자신이 특출나게 해온 활동이 있나요?

A : 네.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하며 3D프린터를 다뤄 보았는데 그 3D프린터에 layer height값이란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 값을 인터넷에서 찾은 값으로 다뤄보았지만 그 후에 제가 직접 설정한 값을 사용하여 물체를 만들 때 매끄럽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정교하게 만들 것인지 그 n값을 조정해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Q : 자신에게 큰 감동을 준 책이나 아니면 삶에 큰 영향을 준 말이 있나요?

A : 제가 읽었던 책중에 도선우작가의 저스티스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악플과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말 중 가장 감명 깊었던 말이 있는데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나라는 더 이상 없다. 누리꾼의, 누리꾼을 위한, 누리꾼에 의한 광케이블만이 존재할 뿐이다.’ 제가 앞으로 행해야 할 ICT융합시스템과도 연관하여 좀 더 빠른 신호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생각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Q : 2학년과 3학년 때 성적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저는 2학년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학년이 되고나선 무언가 학업에 관한 간절함이 생겼고 그 간절함으로 인해 저는 낮았던 저의 학업성적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생기부를 보면 수학과 영어가 성적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저는 영어와 국어 같은 단순한 암기보다는 수학에서 간단한 공식을 암기한 후 그 공식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활용하며 푸는 것에 관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문제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꼈고 그로 인해 성적차이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Q : 하고 싶는데 못했던 말이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A : 저의 장점은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장점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핵심역량인 전공직무역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 극대화시킨 핵심 역량을 이용하여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인재상인 실천형 인재에 적합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과와 연관된 활동 중심으로 정리해서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성적변동이 있을 때 그 이유 정리
- ◆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앞으로의 학업계획은 필수
- ◆ 자신의 장점과 학교의 인재상과 연관성 찾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제금융학과		○		
전형명	고른기회II (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7~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대기실이동- 대기 - 면접 - 귀가			
유의사항	◆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알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미중무역마찰과 환율전쟁에 대한 조사를 하셨는데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세계를 이끌어가는 두 나라의 마찰로 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 두 나라의 마찰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은 어떤 것 같나요?

A : 두 나라는 우리나라의 수출 1,2위국이며 우리나라는 무역에 의존이 큰 만큼 피해는 상당히 클 거 같습니다.

Q : 통계청에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무역수지를 보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 :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의 전년도 대비 무역수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전년도 무역수지를 확인결과 중국은 38퍼센트 정도 미국은 10퍼센트 정도 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Q : 미중환율 전쟁을 조사하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 볼 수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을 알게 되었나요?

A : 미중환율 전쟁을 조사하면서 되게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 볼 필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이런 무역마찰이 이루어졌던 거 같습니다.

Q : 다른 정치적인 부분은 없나요?

A : 더 상세한 점은 잘.... 죄송합니다.

Q : 책 “나는 세계일주로 자본주의를 만났다”를 읽은 후 공정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A : 공정무역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며 마냥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불평등을 더 조성하는 거 같습니다.

Q :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나요?

A :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는 현재 공정무역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지만 브랜드의 이미지를 위한 수단일 뿐 노동자의 권리를 잘 보장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 했는데 어떠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나요?

A : 우선 소비자의 입장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잘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2학년 2학기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A : 방학동안 미리 예습 하는 습관을 들이고 매일 목표를 세우고 예습, 복습하다보니 성적이 향상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미문학·문화학과		2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 대기 - 면접실 - 면접 - 퇴실		
유의사항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가번호 부여) ◆ 면접 시 외국어 사용 금지 (해보라고 하면 가능, 해야 하면 물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작품 읽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나요?

A : Pride and Prejudice~~

Q : 영문학 관련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속에서 페미니즘적인 특징을 파악해보았다고 했는데,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A : 저는 제인 오스틴의 'Pride and Prejudice'를 읽고 그 속에 드러난 여성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주체적인 모습과 친구 샬롯의 가부장적 권위체제에 굴복한 모습을 비교하여 이야기함)

Q : 다른 작품 속에 드러나는 페미니즘적인 요소는 없었나요?

A : 저는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자'를 읽고 그 속에 드러나는 여성 문학적 면모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세 작품의 인물, 내용과 연결하여 대답함)

Q : 우리 문학 다시 쓰기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은 무엇인가요?

A : 처용가를 우리 일상 모습을 이용하여 다시 쓰는 활동입니다. ~~

Q : 영문학 작품을 엄청 많은 읽은 것은 아닌데, 혹시 더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 있나요?

A : 제인에어나 위대한 유산 등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Q : 읽어왔던 작품이나 읽고 싶은 작품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 왜 그런가요?

A : 19세기 영문학 작품에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문학 작품 속 여성의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덧붙임)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은 자신감!! 교수님들이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정말 주의깊게 들어주셨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중국언어문화학부	○		
전형명	학생부 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 복도 대기 - 면접실 - 면접 - 퇴실		
유의사항	◆ 수험표 및 신분증 반드시 지참 ◆ 외국어 사용 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사용 시 퇴실 조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기구종사자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모의 유엔 및 세계 시민 교육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시작으로 공부해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1 : 다른 언어도 많은데 중국어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현재 세계와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어 습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도 소통의 언어로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저는 중국어를 배움으로써 소통의 범위가 넓어지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중국문화알기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중국 문화에 관해 조사하였나요?

A : 저는 '지금은 중국을 읽을 시간'이라는 책을 읽고 중국의 선물 문화에 관해 조사하였습니다. 중국은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해음현상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선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인 배는 헤어지다라는 단어의 발음과 비슷해 선물하기를 꺼리는 반면, 사과는 평화라는 단어의 발음과 비슷해 명절에 주로 선물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 국제기구종사자가 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저는 중국이 점점 커지는 미국의 패권을 어느 정도 막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나라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는 미국의 발전을 어느 정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발전을 통해 이를 이룩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실크로드 경제정책을 통해 미국에 상대하는 그들만의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대일로가 80개가 넘는 국가를 통합시켜 건설해야 하기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이 정책이 세계의 시장과 외교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활기록부를 무조건 꼼꼼히 읽고 긴장하기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GBT		7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7~8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유의사항	◆ 면접 대기 시간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진로희망이 1학년 때 교육 분야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바뀌게 된 동기?

A : 저는 1학년 때는 친구들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을 받고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난 후의 뿌듯함이 좋아서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실용경제라는 과목을 이수하면서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꿈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경제 신문을 통해 경영 컨설턴트의 역할에 알게 되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다큐프라임 영상을 시청하면서 마케팅에 대한 관심 또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제 신문을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에 대한 기사를 보며 IT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Q : 유튜브의 운영 전략?

A : 유튜브는 오픈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자막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 사람들이 영상을 보며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독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Q-1 : 유튜브 운영 전략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통찰력이 넓어졌다는 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 우선 저 혼자서 유튜브의 운영 전략을 분석할 때에는 '좋아요' 개수를 기준으로 유튜브의 대중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다른 친구들은 유튜브의 '구독'과 '링크' 시스템으로 유튜브의 대중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처럼 토론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물 현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Q : 행발에 마음 씀씀이가 좋고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그 이유?

A : 저는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친구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후에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을 때도 기업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학교에 와서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가?

A : 저는 한국외대 GBT학부의 커리큘럼처럼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IT, 경영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Q : 학교에 와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건 어떤 걸 해보고 싶은가?

A : 저는 한국외대 홈페이지를 찾아본 결과 CCC(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CCC를 통해 인격적 함양을 기르고 싶습니다. 최근 삼성과 같은 비리가 많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보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기업은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들통나고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인격 함양을 위하여 CCC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Q : 자신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가?

A : 저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1학년 때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도 했고, 돈을 주고 인강을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3학년 때 한 교육 콘텐츠 영상을 보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교육 콘텐츠를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Q : 다른 학교에는 어떤 과를 지원했는가?(동일한 과에 지원하였는지 물어보신 거였다.)

A : 한동대의 자율 전공학과를 지원했습니다. 1학년 때는 모두 자율 전공으로 뽑는 대학입니다.

Q : 왜 GBT에 지원하였는가?

A : 우선 제 꿈은 벤처 기업을 컨설팅 해주는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벤처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기업입니다. 벤처 기업은 IT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IT에 대한 심화적인 전공 학습이 있는 GBT학부가 제 꿈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Q : 수학 점수가 낮는데 수학이 자신을 곤혹스럽게 한 이유와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주세요.

A : 사실 저는 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자신감이 부족하여 노트 정리와 발표를 통해 자신감을 신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새로 배운 용어와 공식을 노트에 정리하고 친구들과 어려운 문제를 공유하고 발표함으로써 자신감을 신장시켰습니다. 후에 제가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을 때 재무관리와 회계의 지도를 할 때에도 이러한 저만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게임화 전략을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며 적용했다고 하는데 설명해주세요.

A : 저는 스타벅스의 다이어리인 몰스킨의 경영 전략을 분석하며 쿠폰제를 사용하는 게임화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먹거리 부스에 적용하며 전교생을 대상으로 꼬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즈 데리야끼’ 꼬치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를 쿠폰제에 적용하여 일반 꼬치 3개를 사면 ‘치즈 데리야끼’ 꼬치를 하나 더 주는 프로모션인 게임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Q :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하세요.

A : 우선 IT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IT의 기술 가치를 상품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 GBT학부에 재학중인 졸업생 언니를 통해 GBT학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동기부여를 받았고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꿈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GBT 학부에 입학하여 IT분야의 경영을 추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싶고, 경영 분야에서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꿈을 꼭 한국외대 GBT학부에서 이루어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일단 자신의 생기부와 자소서는 꼼꼼히 보고 면접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순발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못한 질문이 나왔지만 모른다고 하고 하지 않고 배경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학과에 어떤 걸 배우는지, 동아리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으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스페인어통번역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 명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수험표 신분증 필수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스페인통번역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A : 평소 영어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와 그 사용국가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와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으로 다방면에서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페인어거저의 진로인 통역가에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Q :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 : 화법과 작문활동에서 스페인 문화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면서 스페인 문화 중 '시에스타'라는 낮잠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에스타'라는 낮잠문화 경우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바쁘고 일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Q : 읽은 책 중 인상 깊은 책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A : '기억 전달자'입니다. 주인공은 차별없고 다툼이 없으며 일정한 규칙이 정해진 '커뮤니티' 라는 곳에 살고 있으며 주인공은 '기억 전달자' 라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대략 내용 설명)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극단적인 통제와 질서추구는 결국 비인간성을 낳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이와 평등, 안락사, 장애인, 산아제한, 국가의 통제등 현대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Q : 독서활동 중 최정화 교수의 '통역에서 소통으로 글로벌 리더를 꿈꾸다' 가 기재되어 있는데 읽고 느낀 점은?

A : 이 책으로 저는 통역사란 직업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통역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정말로 인상깊었습니다. 통역사의 힘듦이 절로 느껴졌지만 이런 일들을 겪고 해결해가면서 성장하는 것. 상황에 따른 대처가 통역사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Q :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은?

A :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아리에서 한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홍보책자 만들기'입니다. 저는 영어와 독일을 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외국에 홍보하기 위해 무작정 알리기 보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와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소시지나 맥주로 유명한 것을 파악하여 그와 연관시켜 황리단길의 한옥으로 된 호프집을 책자에 실었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나라를 널리 알려려는 저의 꿈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통계학과			
전형명	학종/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7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휴대폰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강의 및 답변 내용

Q :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이를 위해 했던 노력

A : 처음에 저는 수학분야를 진로로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2때 태양전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가 실험 결과를 표로 정리하고 그래프와 시키는 분석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때 통계학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활동으로 통계학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그 후 통계학 관련 도서라든가 3학년 때 통계학 관련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 등 통계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Q : 요즘 (설명)~라고 해서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데 이럴 때 아주 일부분만 보여주는 통계가 과연 유용한가?

A : 물론 빅데이터처럼 표본의 수가 방대할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표본의 수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때 통계학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학의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 앞선 사건의 개형을 보고 나중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계가 쓸모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A : 네, 그렇습니다.

Q : A라는 반과 B라는 반이 시험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A반의 평균은 70점 B반의 평균은 75점이다. 이때 평균이 높은 B반 학생들이 A반 학생들보다 공부를 잘한다고 말 할 수 있는가?

A : 그것은 편차를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 A반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대략 70점대로 A반의 평균이 70점이 나오고 B반은 어떤 학생들은 100점, 90점인데, 또 어떤 학생들은 반 평균보다 매우 낮은 점수로 B반의 평균이 75점이 나온다면 B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A반 학생보다 공부를 잘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Q : 그럼 반 평균 점수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은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A : 네 그렇습니다.

Q : 그렇다면 A반과 B반이 다시 시험을 봤을 때 B반의 평균이 A반의 평균보다 높게 나오나?

A : (7초 고민) 잘 모르겠습니다.

Q : 6개월 동안 태양전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무엇을 목표로 이것을 진행하였나?

A : 교과목에서 태양전지에 관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배우고 태양전지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동될 수 있는가, 고민하였고 어떤 것이 조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지 실험하였습니다.

Q :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였는가?, 무엇을 측정하였는가?

A : 예를 들어 전구에 셀로판지를 씌워 그것의 조도를 측정하였습니다.

Q : 어떤 것을 변인으로 측정하였나요?

A : 셀로판지의 색을 변인으로 하였습니다.

Q : 처음 가설을 설정할 때 무슨 색이 가장 조도가 높게 나올 것이다 하였나요?

A : 노란색이 가장 조도가 높게 측정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Q : 그럼 무슨 색이 제일 조도가 높게 나왔나요?

A : 노란색 셀로판지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Q : 실험결과가 가설대로 정확히 나온 거네요?

A : 네,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저희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주로 자소서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하지만 단순 암기가 아닌 생기부를 바탕으로 한 구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융합고고학과		1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쯤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 시간: 2시간 정도(마지막) ◆ 면접관 수: 3명-면접자 수: 1명		
유의사항	◆ 간식 주니까 당 떨어지면 챙겨먹을 것(눈치 약간 보임) ◆ 작년까지는 교복 필수였지만 지금은 교복 or 단정한 옷 중 택 1 ◆ 핸드폰 소지 불가(수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융합고고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A : 저의 꿈은 여행오퍼레이터였습니다. 세계의 여러 관광지들을 조사하면서, 관광지가 그 나라의 문화를 대표 한다는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관광이 곧 한 나라의 문화를 보고 체험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할수록, 오히려 각 나라 문화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문화란 그 나라 역사가 걸어온 발자취이며 또 하나의 역사로서 그 나라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는 것임을 안 저는 오히려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역사를 땅에서부터 끌어 내 생명을 불어 넣는 고고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이라는 학문은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과 조사가 주를 이루되, 그것만이 목적이고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굴된 문화유적을 연구하고 그것이 현대에 활용되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며 그 과정에서 문화유적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진정한 고고학의 의미이고, 그 의미를 직접 탐구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의 매력에 이끌려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현대인들의 삶속에 녹아들어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고고학을 배우고 탐구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정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와 기준을 제시하고 각각의 사례를 들어보시오.

A :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7 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입니다. 사적은 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명승은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무형 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민속문화재는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진짜 다 외워서 감) 나머지 하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국보의 사례에는 국보 1호인 승례문이 있고, 보물에는 대동여지도가 있으며 사적에는 수원 화성이 있습니다. 또 명승에는 해금강과 소금강이 있으며 중요민속문화재에는 선교장이 있습니다.

Q : 학교에서 준 질문 - 기억안남**Q : 합격하면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어떤 방향에서 학습하겠다는 계획을 말해 보세요.**

A : 발굴된 유물의 활용은 고고학의 가장 큰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용을 위해서는 유물이나 유적들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유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이 현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넓은 시각과 보다 넓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대학 진학 후 바로 러시아어 공부에 돌입할 것이고 1학년이 끝날 때쯤 토르플 기본단계를 취득해 본교에서 진행되는 학점교류제도 중 교환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고고학이 더 발전한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그 나라의 유물들을 직접 발굴하며 그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해박한 고고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볼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시각까지 가진 국제적인 고고학 엘리트가 될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Q : 이제까지 가 보았던 박물관의 전시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유물에 대해 시대, 특징, 문화재적 가치 등을 포함시켜 설명하시오.

A : 저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된 보물 제 635호 경주 계림로 보검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유물은 5~6세기 신라시대에 만들어 진 유물이며 금을 녹여 만든 구슬과 석류석을 상감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라에는 이러한 기술이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극무늬나 석류석은 동유럽의 기법을 사용하였고 카자흐스탄의 보로보예 단검과 매우 흡사하여 이 시기에 동과 서를 이어주는 황금 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까지 가기 위해서는 필기고사라는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함을 꼭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국항공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우주기계	○		
전형명	미래 인재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2 학생 1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밖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당신은 그 아이를 몰라요. 당신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 저는 자신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을 갈 것입니다.

Q : 지원동기와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얘기해 주세요.

A : 동아리 활동으로 고무동력기를 이용한 활동과 관련하여 얘기함

Q : 고무동력기활동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 날개의 형태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실험결과를 대답함.

Q : 자기소개서에 태산이 언급되어 있는데 태산이 무엇인가요?

Q : 2학년 때 창의력 창작 대회는 어떤 활동인가요?

A : 다리 만들기 대회이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무너지지 않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법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진행위원님이 호명하면 고사실 앞에서 대기합니다.(엄숙한 분위기)면접관은 2명입니다(남자 두 분)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블라인드 면접, 민증 수험표 필수				

질문 및 답변 내용

(시작 전에 분위기 풀어 주는 질문 몇 개 해주심.)

Q : 진로희망을 보니까 다 법 계열인데 지금 본인의 꿈은 뭔가요?

A : 저는 법적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당한 법적 대우를 받은 피해자들을 구제시켜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상담가로 일하고 싶습니다.

Q : 인권 동아리가 뭔가요?

A : 인권 동아리는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토의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Q-1 : 인권 동아리에서 조사하면서 제일 인상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A : 염전노예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는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동을 착취하고 있는 기사를 접하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률 상담가가 되어야겠다는 저의 꿈을 확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A : 저는 실제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수의견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소수 철거민 박재호와 변호사가 국가권력에 맞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우리나라 권력층의 비리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 저는 고교활동을 통해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길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과에 입학하여 교수님들의 수업으로 법적지식을 쌓고 다양한 학교활동으로 지식을 쌓는다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컴퓨터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한남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은 모든 공대학과 한꺼번에 모아서,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부모님 직위, 대회 상 등 언급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해 주세요.

A : 저는 비유하자면 보아뱀 같습니다. 뱀은 동물을 통째로 삼켜 소화시킵니다. 저는 제게 과제나 문제가 주어지면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Q :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꿈이라고 했는데 학과 진학시 추후 계획

A : 스마트미러를 만들면서 라즈베리파이와 연동할 수 있는 앱을 간단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을 접했고 대학교를 진학하여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알고리즘을 학습해 인공지능과도 접해 보고 싶습니다.

Q : 동아리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중 코딩파티 활동이 어떤건지

A : 코딩파티에서 경험한 프로그래밍언어와 관련지어 대답함.

Q : 고등학교 재학기간동안 친구들과 협동해서 한 즐거운 경험 생각나는거 있는지

A : 체육대회 농구대회 경기 주장으로 활동했던 것 (자소서 3번)

Q : 마지막으로 할말 있으면 하세요.

A : (인재상 말하고) 뽑아주시면 한남대와 저 자신에게 빛을 발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 있는 목소리와 자세로 면접에 응했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생각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율전공	○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 2대 1 면접(처음에는 딱딱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두분 다 웃으면서 하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

Q : 진로계획

Q : 장애인 봉사를 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은?

A :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정확한 나레이션 서비스 앱을 제작하고 싶고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막서비스 앱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Q : rc카를 제작하였는데 그때 맡은 역할이 무엇이 었나요?

A : 코딩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Q : c언어 말고 다른 언어를 사용해 본적이 있나요?

A : 자바언어를 사용했습니다.

Q : 한동대에서 지원자를 뽑아야 할 이유를 말하세요.

A :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컴퓨터공학을 좋아하고 즐기기는 사람입니다. ~

Q :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고등학교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코딩과 아두이노를 접해보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Q :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소서랑 생기부에 있는 화학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알아서 갈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율전공	○		
전형명 / 성적	지역인재전형 / 내신 성적 3.11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대기→면접실로 입실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교복 착용 금지) ◆ 기시간 동안 성경, 소설책만 읽는 것이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한동대학교 지원동기가 무엇이죠?

A : 한동대학교의 사람이 좋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는 무감독 양심 시험이나 팀제도 등 여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좋은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한동대학교 학생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Q : 활동 중 푸비니 정의를 이용하셨는데 푸비니 정의가 뭐죠?

A : 푸비니 정의는 곡면의 넓이를 구할 때 X축 Y축 순서로 적분을 하거나 Y축 X축 순서로 적분을 하거나 결과값이 같다는 공식입니다.

Q : 한동대학교에서 왜 당신을 뽑아야 하나요?

A : 한동대학교는 꿈이 있는 인재들을 위한 복수전공이나 팀제도 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제공하고 저 또한 꿈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 여러 제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기에 한동대학교에서 저를 뽑아야 합니다.

Q : 한동대학교에 입학 후 학업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A : 1학년 때 기계제어공학부와 콘텐츠 융합 디자인학부 수업을 듣고 제 꿈인 팔힘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의수에 대하여 공부해보고 2학년 때 기계제어공학부와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두 개를 복수전공을 통해 공부할 것입니다.

Q : 꿈이 팔 힘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의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팔힘이 없는 아이들을 위한 의수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신호 전달 부분입니다. 기존 의수는 잘린 팔에서 보낸 전기 신호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 받고 의수가 움직이는 데 비해 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의수는 기존에 힘 없는 팔의 미세한 떨림을 정보로 삼는 점을 신경 써야할 것 같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A : 저는 느린 학생입니다. 저의 느림 때문에 진로를 정하거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보다 느렸습니다. 그러나 정하는데 느렸던만큼 꿈이나 진로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지금 정한 꿈이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꿈이 맞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율전공			
전형명 / 성적	G-IMPACT / 내신 성적 4.17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대기→면접실로 입실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교복 착용 금지) ◆ 대기시간 동안 성경, 소설책만 읽는 것이 가능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A : 저는 2학년 때 한동대 교수님의 국제지역학 심화특강을 들을 적이 있습니다. 국제관계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처음으로 저의 진로와 관련해 특강을 들었고 이 강의를 계기로 글로벌대학 한동대학교에서 더욱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입학해 국제관계학을 전공으로 하여 국제기구론, 국제관계사를 세부적으로 배워 제가 미래 국제난민기구에서 난민을 위해 힘쓸 때 국제기구론을 통해 국제기구가 난민을 위해 제시해야할 새로운 전략이나 국제관계사를 통해 여러 나라 속에서 앞으로 국제관계 전문가가 되었을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자세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Q : “The Power of not yet”으로 자소서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 심리학자 캐럴 드웍은 대학 시험 중 F등급이 아닌 교수님께 Yet이라는 ‘아직’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자신은 스스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었고 ‘아직’이라는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직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Q : 1학년 대 위안부 수요집회에 참가했는데 여기 가서 배운 점을 자신의 꿈과 연관지어 이야기 해주세요.

A : 위안부 수요집회에 참가하기 전까지 무조건 일본은 나쁜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정확한 역사를 통해 무작정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관계전문가가 되었을 때

Q : D.C.T. 번역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힘들었던 점은?

A : 우리나라의 고유 자산인 전래동화 번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물건이나 의성어, 의태어 등이 아이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Q : 문화사대주의에 대해 발표한 계기는?

A : 평소 친구들과 이야기 할 때나 옷에 적힌 잘못된 영어 사용으로 눈살이 찌푸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친구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문화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단어 중에 굳이 영어를 쓰지 않고 한글로만 표시해도 된다는 단어에는 무엇이 있죠?

A : ~~

Q : 점자도서 봉사를 했는데 느낀점은?

A : 저는 책을 읽을 때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학교 옆 점자도서관에 가서 점자도서 제작을 위해 워드 입력을 해보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처럼 평범하게 책을 읽을 수 없었고 저는 미래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등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사람의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눈을 보시면 저의 간절함이 다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장점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동대학교 교조인 갈매기처럼 넓은 포부를 가지고 내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교육에 힘쓰는 국제관계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율전공		○		
전형명	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대1 면접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한동대에 지원하게된 계기는?

A : 적정기술주제를 탐구하던 도중에 개발도상국에 조금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을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이후 한동대의“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로고를 보고 한동대라면 저의 생각을 실현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생각해본 기술이 있나요?

A : 저는 다크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상을 본적이있습니다. 축구와 농구를 즐겨하는 모습을 알수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하철계단에 사용되는 발전마루와 신발에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전기생산에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해보았습니다.

Q : 압전소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 외부로부터 기계적 변형을 가하면 전기 분극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하는 소자로서, 기계, 전기 양 에너지 간의 상호 교환에 사용됩니다.

Q : 지금 국제 경제에 대해서 본인의 소견을 말해보세요.

A : 저는 우선 미-중 무역전쟁에서 경제흐름이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이득을 취하려고 무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국의 이익위해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켜 국제 경제시장에 큰 타격을 입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국제 경제흐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Q : 그럼 환율가치의 변동에 대해 설명해보실까요?

A : 경제가 흔들리면 국가의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요? 경제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Q : 수학과 과학성적이 생각보다 낮은데?

A : 맞습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경험을 통한 지식을 습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과학대회와 소논문 작성 및 실험, 동아리 자체 실험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상황에 부딪쳐 왔습니다. 이에 저는 상황판단 능력과 과제해결능력이 보다 향상되었습니다.

Q :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A : 이번 면접을 계기로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저를 성장하게 도와준 것들을 대해 다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본인이 이과라고 그쪽 분야만 보는 것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면접이든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율전공		○		
전형명	해외선교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한동대 지원동기 1분 정도 해주세요.

A : 한동대에서 저의 확실한 비전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비전은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 할 수 있는 학교를 세우거나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동대는 이 비전을 실현하기에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기독교 대학이 점점 세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대에서 저의 신앙을 탄탄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비전의 기반을 확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학교입니다. 무전공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자신의 비전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지지해주는 한동대의 메리트를 느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한동대가 추구하고자는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 공동체입니다. 뭐라 했는지 잘 기억이 안남

Q :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한국에 와서 장점과 단점이 된 것?

A : 해외에서는 프리한 문화 때문에 성격이 활발한 편이고 개방적이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었음.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육 받는 학생들의 가치관을 처음에 이해하는게 어려웠음. 왜 대학에 목매는 거지? 공부를 이렇게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 일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 때문에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었음.

Q : 아두이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자소서 질문)

A : 동아리원들이 올바른 목표로 따라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음. 왜냐하면 동아리원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나와 달랐는데, 그 목표는 아직 아두이노에 미숙한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목표와 활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기초부터 준비해야한다고 제안해주었고 공동이 추구 할 수 있는 공동목표: '요양원 어르신들의 불편한 몸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자'를 제안했고 동아리원들의 동의하에 좀 더 구체적인 목표로 동아리의 틀을 잡아주었음.

Q : 학생은 아두이노를 만들고자 하는 활동이나 생각은 없었나?

A : 사실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내 실력 수준에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는데 교수님이 아두이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음. 그런 생각은 아직 저의 수준이 아직 낮아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교수님

표정 어두우짐) 아두이노를 통해서 RC카 만들기 활동을 해보았음. RC카를 3D프린터를 통해서 직접 모델링 하고 프린트한 다음에 학술제 연구를 위해서 만들었음. (교수님 표정: 이새키? 뭐 좀 아네 흐뭇)

Q : 어떤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A : 초반에는 예전에 디자인을 연습 했을 때 프로그램 CINEMA 4D를 이용했지만 나만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CURA로 바꾸었음
(이때부터 갑자기 교수님 말이 빨라지길래 ‘시간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말을 좀 더 간결하고 빠르게 얘기 했음)

Q : 아버지의 선교활동을 하시는데 원만한적 없는지?

A : 없다. 오히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폭이 넓어지므로 한국 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 형성된 좁은 가치관과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Q : 시간이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할말?

A : 저의 학업계획을 설명 드리자면, 저는 한동대에 복수 전공을 통해서 전자제어공학과와 글로벌 매니지먼트 그리고 TEP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비전인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선사 할 수 있는 대한학교나 국제학교를 설립하는데 기여하고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동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나는 한동대를 자소서와 생기부 위주로 준비했는데, 이 전형에서는 사실 해외에서 경험을 물어보더라고, 근데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살짝 틀만 잡고 머리로 질문에 대답을 준비 해보았음
- ◆ 합격 하는데 있어서 추가 자료로 토익점수를 제출 할 수 있길래 제출했음 975이라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거고, 특히 면접에서 나의 가면을 벗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일부러 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의 가치관과 생각을 잘 전달 했다고 생각하고 면접 진행하면서 면접관 표정이 점점 좋아졌음.
- ◆ 자신의 가치관을 똑바르게 잘 세워놓다면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그것을 바탕으로 잘 대답해 나갈 수 있으니,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뚜렷한 비전과 생각을 가지는 것을 필요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율전공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한동 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 후 면접, 면접관 2명(각 5분씩 질문)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한동대 지원동기를 말해보세요.</p> <p>Q : 면접 오는데 얼마나 걸렸나요.</p> <p>Q : 한동대를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요.</p> <p>Q : 우리학교(한동대)의 슬로건(why not change the world) 아나요?</p> <p>Q : 우리가 세계에서 바뀌어야 할 인식이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불매운동) 일본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도 우리국민이므로 이에 관한 인식과 정책이 필요하다.</p> <p>Q-1 : 어떻게 보도할 수 있을까, 인식변화가 우선인가?</p> <p>Q : 자기소개서에 탈북자 복송에 관한 북, 한, 중의 관계를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관계가 어떤지 설명해보세요.</p> <p>Q : 고등학교에서 받은 상중 중 영어글쓰기(금상)대회가 있는데 주제와 그 내용은?</p> <p>Q : 마지막으로 할 말 해보세요.</p>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p>◆ 잘한 점: 침착하게 웃으면서 당황하지 않고 소신 있게 대답한 점(실제 면접관에게 칭찬받음)</p> <p>◆ 후배에게 당부할 점 : 무슨 질문이든지 자신의 가치관을 밝히고 소신 있게 말할 것 한동대의 면접 분위기가 편안하다고 들었는데 일부는 맞고 이부 교수님은 안 그런 경우도 있음 사회적 이슈는 양보다는 중요 이슈에 관한 자신의 생각 정리해 놓기 면접 예상 질문을 준비할 때 너무 사소한 것까지 준비할 필요는 없음(생기부 질문1, 자소서1)</p>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율전공		5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농어촌)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에 1명 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한동대학교 지원동기

A : 안녕하세요! 앞으로 세상에 생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인재입니다.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제가 살던 곳에 피해가 컸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직접 피부로 느껴 훌륭한 도시공학도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제 꿈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계획 진로부스 교내활동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서적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도시를 벗어나 살 수 없을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의 예방 및 처방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들이 도시라는 살아있는 유기물의 매력에 빠지게 하였고, 공간지각능력과 소통능력, 더불어 예술성까지 갖춘 저의 장점이 생활 터전을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 자질에 부합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공학적 기술력을 익히고, 글로벌리더십을 배워, 섬기는 지식을 쌓을 곳이 한동대학교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진로가 바뀐 이유

A :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겪고 지진의 원인이 난개발로 인한 인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로 도시공학과를 알게 되었고, 경찰을 꿈꾼 이유가 치안 유지 및 범죄예방인데 도시설계를 통해서도 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장점과 유사 전공들을 아울러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도시공학이 저와 찰떡궁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 선행상을 받은 이유

A : 마당발 같은 성격에 모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교무실에서 모든 선생님과 잘 어울려 소통을 주도하고 혼자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를 내버려두지 못하는 성격에 학기 초 적응을 못 하는 친구를 챙겨주어 그 친구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리더는 앞에서 지시하는 것만이 아닌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선생님들께서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Q : 앞으로 도시 재생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A : 지속 가능한 그린 스마트 시티입니다. 환경의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태계에 뜻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의 3/4를 소비하는 도시의 녹지 비율을 높이고, ICT, IOT 기술을 통해 네트워크와 소통하고 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도시입니다.

Q : 도시 문제, 해결방안

A : 주택 문제와 환경 문제입니다.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인구가 밀집되고 주택부족 문제가 심해 집니다. 해결방안으로 신도시 건설, 도시 재개발 사업(불량 주택 철거, 협소 주택)을 합니다. 환경 문제는 청정 연료를 보급하고, 자전거 이용을 확대, 자원의 재활용을 이용합니다.

Q : 한동대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

A : G-IMPACT 캠프에 참여하였고 대학전공체험 활동을 통해 한동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한동대학교에 와야 하는 이유

A : 한동은 특별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건축과 도시공학을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로 한데 묶어 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은 이 곳 한동 밖에 없습니다. 저의 뛰어난 공간지각능력, 소통능력, 예술성을 어김없이 발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한동이 저를 뽑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기소개를 비롯해 기본 질문을 철저히 준비할 것. 자신의 가치관이 뚜렷하고 명백해야 함. 종교적인 내용에 너무 치중하지 말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동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자율전공	○		
전형명	사회 배려자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1 + 면접관1 : 학생1		
유의사항	◆ 교복착용불가능 ◆ 대기시간에 자료 볼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하나요?

A : 저는 팀프로젝트를 할 때 팀원의 장점을 이끌어내고 팀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단점은 불의를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하와 벡터 시간에 수행평가조를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과 만
 들었습니다. 다른 조장들은 폭탄들을 제거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지만 저는 저희 조가 못할 거라고 단정한
 것과 우리 조원들을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나서 제대로 준비해서 놀라게 해주겠다고 마음 먹었고 수행평가를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Q : 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요?

A : 저는 미국에 있는 UCLA에서 기계공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 로멜라 연구소에 들어가서
 10년 정도 연구를 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만의 연구소를 만들어 사람을 돕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로멜라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을 돕는 로봇을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Q : 리더십의 종류는 많은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A : 제가 중요시하는 리더십은 '함께하는 리더십'입니다. 제가 3학년 기하와 벡터시간에 수행평가를 하다가 혼자
 서 결과물을 만드려고 애쓰는 것보다 다같이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결과물의 수준이 낮을지라도 혼자하는
 것보다 얻는게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Q : 한동대학교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A : 저는 인성과 영성은 다른 친구들에게 비해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 인해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인성과 영성보다 수준이 낮지만 대학교에서 공부도 수준이 높은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토목공학과		6	
전형명	학생부교과/일반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교수님 1명		
	유의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사진 및 생년월일 기재),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반드시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Q : 1분간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A : 저의 장점은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게 장점이며 단점은 낮은 게 많이 가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워 하지만 이러한 성격을 바꾸기 위해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 토목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A :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부산으로 가면서 그때 해저터널을 보고 이 터널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궁금해졌고 최근 우리나라 지진 피해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 미래에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함

Q :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며 그 과목이 우리학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A : 지구과학을 좋아하고 우리 학과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토목은 땅을 기반으로 하는 공사하기 때문에 토목공학과와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우리학과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A : 터널에 관심이 많고 그 이유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터널이고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터널을 시공 또는 설계하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자신이 참여한 동아리나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공부해서 갈 것, 자신이 읽은 기계나 로봇공학에 관련된 책을 읽었으면 한 두 줄 정도에 느낀 점을 준비하기
- ◆ 면접 볼 때, 면접관을 보고 말하기. 면접을 보면서 이 학과를 가고 싶다고 최대한 어필하기
- ◆ 말을 잘해도 자신감이 없으면 면접관분들도 집중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간호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시간이 되면 5명씩 한 팀으로 면접실 앞까지 이동해서 대기한 후 한명씩 들어감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생기부를 보면 3년 내내 간호사를 희망했네요. 1학년 때는 간호사, 2학년 때는 수술실 간호사, 3학년 때는 정신 전문 간호사. 그리고 자소서를 보면 영어 원서까지 읽으면서 국제 간호사에도 관심이 많다고 되어있네요. 간호사를 지망하면서 진로에 대해 많이 고민한게 보여요. 자소서에서 영어 원서를 읽었다고 했는데 읽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A : 어렸을 적부터 다양한 문화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꿈꿀 때부터 간호사로서 국제적인 의료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에서 간호사가 하는 일, 미국의 의료 체계의 현실 등에 대해서 궁금해 읽게 되었습니다.

Q :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했던 활동이 있나요?

A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를 많이 접해서 국제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Q : 미국 의료 체계의 현실에 대한 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나요?

A : 선진국인 미국의 의료 체계와 현실들이 우리 나라가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본받을 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종종 간호사들이 겪는 것과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간호사를 조금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Q-1 :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 다 그런건 아닌거 알죠?

A : 네.

Q-2 : 이 책이 어려웠을텐데 이 책을 친구들과 함께 정한건가요, 혼자 읽기로 결심한건가요?

A : 저 혼자 읽기로 한 것입니다.

Q-3 : 영어 원서를 읽는다는게 고등학생으로서는 많이 힘들었을텐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A : 기본적인 단어들은 제가 아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이 저에게는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면서 읽었습니다.

Q : 화학2 시간에 의료 보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네요.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A : 병원에서는 환자의 의료 정보를 모으는게 쉽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모아야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것만큼 유출도 쉽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Q-1 : 간호사들, 의사들이 모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도 그 중에서 새나가는 정보가 있다는 말이죠 맞죠?

A : 네 맞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요? 점수에는 반영이 안되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해보세요.

A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환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이번에 면접 형식이 바뀐건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제시문 질문을 안주셨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모습을 대놓고 보여준 것 같다. 말을 더듬었다.
- ◆ 자소서를 자세히 안봤는데 대부분 자소서에서 질문해서 당황스러웠음
- ◆ 영어 원서 내용이 기억이 안나 막 지어내서 말했다. 근데 면접 할 때 교수님 중 한 분이 자기가 미국간호사를 하다 오셨다고 하셨다. 그 분이 내가 내용을 설명했을 때 살짝 의아해하셨다. 거짓말치게 들키면 불합격일 것 같다. 답도 조금 짧았다고 생각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림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생명과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13명 정도 대기후 한 명씩 면접실에 입장, 면접관 2명 (전공 교수 한명, 인성 면접관 한명인 것 같았음)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전자기기는 대기실에서 제출하고 면접후 면접실에서 나가면 들려줌.			

질문 및 답변 내용

(처음에 입장했을 때 긴장 풀 수 있도록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등 물어보심.)

Q : 생기부 읽은 뒤,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A : 네,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킥피서 백과사전 자연과학2를 읽고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 학교에서 했던 활동 언급하면서 느낀 점을 말함.

Q : 오케스트라 활동했던데 어떤 파트에서 활동했어요?

A : 퍼스트 바이올린에서 활동했습니다. 2학년 때 악장으로 활동했습니다.

Q : 연주회 같은 거도 했겠네요?

A :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경북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모인 자리에서 연주회를 열어 성공적으로 끝낸 것이었습니다. → 이 뒤에도 이어서 할 말 있었는데 면접관님께서 먼저 바이올린 관련 이야기 꺼내셔서 이어서 못 말함.

Q : 학급 게시물은 정확하게 어떤 거였죠?

A : 생명과학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 같아서 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흥미있을 법한 주제로 평소에 보지 못한 조금 신기하게 생긴 동물 분류 위주로 작성했습니다. 환형동물문이나 윤형동물문 같은 걸로 처음에는 시작했습니다.

Q : 친구들이 흥미를 가졌나요?

A : 처음에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홍보하고 알려주다보니 친구들도 알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Q : 학교 운동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시문 비슷한 거였음.)

A : 학교 운동장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를 수 있는 문제점들(면접관님께서 제시문에서 언급하셨음.)은 개방시간에 추가로 경비원을 배치하면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 있으면 해보세요.

A : 저는 현대의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과학과의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은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이 합쳐져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림대 생명과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실에 들어가 나배양성 미생물까 배양할 수 있는 연구에 참여하여 현재 배양할 수 없는 유익균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류사회에 기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기초 질문들 보다는 생기부랑 자소서 특히 생기부 확실하게 보고가는 게 좋음. 특히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외워가는 게 좋을 듯함.
- ◆ 다른 후기들도 그렇고 생기부에서 질문 가장 많이 나왔고, 제시문도 확실하게 준비하려면 3년 전까지는 보고 가는게 좋을 듯.
- ◆ 전체적으로 면접관들께서 편하게 이야기 하듯이 말해주심. 그래서 면접보다는 학교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느낌으로 진행됨. 질문에 대답하면 하나하나 반응해 주시고, 꼬리 질문도 딱딱하게 물어보기 보다는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보셔서 너무 긴장하기보다는 흐름 안끊기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말하는 게 중요한 거 같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밭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정보통신공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2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 입장 -> 가번호 받은 후 가운 입고 면접실 입장		
유의사항	◆ 2대 2 면접, 교복착용 금지, 전자기기 제출 ◆ 공통 질문 2분 동안 발표 있음. 준비해 갈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공통주제)

A : 어릴 적 부모님의 맞벌이로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학교 시절 1인 가구의 증가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강점은 이견 조율을 잘한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반장을 할 때 체육대회 때 반 티를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독특한 옷을 하자는 의견과 편리한 옷을 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두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타협점을 찾아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동활동 교내대회나 동아리 장 등을 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의 이런 강점은 한밭대학교 정보통신공과의 교육목표인 사회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동력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Q-1 :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무엇인지?

A : 네트워크를 보조, 설계, 제작하는 일입니다.

Q-2 :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A : 동아리에서 텍스트 기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Q-3 : 어떤 원리로 만들었나?

A : if를 사용해 길을 찾아가는 미로찾기를 만들었습니다.

Q-4 : 무슨 언어를 사용했나?

A : C언어를 사용했습니다.

Q-5 : C언어, 파이썬, 자바의 특징

A : 파이썬은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웠으며, 자바는 JSP를 해보니 서버에서도 사용 가능해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Q : 하고 싶은 말

A : 제 자신을 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지저분해 보이고 흔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흠 위에 꽃이 피듯이 한밭대학교라는 씨앗을 심어 네트워크 엔지니어란 꽃을 피우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소서랑 생기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 뽑아 질문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관광학과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강당에 조별로 앉아서 대기 - 신분확인 - 면접장 이동		
유의사항	◆ 지각하면 면접을 볼 수 없음. 핸드폰 사용 금지 ◆ 공통 1개, 생기부 바탕으로 2개가 기본질문, 추가 질문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연예인이 기부하는 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해보세요. (예상질문)

A : 저는 나누고 베푸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기부한다는 마음 하나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면서 사람들이 연예인을 따라 옷을 입거나 행동하는 것처럼 기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기쁨을 깨닫고 사회적으로도 숭선수범하여 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Q : 한국사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생기부)

A : 한국사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친구들에게 프린트를 나눠주고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을 먼저 공부해 와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질문한 부분을 체크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 공부도 하고 친구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공부해야해서 힘들었지만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저의 성적도 오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Q : 독도홍보아이디어 상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디어인지 말해주세요. (생기부)

A : 저는 독도의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인문환경까지도 담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제출했습니다. 팝업북을 제작해 밑에는 자연환경, 위에는 인문환경을 더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세심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열쇠고리나 스티커와 같은 기부용품을 만들어 판매금을 독도에 직접 기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저의 홍보 아이디어로 친구들이 독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독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가 질문 답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신분으로 직접 만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입시가 끝나면 같이 한 친구들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한서대학교는 예상질문(20개)을 늦게 올려줘서 급하게 답변 작성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다른 대학 면접도 겹쳐 있어서 생기부는 미리미리 익혀두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서대는 면접 날짜와 시간을 변경 할 수 없어서 다른 학교 면접 날짜와 겹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한서대학교는 4년제 중에서 가장 높은 학교라서 답변, 미소, 자세 모든 면을 다른 학교에 비해 꼼꼼히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답변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답변 준비에 가장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생기부에서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꼭 생기부 다 읽어보고 가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운항학과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25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5명씩 대기 후 들어가서 면접합니다.		
유의사항	◆ 교복 착용이 가능해서 교복입고 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인성면접)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 질문을 저한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학생에게 먼저 묻고, 저한테는 갑자기 '전예준 학생은 옆 학생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라고 했음. 옆 학생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할 수 있음.)

A: 행복의 기준은 기준은 감사하는 마음의 존재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Q-1 : 그러면 돈과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인가?

A : 돈과 명예, 권력 같은 것들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행복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Q : (생기부 기반)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을 보았다고 했는데, 영화에서 느낀 파일럿의 자질은?

(1학년 진로 희망 사유에 영화를 보고 파일럿의 영감을 받았다고 기록했음.)

A : 위기 대처 능력 및 순발력과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주저리 주저리 답변함.

Q : (생기부 기반) 학교 생활하면서 파일럿과 관련된 활동이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A : 동아리 활동을 간략하게 말하고 항공 관련 대회에 출마해 좋은 결과를 얻었음을 어필함. 그리고 수상과 별개로 느낀 것들에 대하여 말함.

(옆에 학생들이 받은 질문)

1. 파일럿을 꿈꾸게 된 계기
2. 학과 관련 동아리 활동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사실 답변 내용보다는 그냥 태도적인 측면을 많이 보는 것 같았음. 말을 잘 더듬는 사람은 매우 힘든 면접이 될 것 같음. 평소에 말을 천천히 조리 있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음. 답변 내용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지 않았음. 그리고 괜히 무리해서 거짓말 하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음. 옆에 있던 학생이 거짓말 치다가 걸려서 분위기가 상당히 싸해졌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신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국제관계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참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2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면접실-면접-퇴실 ◆ 면접관 3명, 7명씩 한 팀, 한 팀당 25분, 토론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 수험표, 신분증 필수 지참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 A국은 B국과 국토종합개발 협정을 체결해 B국에 대규모 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국에 대한 미래투자 전망이 A국의 협정 체결에 주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B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A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C국이 수자원개발 침해를 이유로 A국에 댐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책 결정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나요? 그리고 A국은 댐건설을 중단해야 하나요?

Q : 학교생활하면서 의미있게 한 활동들 한 사람당 1분씩 얘기하세요.

Q : (전공적합성문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A국이 댐을 건설해야하나 말아야하나가 아니라 A국이 고려해야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더해서 C국은 A국에게 B과의 댐건설을 계속 할 경우 무역관계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상황입니다.

Q : 지소미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Q : 근데 A국이 미국이고 B국이 한국, C국이 중국일 때 너희가 A국이면 B국과 협정을 맺을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무조건 자신감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센스있게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에 관해서는 자료조사하다가 칼럼 몇개 본게 다여서 지소미아 관련 문제 물어보셨을 때 많이 당황했지만 눈치껏 대답하면서 대처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토론면접이니까 너네들끼리 물고 뜯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찬반없고 그냥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 마음껏 말하는 거니까 생각 떠오르는게 있으면 정말 다 하고 나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랑 모의면접은 많이 하고 가는게 도움 많이 될 거 같고, 한신대 면접은 특히 교수님들께서 부담 많이 안주려 하시고 면접 분위기도 훈훈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신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응용통계학과		3	
전형명	참인재 전형(학생부 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복도대기-면접실-면접-퇴실 2:2면접		
유의사항	◆ 교복착용금지(가번호 부여) ◆ 신분증 및 수험표 반드시 지참 ◆ 휴대폰 제출,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지원동기를 말해보시오

A : 저는 통계라고 생각하면 막연히 수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한 곳에 통계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흥미를 느꼈고, 동아리 활동과 K-MOOC 등 여러 활동을 하여 통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통계적 추정에 관한 문제를 직접 만들어보고 탐구해보며 통계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자료 분석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고교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보시오

A : 평소 통계에 관한 것을 문제로 풀어보기만 하고 직접 실생활에 적용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과 모여 통계적 추정을 활용해서 학생회장단 선거 당선자를 예측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하다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하기 위해 임의로 각 학년별로 몇 개의 반을 선택해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뢰구간의 길이가 가능하면 작게 나올 수 있는 적당한 표본의 크기를 선정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표본을 각 학년 당 3개 반인 약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수합하여 후보자별 표본비율을 계산한 뒤 가장 흔히 사용하는 신뢰도 95% 및 99%의 신뢰구간을 구해본 뒤 서로 비교해보았습니다. 학생회장단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들의 당선을 확인한 결과 당선이 유력하다고 나온 후보자가 실제로 당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가 실생활에 적용되는 선거조사를 TV로 보기만 했는데 직접 문제를 만들고 탐구해본 이번 활동을 통해 통계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미리 제시된 예상 문제를 잘 외워가길 바람.
- ◆ 옆 사람 신경쓰지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한양대학교(ERICA)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소프트웨어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 II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면접장. 1:3(입사관1, 교수2)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자료는 볼 수 있으나, 전자기기 사용 안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한양대에리카 소프트웨어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주세요.

A : (자기소개 한 문장을 말한 후 지원동기를 말하려했는데 자기소개가 끝나자 말을 자르심.)

Q-1 : 아니 자기소개 말고 지원동기를 말씀해주세요.

A : (1학년 진로활동 내용에 기재된 내용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함.) 이는 다른 분야와 접목시켜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꿈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Q :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을 많이 했네요. 그 중에서 난수 생성기에 대한 활동을 할 때 사용한 언어, 사용한 알고리즘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A : C언어를 사용하였고 선형합동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제탐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수학 잡지를 찾아보다가 선형합동법 관련 내용을 보게 되었고 선형합동법 식을 세워 이 식에 미지수들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하였고 원하는 만큼의 의사난수를 뽑아내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Q-1 :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보네요?

A :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이거나 프로그래밍을 하면서의 난관을 물으신 듯함. 그러나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려웠는지로 받아들여 없었다고 대답함.)

Q-2 : 보니까 C언어, python, JAVA를 다뤄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C언어를 많이 다뤄본 것 같네요? C언어 포인터가 어떤 때 쓰이는지 말해주세요.

A : C언어 전공 책을 보고 C언어를 학습하긴 하였지만 포인터 전 부분까지만 본 상태여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Q-3 : (포인터가 어떤 상황에 쓰는 지 설명하셨음) C언어 포인터는 어떻게 쓰는지 말해주세요.

A : 포인터 부분은 한 번 훑어본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Q-4 : 한 번 훑어봤다면?

A : 그래도 *(별표)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Q-5 : 그럼 C언어와 JAVA의 차이점을 말해주세요.

A : C언어는 절차지향, JAVA는 객체지향입니다. (처음에 C언어 객체지향이라고 실수하고 다시) C언어, 절차지향은 코딩한 순서대로 컴파일 되는 것이며 JAVA와 같은 객체지향은 코딩한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그 구애에 따라..(말을 자르셨음.)

Q : 보니까 3학년 때 (자바 동아리)를 했었네요? JAVA는 어디에 코딩을 하죠?

A : (순간 머릿속이 백지 상태여서 당황한 태도를 보였음)

Q-1 : JAVA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지요?

A : 아 네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곳에 코딩을 하였습니다.

Q-2 : JAVA의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차이점을 말해볼래요?

A : (동아리에서 다 한 내용이지만 용어로는 들어보지 못했어서 클래스는 다뤘는데 인스턴스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혹은 다뤘보지 못했다고 대답함.)

Q : 교육부에서 지시한 고등학교 봉사시간 권장사항은 60시간인데 지원자 분께서는 이에 못 미치거든요. 그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A : 제가 유일하게 교외봉사를 한 번 나갔었는데 학교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가보니 사전에 생수만 나눠드리고 4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왔습니다. 그 때 이게 진정 봉사활동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차라리 학교 친구들에게 한 번 더 배려하고 봉사하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어 실제로 친구들에게 더 배려하고 봉사하였습니다.

Q-1 : 아하 그 사례를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A : (3초 정도 생각하다가)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학년 수학여행 때 놀러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전달사항 전달, 잔심부름 등을 해야하는 고된 일을 친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하는 호실장을 자원했고 호실 친구들에게도 내가 호실장을 해도 되겠냐고 동의를 구한 뒤 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의 수학여행을 하는 동안 선생님들의 전달사항들을 잘 전달하고 간식 배분, 잔심부름 등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Q :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A :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는 모두 소프트웨어와 연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음악, 의료, 보건 등의 다른 분야를 접목해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Q : 네 잘 들었구요 이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활동을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 :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생기부에 대한 내용은 착실하게 준비했고 실제로 대답도 생각한대로 준비한대로 잘 대답했으나 본래 전공 지식은 질문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비를 안 했더니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전공지식을 거의 반 정도 물어보신 듯함. 자신이 많이 한 활동은 아마 교수님들도 물어보면 다 알 것이라 생각하기에 자신이 많이 한 활동이나 실제로 자신 있는 활동은 간단하게 혹은 아예 안 물어보시거나 중간에 말을 자르시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할 것!
- ◆ '객체지향과 절차지향', C언어에서의 '포인터' 이 내용은 모든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에서 보편적으로 물어보는 편이니 이 학과에 지원한다면 무조건 공부할 것. 이 두 내용과 다른 기본적인 전공 지식은 다시 한 번 공부해서 갈 것!
- ◆ (이건 필자의 생각) 아예 대답 못하는 것보단 모르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수궁하고 이 부분까지는 알고 있다고 얘기할 것. 그 대신 구구절절 상관없는 이론이나 엉뚱한 이론을 대면서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그러나 아예 대답 못하는 건 쥔 BAD.
- ◆ 생기부를 채울 때 최대한 자신이 활동한 내용으로만 채울 것! 자신이 활동을 해 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대답이 줄줄 나오게 되니 이 점 유의할 것. 실제로 양보단 질이 더 중요함. 무엇보다 입시에 중요한 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대학 가는 건 선생님이나 친구가 아닌 바로 '자신'이기에 자신이 제일 철저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호남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서비스학과			20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30분 전부터 학생 확인, 딜레이 1시간, 면접관 2명, 5조 한 팀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수험표 복사하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30초 자기소개

A : 학교생활을 기반으로 승무원의 자질인 책임감과 리더십을 연관시켜 말하고 마무리는 이 학교에 입학한 후 포부, 목표.

Q : 친구와 갈등 발생 시 본인의 해결 방법

A : 2학년 때 부반장을 맡아 반 친구들의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빈번하여 친구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생각도 좋은 것 같다면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고 친구들 또한 서로 양보해가며 의견에 대한 갈등을 해결함.

Q : 취미

A : 항공서비스학과의 특성상 승무원을 양성하기 때문에 육체적 보통으로 체력이 중요하단 걸 깨닫고 운동 관련 취미로 말함.

※면접 분위기

면접관분들도 저희가 많이 긴장했다는 것을 알고 긴장을 없애주기 위해 밥을 먹고 왔냐는 등 가벼운 대화로 시작, 면접 마지막 조였는데 약간 지치신게 보여서 앞 시간 추천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당황해도 당황한 티를 내지 말고 말 잘하기.
- ◆ 나에게 눈길이 안 오더라도 미소 유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호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법경찰행정학과	○		
전형명	호서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유의사항	◆ 학교 홈페이지에 예상 질문을 탑재함, 교복착용 x,			

질문 및 답변 내용

Q : 호서대학교 인재상(협업역량, 선도역량, 창의성역량, 직무역량) 중 자신과 가장 관련있는 것을 하나 고르고, 자신의 경험과 함께 이야기 해주세요.

A : 저는 자신이 맡은 일, 역할에는 누군가 봐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역량이 저랑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로서의 리더십과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 J-ROTC라는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동아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육군병영체험활동입니다. 왜냐하면 분대장을 맡아서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대장을 하면서 집합시 또는 점호시 인원체크 및 환자의 유무를 살피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분대원을 챙기면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 대립동 여경 사건 아시죠? 이 사건 때문에 여경에 대한 불신은 여경 선발시, 부실한 체력 검정때문이라면서 체력 검정 기준을 남성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세요.

A : 저는 체력검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회의감이 듭니다. 우선 질문에 보면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고라는 말이 있는데, 인터넷 자료를 검색한 결과 실제로는 여경 분께서 취객을 무릎으로 제압 중이었고, 손으로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제압한 것입니다. 하지만 취객의 손을 수갑으로 채우려는 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신체적 능력이 요구되는 일도 있지만, 경찰의 담당 업무 중에서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체력검정기준을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은 좀 지나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호서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서비스학과	○		
전형명	학생부교과 (면접)			
면접 형식	면접시간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자신의 시간대 고사장에 가서 자신의 대기실 확인 후 불러주는 순서대로 조가 형성 조당 5명씩 들어감 신원확인 후 면접관들이 사용할 OMR 카드에 자신의 수험번호를 작성함 워킹실로 가 어피 수정 면접관은 3명		
유의사항	◆ OMR카드 작성시 사인펜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이 챙겨가는 것이 좋음. 면접장이 작아 면접관들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움. 면접복장이 남자도 반팔셔츠이기 때문에 챙겨가거나 입는 것이 좋음. ◆ 공통 질문 하나 개별 질문 하나 제시문 하나 총 3문항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어디서 오셨나요? 멀리서 오셨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A : 저는 경상북도 영주에서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호서대학교에 오고싶은 마음 하나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 하나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재단인 호서대학교에 입학하여 인간과 기독교와 채플을 가장 열심히 참가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Q : 호서대학교의 항공서비스학과만의 장점은?

A : 호서대학교의 항공서비스학과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시고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가득하신 교수님들께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3월달에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입학하여 아리따고 잘생기신 교수님들께 항공승무원에 대한 정보를 가르침 받아 꼭 손님께 필요로 하는 승무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Q : (제시문 질문) 승무원에게 글로벌 역량이 중요한 이유 > 승무원에게 글로벌 역량이 중요한데 호서대학교에서 어떻게 글로벌 역량을 기를것인지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제시문은 면접장에 들어가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순발력이 많이 필요함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으로 연습해야 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호원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항공서비스학과			
전형명	면접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1:2면접, 공통1, 개별1 총 두개		
	유의사항	◆ 대기실에서 공개질문 준비하고 이동해서 개별질문 뽑는데 질문 어려워도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자기소개를 자기주도학습 방법, 동아리활동, 영어성적, 성격을 포함하여 해주세요.

Q : sns의 장단점

Q : 친구관계에서 중요한 것

Q : 매너와 에티켓의 차이점

Q : 승무원을 언제부터 희망하였고 이루기 위해 한 노력

Q : 키 (키 큰 남학생)

◆ 분위기 : 남자교수님은 초반에 보시다가 후반엔 답변 좋은 지원자만 들어줌. 이미지를 보신 걸 수도. 답변 정리 안 된 친구들은 엄청 길어서 교수님들이 잘 안들어주심. 답변 좋으면 끄덕여주심. 남교수님 표정변화 잘봐주심.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연습 그냥 매일 하세요. 속으로 읽지 말고 입으로 직접 말하기.

◆ 호원대 가기 힘들고 학교찾기도 힘들. 웬만하면 자가용 타고 가요... 그리고 학교 좀 나오면 중국집 있는데 양 진짜 많고 맛있음. 아 그리고 산업대라서 4년제인데 6개 포함 안되고 면접도 일찍 봐서 다른 학교랑 안 겹치니까 꼭 보세요. 아 그리고 구두 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홍익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디자인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 / 미술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면접준비시간 24분 +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교수님 1명, 입학사정관님 1명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좀 많이 기다릴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블라인드 면접			

질문 및 답변 내용

(분위기 푸는 질문과 여담이 오고 감)

Q : 홍대 왜 오고 싶어요!

A : 아 저는 홍익대학교가 국내 미술 대학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깊고 수준 높은 배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홍익대학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대학생이 된다면 꼭! 이곳에서 배우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Q :과는 어디 가고 싶어요? (* 홍대 디자인학부는 2학년 때 시각/산업디자인전공으로 나뉩니다!)

A : 저는 시각디자인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Q-1 : 구체적으로 분야는?

A : 저는 인쇄물이나 패키지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Q-2 : 패키지는 산업디자인 아닌가요?(옆에서: 시각 쪽에도 있습니다.)

A : 하하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때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약간 큼! 이려고 했던 거 같아요. ㅋㅋ) 저는 인쇄물이나 패키지가 가장 인간의 삶에서 가장 자주 접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에도 디자인적으로 감성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어..... 이전의 인쇄물이나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말꼬임 -> 몇 번 똑같은 말 계속함)

Q : 음 ~ 좋아하는 예술가는?

A : 음..... 굳이 있다면 (순간 생각 안 나설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알렉산드로 멘디니를 가장 좋아합니다! 음..... 제가 '좋아 보이는 것들 굿 디자인' 이라는 책에서 알렉산드로 멘디니를 처음 접했는데요, 안나G라는 작품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 작품이, 와인 오프너잖아요? 그런데 와인 오프너에 인간의 형상, 그리고 웃는 표정까지 결합함으로써 와인을 마실 때의 즐거운 감정까지 나타낸 것이라 생각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또, 안나 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물건을 쉽게 쓰고 쉽게 버리는 현시대에 인격을 부여해 좀 더 물건을 소중히 여기게 한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Q-1 : (만약 그 와인오프너를 버린다면) 내가 안나를 죽인 거가 되고 뭐 그런 거야~~? (웃으심)

A : 네 ~~ 그런 거죠! (같이 웃음)

◆ 제시문 면접

Q: 다음 세 작품을 자유롭게 비교하시오.

(가)



(나)



(다)



A : (공통점 쥬 침으로 말하고 시작하려 했는데 까먹고 빼먹어 버렸어요.^^…….)

우선 (가) 작품의 경우에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이어 붙여 만든 콜라주입니다. 이 작품을 보고 저는 눈 부분이 약간 화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입 부분은 웃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눈 부분은 명도가 낮는데, 입 부분은 명도가 높아서 대비가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

Q-1: 그림 (다) 작품은 어때요?

A : (다) 작품의 경우에는 배경이 흰색이라 명도가 매우 높는데, 인물의 경우에는 검은색이라 명도가 매우 낮아 인물에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코입 주변에 또 흰 색 테두리를 사용함으로써, 인물의 감정에 더 초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눈코입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또, 선을 보면 굉장히 마구 그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기괴하게 뿔어 있어서, 저는 인물의 불안 심리를 나타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숫자랑 이름 같은 것을 보고 저는 죄수번호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곧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렵고 불안한 심리를 나타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 선으로 목을 죄는 듯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Q-2: 두 작품 모두 명도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는데, (나) 작품도 명도를 비교하며 얘기해볼래요?

A : 네! (나) 작품의 경우에는 다른 명도가 낮은 배경에 비해, 얼굴 부분만 명도가 높아 이 부분에 집중이 됩니다. 또, 주변 풍경과 옷의 색상이 파란색과 흙색으로 매우 유사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은 물감의 색깔을 보아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연 부분도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경을 그리려다 자기 자신을 그림 그려버려서 놀란 사람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나 작품은 대충 색상 위주로 이렇게 말한 거 같은데 유독 이거만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요. ㅋㅋㅋㅋ)

Q-3: 그림 자기 자신을 그려서 놀란 자신을 표현한 것인가요? (??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질문이 이게 맞는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나요…….)

A : 어……. 네! 자기 자신이 풍경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버린 것에 놀란 것입니다.

Q: 네 그렇군요. 여기서 혹시 본 적 있는 그림이 있나요?

A : 나 : 아……. 첫 번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과서 있는 그림임을 알려주심)

Q: 이제 2번 문제 해볼까요?

A : 네. 여기 제시된 문제에서 사회 문제에 관해 비유하여 자연스럽게…….아니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자연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저는 사람에 관한 사회문제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Q-1 :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보이시나요?

A : 이 그림에서……. (말꼬임) 음……. 이전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을 못 받는다는 기사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시효에 대해 표현했는데, 마치 편의점 제품이 유통기한이 다 되어서 폐기되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여기 범죄자 수사 일기라고 하나요? 그것을 도시락처럼 표현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여기 (20XX.XX.XX)는 유통기한이고, 여기(폐기 글씨)는 폐기 딱지입니다. 그리고 옆에 삼각 김밥을 함께 묘사해서 편의점 음식이랑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

Q-3 : 여교수님 : 그림 이 그림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어떨까요?

A : 음……. 제목……. (예상 질문인 건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생각을 못해냈습니다. 그래서 한참 고민) 저는 편의점 음식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공소시효 ……? 라고 짓고 싶습니다!

Q : 여교수님 : 네 수고했어요. 시간이 다 되어서…….

A : 아아 네! 감사합니다! (배꼽인사)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우선, 기초적인 예상 문제 몇 개 뽑아서 그 **예상 질문 목록은 꼭! 다 숙지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만휘 카페 면접후기 보면 질문 몇 가지 나오는데 그건 대충 다 준비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진짜 그 기초적인 질문 열 몇 가지 중에서 다 나왔어요.
(자기소개 / 지원동기 / 좋아하는 디자인or예술가 / 영향 받은 디자인or예술가 / 장래희망(구체적인 희망분야) / 자신만의 디자인 가치관 / 디자인을 하게 된 계기 / 디자인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 자신만의 작업방식 / 학업계획 / 최근 간 전시회 / 성격 장단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 제시문 1번 문제에서는 시대별 미술사조, 조형원리, 조형요소 위주로 공부하고 가면 됩니다.
그림의 정확한 제목과 작가를 맞추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충 어느 시대의 작품 같나요? (예시답: 잘은 모르겠지만 팝아트 같습니다. / 인상주의입니다.) 같은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짜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분석해도 괜찮아요. 자신의 창의적인 해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는 교과서 그림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읽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 ◆ 2번 문제는 시험장에선 재료로 4B연필과 지우개가 주어지는데, 아무래도 24분 안에 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라 시간상 아주 뛰어난 그림은 그리지 못할 거예요. 카메라 그리드처럼 9개의 칸을 나눈 뒤 교차되는 선 부분에 대상을 배치하거나(좋은 구도의 예시), 연필로 그리고 손가락으로 희미하게 번지게 하는 연출 등 등…….
아이디어는 예쁜 일러스트나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많이 보고 배우는 것이 좋다고 들었고, 그림면에서는 구도와 연출에 관한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다고 합니다. 단, 절대 입시미술같은 구도의 그림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홍익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디자인컨버전스학부	○		
전형명	학생부종합(미술우수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엔 1명의 감독관님이 계셨고, 복도에는 2명씩 배치되어 있었음. 8시 30분까지 입실이었고, 번호 순서대로 투표소 같은 곳에 들어가 24분 동안 문제를 풀었음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대기시간 중엔 미술책, 서류 등 자료를 볼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1번 제시문: 달리의 <시간의 존속>과 올덴버그의 <부드러운 비올라> 두 작품을 자유롭게 비교·설명하시오.

A : 달리와 올덴버그의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표현기법 등을 보이는 대로 설명하였습니다. 달리가 초현실주의 작가라는 건 알았지만 교수님이 ‘올덴버그의 작품에선 무슨 주의가 느껴지나’를 물어보셨을 땐 당황스러웠습니다. 올덴버그에 대해서 아는 지식(공공미술, 설치미술 작가라는 것)을 모두 말하고, 아마 이 작품도 초현실주의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데에 있어서 말끝을 흐린 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각 작품의 제작의도를 말해보라고 하셔서 대답했습니다.

Q-1 : 달리의 그림에선 뭘 표현하려는 것 같나요?

A : 시간의 흐름에 대한 허무함인 것 같습니다.

Q-2 : 올덴버그 작품의 제작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원래 비올라의 나무 같은 딱딱한 질감이나 형태를 부정하고, 가죽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자’, ‘물체를 보는 방식을 바꿔보자’라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Q : 2번 제시문: 한글 자음을 결합하여 자유롭게 스케치하고 설명하시오.

A : 한글 자음 ‘ㅅ, ㅂ, ㄹ’로 그림을 그렸다. ‘ㅅ’은 지붕, ‘ㅂ’은 기둥, ‘ㄹ’은 길을 표현하였습니다. 지금의 내가 모험가의 복장을 하고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그렸고, 어린 내가 집에서 웃으며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그렸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 자연스레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집을 나와 길을 걸어가는 나를 그렸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다양한 학습을 하여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모험가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꿈을 이뤄가는 나를 보며 흐뭇해하는 어린 나를 그렸습니다.

Q : 본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말해볼까요?

A : 저는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공익광고 삽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삽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어린 제게 광고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악플을 다룬 포스터였는데, 최근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보면서, 공익광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계몽의식을 심어 주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고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다양한 미술활동을 하셨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은 활동이 무엇이었나요?

A : 네, 저는 세계지리 시간에 환경오염에 대해 배우고, 사막화를 주제로 포스터를 제작한 활동이 인상 깊습니다. 빨래를 짜듯 지구를 비틀어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게 표현했고, 말라버린 지구에 극히 적은 부분을 푸르게 표현하여 사막화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광고에 관심이 많은 제게 포스터 제작활동은 공익광고와 같은 느낌을 주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수만휘 같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완벽히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재학 중인 선배가 ‘교수님들 다 친절하고 좋아요’ 라고 말해서 안심했지만, 제가 들어간 면접장의 교수님들은 깐깐하고 차가워 보여 더 떨리고 긴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실에서 긴장을 풀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한 화장과 눈에 띄는 복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장에 온 아이들이 전부 수수하게 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 있게 꼭 준비해온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홍익대 세종캠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영상애니메이션	○		
전형명	미술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문제풀이 24분, 면접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자기차례를 기다린 후 문제풀이 하고 면접실로 바로 이동		
	유의사항	◆ 문제풀이시 학교측에서 4B연필과 지우개를 제공하므로 본인 물품 지참하지 않아도 됨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제시작품서술(제시된 세 개의 작품에 대한 설명)

a. 김홍도(자화상) b.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 c. 데이비드 호크니(어머니)

A : a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인물화같다. b는 인체동세에 왜곡을 주어 초현실적이다. 인물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느껴진다. c는 인물을 평면적 사진으로 입체적 구성을 했다. a가 유일하게 동양적이고 평면적이며 전통적이다.

Q-1 : 본인을 표현하자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A : 학과 특성상 캐릭터로 표현할 것. 캐릭터는 인물의 특징을 과장해 그린것이므로 나의 장점, 특징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기 쉬울 것 같다.

**Q : 제시문에 따라 그린 자신의 작품 서술 : 일회용품을 이용한 환경오염에 관한 그림 그리기
디자이너들은 환경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Q : 개인적으로 미술활동이나 공부를 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Q : 본인 스스로 자료연구 드로잉 중 무엇을 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나?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꼬리질문에 당황하더라도 절대 표정으로 드러내지 말고 항상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엉뚱한 대답이더라도 마무리하기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인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교직적성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대기실(강당)에 입장한 후 자료 열람 금지 ◆ 지원자 간/ 지원자-경인교대 재학생 간 대화금지(대화 시 퇴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다양한 부문에서 골고루 수상을 많이 했는데, 그 중 영어수상이 많네요, 영어를 잘하나 봐요 ?

A : 네, 저는 영어에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 2학년 때 싱가포르에 방문하여 타국친구들과 토의를 했던 경험과 3학년 때 미국, 몽골 친구들과 교내에서 토의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은 경험은 이런 저의 흥미를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이하 생략)

Q : (자소서를 매우 재미있게 읽었다고 칭찬해주심. 특히 2번 심리학 관련내용) 자소서 2번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상관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상관분석을 하면서 어려웠을텐데 어떻게 해결했나요?

A : 2학년 때 sns중독, 자아존중감 그리고 대인관계 만족도에 대한 상관분석을 진행할 때는 상관분석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다룬 경험이 있으신 사서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3학년 때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상관분석을 했을 때에는 통계청 통계교육원이 제공하는 spss 사용법 강의를 들은 후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동하여서 상관분석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Q : (자소서 3번관련) 언어문화 선서식이나 캠페인 등을 많이 진행했는데, 이런 활동은 아무래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우려가 있는데, 더 장기적으로는?

A : 캠페인과 같은 활동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지도 모른다는 점에 매우 동의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 복도나 교실에 '칭찬합니다' 게시판을 만들어 지속하여 서로를 칭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급 칭찬/ 바른말 일기 등을 운영 ??

Q : 자소서 1번에 입찰지대곡선과 같은 지리와 관련한 활동을 했네요. 마지막에 소규모학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라는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A : 네 저는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운영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를 예술/체육과 같은 문화예술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우수 교원분들을 우선 배치하고, 다양한 교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거점학교를 운영하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체험 또한 누릴 수 있어 학교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많은 직업 중에 초등학교교사가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A : 네,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라는 꿈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대한 존경심으로 시작된 꿈이, 중학교 시절 도서관과 다양한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때는 상록수라는 교육봉사동아리 활동으로 직접 아이들을 생각하며 수업도 개발하고,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며 행복을 느끼게 되면서 초등학교 교사라는 저의 꿈은 더욱 확고해지고, 확실해졌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경인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교직적성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별면접 15분, 집단면접 2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강당에서 전체 대기 - 팀별 대기 - 개별면접(면접관 2인) - 전체 대기 - 팀별 대기 - 집단면접(면접관 2인)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대기 시간에 자료 열람 불가 ◆ 방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교수님과 거리가 가까움 ◆ 면접관께서 2분 정도 유의사항을 읽어주심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생기부 보니까 이것저것 교육에 관해서 조사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교육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했던 다양한 경험을 들어서 얘기해보세요.

A :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은 주입식, 강의식 교육입니다.

Q : 우리나라 교육의 단점 말고 장점이요

A :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인 강의식, 주입식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많지만, 학생들의 학습효율성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인재를 길러내어 발전하는데 기여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초등학교 때를 살펴보면...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Q : 여기 교육학 수업을 들었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A : 공동교육과정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관련된 교육 쟁점 이슈를 친구들과 함께 토의했습니다.

Q : 여기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연구했다(사문 세특)고 돼있는데, 방과후학교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A : 공교육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쪽으로 대답함

Q : 근데 여기서는 방과후학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A :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수업을 살펴보면 방과후 수업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불만이 많았고, 그에 따라 방과후 수업의 참여도가 낮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연수나 동료 교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면 방과후 학교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Q :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서 탐구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보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그 사례를 설명해보세요

A : 밴드웨건 효과는 모방심리에 따른 유행현상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입고 있는 룻패딩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유행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는 심리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

봉사를 갔을 때 거기 아이들이 휴대폰 게임을 정말 좋아했는데, 모두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친구가 어떤 것을 하면 그걸 따라하고, 집단이 특정 행동을 할 때 거기 안 따르면 불안해하면서 따르는 심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 선행학습을 금지하면 학생의 학습적 자율권이 침해되지 않을까요?

A :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준의 선행학습은 공교육 붕괴, 사교육 심화, 빈부 격차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Q : 융합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알아본 것 같은데 융합이 뭐예요? 이걸 초등교육에 적용시킨다면?

A : 융합과 통섭에 대해 알아보고자 유튜브 강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밥을 먹을 때 한가지 반찬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반찬을 조합하여 먹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영역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대해 열린 눈을 가진 것이 융합입니다. 초등 교육에서는 수학 과학 예술 공학 미술을 합친 steam 교육이나 협동학습 등 새로운 교수안을 통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어.. 30초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어필해보세요

A : 경인교육대학교가 제 1지망 학교인데 3월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집단면접 주제가 노인연령 기준선 상향, 기대효과, 문제점, 해결방안 3가지씩이었음.

Q : 추가질문2. 이번엔 나머지 세명 중에서 대답해보세요.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진 않을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 기업과 정부간의 진실된 대화를 통한 협의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답변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학생부종합전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성적이라고 생각해요. 교대에 들어오려면 자사고, 특목고가 아닌 이상 전교과 성적을 1.7 이내로 만드는 것이 안전해요. 1,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은 활동 내용과 느낀 점을 기록해두는 것이 편해요. 2학년 겨울방학 때 생기부를 되돌아보면서 자소서를 한번 작성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3학년 활동으로 채우세요. 개별면접은 모의면접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집단면접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 같이 몇 번 연습해보면 늘어요~!! 생기부 활동은 본인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느낀 점 위주로 채워주세요. 꼭 교육관련 활동일 필요는 없으니 다양하게 채워주세요. 참고로 경인교대는 타 학교에 비해 비교적 생기부와 자소서를 꼼꼼하게 읽어본 티가 났으니 모르는 내용이 없도록 꼭 숙지해주세요. 저는 실제로 훨씬 황설수설했지만 교수님들이 그런 점 다 감안해주신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건 성적이에요. 면접 별로 못 본 친구들도 성적대가 좋으니 최초합하더라고요.. ㅎㅎ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교직적성인재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시사문제+교직적성)
	면접절차	◆ 대기 → 집단면접 (교수님 두 분) → 점심식사 → 대기 → 개별면접 (교수님 두 분)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단정한 사복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최근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들의 유입을 장려하는 것이 좋을지, 출산장려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은지 말해보시오.

A : 저는 외국인들의 유입을 장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장려정책도 좋지만 외국인들의 유입을 장려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세계화 시대로 세계는 다양한 장점, 생각 등을 가진 여러 명의 인재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Q : 외국인들의 유입을 장려한다면 외국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A :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면 이러한 역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아래에서 위로의 개인 위주의 교육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의 집단식 교육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A : 저는 개인 위주의 교육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각각 다른 장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괄적인 수업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육이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에 더 좋아 개인 위주의 교육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렇다면 개인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국가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이 모이면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침착한 답변과 곧은 자세, 그리고 교수님과의 눈을 마주치며 살짝 웃었던 것이 교수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저의 답변이 교수님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29	
전형명	교과성적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질문 생각시간 3분 + 면접시간 10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면접절차	◆ 제시문 봉투 3개 중 1개를 뽑은 후 면접실 들어가서 답변		
	유의사항	◆ 면접실에서 교수님이 정해진 교직 관련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형식이라 교직 문항은 생각 불가능 ◆ 대기 시간이 길면 2~3시간이 될 수도 있다.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어떤 제시문을 뽑았습니까?

A : 프랜차이즈에 대한 제시문을 뽑았습니다.

Q : 의견을 말해볼래요?

A : 제시문에서는 프랜차이즈점이 늘어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점 운영 또한 누군가의 자유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이런 사태의 원인은 시장원리만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원리에만 맡기는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도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되 프랜차이즈점을 억압하기 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프랜차이즈점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교직에 관해 질문할게요. 정보화 시대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SNS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SNS 소통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보세요.

A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NS 소통의 장점은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의 증가를 통해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학생이 학교에서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단점은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와 가정 경계가 모호해져 본래의 업무에 집중을 잘할 수 없다는 것과 교사의 사생활 침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교과 면접의 특성상 다른 교대보다는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자신이 채워야 하다 보니 기본적인 이슈에 대해 장단점, 찬반 의견을 숙지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6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교직적성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면접하기 전 복도에서 기다리다 면접 시행			
유의사항	◆ 교복 입으면 안됨 ◆ 자신의 신분 밝히지 않도록 유의하기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물리학자에서 초등교사로 바뀐 이유는?

A : 2학년 때 멘토멘티 활동, 교육봉사 활동을 하면서 교육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교사, 중등교사를 할지 고민하던 중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6학년 때 저는 만화책을 정말 좋아하여 수업 시간에 매일 읽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저에게 다그치지 않으시고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에 읽는 것이 어떻냐고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미성숙하였기에 선생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권유하셨습니다. 그 후 제가 스스로 만화책을 덮고 공부에 임하였을 때 선생님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잘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은 계속해서 스스로 변화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인성이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에 잘못했다며 다그치는데 아니라 끝까지 믿고 스스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하고 싶기에 초등교사를 희망하였습니다.

Q : 미술 성적이 낮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A : 네, 저는 원래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열심히 하였지만, 선생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낮은 성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대에 입학한다면 미술을 꾸준히 배워 제가 좀 더 잘하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미술 활동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Q :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안은?

A : 획일화된 교육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는 자신들이 배우는 국어나 사회 등 많은 과목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 학교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자신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들을 배워 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네, 저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단편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바로 교육하는 것이 아닌 꾸준한 관찰을 통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관찰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 자신이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한 번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해야 한다.
- ◆ 교육이슈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광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교직적성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사전에 수험번호를 기준으로 대기실이 정해짐. ◆ 대기실 책상에는 본인의 이름과 새롭게 주어진 가번호가 있음. ◆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1명씩 부를 때 나가서 개별면접을 실시함.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개인의 학교, 지역, 수험번호 등을 말하면 불이익이 있음. 반드시 가번호를 얘기할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오실 때 어떤 각오로 오셨어요?

A : 음.. 이 면접이 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왔습니다.

Q :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A : 네. 면접 때문에 걱정을 하긴 했는데 먹고 왔습니다.

Q : 샘터 교육봉사 활동을 하셨죠?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있습니까?

A : 네. 제가 1년 반 정도를 가르친 5학년 지후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지후는 4학년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운동만 하느라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해도 잘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 곧바로 포기하는 습관이 있어서 제가 그럴 때마다 풀이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래도 멘토인데 답지와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후와 함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함께 찾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저는 그 목표를 향하는 데 있어 단서만 제공해 주며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 고등학교 3년 동안 초등교사 희망하셨고, "교사, 삶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 배운 것도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이 뭔가요?

A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억이 안 납니다ㅠㅠ.. 대충, 교사 자신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투영되며 모범을 보일 수 있다 정도 였던거 같아요.)

Q : 그럼 이 책에서 더 배운 건 없나요?

A : 아, 이 책에서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며 교실을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할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서양 의학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보는 병원처럼 환자가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대한 처방만 빠르게 내리고, 동양 의학은 환자가 아픈 곳이 있으면 몸 전체에 대해 살펴보고 신체를 유기적인 측면으로 판단하여 처방을 내립니다. 그래서 동양 의학처럼 수업도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 사회 등 전체적인 측면을 파악하여 해결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Q : 혹시 교육 봉사하신 이유가 물론 봉사 시간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가정에서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기만 했지, 특별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올 때 보셨겠지만, 저의 큰 키 때문에 아이들이 저를 마치 본인들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벽이 생긴 듯했고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는 웹툰, 만화 등에 관심 가지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Q : 교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A : 교사가 가져야 할 덕목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은 봉사 정신과 열정을 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교육 행위가 보답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인류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더 이슈라는 동아리는 뭐하는 동아리죠?

A : 최근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논제로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Q : 그럼 이 동아리에서 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주제도 하셨을 거 같은데 무엇인가요?

A : 소년법 폐지가 최근 들어서 논란이 되어, 소년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국민의 도마 위에 올랐는지, 등을 조사하여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Q :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하시겠어요?

A :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사가 가장 가져야 할 자질과 덕목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교육 행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있고, 인류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품어주고, 교실에서 함께 성장해나가며 아이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광주교육대학교의 질문이 어렵다면 사전에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체감상 매우 쉬웠다는 것이다.
- ◆ 예상했던 질문에서 거의 다 출제되었기에 대답도 정리한 대로 잘했다. 또한, 전국 단위로 뽑는 이 전형의 경우 교대는 면접일이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결시자가 많아 합격 확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 ◆ 긴장을 풀고 최선을 다한다면 합격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남)29	
전형명	지역인재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별면접: 10분, 집단면접: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개별면접 후 집단면접		
유의사항	◆ 3인 1조 ◆ 교수님들과 선배님들이 편한 분위기 조성해 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봉사활동에 요양원 봉사활동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컸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이 큼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어르신들께 제가 받은 것들을 다시 베풀고 싶었고, 의미 없이 청소를 하고 배식을 돕는 것보다는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 그럼 봉사활동 중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A : 아무래도 세대 간의 차이도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터넷에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찾아도 보고, 할머니께 물어보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 VOS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이고,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A : VOS는 영어신문동아리로, 학교의 사건이나 국내 더 나아가서 해외의 사건들에 대해 영어로 기사를 쓰는 동아리입니다. 저는 이 동아리에서 취재부를 맡고 있었고, 선배님이나 후배님이 쓰려고 하는 기사 주제에 관한 내용을 조사해주고, 학교에서 인터뷰를 할 일이 있을 때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Q : 교대에 오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라는 책에서 슈타이너 학교가 미술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A : 왜 미술 교육을 중요시하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른 학교들에 비해 체험 활동을 더 중요시한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Q : 방금 질문이 어려웠다고 하니깐, 좀 더 쉬운 질문을 내 드리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기억나시나요?

A : 네.

Q : 이 책에서 닐은 왜 자살을 했을까요?

A : 생각할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 후) 이 책에서 닐은 아버지와 진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

었고, 친구들과도 다름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학생들은 부모,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둘 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과 외로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Q : 이 책의 배경은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공립 고등학교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있습니까?

A : 우리나라에서도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있고, 일반 고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같은 일반고 학생들도 명문 고등학교의 활동을 따라 하는 것도 있고, 활동에서 고등학교 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학생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렇다면 일반고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 : 진로에 대한 부모님과과의 갈등은 일반고만큼 심하지는 않겠지만 일반고나 실업계 고등학교나 다 같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친구들 간의 다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어떤 초등교사가 되고 싶나요?

A : 저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토레 멘토링 활동이나 요양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상호 간의 배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하여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하여 다양한 유형의 초등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초등학생들의 행동에서도 깨달음을 얻고 배울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Q : 12년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학교 선생님이 있나요?

A :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 선생님은 학기 초에 저희에게 수업 발표를 과제로 내어주시고, “너희들의 수업 발표를 보면 너희들이 원하는 수업 방식이 있다. 나는 그 수업 방식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운동을 하고, 사석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과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Q : 꿈이 펀드매니저에서 교사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A : 꿈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학년 겨울방학 때 선생님의 권유로 아파트 단지에서 맞벌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흥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더 배우보고 싶었기 때문에 교사로 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Q :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나요?

A : 마지막 봉사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팔찌 만들기 활동을 하였는데 아이들에게 팔찌 만드는 법을 설명해주는 부분에서는 많이 힘들었지만, 마지막이라고 자신이 만든 팔찌를 제게 선물로 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Q: <집단면접>

학예회에서 합창대회를 하는 데 엄청난 상품이 걸려 있다. 그래서 3-6반은 우승을 목표로 다른 반보다 한 달 일찍 준비를 하는데, 한 아이가 기본적인 박자도 못 맞추고, 음치이다. 일주일 남았는데, 우승을 포기하더라도 그 아이를 챙겨줄 것이냐 아니면 그 아이를 제외하고 대회에 참여할 것이냐를 두고 회의를 했다. 만약 본인이 이 반의 담임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학 시절의 사례를 들어서)

A : 저는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모든 아이가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예회나 합창대회의 목적은 잘하는 것보다 협동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성가 합창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음과 박자를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비슷한 논제로 학급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우승보다는 모두의 참여를 우선시하자는 것이었고, 음과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은 뒤에서 율동을 하고, 비교적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는 마이크와 가까운 위치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저희 반 아이들에게 말해주면서 비록 상을 못 받더라도 모두 다 함께 참여를 하여 우리 나름의 하모니, 화음을 만들어 보자고 말하겠습니다.

더 추가한 말 : 일단 두 분 다 저와 의견이 비슷하여 딱히 비판할 점은 없고, 첫 번째 분과 세 번째 분이 내적 동기를 통해 아이들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저는 아이들을 무조건 참여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초등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자신감을 가지자.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전형(지역인재)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별면접 10분 - 집단면접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개별면접은 3 대 1, 집단면접은 3 대 3으로 각각 10분씩 진행		
유의사항	◆ 대기시간 중 자유롭게 자료 보는 것 가능(도우미분이 지금 자료 눈에 안 들어오니 그냥 집단면접 같이 볼 옆 사람이랑 친해져 놓으라 해서 대화하면서 시간 보냄.)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p>(직접 노크하고 문 열고 들어감, 대기할 때부터 도우미 선배님이 긴장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해주심.)</p> <p>Q : 요즘 교대 지망 학생들이 참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구성주의, 인지주의, 행동주의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이용했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해주세요?</p> <p>A : 네. 우선 대학교 교육학이 아닌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온 교육적 용어이기 때문에 심오하고 깊게 배우진 못했습니다. 행동주의는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만 학습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인지주의와 구성주의는 자극 없이 피학습자가 능동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는 것을 칭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p> <p>Q :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이용한 거예요?</p> <p>A : 아! 그건 모의 수업을 하면서 이용해보았습니다. 한 수업에서는 행동주의에 맞게 일정한 보상을 두고 수업을 했고 다른 수업에서는 보상 없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토론형식으로 활동해보도록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보상이 없을 때 더 능률이 좋아서 나중에 교사가 된다면 꼭 참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p> <p>Q : 음, 보상도 두고 능동적인 토론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p> <p>A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상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보상을 둔 집단에서는 이어지는 활동에서 보상 없이 해보았더니 적극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중점을 둔 행동주의적 학습은 다음에 이어질 활동에 악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교수님이 웃으면서 "사탕이 없으면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구나"라고 농담도 해주셔서 더 편안히 면접에 임했습니다.)</p> <p>Q : 성적을 보니 1학년 때는 좀 낮은데 계속해서 성장하네요?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학습법이라든지...? 설명 좀 해주세요.</p> <p>A : 제가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내면적 측면과 학습법과 같은 외면적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내면적 측면으로는 저는 1학년 때 불명확한 진로 희망으로 인해 여러 직업에 대해 '과연 내 적성에 맞는 것인가?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인가?' 하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교사를 꿈꾸게 되었고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성적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강한 열망</p>				

으로 생긴 목표 의식으로 인해 성적이 올랐던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중학교 때까지는 체계 없이 공부를 하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법에 대해 탐구해보게 되었고, 그 뒤로 계획도 세워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공부도 해봤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럼 아이들에게 교사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요?

A : 저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배려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고 뉴스를 보면 입시 비리 등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한데 이러한 사회 상황에서도 보석같이 배려심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배려를 가르친다고 아이들 성적이 올라가나? 음 아이들에게 배려를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A : 아 학업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Q : 어어 그래요.

A : 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드시피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추어 융합적 사고를 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융합적 사고라... 좋습니다. 학생은 아까도 말씀하셨드시피 진로가 바뀌었죠? 이렇게 된 결정적 계기가 무엇이고 본인이 초등교사로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A : 네, 저는 1학년 때 단순히 취미와 흥미를 바탕으로 스포츠 관련직을 꿈꾸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이게 내가 정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던 중 친척 집에 가서 사촌들과 놀아주며 행복함을 느끼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교사에 관심이 생겼고 결정적으로 교육봉사를 하고 나오는 저를 늘 어머니가 데리러 오셨는데 어머니가 제게 ‘너는 이 순간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이야’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초등교사에 대한 진로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Q :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죠?

A : 저는 타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스포츠 관련직이면 구단주인가?

A : 아니요. 스포츠 에이전트를 꿈꿨습니다. (전체 웃음)

Q : (웃으시며) 아 나도 구단주가 꿈이어서... 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그러면 초등교사를 하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겠죠? 분명 힘든 일도 있을 텐데 교육봉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A : 네, 사실 저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봉사활동에서 인사도 잘 하지 못하고 말도 잘 못 하는 소심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당혹스러웠는데 처음부터 아이에게 큰 것을 바라지 말자는 생각으로 눈을 마주치면 귀를 내어주며 작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어려워하던 아이가 마음을 열고 점점 더 다가왔고 수업이 다 끝날 때쯤엔 큰소리로 저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Q : 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거의 다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 나를 안 뽑으면 손해일텐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강점(?)이 드러나게 어필해 보세요. (이런 식이었는데 정확한 질문은 기억이 안 나네요)

A : 저는 개방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 저 친구는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던 중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 소통을 시도했고 그 이후로도 저는 의사소통의 참가치를 깨달아 아직까지도 그 능력을 함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단면접

간략한 주제 : 반의 급훈은 우정을 중시하고 담임선생님은 반장으로서 책임감을 중요시한다. 반장 A는 절친한 친구 B가 있다. 어느 날 반 전체에 담임선생님께서 과제를 내주셨는데 B 혼자서 집에 놔두고 들고 오지 않았다. A는 지난주에도 담임선생님께 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꾸지람을 들었다.

Q :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반장 A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등학교 직접 또는 간접경험을 통해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 말해보시오.

A : (3명 중 3번째로 답변함) 저도 반장을 하며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 반의 급훈도 '첫 마음으로 함께 성공하자'로 우정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담임선생님께서도 반장으로서 책임감과 공동체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들고 와야 할 것을 들고 오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꾸짖으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로 인해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차라리 B가 과제를 하지 않아 반 전체에게 피해를 주느니 제가 혼자서 혼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담임선생님께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하고 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저만 혼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제게 고마워하기도 했고 저는 반장으로서 책임감은 희생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대구교대의 면접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대기실에서부터 편안합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했던 질문들은 제가 예상해보았던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 빠진 답변이 없는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긴장하기도 했고 질문이 길어서 앞 질문 답변에 집중하다 보니 두 번째 질문에 두 번이나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지역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개별면접)+10분(집단면접)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하면 대기실에 들어가서 핸드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제출함. (면접 준비한 내용 종이를 들고 가기!) ◆ 조를 배당받고 조끼리 앉고 같이 기다림. (한 조당 3명) 1조부터 차례대로 나가는데 한 조당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림. 차례가 되면 같은 조 친구들과 나가서 복도 의자에 앉아있음. ◆ 대기 번호 순서대로 개별면접을 한 후, 집단면접에 들어감. 개별면접은 생기부를 기반으로 질문함. ◆ 집단면접은 제시문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3분 가진 후 먼저 말하고 싶은 순서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함. 다 말한 후 추가로 할 말을 물어보면 말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이름, 고교명, 지역 등 언급 삼가. ◆ 면접 준비한 거 있으면 종이를 들고 갈 것. 			

질문 및 답변 내용

Q : 1학년 때는 성적이 별로인데 2, 3학년 성적은 우수하네요. 어떻게 공부했고 또 이것을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A : 시험 위주의 암기 공부보다 학문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깊고 넓게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멘토-멘티 활동, 아침을 여는 수학 등 다른 친구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수학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지식 공유 토론식 수업을 많이 제공하고 싶습니다.

Q : 초등교사가 왜 되고 싶은지, 또 자신의 장점 중 교사로써 도움이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 교육봉사에서 만난 아이 중 애정 결핍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던 중 아이의 가정 이 결손가정이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인이 전부 가정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급증하고 양육복지에 따른 사회적 배려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이 지식전달에서 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까지 확대됨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후 공부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면서 초등교사라는 꿈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교사가 되어 마주할 어떤 문제 상황도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인상 깊은 독서가 무엇인가요?

A : 저는 ‘체인지메이커 교육’이라는 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 극복해내는 힘을 길러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이들이 스스로 주변에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해결해나가는 체인지메이커 교육은 긍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례 중 전학 온 친구를 위해 우리 마을 지도 만들기 수업을 보았습니다. 전학 온 친구가 마을 구조를 잘 모른다는 것을 문제 상황, 즉 동기유발로 설정하고 자연스레 지리 수업과 이어서 아이들이 지도 기호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연스레 배우도록 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아이들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영향력을 느끼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Q : 교육봉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중학교에서도 하면서 초등, 중등 다 가르쳤는데 달랐던 점이 있나요?

A :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1 학생을 가르쳤고 중학교에서는 중3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만난 중1 학생은 애정 결핍 증상이 있었고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중3 학생은 높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불안감이 높았으므로 상담을 통해 불안감을 낮추주려고 노력했습니다.

Q : 본인의 어떤 점이 어떤 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나요?

A : 저는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고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고 잠재력을 이끌어 내주려 노력합니다. ‘섬마섬마’ 동아리에서 핀란드 융합 교육을 직접 계획하고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활기차고 웃음 가득한 교실을 만드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학 수업을 통해 핀란드 융합 교육을 알게 되었고 그 효과를 직접 체감해보고자 직접 제안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렌지를 주제로 여러 과목에서 활동을 진행하며 융합 교육이 교실을 활기차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몸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맡은 국어 ‘오렌지를 주제로 시 짓기’ 활동에선 한 아이가 쓴 “오렌지가 10조각인 이유”라는 좋아하는 오렌지지만 나눠 먹겠다는 내용을 보곤 평소 주말 봉사에선 알 수 없었던 아이의 가치관과 배려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아이가 자신만의 가치를 알도록 잠재력을 이끌어 내주는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마지막 할 말 해보세요.

A : 사람들에게 저의 첫인상을 물어보면 ‘보호해 줘야 할 것 같다’, ‘암전하고 착하기만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비바람을 쫓고 가시밭길을 헤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저의 열정에 대구교대라는 바탕을 제공해주십시오! 훌륭한 교사로 성장해 대구경북을 밝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Q : <집단면접 질문> 나는 반장이다. 숙제가 있어서 어제 나의 집에서 다 같이 숙제를 했다. 다음 날 친구 B가 실수로 숙제를 가져오지 않았다. B는 반장인 나에게 까먹은 척하고 내일을 제출일로 해주면 안 되냐고 물었다. 나는 반장으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직접 또는 간접경험을 통해 말해보아라.

A : 먼저 급박한 B를 다독여주고 B가 진정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후 ‘나 전달법’을 통해 친구가 기분이 상하

지 않도록 하며 친구가 요구한 대로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줄 것입니다. B에게 내가 선생님께 말해본다고 말한 후, 선생님께 “우리 다 같이 숙제를 해서 B 친구가 숙제한 걸 다 알아요. 근데 B가 실수로 안 들고 왔나 봐요. 이번만 봐주시면 알 될까요?”라고 말하며 친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매점 선도부로서 저는 매점에서 산 음식물을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한 친구들은 “나는 좀 봐주면 안 되냐”며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아 많이 곤란했습니다. 저는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 되는 이유를 ‘나 전달법’을 이용해 말했고, 친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제 상황을 이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전달법’을 이용해서 친구에게 설명하면 친구와의 관계와 선생님과의 신뢰 모두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추가로 할 말 있으면 말해보세요.

A : 옆 지원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에게 설명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집단면접에서 앞서 얘기한 지원자의 의견과 생각이 같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당당히 의견을 말할 것. 집단면접에서 다른 지원자가 얘기하는 거 필기하고 고개 끄덕이며 열심히 들을 것. 마지막으로 집단면접에서의 지문은 전문적 역량을 확인하는 동시에 지원자의 공감, 배려 등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지문을 읽으며 공감, 배려, 위로할 것 등을 먼저 찾아낼 것.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대구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특수교육대상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 - 면접실, 면접관 3명			
유의사항	◆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할 것. ◆ 교복 착용이 불가능함. ◆ 블라인드 면접이므로 출신, 학교 등에 관한 내용 언급은 하지 말 것. ◆ 가지고 온 자료를 대기실에서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A : 네.</p> <p>Q : 1, 2학년 진로 희망을 보면 제약연구원이라고 되어있는데 3학년 때 갑자기 초등교사로 진로가 바뀌었는데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A : 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이러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드는 제약연구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치유되더라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정신적인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초등교사가 체육과 같이 활동적인 활동을 통해 육체적인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상담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초등교사로 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p> <p>Q :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A :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동복지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제가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남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일가견이 있다고 느꼈고 또한 아이들이 제가 구상해 온 활동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초등교사라는 직업과 적성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꼭 초등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p> <p>Q : 봉사활동 내역을 보니 3학년 활동을 하면서 바쁠 텐데도 꾸준히 봉사활동에 나갔는데 힘들지는 않았어요? A :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주기적으로 가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가는 것은 아이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빠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p> <p>Q : 몇 학년 가르쳤어요? A :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르쳤습니다.</p>					

Q : 생기부에 보면 1학년에 비해 2, 3학년 성적이 낮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A : 네. 저는 항상 타인에 의해서만 공부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2학년 때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향성을 잃게 됐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성적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초등교사라는 꿈을 품고 나서 공부를 하여 초등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방향성을 잡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1학년 때 성적보단 낮아도 2학년 때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또한, 저는 3학년 때가 1학년 때보다 시험성적이 비교적 낮아도 독서 활동이나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교사가 가져야 하는 소양을 더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자연계열 학생들은 인문적인 소양이나 예술 활동이 인문계열 학생들보다 비교적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혹시 미술, 체육, 음악 중에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이 있나요?

A : 네. 저는 모든 과목에 관심이 많지만, 그 중에도 음악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피아노를 어느 정도 칠 줄 압니다. 그래서 전 공부를 하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치다 보면 학업 능률이 오를뿐더러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미래에 교사가 되어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Q : 어떤 피아노곡을 칠 수 있나요?

A : 캐논 변주곡이나 플라워댄스, 이루마의 maybe와 같은 곡을 칠 수 있습니다.

Q : 면접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A : 감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이 다른 학교에 비해 비교적 빨리 끝나고 같은 방에 있는 학생들과 제시문 면접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서 익혀두는 것이 제시문 면접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비교적 압박 면접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선생님들과의 모의 면접을 하다 보니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생기부를 꼼꼼히 보면서 예상 문제를 만들고 답변을 달다 보면 쉽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사향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오전 10분/ 오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자료 볼 수 있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배정된 자리 순서대로 면접 진행				

질문 및 답변 내용

오전 공통 제시문 질문

Q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A : 저는 가장 먼저 영어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기른 영어 실력으로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외국 초등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적용하면 유익할 교육적 요소를 탐구하고 현장에서 아이들과 막힘없이 소통하며 교육에 대한 다양한 아이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훗날 어떤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구체적인 교육관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교육 봉사에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Q :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A :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되었으면 어떡하지,' '학생회 회의 때 무시한 의견이 있으면 어떡하지'와 같이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확신'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말을 하기 전 두 번 생각하고 내뱉기, 학생 회의 때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하기와 같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이를 통해 걱정을 점차 줄여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단점을 극복해 나간다면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좀 더 신중히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공동체 생활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질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A : 저는 '공동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정신'이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시민동아리 '어스파이어'에서 활동하면서, 친구들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 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 :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A : 저는 아이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시민동아리 어스파이어에서 기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원들에게 매번 세계 각국의 이슈를 알리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한 토론, 게임 등을 진행하면서 동아리원들과 학교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게임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둠별로 '종이봉투 접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종이봉투를 접어서 상인 역할을 맡은 친구에게 파는 것인데, 모둠별로 초기 자본금도 다르고 임금 또한 다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개발도상국이 겪는 노동 속 불평등을 느끼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생기부 기반 꼬리 질문

Q : 봉사를 많이 했는데 간격이 다들 때가 있다. 이렇게 봉사를 하면 아이들과 유대를 쌓기 힘들지 않나?

Q : 'The Help'라는 책을 읽었는데 원작을 읽었나요, 번역판을 읽었나요?

Q : 원작은 매우 두꺼운데 정말로 다 읽었나요?

Q : 다 읽었다면 내용 잘 알겠네요. 이 책 속에서 아이와 어른 간의 관계가 가장 잘 조명되는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Q : 백인 가정의 아이가 다 성장했을 때 가정부가 이 아이의 인생에 미친 영향이 나오는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매우 무서운 압박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후 면접 (발표지 구상, 작성 30분 / 발표 10분)

Q :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본인이 호기심이 생겼던 것에 대한 탐구를 통해 '도표 포스터'를 제작하라.

발표 내용

1. 제목 : '불안은 줄이고 시간은 아끼고'

2. 주제 설명 및 선정 이유 : 평소 문득 무엇인가 확인해보고 싶어졌을 때,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없던 경험 (예 : 집에서 나왔을 때 문득 가스 불을 안 끈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해보러 집에 돌아갔으나, 가스 불이 꺼져 있어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경험)이 많음. 이러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의 근원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서 하게 된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 이를 통해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 낭비와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효과가 있음.

3.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은 청소년, 중장년층, 노년층 각 연령별 무작위 50명. 연구 방법은 질문지법과 면접법. (여기서부터 저는 원그래프와 막대그래프를 그리고 예상 결과를 표현했습니다.)

원그래프 - 질문지법 : '문득 확인해보고 싶어져서 확인했지만 할 필요가 없던 경험이 있다'

-예 (75%) 아니오(25%)

막대그래프- 면접법(원그래프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그렇다면 그 생각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위 : 자기 확신 부족

2위 :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더 썼습니다.)

4. 예상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 인간 심리에 대한 연구에 활용
- ‘바쁜 일상 속 현대인들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신문 작성’
+ 체크리스트 작성 (예: 집을 나서기 전 해야 할 목록 등)을 제안.

추가 질문

Q : 연구 대상을 연령별로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연령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다르고 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령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공부로 인해’, 청장년층의 경우 ‘바쁜 출퇴근 및 회사 업무’, 노년층의 경우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 등과 같은 답변에 대한 세부적인 이유를 추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 체크리스트 작성을 제안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이런 연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A :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연구와 연구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근원을 탐구해보고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이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A : 아니요, 없습니다.

Q : 지금 즉석에서 하신 거예요?

A : 네, 맞습니다.

(다들 흐뭇하게 웃으심)

(이외에도 질문 3가지 정도 더 하셨는데 발표의 허점을 정확히 지적하셔서 매우 당황했던 것만 기억이 나고 질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네요. 전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사항인재 전형은 오전을 망치더라도 오후면접이라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으니 끝까지 자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멘탈 관리 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 문제에는 오전은 생기부 질문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상하기 힘든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면접 또한 마찬가지로였으나, 저는 면접에 가기 전 다양한 사물의 원리나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꼼꼼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변형하거나 활용하면 좋을지 등을 생각하며 오후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후배분들께서도 평소에 사소한 것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노력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발력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예상치 못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준비하시면 도움 될 거예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서울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		
전형명	교직원성우수자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교수님과 2: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 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문제지]

1-1. 그림 : 영어로 되어있는 삽화로 각기 다른 동물들에게 공정성을 이유로 나무를 오르는 시험을 똑같이 치라는 내용

Q : 다음 삽화의 내용을 통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밝히시오.

1-2. 제시문 :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로 우수하고 뛰어난 형질이나 문화 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내용

Q : 다음 제시문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 다윈주의’를 비판하시오.

2-1. 제시문 : 종교와 성직자, 교육과 교사를 다룬 지문

Q : 위 제시문의 관점으로 ‘도덕적 인간’으로서의 교사의 특성을 추론하여 설명하시오.

2-2. 제시문 : 정치적인 내용과 교사 자신의 생각이 교육에 반영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법 조항

Q : 다음 법 조항과 관련하여 교사의 역할과 주의할 점, 교육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오.

기출문제가 홈페이지에 탑재되니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우선 저는 준비가 부족했던 탓인지 10분 동안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실제로 진짜 내용을 7분 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10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거기다 문제와 제시문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교수님도 계속 약간 무표정에 가우뚱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생기부와 자소서 질문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 방법은 평소에 교육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 논란이 되는 이슈는 잘 안 나오지 않고 전통적인 학자의 이론이나 견해에 대한 본인의 생각, 특히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경제학적 이론이거나 과학적 상식, 그래프와 통계자료를 보고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전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고교성적우수자				
면접 형식	면접시간	제시문 보는 시간 3분, 면접시간 3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사 4개 중 2개 뽑은 후 하나 선택 ◆ 교육시사 4개 카드 중 하나 선택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p>Q : 일반 시사는 반려동물의 장단점과 할로윈의 과도한 분장에 대한 카드를 뽑았는데, 나는 반려동물의 장단점을 선택해 대답했다.</p> <p>A : 반려동물의 장점으로 우선 심리적 안정감을 들고, 성인의 경우 퇴근 후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독거 노인들의 경우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아이들의 경우 생명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책 등의 건전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반려견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충간소음 문제와 공공장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배변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거나 반려견의 배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을 때)을 말했다.</p> <p>Q : 교육시사는 2개를 뽑았는데 나머지 하나의 카드를 보기도 전에 자사고, 특목고, 외고 폐지 찬반을 선택했다.</p> <p>A : 우선 자사고, 외고, 특목고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이러한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사교육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어 일반고 학생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고등학교는 학비가 비싸서 저소득층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진학하기 어렵고 이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p>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인면접(10분) + 적성인성검사(50분) + 집단면접숙고시간(15분) + 집단 점(5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개별면접 대기 → 개별면접 → 적성인성검사 → 집단면접 제시문 숙고시간 → 집단면접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진행(교복 착용 금지), 전자기기 소지 금지 ◆ 대기 시간 준비해온 자료를 볼 수 없음			

질문 및 답변 내용

◆ 개별 면접

Q : 2년간 반장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 학급회의 시간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이 친구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두려워하던 것임을 깨닫고 쉬는 시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Q : 본인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한 활동을 3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A :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면서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동아리인 '도란도란'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서 저만의 교육관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동아리 '교집합' 활동에서 수업 실연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Q : 글쓰기 상장을 많이 받았는데 본인이 쓴 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글은 무엇입니까?

A :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마웠던 인물에 대해 쓴 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집단 면접

Q :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과 없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A : 우선 교육의 차이로 프랑스, 독일 등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국가와 한국과 같이 결과를 중시하여 학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국가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환경의 차이로 학생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국가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풍부한 국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점의 차이로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학습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AI가 대체 가능하다고 보지만 학생들을 교화시키고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AI가 대체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 : 본인은 AI가 교사를 대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A : 저는 AI는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사를 통해 4차 산업시대의 희소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재학생들 교수님 모두 친절하셔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21세기교직적성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개별10분,집단5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면접절차	◆ 대기-개별10분-적인성검사50분-제시문숙고15분-집단50분			
유의사항	◆교복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 개별 면접

Q : 교실붕괴의 원인과 해결책을 말해보세요.

A: 개인적원인으로는 교사의 자질 부족과 교사가 번아웃 현상으로 인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입시만을 중시하는 학교분위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비교적 덜 이루어져 교사에 대한 공경심이 줄어들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교사는 교사협력공동체 활동으로 꾸준히 자기성찰과 주변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학교에선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 윤리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Q : '아몬드' 책을 읽었는데 설명해봐요.

A: (대충 줄거리 이야기한 후) 책의 주인공처럼 감정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되면 칭찬사위처럼 아이들과 다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자주 하며 공감과 배려심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끼도록 돕고 싶습니다.

Q : 어린 학생들은 고자질을 많이 하는데, 교사로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A: 먼저 고자질을 해야하는 경우와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분명히 구분지어 알려주고, 교사가 바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으면 칠판에 번호를 매겨서 적어놓으면 나중에 보고 해결해줄만한 일은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질문은 더 받았는데 더 이상 기억이 안 남,

◆ 집단 면접(제시문내용:숙제 없는 학교)

Q : 숙제의 장단점

Q : 숙제다운숙제는 어떤 숙제인가

Q : 본인이 이때까지 했던 가장 숙제다웠던 숙제는?

*3분동안 제시문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토의했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		
전형명	학종 / 21C 인재형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교수님과 3:1 면접		
유의사항	◆ 대기시간 동안 어떠한 자료도 볼 수 없음.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질문 및 답변 내용

진주교대는 **개별면접**, **교직적인성 검사**, **집단면접**이 있습니다. 교직적인성 검사는 학교에서 주로 하는 성격진단 테스트 느낌이고 50분동안 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이는 점수에는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합니다. 순서는 조별로 상이합니다. 참고로 저는 검사, 개별, 집단 순으로 봤습니다.

◆ **개별면접**

개별은 교수님과 1대 3면접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10분 동안 진행됩니다. 생기부, 자소서, 교직원 등 초등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 **집단면접**

집단면접은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 않지만 매년 조금씩 구체적 사항이 바뀐다고 합니다. 진주교대 입학처에 탑재되는 **면접영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집단면접은 자기 팀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과 함께 집단면접 숙고실이 있습니다. 마치 학교 지필고사 시험장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책상위에는 3색펜과 A3종이가 있으며, 시험시작 5분 전에 문제지를 배부하고 시험이 시작되면 일제히 문제지를 보고 본인의 답변을 기록합니다. 이때 A4 메모지도 배부하지만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A3 발표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숙고 시간은 **15분**,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시간 내에 문항분석과 근거 작성 그리고 발표지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실제 한 친구가 발표지를 작성하는 것을 까먹어서 난감한 상황이 당일에도 발생했으니 주의합니다. 15분이 지나면 발표지와 소지품을 챙겨 반을 접어 다른 동으로 이동합니다. 보통 진주교대는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해 결시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6인 1조로 집단 면접을 보게 되며, 심사관은 개별면접을 봤던 교수님과 동일합니다. 아마 평가의 일관성을 가지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개인발표를 진행하고 자유토의 후 교수님께서 공통 질문과 추가 질문 등을 하시면 전체 토의가 마무리 됩니다. 토의가 끝나는 시간은 조별로 약간 상이합니다. 교수님이 꼼꼼하게 질문하시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 있으나 이걸 토의가 수준 있게 진행되었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집단 면접 주의사항**

- ① 토의 중간에는 교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지만, 이 토의 진행자는 교수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발표순서부터 질의 순서 등을 모두 진행하십니다. 절대 자신이 돋보이고 싶다고 진행을 하거나 토의를 이끌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② 발표자는 다른 지원자를 보면서 말해야 합니다. 간혹 교수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합니다.
- ③ 다른 지원자의 발표내용과 교수님의 질문을 반드시 메모해야 합니다. 아니면 토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필기에 너무 몰두해 계속 종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종이를 보지 않고 상대방을 보며 메모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 ④ 마지막으로 이것은 **토의**입니다. 진행이 과열되면 토론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집단 토의인 것을 명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개별면접

개별면접 질문은 교수님 스타일마다 너무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기부, 자소서 질문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교대와 달리 지원동기, 교직원 같은 기초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처음 시작이니까 하나하나 준비합니다. 제 질문은 다음 카테고리에서 하셨고 독서를 빼고는 포괄적으로 물어 보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느끼거나 배운 점 등을 물어봤다는 뜻.)

봉사활동, 진로희망, 독서(독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확실히 말하거나 아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인교육, 예술교육, 교대 생활 등 전반적인 질문.

참고로 어느 교대를 지원했느냐, 점수는 무엇을 먹었느냐 등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이는 개별에는 면접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집단면접

집단면접은 진주교대 입학처에 기출문제가 매년 탑재됩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꼭 시간 맞춰서 연습하시고, 다른 교대는 솔직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주교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진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		
전형명	21세기 교직 적성자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5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서류 기반 개별 면접(10분)+제시문 기반 집단 면접(30분)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개별면접

Q : 교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 말해보세요.

A : 제가 생각하는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수업(?)과, 수업 외적인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업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을 통해 학급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 외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의식을 통해 학부모, 사회와 교육공동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의논해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최근 학교에서 시험 대신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학업성취도가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저는 수행평가로 평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로 평가를 한다면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인성, 잠재성의 전인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한다면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원하는 공부를 함으로써 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본인이 학교 생활하면서 인내심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나요?

A : 저는 체육 교과에서 성취도 B를 맞았었는데, 다음 학기에 A를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 심폐지구력이 약해서 왕복 오래달리기를 힘들어했었는데, 매일 등하교 시에 빠른 걸음으로 꾸준히 걸어 다니면서 심폐지구력을 키웠습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Q : 본인이 봉사했던 내용?

A : 저는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점을 보고 도와주고자 코딩으로 수학 게임을 만들어 시청각 자료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제가 가진 지식으로 남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기뻐했습니다.

Q : 어느 심화전공 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A : 저는 컴퓨터교육 심화전공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지식 그 자체보다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워보고 싶습니다.

Q : 진주교대가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 3가지만 말해보세요.

A : 첫 번째는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동체의식의 출발이 내가 먼저 행동하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장애 이해 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해오름 활동에서 친구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고 인식을 개선할 것을 격려하는 피케팅 활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육방법의 경험이 많습니다.

◆ 집단면접(제시문 주제: 숙제 없는 학교)

Q : 숙제의 장단점

Q : 숙제가 가정, 수업, 자기주도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숙제의 교육적인 활용 방안

A : 발표하겠습니다. 숙제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숙제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은 미성숙하기에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추상적인 원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방과 후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시청각 자료를 찾아보거나, 사물을 직접 만지고 오감으로 느껴보면서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성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수준별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학급에는 1등부터 30등까지의 석차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이 30명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해 모두 개별적으로 지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습지에 상, 중, 하 수준의 문제를 모두 주고 자신이 풀 수 있는 만큼을 숙제로 풀어오도록 한다면 아이들이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문제를 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별화 지도가 가능해져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사교육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숙제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방과 후에 과제를 하느라 부모님이나 동생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히 초등학생들은 부모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쌓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방과 후에도 부모님과 체험학습이나 대화할 시간이 없이 숙제를 한다면 학습에 대한 부담과 함께 가족와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은,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급 아이들의 가정환경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부모의 지도가 필요한 나이인데, 집에 돌봐줄 어른이 없다면 숙제를 모두 해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수업시간 전의 준비도에 있어 각자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이 차이는 이해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해도의 차이는 결국엔 흥미도와 성취도의 차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숙제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았습니다. 저는 숙제를 진로 교육과 연관시켜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은 '장기적인 꿈 찾기 숙제'입니다. 먼저 지식교육에서의 측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어 이제는 지식 그 자체보다는 지식을 활용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꿈인 아이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배우고, 집에 가서 숙제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하고, 쓰레기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봄으로써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성교육에서의 측면입니다. 아이는 이 숙제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의견을 나눴으로써 예절을 배우고, 어른들의 지혜를 받아들여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성교육에서의 측면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 찾기 숙제를 통해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며 행복감과 뿌듯함을 느끼고 학습에 대한 흥미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 과정에서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자주 접하고 배울 점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과	○		
전형명	학생부종합(배움나눔인재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2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 대기 - 다른 대기실로 이동해 제시문 읽고 정리(10분) - 면접실 입실 - 제시문 발표(5분) - 개별질문(10분)		
유의사항	복장을 가리기 위한 가운 제공(교복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 개별 면접

Q : 모범상을 받았으면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 해결을 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갈등 해결 사례?

Q : 지역아동센터 봉사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수업과, 가장 좋아했던 수업은?

Q : 자신 있는 예체능?

A : 음악,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답변

Q : 초등교사라는 진로를 가지게 된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

A : 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

Q : 리더십 발휘 사례?

A : 과학 동아리 부장 관련, 내가 생각하는 리더(먼저 행동하는 리더)의 모습을 함께 답변

Q : 책 '교사 생활 월령기'를 읽었는데, 월별로 교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A : 인권조례 관련

Q-1 : 그럼, 인권조례 등과 관련해서 현재 초등학교 학급에서 규칙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 보상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ex. 칭찬 스티커). 이것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

A : 보상 제도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 그러나 보상이 최대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부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함. 보상 제도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아이들에게 계속 교육해야 함.

Q :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청주교육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초등교육학과	○		
전형명	배움나눔인재 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제시문 기반 개별 과제 발표(5분)+서류 기반 개별 면접(10분)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제시문 발표

Q : 교사로써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A : 네. 저는 초등교육의 기초가 되는 전인교육을 들어서 인공지능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식, 인성, 잠재성으로 전인교육을 구조화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교육입니다. 인공지능 교과서를 활용한다면, 단순히 시험 성적인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교내 진로탐색 대회에서 읽은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의 '딥 러닝' 기술을 활용하면 아이들이 문제를 얼마나 오래 고민하고 풀었는지, 그리고 어떤 교과목에서 흥미를 보이는지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사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이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중요시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성교육입니다. 아이들은 피아제 발달단계상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성 사고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 단계이며, 추상적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자세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가상 학교폭력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재성 교육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직업 체험의 기회를 인공지능 교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교사가 제공하는 게임 등을 통해 교사, 변호사, 택시 기사 등의 직업을 체험해보고 꿈과 끼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개별 면접

Q :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A : 네. 저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를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직접적인 경험으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피구공을 무서워해서 공동체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담임선생님께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제 적성에 맞는 심판이라는 역할을 추천해주셔서 공동체 활동에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즐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교실 밖 아이들 책으로 만나다'라는 책에서, 고정원 선생님께서는 비행소년 아이들의 가정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책을 선물해주심으로써 비행소년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학교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교사의 관찰력과 관심이 아이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크게 감명받았고, 교사가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Q :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활동 한 가지씩 말해보세요.

A : 네. 먼저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의 수학 학습을 도왔습니다. 구구단을 외워야 했는데, 암기식 학습에 익숙지 않은 아이들에게 시청각 자료인 코딩 게임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에듀테인먼트를 통해 아이들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었고, 흥미도는 곧 이해도와 성취감으로, 성취감은 자존감 향상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활동은 1학년 독서토론 동아리 때 통일을 주제로 한 토론활동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갈려야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데, 친구들이 찬성 쪽에 대부분 몰려서 토론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반대 측의 추가적인 의견을 조사해 제시했고, 친구들이 반대 측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리장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교사로서 양측 의견을 모두 제시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 그러면 반대 측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친구들이 반대 측으로 잘 옮기겠다고 했나요?

A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찬성 측 친구들에게 ‘왜’ 찬성의 의견인지, 그리고 반대 측을 반박할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를 물어보고 경청함으로써 친밀도를 쌓고 래포를 형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조사한 반대 측 의견에 대해 설명해 줌으로써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반대 측 의견에도 동의해주었습니다.

Q : 자소서 3번을 보면 ○○이가 음식물을 수업 시간에 먹어서 자치법정에서 해결했다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희련이가 동의했나요?

A : 네. 저는 ○○이가 수업 시간에 배고파서 음식을 먹은 것을 공감해주었지만, 수업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옆에서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이 부스러기나 냄새로 인해 친구들의 쾌적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동시에 친구들의 권리 또한 존중해 주자는 저의 의견에 ○○이는 동의했습니다.

Q : 그러면 이후에 ○○이가 바로 태도가 고쳐졌나요?

A : 네. 물론 금방 바뀌지는 않았습니.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아직 음식물을 자주 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며 복도에서 ○○이를 만날 때마다 “○○아 요즘은 아침 잘 먹고 있지?” 하며 격려해주었고 이후로 서서히 줄어서 2학기인 지금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Q : 청주교대 와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A : 네. 저는 청주교대의 특색 프로그램인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동료 교사, 선배 교사들과 토론을 하며 저와 다른 생각들을 많이 듣고 배우는 태도를 기르며 집단지성을 이루고 싶습니다.

Q : 이때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어려웠거나 가장 읽는 데 오래 걸렸던 책이 있나요?

A : 네. 저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책을 읽으며 교육 복지제도에 대해 오래 고민했기 때문에 읽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영수’는 중학생임에도 생계유지의 문제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며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교육의 접근 기회의 균등과, 교육 결과의 균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청주교육대학교 면접은 5분간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개별과제발표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머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5분간 발표하는 감을 익히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주교대는 대구교대와 다르게 일반시사/교육시사 제시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사 공부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DGIST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초학부	○		
전형명	학교장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①발표면접(8분) ②개별면접(7분) ③학업역량평가(10분) 총 2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자료 볼 수 있음)에서 기다리다가 문제 풀이 장소로 이동 ◆ 1조~10조 순서대로 진행 ◆ 문제 풀이(30분)한 후 바로 면접실로 이동 ◆ 교수님과 3:1 면접(문제와 자신이 작성한 답지 볼 수 있음)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 면접시간 준수 ◆ 전자기기 제출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일베와 같은 혐오 사이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가? (발표면접 추가 질문)

A : 저는 일베와 같은 혐오 사이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양하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혐오 사이트는 우리 사회의 문화나 상식 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그런 혐오 사이트를 제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Q : 자기소개해 보세요. (개별면접)

A : 저는 줄기세포와 바이오 인공장기를 연구하는 생명공학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과학 영재로 활동해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지구과학을 주제로 공부하며 과학적 소양을 길렀습니다. 디지스트는 4년 무학과 단일학부로 기초과학과 공학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학부전담교수제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융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디지스트에서 생명공학연구원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고 싶습니다.

Q : 줄기세포의 당뇨병 치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말해 보세요.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

A : 제가 자기소개서에 적은 줄기세포의 당뇨병 치료 가능성은 1형 당뇨병에 관한 것입니다. 1형 당뇨병은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병하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용해 이자를 분화시키고 그걸 환자의 몸에 이식하면 당뇨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Q : 이자 전체를 새로 만들 것인가 특정 세포만 만들 것인가?

A : 특정 세포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Q : 그렇다면 어떤 세포를 만들 것인가?

A : 랑게르한스섬 베타 세포입니다.

Q : 책을 많이 읽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소개해주세요.

A : ‘이기적 유전자’ -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의 복제 욕구를 수행하는 생존 기계이다)과 그 구절을 설명하는 예시 한 가지를 들었음.

Q : 이 책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A : 이 책을 계기로 생명과학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생명공학연구원이라는 진로를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Q : 학생의 독서 목록 중에 ‘재밌어서 밤새 읽는 생명과학 이야기’가 있는데 설명해보세요.

A : 저는 재밌어서 밤새 읽는 시리즈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중에서 생명과학 이야기는 교과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책을 읽으며 개념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소개하고 있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Q : 생명과학 분야는 포스테이나 다른 대학이 더 유명한데 왜 디지스트에 지원했는가?

A : 4년 무학과 단일학부, 학부전담교수제 등 디지스트의 특징을 이유로 들며 디지스트에 지원했다고 설명함. 디지스트 대학원에 진학해 뉴바이올로지 전공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함.

Q : 뉴바이올로지 전공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A : 디지스트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뉴바이올로지 전공은 인류의 건강과 관련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과정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실이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고 주요 연구 분야인 비교 노화, 인지 노화 등이 궁금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A : 디지스트에 꼭 다니고 싶다. 디지스트에 오게 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을 좋아하며 디지스트에서 생명공학연구원으로서 성장하고 싶다 등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수학, 과학 문제를 힌트 없이 풀었다는 것이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시문 기반 발표 면접에서 추가 질문 하나를 놓쳤는데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다른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면접 때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차분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DGIST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기초학부		○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입실 후 설명 듣고 3시간 정도 대기하다 1시간가량 진행함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대기실에서 제시문 풀기, 면접실 입장 후 면접관들이 각각 질문			
유의사항	<p>◆ DGIST는 면접에 3가지가 포함되어있는데 먼저 생기부 기반, 그리고 제시문 기반, 그리고 학업역량 평가(2과목 과학과 수학 문제)가 있음. 제일 처음 물어볼 때는 생기부 기반 묻고 그다음 제시문 그다음 문제풀이 순으로 진행함. 유형별로 사전에 시간이 몇 분씩 배정되어 있다 안내해주지만 다 하고 시간이 남을 수도 있음. 나 같은 경우 수학문제 하나에서 당황을 해서 그거 풀이하다가 거의 시간이 다 가버려서 이상하게 끝나버렸다.</p> <p>◆ 대기 시간이 무척이나 길다. 운 좋으면 빨리 나갈 수도 있지만, 그날 오후는 그냥 다 쓴다고 생각해야 한다.</p> <p>◆ 대기실에 팀장님이 농담을 많이 던지시고 편안히 대해주신다. 잘 웃으면서 그냥 긴장 풀고 들고 온 자료 보면 된다. 대기실에서 많이 기다리기에 기출문제들을 풀 시간도 충분히 되고 2과목 참고서를 들고 가도 좋다. 나 같은 경우 면접에서 모호했던 개념이 나와 크게 당황했다.</p>				
질문 및 답변 내용					
<p>◆ 질문1 (생기부)</p> <p>Q : 수상이 많은 데 힘들거나 한 점은 없었나요?</p> <p>A : 학교에서 다 같이 하는 거라 힘들지 않았고 또한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좋았다는 식으로 대답함.</p> <p>◆ 질문2</p> <p>Q : 추천서에 ~한 사람이라 되었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나요?</p> <p>A : 부반장, 또래상담도우미 등의 활동을 하며 제가 할 수 있는 걸 도우면서 하고자 노력했고 또한 2학년 때 겪은 성적 하락 이후 친구들과 아주 친해졌다 등으로 대답함. (솔직히 말하자면 생기부 기반은 그리 특별한 것이 없었다. 자소서에서는 묻지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터넷에 면접공통질문이라 치면 예시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비해두면 충분히 대답할만한 질문들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p> <p>◆ 질문3 (제시문) (내가 했던 제시문의 경우 면접 당일 전날에 나온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당연히 우선 문제지에 제시된 질문들부터 대답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며 거기에 대해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근거를 들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p>					

Q : ~에 대해 이렇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푸틴의 행동을 좋게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A : 푸틴의 입장과 푸틴이 말하는 맥락(소녀는 선진국에 있기에 현실을 잘 알지 못한다)에는 공감하기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해는 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 의견을 피력한 소녀의 진정성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등으로 대답함.

◆ 질문4 (학업역량에서는 화학2로 했다. 문제는 기출을 참고하기 바람. 나 같은 경우 증기압력 내림, 결합 종류 등등의 개념에 관한 문제였다.)

(내가 먼저 질문함) 플라스크 안의 물이 액체일지 아니면 전부 기체가 되었을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왜 물었는지는 화학2를 공부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들었다.)

◆ 질문5 (사실 풀다가 뒤 페이지가 있는 줄 몰랐는데 있었다.)

뒤에를 덜 풀으셨는 데~ (시간 잠시만 달라고 요청 이후 풀고 대답함. 그런데 마지막에 결합의 종류를 묻는 개념 문제에서 기억이 나질 않아 패스했다. 대기시간 동안 참고서 보기를 한번 추천한다.)

◆ 질문6 (수학, 기백과 확통이 섞인 문제였다.)

Q : ~를 안 하셨는데 이것부터 먼저 질문할게요. (2번째 문제였을 것이다. 생소한 문제여서 그냥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하다가 결국 교수님께서 거의 풀이를 하다시피 하면서 끝냈다.)

◆ 질문7

Q :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30초 내로 DGIST에 왜 오고 싶은지 말해 주실래요?

A : 대구 지역에서 신소재 관련해서 별로 발달한 게 없고 또한 DGIST의 무학과 단일학부라던가 지원 등을 언급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생기부 기반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열심히 준비하면 될 듯하고 제시문과 문제는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 잘 아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실 분(친구도 좋다)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

◆ 일단 과학 문제는 1과목 범위가 포함되어있을지라도 웬만하면 거의 2과목 위주로 진행된다. 나 같은 경우 수능에서 2과목 응시자였기에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고도 기출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개념 인강을 한 번 중요한 개념 위주로 한 번은 보는 것을 추천한다. 기출문제 풀이를 해놓은 인강도 있으니 잘 찾아보길 바란다.

◆ 당황해도 자신감 가지고 아는 걸 계속 말해보자. 나 같은 경우 내가 한 말들에서 교수님들이 조금 안다는 인식을 하셨는지 계속 끌고 오려는 느낌을 받았다. 일반고 학생인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면접을 잘 못 봤다 생각했지만 최초합이라 놀랐다. 다만 합불 결과를 받고 나서 풀어지진 말자. 수능 날에 후회하지 말고 국어와 과학을 정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GIST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무학과 이공계		○		
전형명	학교장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문제를 풀고 들어간 화학II, 수학 문제를 설명 후 인성 면접함.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 ‘포항이면 멀 텐데 어떻게 왔어요?’ 등으로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긴장을 풀어주심

Q : 친구 중에 학교장추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 저는 친구 중에서도 가장 성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님들이 웃으심)

Q-1 : 그 이유는?

Q : 자신의 장점 3가지를 말해주세요.

A : 도전정신, 열정,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도전하고 항상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Q :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저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만큼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음에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1 : 하지만 그 범죄자가 개과천선한다면요?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요?

A :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전에 저지른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형제도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제도를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 지스트 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요?

A : 미리 조사해간 화학과 관련된 지스트의 프로그램(나노입 촉매를 이용한 친환경 수소 에너지 개발 등), 동아리 유학 프로그램 같은 것들 다 말함.

Q : 포항이면 포스텍도 합격할 텐데 지스트 합격하면 지스트 올 거예요?

A : 네! 꼭 지스트 입학해서 다양한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문제로 제시되는 수학 과학이 더 중요한 것 같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KAIST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무학과	○		
전형명	학교장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학업역량 면접 20분, 학업외역량 면접 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학업역량면접 준비 40분 → 학업역량면접 20분 ◆ 학업외역량면접 준비 15분 → 학업외역량 면접 15분		
유의사항	◆ 블라인드 면접. 준비장과 답변장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곱씹어보는 것이 중요함.			

질문 및 답변 내용

◆ 학업외역량 면접

Q : 캠프피아에서 ‘갯잎의 항균작용 탐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이에 관해 설명해주세요.

A : 갯잎의 ‘페릴라 알데하이드’ 성분이 나타내는 항균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두부, 고기, 식빵이 부패하는 정도를 관찰했습니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갯잎을 대조군으로 설정했고, 갯잎을 자르거나 빵거나 가는 처리를 해서 음식에 갯잎을 올렸습니다. 부패과정에서 나타나는 냄새를 직접 맡고, 곰팡이의 정도를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Q :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해주세요.

A : 실험을 진행했을 때 실제로 갯잎을 음식에 그냥 올렸을 때보다, 빵아서 올렸을 때 곰팡이가 피어난 시점이 이틀이나 느렸습니다.

Q : ‘Ooho’가 어떤 뜻인가요? (진로 희망 사유에 살짝 언급된 활동)

A : ‘Ooho’는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물병입니다. ‘Ooho’가 정확히 어떤 약칭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한 대학교 학생이 만들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Q : ‘Ooho’는 어떻게 만드나?

A : 물이 담긴 비커에 젯산칼슘과 알긴산나트륨을 적당량 넣어주고, 조심히 저어주면 젯산칼슘과 알긴산나트의 응고 때문에 물병 안에 물이 갇히게 됩니다. 이 친환경 물병을 찢어서 안에 들어 있는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Q : ‘Ooho’가 상용화된 건가?

A : 젯산칼슘과 알긴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응고하는 정도가 다르고, 또 젯는 과정에서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면 물병 안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므로 만드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Q : 이제 제시문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A : 답변함.

Q : 마지막 하고 싶은 말?

A : 저는 집중력과 집념이 강합니다. 따라서 저는 2학년 때 친구들이 모두 하교한 후, 아무도 없는 학교에 남아서 자정까지 자습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능력은 나중에 카이스트에서 식품 신소재를 연구할 때,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끝까지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인터넷에 떠도는 면접 예상 질문들을 보고 대비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어 보고 예상 질문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모든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모의면접을 해 본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모의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이 그대로 나오기도 해서 답변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카이스트는 생기부 기반 면접의 비중이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상 질문에서 거의 다 나왔을 정도로 평이한 질문만 하셨습니다.
- ◆ 수학/과학 문제풀이 면접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난이도도 매우 어렵고, 과학 II 과목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면접 대비를 하는 동안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학 4문제 중 1문제를 풀고 답변장에 들어갔고, 교수님께서 그 풀 문제조차 답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한 문제도 풀지 못해 0점을 받은 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힌트를 계속 주려고 노력하셨고, 답변장에서 2문제를 풀어 점수를 받았습니다. 화학의 경우는 문제를 틀려도 답이 맞는지 틀렸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으셨고, 힌트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답을 알아봤는데 절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수학/과학에서 저는 절반도 맞추지 못한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학업외역량’ 제시문을 답변할 때 교수님의 반론을 제 나름의 논리로 재반박하는 등 매우 잘 대답했고, 학업외역량에서 고득점을 한 것 같습니다. 즉, 학업역량 평가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학업외역량 평가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평가에서 내신이 좋은 것도 최초합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물론 학업외역량 평가에 자신이 없는 지원자들은 학업역량 평가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 수학/과학 연습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카이스트가 ‘연구중심 대학’인 것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기원은 합격자들이 다른 종합대학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지원 대학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원자들을 좋아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1차는 무난히 통과할 것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KAIST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무학과	○		
전형명	고른기회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1시간 30분 ~ 2시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문제풀이)
	면접절차	◆ 면접대기실에서 대기 후 자기 순서 부르면 나감. ◆ 학업역량 면접 준비 40분 (수학, 과학 문제) → 학업역량 면접 20분 ◆ 학업외역량 면접 준비 15분 → 학업외역량 면접 15분 (제시문 답변 + 생기부 기반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질문 및 답변 내용				
◆ 학업역량은 수학과학 문제 풀기, 학업외역량은 제시문 + 생기부 기반 ◆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만 후기함.				
Q : 빅데이터 관련해서 다양한 과에서 할 수 있는 데 왜 굳이 이 과에 지원했나?				
Q :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Q :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다 보면 학업적으로 힘들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Q : 면접관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역학에서 어려움을 겪어 선배 멘토의 도움을 받았다. 만약에 멘토가 없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Q. 빅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뒤로는 제시문에 대해 질문을 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수학, 과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평소 실력을 많이 쌓아두어야 할 것 같다. ◆ 제시문은 갈등 해결 관련해서 나오며 질문도 많고, 답변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속 질문하심. ◆ 학업외역량에서 자소서, 생기부 관련 질문은 거의 없었고, 뭔가 면접관님이 궁금한 것을 계속 질문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 질문에 관해서 설명을 덧붙이심. ◆ 오전 면접이면 면접시간 + 대기시간 너무 길다. (오전 7시 반에 들어가서 오후 1시 반 지나고 나서야 일괄 귀가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UNIST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이공계열		○	
전형명	일반전형(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0~12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8시 20분 건물 입장 - 대기실 출발 - 대기 - 10분 제시문 - 약 3분 대기 - 입장(두 명의 면접관)		
유의사항	◆ 교복 착용 금지 ◆ 신분증, 수험표 필수 ◆ 제시문 종이 받기 전 대기시간 동안은 자유			

질문 및 답변 내용

- ◆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 급하게 의자에 앉으라 하셔서 당황했음. 자기소개 같은 질문은 없었고 곧바로 제시문 풀이를 시작했음.
- ◆ 문제 1. 오존층이 대기에 축적되면서 육상생물이 출현했다는 제시문: 자외선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자외선은 220nm~ 400nm이다.)
- ◆ 문제 2. 파장에 따른 빛의 세기 그래프 주어짐. 250nm 부근에서 여러 색의 빛의 세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띠. 그래프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시오.
- ◆ 문제 3. 한 그래프는 오존 밀도에 따른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다른 그래프는 고도에 따른 기압의 변화량. 20~30Km의 대기를 지면으로 당겨왔다고 가정했을 때, 대기의 두께를 구하시오. (단, 온도 변화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
- ◆ 문제 4. 3O₂(산소분자)가 자외선을 받으면 2O₃(오존)가 됨. 그 반대의 반응도 일어남. 이러한 광해리 반응을 고려할 때, 오존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상공 22Km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 ◆ 문제 5. 미래에 테라포밍(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의 환경을 지구의 대기와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 이 행성의 오존층의 고도가 낮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을 확인했음. 오존층의 고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시오.

Q : 첫 번째 질문 답해주세요.

A :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의 형성으로 인해 육상생물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통해, 자외선은 인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Q-1 : 혹시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나요? 바다에 갈 때 우리는 뭘 바르죠?

A : 아! 답변하겠습니다. 자외선은 인간에게 유해한 생물의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Q-2 : 살균작용을 말하는 건가요?

A : 네. 맞습니다.

Q : 그럼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A : 답변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볼 때 빨간색과 노란색 빛을 제외하고는(흡수량 거의 없는 양상) 파장이 250nm 부근에서 전부 흡수되거나 상당량이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파장이 300nm를 넘어서면 흡수량의 차이가 별로 없어 모든 색의 빛의 세기가 일정한 수준에 수렴합니다.

Q-1 : (잠깐 침묵하다가 망설이시더니) 혹시 자외선의 파장을 알고 있나요? 그러면 더 깔끔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A : (바로 위 조건을 보고) 자외선은 220에서 400nm 사이의 파장을 가집니다. 그중 250nm에서 그 흡수량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 좋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A : 면접관님, 구하는 대기의 두께가 전체의 대기의 두께입니까, 혹은 성층권에서의 대기의 두께입니까?

Q-1 : (천천히 문제를 설명해주시면서) 성층권에서의 대기를 구하면 됩니다.

A : 면접관님,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Q-2 : (웃으면서) 편하게 하세요. 남은 시간은 본인의 것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A :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20~30km에서의 기압은 4kPa과 1.1kPa 사이입니다. 지면에서의 기압은 100kPa입니다. 20Km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의 기압은 지면에서의 기압의 1/25배입니다. 성층권의 대기의 두께가 40Km이므로 구하는 대기의 두께는 40km에 25를 나눈 1.6km입니다.

Q-3 : 접근은 다 좋은데 숫자가 조금 아쉽군요. 제가 말한 성층권의 대기는 20~30km의 대기를 말한건데.

A : (바로) 원래 대기의 두께가 10km이므로 25를 나눈 0.4km입니다.

Q : 좋아요. 그럼 4번 문제로 가볼게요.

A :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A : 5번문제의 행성은 위의 그래프의 양상을 지니는 행성입니까?

Q :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상천외한 답변을 원하는 문제입니다.

A :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행성의 기압을 낮춘다면 오존층의 고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세요?

A : 준비한 답변을 함.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처음에는 면접 15분을 진행하고 시간이 남으면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따로 시간을 알려주시는 도우미분들이 없었음. 면접이 빨리 끝난 것일 수도 있음.
- ◆ 중간중간에 말이 막히거나 해도, 면접관님들이 도와주시고 힌트도 많이 주심. 눈치 있게 이걸 캐치하는게 중요한 듯.
- ◆ 제시문 풀이할 때 3분, 1분 남았을 때 도우미분이 알려주심. 그리고 준비 시간에 문제를 어느 정도 요약해서 베껴 적는 게 중요함. 제시문 준비 시간 끝나고 면접 들어가기까지 약 3~5분 여유가 있었음. 그때 더 생각을 할 수 있음.
- ◆ 생기부, 자소서 기반 질문이 UNIST는 많이 없는 것 같음. 문제 난이도와 풀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듯.
- ◆ 굳이 너무 일찍 갈 필요는 없음. 특히 아침에는 추워서 힘들었음. 입장 20분 전에만 오면 될 듯.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UNIST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이공계열		○	
전형명	일반전형(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1시 30분 고사장 입실(1시 30분까지 입실이 아닌 1시 30분이 되어야 문을 열어줌)- 1단계 수험표 있는 준비실로 입실- 휴대폰 전원을 끈 뒤 정해진 순서대로 면접을 봄(내 순서는 세 번째라 처음에 갔음)- 제시문 풀이 10분 (1분 남았을 때 공지해 줌)- 입장(면접관 2분)		
유의사항	◆ 교복착용 금지, 신분증, 수험표 지참 ◆ 1단계 합격 종이 안 들고 가면 자기 대기실 찾는 데 오래 걸림 ◆ 제시문 받기 전 대기시간 자유(자는 사람도 있었음) ◆ 제시문 풀이 후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필기구 만지면 탈락			

질문 및 답변 내용

자기소개 없이 바로 제시문을 진행함.

<제시문>

모기는 제일 위험한 동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모기를 제거하기 위해 나라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불임 수컷 모기를 개체군에 넣는 방법이 있다. 불임 수컷 모기와 일반 암컷 모기가 교배하면 새끼는 불임이다.

◆ **문제1.** 일반 수컷 모기 100마리와 일반 암컷 모기 100마리가 있는 무리가 있다. 이 무리에 불임 수컷 모기 100마리를 넣어도 모기를 박멸시킬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모기를 박멸시키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단, 모기가 10마리 이하로 있을 때 모기를 박멸했다고 한다.)

◆ **문제2.** 어떤 개체군에서 10,000마리의 모기에 마이크로 칩을 부착해 이를 서식지로 다시 넣어주었다고 생각하자. 이후 일별로 100마리 씩 표본을 추출해 마이크로 칩이 부착된 모기의 수를 조사했는데, 표는 다음과 같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7	5	4	4	3	4	4	4	2	1

2-1. 평균적으로 하루에 4마리의 모기가 마이크로 칩을 부착하고 있었다. 이때, 총 개체군의 수는 얼마인가?

2-2. 첫 3일과 마지막 3일에 마이크로 칩을 부착한 모기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 **문제3.**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환경에 해가 되는 동물을 멸종시키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가? 그 이유는?

<생기부 기반>

Q : 지원동기가 뭐죠?

A : 원래 연구를 하고 싶어 과기원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소재에 있어 유니스트가 제일 특화되어 있기에 유니스트에 지원하였습니다.

Q : 올해 노벨 화학상이 무엇인지知道吗?

A : 물리학상은 아는데 화학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Q : DNA가 무엇인지知道吗?

A : 네. 생물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Q : DNA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A :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Q : DNA와 RNA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A : DNA는 이중나선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RNA는 단일 나선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유라실과 티민의 차이를 얘기하려 했으나 말을 끊으심)

Q : 코돈이 무엇이죠?

A : 염기가 3개 묶여있는 것을 코돈이라고 합니다.

Q : 학교생활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A : R&E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해본 심화 연구 활동이고, 이를 통해 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결론은 어떻게 내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Q : 어떻게 연구했죠?

A : 저희 RNE의 주제는 ‘초전도체의 임계온도 측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질화니오븀을 이용해 임계온도를 측정하였는데, 먼저 진공증착법 중 하나인 스퍼터링을 이용해 5nm의 박막을 증착시켰습니다.

Q : (말을 끊으시며) 스퍼터링 할 때 기체는 무엇을 사용했죠?

A : 질소와 니오븀 기체를 이용했습니다.

Q : 기관은?(여기서부터 잘 못 알아들음)

A : 산화규소 기관을 사용했습니다.

Q : R&E를 어디서 했지?

A : 포스텍에서 진행했습니다.

Q : 아...(이해하시는 표정이셨음) 네 그럼 측정은 어떻게 했죠?

A : 딥스틱이라는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장비에 박막을 부착하여 인듐을 이용해 와이어링 한 뒤 측정하였습니다.

Q : 네 알겠습니다. 자소서를 보니 핵융합과 관련해서 활동이 많네요.

A : 네. 제가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해 제가 하고자 하는....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몇 초간 말을 정리함) 네. 제가 앞으로 해나갈 연구가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연구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핵융합에도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핵융합도 대체에너지니까요.

Q : 핵융합과 핵분열의 차이를 아나요?

A : 핵분열은 우라늄과 같은 원자핵을 충격을 통해 두 개의 다른 원자핵으로 분열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고, 핵융합은.. 흔히 수소핵융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륨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수소원자핵을 플라즈마를 통한 높은 에너지로 융합시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Q :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데, 관련 분야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A : 잘 모르겠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장에 들어가면 답변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긴장이 된다는 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교수님들께서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후반에는 말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제시문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 부족한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과학 관련한 최근 소식을 알면 유리할 것 같다.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UNIST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이공계열	○		
전형명	일반전형(학생부종합)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2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번호순으로 약 30명을 한 조로 구성하여 대기실로 입장 ◆ 입실 시간 지나면 유의사항 알려주시면서 전자기기 이름표 붙여서 수거 ◆ 한 조를 또다시 세 조로 나누고 각각의 조에서 2~3명씩 불러 나감 ◆ 불러 나가게 되면 위층의 면접 직전 준비 공간 좁은 복도에 면접실 바로 옆에 책상 3개씩 있고 면접 바로 전 순서인 학생은 제시문 풀고 나머지 학생은 앉아서 대기 (화장실 출입 가능) ◆ 제시문 순서가 되면 10분이 주어지고 제시문이 있는 파일, A4용지, 연필, 볼펜, 붓펜 등의 필기구 제공 ◆ 10분이 지나면 감독관께서 제시문과 필기구 가져가심. A4용지는 계속 볼 수 있고 앞 차례의 면접이 끝날 때까지 생각 할 수 있음. ◆ 자기 차례가 되면 면접실 입장, 면접관 두 분 약 3m가량 떨어진 책상에 앉음. 책상 위에 제시문 파일 있음 ◆ 면접이 끝나면 안내하시는 분의 안내를 따라 다른 학생과 접촉이 없도록 계단을 내려와 경영관(면접하는 장소)을 빠져나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복 착용 금지, 기타 금지 사항은 보통 면접과 비슷, ◆ 이름, 수험번호 언급 가능, 대기 시간 동안 자신이 가져온 자료 볼 수 있음, 물과 굴 준비되어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제시문 풀어볼까요? (바로 진행해서 살짝 당황)

A : 네. 먼저 1번을 살펴보면 9~10월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고, 3~4월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3~4월에는 겨울 때의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 이 영향이 조금 시간이 지난 후인 3~4월에 영향을 미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고, 9~10월에는 난방기구 사용은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이 야외로 활동을 나가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Q : 여름에는 에어컨 많이 사용하는데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 활동으로 인한 영향은 크게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요. 학생이 대답한 거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A : 여름에도 에어컨은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름에는 야외로 활동 나가는 사람이 많으므로 에어컨으로 인한 효과는 겨울의 난방기구보다는 영향을 덜 줄 것 같습니다.

Q : 다른 요인은 없을까요?

A :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네, 대답하겠습니다. 북반구는 남반구보다 비교적 육지가 많이 분포해 있고, 반대로 남반구는 북반구보다 해양 분포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즉, 북반구가 여름이 되면

남반구는 겨울이고, 북반구가 겨울이면 남반구는 여름이 되는데요. 남반구가 겨울이면 온도 하강으로 인해, 해양의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때 북반구는 여름이겠죠. 반대로 북반구가 겨울일 때, 즉 남반구가 여름일 때 해양의 기체 용해도 감소로 인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 대답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은 듯, 나중에 알고 보니 정답은 광합성이지만 논리적 답변으로 인해 좋은 점수를 받음)

Q :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2번 풀어보세요.

A : 네. 우선 매년 일정한 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표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약 2ppm 씩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67년 즉, 50년이 지났으므로 $2 \times 50 = 100$ 을 더하여 506ppm이 2067년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가 될 것입니다.

Q : 매년 일정한 양이 증가한다고 가정한 것이군요? (제시문에 문제를 풀기에 앞서 가정을 하라고 나눔)

A : 네.

Q : 3번 풀어보세요.

A : 네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평균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요인들에 의해 기온이 진동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농도의 영향으로 인해 기온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Q : 이산화탄소가 기온 증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A : 네. 아마도 온실효과로 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Q : 요즘 온실효과가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말이 많은데~ 그럼 밑의 그래프를 해석해보세요.

A : 네. 지구 외적 요인(이심률을 이용해 설명)에 의해서 기온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Q : 생기부 면접해 볼게요. 생기부를 보니 화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화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뭐죠?

A : 동아리에 가입하여 간단한 실험부터 이런저런 어려운 실험을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함. 고급화학 수강하여 이론적 내용에도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내용 말함.

Q : 성적을 보니 과학, 영어 외의 성적이 낮은데 이유는 뭔가요?

A : 사람의 성적이 낮은 이유가 다른 과목에 비해 흥미가 떨어져 투자한 시간이 적다는 내용 말함

Q : 유니스트와서 전공하고 싶은 분야는?

A : 화학공학부에서 그중에서도 반응 공학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다는 내용(자소서와 연관 지어서 설명해 드림.) (말하는 도중에 시간 10분 됐다고 문 노크함)

Q :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재치를 발휘하여 논리적인 답변으로 면접을 이어나가고 끝까지 주눅이 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답한 점이 합격한 결정적 이유인 듯
- ◆ 일단 무조건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물론 무작정 말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흐름을 구상해서 논리적으로 답변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면접은 모두에게 어렵고 떨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낸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국군간호사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O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각 분과마다 약 10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O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과에 혼자 들어가 면접. 순서는 거기서 정함. 1분과 3명, 2분과 4명, 3분과 3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조, 오후조 나눠서 오후 조면 오전에 피복체춘, 오후에 면접, 오전조는 반대 ◆ 분위가 편함. 다들 웃어주심. ◆ 군사, 시사 질문X. 1일 차에 한 약술에서 질문 나옴. 근데 쉽게 답할 수 있는 정도. 평소 학교 수업에 충실했으면 충분히 답할 수 있음. ◆ 생기부, 자소서에서 거의 물어봄. 분위기 푸는 질문도 함. ◆ 1일차, 2일차에 시간 많이 남아서 면접 공부할 시간 많음. ◆ 리더십 관련 질문 많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생기부 보며) 활동 많은 거 보니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몇 명 있어요?

A : 2명 있습니다.

Q : 그 친구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A :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친구인데,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옆에서 계속 응원해주고 싶은 친구이고 한 명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쪽 함께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싸워서 헤어지고 고등학교를 우연히 같은 곳에 오게 되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먼저 사과해서 다시 함께한 친구라서 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느낌입니다.

Q : 우리 학교 오니 어땠어요?

A : 이 학교에서 만난 생도선배님들처럼 이 학교에 꼭 다니고 싶고 식당에서 응원부 생도 선배님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응원부 옷이 너무 멋져서 저도 이 학교에 와서 응원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Q : 리더십 발휘할 때의 나의 장단점은?

A : 제 장점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맡으며 신뢰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사람들을 이끌 때 사람들이 제 말을 믿고 잘 들어줄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단점은 정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카리스마를 보여한다는 점에서 정에 약한 제 성격은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친구가 제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친구로서 생각하지 않고 한발짝 뒤로 물러나 제 3자의 입장에서 친구의 얘기를 판단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Q : 처음 만난 친구에게의 자신의 장단점은?

Q : 리더십 발휘할 때 어려웠던 경험은?

A : 2학년 때 실장을 맡아 체육대회 반티를 정하는데 의견이 잘 안 맞아서 힘들었던 경험 얘기함.

Q : (자소서) 취미 바다산책에 대한 질문함.

A : 저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바람을 쐬며 산책을 하였습니다. 수평선을 보게 되면 저를 읊아매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접관 한 분께서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심)

Q : 자신을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 생각하나요?

A : 8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점을 깎은 이유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며 노력하고 조심했지만, 실수를 했을 수도 있으니 1점을 깎았고 나머지 1점은 국간사에 와서 채우고 싶습니다.

Q : 국간사 준비할 때 힘들었던 점?

A : 아무래도 체력준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남은 시간에 학교 체력단련실에서 근력운동을 하고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후에는 학교 운동장을 함께 뛰며 체력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Q : 진로 변경 이유.

A : 평소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들 꿈나무들을 교육하기 위해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의학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상담에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대해 찾아보니 제가 이 학교를 나와 간호장교가 된다면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까지 지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 (3분과 모두 똑같이 얘기함) 이 곳에 오기 전에 선생님들께 인사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저는 훌륭한 간호장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숙여서 인사드리지만 다음번엔 꼭 경례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Q : (2분과에서만) 그럼 지금 한번 경례 해주세요.

A : 네. 충성!

Q :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면접 잘 봤다고 느낌. 밝고 자신감 넘치는 게 중요.
- ◆ 면접 질문이 어렵지 않음. (평소 생각하던 걸 얘기함. 굳이 꾸미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함.)
- ◆ 체력 시험 걱정했으나 엄격하게 안 봄.
- ◆ 약술 걱정 필요 없음. 주제가 어렵지 않음. 정말 학교 수업에 평소 충실했으면 적을 수 있다!
- ◆ 예상 질문에서 많이 나왔음.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문제도 다시 나올 수 있으니 기출문제 확인하면 좋을 듯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공군사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		
전형명	일반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약 10분~15분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 대기실에서 대기(영화 상영) ◆ 군복 사이즈 측정 ◆ 대기실에서 나와 밖에 의자에서 대기 ◆ 첫 번째 면접 ◆ 나와서 대기실에서 대기 ◆ 대기실에서 나와 밖에 있는 의자에서 대기 ◆ 두 번째 면접 			
유의사항					
질문 및 답변 내용					
<p>◆ 첫 번째 면접</p> <p>Q : 추천서에 담임 선생님이 항공에 미쳤다고 적어놨는데 왜 그런 거 같아? A : 제가 1학년 때부터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p> <p>Q : 어떤 활동을 했나? A : 동아리에서 부스 활동으로 드론을 날리기도 하고, 풍동실험 같은 것도 했습니다.</p> <p>Q : 풍동실험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지? A :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고 모형을 통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p> <p>Q :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봐. A : 스티로폼으로 모형을 만들고 기류를 관찰하기 위해서 향을 피웠고,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었습니다.</p> <p>Q : 그래서 어떤 걸 보고 느꼈지? A : 날개 위쪽의 기류는 아래쪽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양력의 발생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p> <p>Q : 자소서에 아버지가 외국에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셨나? A :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작년까지 외국에 나가 계셨습니다.</p> <p>Q : 아버지랑 떨어져 지내니 어떤 걸 느낄 수 있었나? A : 가족이랑 있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을 잊기 쉬운데 저는 그러한 소중함을 느꼈습니다.</p>					

Q : 어렸을 때 가난했었다고 했는데 가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 저는 가난 역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환경이 올바른 곳에서 자라며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두 번째 면접

Q : 본인이 군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점과 단점 1개를 말해보세요.

A : 일단 끈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끈기를 구체적으로 발휘한 적이 있나요?

A : 그거는 현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끈기 있게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Q : 얼마 전에 풍산고 학생도 왔다 갔는데 안동고가 좋나 풍산고가 좋나?

A : 당연히 안동고가 더 좋습니다.

Q : 공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아는 거 있을 텐데 하나만 말해보세요.

A : 교훈 말해보겠습니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체력이 좋은 편이었고 생기부 진로희망도 파일럿으로 써서 진성 지원자라는 인상을 깊게 준 것 같다.

◆ 당부할 점 :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말하기(군인처럼 딱딱하게 말하다 지적당함)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육군사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		
전형명	일반 우선			
면접 형식	면접시간	1박 2일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체력검정, 7분과 면접시험, 신체검사		
유의사항	◆ 7분과 면접 ◆ 교복 절대 착용 금지 ◆ 체력검정 준비 필수			

질문 및 답변 내용

Q : 1분과-집단토론 (즉석 주제: 육군사관학교 입학 연령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가)

*** 일정 시간이 주어지고 응시생들이 찬, 반을 나누어 자율적으로 토론**

입론 : 저는 육군사관학교 입학 연령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육군사관학교는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입학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생도가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론 : (나이가 많을 시에 원활한 훈련을 받기 체력적으로 힘들) -> 이미 2차 시험에 체력 검정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체력이 좋지 않을 경우 육군 사관생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즉 육군사관 생도가 된 사람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은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생략)-다 기술할 수 없어 일부 생략

Q : 2분과-구술면접 (주제: 주어진 보수와 진보 관련 자료 요약 후 자신의 생각 서술)

*** 주제는 문, 이과 다름, 전날 밤에 자료를 주고 자율적인 시간을 줌, 면접관님들의 질문이 까다로움**

A : 현재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제 강점기라는 위기에서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신간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힘을 합쳤습니다. 이를 본받아 현재의 우리도 보수와 진보가 대한민국 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생략)-다 기술할 수 없어 일부 생략->중심 내용만 기술함. (질문과 답 생략)

Q : 3분과-학교 생활기록부(압박 면접)

***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관님들이 질문함**

A : 봉사나 학교 임원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질문이 들어옴, 장래 희망이 육군사관학교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련 질문이 들어옴.

Q : 4분과-자기소개서 면접

*** 전날에 작성한 자기소개서2(제한 시간 있음-준비 필수)를 바탕으로 질문이 들어옴**

A : 자기소개서2에 자신만의 이야기나 환경 등을 녹여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자기소개서2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면접을 이끌어 갈 수 있음)

Q : 5분과-외적 자세

A: 발음이 어려운 문장을 읽기, 큰소리로 외치기, 경례, 차렷 등을 함
(복장에 대해 칭찬을 해주시거나 머리를 짧게 정리한 이유 등을 질문하기도 함)

Q : 6분과-심리검사

A: 전날에 실시한 심리검사를 바탕으로 질문하심, AI 면접 때 했던 자기소개와 자신의 장, 단점을 말해보라고 하실 때도 있음, 전날에 실시한 심리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질문이 없을 수도 있음.

Q : 7분과-종합 판정

A: 육군사관학교에 진짜로 오고 싶은 이유에 대한 질문과 특이사항 관련하여 질문하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나 각오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음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면접관들께 '나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것을 잘 호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서류상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면 오히려 면접 분위기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육군사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5	
전형명					
면접 형식	면접시간	대기시간에 따라 최소 3~4시간에서 만나절까지 소요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면접절차	◆ 7개의 절차를 거침. 집단토론을 제외한 모든 분과가 교수님과 3 : 1 면접			
유의사항	◆ 교복 착용 불가 ◆ 대기시간에 자료 볼 수 있음.				

질문 및 답변 내용

Q : 집단토론

A : 5명 정도가 한 조로 구성되어 토론 주제를 제비뽑기로 선정함. 주제에 따라 찬반을 나누고, 균형 있게 나누지 않으면 다시 뽑을 수도 있음. 이 과정에서 찬반입장을 조원들과 타협해서 가지면 좋음. 답변 준비 시간을 몇 분간 가진 뒤, 바로 면접실에서 토론을 진행함. 면접관의 개입은 거의 없음.

Q : 구술면접

A : 면접 전날 저녁에 약술시험지를 줌. 저녁 동안 본인이 가져온 자료를 참고하여 답변을 준비할 수 있음 (나는 공교롭게도 준비했던 자료가 문제로 나와서 쉽게 답할 수 있었음. 고로 면접 준비자료는 많이 준비할수록 좋음. 면접 자료는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카페에 많고, 수만휘에도 있었던 걸로 기억. 그 외에도 많이 찾아보길 바람). 면접 날에 그 약술시험지의 지문을 2분가량 요약하고, 지문에 대한 제 생각을 피력함.

Q : 생기부 기반 면접

A : 말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대한 질문. "책을 많이 읽었는데, 모두 완독한 것인가요?" - "대부분 완독했고,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은 매우 어려워서 발췌독했습니다.",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비법이 뭐가요?" - "초반에는 무작정 시작했지만, 성적이 오르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꾸준히 열심히 한 결과, 자연스럽게 성적이 올랐습니다." 등등... 평소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숙지하고 있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음.

Q : 자소서 기반 면접

A : 이 분과가 특이점을 가짐. 육사 2차 면접 가기 전에 제출서류에도 자기소개서가 있지만, 육사에 가서도 컴퓨터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간을 가짐. 자기소개서가 침착되고, 깔끔히 정제되는 과정을 배제해 진정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함인듯함. 들어온 질문을 생각해보면 거의 육사에 와서 쓴 자소서에서 질문한 것 같음 (질문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 봉사한 경험과 같은 질문들이 10개 정도.)

Q : 외적 자세

A : 좀 엉뚱한 면접임.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닥의 화살표를 따라 곧게 걸어가서 차려자세로 선 뒤, '간장 공장공장장' 같은 발음을 확인하는 문장을 큰 소리로 말해보라 하고, 최대한 크게 소리 질러보라고도 함. 또 이상한 자세를 알려주며 따라 해보라고도 함.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찌렁찌렁한 목소리와 곧은 자세임. 참고로 이 방을 제외한 다른 방에서는 찌렁찌렁하게 말하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함. 그렇다고 너무 작은 목소리로 해선 안 됨. 힘 있으면서 적당히 큰 목소리로.)

Q : 심리검사

A : 육사에서 첫째 날에 하는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간단한 질문을 함. 성격의 장단점이 뭐냐, 인간관계는 어떨냐 등등... 여자친구 있냐고도 물어봤음.

Q : 종합판정

A : 다른 방에서는 모두 소령~대령의 육사 교수들이 면접하지만, 이 방에서는 중간에 육군 준장이 있음. 학교 선생님께서 써주셨던 추천서를 바탕으로 한 질문도 하고, 무겁지 않은 질문을 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도 물어봄.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 ◆ 육사 면접은 1박 2일로 이루어지며, 집이 먼 사람은 사전 숙박을 신청하여 그 전날 상경해서 육사에서 하루 더 자면 됨.
- ◆ 첫째 날에는 체력검사와 심리검사 같은 것을 하는데, 체력검사에서 오래달리기가 과락점수가 나오면 그냥 불합격이고,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는 과락점수를 받게 되면 우선선발에서만 제외되며 정시선발 전형으로 넘어가게 됨. 이 경우는 수능을 잘 쳐야 함.
- ◆ 심리검사는 큰 문제가 없다면 괜찮음. 다만 1,000문제 넘게 해야 해서 좀 힘들. 둘째 날에는 면접과 신체검사를 하는데, 신체검사도 큰 문제가 없다면 괜찮음.
- ◆ 면접을 전반적으로 잘 봤음. 그러나 전날 체력검사에서 윗몸일으키기와 오래달리기는 잘했지만, 팔굽혀펴기에서 과락을 맞는 바람에 우선선발에서는 제외됨.
- ◆ 육사를 준비한다면 실기 종목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함. 나의 경우는 축구는 좋아해서 윗몸일으키기와 오래달리기는 준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으나, 팔운동을 평생 해본 적이 없어 팔굽혀펴기에서 쓴맛을 봤음.
- ◆ 평소 운동하지 않았던 부위는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힘들. 또, 육사는 다른 일반 대학과 달리 육사가 요구하는 군인정신, 국가관, 안보관 등이 있음. 그런 것을 직접적인 질문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이를 자료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숙지해서 면접할 때 본인의 답변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는 것이 좋음.
- ◆ 그리고 신문을 읽어보며 시사에 대해 알고, 해당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음.

2020학년도 대입 면접 후기

대학명	해군사관학교	최초합격	최초 예비번호	불합격
학과명				
전형명	학교장추천전형			
면접 형식	면접시간	2박 3일 (분과별 면접+체력 검정/각 면접은 6~7분 내외)		
	면접유형	서류 기반	제시문 기반	기타
		○	○	○
	면접절차	◆ 1일차 - 설문조사 및 절차 안내 ◆ 2일차 - 안보관 국가관 인성 면접(면접관 4~6명) 및 잠재역량평가 (심사위원 4명), 체력 검정(심사위원 1인당 1명) ◆ 3일차 - 생도대장 면접 (면접관 2명)		
유의사항	◆ 군대이니만큼 항상 몸가짐에 주의. ◆ 대답과 답변은 크고 간결하게			

질문 및 답변 내용

◆ 면접 및 잠재역량평가

해사 2차 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보관·역사관·기본자세 면접, 인성·품성·적응력 면접 그리고 잠재역량평가까지 총 3번의 면접을 봅니다(다음날 진행되는 최종면접까지 합하면 총 4회). 50명 가량을 반으로 나누어 (문.이과) 한 팀은 면접2번 진행 후 잠재역량평가, 다른 한 팀은 잠재역량평가 후 면접2번 진행됩니다.

안보관·역사관·기본자세 면접은 면접자 1명과 면접관 4명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면접실에 들어가면 간단한 제식 시험 후 면접이 시작됩니다.

차렷, 쉬어, 열중 쉬어, 좌향좌, 우향우,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거수경례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본 면접에서는 첫 번째 설문조사 때 대답한 내용, 최근 군 관련 이슈, 최근 대외 이슈, 기초 역사 상식 정도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나올 것 같은 최근 이슈나 중요한 역사적 사실 등은 미리 숙지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는 주한미군 이슈와 연평해전 관련 질문 나왔습니다.

1. 군 관련 최근 이슈(2019년 기준)

- 중국 러시아 영공, 방공식별구역 침범
- 지소미아 폐지
-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 항공모함 건조 계획
-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 일본의 일방적 경제 제재와 일본 불매 운동
- 미국 주도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 삼척항 북한 목선 사건
- 제2함대 거짓자백 사건

- 미국의 동아시아 국가 미사일 배치 계획
- 2018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 북한의 핵시설 폐기 상황

2. 빈출 이슈 및 문제

- 해군사관학교, 해군 기본 정보 (자신이 희망하는 병과, 되고 싶은 직함, 현 해군참모총장, 현 해군사관학교 교장, 해사 교훈, 현 국방부 장관 정도는 숙지합니다.)
- 6.25전쟁, 임진왜란 등 주요 전쟁 (기본 전개 과정이나 연도, 날짜 정도 숙지)
- 현대 해군 사건(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등 날짜 완벽히 숙지)
- 대한민국 해군의 파병 역사 (월남전 파병, 아덴만 청해 부대 등등)
- 군 관련 상식(NLL, SOFA, 대북정책 등등...)
- 장교관에 대한 추상적 질문(명예란 무엇인가? 진정한 군인의 자세란 무엇인가? 같은 쉽게 대답하기 힘든 추상적인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 기타 사상적인 질문(우리의 주적은? 등등)

면접 질문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관련 카페(제복인, 사관학교 가는 길 등등...)에서 예상 질문과 면접 후기를 자주 보며 미리미리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 적은 것들도 매우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식 역량을 평가하는 면접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겠죠? 모르는 질문일 경우에는 편한 거짓말이나 변명 등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죄송하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공부하여 보겠다 정도의 뉘앙스로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관분들이 압박 질문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ex) 그것도 모르면서 해사에 지원했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말 중간에 끊기), (학생 대답에 무관심한 태도) 등등...입니다. 이는 면접자의 순발력과 대처 능력을 보기 위함이므로 최대한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말합니다.

인성·품성·적응력 면접은 저 기준으로 군인면접관 2인, 민간면접관 3인 총 5인의 면접관과 한 명의 면접자로 진행됩니다. 비교적 안보관 면접보다는 편한 분위기이므로 긴장이 한층 덜합니다. 자신을 너무 미화하고 꾸미듯이 연기하기 보다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이 면접에서는 면접자의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첫째 날 설문조사 결과 등을 베이스로 진행됩니다. 첫째 날 설문조사 결과 관련 질문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대충 답변방향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기부, 자소서는 꼼꼼하게 읽고 예상 질문들 생각해 두세요. 동기나 진로 관련 등 중요한 사항은 미리 준비해갑시다.

잠재역량평가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집단토론 등 이것저것 많이 시켰던 걸로 아는데, 올해부터 확 간소화되어 1시간 정도 만에 끝납니다. 총 12명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6명씩 팀을 이루어 평가합니다. 기본적인 틀은 특정한 상황이나 미션을 주고, 주어진 시간 안에 팀이 협력하여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의 잠재역량평가는 극비사항입니다. 해사 측에서 굉장히 공들여 만든 면접이고, 이 때문에 시험내용 유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험을 진행하면서 이 시험에 대비를 하고 왔다는 티를 내면 절대 안됩니다. 항상 처음 보는 상황인척, 어느 정도는 당황한 척도 필요합니다. 시험 내용과 공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 본인 기준)

배경은 흥남철수로 주어집니다.

현재 아군 적군 육지 병력의 상황, 해상 지뢰의 상황, 적 대공병력의 상황, 주변 지형과 지도 등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사히 철수를 진행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작전명을 정하고, 작전의 세부사항과 주의사항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대략 20분 정도 작전 회의 시간과 계획서 작성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합니다. 6명에서 2명씩 발표자, 질문자, 답변자를 맡아 수행합니다. 발표자는 발표를 진행하고, 질문자는 상대팀의 발표에서 궁금한 점이나 허점을 질문합니다. 답변자는 상대방의 질

문에 답변을 합니다. 잠재역량평가는 팀별로 이루어지는 면접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들과 빠르게 친해져 의견을 주고받을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면접 번호대로 같은 팀이 될 확률이 높으므로, 자신의 숙소 룸메이트나 인접 번호 참가자와는 시험 전 미리 인사를 나누고 친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험 전 파이팅을 외치고 고 제안하면 팀원간 분위기도 좋아지고, 평가자분들도 좋게 봐주십니다. 잠재역량평가에서 사회자는 끊임없이 작전의 완성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면접의 핵심은 바로 협동심과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마 조의 많은 학생들이 이를 간파하고 자신이 리더가 되어 활동은 이끄려고 할 것입니다. 최대한 리더역이 되면 좋겠지만 이를 가지고 다투거나 마찰이 생기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리더를 자처하지 못할 분위기이거나, 굉장히 주도적인 후보자와 같은 팀이 되었다면, 열심히 그 리더를 도와 팀을 함께 이끄는 것도 좋습니다. 평가를 진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르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활동의 난이도에 비해 주어지는 시간이 적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분위기로 진행되므로 팀원간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리더역을 다행히 맡게 되어서, 먼저 번호순서대로 의견을 한번씩 교환하고, 나온 내용들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해 2명씩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자고 주도했습니다. 그 후 글씨 적는 역할도 정하고 작전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도 모두 역할 분담했습니다. 리더를 자처한다고 혼자서 다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팀원간의 협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소외되는 인원이 없게 하고, 팀원 모두를 신경써야 합니다. 작전 계획서 발표 질문 후에는 그 작전 계획서를 토대로 레고를 이용해 합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대한 배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구성도 신경 쓰면서, 작전에 적어놨던 주요 기능들을 탑재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배를 만들면 사회자가 중간에 추가 조건을 제시하거나 상황이 바뀌는 등 동발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럼 당황하지 않고, 그 조건에 맞추어 팀원들과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 생도대장면접

마지막은 생도대장 면접입니다. 생도대장께서 직접 면접을 진행하시거나, 비슷한 계급의 다른 분이 면접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집이 먼 학생부터 진행되므로, 구미사는 학생은 보통 2~3시 이후에 면접 진행됩니다. 오전에는 그냥 면접 준비하시면서 쉬면 됩니다. 긴 대기시간동안 관리자분께서 해사 견학이나 산책 시켜주시기도 합니다. 볼 것 정말 많고 멋있으니까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면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이 마지막으로 할 얘기나 포부 등 준비해가면 됩니다. 물론 성향따라 안보관 관련 질문 나올수도 있고, 생기부, 자소서 관련 질문도 많이 물어 보십니다. 이 관련 자료들도 카페나 후기 살펴보면 많이 있으니 조사해두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합/불의 이유는? 후배에게 당부할 점은?

2020학년도

대입전형 면접후기 자료집

- | | | |
|-----------|----------------------|------------------|
| ■ 총괄 | 박종원 | 경북진학지원센터장 |
| ■ 기획 | 김평식 | 경북진학지원센터 교육연구사 |
| ■ 편집 및 검토 | 강경훈 | 점촌고등학교 교사 |
| | 강지영 | 성주고등학교 교사 |
| | 권순갑 | 문창고등학교 교사 |
| | 김대용 | 포항장성고등학교 교사 |
| | 선영래 | 순심여자고등학교 교사 |
| | 양우정 | 하양여자고등학교 교사 |
| | 유면영 | 선화여자고등학교 교사 |
| | 정장호 | 죽변고등학교 교사 |
| | 조성문 | 안동중앙고등학교 교사 |
| | 최상원 | 근화여자고등학교 교사 |
| | 한원구 | 경주여자고등학교 교사 |
| | 성진남 | 김천여자고등학교 교사 |
| | 이광호 | 안동고등학교 교사 |
| | 석상일 | 경북진학지원센터 대입전문연구원 |
| | 조창흠 | 경북진학지원센터 주무관 |
| ■ 발행인 | 김준호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
| ■ 발행처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 경북진학지원센터 |
| | TEL. 054) 840 - 2255 | |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경북진학지원센터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 및 복제할 수 없음.